

우리말학회 · 국어사학회 공동 2023 여름 학술대회

국어사를 활용한 국어/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모색

일시 2023년 7월 5일(수)~6일(목)

장소 부산대학교 기계관, 인덕관

주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최 우리말학회, 국어사학회

우리말학회 · 국어사학회

<차례>

일정표	
○ 기조 강연	
국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 장윤희(서울대)	3
토론문 / 박형우(교원대)	20
○ 기획발표 및 토론	
음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 신승용(영남대)	24
토론문 / 이준환(전남대)	38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 이병기(한림대)	40
토론문 / 김현주(공주교대)	56
어휘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 이동석(교원대)	58
토론문 / 김태우(부산대)	69
○ 국어사학회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몇 문제 / 윤예진(서울대)	73
토론문 / 장요한(계명대)	90
말뭉치를 활용한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 이수진(전남대)	92
토론문 / 김건희(강원대)	103
어휘 체계를 활용한 다의어와 동음어 구별 -‘났다, 모르다’를 중심으로- / 신은수(전북대) ·	104
토론문 / 정한데로(가천대)	117
내원정사 소장 <念佛普勸文>의 국어학적 연구 / 이옥희(부산대)	119
토론문 / 허인영(인하대)	133
삼촌, 사촌 계열 촌수 명칭의 발달에 대하여 / 김양진(경희대)	136
토론문 / 조정아(부산대)	150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독겁전>의 국어사적 고찰 / 선한빛(전남대)	152
토론문 / 전기량(동국대)	165
한국어 인용표지 형성 과정에 대한 試論 / 이강혁(서울대)	168

토론문 / 이주현(한남대) 186

○ **우리말학회**

국어의 접미사 절단어에 관한 연구-어말 음절‘이’의 절단을 중심으로 / 홍정현(한국교원대) 190

토론문 / 정대식(부산대) 211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구조 및 의미 특성 연구 / 김근애·김양진(경희대) · 213

토론문 / 최소영(부산대) 236

주체 높임 {-습시-}의 변천에 대한 소고 /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 238

토론문 / 조재형(전남대) 261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교육적 요소 / 박은미(부산외대) 263

토론문 / 이정민(부산대) 289

ChatGPT는 인간의 추론을 얼마나 이해할까?-전제/함의의 투사와 취소를 중심으로

/ 정우현·문서영(서울대) 290

토론문 / 김태호(부산대) 310

[표준] 뜻풀이의 메타언어적 정보에 대하여-‘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중심으로

/ 오민석(상명대) 313

토론문 / 손평효(부산대) 324

관용 표현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 최은정(부산교대) 326

토론문 / 김중수(부산대) 346

○ **포스터발표**

테마형 답사 프로그램을 통한 훈민정음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 / 박지민(고려대) 350

모피 동물 명칭의 어원과 어휘사: ‘너구리’, ‘족제비’, ‘삿’을 중심으로 / 양재영(서울대) 352

우리말학회 · 국어사학회 공동 2023 여름 학술대회 일정표

우리말학회&국어사학회 공동 2023 여름 학술대회

“국어사를 활용한 국어/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모색”

일시: 2023년 7월 5~6일(수~목)

장소: 부산대학교 기계관, 인덕관

주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최: 우리말학회, 국어사학회

7월 5일(수)		
13:30~14:00		등록
14:00 ~ 14:10	개회	차윤정(우리말학회장), 김유범(국어사학회장) 사회: 안예리(한중연)
14:10 ~ 15:10	기조 강연	장윤희(서울대): 국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사회: 최소영(부산대)
15:10~15:20		휴식
~15:50	기획 발표 및 토론	신승용(영남대): 음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16:20		이병기(한림대):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사회: 최소영(부산대)
~16:50		이동석(교원대): 어휘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17:20		휴식
~17:50		종합 토론: 박형우(좌장, 교원대), 이준환(전남대), 김현주(공주교대), 김태우(부산대)
7월 6일(목)		
08:50~09:00		등록
시간	분과	국어사학회 사회: 최미현(동덕대)
		우리말학회 사회: 강은지(부산대)
09:00 ~ 09:25	제목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몇 문제 국어의 접미사 절단어에 관한 연구 -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을 중심으로
	발표	윤예진(서울대) 홍정현(한국교원대)
	토론	장요한(계명대) 정대식(부산대)
09:25 ~ 09:50	제목	말뭉치를 활용한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구조 및 의미 특성 연구
	발표	이수진(전남대) 김근애·김양진(경희대)
	토론	김건희(강원대) 최소영(부산대)
09:50 ~ 10:15	제목	어휘 체계를 활용한 다의어와 동음어 구별-'났다, 머르다'를 중심으로- 주제 높임 {-습시-}의 변천에 대한 소고
	발표	신은수(전북대)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
	토론	정한데로(가천대) 조재형(전남대)
10:15 ~ 10:45	포스터 발표	박지민(고려대): 테마형 답사 프로그램을 통한 훈민정음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 양재영(서울대): 모피 동물 명칭의 어원과 어휘사: “너구리”, “족제비”, “삼”을 중심으로

시간	분과	국어사학회	우리말학회
		사회: 이규범(충북대)	사회: 김상수(동명대)
10:45 ~ 11:10	제목	내원정사 소장 <念佛普勸文>의 국어학적 연구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교육적 요소
	발표	이옥희(부산대)	박은미(부산외대)
	토론	허인영(인하대)	이정민(부산대)
11:10 ~ 11:35	제목	삼촌, 사촌 계열 촌수 명칭의 발달에 대하여	ChatGPT는 인간의 추론을 얼마나 이해할까? - 전제/함의의 투사와 취소를 중심으로
	발표	김양진(경희대)	정우현·문서영(서울대)
	토론	조정아(부산대)	김태호(부산대)
11:35 ~ 12:00	제목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독검전>의 국어사적 고찰	『표준』 뜻풀이의 메타언어적 정보에 대하여 -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중심으로
	발표	선한빛(전남대)	오민석(상명대)
	토론	전기량(동국대)	손평효(부산대)
12:00 ~ 12:25	제목	한국어 인용표지 형성 과정에 대한 試論	관용 표현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발표	이강혁(서울대)	최은정(부산교대)
	토론	이주현(한남대)	김중수(부산대)
12:25~12:35		우리말학회 학술상 시상 및 연구 윤리 교육	
12:35 ~ 12:45	폐회	차윤정(우리말학회장), 김유범(국어사학회장)	사회: 안예리(한중연)
현장 답사			

기조강연 및 토론

국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장윤희(서울대)

2023-07-03

우리말학회·국어사학회 공동 2023 여름학술대회
2023년 7월 5일(수), 부산대학교

국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장윤희
(서울대학교)

1

1. 들어가는 말

- 6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국어사 교육 내용
- 7차 국어 교육과정: [10-국어 지식-(2)]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문법 교육과정: [문법-(1)-다-②]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 2009년 개정 '국어II': [일반-국어II-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독서와 문법': [일반-독문-260]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 2015년 개정 '국어':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언어와 매체':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 2022년 개정 '공통국어2': [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화법과 언어': [12화언01-01] 언어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2

1

1. 들어가는 말

- 각 교육 과정의 '해설' 또는 '유의 사항' 등 현실
 - 7차 : "개략적인"
 - 2009년 개정: "언어 속에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 2015년 개정: "시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현대 국어와의 차이 중심으로"
 - 2022년 개정: "시대별 국어의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기보다는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살피"
- 심화 교과인 문법의 위축
 - 7차: 문법
 - 2009년 개정: 독서와 문법
 - 2015년 개정: 언어와 매체
 - 2022년 개정: 화법과 언어

국어교육에서 국어사 교육의 이율배반적 상황

3

1. 들어가는 말

- 기존 국어사 교육의 반성
 - 국어사 교육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국어사학회 내부의 이견은 없었음에도,
 - 내용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함: 시기별 국어 사실의 나열
 - 현대국어와의 관련 내용을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단편적 국어사 사실
 - 현대국어와 차별적 사실이 주를 이룸(어려운 단원이라는 인식)
 - 고전 작품 이해와의 연계성 강조했지만, 주객 전도의 우려로 배격됨
(3차 교육과정 이후 "훈고 주석에 읽매이지 않도록")
- ➡ - 위축된 문법, 그 중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의 효율적 교육 방안 개발 필요
 - 국어사 학계 안에서의 외침이 되지 않는 방향은?
 - 현대국어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교육 내용 개발 필요
 - "언어 변화"에 대한 인식 배양이 가장 중요할 듯

4

2. 국어사 교육 내용의 문제

(1) 국어사 전 시기 포괄 문제

- 국어사 학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국어(박형우 2013)까지 내용 구성 주장
-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한정: 현실적 교육 현실 고려한 듯
 - ➡ 국어사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전향적 재구성 필요
- 순수 국어사적 사실: **중세국어로 한정** (현대국어와의 연계성 높은 내용)
 - 근대국어: 현대국어로의 변화 과정에서 언급
 - 고대국어: 국어생활사의 正位 통한 쓰기 생활사에서 차차 표기 자료와 결합
- 현대국어 교육에서의 국어사 활용 방안: **변화의 관점으로 현대국어 사실 이해하는 경험 제공**

5

2. 국어사 교육 내용의 문제

(2)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

- 국어사 학계의 염원: 2013년 <국어사 연구>의 특집에 반영
- 대표적인 예: 김유범(2013: 89~92)
- 중세국어 내용 소개: 중세국어의 형성과 시기, 중세국어 이해의 의의
- 중세국어 표기: 연철, 세로쓰기, 소실 문자(ㅼ, ㅄ, ㅆ, ㅆ), 8중성 표기법, 방점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중세국어 음운 관련: 자음 체계, 7단모음 체계, ㅄ와 ㅆ, 성조 체계, 어두 자음군, 모음조화, ㄱ 탈락(약화)
- 중세국어 문법 관련: 체언의 형태 교체, ㅎ '보유' 체언, 용언의 미분화 양상, 비통사적 합성어, 모음조화에 따른 어미와 조사 교체, 높임법 어미와 조사, 주격 및 관형격 조사, 인칭 제약 어미, 의문문의 특성, 현대국어와 다른 문장 구조, 긴 문장
- 중세국어 어휘 관련: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양상, 특징적 개별 어휘, 현대국어와 연결되는 개별 어휘
- 중세국어의 변화 관련: 표기법의 변화(문철 및 중철, 중성 표기), 음운의 소실(/ㅼ/, /ㅄ/, 일부의 /ㅆ/)

현실적 조건 고려하여, 중요도/현대국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내용 선정 공동 연구 필요

6

3. 국어생활사 교육의 正位 문제

(1) 국어생활사 교육의 등장

- 민현식(2003)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 대체를 목적으로 한 '국어 문화사' 교육 내용 주장 이후 반영
국어 문화사 교육 내용: 국어사 지식 + 문화 요소 분석 기술
 - 이후 교육과정에서 국어사와 국어생활사 내용이 혼재 또는 결부
 - 국어 문화사와 밀접한 것은 국어사 아닌 국어생활사이므로, 국어생활사 교육은 국어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음. (장윤희 2009: 299)
 - 국어사 교육의 원자료는 국어생활사의 결과물: 국어사 교육 + 국어생활사 교육 가능
 - 국어 쓰기 생활사: 차자 표기법 중 고유명사 표기, 이두 표기, 향찰 표기, 훈민정음 포함
 - 국어 읽기 생활사: 차자 표기법 중 구결
- 각 차자 표기법의 운용 원리보다는 국어 반영 표기 방법만 한정하여 제공**

7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1) 훈민정음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의의: 한글의 우수성의 이해를 통한 국어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태도 교육적 의의
- 내용의 미비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공통-중-문법-11]의 '한글 창제 원리' 항목에 대한 해설에서
"... 상형, 가획, 병서 등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탐구하여 ..."
 - 병서는 제자원리일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장윤희 2004: 461), 7차 국정 '국어' 교과서부터 지속
→ 교육과정의 설계자/작성자가 무지하거나 관심이 부족함
 -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 "ㅇ, ㄹ, ㅏ'은 이체자"
→ <<훈민정음>> 해례본 본문의 정밀한 독해 미흡
 - 훈민정음 창제 목적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 "한자음 정리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 제1 목적으로든 부차적 목적으로든 한자음 정리를 위한 발음 기호로 훈민정음이 필요했다는 주장

8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2) 제자원리의 위계성 미반영

	상형(기본자)	가획(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ㅃ	
치음	ㅅ	ㅈ, ㅊ	ㅊ
후음	ㅇ	ㅎ, ㅎ	

■ 문제점

- 상형자와 가획자, 이체자는 별개의 제자 원리라는 인식
- 초출자, 재출자는 상형자가 아니라는 인식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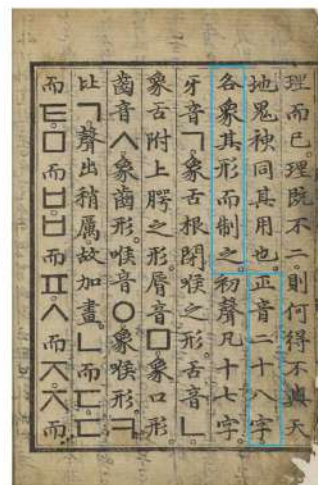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2) 제자원리의 위계성 미반영

*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 상형자, 가획자, 이체자도 '상형'에 의한 제자임
- 일반적 상식에 따르면 선언적 진술에 불과
- 후행 개별 설명을 포괄하는 진술(전제)
- 가획자도 기본적으로 상형자임.
- 가획자, 이체자: 상형자 중 유효적인 글자



10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2) 제자원리의 위계성 미반영

■ 훈민정음 초성자의 위계적 제자 원리

	상 형			
		가 획		이 체
		'厲'의 표시	기타 표시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ㄸ	ㅌ	ㄹ
순음	ㅁ	ㅃ	ㅍ	
치음	ㅅ	ㅆ	ㅊ	ㅈ
후음	ㅇ	ㅎ	ㅎ	

11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ㄹ, ㅈ'은 모두 이체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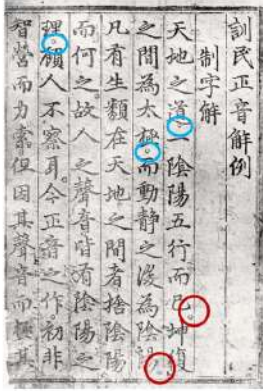
- 'ㅇ, ㄹ, ㅈ' 이체자설의 이유
- 옆의 문면을 '加畫之義'의 설명으로 보아 ㅇ, ㄹ, ㅈ을 함께 다루었음
- "...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 ㅇ 爲異 半舌音 ㄹ 半齒音 ㅈ 亦象舌齒之形 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으로 이해한 것.
- ➔ 해례본의 구두점을 고려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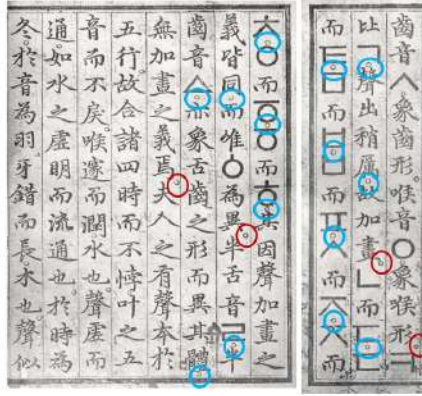
12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ㅁ, ㅂ'은 모두 이체자인가?



- : 구점
의미 완결 단위
(문장과 유사)
- : 두점
의미 비완결 단위
(구와 유사)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ㅁ, ㅂ'은 모두 이체자인가?

■ 구두점(讀點)에 따른 해례본 문장 분절

1. 初聲凡十七字。
 2.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
 3. 舌音ㅋ。象舌附上腭之形。
 4. 脣音ㆁ。象口形。
 5. 齒音ㄷ。象齒形。
 6. 喉音ㅇ。象喉形。
 7. ㅋ比ㄱ。聲出稍厲。故加畫。
 8. ㄴ而ㄷ。ㄷ而ㄱ。而ㅌ。ㅌ而ㅍ。ㅍ而ㅊ。ㅊ而ㅍ。其因聲加畫之義皆同。而唯ㅇ爲異。
 9. 半舌音ㅁ。半齒音ㅂ。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畫之義焉。
- 'ㅇ'은 가획자 설명 문장에서, 'ㅁ, ㅂ'은 이체자 설명 문장에서 언급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ㄹ, ㄷ'은 모두 이체자인가?

* 정음의 제자는 그 모습[象]을 중시하되, 소리의 거شم[屬] 따라 매번 가획했네. 소리가 아, 설, 순, 치, 후에서 나오니, 이것이 초성자 17개로다. **아음은 혀뿌리가 목구멍 막은 모양을 취했으나 오직 ㅇ은 ㅇ과 흡사하여 취한 뜻 다르네.** 설음은 곧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습 본뜨고, 순음은 곧 입모양을 취했네. 치음, 후음은 곧 이와 목구멍 모습 취했으니, 이 다섯 뜻 알면 소리가 자명하리라. **또한 반설음과 반치음이 있으니, 모습을 취했음은 같으나 체가 다르네.**(正音制字尙其象 因聲之屬每加劃 音出牙舌脣齒喉 是爲初聲字十七 牙取舌根閉喉形 唯業似欲取義別 舌迺象舌附上齶 脣則實是取口形 齒喉直取齒喉象 知斯五義聲自明 又有半舌半齒音 取象同而體則異) <제자해 訣>

• 이체로 설명한 글자는 'ㄹ, ㄷ'뿐.

→ 'ㅇ'는 가획자, 'ㄹ, ㄷ'은 이체자

15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ㄹ, ㄷ'은 모두 이체자인가?

■ 가획자 ㅇ의 가획 의미

오직 **아음의 ㅇ**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소리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과 흡사하다. 그런 까닭에 운서의 '疑'모(ㅇ)와 '喻'모(ㅇ)가 서로 혼동되어 쓰이는 일이 많다. **지금 또한 목구멍에서 형상을 취하고** 아음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무릇 후음은 '水'에 속하고 아음은 '木'에 속하니, ㅇ이 비록 아음에 속하면서도 ㅇ과 서로 흡사한 것은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생겨나서 부드럽고 아직 물기가 많은 사실과 같다.(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蓋喉屬水 而牙屬木 ㅇ雖在牙而與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제자해>

• 가획의 의미: “木之萌芽生於水...”

• ㄴ而ㄷ ㄷ而ㄹ ㄹ而ㅁ ㅁ而ㅂ ㅂ而ㅅ ㅅ而ㅇ ㅇ而ㅈ ㅈ而ㅊ ㅊ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 : “加劃之義”가 앞의 “聲出稍屬”가 아니므로 “而唯ㅇ爲異”라 한 것

16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3) 'ㅇ, ㅁ, ㅂ'은 모두 이체자인가?

■ 이체자 ㅁ, ㅂ의 '이체'의 의미

- ㅁ, ㅂ은 가획자일 수 없음 : 획이 모두 연결(상형자와 동일)
- 'ㅁ, ㅂ'을 가리키는 이체자는 일반적인 한자의 이체자(默'과 '默', '明'과'明', '土'와 '土')와는 다름
- 體 : 만들어진 상형자의 체, 곧 자체字體
 "또한 반설음과 반치음이 있으니, 모습을 취했음은 같으나 체가 다르네.
 - 'ㅁ, ㅂ'을 각각 혀와 이 모양을 상형해야 함. 이미 다른 상형자 'ㄴ, ㅅ'이 존재
 - 이들의 구별을 위해서는 ㄴ, ㅅ과 글자체를 다르게 상형해야 함

■ '이체'는 '상형'의 한 방법

17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4) 한자음 표기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나?

- 주객 전도의 논리
 -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책[삼강행실도]을 나누어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 어찌 그 뜻을 알아서 풍속이 흥기하리오
 (第以民庶不識文字 書雖頒降 人不訓示則又安能知其義而興起乎)
 <세종실록, 세종 16년 4월 갑술조>
- 최초의 한글 문헌 《용비어천가》의 표기 시험
 - '海東 大龍이 누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 국한문 혼용 표기의 한자 문제
 - 한자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음을 한글로 적어줄 필요가 있음.
 - 한자음을 한글로 달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한자음으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18

4. 훈민정음 교육 내용의 문제

(4) 한자음 표기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나?

-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 2월 16일조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 사정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대군 유, 안평대군 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상을 거듭 내려 주고 제공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命集賢殿校理 崔恒 副校理 朴彭年 副修撰 申叔舟, 李善老, 李塏, 敦寧府注簿 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 與晉陽大君瑀 安平大君瑔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세종실록 26년(1444년) 2월 16일조>

→ 처음에는 《고금운회거요》의 한자음으로 한자음을 달고자 한 목적인 듯.

- 《용비어천가》의 한자음 주석 출처의 다양성: <광운>, <집운>, <거요>, <운략>, <정운>, 미 상 등(여재려 2021: 96) → 어느 한 문서의 음으로 한자음을 제시하기에 문제가 있음 인식
- 운서들을 널리 검토하여 **규범적인 한국 한자음**을 새로 규정할 필요 인식: 1448년 《동국정운》 편찬

한자음 정리를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문 표기의 한자에 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음을 정리한 것

19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1) 언어 변화의 일반적 현상

- 이전 언어 질서가 이후의 언어에 흔적을 남김
- 신형과 구형의 공존
- 언어 화석(linguistic fossil)의 존재('살아 있는 언어 화석'도 존재)



화석(fossil)



살아 있는 화석(living fossil)

- 언중에 의한 유추적 평준화 (analogical leveling) 경향: 언중의 부담 경감 위한 결과

20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2) 중세국어 어형과 기능이 현대국어에 그대로 남은 경우①

현대 한국어 동남(경상) 방언의 판정의문(Yes/No Q)과 설명의문(WHQ) 의문형 구별

• 판정 의문: 집에 가나? 여기가 니 집이까? ⇒ '아'형 의문형어미

• 설명 의문 : 어디 가노? 여기가 어디고? ⇒ '오'형 의문형어미

<참고> 현대 한국어 중앙 방언(표준어)의 두 의문형 구별 없음

(YNQ: 집에 가니? WHQ: 어디 가니?)

- 15세기 한국어의 의문형

• 판정 의문: -니잇가, -리잇가, -닛가, -릿가, -은가, -을가, -가 (**아형**)

• 설명 의문: -니잇고, -리잇고, -닛고, -릿고, -은고, -을고, -고 (**오형**)

21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2) 중세국어의 어형과 기능이 현대국어에 그대로 남은 경우②

사람이	사람은	사람의	사람을	사람에	사람으로
노래가	노래는	노래의	노래를	노래에	노래로
	노랜		노랴		
친구가	친구는	친구의	친구를	친구에게	친구로
	친군		친굴		

• 고대 한국어에 조사 '은'(隱/乙), '을'(乙)만 존재.

• '는, 를': 중세 이전에 새롭게 형성된 '重加形' (노랜+은→노래는, 노랴+을→노래를)

• '노랜, 노랴': 고대의 언어형이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것(**살아있는 언어 화석**)

• '노랜'과 '노래는', '노랴'과 '노래를': **신구형의 공존**

→ 신형이 구형을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口語에서의 경제성 등의 이유로

구형(노랜, 노랴)이 여전히 세력을 지니고 있음

22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3) 중세국어와 외형은 달라졌지만 기능은 현대국어로 이어진 경우

① 현대의 부사격(여격) 조사 '에게(평칭) : 께(존칭)'

- 이(평칭의 속격조사) #그에 > 이그에 > 이게 > 에게(평칭)
- 스(존칭의 속격조사) #그에 > 스그에 > 스게/세 > 께(존칭)

② 또 다른 연결어미 '-오'

- 중세 국어의 ㄱ약화 관련 변화: NP이오(←NP+이+고) > /ㅍ/의 소멸 > NP이요
- 이것은 풀이요, 저것은 꽃이요, 그것은 열매이다. ㄴ 이것은 풀이고, 저것은 꽃이고, 그것은 열매이다.

③ 해요체의 종결어미 '-으세요'

- 아빠, 내일 도서관으로 오세요/와요.
- 아빠, 내일 도서관에서 * 만나세요/만나요.
- ??아빠, 이걸 저랑 내일 하세요. ?아빠, 이걸 나중에 저랑 얘기하세요.(모두 '명령'은 가능)
- 어미화한 '-으세요' 속의 '-으시-'에 의해 '나'까지 높여지므로 '칭유'는 불가

23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4) 중세국어 형태가 화석으로 남아 불규칙 현상을 보이는 경우

① 곡용 패러다임의 화석형

	나를	나의	나로	나에게	나부터
내가		내		내게	
	너를	너의	너로	너에게	너부터
내가		네		네게	
	누구를	누구의	누구로	누구에게	누구부터
누가 / 뉘				뉘게	
	저들	저의	저로	저에게	저부터
제가		제		제게	

- 내, 네, 뉘, 제: 중세국어 대명사의 주격형/속격형
- '누가, 뉘': 중세국어 대명사 '누'의 주격형 '뉘'(구형)와 새로운 주격형 '누가'(신형) 공존
- 나머지 패러다임의 대명사형은 새로운 미지칭의 대명사 '누구'(< 누+고)로 통일

24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4) 중세국어 형태가 화석으로 남아 불규칙 현상을 보이는 경우

② 활용 패러다임의 화석형

- '리' 불규칙 '이르-'(到)의 활용 패러다임
 (현대) 이르고, 이르지, 이르면, **이르러, 이르러서, 이르렀다**
 (중세) 니르고, 니르디, 니르면,
 니를오, 니르디, 니를면, **니르러, 니르러서, 니르렛도다**
 - 어간은 쌍형(니르-/니를-)에서 '니르-'(>'이르-')로 통일
 - 활용형 중 모음어미 결합형은 '니를-'이 화석으로 남은 화석형
- '어' 불규칙 '푸-'(飜, 汲)의 활용 패러다임
 (현대) 푸고, 푸지, 푸면, **퍼, 퍼서, 폼다**
 (중세) 프고, 프디, 프면, **퍼, 퍼서, 폼다**
 - 어간은 '프- > 푸-'로 변화
 - 모음어미 활용형은 '프-'가 화석으로 남은 화석형

25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5) 현대국어의 활용에서 신형과 구형이 공존하는 경우

① '하여'와 '해'의 활용형 공존

하고	하지	하니	한다	하여	하여서	하였다	하여라
				해	해서	했다	해라

- <하여> <히어(18세기) > <히(19세기) > <해 : '하여(< 히어)'는 구형, '해'는 신형
- 향후 신형만 남을 가능성(일부 방언권에서는 '하- > 해-'로 어간 재구조화한 경우 발견(해고, 해지, 해니까))

② '디디-'와 '딤-', '가지-'와 '갓-'의 공존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다	디며	디며서	디뎠다	디며라
딤고	딤지		딤는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진다	가져	가져서	가졌다	가져라
갓고	갓지		갓는다				

- '딤-', '갓-'은 각각 '디디-', '가지-'에서 나온 신형으로 보임.
- '디디-'와 '딤-', '가지-'와 '갓-' 각각이 독자적 패러다임 갖추어 공존하는 신·구형 (송철의 2008)
- '이르-'의 경우 고려하면, 어간은 '디디- > 딤-', 모음어미 활용형은 '디디-'가 화석화할 가능성

26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6) 현대국어의 곡용에서 신형과 구형이 공존하는 경우

① '아기'의 호격형: 아가, 아기야, 아가야

아가	아기를	아기에게	아기의	아기부터	아가
					아기야
아가	아기를	아기에게	아기의	아기부터	아가야

- 아가: 15세기 중세국어부터 보이는 '아기'의 호격형 (구형)
- 아기야: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신형
- 명사가 '아기 > 아가'로 재구조화, 독자적 곡용 패러다임 이뤄 또 다른 신형 호격형 '아가야' 출현

② 재구조화 전후의 명사형

햇빛이	햇빛을	햇빛에	햇빛의	햇빛으로
햇빛이	햇빛을	햇빛에	햇빛의	햇빛으로
햇빛이	햇빛을	햇빛에	햇빛의	햇빛으로

- '발, 걸, 팔, 꽃, 빛, 부엌, 앞' 등 ㅏ이나 유기음 말음인 명사에서 발견.
- 지역마다, 개인마다 재구조화 양상 및 재구조화 정도가 다름

27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7) 현대국어에서의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변화

① 명령형 어미의 평준화 (유추적 평준화의 대표적 예)

- 가거라, 읽어라, 오너라 (학교 문법)
- 가라, 읽어라, 오너라 (일부 문법)
- 가라, 읽어라, 와라 (현실)

- 중세: 타동사 어간에 '-어라', 비타동사 어간에 '-거라', '오-' 어간에 '-너라' 결합 > '-어라'로 평준화

② '주다' 명령형의 평준화

- 철수가 그 책을 친구에게 주었다. 그 책을 그 친구에게 줘라.
- 철수가 그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 책을 나에게 다오.
 - > 철수가 그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 책을 나에게 줘라.
- '주-'의 도달점이 화자가 아닌 경우 명령형: 규칙적 명령형 '주어라/줘라' 통일.
- '주-'의 도달점이 화자인 경우 명령형: 보충법형 '다오'
 - > 모든 경우의 명령형을 '줘라'로 평준화.

28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8) 유추적 평준화를 고려한 변화 방향의 예측

① 대명사 곡용 패러다임의 평준화

나가 (내가X)	나를	나의 (내X)	나로	나에게 (내게X)	나부터
너가 (네가X)	너를	너의 (네X)	너로	너에게 (네게X)	너부터
누구가 (누가/뉘X)	누구를	누구의 (뉘X)	누구로	누구에게 (뉘게X)	누구부터
저가 (제가X)	저를	저의 (제X)	저로	저에게 (제게X)	저부터

② '디디-'와 '덜-', '가지-'와 '갓-' 관련 또 다른 변화 가능성

- '디디- > 덜-', '가지- > 갓-'으로 어간 변화 후, 활용 패러다임이 유추적 평준화할 가능성도 있음.
- 덜고, 덜지, 덜는다, 디드니(< 디디니), 디드면(< 디디면) 디더, 디더서, 디더라,

29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9) 현대국어에서의 어간형 유지를 위한 언어 변화

① 어간 및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날고, 날지, 나는, 나는데, 나는구나

→ 날고, 날지, **나르는, 나르는데, 나르는구나**

- 활용형 사이의 유연성^{有緣性} 확보 의도인 듯: 어간말 ㄹ의 유지
 - 신형 어간 '나르-'로 어간 재구조화 후, 활용 패러다임이 평준화할 가능성
- 나르고, 나르지, 나르는, 나르는데, 나르는구나어**

② 어미의 재구조화

- 어미 '-네(< -나): 기원적으로 동사 어간과 통합하던 **자음어미**,
가네 보내네 **만드네** 심네 퍼먹네 잡네 (동사)
- '-네'의 재구조화 진행되면서, '-누-'와의 연관성이 약해지고 **형용사** 어간에도 통합
크네 빠르네 빠투네 좋네 그렇네 좁네 (형용사)
- '-네'의 어미화 과정에서 **형용사** 어간에 통합할 때는 '-으네'로 재구조화
빠투르네, 좋으네, 그러네, 좁으네
→ '-네 > -으네'의 재구조화의 원인: 어간형의 유지 경향이 작용한 듯

30

5. 현대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 시론
(10) 현대국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화석형

- ① **휩쓸다**(휘갈다, 휘날리다, ...), **좁쌀**, **접때**
- ② **수캐, 암돼지**의 **'술'**(雄), **'암'**(雌)
 → '좁쌀, 수캐' 등은 두 단어가 어울리면서 **ㅈ, ㅎ**이 '덧나는 것' 아님.
- ③ **'새롭다'**(↔보배롭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향기롭다, ...)의 명사 새
- ④ **'말이'**(↔말아들, 말사위, 말형, ; 왕눈이, 절름발이)의 명사 '말', 접미사 '-이'
 → 현대 단어 형성법의 예외 (과거의 질서로 만들어진 단어임)
- ⑤ **'갈치'**의 **'갈'**(刀)
- ⑥ **'귀머거리, 귀먹다'**의 **'먹'**(障)
- ⑦ **'가노라'**와 **'내로라'**의 **'-오-', '-로-'**('-오-'의 이형태)

31

6. 맺음말

- 위촉된 문법 교육, 국어사 교육의 현실 속에서 국어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음
- 기존 국어사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반성 위에서,
- 국어사 교육 내용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연속/차이로 좁히되,
- 현대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한 결과임.
- 시론적 성격의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 심화 등 필요함.
- 국어사 교육의 결과, 변화의 관점을 갖추지 못하면 현대국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32

참고문헌

구본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8.
 김성규(1989), "활용어 있어서의 형식량",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5.
 김완진(1975), "유음론적 우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7-16.
 김유별(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교재",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49-64.
 김유별(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결",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63-96.
 김유별(2019), "국어사 교육에서 배려된 고대국어의 교육 내용과 척도 구성", 『민족문화연구』 63,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87-308.
 민현시(2003), "국어문학사의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201-267.
 박형우(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시고",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73.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7-33.
 석주연(2013),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 원형과 방향성 탐색",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97-124.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여재리(2021), "중세국어 주석의 언어문화사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이승재(1992), "용인형의 형태분식과 형태어 분석", 『주시경학보』 10, 탑출판사, 59-80.
 이진호(2002), "화석화된 활용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0, 국어국문학회, 27-57.
 이연리(2005), "현대국어의 화석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45, 국어학회, 275-288.
 장윤희(2002-1), "현대국어 '르. 발음' 용어의 형태사", 『어문연구』 1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1-83.
 장윤희(2002-2), "국어 동사사의 저문체", 『한국어 의미학』 10, 한국어 의미학회, 97-141.
 장윤희(2002-3),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 108, 한국어교육학회, 381-407.
 장윤희(2004), "7차 국어과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내용 구성 연구", 『어문연구』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45-469.
 장윤희(2005), "현대국어 문법 요소와 통시적 정보", 『국어학』 45, 국어학회, 313-336.
 장윤희(2006),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325-356.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67-311.
 장윤희(2010), "언어 화석의 확인과 공식적 처리 방안",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45-76.
 장윤희(2013), "혼민정음 제자원의 체계성과 이해", 『어문연구』 4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56.
 장윤희(2018), "활용과 국문에서의 언어 화석 문제", 『송철의선생님일기년 국어학논총』, 699-722.
 장윤희(2022), "혼민정음 이전 한국의 한글 생활", 『나라사랑』 131, 위숲회, 11-40.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35-61.

감사합니다

‘국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형우(교원대)

이 강연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어 교육 내에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언급을 기반으로 하여 국어과 문법 영역과 국어과 선택 과목 내에서의 국어사 교육 내용을 전제로 하지만 국어사학계의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구체적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어사 교육 내용의 문제, 미시사나 문화사 중심의 국어생활사 교육과 국어사 교육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자 원리 등의 ‘해례본’의 내용 이해와 훈민정음에 창제 목적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현대 국어와 연계될 수 있는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별적인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하나하나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이 현재 국어과 문법 영역이나 국어과 선택 과목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요자 중심 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기능주의 교육이 중요한 화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어 교육은 물론, 국어과 내 문법 영역의 위상은 오히려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어사 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연 내용과 같이 실제로 국어 교육의 문법 영역 내에서 국어사 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현대 국어의 언어적 현상 중 공시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국어사적 연계성을 통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많은 언어 현상을 학습하는 데에는 국어사와 관련한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어사적 접근과 관련하여 하나의 장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자료 접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어사 자료의 성격상 학생들이 자료에 대한 부담 없이 언어 현상을 탐구하고 현대 국어와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을 중세 국어 내로 한정하고, 제시하는 자료도 ‘훈민정음 언해본’ 정도로 명시화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 교육을 위해 학생들 수준에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국어사 자료의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자료가 과연 국어 교육에서의 국어사 교육의 자료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어사 교육의 내실화라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국어사 관련 내용은 크게 (성취기준상)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의 일반적 특징인 역사성에 대한 논의, 제자 원리 등의 훈민정음 관련 내용, 그리고 중세 국어 시기의 중심의 음운 및 표기, 문법, 어휘상의 특징 등입니다. 발표 내용에서 이 중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상 국어 교육 내에서는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한자음 표기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한자음 표기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어사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표기 문제와 훈민정음 창제의 연계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국어와 관련한 국어사 교육의 중심 내용이 사실상 차자 표기 정도인 상황이지만 이 문제가 고유어 표기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차지 표기,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의 훈민정음 창제라는 표기의 문제가 국어 교육에서 연계성 없이 다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표기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설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발표에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신 현대 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의 현실상 국어과 내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중 하나인 문법 영역에도 역시 다양한 국어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국어사 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양적 한계라는 것이 국어 교육 내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현재 많이 논의되는 것이 타 교과 내용과의 통합, 국어과 내 타 영역의 성취기준 간 통합, 또는 문법 영역 내 성취기준 간의 통합에 대한 것입니다. 타 교과와의 통합은 교육과정 논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니 차치하고, 현실적으로는 국어사 교육 내용을 국어과 내의 다른 영역(듣기와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매체)과 통합하거나 문법 영역의 다른 내용과 함께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하신 다양한 현대 국어와 연계한 국어사 교육 내용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문법 영역의 다른 성취기준과 통합을 이루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현대 국어의 다른 문법 영역 내용과 연계성이 높아 함께 교육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하신 바와 같이 국어 교육 내에서 국어사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이유 역시 만만치 않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하면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새로운 국어사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의미 있는 통합 지점을 찾아 상생하는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장윤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으로 저도 국어 교육과 국어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발표 및 토론

음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

신승용(영남대)

< 차례 >

1. 서론
2. 현대국어 문법 교육 내용과 국어사
3. 현대국어의 탐구 및 이해에 음운사 도입의 필요성
4. 결론

1. 서론

논제인 ‘음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의 초점은 국어사가 아니라 현대국어이다. 그래서 국어사 또는 음운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와는 그 초점이 같지 않다.¹⁾ 국어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국어사 교육의 내용은 국어사적으로 의의가 있거나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다²⁾ 이때 김유범(2013:97)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국어와의 역사적 관련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방향, 즉 현대국어를 가르칠 때 국어사적 사실들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때 도입되는 국어사의 내용은 효용성, 즉 현대국어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현대국어는 앞선 시간의 언어의 연속선상에 있는 언어이면서 또한 앞선 시간의 언어의 적층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국어사적 사실을 끌어들이므로써 현대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면이 분명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국어사 내용 중에서 음운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활용할 때 학습자들이 현대국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문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음운사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음운사적으로 그 자체로 의의나 가치가 있는 내용이나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본고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데 어떤 음운사의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정도 선에서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논의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와 달리 국어사는 과거의 사건만은 아니다. 국어사의 시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³⁾. 국어사 교육의 정체성 및 의의는 국어사 교육 자체에서

1)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양영희(2014)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 앞서 김영옥(1988)과 권재일(1995)은 국어사 교육을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한국사 교육의 필요성과 평행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2)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과 관련한 논의로는 이관규(2004), 주세형(2005), 박형우(2013), 김유범(2013), 석주연(2013), 양영희(2013) 등이 있고, 최근에 최소영(2019)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다.

3) 이미 현재성을 상실한 과거의 사건인 국어사도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어사도 있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퇴적되어 여전히 쓰이고 있는 국어사도 있다.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어사가 현대국어 교육에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도 국어사 교육의 의의 및 위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 점에서 이 논의의 초점은 현대국어이지만, 국어사 역시 또 다른 초점이기도 하다.

2. 현대국어 문법 교육 내용과 국어사

언어학이 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랑그이고, 생성언어학에서는 화자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다. 랑그이든 언어 능력이든 그 개념적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학교문법의 ‘문법’ 역시 규칙의 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법의 내용 체계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현대국어라는 공시대의 규칙의 체계를 다루고 있다. 즉 음운 규칙, 단어 형성 규칙(또는 유추), 통사 규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규칙 자체가 아니라 언어 현상이 주된 내용이지만, 언어 현상을 통해 언어 현상에 내재된 공시적인 규칙의 체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국어사를 활용하여 현대국어 문법 교육을 한다고 할 때 활용되는 국어사는 규칙의 체계로서의 국어사일 수 없다. 이때의 국어사의 내용은 현대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즉, 현대국어를 현대국어의 사실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국어사를 활용할 때 현대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들어오게 되는 국어사의 내용을 국어사 교육 내용의 적절성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곤란하다.

국어사를 활용하여 현대국어 문법을 교육한다고 할 때 도입되는 국어사의 내용은 현대국어 화자의 공시적 규칙의 체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 국어사가 들어오는 것은 공시와 통시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오히려 가능한 일이다. 공시와 통시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국어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는 현대국어 문법을 배우는 것인지, 현대국어 문법에 내재된 과거 언어의 역사를 배우는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게 된다. 이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이 뒤엉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공시적 사실과 통시적 사실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아울러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국어라는 공시대 내에는 중세국어의 흔적도 있고, 근대국어의 흔적도 있다. 그렇기에 현대국어의 어떤 내용, 어떤 면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는 현대국어 교육 내용에 과거 시간의 언어에 대한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현대국어에 내재된 언어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고, 현대국어의 공시적 규칙의 체계를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이다. 현재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언어 능력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과거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포함될 수도 없다. 과거의 언어적 사실은 지식으로 습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화자의 공시적인 규칙의 체계는 아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들어오는 국어사의 내용은 현대국어 화자의 공시적인 규칙의 체계와 분명히 구분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맞고, 그럴 때 국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⁵⁾

4) 국어사 교육의 위상 및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한 원인으로 최소영(2019:30~41)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의 모호성과 부조화’, ‘국어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적 관점 부재’,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단절적 구조’ 3가지를 들었다.

5) 최은정(2018:147)은 공시-통시 연계를 강조하면서 ‘변화와 단절된 채 구성된 지식은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거세함으로써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소쉬르의 엄격한 공시와 통시의 구분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Paul(1960:21)의 “나는 언어가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적어도 어느 정도 고찰함이 없이 그 언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지를 전연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변화와 무관한 공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왜?’라는 물음이 거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공시와 통시를 함께 다루는 것을 ‘범시(론)적 관점’ 또는 ‘범시적 시각’으로 정의하고, 문법 교육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다(구본관 2005, 주세형 2005, 박형우 2014, 최은정 2018, 최소영 2018 등). 주세형(2005:340)은 범시적(panchronic) 관점을 ‘과거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가 별도의 개체가 아닌 한국어라는 동일한 유기체의 변이’로 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언어가 시간의 연속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당연한 사실에 범시적 관점이라는 소쉬르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붙일 이유가 없다. 박형우(2014:135)도 범시적 관점을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정의하였는데,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은 아우른다고 해서 아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Martine(1975)는 동적 공시태(synchronique dynamique)의 관점에서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동일한 하나의 언어 현상을 공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할 수도 있고, 통시적인 관점으로 고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이 아울러진 관점으로 고찰할 수는 없다.⁶⁾

‘범시(panchronic)’는 소쉬르(1919)에서 나온 개념이다. 소쉬르는 기본적으로 범시적 관점 및 범시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든 변화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고 그래서 변화는 통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모든 시간에 발생하는 변화는 없고, 만일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에 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소쉬르 1919/최승연 옮김 1990:115). 물론 꼭 소쉬르(1919)의 이론 틀 내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소쉬르의 개념어인 범시(panchronic)를 소쉬르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만일 공시와 통시를 아울러서 보는 것을 ‘범시’라고 하려면, ‘범시’의 정의가 이론적 차원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만일 이때 여전히 소쉬르의 공시와 통시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소쉬르(1919)의 범시 정의를 비판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 국어사의 위치와 위상은 국어사 자체의 내적 가치와 의의를 통해서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영희(2014)에서처럼 국어사 교육을 문법 교육으로부터 독립하여 문법 교육과 같은 위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국어교육 분야의 현실에서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양영희(2014)와는 다른 시각에서, 주세형(2005)은 국어사가 현재의 국어 사용 능력에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국어사 교육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⁸⁾ 주세형(2005)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기능 중심의 관점이다. 국어사를 언어 사용 능력에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다. 언어 사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언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것이지, 국어사에 대한 지식과는 관련이 없다.⁹⁾ 국어사 교육을 기능적인 측면과 연계하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 국어사의 정체성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역설적으로 문법 교육을 기능 영역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충수일 수도

라는 물음은 변화와 단절된 채 구성된 지식이나 아니냐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Paul(1960)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온 방식을 적어도 어느 정도 고찰함이 없이’에서 부사어 ‘적어도 어느 정도’라고 한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언어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이다.

6) 주세형(2005:342) 현재 언어 상태의 역동성을 언급하면서 범시적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언어 상태의 역동성과 범시적 고찰은 서로 관련이 없다. Martine(1975)가 동적 공시태 개념 하에서 하나의 사건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상태로 고찰할 수도 있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과정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범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이다.

7) 학술적 개념의 자의적 또는 잘못된 사용의 또 다른 예로 ‘재음소화’도 있다. 근대국어 표기에 연결된 ‘노퐁’을 오분석한 표기 ‘눅훈’을 ‘재음소화’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이 역시 Jakobson(1931)에서 제안되어 역사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음소화(rephonologization)’라는 개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전국의 국어 교사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단체 단톡방에서도 이를 재음소화로 잘못 설명하고 공유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약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8) 주세형(2005:337)은 국어사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국어의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들었다. 언어학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다. 국어사가 언어학의 하위 분야라는 사실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어사 교육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국어사의 정체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아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9) 국어사를 언어 사용 능력과 연계시키려면 먼저 국어사 지식의 정도와 언어 사용 능력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굳이 검증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¹⁰⁾

국어사적 관점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 요소에 대한 고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국어사를 활용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국어사 교육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3장에서는 현대국어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음운사 내용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¹¹⁾

3. 현대국어의 탐구 및 이해에 음운사 도입의 필요성

언어 현상에 대한 탐구의 출발점은 ‘왜?’에 대한 의문이다. ‘왜?’에 대한 의문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탐구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왜?’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못할 때는 외부적으로 ‘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어서 탐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음운론적 현상은 일상의 짧은 발화에서도 늘 나타나므로 관심만 있으면 어떤 예에서도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단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그러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의문이나 호기심을 촉발하는 것은 차이 또는 다름에 대한 인식이다. 온라인[올라인 ~ 온나인]처럼 기저형 -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서는 표기형 - 과 실제 발음형의 다름을 인식할 때, 그리고 [입따, 입꼬, 이버, 이브니]와 [덱따, 덱꼬, 더워, 더우니]처럼 같은 듯 다른 것의 차이를 인식할 때 ‘왜?’에 대한 의문이 촉발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음운사적 사실을 끌어올 때 비로소 ‘왜?’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3.1. 음운 변동 탐구에서 음운사적 사실의 활용

음운 변동 탐구에서 음운사가 도입될 때 ‘왜?’에 대한 의문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구개음화, /ㄹ/ 탈락, ‘나도 → 나두’에서의 ‘/ㄴ/ → /ㄷ/’ 교체, ‘되어[돼여]’에서의 /y/ 첨가, 모음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¹²⁾

첫째,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학교문법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다. 구개음화 현상을 학생들이 탐구하여 규칙의 입력, 출력, 조건환경을 찾은 후에 (1)과 같은 질문을 할 때 음운사적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1)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들이다.

- (1) 가. 왜 /y/ 앞에서 구개음화되는 예는 없지?
 - 나. ‘다/더/도/듀’, ‘타/터/토/튜’와 같은 음절을 가진 단어가 없지?
 - 다. 왜 ‘디디다, 잔디, 티눈, 잡티’는 구개음화되지 않지?
 - 라. 왜 외래어(디자인, 디스크, 팀)는 구개음화되지 않지?

10)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의 어문 규정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일군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 역시 문법 교육의 ‘문법’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기능 영역에게 문법이 기능 영역의 보조 수단이라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1) 이 논의의 초점은 국어사 교육이 아니라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서 음운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어사 교육의 위상 및 정체성을 염려하는 관점에서 이 논문이 비판되지 않았으면 한다.

12) 이는 필자의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가감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관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 논의한 내용으로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다.

(1가~나)의 물음에 대한 설명은 어간재구조화와 관련된 것이고, (1다~라)는 규칙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1가~나)는 서로 연동된 사건으로, (1나)처럼 /y/ 앞에서의 구개음화 예들은 모두 구개음화된 형태로 어간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y/가 조건환경인 구개음화 예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통시적인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1가~나)의 ‘왜?’를 이해시킬 수 없다.

(1다~라)의 물음에 대한 공시적인 설명은 단어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할 수는 있다. 즉 공시적인 구개음화의 조건환경이 ‘/i, y/ 앞에 형태소 경계가 있을 때’인데, (1다,라)는 이러한 조건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다시 왜 단어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설명을 해 주지 못한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사실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는 이들 어휘는 원래 ‘디디다, 잔디, 티’처럼 이중모음 /iy, ay/였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없었다는 것과, 이후 이들이 단모음화되어 ‘디디다, 잔디, 티’가 되었는데,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기 전에 단어 내부에서는 구개음화 규칙이 소멸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1다) 그리고 이후 차용된 외래어인 (1라)의 경우 단어 내부이므로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현대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사적 사실이 소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통시적인 사실들은 현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화자들의 공시적인 문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전체 양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왜?’라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시적인 사실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통시적인 사실이 소환됨으로써 비로소 현대국어의 구개음화를 탐구하면서 갖게 되는 (1)의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고, 이러한 의문의 해소를 통해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구개음화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ㄹ/ 탈락의 예이다. 공시적인 /ㄹ/ 탈락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음운사적 사실이 소환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ㄹ/ 탈락의 경우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조건환경에 있지만, /ㄹ/이 탈락된 것을 표준어로 정한 것도 있고, /ㄹ/이 탈락되지 않은 것을 표준어로 정한 것도 있고, 둘 다 복수로 표준어로 정한 것도 있다. 이처럼 /ㄹ/ 탈락은 <한글맞춤법>에도 제시되어 있는, 표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음운 변동이다.¹³⁾

공시적인 /ㄹ/ 탈락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통시적인 사실이 소환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국어 공시태에서 /ㄹ/ 탈락과 관련된 양상은 (2) ~ (4)이다.

- (2) ㄱ. 부나방 ~ 불나방, 부나비 ~ 불나비
- ㄴ. 무소 ~ 물소, 부삽 ~ 불삽
- ㄷ. 다달이 ~ 달달이, 기다랗다 ~ 길다랗다
- ㄹ. 싸전 ~ 쌀전, 부젓가락 ~ 불젓가락

- (3) ㄱ. 불놀이, 달나라
- ㄴ. 달돈, 돌다리
- ㄷ. 물수제비, 물소리
- ㄹ. 쌀자루, 물주전자

13) 관련된 <한글맞춤법> 조항은 제18항과 제28항이다.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 (4) ㄱ. 아니, 아시고 / 우니, 우시고
 비교) *[아르니, 아르시고], *[우르니, 우르시고]
 ㄴ. 알다, 알지

학생들에게 (2) ~ (4)의 자료를 제시하고서 탐구하게 하면 (5)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⁴⁾

- (5) 가. 왜 ‘부나비’라고도 하고, ‘불나비’라고도 하지?
 나. 왜 (2)와 달리 (3)에서는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지?
 다. (2), (3)에서는 /ㄴ, ㄸ/ 앞에서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하는데, 왜 (4ㄱ)에서는 /ㄹ/이 항상 탈락하지?

(2)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문이지만, 이러한 의문은 통시적인 사실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 어렵다. 실제 통시적인 변화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의문이기도 하다.

음운사적으로 /ㄹ/ 탈락 규칙이 단어 내부와 활용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적용되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단어 내부에서의 /ㄹ/ 탈락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시킬 수 없다. 또한 체언인 (2ㄷ, ㄹ)에서는 /ㄷ,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한 예가 있는데, 활용인 (4ㄴ)에서는 /ㄷ, ㅈ/ 앞에서는 탈락한 예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ㄹ/ 탈락 규칙의 조건환경이 축소되는 음운사적 변화를 도입하여 설명할 때 비로소 ‘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다.

셋째, ‘/ㄴ/ → /ㄷ/ 교체’이다. ‘/ㄴ/ → /ㄷ/ 교체’ 역시 변화의 연장선에 설명할 때 현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6) ㄱ. 나도 → [나두]
 ㄴ. 하고 → [하구]

(6)은 학생들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도’와 ‘-고’만을 대상으로는 이 현상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이는 ‘/ㄴ/ > /ㄷ/’ 변화가 근대국어에서부터 지금까지 어휘에 따라 산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변화라는 사실을 소환함으로써 왜 ‘-도’, ‘-고’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어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¹⁵⁾

현재 검정 『국어』 교과서의 음운의 변동 단원의 내용은 <표준발음법>과 연계해서 구성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표준발음법> 수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문제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실제 언어가 아닌 인공어의 발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괴리가 커지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해 관찰하기보다,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기계적으로 외우면서 문법이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6)은 실제 학생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다. 이를 단순히 표준 발음이 아니라고 한다가나 맞춤법에 맞지 않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14) /ㄹ/이 탈락된 예만 제시하고, /ㄹ/ 탈락을 탐구하게 하는 것은 /ㄹ/ 탈락과 관련된 언어적 사실을 반쪽만 보여 주는 것과 같다.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면 (2) ~ (4)를 함께 탐구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한테 (2) ~ (3)의 자료를 주고 관찰하게 하면, (5가,나)의 의문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만 (5다)의 의문은 일정 정도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의문을 가지게 된다.

15) 최전승(1987:33)은 각주 26)에서 /o/ > /u/ 변화가 근대국어 문헌자료에서부터 확인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ㄴ/ > /ㄷ/를 통시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ㄴ/ > /ㄷ/ 중에는 이미 통시적인 것도 있고, 공시적인 /ㄴ/ → /ㄷ/도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문법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관찰과 탐구이며 이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넷째, (7)에서처럼 ‘되어[뉘여]’에서의 /y/ 첨가이다. 이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이 아니라 하향이중모음이었던 시기의 활용형으로, (8)의 /y/ 첨가와 다르다. 즉 (8)의 /y/ 첨가는 공시적이지만, (7)의 /y/ 첨가는 공시적이지 않다.

- (7)¹⁶⁾ ㄱ. 되어[뉘여], 보다[뵤여], 피어[피여]
 ㄴ. 쉬어[쉬여], 쥐어[쥐여], 튀어[튀여]

- (8) 피어[피어 ~ 피여], 아니예요[아니예요 ~ 아니예요]

(7)의 [뉘여], [쉬여]는 [되어], [쉬어]와 함께 복수의 표준 발음이다. (7)에서의 /y/ 첨가는 표기상 ‘니’나 ‘귀’를 말음으로 가진 모든 용언에 해당하므로 대상 어휘도 꽤 많다. 하지만 (7)에서의 /y/ 첨가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이 아니다. 표기상 ‘니’, ‘귀’의 내용이 /ö, ü/이든 /we, wi/이든 /y/ 첨가의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¹⁷⁾ (7)에서의 /y/ 첨가는 자모 ‘니’, ‘귀’가 하향이중모음 /oy/, /uy/와 결합되었던 시기의 음운 현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 (9) ㄱ. 디내음<법화2:224b> (← 디내-/tinay-/ + -음/-om/)
 ㄴ. 드외음<월석2:66a> (← 드외-/tloy-/ + -음/-om/)
 ㄷ. 뽀음<법화5:21a> (← 뽀-/muy-/ + -음/-un/)

(9)처럼 중세국어에서 /y/ 뒤에서 /y/ 첨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7)에서 /y/가 첨가된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의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해야 한다.

다섯째, 모음조화 역시 음운사적 사실을 끌어들이므로써 모음조화와 관련한 일련의 공시적인 양상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영(2019:175~188)에서 모음조화의 변화를 진행중인 변화로 보고, 음성상징어와 어미에서의 모음조화 양상을 비교하는 탐구활동을 설계한 바 있다. 이때 탐구의 대상은 <한글맞춤법>의 자료였고, 탐구 주제는 ‘어미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 및 향후 어미 형태 변화’였다.

그런데 모음조화를 맞춤법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탐구하게 하는 것이 낫다. 맞춤법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규범의 문제가 되어 정오의 사고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¹⁸⁾

-아X, -았-	-어X, -었-
막아, 좋아	입어, 개어, 세어, 뵤어, 쉬어, 쓸어, 먹어, 주어
막았다, 좋았다	입었다, 개었다, 세었다, 뵤었다, 쉬었다, 쓸었다, 먹었다, 주었다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발음은 [되여/뉘여], [쥐여/쥘여]이다. 그런데 복수의 발음 중에서 현재 현실 발화에서 단모음 [ö], [ü]를 거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뉘여], [쥘여]만 제시하였다.

17) /wi/의 경우에는 핵모음 /i/가 /y/ 첨가의 동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we/에서도 /y/ 첨가가 일어기 때문에 단순히 /wi/를 따로 떼서 보는 것은 현상의 본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18) 설명의 편의상 (10) ~ (12)는 표기법의 형태로 나타낸다.

- (11) ㄱ. 막았어, 잡았어
 좋았어, 봤어
 ㄴ. 따사로워, 보드라워, 아름다워,

- (12) 막어(라), 잡어(라), 밟어(라)

(10) ~ (12)의 전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사실을 소환해야 한다. (10)이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모음조화 양상인데, 이미 양성 모음에서의 조화가 음성모음 계열로 합류되어 어간 /ㅏ, ㅓ/일 때만 양성의 모음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11)과 (12)에서는 이마저도 깨진 양상을 보여 준다.¹⁹⁾ 양성모음의 어미 ‘-아X’, ‘-았-’과 결합하는 어간의 모음이 왜 /ㅏ, ㅓ/만 가능한지. 왜 /ㅓ, ㅓ/는 음성모음과 결합하는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될 때 통시적으로 양성모음 계열이 축소되어 온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

특히 요즘 청소년 세대에서는 (10)의 규범적인 정보다는 (12)처럼 발화하는 경향이 크다. 문법 교육의 내용을 (10)으로만 한정해서 보여 준다면 굳이 음운사적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고, 사실을 기술하는 선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1)과 (12)를 보여 주지 않고, (10)만 보여 주는 것은 실재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공된 인공의 언어만 보여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를 관찰할 때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어 음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표준어, 표준 발음 중심으로만 교육하는 것은 반쪽짜리 국어의 이해에 그친다고 하겠다.

3.2. 자모의 자의성에 대한 이해와 음운사

음운론에서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음운과 한글 자모가 내용과 형식의 관계이고, 그래서 ‘음운-자모’의 연결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음운과 한글 자모의 대응이 자의적이므로, ‘음운-자모’의 결합이 바뀔 수 있다. 음운의 이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사실을 현대국어만을 대상으로도 가르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음운사적 사실을 도입할 때 동기 유발 차원에서도, 사실의 이해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자모와, 해당 자모가 나타내는 음운이 1:1로 대응하지 않는 예가 있다. (13ㄱ)은 한 개의 자모에 두 가지 내용이, (13ㄴ)은 하나의 내용에 두 개의 자모가 대응한다.

(13)

㉠		㉡	
ㅜ	ㅜ	ㅜ	ㅜ
∧	∧	∨	
ö we	ü wi	we	

(13)을 통해 ‘음운-자모’의 대응이 1:1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자모가 곧 음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탐구하게 할 수 있다.²⁰⁾

19) (11ㄱ)에서 보듯이 ‘-아/어’의 경우 어간 모음이 /ㅏ/일 때도 ‘-어’가 결합한 예가 나타난다. 심지어 ‘막았어’, ‘잡았어’처럼 ‘-았/었-’도 음성모음 ‘-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11ㄴ)처럼 ‘ㅓ’ 불규칙 용언의 활용의 경우, 어간이 2음절어 이상일 때는 어간 모음이 /ㅏ, ㅓ/이더라도 ‘-어X’로 단일화되고 있다. 방언에 따라서는 여전히 ‘따사로와, 아름다와, 보드라와’처럼 2음절 이상에서도 ‘-아/어X’의 조화를 이룬다.

20) 앞서 강지영(2021:84)에서 ‘ㅜ’, ‘ㅜ’를 대상으로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단모음의 이중모음 발음 현상을 중

정보이다.

그런데 현대국어 불규칙 어간의 중세국어 형태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는 공식적으로 /ㅂ/ 불규칙, /ㅅ/ 불규칙의 양상과, 왜 불규칙하게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덥-’이 원래 중세국어에서는 ‘덜-’이었는데, /ㅃ/ > /w/에 의해 불규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규칙 어간의 기원을 말해 주는 것이지, 왜 ‘덥고’에서는 ‘덥-’인데, ‘더워’에서는 ‘더우-’인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ㅅ/ 불규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국어에서 탐구해야 할 내용은 불규칙 활용 어간의 기원이 아니라 (15)의 의문이다.

- (15) 가. ‘입-’은 ‘입고[입꼬], 입어[이버]’인데, 왜 ‘덥-’은 ‘덥고[덥꼬], 더워[더워]’인가?
- 나. ‘씻-’은 ‘씻고[씻꼬], 씻어[씨서]’인데, 왜 ‘짓-’은 ‘짓고[짓꼬], 지어[지어]’인가?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불규칙 활용과 규칙 활용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간의 기원적인 형태의 소환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 통시적 사실의 소환이 핵심이다. 첫째, 어간이 아니라 활용형 ‘더빅’, ‘더브면’에 /ㅃ/ > /w/ 변화가 적용되었다는 사실, 둘째, 근대국어에 음운 변화가 적용된 활용형 ‘더워’, ‘더우면’을 현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ㅅ/ 불규칙 활용 역시 평행하다.²³⁾

현대국어의 ‘더워’, ‘이어’가 ‘덥- + -어 → 더워’, ‘잇- + -어 → 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함으로써 ‘덥고’, ‘입고’처럼 어간 말이 동일한 /ㅂ/인데 왜 ‘덥-’은 ‘더워’이고, ‘입-’은 ‘입어’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평행하게 ‘잇고’, ‘빚고’처럼 어간 말이 동일한 /ㅅ/인데 왜 ‘잇-’의 활용과 ‘빚-’의 활용이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⁴⁾

불규칙 활용과 관련하여 음운사적 사실의 도입 없이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예가 ‘하오체’ 종결어미 ‘-오’이다.

- (16) 알고, 아니, 알면, 아오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아오’를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높임법의 ‘하오체’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예이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는 예이다. ‘아오’는 공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 자체만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알- + -오’에서 /ㄹ/이 탈락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종결어미 ‘-오’가 기원적으로 ‘-소’였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 (17) 알- + -소 → 아소 > 아오

(17)처럼 중세국어의 /ㄹ/ 탈락 규칙에 의해 ‘아소’가 되었고, 이후 ‘/ㄹ/ > ∅’ 변화에 의해 ‘아소 > 아오’가 된 활용형 ‘아오’를 현대국어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규칙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오’가 현대국어에서 ‘알-’의 활용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23) 중세국어에서는 기저형이 /덜-/ , /잇-/이었다고 보느냐, /덥-/ , /잇-/이었다고 보느냐에 따라 활용형에 적용된 규칙에 대한 설명은 달라지는데, 현대국어 불규칙 활용의 이해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

24) 이때 학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활용형 ‘더워’의 형태로 어휘부에 저장되느냐(신승용 2007), 아니면 최명옥(1988)의 복수기저형 방식 즉, /덥-(자음 어미 앞) ~ 더워-(모음 어미 앞)/처럼 어휘부에 저장되느냐이다. Bybee(1985:112~114)는 불규칙 교체형, 보충법들은 물론이고, 일부 규칙적 굴절형들도 어휘부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Aronoff & Fudeman(2005:53~54) 역시 불규칙적 굴절형의 어휘부 등재를 주장하였다.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3.4. 화석형에 대한 이해와 음운사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어휘의 시간은 균질적이지 않다. 무수히 다양한 시간대의 어휘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 변화 또는 음운 규칙 변화의 전후 형태가 현대국어라는 동시간대에 공존하는 것들이 꽤 많다. 이러한 예들 중에 많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화석형은 언어가 고정불변의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늘 변화하는 대상임을 이해시키기에도 좋은 예이다.

음운사적 사실과 관련된 화석형 중에서 빈도가 높은 몇 예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ㅎ/ 종성 체언의 화석형과, /ㅂ/계 어두자음군의 화석형이다. 이 두 소재의 현대국어와의 연계는 앞서 이승희(2015)에서 제안된 바 있다. 다만 이승희(2015:84~86)는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어문규범 교육의 차원에서, 즉 <한글맞춤법> 제31항²⁵⁾의 교육에 국어사적 사실을 소환하였다. 그러다 보니 (18L)의 현실에 실재하는 언어 자료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규범과 인공어인 표준어는 학습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18L)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국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규범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²⁶⁾

현대국어의 언어적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8ㄱ)만을 대상으로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8L)과의 비교를 통해 (18ㄱ)이 다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음운사적 사실이 소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국어사적 사실의 이해와 더불어 현대국어에 대한 탐구 및 이해도 높아질 것이다.

(18) ㄱ. 안팎, 암탉, 수탉지, 이팝나무, 조팝나무, 개펄

ㄴ. 안뽕[안뽕], 암닭[암닭], 숫돼지[숫돼지], 이밥나무, 조밥나무, 갯벌[갯벌]

(18ㄱ)은 중세국어 시간의 어휘이고, (18L)은 현대국어 시간의 어휘이다.²⁷⁾ (18ㄱ)은 왜 ‘뽕’이 아니고 ‘팍’인지, 그리고 (18L)에서는 왜 경음화되는지가 의문의 대상이 될 것이다. (18)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ㅎ/ 종성 체언의 존재, 그리고 합성어가 형성될 당시인 중세국어(또는 근대국어)에 적용되었던 통시적인 /ㅎ/ 축약을 소환해야 한다.

(18ㄱ)에 적용된 음운 현상은 /ㅎ/ 축약인데, 같은 /ㅎ/ 축약이지만 (18ㄱ)의 /ㅎ/ 축약과 ‘좋다[조타], 좋고[조코]’의 /ㅎ/ 축약은 다르다. 전자는 통시적인 사실이고, 후자는 공시적인 음운 변동이다. 그래서 (18ㄱ)에 내재된 음운사적 사실의 소환은 /ㅎ/ 축약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이해하고, (19L)과의 비교를 통해 과거 /ㅎ/ 종성 체언의 존재와 소멸이라는 사적 변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화석형 중에서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함으로써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19)를 들 수 있다. (19)를 든 이유는 현실 언어에서 그 빈도가 꽤 높은 예이기 때문이다.

(19) ㄱ. 나는 건시가 꽃감이라고 생각한다.

25)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26) 문법 교육에 어문 규범에 대한 학습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문법 교육의 목표가 인공어인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의 학습이어서는 곤란하다. 어문 규범은 90년 전에 만들어진 표기 체계일 뿐 그것이 문법은 아니다. 이러한 어문 규범을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종합적으로 응축된 총화이자 종합 과학으로서 그 자체로 탐구의 대상이다(남가영 2014:38).’라고 하는 것은 어문 규범에 대한 물이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규범이 만들어질 때의 언어와 지금의 언어 사이에도 이미 상당한 간극이 있다.

27) (18L)에서 경음화된 경우, 경음화의 원인은 사이시옷 첨가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다.

ㄴ. 나는 하늘이가 맞다고 생각한다.

(20) 하늘이가 나에게 “오늘 뭐 하니?”라고 말했다.

(19ㄱ)의 ‘-라고’와 (20)의 직접 인용의 ‘-라고’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을 받는데,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²⁸⁾ (19ㄱ)의 ‘-라고’는 (19ㄴ)의 ‘-다고’와 의미가 같다는 사실을 탐구하게 하면,²⁹⁾ (19ㄱ)의 ‘-라고’가 (20)의 직접 인용의 ‘-라고’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 즉 왜 (19ㄱ)에서는 ‘-다고’가 아니라 ‘-라고’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 있었던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해야만 한다. (19ㄱ)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이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것이지만, 이 통시적 사실을 소환함으로써 비로소 (19) ~ (20)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에서 소환되는 음운사적 사실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세국어에 있었던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종결어미 ‘-다’가 ‘-라’로 교체하는 음운 변동이다.³⁰⁾ 그러니까 (19ㄱ)의 ‘NP-이라고’는 중세국어에 존재했던 ‘NP이다 → NP이라’에 간접 인용의 ‘-고’가 결합한 것인데, 중세국어의 ‘NP이다 → NP이라’의 ‘-이라’가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연히 (20)의 직접 인용의 ‘-라고’와 그 형태가 같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19) ~ (20)의 전체적인 양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현대국어라는 공시대가 과거의 언어로부터 유리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과거 시간의 언어의 적층물이다. 그렇기에 현대국어 중에서는 과거의 언어적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현대국어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음운사적 사실의 소환될 수 있는지를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공시적인 음운 변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운사적 사실이다. 구개음화, /ㄹ/ 탈락, ‘나도 → 나두’에서의 ‘/ㄴ/ → /ㄷ/’ 교체, ‘되어[뒹여]’에서의 /y/ 첨가, 모음조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음운사적 사실이 소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자모와 음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음운사적 사실을 소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모 ‘ㄱ, ㅋ, ㆁ, ㆁ’와 이와 결합된 내용의 변화라는 음운사적 사실의 소환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셋째, 불규칙적 활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운사적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ㅂ/ 불규칙과 관련된 /ㅃ/의 변화, /ㅅ/ 불규칙과 관련된 /ㅆ/의 변화, 그리고 ‘아오’에 내재된 통시적인 /ㄹ/ 탈락을 고찰하였다.

넷째, 화석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음운사적 사실의 소환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ㅂ/계 어두자음군의 화석, /ㅎ/ 종성 체언의 화석, ‘NP이라고’의 ‘-이라고’를 살펴보았다.

역사와 달리 국어사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현대국어라는 공시태에도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국어사는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공시적 규칙의 체계는 아니다. 하지만 공시적인 규칙의 체계가 작동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국어사적 사실

28)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처리 방식은 (19)의 ‘-라고’는 어미, (20)의 ‘라고’는 보조사이다.

29) ‘-라고 ~ -다고’와 같은 대응을 보이는 어미로는 ‘-라면 ~ -다면’이 더 있다. 이 역시 중세국어에서의 ‘-다 → -라’ 교체의 화석이다.

30) 정확히는 서술격 조사 ‘-이-’ 외에도 선어말어미 ‘-더-’, ‘-(으)리-’ 뒤에서도 ‘-다’가 ‘-라’로 교체하였다.

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음운사적인 내용들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가 국어교육에서 국어사의 필요성 및 정체성 그리고 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참고 문헌>

- 강지영(2021), 「국어사 탐구 교육 연구」, 『선청어문』 48, 선청어문학회, 31-101.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59-176.
- 구본관(2005), 「어휘의 변화와 현대국어 어휘의 역사성」, 『국어학』 45, 국어학회, 337-372.
- 구본관(2009), 「국어 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8.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남미(2016), 「지식구조 발견 절차로서의 국어사 수업 방안 연구」, 『한말연구』 39, 한말연구학회, 5-32.
- 김방한(1988), 「공시대와 통시대」, 『언어학』 9.10, 대한언어학회, 21-27.
- 김부연(2020), 「음운과 문법의 연계 교육 방안 탐색 - ‘개, 꺾’의 역사성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6, 우리말글학회, 1-43.
- 김영욱(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 26, 서울대 국어교육과, 85-110.
- 김유범(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63-96.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37-468.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남가영(2014), 「국어 규범교육과 문법교육의 관계 설정 양상 -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사적(史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말글』 62, 우리말글학회, 1-44.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7-33.
- 박형우(2014), 「문법화에 기반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50, 131-161.
- 석주연(2013),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 현황과 방향성 탐색 - 근대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97-126.
- 신명선(2013), 「‘언어적 주체’ 형성을 위한 문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3, 한국어교육학회, 83-120.
- 신승용(2007), 「사전과 복수기저형 및 활용형」,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75-104.
- 신희성(2019),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어사 교육의 방향성 탐색 - 국어의 역사성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4-3, 국어교육학회, 167-205.
- 양영희(2013), 「문법 교육에서의 국어사 내용 체계 구성」, 『한글』 302, 한글학회, 247-276.
- 양영희(2014), 「국어사 교육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한글』 306, 한글학회, 151-177.
- 이관규(2004),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07-432.
- 이승희(2015), 「어문규범 교육과 연계한 국어사 교육 연구 - 고등학교 ‘국어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9, 한민족문화학회, 71-93.
- 장윤희(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287-311.
- 전상범(1992), 『생성음운론』, 탑출판사.
-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325-324.
- 최명욱(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63-80.
- 최소영(2018), 「범시적 관점의 문법 교육 탐색」, 『국어교육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30.
- 최소영(2019), 「언어 변화 기반의 국어사 교육 설계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최은정(2018), 「문법적 모호성 탐구 교육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이화여대).

최전승(1987), 이중모음 ‘외’, ‘위’의 단모음화 과정과 모음체계의 변화, 『어학』 14, 전북대 어학연구소, 19-48.

Antil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Aronoff, M. & K. Fudeman(2005), *What is Morphology?*, Blacwell.

Bybee, 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Jakobson, R.(1931), *Prinzipien der Historischen Phonologie*, [『음운학 원론』, 한문희 옮김(1991), 민음사].

Martinet, A.(1975), *La évolution des language et reconstruc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aul, H.(196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Max Niemeyer Verlag.

Saussure, F. de.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1990, 민음사].

「음운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교육 방안」을 읽고

이준환(전남대)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유익한 논의로 이 분야 이해에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발표에 감사드리며 참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3쪽의 각주 7번을 통하여 재음소화의 개념 사용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은, 저 또한 이 용어 사용이 꺼림칙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면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글을 써 왔는데,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 주셨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되기를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쭙 말씀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자로서 면피는 해야겠기에 억지로 몇 가지 여쭙어 보니 양해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쪽에서는 “현대국어는 앞선 시간의 언어의 연속선상에 있는 언어이면서 또한 앞선 시간의 언어의 적층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국어사적 사실을 끌어들이므로써 현대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면이 분명 있다.”, “역사와 달리 국어사는 과거의 사건만은 아니다. 국어사의 시간은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와 같이 국어사와 현대 국어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기술을 하면서도, 2쪽에서는 “국어사를 활용하여 현대국어 문법을 교육한다고 할 때 도입되는 국어사 내용은 현대국어 화자의 공시적 규칙의 체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국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면,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국어를 보다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 국어사가 들어오는 것은 공시와 통시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오히려 가능한 일이다.”와 같이 국어사 내용이 현대 국어 화자의 공시적 규칙과는 엄격한 경계가 있는 것으로 임할 수 있는 듯한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둘은 일견 서로 모순되는 기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의 내용 중에, 중세 국어에서 보이는 ‘씻기여’, ‘피여’, ‘햏야’ 같은 예들은 현대 국어의 ‘씻기어[씻끼어~씻겨~씻끼어]’, ‘피어[피어~피여~피어]’, ‘햏야’와 비교할 때 어미 ‘-어/아’의 앞에 /y/가 첨가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국어 화자의 공시적 규칙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국어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국어와 국어사 내용이 지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가 먼저 다루어진 후, 이에 벗어난 것을 다루어 주신다면 국어사와 현대 국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윤곽을 잡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10쪽부터 기술한 불규칙 활용의 탐구에서 음운사적 사실을 도입함으로써 현대 국어 화자의 현대 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논의를 좀 더 확장하여 보면 표준어 어휘 중에 ‘어지럼’, ‘미끄럼’의 경우는 /ㄹ/ > /w/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비표준어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입니다만 ‘자랑스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예외성을 보이는 것들을 음운사적 내용과 연계하여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예외성을 보이는 것들은 방언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의 국어 교육이 방언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국어 교육의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되는 음운사적 사실들을 전통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3. 12쪽부터의 기술에서는 ‘안팍’, ‘암답’, ‘수돼지’와 더불어 ‘안뺨’, ‘암답’, ‘숫돼지’의 공존을 중세 국어 시간의 어휘와 현대 국어 시간의 어휘의 공존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 후자의 경우에는 각각 [안박], [암답], [수돼지]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을 듯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안뺨], [암답], [수돼지]로 발음되는 경우를 ‘끓고→[끈꼬]’, ‘닿지→[다찌]’와 같이 비표준 발음이기는 하지만 현실 발음에서 이런 형태가 쓰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선생님께서 각주 27에서 사이시옷 첨가로 보는 것이 가장 그럴 듯하다고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의 공시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렬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뺨]의 경우는 설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ㅎ/이 [유기성]과 더불어 [긴장성]을 갖는 음소라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4. 9쪽의 (13)의 ㉠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르게 나타났던 음가를 앞에 제시하고 나중에 나타났던 음가를 뒤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례라면 ㉡의 경우도 국어 음운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꺄’가 ‘꺏’보다는 앞서서 /we/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자모의 제시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문법 교육

이병기(한림대)

< 차례 >

1. 서론
 2.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국어사 교육에 대한 주요 논의
 3. 연계(통합)적 교육 방안
 4. 결론
-

1. 서론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이 2022년에 고지되었다. 고교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이유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다. 같은 이유로 국어사 교육은 더더욱 그러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고지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감지된다. 하지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역사가 필요하듯이 현대국어를 이해하고 급속하게 변화는 언어 환경에서 국어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역사를 교육 현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당위론적으로만 강조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나마 국어사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대국어 문법의 여러 현상, 특히 비체계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문법사의 사실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문법사 교육도 도모하는 것이다. 나아가 고전 텍스트와의 연계(통합) 교육을 통한 국어사 교육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국어사와 문법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주제 분담에서 국어사와 문법 교육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논의의 흐름상 간략하게나마 중등교육에서 국어사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방향에 따라 국어사와 문법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연계'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국어사 교육에 대한 주요 논의

2.1. 국어사 관련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은 1947년 교수요목에서부터 대략 7, 8년 주기로 계속 개정되어 왔다. 2007년 검정제 국어 교과서로 바뀌면서 그 전후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교과서 편찬과 맞물려 더 높

아졌고 국어사 및 문법 교육에 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그 대상을 살펴 보고 2022년 교육과정이 고지된 현시점에서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 정리한 내용은 석주연(2013), 이승희(2015), 김은주(2018), 최소영(2019) 등을 참고한 것이다.

1947년 중학교 교수요목	(군정청 편수국)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고전의 하위 분야로 국어사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고전 텍스트 독해를 위해 고전 문법 교육
1974년 제3차 교육과정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표현·이해, 언어, 문학 구분. 체계적 국어사 교육 내용 제시
1988년 제5차 교육과정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강조, 서울대 국어 상,하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국어의 발전 방향 추가, 시대 구분 논의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한글 창제 원리 독창성 강조, 국어 상하-국어가 걸어온 길, 자료 풍부. 국어의 문화적 가치(국어생활사), 탐구 학습 강조. <문법>-‘국어사’ 부록.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제2007-79호)	검정제 국어 교과서 총 16종, 국어 생활 강조, <문법> 교과 독립 유지, 국어생활사 추가 ¹⁾
2009년 개정 교육과정(제2009-41호)	총론 성격 <국어> <독서와 문법 I, II>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제2012-14호 ²⁾ (2011년 교육과정)	각론 성격 <국어 I>, <국어 II>, <독서와 문법> ³⁾ 국어사 자료가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비해 줄어들음.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8~2023학년 적용 국어(공통), 언어와 매체(일반 선택), 고전 읽기(진로 선택)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제2022-33호)	2024년부터 적용 국어1(중등), 국어2(고등), 화법과 언어

국어사가 초기에 고전 해독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이 강했다가 4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독립적인 교육 내용으로 자리잡고 교육적 위상을 확대해 나갔다. 1988년 제5차 교육과정부터 체계적인 국어사 서술이 이루어졌는데, 6차 개정에서는 ‘국어의 변화’에서 7차 ‘국어가 걸어온 길’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6차 개정과 맞물려 대입 시험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의 전환됨에 따라 문법 및 국어사 교육의 지식 내용 자체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어사 내용이 교과과정에 따라 공통과목, 선택과목 중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는가 차이가 있으나 7차 교육과정에 <문법>의 부록으로 다루어진 국어사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5 개정 교과과정에서 해설을 통해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의 배제됨으로써⁴⁾ 위상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최근 2022년 개정에서는 현대국어와의 연계 속에서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 및 독자성이 더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변화하는 언어의 실제 파악, 발전적인 국어 의식 등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지식 내용에 약간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국어사 교육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어사 교육 내용을 첨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이러한 성취기준 달성에 매우 효율적이기도 하다.

1) 교과서 검토를 통해 비판이나 지향점 제시하는 논의 주류,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생활사’ 주제 학술대회(2009년)-구본관(2009), 박형우(2009), 장윤희(2009),
 2) 2014년부터 사용된 고등학교 ‘국어 II’ 교과서와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2011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며 2011년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과 2012년에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은 내용이 동일하다.(이승희 2015:73)
 3) 독서와 문법 두 영역을 외형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독서의 본질’, ‘언어의 본질’과 같이 단순히 나열식으로 혼합하여 제시하였음.(양정호 2015:148) ‘국어 자료의 탐구’는 국어사와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 실효성 높음(성취기준26-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지식> 27-선인들의 삶을 통하여 국어 수난과 발전의 역사를 이해한다.<태도>).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는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사용하며, 시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 문법 및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이다.

- [6국04-04]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 [6국04-05] 글과 담화에 쓰인 시간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9국04-02]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여 새말 형성의 원리를 이해한다.⁵⁾
- [9국04-03]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국어 자료를 분석한다.
- [9국04-04]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고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 [9국04-05]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⁶⁾
- [9국04-06]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적용한다.
- [10공국1-04-03]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 및 어휘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표현을 생성한다.
- [10공국2-04-01] 과거 및 현재의 국어생활에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한다.⁷⁾
- [10공국2-04-02]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 [12화언01-01] 언어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국어와 국어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 [12화언01-03] 품사와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언어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한다.
- [12화언01-04] 단어의 짜임과 의미,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어휘를 이해하고 담화에 적절히 활용한다.
- [12화언01-05] 담화의 맥락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⁸⁾
- [12화언01-06] 담화의 구조를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응집성 있는 담화를 구성한다.

5) [9국04-02]와 관련한 고려 사항으로 “단어의 짜임을 지도할 때는, 오늘날 국어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단어의 짜임에 부합하지 않는 새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어의 형성 방법과 그에 따른 단어의 짜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외국어에서 차용된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를 단어의 짜임을 고려해 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고유어의 가치를 탐색해 볼 수 있다. 한편, 품사를 지도할 때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 학습한 지식을 심화·확장하되, 품사가 우리 주변의 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 실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와 같은 설명이 주목된다.

6) [9국04-05]와 관련하여서는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지도할 때는, 이전 학교급에서 다룬 높임 표현, 지시·접속 표현, 시간 표현 등 문법 요소의 학습과 연계하되, 형식적 특성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다양한 매체 자료 및 담화 유형에 나타난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정보의 원천을 따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태도를 읽어 내는 비판적 문식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와 같은 설명이 주목된다.

7) [10공국2-04-01]에 대한 해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는 시대별 국어의 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도록 하기보다는 ‘훈민정음 언해본’과 같은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살펴 국어가 변화하는 실제임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국어의 역동적 변화 양상을 살펴 국어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국어생활의 방향과 태도를 모색해 봄으로써 국어문화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국어의 변화상을 지도할 때는, ‘공통국어1’의 성취기준에서 다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 공동체 다변화와 그에 따른 언어 실천의 문제와는 차별화된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95)”라고 되어 있다.

8) 이에 대한 해설에서 “화자의 의도, 청자의 특성, 담화의 목적 등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하기, 학습자가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직접 담화를 구성하며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어휘와 문법 요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등을 학습한다.”가 주목된다. 이유는 예를 들어 “-겠-은 어떠한 기능을 가진다”와 같은 설명을 지양하고 “주어진 텍스트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표현효과를 위해,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국어사와 문법 교육 관련 논점

국어사와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음운 교육, 어휘 교육과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획 주제의 다른 발표와 중복될 수 있지만, 발표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논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하므로 국어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논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논점을 세세하게 쟁점화하여 소개하기보다는 본 발표의 논지에 부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논의들을 중심으로 논점별로 선행연구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상론하기로 한다.

[1] 국어사 교육이 필요한가?

김영옥(1998)을 위시하여 본고의 참고문헌에 있는 대부분의 국어사 교육 관련 논의에서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원론적인 접근에서부터 현대국어, 고전문학의 탐구적 접근, 바른 국어의식 형성 등 다양한 실용적 이유를 들어 국어사 교육의 당위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천착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대입 시험이 수능으로 바뀌는 시점을 전후하여서는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국어사 교육의 경시 현상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감지되며, 최근에는 당위적인 시각에서가 아닌 학생과 교사에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주요 논의를 살피면서 개략하기로 한다.

[2] 방대한 국어사 내용 중 교육 내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국어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제시되는 4차 교육과정 이후로 중세국어에 대한 전반적 특징,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 훈민정음의 문자사적인 가치, 국어 생활사(문화사), 각 시기별 국어의 특징 등의 교육 내용이 추가 또는 전환하면서 확장되었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교육 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다. 교육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 교육 내용에서 무엇을 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는 무엇이 꼭 교육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3년 1월에 개최된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형우(2013), 황선엽(2013), 김유범(2013), 석주연(2013)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인데 각각 내용 체계별 선정 기준,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합당한 선정 기준 및 교육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논의는 주로 7차 개정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사 자료와 교육 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내용 선정에서 보완하고 지향할 바를 밝혔다. 이들 논의와 함께 이승희(2012), 양영희(2013), 박형우(2014), 허재영(2016) 등 이 시기의 논의는 체계적인 국어사 교육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고찰하였다.

이에 반해 이승희(2015), 양영희(2018, 2021) 김은주(2018), 강지영(2019), 최소영(2019) 등의 논의는 국어사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짜임새 있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김은주(2018)에서는 국정(5,6,7차), 검인정(2011년) 교과서와 신승용(2011), 이승희(2015)에서 공통되는 국어사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교육 현실 고려하여 가감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현대국어

문법과 연계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국어사 교육 내용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선별하고 이를 현대국어와 연계하여 교육하고자 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승희(2015: 79-80)에서는 ‘국어사적 중요성을 지닌 것’, ‘자료 해석을 위해 유용한 것’은 당연하고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현대국어와의 연관성’,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내용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하고 어문 규범과 연관된 국어사 내용이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이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강지영(2019)는 귀추적 관점을 끌어오면서 탐구 주제의 선정 원리로 ①국어사 귀추 탐구 교육의 범위에 해당, ②현대 국어 이해에 도움 ③언어에 대한 유기적인 관점 정립에 도움, 이 셋을 제시하였다. 탐구 주제가 곧 교육 내용은 아니지만 곧 귀추적 방법에 의한 탐구 방법으로 현대국어와 연계하여 국어사를 교육하자는 취지이므로 국어사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현대국어와의 연계가 중심이 된다.

[3] 국어사 및 문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앞 절에서 살펴본 교과과정의 흐름을 보면 ‘고전문학 작품의 해독을 통한 국어사 교육 > 대학의 국어사 교육의 축소판으로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춘 국어사 교육 > 국어 생활사를 가미한 국어사 교육 > 옛말과 현대국어의 차이 및 변화를 중심으로 한 국어사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어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논의는 주세형(2005)와 장윤희(2002)에서 시작된다.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2002ㄱ)의 연구소 집필진에 포함된 저자의 저술인 주세형(2005)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범시적 교육’을 주장하였다. 즉 학습자가 ‘과거의 언어’에 대하여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⁹⁾ 과거와 현재의 언어를 분리하지 않는 ‘범시적’ 시각으로 설계하여 국어 문화의 심층적 이해까지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는 7차 개정 중점 중 하나로 국어 지식을 탐구하고 적용하여 보는 과정을 통하여 국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한다¹⁰⁾ 주세형(2005)의 논조는 10여 년이 지난 뒤에 양영희(2016), 김은주(2018), 이규범(2019), 최소영(2019, 2021) 등 많은 논의에서 발견이 된다. 김은주(2018)는 학위 논문으로서 대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단순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지양하고 “현대국어에서 학습한 문법 개념과 공시적 국어의 이해 내용이 통시적 국어 이해에 적용되고, 다시 통시적 국어 이해가 현대국어 이해와 언어 탐구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선순환”(김은주 2018:82-83)을 강조하며 ‘범시적’ 문법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시와 통시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시(凡時)’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현대 이전의 언어와 현대국어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탐구 욕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영(2019)는 2015 개정 교과 과정과 이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국어사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논의 역시 성취 기준에서 변천이 아닌 ‘국어의 변화’에 주목하도록 한 것을 중시하고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현대국어와의 연계를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최소영(2021)은 이러한 방향 제시에 더하여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국어사 교육에 대한 필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어사 교육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의 기본적인 방향은 ①현대 언어에 대한 이해의 심화, ②지식의 내면화를 위한 탐구 도입, ③고전문학 교육과의 통합 세 가지이다. 강지영

9) 이는 학습자가 국어사적 사실을 맥락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해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형(2005)에서 “‘과거의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어떠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절대주의 지식관”의 대척점에 둔 것이다. 한편 주세형(2005:339) ‘범시적 시각에서 공시대와 통시대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여는 ‘범시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그 적합성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0)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2002ㄴ:21)의 제7차 교육 과정의 개정 중점 참조.

(2019)도 귀추적(abductional)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현대 국어와 과거 국어를 연결하여 그럴듯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국어사 탐구 교육’을 제시하여 기본적으로 현대국어와의 연계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최소영(2021)에서 도출한 교육 방향 중 세 번째는 장윤희(2002)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전문학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국어사를 교육하고자 하는 논의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국어사 교육의 확장기에 국어사 자료의 외연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 국어사 교육의 축소 흐름에서 국어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필요에 의한 측면에서도 이루어졌다. 전자의 측면은 특히 국어 생활사와 많이 연동되며 교육의 효과를 상술하였는데 후자의 측면에서도 그 동기 및 주장의 논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고전문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국어사 교육을 도모하거나 고전문학 교육에 있어 국어사 지식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상당히 많은데 국어사 교육에 무게 중심이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보면 장윤희(2002) 외에 장윤희(2005), 김사랑(2009), 이승희(2011), 이상영(2013), 양정호(2015), 김유범·하윤섭(2021), 이병기(202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승희(2011), 이호형(2011)에서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을, 이승희(2014)에서는 어문규범과의 연계를 통한 국어사교육을 제안하였다. 양영희(2013)도 2011 교과과정에 맞추어 국어사와 현대국어 문법과의 위계적 연계, 읽기, 독서 영역과의 영역간 연계를 교육 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양영희(2018) 역시 2015 개정 교과과정에 따라 국어사와 타 영역과의 통합 내지는 연계 교육을 논파하였다.

[4]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국어사 내용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이승희(2012)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16종의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사 교육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교과서에서 보이는 오류나 견해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각 교육 내용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중, 고등 학생들에게 이러한 논쟁 사항까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국어사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필요한 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정적인 사실들을 혼동 없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국어문법사 전공자가 할 일은 문법 분야의 연구를 더욱 정밀하게 하여 확정적인 표준안을 도출하는 일일 것이다. 다음은 문법 부문 국어사 교육에서 많이 다루어진 사항들이지만 논쟁의 여지가 큰 몇 가지를 예시한 것이다.

- 선어말어미 ‘-시-’의 이형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에 대하여는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드르샤’, ‘니르샤디’에 결합되어 있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시-’로 분석하는 견해와 ‘-샤-’로 분석하는 견해가 갈린다. 일찍이 李基文(1961/1972/1998:173)은 “의도법 어미 ‘-오-’ 또는 부동사 어미 ‘-아’와 결합하면 ‘-샤-’, ‘-샤’가 됨이 특징이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고영근(1987/1997, 2005:42-46), 허웅(1975:674), 안병희·이광호(1990:223)에서는 ‘-시-’가 모음 어미 앞에서 ‘-샤-’로 교체(변동)한다고 설명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문법 교과서인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2002: 292), 중등임용시험 교재 성격의 나찬연(2009)가 교체설을 따르고 있고 이를 참고한 국어교육과 학위 논문에서도 이러한 분석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김은주(2018:86, 101)에서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썩니미 아비 말 드르샤<석보상절 11:6>”에 대하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했다’라고 설명하고 ‘(부테) 니르샤디’를 ‘니르--샤--디’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李基文(1961/1972/1998:173)의 설명은 ‘시+아/어→샤’, ‘시+오/우디→샤디’로 보는 융합설에 해당하고 김유범(2001, 2008:215-218)에서도 교체설을 부정하는 다각적인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이승희 외(2013)에서와 같이 대학 교재에서도 융합설로 분석하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¹¹⁾

11) ‘-시-’의 이형태로 ‘-샤-’를 상정하는 교체설은 ‘이셔’, ‘이쇼디’와 다른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고, ‘-오

-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설명 범위

선어말어미는 ‘-오-’의 출현 환경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대체로 허웅(1975)의 인칭활용설, 대상활용설을 따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출현 환경을 기술한 것이지 기능에 대한 설명은 아니어서 중등 교육에서 자칫 한국어 문법 범주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 기능을 양태적인 의미로 설명할 것인지, 일치소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 설명을 아예 빼고 나아가 혼동을 줄이기 위해 평서형과 연결형의 ‘-오-’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래는 참고를 위해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2002)의 기술을 옮겨 놓은 것이다.

“평서형 어미와 연결 어미에 주로 나타나는 ‘-오-’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임을 표시한다. 관형사형 어미에 나타나는 ‘-오-’는 관형사형이 꾸미는 명사가 관형사형에 나타나는 용언에 대하여 의미상의 목적어이거나 부사어일 때 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 2002 ㄱ: 293)

(‘빙?노니’ 등의 예에 대하여) “주어 대명사가 화자 자신(1인칭)일 때에 이에 일치하여 서술어에 ‘-오-’가 나타나는 것이다.”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 2002 ㄱ: 303)

- 주격조사 ‘가’의 출현 시기

“15세기 국어에는 주격 조사로 ‘이, ㅣ(y), Ø’가 있었다. 주격 조사 ‘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이후 ‘가’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이후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이’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가’가 나타나는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체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 (2002: 308)

이기문(1961/1972/1998:166)에서는 “춘 구드릭 자니 비가 세니려서 즈로 둔니니<송강 자당 안씨 →송경 형제 1572>”를 주격 조사의 최초 예로 보고 16세기 후반의 국어에는 주격 조사 ‘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일근(1986/1991:50)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인간의 문구는 ‘비 가세 니려서’로 분절하고 “(찬 구들에서 자) 복통이 일어”를 뜻하는 당대의 관용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주격 조사의 첫 예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승희(2012:163)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17세기 이후 주격 조사가 출현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몇몇 교과서는 16세기 후반에 출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교과서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격 조사의 출현 시기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한편 중세국어 주격조사 교체형 ‘ㅣ(y)와 Ø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 2장으 ‘불휘 기픈’에 주격 조사 ‘Ø’가 결합하였다고 설명할 것인지, 표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현대 국어 설명 방법 틀에서 일관되게 교육할 방안이 필요하다.

- 관형격 조사와 사이시옷

사이시옷이 개재된 현대국어 합성어의 경우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구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국어와 같이 사이시옷이 개재된 합성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숲 가락’으로 표기하고 ‘ㅅ’을 관형격 조사로 볼 것인지, ‘숲가락’으로 표기하고 사이시옷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비자동적교체와 ㅎ 종성 체언의 표기 문제

체언의 비자동적 교체형과 ㅎ 종성 체언을 설명할 때 흔히 ‘남ㄱ’, ‘나라ㅎ’ 등과 같이 음절 표기에 벗어나게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에 따른 교체 양상에 따라 ‘남(또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남’ 또는 ‘낙’), ‘나랏(또는 8종성표기에 따른 ‘나랏’)’의 표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일부 교재에서는 ‘남’, ‘나랏’과 같이 받침으로 교체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살코기’의

-와의 융합설은 ‘다(더+오), ‘가(거+오), ‘과(거+오)’ 등과 동궤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원 정보를 ‘훈+고기’와 같이 ‘ㅎ’을 받침으로 적어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표기에 따라 이들의 교체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어사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논쟁을 줄이고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표준화할지에 대한 고민은 각 개별 사항만으로도 방대한 논의가 될 것이고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후고로 미룬다. 다만 그 기준은 국어사의 연속성에 합당하면서도 학생들이 현대 국어 틀에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며,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가 아닌 사실을 밝혀내는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국어사 전공자들의 더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연계(통합)적 교육 방안

앞 장에서 살펴본 역대 교육과정의 개정 흐름과 개정에 따른 국어사 및 문법 교육에 대한 주요 논의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국어사 교육과 현대국어 문법 교육이 연계되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국어사 교육과 고전 텍스트 교육이 연계(통합)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 이러한 연계는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아직도 막연한 단계이지만 이러한 연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로 한다.

3.1. 국어 문법사와 현대국어 문법 연계

현대 국어 문법 지식이 어느 정도 틀에서 구현될 수 있다면 기본적인 국어사전에 제공되는 여러 문법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지식에서 벗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탐구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어 문법사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언어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어 문법사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젓다. 잡다’ 등의 규칙적인 활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한 뒤 ‘젓다(<젓-), 아름답다(<아름답-)’ 등의 불규칙활용 동사의 활용 양상을 그 다음 단계의 심화 과정에서 이해시킨다. 여기서 교육이 멈춘다면 ‘국어가 체계적이지 않고 외울 게 많네’라는 국어 및 문법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비체계적인 모습의 배경에 언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여러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맞춤법 18항과 연계하여 규범 교육은 물론 다양한 내용적 확장도 할 수 있다. 사실 일부 불규칙활용이 언어 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함께 교육하는 방안은 이미 많이 언급되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 탐구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된 바다. 이러한 사례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활용한다면 문법 교육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어 문법사를 교육하는 별도의 장이 없어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문법사 교육은

12) 양영희(2013)은, 구체적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2011년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성취과정들을 세분하여 재배치하는 선에서의 제안이지만 국어사가 현대국어 문법 영역과의 위계적 연계, <읽기>, <고전>과의 수평적 연계가 고전문학과의 연계가 가능함을 논의하였고 이러한 기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 통합까지를 고려한 연계를 염두에 두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체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계(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 발표에서 ‘연계’라고만 표현한 부분은 중립적이지만 ‘연계(통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만을 설명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현대국어 문법에서 보이는 비체계적인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의문들 중 국어 문법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본 것이다.

<조어법 관련>

(1) ‘발-가락’과 달리 ‘무-자위’, ‘손-가락’은 선행 명사의 종성 ‘ㄹ’이 탈락하거나 ‘ㄷ’으로 적는 이유는? (심화1) ‘못사람’도 <표준>의 어원정보는 ‘손가락’과 같이 “<몹사람<두시-초>←물+-ㅅ+사람”이고 선행명사 종성의 발음도 같은데 표기가 ‘ㄷ’, ‘ㅅ’으로 다른 이유는? (심화2) ‘나뭇집’과 ‘나무집’은 왜 다른가? (사이시옷과 관형격조사)

(1)은 모두 ‘ㄹ’로 끝나는 명사와 다른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ㄹ’이 왜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2020년 입시 수능 시험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고교 교육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일단 한글맞춤법 제27항(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8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단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제29항(끝소리가 ‘ㄹ’인 말과 단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과 연계되며 이 규정들은 결국 총칙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에 수렴된다. 즉 발가락, 무자위, 손가락의 표기 양상이 다른 이유는 일단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말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면을 관찰하였고 어문 규범과 연계도 되어 이 정도면 많은 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전술했듯이 학습자들이 우리말과 문법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말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표준>에서 제공하는 어원 정보를 활용하여 관형격 조사 ‘ㅅ’, 과거 ‘ㄹ’ 탈락 규칙, 과거 종성의 발음 및 표기 등과 관련한 국어사 교육을 하고 (1)의 각 단어가 상이한 모습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극을 주고 더 다양한 탐구의 기회를 주고 우리말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심화1)은 발음 양상에서 ‘손가락’과 같은데 ‘못사람’의 경우는 받침에 ‘ㅅ’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의문과 탐구 활동이다. (심화1)을 통해 명사와 관형격 조사의 결합형 시간이 지나면서 관형사가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로 현대국어에서 표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심화2)를 통해 본격적으로 현대국어 사이시옷과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를 연계하여 교육을 확장할 수 있다.¹³⁾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현대국어에 대한 물음 하나만으로도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국어사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13) 사이시옷과 관형격 조사에 대하여는 어문 규범을 활용한 국어사 교육을 고찰한 이승희(2015: 81-83)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지영(2018: 143-147)에는 ‘사이시옷과 관형격 조사’를 주제로 귀추적 관점의 국어사 탐구 교육 내용을 구성한 활동지가 제시되어 있다.

(2) 소고기가 아니고 '쇠고기'인 이유는?

(심화1) '내 사진'과 '나의 사진' 같은 의미의 두 가지 표현이 있는 이유는?

(심화2) '나까'가 아니고 '내가'인 이유는?

(2)는 (1)에서의 심화 확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 '쇠고기(<쇠고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부 명사와 대명사에 결합하는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ㅣ'와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¹⁴⁾ 그리고 '내'(나03[I]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을 때의 형태)와 '나'¹¹⁾(나03[I]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의 차이, 그리고 주격 조사 '가'의 출현과 관련하여서도 확장하여 교육할 수 있다.

(3) 살코기, 암탉 등에서 고기, 닭의 초성이 유기음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심화1) '수컷-숫컷'은 어떻게 다른가?

(심화2) '머리카락'에서 '가락'이 '카락'으로 유기음화한 이유는?

ㅎ 종성체언

한글맞춤법 제31항 'ㄴ',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승희2015:84-86, 각주9)

표준어규정 7항 접두사 수-로 통일-수개, 수강아지, 수컷-숫컷(숫눈, 숫총각, 숫처녀), 수닭, 수탕나귀, 수소, 숫양, 숫염소, 숫쥐(이승희2015:86-7)

코끼리, 갈치, 윗입술, 웃옷 등의 예를 통해 국어 변화의 다양성 교육 가능.

머리카락-머리카 : 머리털-머리털력 : 머리빗-머릿발-머릿비누

(1)과 (3)이 연계되면 '뭇꽃, 뭇매, 뭇입, 뭇풀(, 첫사랑)은 합성어이고 꽃꽃, 꽃밤, 꽃벼, 꽃잠(, 첫사랑)는 파생어인 이유는?' '그리고 꽃내, 꽃소의 단어 종류는?'과 같은 정말 문법적인 탐구도 가능하다.

(4) '좁쌀-조밥, 찹쌀-찰밥, 햅쌀-햅밥'에서 '쌀'이 결합할 때와 '밥'이 결합할 때 모습이 다른 이유는?

(3)과 연계

중세국어 어두자음군

(5) '어른', '어르신'과 '어린이', '젊은이'는 왜 '이'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일까?

고대국어, 중세국어의 동명사 어미

(6) 파생어 '길이', '높이'는 왜 부사와 명사 모두 있을까?

14) 표준어 규정 제18항 쇠고기 원칙, 소고기 허용. 이승희(2015:88-9)

중세국어 명사파생 접미사 ‘의/이’의 존재와 근대국어 단모음화

(7) ‘떡거리’와 ‘떡을거리’는 같은 것인가?

중세국어 비통사적 합성어

<활용 관련>

(8)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 곱다(曲, 損) 잡다, 접다, 입다 등과 곱다(美), 줍다, 아름답다 등의 활용 양상은 왜 다를까?
(심화1) 표준어 ‘저으니’가 전라도, 경상도 지역어에는 ‘젓으니[저스니]’인 이유?

예시를 보여주는 차원이어서 ㅂ 불규칙 관련 일반 물음에 ㅅ 불규칙 활용을 (심화1)로 제시하였다.

지역어의 다양한 모습도 ‘역사의 공간적 투영(이기문1998: 14)’이라는 틀에서 교육할 수 있다.

‘듣다’가 지역어에 따라 규칙 활용형을 보이기도 하고 불규칙 활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역시 역사적으로 ‘*뚝-’을 재구하여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이익섭 외 1997: 329-330)

(9) 경상 방언의 ‘이거 누 책이교?’, ‘그기 니 책 아이가?’ 대화에서 의문형 어미가 다른 이유는?
(심화) 경상 방언의 ‘니 누꼬?’에서 의문형 어미는?

중세국어 의문법

의문대명사 ‘누구’의 발달 연계

(10) ‘아이의 응석을 받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인의 뜻을 받자와 행동했다’에서 ‘받다’와 ‘받잡다’의 차이는?

열잡다>여쭙다, 받잡다>받잡다

(11) ‘옷을 입었다’가 완료 지속의 ‘옷을 입고 있다’의 의미도 가지는 이유?

실제 언어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박형우(2014), 하빛나(2017) 등에서도 ‘-어 잇-’ > ‘-었-’의 문법화를 활용한 문법 및 국어사 교육을 논의하였다. 특히 하빛나(2017)은 현대국어 현상 중 통시적 접근만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사례로 ‘-어 잇-’ > ‘-었-’의 변화를 들어 문법 내용 탐색과 구현의 실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2) ‘밥을 먹었겠다’와 ‘밥을 먹겠더라’의 의미 차이는?

중세국어 ‘-리러-’,
고전시가 ‘살어리 살어리랏다’<청산별곡1>
‘-리-’의 쇠퇴와 ‘-겠-’의 발달

(13) ‘-더-’가 1인칭 주어일 때 잘 안 쓰이는 이유?

중세국어 ‘-더-’의 기능
이 물음은 고전문학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내 니믈 그리스와 우니다니’<정과정1>는 왜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더니’로 현대역하면 어색한 이유?”와 같이 바꿔 생각할 수 있다.

(14) ‘효린이가 웃었다’가 인용과 직접 지각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이유?

(심화) ‘웃데요/웃대요’, ‘웃는데요/웃는대요’의 짝에서 옳은 것은?

인용 표현의 변화
‘ㅎ-’의 탈락

<피동, 사동 관련>

(15) ‘살다’의 두 뜻에 대하여 거주하다(住) 의미에 대한 사동사는 없고 소생하다(生) 의미에 대한 사동사만 있는 이유는?

(심화1) ‘세우다. 재우다’에 사동접사가 이중으로 결합한 이유는?

(심화2) ‘견마를 잡히다’의 ‘잡히다’는 사동사일까 피동사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물론 일반적이고 규칙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것들로 심화 학습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의문은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객관화해서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문법을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성취기준들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에 국어사적 지식이 답을 못할 경우도 있다. 답을 할 수 있도록 국어사학자들이 더욱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심화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이 몇몇 학생에게는 국어학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국어 중심으로 국어사를 연계하여 교육하게 되면 국어사 중심에서 그 선별 기준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로 선별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소멸된 범주 즉 ‘현대국어에 흔적이 남지 않는 범주 및 형태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발표자는 중등교육에서 제외해거나 밀쳐 두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접근만으로도 그 확장성 때문에 꼭 필요한 국어사적 사실이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국어사 교육을 위해 나아가 다른 영역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전 텍스트와 연계한 교육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8), (9), (12), (13)에서와 같이 중등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고전 텍스트와의 연계, 현대국어 방언과의 연계를 간접적으로 시도해 본 것이다.

3.2. 국어 문법사와 고전 텍스트 연계

앞 절에서의 논의가 국어사 교육과 현대국어 문법과 교육과의 연계 방안이라면 이곳에서의 논의는 국어사 교육과 고전 텍스트 교육과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것이다. 물론 본고의 목적이 국어사와 문법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절에서도 국어사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문법론 분야의 내용에 집중하기로 한다.

국어사 교육과 고전 텍스트와의 연계에 대하여는 2.2.의 논점 [3]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구본관(2009) 등과 같이 국어문화와 관련한 국어생활사 교육과, 국어의 역사와 관련한 국어사 교육의 조화를 제안한 논의들도 고전 텍스트와 국어사의 연계를 지지하는 논의들이다.¹⁵⁾ 민현식(2003)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점점 부담스러워 하는 국어사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일찍이 국어사 학습과 국어문화사 학습의 절충을 제안하였다.

고전문학과 국어사 교육의 연계를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안한 논의는 장윤희(2002)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의에서 고전문학과 국어사 연계 교육을 제안하여 고려가요와 고시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어구의 해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살어리랏다
 유니로라-우니노라
 본다¹⁶⁾
 디내와손더 [디내+꿏(거+웃)+오+ㄴ더]¹⁷⁾
 엇디호리라
 드로라
 잡스와니(이상 청산별곡)
 오소이다(동동)
 모를로라(시조)
 죠희, 조해, 못ㅎ애(시조)
 그릴 줄을(시조) 그리위할 줄을, 그리할 줄을(401)
 날일고, 말고 일고(속미인곡)(402)

이들 사례의 고찰을 통해 장윤희(2002)는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국어사 지식 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이렇게 고전문학 교육의 측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사 지식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인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 지식 영역을 별도의 단원으로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어사 지식을 별도의 단원에서만 집중적으로 가르

15) 국어생활사(어문생활사, 국어문화사)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 국문학과 또 다른 차원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는데(장윤희 2005, 김은성 2007, 구본관(2009), 박형우 2009 등) 여기서는 국어 생활사 자료로서의 고전 텍스트를 활용하여 국어 문법사 교육을 도모하고 이러한 방안이 고전문학 및 국어 생활사 자료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다.

16) 형서형 ‘-ㄴ다’는 16세기 초 내포문에 처음 등장하고 17세기말에 상위문에서도 활발히 쓰임(김완진 1976 장윤희 1998:213, 장윤희2002:391)

17) 이와 관련하여 이승희(2012:164)에서도 ‘너를 맛보과라(두시언해)’에 대해 ‘너를 만나보는구나’로 현대역을 제시한 교과서가 있는데 ‘너를 만났구나’로 해석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쳤을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고전문학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국어사 지식을 그때그때 가르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국어사 지식을 더 공고히 해 줄 수 있다.”(장윤희 2002:402)라고 하였는데 전적으로 공감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2001년 학술대회 당시 토론에서, 정확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점점 흥미도를 잃어가는 수업 안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문학에 대한 관심마저 앗아가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또한 고전문학 텍스트에는 여기서도 예를 든 것과 같은 입말 채록 텍스트가 많은데, 그에 대해 모든 국어학자가 동의하는 정확한 해석이 존재하느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런 국어학적 지식 학습의 강화가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김혜숙 2001: 83-84)”는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김혜숙(2001)의 우려는 정말 타당하고 현실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고전문학과 국어사의 통합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국어학 연구자, 고전문학 연구자 등의 협업에 의한 재판 짜기가 필요하다.

이병기·임재욱(2022)에서도 고려가요 <동동>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국어사 교육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동동> 단 하나의 작품 속에도 국어사의 중요한 지식을 모두 담고 있음을 밝히고 작품 해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열하고¹⁸⁾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맘에 드는 또는 합리적인 해석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는 교육안의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국어사 따로, 고전문학 따로 교육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 총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고전 텍스트에는 고전시가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실용서, 옛신문, 한글 편지 등도 있다. 특히 한글 편지는 이승희(2012), 석주현(201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미 7차 교육과정은 물론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국어사 자료로서 많이 수록되었었는데 국어문화사, 매체의 언어에 중심을 두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들을 선별하여¹⁹⁾ 여러 목적의 통합 교육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어사를 활용한 문법 교육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현대국어 문법 교육을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탐구와 태도 변화로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국어사 교육을 입체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기획된 논문이지만 전체적으로 국어사가 중등 교육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된 느낌이 있다. 특히 고전 텍스트와 국어사의 연계가 그러하듯 텍스트의 이해와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문법이 기여할 바가 크기 때문에 현대국어를 포함하는 국어문법사의 측면에서 처음 목적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3장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반영되도록 개정 논의에 앞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설득력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가 이미 급하게 집필되고 있는데 연계 방안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그 취지에 있어 부합하는 만큼 각종 탐구활동을 통해서라도 연계(통합)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종이 출판의 틀을 벗어나서 전자 출판

18) 국어사 연구자와 고전문학 연구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 논의는 원래 어학적 여러 가능한 해석과 문학적 여러 가능성을 따로 제시하고 이들 가능성을 여러 조합으로 결합시켜 가장 합리적인 해석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어학적인 고찰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

19) 예를 들어 학봉가 편지의 '사름이 죽기 곳치 설운 거시 없고 슬기 곳치 죠흔 거시 업습' 같은 표현은 생명을 경시고 삶을 쉽게 포기하는 현 세태에서 학습자에게 의외의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잘 선별하면 문화사적, 정서적,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 형태를 염두에 두고 하이퍼 링크를 활용하여 연계와 통합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종이 출판과 전자 출판을 중간 과정으로, 이미 실편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김은주(2018: 85)에서 제안한 QR 코드 활용 방식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링크된 여러 설명과 활동을 예전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부록 내지는 별책으로 묶고 한편으로 국어사에 대한 개괄을 제공해도 좋겠다.

전술했듯이 여러 분야의 협업에 의한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면 복수의 성취 기준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문법사를 전공하는 연구사로서 계속 매진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적은 국어사 지식 내용 정립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7/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2005),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 『국어학』 46, 19-51.
- 교육부(2022),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구본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교육』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67.
- 김사랑(2009), 「고전문학 작품을 통한 국어사 교육방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옥(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청어문』26, 서울대 국어교육과, 85-110.
- 김유범(2001), 「15세기 국어 문법형태소의 이형태 형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5-25.
- 김유범(2008), 「이형태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1-222.
- 김유범(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방법과 교재」, 『문법교육』10, 145-167.
- 김유범(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연구』16, 국어사학회, 63-95.
- 김유범·하운섭(2021),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소통과 협력」, 『뉴 노멀 시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쟁점과 방향(제74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21.8.21)』, 국어교육학회, 99-122.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연구』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65-397.
- 김은주(2018), 「중등 국어과 학습자를 위한 범시적 문법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金一近(1986/1991:50), 『三訂版 諺簡의 研究-한글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혜숙(2001),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편」, 한국국어교육학회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82-84.
- 李基文(1961/1972/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10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71-129.
- 민현식(2003), 「국어문화사의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1-267.
- 박재민(2014), 「<동동(動動)>의 어석과 문학적 향방 -12월령을 중심으로」, 『泮矯語文研究』 36, 반교어문학회, 201-225.
- 박형우(2006), 「국어교육에서의 중세국어 문법 교육」,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131-158.
- 박형우(2009), 「국어생활사 교육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시고」, 『문법교육』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5-173.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16, 국어사학회, 7-34.
- 박형우(2014), 「문법화에 기반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50, 131-162.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ㄱ), 『(고등 학교 교과서) 문법』, (주)두산.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2002ㄴ), 『(교사용 지도서) 문법』, (주)두산.

- 석주연(2013),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 현황과 방향성 탐색-근대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16, 97-126.
- 신승용(2012), 『국어사와 함께 보는 학교문법 산책』, 태학사
- 신승용(2022), 『쉽게 풀어 쓴 국어사 개론』, 집문당.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7, 51-74.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영희(2013), 「문법 교육에서의 국어사 내용 체계 구성」, 『한글』302, 한글학회, 247-276.
- 양영희(2016),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국어사 교육 설계」, 『국어교육학 연구』, 51(4), 155-180.
- 양정호(2015),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및 자료 텍스트에 대한 분석」, 『텍스트언어학』38, 텍스트 언어학회, 145-165.
- 우상영(2013), 「중세국어 문법과 고전시가의 통합교육 모형 연구: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과 <가시리>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기·임재욱(2022) 「<동동>을 이용한 국어사와 고전문학의 통합적 교육」, 『한국어문교육』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99-138.
- 이상호(2003), 「국어생활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11),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교육」, 『정신문화연구』34-2, 한국학중앙연구원, 220-242.
- 이승희(201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단원 내용 연구」, 『국어교육』138, 한국어교육학회, 147-168.
- 이승희(2015), 「어문 규범 교육과 연계한 국어사 교육 연구」, 『한민족문화연구』49, 한민족문화학회, 71-93.
- 이영옥(2018), 「문법 요소와의 통합적 교육을 고려한 시 작품의 분석과 선정」, 『국어교육학연구』53(1), 국어교육학회, 119-153²⁰⁾.
- 이호형(2011), 「언간을 통한 국어생활사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40, 국어교육학회, 503-536.
- 장윤희(2002), 「국어사 지식과 고전문학 교육의 상관성」, 『국어교육』108, 한국어교육학회, 361-407.
- 장윤희(2005), 「국어생활사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141, 국어국문학회, 107-132.
-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2, 87-116
- 조동일(2003), 「어문생활사로 나아가는 열린 시야」, 『관악어문』28,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69-90.
-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22, 325-354.
- 최소영(2018),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텍스트 구성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18-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65-689.
- 최소영(2019), 「국어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43, 143-190.
- 최유미(2013), 「언간 자료의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철·박재민(2003), 『석주 고려가요』, 이회.
- 최초희(2013), 「탐구학습을 위한 국어사 내용의 선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빛나(2017), 「학습자의 국어 인식 확장을 위한 중세국어 문법교육 내용 연구: 현대국어 ‘-있-’과 중세국어 ‘-어 잇-’을 중심으로」, 『학술발표논문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09-125.
- 허 용(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16, 국어사학회, 36-61.
- 황선엽(2016), 「중세-근대국어 속격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23, 국어사학회, 71-95.

20) “‘정해진 그리고 주어진 해석’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일정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문법적 표현은 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영옥 2018: 123)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토론

김현주(공주교대)

총평

이 발표는, 발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제목, 즉 ㉠ 문법사를 활용한 현대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 현대국어 문법 교육을 활용한 문법사 교육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론자 역시 발표의 입장처럼 문법 교육을 위해 문법사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곧 문법사 교육의 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는 국어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과 더불어 고전문학과의 관련성을 활용한 국어사 교육의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의 경향상 국어 문법사 자체의 지식을 예전과 같은 깊이와 폭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절대 수업 시수가 줄고(사교육이 채우고) 국어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다른 하위 분과들, 가령 연극, 매체 등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분을 늘려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 및 선행 연구들의 제안대로 현대국어 문법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고전문학과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적 압박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1.

‘국어사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필요하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 국어사 교육을 위해 현대국어 문법이나 고전문학과의 연계 내지 통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질문은 ‘국어사가 별도의 하위분류로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획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체화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현대국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 ‘고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국어사 내용이 필요하다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2.

현대국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국어사 내용 지식, 고전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국어사 내용 지식이라고 하면 언뜻 적은 양의 지식만 필요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병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컨대 특이처격을 설명하면서는 속격과 처격의 기능, 분포, 이형태를 함께 설명해야 할 것이고, ‘-스빙-’ 등을 설명하려면 이형태, 기능, 주체존대와의 차이 등 많은 내용을 뒤따라야 합니다.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의 네트워크적 특성이라는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 예를 더 들면, ‘쇠고기’, ‘내가’를 거론한 부분에서도, 이들에 대해 과거에 쓰인 조사의 화석이 들어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문자와 소리의 구분이라는 기본 지식이 오도되지 않도록 하향이중모음들의 존재, 이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니’의 w계 상향이중모음화 등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꼬리를 물며 늘어난다고 모두 교과서에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어떠한 기준으로 중등 교육에 반영할 내용을 선별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결국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발표의 논지 전개를 따라가면 현대국어 문법의 비체계적 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국어사 내용, 고전문학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어사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들에 도움이 되는 내용 지식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덧붙여 비체계적 현상의 이해만이 아니라 ‘었:zero:겠’ 같은 체계적 현상의 이해에서도

국어사의 쓸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국어사 내용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예를 들어 두셨습니다. 국어사 교육에서 교수할 내용 지식을 가르치는 주요 필터가 현대국어 문법이나 고전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임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행태나 분포 등을 기술하는 수준에서만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들은 문법사 교육의 소재로서 의의가 낮아 보입니다. 가령 평서문에 쓰인 ‘-오-’는 주어가 1인칭일 때 주로 나타난다고만 하면 현대국어 ‘-노라’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같은 표현이 가지는 뉘앙스를 설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합니다. ‘-샤-’에 대한 두 가지 분석 태도도 마찬가지로 별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

만약 국어과 내용 교수 구획에서 고전문학과 국어사를 통합한다면 두 분야 모두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먼저 국어사의 입장에서, 지문에 따라 국어사 내용 지식의 종류가 매우 다를 수 있고 이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전문학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주제, 시대상 등이 중요한 이슈인데 이러한 주요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문법적 지식을 근거로 삼기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덧붙이자면 2017년 한글박물관, 한국시가학회가 공동으로 연 학술대회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김천택 편 『청구영언』의 종합적 고찰”에서 발표된 박진호 선생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김천택 편 『청구영언』은 국어사적 지식이 문학적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휘사를 활용한 현대 국어 교육 방안

이동석(한국교원대)

< 차례 >

1. 서론
 2. 관련 연구 동향
 3. 어휘사의 활용 방안
 4. 결론
-

1. 서론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언어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변화가 심한 것은 단연 어휘이다. 어휘는 수많은 단어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단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단어가 새로 생겨나면서 어휘의 목록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한다.

단어의 의미 역시 끊임없이 변한다.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도 하고 기존의 의미가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단어의 형식에 해당하는 말소리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단어 개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어휘는 다양한 변화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휘의 다양한 변화 내용이 곧 어휘사로 귀결된다. 개별 단어들의 통시적인 변화가 모두 어휘사의 내용이 되므로, 어휘사란 매우 방대한 정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어휘의 역사를 탐구하는 일은 종합적인 작업이며, 문법의 여러 부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휘사의 이러한 특성은 국어 교육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준다. 현대 국어는 과거에 사용하던 우리말의 변화가 응축된 결과물이므로 현대 국어를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과거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대의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어휘사의 지식을 활용하여 현대 국어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 분야의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어휘사의 내용을 현대 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어휘사의 지식을 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는 어휘사의 지식을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둘째는 어휘사의 지식을 국어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셋째는 어휘사의 지식을 형태, 통사, 의미, 음운 등 문법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와 관련된 연구로는 구본관(2008), 이기연(2009), 최소영(2011), 전형주(2012), 김미미(2012), 안찬원(2013), 김태은(2014), 성우철(2018), 김보름(2019), 정은진(2019), 김진우(2021) 등이 있다.

어휘사의 지식을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어휘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둘째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위의 연구 성과 중 어휘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안찬원(2013), 김태은(2014), 성우철(2018), 김보름(2019) 등이 있다.

안찬원(2013)은 ‘앗/앗’ 계열 어휘들의 어원 정보를 ‘다의어 교육, 의미 연결망 활성화, 의미 관계 교육, 방언 교육, 민간 어원을 활용한 어원 교육, 올바른 외래어 사용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김태은(2014)는 어휘사를 활용한 어휘 교육 내용을 ‘어휘 형성 과정에 반영된 사고 탐구, 어휘의 의미 탐구, 표기에 남아 있는 옛말의 흔적 탐구’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성우철(2018)은 어휘 교육의 내용 요소로 ‘형태 지식과 어휘 관계, 어휘 인식과 어휘 변화’를 도출하였다. 김보름(2019)는 어원 사전의 어원 정보를 활용하여 어휘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유형을 어휘의 유래, 어휘의 형성, 어휘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기존의 어휘 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어휘사의 지식을 활용하여 어휘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어휘사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구본관(2008)에서 토대가 구축되었다. 구본관(2008)은 어휘사 지식이 문화적인 문식력을 높여 주고,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공식적인 어휘의 이해나 사용에 기여한다고 보고, 수 관련 어휘사, 색채 관련 어휘사, 생활 관련 어휘사, 높임 관련 어휘사 지식이 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이기연(2009)는 어휘사를 문법, 형태의 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어사와 다른 맥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차원에서 어휘사를 다룰 때 의미의 변화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 문화상 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최소영(2011)은 양복(洋服), 자전거(自轉車), 식사(食事)의 어휘사를 통해 성차별적인 어휘와 문화, 외래 문화의 수용, 어휘 선택의 문제, 높임법의 약화 현상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 등 어휘사 교육을 통해 국어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미(2012)는 ‘별레’의 어휘사를 통해 표준 어휘, 방언 어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육하는 방안을, 정은진(2019)는 ‘사진’과 호응하는 어휘의 변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어 교육에 통시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김진우(2021)은 ‘화장실’의 어휘사를 통해 관련 어휘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소영(2011), 전형주(2012), 김태은(2014), 정은진(2019), 김진우(2021) 등은 교수·학습 활동 및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어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어휘사를 활용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은 국어사의 지식을 통해 국어생활사(어문생활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국어생활사에 대한 논의는 어휘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으로, 어휘사의 지식을 국어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논의로는 최혜빈(2016)이 있다. 최혜빈(2016: 70)은 어휘 변화에서 음운 변화, 의미 변화 등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통합적인 어휘 교육을 통해 국어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혜빈(2016: 56~68)은 음운 변화를 보여 주는 단어로 ‘김치’를, 의미 변화를 보여 주는 단어로 ‘사탕’을, 국어 생활을 반영하는 어휘로 ‘형, 아오, 동심’을, 우리말이 외국어에 차용된 단어로 ‘모시’를 선정하고 어휘사를 활용하여 국어사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어휘사를 통해 형태, 음운, 의미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다루었다기보다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어휘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국어사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

다.

어휘사의 지식을 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세 번째 방안은 어휘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서 포착되는 형태, 통사, 의미, 음운론적인 변화 양상을 현대 국어 문법 및 국어사를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동석(2018a), 이동석(2019)가 있다.

이동석(2018a)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 총84권을 분석하여 ‘쓰기’를 제외한 ‘문법, 문학, 읽기, 듣기·말하기’의 네 영역에서 60여 개의 어원 정보가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이 중 문법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법 영역에서 ‘관용 표현, 의미 관계, 음운 체계, 음운 변동, 단어, 어문 규범, 어휘, 언어의 본질, 담화의 개념과 특성’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어원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동석(2019)에서는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로 우리말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여 준다는 점,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는 점, 문법적인 분석력을 높여 주고 사고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을 들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언어 일반론, 형태론, 음운론, 어휘의미론, 문장론, 국어 규범, 국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ㄱ. 언어 일반론

- 언어의 역사성: 얼굴, 싸다, 사납다, 비싸다

ㄴ. 형태론

- 복합어: 목숨, 연못, 살바, 나가다, 나오다, 진흙, 모가지, 무지개, 깃들다, 난데없다,

보살피다, 타고나다

- 단어족: 풀등, 풀찌, 꼬리, 꼬랑지, 힘겹다, 흥겹다, 정겹다, 눈물겹다

- 새말: 라볶이, 혼밥, 길냥이

ㄷ. 음운론

- 모음 교체: 남다 - 녀다, 살 - 설, 맛(있다) - 멧(있다), 낫다 - 늣다, 머리 - 마리

- 비음화: 만나다, 건너다, 망나니, 동냥, 장난, 성냥, 승냥

- 유음화: 술래

- 경음화: 가까스로, 깨끗하다, 마땅하다, 모꼬지, 이따가, 불쌍, 불쌍(사납다), 진짜,

공짜, 가짜, 퇴짜

- 구개음화: 고슴도치, 바치다, 이바지

- 연구개음화: 형겅, 능금, 궁금하다

- ㄹ 탈락: 화살, 수저, 거푸집, 더부살이, 이부자리, 무지개, 마지기, 가다듬다, 쓰다듬다, 가느다랗다, 기다랗다, 여남은

- ㅎ 탈락: 귀양, 사냥, 과녁, 마찬가지, 보잘것없다, 고린내, 오른손, 아내

- 자음군 단순화: 박쥐, 못

- 유기음화: 아프다, 고프다, 가타부타, 걸코, 결단코, 무심코, 맹세코, 조카, 이태

- 모음 축약: 가엸다

ㄹ. 어휘의미론

- 어휘의 체계: 사랑, 장난, 성냥, 승냥, 김치, 섭씨(攝氏), 화씨(華氏)

- 단어의 의미 관계: 길짐승, 날짐승, 밀물, 썰물

- 관용 표현: 시치미를 떼다, 산통을 깨다

-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ㅁ. 문장론

- 높임 표현 - 잡수시다, 드시다, 계시다, 자시다

- 사동 표현 - 고치다, 바치다

ㄷ. 국어 규범

- 한글 맞춤법 제27항: 할아버지, 할아범, 골병, 골탕, 끝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 표준어 규정 제5항: 강낭콩 등

ㄸ. 국어사

- 음운사 - ㅁ 관련: 서울, 한가위, 가운데

- △ 관련: 메아리, 나아가다, 나으리, 두어

- ㅎ 관련: 썰물, 불현듯, 들이켜다

- 이중모음 관련: 개, 고양이, 내가('나'의 주격형)

- ㅂ계 합용병서 관련: 좁쌀, 범씨, 부릅뜨다

- 문법사 - 누구, 달걀, 맵소사, 모르쇠, 글썸

이러한 접근법은 현행 교육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문법 내용들을 해당 문법을 가르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어원들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발행된 국어과 교과서의 여러 영역에서 어휘사의 지식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기술 문법의 차원에서는 어휘사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문법 내용들을 학문적인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국어과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어휘사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였지만, 정작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휘사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어쩌면 어휘사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휘 교육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어휘사가 다른 교수·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는 의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음운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형태와 단어가 성립하게 된다. 어휘사에서 음운, 형태, 통사론적인 여러 정보들을 추출하여 이를 관련 문법 내용을 가르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어휘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어 교육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3. 어휘사의 활용 방안

앞서 언급했듯이 어휘사를 활용하여 현대 국어를 교육하는 방안은 크게 둘로 나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어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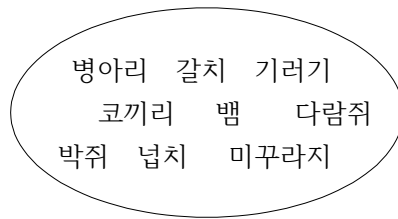
먼저, 어휘사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은 앞으로도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문화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 여러 어휘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통해서 현대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재가 무궁무진한 만큼 교육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생성해 낼 수 있다.

최근의 어휘사 연구 성과만을 보더라도 '관광'의 어휘사를 다룬 도재학(2018), '비누, 우산, 시계'의 어휘사를 다룬 안예리(2021), '편지'의 어휘사를 다룬 연구동(2021), '휴지'의 어휘사를 다룬 마원결(2021), '치약'의 어휘사를 다룬 정은진(2022) 등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휘사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휘사를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어휘 자체보다는 문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어휘의 변화 양상이 현대의 문화에 투영되어 있는 것

이 사실이고 이를 활용하여 지금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적인 형성 과정이나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의 의미 변천에 따른 쓰임의 변화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도 어휘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휘사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문화 방면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정작 어휘 자체의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어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형태론적인 단어 형성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단어 형성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물명과 식물명의 경우 의미론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동물명을 제시하고 각 이름의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위의 동물명 중 ‘병아리, 기러기’는 동물의 울음 소리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갈치, 넙치, 코끼리’는 동물의 생김새에서 유래한 이름이며, ‘미꾸라지, 뱀, 박쥐, 다람쥐’는 동물의 속성이나 동작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모둠별로 현대 국어 어형을 대상으로 먼저 유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면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옛 표기를 제시하여 앞선 단계에서 분류한 것이 옳은지 확인하도록 하고, 앞선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옛 표기를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한다. 옛 표기를 통해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경우 어원 정보를 제공하여 실마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식물명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휘사 지식이 활용 가능한 어휘장을 발굴하여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단어들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¹⁾.

기존의 연구들은 어휘사를 활용할 때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자료 수집 및 제시 단계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활동이 어휘사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이 분석 과정에서 분석을 돕거나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휘사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²⁾.

어휘사는 말 그대로 어휘가 변화해 온 역사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사름 > 사람’과 같은 변화 내용만으로도 어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어원은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을 말한다. 전자의 개념이라면 ‘사름’이라는 형태 자체로도 어원의 자격을 갖지만, 보통 ‘어원’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사람’이 동사 ‘살-’과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명이 어원에 해당한다.

어휘사의 교육적인 활용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어원 정보보다는 어휘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어휘사의 지식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 둘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단어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단어의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동물명과 관련해서는 김양진(2010)을 비롯한 여러 논저를 참고할 만하며, 식물명과 관련해서는 김양진(2011), 조항범(2016), 조항범(2020a), 조항범(2020b) 등을 참고할 만하다. 이주희(2011), 이주희·노정임(2015)에서는 동물명과 식물명을 함께 다루고 있다.
2) 김보름(2019:63~64)에서도 학생들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먼저 분류해 본 후 어원 사전의 어원 정보를 확인하여 어종 분류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앞서 동물명과 관련하여 의미 차원의 단어 형성에 대해 교육하는 방안을 알아 보았는데, 비단 어휘장 차원이 아닌 개별 단어 차원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옛 문헌에서 ‘맛나다, 맛나다’로 표기되었던 ‘만나다’는 ‘맛- + 나- + -다’라는 어원 정보를 통해 근원적인 의미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가엿다/가엿다’의 경우에는 ‘끝’을 뜻하는 ‘긔’와 ‘없다’가 결합했다는 어원 정보와 그 의미가 ‘끝이 없다[無極]’에서 ‘불쌍하다’로 바뀌었다는 통시적인 정보를 통해 의미의 유래를 파악할 수 있다.

김태은(2014:40~56)는 ‘무지개, 고슴도치, 샅쟁이, 다람쥐, 가물치, 가물가물, 까치설, 소나기, 낭패보다, 척지다, 뽀내다’ 등의 어원 정보를 통해 이들 단어가 형성될 당시 언중의 사고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단어 형성을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어휘 교육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어휘사를 활용하여 단어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탐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 (2) ㄱ.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사람들은 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혼동하기도 하고 ‘가르키다’라는 잘못된 말을 쓰기도 할까?
 - ㄴ. ‘밀물’과 ‘썰물’ - 밀물’이 밀려오는 물이라면 ‘썰물’은 쓸려 나가는 물일까?
 - ㄷ. ‘알다’와 ‘모르다’ - ‘알다’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있는데, 왜 ‘모르다’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는 없을까?

(2ㄱ)의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유의어는 아니지만 의미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흔히 두 단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기도 하며 ‘가르키다’라는 잘못된 어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이 두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로부터 분화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통시적인 정보를 통해 두 단어의 의미 분화와 쓰임상의 혼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3) ㄱ. 蜜多羅 | 對答訖스보되 梵書 佞留書로 ㄱ르치스보리이다 <석보상절 3:8b>
 - ㄴ. 太子 | 妃子스 비를 ㄱ르치시며 니르샤되 이 後 여섯 히에 아들 나흐리라 <석보상절 3:22a>

(2ㄴ)의 ‘밀물’과 ‘썰물’은 반의어이지만, 어원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단어의 원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썰물’은 ‘*헐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헐다’가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의미는 ‘당기는 물’이 된다. ‘밀물’은 ‘미는 물’을, ‘썰물’은 당기는 물을 의미하며, 이때 바닷물을 밀고 당기는 주체는 ‘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원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는 ‘썰물’의 구체적인 작용을 오해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이 표준 발음법 제7항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4) 표준 발음법 제7항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쑈-살-같이	작은-아버지
-----	-----	--------	--------

표준 발음법 제7항의 [붙임]에서는 위와 같이 본래 길게 발음되는 음이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어간 ‘밀-, 썰-, 쑈-, 작-’을 원래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복합어에서는 음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썰물’의 ‘썰’은 어간 ‘썰-’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썰물’을 예로 든 것은 잘못이다(이동석 2023: 234). ‘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국가에서 고시한 규범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ㄷ) ‘모르다’의 어원 정보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어에는 우리말 ‘모르다’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알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모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영어의 ‘don’t know’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말의 ‘모르다’는 존재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석(2008)은 중세 국어의 ‘모르다’가 ‘몰 # 알다’와 같은 구 구성에서 어휘화한 것으로 봄으로써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였다.

이 외에도 어휘사를 활용하여 다의어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의미의 축소나 확대, 의미의 교체와 같은 다양한 의미 변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의어 및 동음이의어와 관련해서는 ‘끼치다’의 어휘사를 연구한 정은진(2021)을 활용할 수 있고, 의미 변화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어휘사에서 외래어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외래어와 관련해서는 어종이나 근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태도 차원에서 순화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 일본에서 들어온 말들을 순화하고자 하는 분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일본식 한자어로 알려진 단어들에 대해서도 순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감사(感謝)’와 ‘애매(曖昧)’이다. 이들은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석(2016)은 ‘감사(感謝)’가 지금과 동일한 의미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여러 번 사용된 점을 들어 이 단어가 일본식 한자어가 아님을 밝혔고, 이동석(2018b)은 ‘애매(曖昧)’가 중국과 우리의 옛 문헌에서 ‘불확실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의미가 ‘억울하다’로 바뀌었고, 이후 20세기 초반에 일본어의 영향으로 ‘애매하다’가 다시 ‘불확실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았다. ‘불확실하다’의 의미를 가진 ‘애매하다’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중국에서 이미 2세기부터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예가 보이므로 ‘애매(曖昧)’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서는 ‘애매하다’를 동음이의어로 보고, 다음과 같이 한쪽은 한자어로, 한쪽은 고유어로 처리하고 있다.

(5) 애매하다: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

애매하다²(曖昧하다):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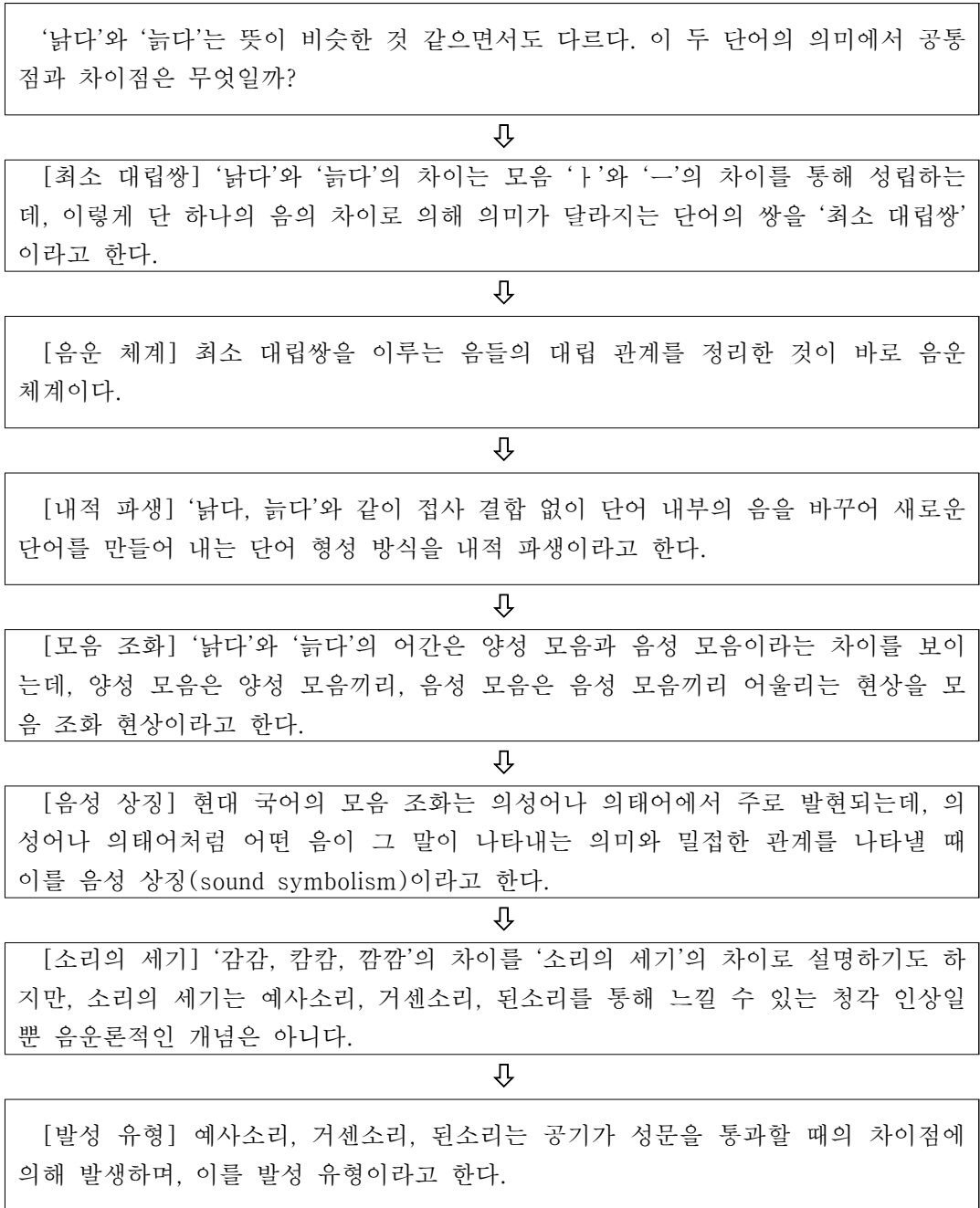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사의 지식들은 의미와 관련된 개념 등을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어휘사 자체가 직접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아니지만, 어휘사는 이처럼 어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휘사의 지식을 형태, 통사, 의미, 음운과 같은 다양한 문법 분야를 가르치는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 이동석(2018a)에서 각 문법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예들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더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석(2018a)의 연구 방법은 각 문법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어원 정보를 나열한 것이어서 어휘사의 지식을 다른 문법 분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도구처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만나다(맞- + 나- + -다)’나 ‘건너다(걸- + 나- + -다)’의 어원 정보를 비음화 현상을 가르치는데 활용하고, ‘고슴도치(고슴 + 돌 + -이)’나 ‘바치다(반- + -히- + -다)’의 어원 정보를 구개음화 현상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는 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휘사의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어휘사가 주된 교수·학습 내용이 되지 못하고 다른 문법 분야의 학습을 돕는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문법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휘사를 중심으로 문법의 여러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휘사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법 분야를 가르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납다’와 ‘늡다’가 의미상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질문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이후 이와 관련되거나 연계되는 문법 내용들을 모아 알고리즘을 형성함으로써 어휘사를 중심으로 여러 문법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위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 내용을 연계하다 보면 학교급에 따라서는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개념이 등장할 수도 있고 ‘소리의 세기’와 같이 기존의 교과서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필요한 문법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어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관련된 문법 내용을 서로 연계하여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맹목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문법적인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음운 체계가 어떤 원리에 의해 구축된 것인지, 이것을 왜 알아야(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시험을 보기 위해 맹목적으로 음운 체계를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음운 체계를 최소 대립쌍으로부터 연계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음운 체계를 왜 구축하는지, 음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어휘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교육 방안을 개발해 놓으면 필요한 부분만 떼어다가 그 부분만 문법 교육에 적용할 수도 있다.

(6) 맵소사(말- + -읍- + -쇼셔)

[부정문] ⇨ ['말다' 부정문] ⇨ [객체 높임법] ⇨ [용언 활용형의 어휘화] ⇨ [형용사의 명령형]

예를 들어 '맵소사'의 어원이 '말- + -읍- + -쇼셔'라는 어휘사적인 지식을 통해 먼저 우리말의 부정문 유형을 개괄한 후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형인 '말다' 부정문을 다루고, 이어서 '-읍-'과 관련하여 객체 높임법을 다루고, '맵소사'가 감탄사화되는 과정을 통해 '싸구려, 이따가'와 같은 용언 활용형이 어휘화된 현상을 다루고, 이어서 명령형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형용사의 명령형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와 상관없이 '말다' 부정문을 가르칠 때, 객체 높임법을 가르칠 때, 용언 활용형이 어휘화되는 현상을 가르칠 때 바로 '맵소사'의 어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단어의 어원 정보를 중심으로 위와 같이 문법의 여러 항목을 연계하여 다룰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특정 문법 항목을 다룰 때 관련된 자료를 쉽게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어휘사를 활용하여 현대 국어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에 대해서는 크게 어휘사의 지식을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어휘사의 지식을 국어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어휘사의 지식을 형태, 통사, 의미, 음운 등 문법의 전 분야에 걸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어휘사의 지식을 어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어휘 자체보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국어사를 활용하여 어휘 자체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어휘사의 지식을 형태, 통사, 의미, 음운과 같은 다양한 문법 분야를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각 문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어휘사 정보를 정리해 놓는 방식 외에도 어휘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된 여러 문법 내용을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구분관(2008),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127.

- 구본관(2009), 「국어생활사 교육 내용」, 『문법 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 1-48.
- 김미미(2012), 「어휘사 연구를 활용한 ‘표준 어휘-방언 어휘’에 대한 태도 교육 -표준 어휘 ‘벌레[蟲]’와 그 방언 어휘들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1, 우리말학회, 281-307.
- 김보름(2019), 「어원사전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2010), 『동물 이름 어디에서 왔을까?』, 루텐스.
- 김양진(2011), 『식물 이름 수수께끼』, 루텐스.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자료 수집 및 분류 체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39-.
- 김진우(2021), 「文化 관련 語彙史 教育에 대한 研究 -화장실을 지칭하는 어휘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9, 489-514.
- 김진우(2022), 「‘옆’과 ‘옆구리’의 語彙史에 대한 研究」, 『어문연구』 5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7-103.
- 김태은(2014), 「어휘사를 활용한 국어 어휘 교육 연구 : 어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자료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재학(2018), 「‘관광(觀光)’의 어휘사와 문화 변동」, 『한국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학연구소, 79-115.
- 도재학(2020), 「근대어 ‘낭만(浪漫)’의 성립」, 『형태론』 22-2, 형태론, 214-235.
- 마원결(2021), 「한국 한자어 ‘휴지(休紙)’의 어휘사」, 『국어사연구』 32, 국어사학회, 247-273.
- 성우철(2018), 「어휘적 변화의 어휘교육적 의의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송미영(2022), 「전라 방언 ‘탁하다’와 ‘포도시’의 어휘사 고찰」, 『어문연구』 113, 어문연구학회, 5-35.
- 송재목(2022), 「‘선술집’의 유래와 형태론: 일본어와의 관련성」, 『한글』 338, 한글학회, 1113-1152.
- 안예리(2021), 「유의관계 근대 신어의 변화 과정 -‘비누’, ‘우산’, ‘시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 국어사학회, 175-214.
- 안찬원(2013), 「어원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앗/앗’ 계열 어휘의 어원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73-303.
- 연규동(2021), 「한국 한자어 ‘편지(片紙/便紙)’의 형성 과정」, 『국어국문학』 194, 국어국문학회, 73-96.
- 이기연(2009), 「통시적 관점의 어휘 교육 가능성 탐색」,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09-341.
- 이동석(2008), 「‘모르다’(모르다)의 어원 분석」, 『형태론』 10-1, 형태론, 135-151.
- 이동석(2016),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말과글』 147호, 한국어문기자협회, 42~48.
- 이동석(2018a),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원 활용 연구」, 『한국어문교육』 2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45-271.
- 이동석(2018b), 「‘애매하다’의 의미 변화와 ‘애먼’의 어원」, 『민족문화연구』 8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555-590.
- 이동석(2019), 「어원의 국어 교육적인 의의와 활용 방안」, 『국어사연구』 28, 국어사학회, 159-200.
- 이동석(2022), 「‘X어다보다’류 동사의 어원적 분석」,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361-386.
- 이동석(2023), 『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와 탐구』, 역락.
- 이승희(2011),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한국학』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219-246.
- 이승희(2017), 「조선시대 한글편지를 활용한 국어와 한국사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7-37.
- 이주희(2011), 『(우리 동식물 이름에 담긴 뜻과 어휘 변천사) 내 이름은 왜?』, 자연과 생태.
- 이주희·노정임(2015), 『동물과 식물 이름에 이런 뜻이?! (어원과 생태를 함께 보는 동식물 이야기)』, 철수와영희.
- 전형주(2012), 「국어 어휘사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경재(2022), 「'싫대[厭]'의 어휘사」, 『배달말』 71, 배달말학회, 41-80.
- 정은진(2019), 「통시적 관점의 언어 교육 제안 - '사진(寫眞)' 관련 언어 표현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9,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75-205.
- 정은진(2021), 「'끼치다'의 어휘사 -기티대[遺]와 '씨티대[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2, 국어사학회, 215-245.
- 정은진(2022), 「한국 한자어 '치약(齒藥)'의 성립과 문화사 -문화사적 관점을 아우른 어휘사 연구 시론-」, 『우리어문연구』 73, 우리어문학회, 289-327.
- 조항범(2016), 「나무 이름의 어원에 대하여 (1)」, 『국어학』 78, 국어학회, 47-76.
- 조항범(2020a), 「몇몇 '나무' 이름의 어휘사 -'개암나무, 곰솔, 구기자나무, 물푸레나무'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3, 우리말학회, 47-79.
- 조항범(2020b), 「몇몇 '나무' 이름의 어휘사(2) - '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담쟁이, 엄나무'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199-231.
- 최소영(2011),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3-144.
- 최창렬(1992), 「우리말의 어원과 국어교육」, 『어학』 19,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39-47.
- 최혜빈(2016), 「어휘사 교육의 현황과 교육내용」,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 홍윤표(2008), 「국어 어원 연구에 대한 관건」, 『한국어학』 39, 한국어학회, 131-158.
- 홍윤표(2014), 「국어 어휘사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7-43.
- 홍윤표(2019), 「국어 어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8, 국어사학회, 7-65.

토 론 문

김태우(부산대)

이 발표에서는 한국어 어휘의 역사를 현대 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어휘사적 지식이 주로 문화 이해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현대 국어 어휘 교육을 포함하여 형태, 통사, 의미, 음운 등 국어의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휘사 지식을 활용 가능한 어휘장을 발굴하여 현대 국어 단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기(병아리, 기러기, 갈치, 넙치, 코끼리, 미꾸라지, 뱀, 박쥐, 다람쥐)’, ‘단어의 역사를 통해 단어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을 이용한 어휘 교육(가르치다-가리키다, 밀물-썰물, 알다-모르다)’, ‘어휘를 이용한 다른 국어 분야 교육’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언어를 아는 것이 현재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휘 능력을 신장하는 데 어휘의 역사를 이용한 교육이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썰물’이라는 단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ㅎ’ 구개음화라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현상을 알아야 하고, ‘가리키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교 문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ㄱ 구개음화’와 ‘과도 교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선행 개념의 교육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교육의 효과를 떠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휘에는 국어사의 거의 모든 분야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루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어휘는 국어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불규칙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입니다. 문법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성을 교육하는 것이라면 어휘를 이용한 교육은 그 반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단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단어들로 확장이 불가능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썰물’과 유사한 예로 ‘서랍’을 예로 들 수는 있겠으나, ‘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음운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개별 단어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은 마치 수수께끼 교육처럼 개개인의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 개별적인 설명이 학습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허황된 어원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양성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휘를 통한 ‘통사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의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예시는 발표에 제시되어 있으나, 통사론 교육에 대해서는 예시가 없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는 국어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어사를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국어사로 영어 교육을 하자는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어사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어사 비전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어사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어사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아주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분야입니다. 철자법 때문인지 진입 장벽도 높아, 옛글이 나오면 책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넘어가는 것도 학습자들

은 잘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같은 교육 효과를 국어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아마도 위와 같은 교육 방식은 많은 학습자들이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국어사와 친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위와 같은 교육 방식을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학습자를 국어사와 더 친밀하게 만들(또는 만든) 방법이 있으시면 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어사학회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한 문제

- {-오디}, {-오려}의 활용형을 중심으로 -

윤예진(서울대)

< 차 례 >

1. 서론
 2. 문제 제기
 3. {-오X}형과 {-으X}형 분포의 변화
 4. 분포의 변화로 살펴본 {-오X}의 형성
 5. 결론
-

1. 서론

활용형은 한국어 형태음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용은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형태론적 과정으로, 이들의 결합형을 활용형이라 한다. 이러한 활용형에서 형태소를 분석해 내고, 이들의 교체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20세기 공시 형태론과 공시음운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통시론에서도 활용과 활용형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용언 어간과 어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활용형으로만 나타나기에 이들의 변화는 활용형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때, 형태음운론적 변화에서는 활용형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는데, 음운론적 변화는 표면형인 활용형을 기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영균 1985, 이진호 2008). 이는 곧 어간이나 어미가 독립적으로 음운론적 변화를 입어 재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형에서 입은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운론적 변화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변화 역시 활용형을 바탕으로 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임석규(2004), 김현(2002, 2006) 등의 재분석, 유추적 평준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활용형을 기반으로 한다. 나아가 정경재(2015/2019)에서는 활용 체계의 변화는 활용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논의에서는 한 패러다임 내의 활용형이더라도 형태음운론적 환경(자음어미 앞, 매개모음어미 앞, 모음어미 앞)과 통사적 환경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형태를 통해 용언 활용 체계의 변화 동인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활용형은 일반적으로 활용 패러다임이라는 체계를 통해 기술이 된다. 이때 활용 패러다임은 {하-}: {'하고', '하다', '하더라', '하니', '할', '하여', ...}1)와 같이 어간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

1) 본 연구에서 논의의 편의상 형태소과 변이형은 {X}, 그 외의 형태는 'X'로 표시한다. 이때 변이형은 형태소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별도의 형태소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안병희(1959/1970: 40)의 쌍형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김소영(2019)의 어휘부 쌍형어에 가까운

이 일반적이다. 많은 논의에서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활용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형태음운론적 변화를 다룬 논의들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총체적으로 활용의 변화를 다룬 대표적인 논의인 김현(2006), 정경재(2019)를 살펴보면, 김현(2006)에서는 어간의 재구조화나 용언 어간 구조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정경재(2019)에서도 어간 말음을 기준으로 활용 부류를 나누어 기술하고 이들 활용 부류가 가지는 활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어미의 경우 용언 어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활용 틀의 일부로 기술되거나(정경재 2019), 기저형 교체 조건과 관련하여 소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형태음운론적 변화에서 어간에 비해서 어미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간과 어미를 분석해 낼 수 있듯, 어간을 공유하는 활용형들이 어떠한 틀을 이루고 이들이 부류를 이룬다면, 어미를 공유하는 활용형들 역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어간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활용형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어미를 공유하는 활용형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활용형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³⁾ 여기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혹은 유사한 어미를 가지고 있는 활용형 간의 관계를 통해 변화한 활용형의 일례로, {-오디}, {-오려}의 활용형의 변화와, 이 형태소의 변이형으로 다뤄진 {-오되(디)}, {-오려}의 형성 살피고자 한다.⁴⁾

2. 문제 제기

15세기 {-오디}의 이형태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다(김유범 2007:301).

- (1) ㄱ. -V디(어간 성조변동): ‘아, 어, 오, 우’ (말음 1음절 용언 어간) 뒤⁵⁾
 - ㄴ. -요디, -유디: 하향이중모음 뒤
 - ㄷ. -로디: 계사 뒤
 - ㄹ. -아디: {- (으)시-} 뒤
 - ㅁ. -오디, -우디: 그 외

(1ㄷ)과 (1ㅁ)은 대체로 모음조화에 맞추어 적용된다.⁶⁾ 이는 16세기 초 문헌인 《翻譯小學》에도 유사

것이다. {X} 안에 있는 형식은 임의로 정한 대표 이형태로, 기저형이 아니다. 기저형은 철저한 공식적 분석의 결과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시적 변화를 논의하는 본 연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체형과 같은 용어로 이형태 교체와 기저형 선택을 아울러 나타낼 것이다.

- 2) 정경재(2019)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 이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교착어인 한국어에서 용언의 활용은 어간의 내적 굴절 없이 모두 어간과 어미의 선조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용언에 동일한 어미가 결합하고 어미 역시 음운론적 이형태만 지니기 때문이다.”(p.38), “ 러 변칙 활용의 ‘-러’, 여 변칙 활용의 ‘-여’, ‘-거라’와 ‘-너라’ 정도만이 음운론적인 이형태로 볼 수 없는 경우이다. (중략) 이들을 형태론적인 이형태로 보더라도 이는 아주 소수의 어간과만 관련된 형태이므로 한국어 용언 전체를 관통하는 ‘활용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p.38, 각주13).
- 3) 물론 어간의 패러다임과 어미를 공유하는 활용형 간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차이도 있고, 비교적 분석이 명확한 편인 어간과 달리, 어미의 경우 형태 분석 자체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4) 후술할 것이나 변이형의 생성은 4장에서 볼 것처럼 ‘으’계 어미의 패러다임이 ‘오’계 어미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미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아직은 불투명한 개념이기에,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같이 변이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5) 김유범(2007: 301 각주18)에서는 이들의 출현환경을 모음이 ‘아, 어’나 ‘오, 우’인 단음절 어간이나 이러한 어간이 마지막 구성 요소로 참여한 합성어 뒤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술할 것과 같이 ‘오라디’ <두시16:41a>, ‘보라디’ <법화7:157b>와 같은 어형이 15세기에 이미 문증되는 바, 이러한 분포는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주지하다시피 ‘-오/우-’의 모음조화는 15세기에 간경도감본 불경언해에서에서부터 이미 많은 예외를 보인다.

하게 나타난다.

- (2) ㄱ. 가딛<3:25a>, 셔딛<3:4a>, 오딛<7:16>, 주딛<4:19a>
- ㄴ. 세요딛<9:85b>
- ㄷ. 두서히로딛<9:29b>
- ㄹ. 아니흐샤딛<4:28b>
- ㅁ. 무로딛<7:35b>, ㄱㄹ초딛<6:7ab>, 이쇼딛<7:22b>
닐어쇼딛<7:44a>, 닐오딛<9:48a>, 솔오딛<9:45b>
거두오딛<4:10b-11a>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가면 이러한 {-오디}의 이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 (3) ㄱ. 꼭딛<간이벽은방 3a>, 쓰되<간이벽은방 15b>
- ㄴ. 너기되<소학언해 6:106a>, 글으치되<소학언해 5:2b>,
올라시되<소학언해 6:70a>, 되어서되<소학언해 6:73a>, 닐으러시되<소학언해 6:100b>
- ㄷ. 두시되<논어언해 2:35b>
- ㄹ. 치되<효경언해 15a>, ㄱㄹ치되<효경언해 25a>
- ㅁ. 하〃 망극〃 흥딛<안민학애도문>, ㄱㄹ치되<안민학애도문>
- ㅂ. 가시딛<이응태 묘 출토 언간>

이러한 현상은 변이형인 {-디}나 {-되}의 출현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허웅 1989). 그러나 최소영(2008)의 지적과 같이 (3)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결합한 형태이기에 이는 자음어미로도 ‘으’계 어미로도⁷⁾ 분석될 수 있고, 17세기에 ‘수므되’<동국신속삼강행실도 신속충신도:82b>와 같은 예가 나타나기 때문에 {-되(디)}가 아니라 {-으되(디)}로 보아야 한다.⁸⁾ 이와 더불어 (3ㄴ)의 ‘올라시되, 되어서되, 닐으러시되’의 경우, 모두 결과상을 나타내는 {-앗/아시-}과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아시-’형 이형태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이형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공식적으로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 앞에 분포한다. 때문에 허웅(1989)와 같이 표면형을 통해 자음어미로 분석할 수는 없고 ‘으’계 어미인 {-으되(디)}로 보아야 한다.⁹⁾

앞선 연구들에서는 {-으되}와 {-으디}의 형성을 16세기에 일어난 ‘-오/우-’의 쇠퇴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로 보았다. 특히 ‘-오디 > -으되’는 ‘오’가 가지고 원순성이 ‘디’에 전이되어 형성된 것으로(김완진 1976, 1995) 설명되었는데,¹⁰⁾ 최소영(2008:63)에서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며 ‘어드랴’와 같은 어형에서 일어난 응축(이현희 1982: 143-144)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어미 두음의 ‘으’는 ‘으’계 어미의 ‘으’가 아니라 ‘오’가 약모음으로 변화된 흔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원순성 동화와 같은 음운론적 변화는 어미의 독립적인 기저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형인 활용형에 적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의 예들은 ‘쭈디 > 쓰

이는 ‘-오-’계열로의 전체적인 형태소 단일화에 기인한다(한영균 1994:92).

7) 한국어의 어미를 구분할 때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로 삼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오’와 관련된 어미들만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모음어미를 ‘오’계 어미, ‘아’계 어미로 나누어 살핀다. 또한 {-으니}, {-으시}의 ‘으’를 삽입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보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인 ‘으’계 어미를 사용하기도 한다.

8) 최소영(2008:63)에서는 {-오디}와 평행한 형태인 {-으디}, {-으되}로 표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으’계 어미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으되}, {-으디}로 표시하였다.

9) 이는 뒤에 살펴본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아니디’<028>와 같은 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 주지하다시피 근대 한국어에서도 {-오디}와 {-으되}는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형태소의 대체나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디'와 같은 동화 뒤 이화를 상정할 수 있는 (3ㄱ)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원순성 동화와 이화를 입었다고 보기 쉽지 않다. '너교되 > 너기되'와 같은 경우도 '교'와 '기'가 원순성 대립을 이루는 다른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화로 설명하기 어렵거니와, '*두샤되>두시되'의 경우 선행음절에 원순성이 전혀 없어 이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활용형에 음운론적 원인을 가진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 설명할 수 없고 이미 일어난 변화의 결과, 형성된 변이형의 활용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¹⁾ 이는 원순성 동화만을 겪은 {-오되} 결합형까지 함께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4) ㄱ. 나되<부모은중경 6a>

- ㄴ. 가되<소학언해 2:3ㄱ>, 섬교되<소학언해 6:25ㄴ>, 여히오되<소학언해 6:31ㄴ>
 즈라되<소학언해 6:60ㄴ>, 오라되<소학언해 4:40ㄴ>
- ㄷ. 오라되<논어언해 1:46b>, 두되<논어언해 4:32a>
- ㄹ. 養會子호되<맹자언해 7:31a>, 地非不足也로되<맹자언해 12:26a>
- ㄷ. 曾子를 養호되<상동>, 地ㅣ 不足흔 줄이 아니로되<상동>

(4ㄱ)의 '나되', (4ㄴ)의 '섬교되'와 같은 경우 앞서 이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살핀 바 있다. (4ㄴ)의 '여히오되'의 경우 '여히되'가 되는 변화는 이화의 양상이 다른 경우(e.g. 포되 > 픈되)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4ㄷ)의 '두되' (4ㄹ)의 '호되', '地非不足也로되' 정도가 이화를 일으킬 만한 '오(우)'가 표면에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할 것이나 (4ㄹ)과 같은 어형은 이 변화에 매우 보수적인 어형들로 이러한 어형이 '으'형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보기 어렵다. 결국 문증되는 예를 바탕으로는 이화를 통해 '오'의 흔적이 남아 '으'로 변화하였다는 가설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되}의 '으'가 특별히 {-오디}의 '으'와 다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디}는 {-오디}의 '오'가 이미 15세기부터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 화석이었으므로 약화하여 '으'가 된 것으로 해석되었다(최소영 2008:64).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이러한 약화가 일어난 것이 활용형인지, 아니면 분석된 어미의 기본형인지가 문제가 된다. 후자는 약화, 동화 등의 변화가 표면형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과 위배된다. 전자와 같이 활용형에서 일어난 '오 > 으'의 약화로 인해 새로운 어미 변이형 {-오되(디)}가 형성되었다고 보면, 이러한 약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활용형이 16세기에는 (3ㄱ) '쁘디', '쁘되', (3ㄷ) 'ㅎ디'만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들을 '으'계 어미로 분석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자음 말음 어간이나 모음 말음 어간에 결합한 예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가 없는 것은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

마찬가지로 '오'가 화석으로 남아 있는 연결어미 {-오려}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분포상의 제약이 우연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5세기 국어의 {-오려}의 이형태 교체 양상은 다음과 같다(김유범 2007:301).

- (5) ㄱ. -V려(어간 성조변동): '아, 어, 오, 우' (말음 1음절 용언 어간)¹²⁾ 뒤
- ㄴ. -요려: 하향이중모음 뒤
 - ㄷ. -아려: {-으시-} 뒤
 - ㄹ. -오려, -우려: 그 외

마찬가지로 16세기 초 문헌인 《翻譯小學》(1518)의 용례도 위 교체 양상을 따른다. 다만 {-으시-} 뒤에 이 형태소가 오는 용례는 문증되지 않았다.

11) 혹은 활용 패턴의 유추적 확장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활용형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12) '무우려' <월인석보 4:1b>, '나토려' <법화경언해 4:152a>, '보타려' <선종영가집 하:24a>와 같은 어형이 16세기에 이미 문증되는 바, 이러한 분포는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5 참고)

- (6) ㄱ. 자바가려<9:20b>
 ㄴ. 되요려<6:33b-34a>
 ㄷ. 어두려<9:24b-25a>, 아로려<9:31b>, 벗규려<9:48a>, 아니호려<9:34b-35a>

그러나 이러한 {-오려} 역시 《소학언해》와 교정청 간행 사서언해에서 변이형 {-으려}를 보인다.

- (7) ㄱ. 움기려<소학언해 4:8a>, 들이려<소학언해 4:15ab>, 얼리려<소학언해 6:52a>, 쓰려<소학언해 4:24b>, 다으려<소학언해 6:84a>, 널위려<소학언해 6:107a>, 아니려<소학언해 2:2a>
 ㄴ.言호려<주역언해 5:23b>
 ㄷ. 되려<맹자언해 5:17a>, ㄱ트려<맹자 8:24b>
 cf. 어드라<소학언해 6:22ㄱ>

위의 예들 역시 자음말음 어간과 결합하는 예는 예외인 ‘어드라’를 제외하면¹³⁾ 나타나지 않으나, (7 ㄷ)의 ‘ㄱ트려’를 통해 이들이 {-으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호-}의 수의적 변이형 중 하나인 {ㄱ트-}의 예인데, 이는 자음어미 앞에서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또한 후기 중세 한국어에는 ‘ㄴ’로 시작하는 자음어미가 없다는 점 역시 이들이 {-려}가 아니라 {-으려}라는 것을 지지해 준다.

그런데 앞서 {-오되(디)}와 마찬가지로 {-으려}의 활용형 역시 분포가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례인 ‘어드라’를 제외하면, 자음 말음 어간과 유음 말음 어간과 결합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X}형 활용형의 분포적 특성이 이들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예의 수가 많지 않기에, 혹 자료의 한계로 인한 우연의 일치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16세기에 작성된 언간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과 17세기 문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보다 많은 예를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 이러한 분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밝힐 것이다.

3. {-오X}형과 {-으X}형 분포의 변화

3.1.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분포

변이형의 분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소학언해》와 경서언해에서 {-오되(디)}는 ‘오/으’, ‘이’ 말음 형태소 뒤에서만 나타났지만,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은 훨씬 더 많은 예를 보여 준다.¹⁵⁾¹⁶⁾

13) 후술할 것이나 ‘-되’의 경우도 그렇고 후행 요소의 변이형이 ‘으’계 어미에 가깝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된 어형인 {-으려}의 경우, 보다 분포가 확장된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도 순수자음과 결합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라 할 수 있다.

14) 16세기 {고호-}의 활용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윤예진 2016:26).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모음어미
고호다, 고다	고호니, ㄱ트니, 고트니, ㄱ트니	고호야/여, ㄱ트야/여

15) 채무이(순천 김씨의 남편)가 작성한 편지의 경우, (채)로 표시하였다.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순천 김씨의 어머니인 신전 강씨가 작성한 것이다. 판독과 발신자에 대한 정보는 조항범(1998)을 참조하였다.

16) (8)에는 다음과 같은 판독이 어려운 예도 포함될 수 있다. ‘궤궤□시디’<099>, ‘○○여시디’<111>.

- (8) ㄱ. ㅼ되<035>, 시브되<051>(채)
 ㄴ. 든니되<116>(채), 나마시되<015>, 드러시되<037>, 도화시되<060>, ㅎ여시되<103-2>, 머거시되<094>, 가라시되<147>, 아녀시되<164>, 가시되<037>, ㅎ시되<154>
 ㄴ'.아니되<028><040>(채)
 ㄷ. 디내되<024>
 ㄹ. 주그되<041>, 마즈되<082>(채), ㄱ이업스되<145>
 ㄹ'. 밧되<156>(채)

주지하다시피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은 편지이기 때문에 작성자(발신자)가 동일하지 않다. {-오되(디)} 활용형은 모두 순천 김씨의 어머니인 신천 강씨의 편지와, 남편인 채무이의 편지에서 나타난다. 순천 강씨의 편지에서는 {-오디}만이, 채무이의 편지에서는 {-오디}와 {-오되},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되}의 활용형(8ㄹ')이 나타난다. 이는 순천 김씨의 아버지인 김훈이 작성한 편지에서 오직 {-오디}만이 사용되는 것(예 보내요디<061>, 너교디<083>, 호디<054>)과 대비된다.¹⁷⁾

이를 보면 앞선 예들에 비해 훨씬 넓은 환경에서 {-오되(디)}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8ㄱ)은 '으/으' 뒤에서, (8ㄴ)은 '이'('이' 말음 어간, {-앗/아시-}, {-으시-}) 뒤에서, (8ㄴ')은 {아니ㅎ-}의 수의적 변이형인 '아니-' 뒤에서, (8ㄷ)은 하향이중모음(혹은 음절 부음 j) 뒤에서, (8ㄹ)은 자음 뒤에서 {-오디(되)}가 사용된 예이다. (8ㄹ')은 상당히 특이한 예인데, 이러한 {-되}는 현대 한국어에 들어와서나 발견되는 것이다(최소영 2008:73).¹⁸⁾

신천 강씨와 채무이는 {-오디(되)}를 {-오디}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며 이들의 용례는 상보적인 경향을 보인다. 다음은 {-오디}가 사용된, 고형과 동일한 활용형이다.

- (9) ㄱ. 하되<035>, 가되<038>, 가되<047>(채), 디나가되<109>, 밧고되<131>, 보되<036>, 오되<057>, 두되<096>, 주되<103-1>
 ㄴ. 호되<15>, 싱각호되<079>, 무진호되<065>, 유무호되<060>, 돛호되<044>(채)
 무훈호되<164>
 ㄷ. 나리로되<037>, 거시로되<051>
 ㄹ. 이쇼되<190>(채)
 ㅁ. 업소되<145>, 알호되<060>,<040>(채), 만호되<094>¹⁹⁾
 ㅂ. 셔도로되<087>

(9)의 예들은 각각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9ㄱ)은 전 시기의 {-오디}의 활용형과 동일하기는 하나, {-오디(되)}의 활용형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9ㄴ), (9ㄷ)의 경우 각각 {(X)ㅎ-}와 계사의 활용형인데, 이들은 15·16세기에도 이미 극히 불규칙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 고빈도 어간들이다. (9ㄹ)의 {이시-} 역시 마찬가지로 고빈도 어간으로, 문법화를 겪어 형성된 (8ㄴ)의 {-앗/아시-}와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특이하다. (9ㅁ)은 자음, (9ㅂ)은 유음 뒤에 {-오디}가 결합한 형태이다. 고빈도 어간

17) 조항범(1998)에 따르면 해당 문헌은 대체로 중부 방언 기본으로 하나, 신천 강씨의 경우 경상 방언의 영향이 보인다. 그러나 중부 방언 화자인 채무이와 '디/되' 외에는 분포 상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같은 채무이와 김훈은 같은 서울 방언 화자지만 서로 다른 어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언어 차이를 반영할 뿐, 방언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8) 유일례지만 이는 'ㄷ'으로 시작하는 '으'계 어미가 없기 때문에, 자음 어미 결합형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19) {만ㅎ-}의 활용형이라 본다면 (9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순천 강씨의 편지에 '만하'<087>와 같은 예가 보이는바, {만ㅎ-}으로 재구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자음 말음 어간의 예로 포함시켰다.

과 자음 어간 뒤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각각의 환경에 비교적 정연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환경	출현 형태	
‘아, 어, 오, 우’ 뒤	{-오디}/{-오되(디)}	
‘으/으’ 뒤		{-오되(디)}
‘이’ 뒤		{-오되(디)}
하향이중모음 뒤		{-오되(디)}
자음 뒤	{-오디}	{-오되(디)}(~{되})
유음 뒤	{-오디}	

<표 28>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오디}, {-오되} 분포

{-오려} 역시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는 훨씬 더 다채로운 예를 보여 준다.

- (10) ㄱ. 쓰러<002>(채), 사르러<094>
 ㄱ'. 제허러<097>(채)
 ㄴ. 치러<057>, 티러<167>(채), 내티러<062>, 드리러<018>, 거느리랴<096>
 ㄴ'. 이시러<062>
 ㄷ. 보내러<009>, <020>(채)
 ㄹ. 지으러<002>(채)
 ㅁ. 말러<051>(채), 살러<109>

이들 역시 모두 신천 강씨와 채무이의 편지에서 발견되는 예이다. 이들은 각각 (10ㄱ)은 ‘으/으’ 뒤에서, (10ㄴ)은 ‘이’ 뒤에서, (10ㄷ)은 하향이중모음(혹은 음절 부음 j) 뒤에서, (3ㄹ)은 ‘ㅅ’변칙(△말음 용언) 뒤에서, (10ㅁ)은 유음 뒤에서 {-오려(랴)}가 사용된 예이다. (8)과 비교했을 때, (10ㄱ)의 {Xㅎ-}나, (10ㄴ)의 {이시-} 뒤에서도 {-오려}가 결합한 활용형이 쓰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8)은 자음 뒤에 나타난 용례가 나오고 유음 뒤에 나타난 용례가 나오지 않음에 반해, (10)은 (10ㅁ)과 같이 유음 뒤에 나타난 용례만 나오고, 자음 뒤에 나타난 용례는 문중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성은 {-오려(랴)} 결합형을 통해 더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11) ㄱ. 가러<023>, <052>(채), <068>(김훈), 드려가러<012>, 나가러<149>, 나가랴<133>
 오려<048>, <097>(채), 드려오려<088>, 보러<090>, 주러<100>, 타러<186>
 ㄴ. 호러<021>, 의논호러<006>(채)
 ㄷ. 주구러<041>, 사모러<092>
 ㄹ. 사로러<192>

(11ㄱ)의 경우 {-오려(랴)}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고, {-오려(랴)}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다. (11ㄴ)은 고빈도 용언인 {(X)ㅎ-}의 활용형이다. (11ㄷ)은 자음 뒤에, (11ㄹ)은 유음 뒤에 {-오려(랴)}가 결합한 형식이다.

{-오디}와 {-오되(디)}가 그러했듯, 이 문헌의 {-오려(랴)}와 {-오려(랴)} 사이에도 꽤나 정연한 분포가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환경	출현 형태	
‘아, 어, 오, 우’ 뒤	{-오려(랴)}/{-으려(랴)}	
‘으/으’ 뒤		{-으려}
‘이’ 뒤		{-으려(랴)}
하향이중모음 뒤		{-으려}
자음 뒤	{-오려}	
‘ㅅ’변 뒤		{{-으려}} ²⁰⁾
유음 뒤	{-오려}	{-으려}

<표 29>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오려}, {-으려} 분포

3.2.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분포

이러한 분포의 편중은 17세기 문헌인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도 반영된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는 {-오디}와 {-오되}, {-으디}와 {-으되}가 모두 사용된다. 그러나 전자는 {-오디}형이, 후자는 {-으되}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²¹⁾ (12)는 이 문헌에서 나타난 {-으되(디)}의 활용형이다.

- (12) ㄱ. ㄱㅌ되<신속열녀도6:12b>, 다드르되<신속열녀도3:44b>, ㅍ되<신속열녀도5:5b>
 ㄱ'. 고희되<신속충신도:4b>, 문안호되<신속효자도6:47b>, 봉양호되<신속효자도8:13b>, 약호되<신속효자도8:13b>, 엄호되<신속효자도4:22b>, 제호되<신속열녀도1:83b>, 직촉호되<신속충신도:65b>, 험탁호되<신속열녀도7:26b>, 호되<신속효자도5:50b>
 ㄴ. 네기되<신속열녀도4:81b>, 니피되<신속효자도6:2b>, 드리되<신속효자도5:52b>, 피여디되<신속열녀도7:24b>, 버히되<신속열녀도3:16b>, 베틀되<신속열녀도6:49b>, 베틀되<신속열녀도4:87b>, 베틀디<신속열녀도3:44b>, 보솔피되<신속효자도3:73b>, 브르지지되<신속효자도5:24b>, 띠러디되<신속열녀도2:36b>, ㅍ리되<신속충신도:65b>, 셜기되<신속열녀도2:70b>, 셜기디<신속효자도4:76b>, 소기되<삼강열녀도:1b>, 슬피되<신속효자도5:22b>, 주기되<신속열녀도8:83b>, 치되<신속열녀도1:17b>, 치디<신속효자도1:4b>, 티되<신속열녀도2:79b>, 히여디되<신속효자도3:39b> 셔시되<신속열녀도7:41b>, 나마시되<신속효자도5:24b>
 ㄷ. 달래되<신속열녀도4:84b>, 디내되<신속열녀>, 여위되<신속열녀도2:37b>
 ㄹ. 그츠되<신속열녀도5:14b>, 나ㅁ되<신속열녀도7:68b>, 너ㅁ되<신속열녀도2:12b>, 늘그디<신속효자도5:51b>, 니브되<신속효자도3:86b>, 님으되<신속열녀도2:13b>, 마즈되<신속열녀도5:22b>, 문츠되<신속열녀도1:68b>, ㅁ츠되<신속열녀도1:69b>, ㅁ츠디<신속효자도8:74b>, 버스되<신속열녀도3:46b>, 버스되<신속열녀도2:64b>.

20) 유일례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다.

21) 타입 빈도는 다음과 같다. 양쪽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아, 어, 오, 우’ 뒤 용례는 제외하였고, ‘늘그디’는 {-으디}에 포함하였다.

	X디	X되
오X	오디, 68	오되, 14
으X	으디, 10	으되, 55

<표 30>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어형별 빈도

- 쁘즈되<신속열녀도8:36b>, 수므되<신속충신도:82b>, 업스되<신속열녀도5:29b>, 읍프되<삼강효자도:1b>, 주그되<신속열녀도5:5b>
- ㄱ. 지으되<신속열녀도7:2b>
- ㄴ. 무르되<신속충신도:25b>
- ㄷ. 니르되<신속효자도6:5b>, 니르되<신속열녀도1:70b>, 니르되<신속열녀도2:39b>, 디르되<신속열녀도3:84b>, 브르되<신속효자도5:24b>, 띠르되<신속열녀도5:55b>
- ㄹ. 비되<신속열녀도7:84b>

(12ㄱ)은 ‘으/으’ 뒤에서 {-으되}가 나타난 활용형이다. 이 시기에는 (12ㄱ)의 {Xㅎ-}형 어간 뒤에서도 {-으되}가 결합한 예가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12ㄴ)은 ‘이’ 뒤에서 {-으되}가 나타난 활용형으로, ‘이’말음 어간과 {-앗/아시-} 뒤에서 나타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2ㄷ)은 하향이중모음 뒤, (12ㄹ)은 자음 뒤에 나타난 용례이다. (12ㄱ), (12ㄴ)은 각각 ‘스’변칙, ‘디’변칙 어간 뒤에 결합한 예이다. (12ㄷ)은 ‘르/르’변칙 어간 뒤에 결합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12ㄹ)은 유음 뒤에 결합한 예인데, 일반적인 ‘으’계 어미와 동일하게 ‘으’가 탈락하였고, 이후에 유음 탈락까지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디}의 활용형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난다.

- (13) ㄱ. 논호되<신속효자5:9b>, 가되<신속열녀8:84b>, 나가되<신속효자8:3b>, 나아가되<신속효자1:53b>, 나오되<신속열녀5:61b>, 디나되<신속열녀7:71b>, 보되<신속효자5:83b>, 사호되<신속충신:28b>, 슬오되<신속열녀2:13b>, 싸호되<신속충신:3b>, 오라되<신속효자5:24b>, 올라되<신속효자8:50b>
- ㄴ. 머교되<속삼강효자:7b>, 버휴되<삼강열녀:4b>, 섬교되<속삼강열녀:14b>, 수머쇼되<신속열녀8:26b>, ㄱ르샤되<신속충신:29b>, 곶오샤되<신속효자1:5b>, 히이샤되<속삼강효자:9b>
- ㄷ. 헤오되<신속열녀3:46b>
- ㄹ. 근초되<신속열녀6:4b>, 남오되<신속효자7:20b>, 님오되<신속열녀2:40b>
- ㅁ. 일흠지오되<신속효자1:3b>
- ㅂ. 가로되<신속열녀8:8b>, ㄱ로되<삼강열녀:2b>, ㄱ로되<신속효자6:60b>, 곶으되<신속열녀1:31b>, 곶오되<삼강열녀:1b>, 무로되<삼강충신:1b>, 물오되<신속충신:70b>, 일궐오되<신속열녀3:7b>
- ㅅ. 니로되<삼강열녀:5b>, 니로되<신속열녀3:80b>, 님오되<삼강열녀:6b>, 님오되<신속열녀4:33b>, 님우되<신속신:29b>, 릴오되<신속열녀3:19b>
- ㅇ. 드라드르되<신속효자3:35b>, 밍ㄱ로되<속삼강효자:24b>, 비로되<속삼강효자:26b>, 프로되<신속열녀3:64b>, 사로되<신속충신:73b>, 살오되<신속효자3:53b>, 서홀오되<신속효자7:33b>, 우로되<신속효자5:18b>, 우로되<신속효자1:21b>, 우루되<삼강열녀:6b>, 울오되<신속효자4:5b>.
- ㅈ. 년이로되<신속효자3:16b>, 님흔세히로되<신속열녀4:55b>, 여든세히로되<신속효자7:32b>, 제로되<신속효자1:13b>, 히로되<신속열녀2:53b>

(13ㄱ)은 ‘아, 어, 오, 우’ 뒤의 용례로, {-오디}가 결합한 것으로도 {-으되}가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3ㄴ)은 ‘이’ 뒤의 용례이다. ‘머교디, 버휴디’는 각각 유일례이나, ‘섬교디’는 여러 번 나타난다. (13ㄴ)에 비해 빈도가 미미하나 이 환경에서도 {-오디}가 쓰이는 예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앗/아시-}, {-으시-}와 결합한 예도 나타난다. 특히 해당 문헌에서 {-으시-}가 {-오디} 결합형으로만 나오는 게 특이한데, 애초에 이러한 토근이 4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히이샤디, ㄱ르샤디(2

회), 글오사디). 후자의 두 개는 발화동사의 고빈도 활용형으로 공시적 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 ‘히이사디’ <속삼강효자도:9b>만이 예외로 남는다. (13ㄷ)의 하향이중모음 뒤에 {-오디}가 결합한 예이다. (13ㄹ)은 자음 뒤에서 {-오디}가 결합하는 예로, 마찬가지로 (12ㄹ)이 더 풍부한 예를 보여 준다. (13ㄴ) ‘스’ 변칙 어간 뒤에 결합한 예이다. (13ㄴ)은 ‘ㄷ’ 변칙 어간 뒤에 결합한 예인데, 발화동사의 활용형인 ‘ㄱ로디’류는 현대 한국어에도 불완전 동사 ‘가로-(가로되, 가론)’로 남아 있는 고빈도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공시적인 결합이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13ㄴ)은 ‘ㄹ/르’ 변칙 어간 뒤에 결합한 예인데, 이 경우에도 모두 발화동사 {니르-}의 고빈도 활용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ㅇ)은 유음 뒤 결합예인데, (12ㅇ)과 달리 풍부한 예를 보여 준다. (12ㄷ)은 계사로 여전히 {-오디} 결합형만을 보여 준다.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 비해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용례가 많기 때문인지 상보적인 분포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경향성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오디}의 출현 환경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때, 상대적 타입 빈도의 차이가 큰 경우나 유일례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 넣었다.

환경	출현 형태	
‘아, 어, 오, 우’ 뒤	{-오디}/{-오되}	
‘으/으’ 뒤		{-오되}
‘이’ 뒤	{(-오디)}	{-오되}
하향이중모음 뒤	{(-오디)}	{-오되}
자음 뒤	{(-오디)}	{-오되}
‘스’ 변 뒤	{-오디}	{-오되}
‘ㄷ’ 변 뒤	{-오디}	{-오되}
‘르ㅇ’ 변 뒤	{-오디}	{-오되}
유음 뒤	{-오디}	{(-오되)}

<표 31>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오디}, {-오되} 분포

다음은 같은 문헌에서 {-오려}, {-오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14) ㄱ. 뿌려<신속열녀5:84b>
 ㄱ'. 갑혀려<신속효자6:51b>, 난혀려<삼강열녀:1b>, 너응혀려<신속충신:77b>, 면혀려<신속충신:42b>, 범접혀려<신속열녀3:40b>, 송스혀려<신속열녀2:57b>, 아니혀려<신속열녀2:36b>, 오욕혀려<신속열녀3:50b>, 욱혀려<신속열녀6:60b>, 뽕박혀려<신속열녀3:3b>, 해혀려<신속효자6:13b>, 해혀려<신속열녀4:61b>
 ㄴ. 니피려<신속열녀6:32ㄴ>, 더러이려<신속열녀3:16ㄴ>, 드리려<신속열녀1:1ㄴ>, 무티려<속삼강열녀:19ㄴ>, 버히려<신속열녀1:11ㄴ>, 싸디려<신속열녀4:10ㄴ>, 열리려<속삼강열녀:8ㄴ>, 올니려<신속열녀4:38ㄴ>, 주기려<충신:4ㄴ>, 티려<충신:4ㄴ>
 ㄴ'. 아니려<신속열녀6:46b>
 ㄷ. 갑푼려<신속충신:37b>, 삼으려<신속충신:20b>, 자뵈려<신속열녀7:59b>, 조초려<신속충신:63b>, 주그려<속삼강열녀:20b>, 주그랴<신속열녀5:17b>, ㄷ. 업디르려<신속충신:17b>

ㄱ. 팔려<신속열녀1:72b>, 살려<신속효자4:84b>

(14ㄱ)은 ‘으/으’ 뒤의 용례인데, 해당 문헌에는 ‘으/으’ 말음 어간과 {-오려}, {-으려}가 결합한 예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4ㄱ')과 같이 {Xㅎ-}의 활용형도 {-으려(라)}로 나타나며, {-오려} 결합 형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환경에서는 {-으려}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향이중 모음 뒤에 {-오려}, {-으려}가 결합한 예가 문증되지 않아, 분포를 살필 수 없다. (14ㄴ)은 ‘ㄹ/ㄹ’ 변칙 어간 뒤에서, (14ㄷ)은 자음 뒤에서 {-으려(라)}가 나타난 예이다. (14ㄹ)은 유음 뒤에서 {-오려}가 사용된 예이다. (12ㅇ)과 마찬가지로 ‘으’계 어미와 동일하게 ‘으’가 탈락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와 대비되는 {-오려}의 예이다. {-오려}의 경우 {-오라}와 같은 변이형을 가지지 않는다.

- (15) ㄱ. 가려<신속열녀4:4b>, 드려가려<신속효자7:50b>, 모라가려<신속열녀3:51b>, 싸호려<신속충신:12b>, 주려<속삼강효자:19b>
- ㄴ. 곱간호려<신속열녀7:16b>, 결단호려<신속열녀8:52b>, 반장호려<신속열녀5:22b>, 범호려<신속열녀5:7b>, 슈신호려<속삼강열녀:20b>, 아니호려<속삼강열녀:8b>, 오욕호려<신속열녀8:8b>, 욱호려<신속열녀5:36b>, 튜존호려<속삼강열녀:19b>, 꿍박호려<신속열녀8:44b>, 해호려<신속열녀4:85b>, 현슈호려<속삼강효자:24b>, 협틱호려<신속열녀6:29b>, 호려<신속열녀2:13b>, 혼인호려<신속열녀1:2b>
- ㄷ. 얼유려<속삼강열녀:14b>, 얼요려<속삼강열녀:18b>, 더리오려<신속열녀6:21b>
- ㄹ. 사모려<속삼강열녀:7b>, 가포려<신속효자6:37b>
- ㄹ. 어로려<속삼강열녀:17b>, 어루려<속삼강열녀:7b>
- ㅂ. 얼오려<속삼강열녀:1b>, 얼우려<속삼강열녀:20b>²²⁾, 널오려<신속충신:20b>
- ㅅ. 므로려<삼강열녀:5b>, 사로려<삼강효자:2b>

(15ㄱ)은 ‘아, 어, 오, 우’ 뒤의 용례로, {-오려}, {-으려} 모두로 해석할 수 있다. (15ㄴ)은 {Xㅎ-}의 활용형인데, 해당 용언의 빈도가 높은 것에 기인하는 예외로 보인다. (15ㄷ)은 ‘이’ 뒤에 {-오려}가 결합한 예인데, 모두 사동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15ㄹ)은 자음 뒤에서 {-오려}가 결합한 예로 (14ㄷ)에 비해 빈도는 낮다. (15ㄹ)은 ‘ㄷ’ 변칙 동사 어간인 {얼-}에 {-오려}가 결합한 예이다. (15ㅂ)은 ‘ㄹ/ㄹ’ 변칙 어간에 결합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15ㅅ)은 유음 뒤에 결합한 예이다.

{-으려}, {-오려}의 경우, {-으되}, {-오디}에 비해 용례가 다양하지 않다. 문증되지 않아 어떤 형식이 우세한지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22) ‘얼오려’, ‘얼우려’는 (15ㄹ)과는 구분되는 [얼-+-으(사동접미사)->]어ㄹ-’의 활용형이다(가와사키 케이코 2011ㄱ 참조). 실제로도 ‘아버이 일 흘어미 된 줄 어엿세 너겨 다훈 남진 얼오려 훈대’(父母憐其早寡欲奪志)<속삼강열녀:20b>와 같이 사동을 나타낸다.

환경	출현 형태	
‘아, 어, 오, 우’ 뒤	{-오려}/{-으려}	
‘으/으’ 뒤		{-으려}
‘이’ 뒤	{(-오려)}	{-으려}
자음 뒤	{(-오려)}	{-으려}
‘ㄷ’변 뒤	{-오려}	
‘ㄹㅇ’변 뒤	{-오려}	{(-으려)}
유음 뒤	{-오려}	{-으려}

<표 3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오려}, {-으려} 분포

4. 분포의 변화로 살펴본 {-으X}의 형성

그러면 위의 내용을 16세기 말 간본 문헌의 {-오되(디)}, {-으려}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호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환경에서 모두, ○: 해당 환경에서 많은 예가 나타남, △: 해당 환경에서 잘 쓰이지 않음(소수의 예, 유일례 등), ×: 해당 환경에서 전무함.

환경	16세기 말		순천김씨		동국신속	
	오디	으되	오디	으되	오디	으되
‘아, 어, 오, 우’	◎	○	◎	◎	◎	◎
‘으/으’	◎	△	×	◎	×	◎
‘이’	◎	△	×	◎	△	○
하향이중모음	◎	×	×	◎	△	○
순수자음	◎	×	○	○	△	○
유음	◎	×	◎	×	○	△
‘ㅅ’변칙	◎	×	-	-	○	△
‘ㄷ’변칙	◎	×	-	-	○	△
‘ㄹ/ㄹ’변칙	◎	×	-	-	○	○
cf. {Xㅎ-}	◎	×	◎	×	○	○
cf. {이시-}	◎	×	◎	×	◎	×
cf. 계사	◎	×	◎	×	◎	×

<표 33> {-오디}, {-으되} 분포의 변화

환경	16세기 말		순천김씨		동국신속	
	오려	으려	오려	으려	오려	으려
‘아, 어, 오, 우’	◎	◎	◎	◎	◎	◎
‘으/으’	◎	△	×	◎	×	○
‘이’	◎	△	×	◎	△	○
하향이중모음	◎	△	×	◎	-	-
순수자음	◎	×	◎	×	△	○
유음	◎	×	○	○	○	○
‘ㅅ’변칙	◎	×	×	○	-	-
‘ㄷ’변칙	◎	×	-	-	○	×
‘ㄹ/ㄹ’변칙	◎	×	-	-	○	△
cf. {Xㅎ-}	◎	△	○	△	○	○
cf. {이시-}	◎	×	◎	△	◎	×
cf. 계사	◎	×	◎	×	◎	×

<표 34> {-오려}, {-으려} 분포의 변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신형인 {-오되}, {-으려}형의 분포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과 <표 8>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말 간본 문헌				순천김씨묘출토간찰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X		으X		오X		으X		오X		으X	
환경(선행요소)	오디	으려	오되	으려	오디	으려	오되	으려	오디	으려	오되	으려
‘아, 어, 오, 우’	◎	◎	○	◎	◎	◎	◎	◎	◎	◎	◎	◎
‘으/으’	◎	◎	△	△	×	×	◎	◎	×	×	◎	○
‘이’	◎	◎	△	△	×	×	◎	◎	△	△	○	○
하향이중모음	◎	◎	×	△	×	×	◎	◎	△	-	○	-
순수자음	◎	◎	×	×	○	◎	○	×	△	△	○	○
유음	◎	◎	×	×	◎	○	×	○	○	○	△	○
‘ㅅ’변칙	◎	◎	×	×	-	×	-	○	○	-	△	-
‘ㄷ’변칙	◎	◎	×	×	-	-	-	-	○	○	△	×
‘ㄹㅇ’변칙	◎	◎	×	×	-	-	-	-	○	○	○	△
cf. {Xㅎ-}	◎	◎	×	△	◎	○	×	△	○	○	○	○
cf. {이시-}	◎	◎	×	×	◎	◎	×	△	◎	◎	×	×
cf. 계사	◎	◎	×	×	◎	◎	×	×	◎	◎	×	×

<표 35> {-오X}, {-으X}의 분포 변화

<표 9>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은 유음을 제외한 순수자음 뒤와 유음 뒤의 확산 순서의 차이만 보일 뿐, 유사한 분포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 어, 오, 우’ 뒤에서부터 시작하여 ‘으/으’와 ‘이’를 포함한 전체 모음 뒤로, 나아가 하향이중모음의 부음인 ‘ㅣ [j]’ 뒤까지 사용되는 방향으로 분포가 증대한다. 이후에 {-오되}는 순수자음 뒤, 유음 뒤, {-으려}는 유음 뒤, 순수자음 뒤의 순서로 분포가 늘어나게 된다. {-오되}의 경우 거의 모든 환경에 다 나타나게 된 17세기에도 유음 말음 어간 뒤와 ‘ㄷ’변칙 뒤에서는 매우 약한 분포를 보인다. 이는 유음 탈락을 야기하는 유음과 ‘ㄷ’의 음소배열제약과 유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으X}형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아, 어, 오, 우’ > 모음 뒤 > 모음 + j 뒤 > 모음 + j + ㄹ 뒤 > 모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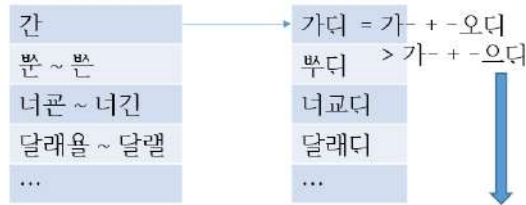
이러한 변이형의 분포 환경 변화는 단순화에 해당한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음운은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크게 ‘모음, 활음, 순수자음, 유음’의 대부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위 (16)는 그러한 대부분류별 확장을 보여 주고 있다.²³⁾ 이러한 수의적 변이형의 확장이 인접 부류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²⁴⁾

이러한 확장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 번째, {-으X} 변이형이 ‘-오-’의 소실 이후 ‘오>으(으)’ 약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함께 이러한 약화를 겪었어야 할 자음 말음 어간 결합형은 가장 나중에서야 {-으X} 계열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두

23) 그러나 이는 자질음운론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부류의 확장이다. 현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할 때, 모음, 유음, 활음을 묶으려면 [+공명성, +지속성]을 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모음과 유음(+모음성), 모음과 활음([-자음성])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현 2009). 그렇지만 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으’계 어미의 이형태 교체(혹은 복수 기저형 선택)에 있어서 ‘모음, 활음, 유음’과 ‘순수자음’이 묶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자질 체계의 문제일 뿐, 단순화가 아니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 어간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만ㅎ-}에서 형성된 {만-}의 경우 역시 자음어미, 매개모음어미 앞에서 먼저 나타난 뒤 모음어미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배영환 2011). 이는 유추적 평준화वाद 맞닿아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디}, {-오려}의 변이형 형성과 (18)의 가장 큰 차이는 ‘오’가 개재되지 않은 활용형의 존재 유무이다. (18)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 뒤의 변화는 변이형의 형성이 아니라 활용형 간의 합류인 것이다.²⁷⁾ 이러한 합류의 결과 ‘X-은/을’ 형식이 ‘X-은/을’ 형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디}, {-오려}가 ‘으’계 어미의 변이형은 이러한 대체에 유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보다 일반화하여 이야기 하면, 관형사형 어미 앞 {-오-}의 기능 상실로 인해 ‘오’계 어미 결합형과 ‘으’계 어미 결합형 일부가 합류하였고, 이로 인해 ‘오’계 어미들의 활용형에 ‘으’계 어미 활용 패턴이 확장되게 된 것이다.²⁸⁾ 이때 이러한 확장은 둘의 구분이 모호한 ‘아, 어, 오, 우’ 말음 어간 뒤에서부터 시발된다. 이를 도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오디}, {-오려}의 변이형 {-오되}, {-오려}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관형사형 앞의 {-오-}가 기능을 잃어버림에 따라 소실된다. 이로 인해 관형사형 앞에 {-오-} 개재형과 비개재형이 합류하게 된다. 이는 ‘오’계 어미와 ‘으’계 어미의 합류로 이어진다. {-오디}, {-오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오되}, {-오려}라는 변이형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오’계 어미, ‘으’계 어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한 맥락(‘아, 어, 오, 우’ 뒤)에서부터 하나씩 분포 영역을 확장하여 17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아, 어, 오, 우’ 뒤 > 모음 뒤 > 모음, 활음 뒤 > 모음, 활음, 유음 뒤 > 모든 환경). 이때, 고빈도 활용형인 ‘날오디, ㄱ르샤디’와, 고빈도 어간인 {Xㅎ-}, 계사 등은 이러한 ‘으’계 어미 결합형으로의 변화에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되}, {-오려}의 ‘으’는 ‘오’에서 음운론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계 어미의 ‘으’계 어미로의 변화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유음 뒤에서 탈락한다는 점, 어간의 교체 환경에 있어 다른 ‘으’계 어미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 역시 이를 방증한다. 이를 통해 어미의 통시적 변화 역시 활용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음운론적 변화 외에 다양한 유추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남은 문제들을 짚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원순성 동화 여부에 대한 해석이다. 앞의 예들과 각주 20에서 살핀 것과 같이 ‘으X’형과 ‘X되’ 형은 {-오되}가 압도적이다. 이는 재분석으로 인해 형성된 기본형이 {-오되}임을 의미한다. 이는 ‘쓰되’와 같은 예가 김완진(1995), 최소영(2008)의 원순성 동화 뒤 이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게 본다면 ‘아, 어, 오, 우, 으, 으’ 뒤에서 재분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넓은 환경에서 재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3), (4)의 예들은 원순성 동화를 입을 환경이 아닌 자리라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한 가지 가설은 (17)과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삭감된 ‘오’의 원순성이 ‘디’에 ‘응축’(이현희 1982)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보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유음 말음 어간

27) 일종의 Syncretism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 다항식 유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홀 : 홀 = 호디 : X, X = 헉디’

뒤에서 {-오되}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유음 탈락과 연결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나, 분명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계 어미였다가 ‘으’계 어미로 합류한 것들 중 일부에서 (비표준어형이나) 유음 탈락이 관찰되는 것을 연결지을 수 있을 듯하다(예 만들리다~만드리다, 만들려고~만드려고, 만들마~만드마). 세 번째는 동명사 어미 {-음}에서의 ‘오’ 탈락 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음}과 {-음}은 15세기부터 섞여 사용되는데(허용 1975), 본 연구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변화이기에 제외하였으나, 이들의 혼란이 ‘오’계 어미가 ‘으’계 어미로 재편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양상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마지막은 남은 과제로, 새로운 어미의 변이형이 형성될 때 확장되는 순서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모음에서부터 시작해 전체 환경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른 어미들의 교체 양상이나 변화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분포의 확대 경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가와사키 케이고(2011ㄱ), ‘언다’와 ‘얼운’에 대하여, 《국어학논집》 7.
- 가와사키 케이고(2011ㄴ), “어기설”과 중세한국어 동사활용, 《형태론》 13.2.
- 고영근(1999), 《국어의 형태론연구》(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19), ‘오’ / ‘으’ 계열 어미의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론》 21.2.
- 김성규(2011),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중세국어중심으로, 《구결연구》 27.
- 김소영(2009), 국어 쌍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욱(1994), 《문법형태의역사적 연구: 변화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김완진(1995), 노결대 언해에서의 의도형 붕괴 재론, 《한국문화》 16.
-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 김태우(2015), 활용 어간과 어미의 어휘 표상, 《형태론》 17-2, pp.233-263.
- 김 현(2002),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불명추론, 《어학연구》 38-3.
-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배영환(2011), 《‘ㅎ’ 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지식산업사.
- 배주채(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 11.
- 서태룡(1988), 《국어 활용어미의형태와 의미》, 태학사.
- 안명철(1988), 국어의 선어말어미 및 보조동사의배열순과발화의 의미구조와의 관계, 《인문과학연구》 6.
- 안병희(1959/1970), 《십오세기 국어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안병희·이광호(2001),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윤예진(2016), ‘하-’의 어간교체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 임석규(2004),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와 활용 패러다임, 《형태론》 6-1.
- 전정례(1991), 중세국어 명사구내포문에서의 ‘-오-’의 기능과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재(2015/2019),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 정재영(1997), ‘-오-’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시묘출토간찰》, 태학사.
- 최명욱(2016), 16세기 한국어의 활용어미에 대한 공시형태론, 《한국어사 연구》 2.
- 최소영(2008), 연결어미 ‘-오디’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영균(1985), 음운변화와 어휘부의 재구조화: 순경음 ‘빙’의 경우, 《관악어문연구》 10.
- 한영균(1994), 후기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허 응(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Bybee, J.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Bybee, J. (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2015),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윤예진(서울대), 활용형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문제 - {-오디}, {-오려}의 활용형을 중심으로 -]의 토론문

장요한(계명대)

이 발표문은 {-오디(되)}, {-오려}를 기존의 ‘오’ 소실 내지 약화에 따른 설명 방식과 달리 16세기 관형사형 앞의 {-오-} 개재형과 비개재형이 합류하게 되면서 {-오디}, {-오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오디(되)}, {-오려}라는 변이형을 가지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새로운 관점의 논의이면서 논지 전개가 설득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논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포 영역이 확장하는 양상(‘아, 어, 오, 우’ 뒤 > 모음 뒤 > 모음, 활음 뒤 > 모음, 활음, 유음 뒤 > 모든 환경)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본 논지를 따르더라도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1. 예와 정리된 <표>의 불일치 문제

논지 전개 과정에서 용례와 정리된 내용(설명)에 차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가 오해한 것일 수 있으므로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문 (8), (9)를 정리한 표와 (10), (11)을 정리한 표에서 ‘으/으’ 뒤 환경의 출현 형태로 {-오려}만 제시하였는데 ‘싱각호디’, ‘익논호려’가 있음에도 출현 형태에 {-오려}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표6>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 (11)에 대해서 “(11ㄷ)은 자음 뒤에, (11ㄹ)은 유음 뒤에 {-오려(랴)}가 결합한 형식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예문들은 ‘주구려’, ‘사모려’, ‘사로려’임에도 {-오려(랴)}가 결합한 형식이라고 기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분포 영역의 확장 문제

{-오X}형의 분포 확장은 ‘오’계 어미와 ‘으’계 어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아, 어, 오, 우’ 뒤에서부터 분포 영역 확장이 시작되어 후대에 자음 뒤로 확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본문 (17) 아래의 “첫 번째, {-오X} 변이형이 ‘-오-’의 소실 이후 ‘오>으(으)’ 약화라는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함께 이러한 약화를 겪었어야 할 자음 말음 어간 결합형은 가장 나중에야 {-오X} 계열과 결합하기 때문이다.”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변이형의 출현은 관형사형 앞 {-오-} 개재형과 비개재형의 합류에 이끌린 것으로 보았는데 관형사형과 달리 왜 {-오디}와 {-오려}의 경우는 자음 말음 어간 결합형이 가장 나중에야, 그것도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오X} 계열과 결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즉, 관형사형 앞 {-오-} 개재형과 비개재형의 합류에 이끌린 것이라는 것에 대한 논거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3. 중세 국어 ‘무르디’<월석8:100ㄴ>, ‘블르디’<구급방 上 :21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르’ 어간 받침 동사 뒤에 ‘-오디’가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무르디’<월석8:100ㄴ>, ‘블르디’<구급방 上 :21ㄴ>(중세 국어에서는 ‘무로되’, ‘블로되’가 주로 나타난다.)를 보면

오히려 그 분포 영역의 출발점이 자음 어간 뒤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오’의 소실 내지 약화가 시작되면서 그 변화가 ‘르’ 어간 받침 동사 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의 점진적 변화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예도 의미 있게 다룰 수 있을 듯합니다.

말뭉치를 활용한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이수진(전남대)

< 차례 >

1. 서론
2. 말뭉치에서의 ‘-어 주다’ 출현 양상
3.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4. 결론

1. 서론

이 글은 국어 역사 말뭉치¹⁾를 활용하여 ‘-어 주다’의 문법화 과정과 양태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²⁾ ‘-어 주다’의 문법화와 관련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어 주다’의 통사적 특징과 관련하여 ‘-어 주다’(혹은 ‘주다’)가 보조동사냐 아니냐 하는 범주의 논의가 다양한데³⁾ 이는 김선혜·남신혜(2019)의 지적처럼 현대국어의 ‘주다’의 범주 문제가 문법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보조용언의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선행동사와 주로 결합하는지를 파악하고 ‘-어 주다’의 양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 주다’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조용언으로 ‘베푼’의 의미로 대부분의 선행용언과 제약 없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 주다’의 문법화 과정은 역사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일으므로 현재 구축된 역사 말뭉치를 활용하되 적절한 용례추출기(Concordancer)로는 Uniconc⁴⁾를 사용하여 ‘-어 주다’와 결합한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현재 구축된 말뭉치는 문헌 종류의 편중 등

- 1) 국어 역사 말뭉치 구축 및 활용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장경준(2023), 이래호(2023), 김진해(2023), 허인영(2023)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현재 대용량 말뭉치를 활용한 전산 언어학 방법의 연구가 점점 발전하며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홍윤표(2022)의 국어사 자료와 관련한 논의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이미 세종계획 21 및 개별 사업에서 구축한 국어사 말뭉치가 국어사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헌 자료의 확충과 기존 말뭉치의 보충도 학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문헌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작업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일으므로 허인영(2023: 13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흥구(2022)의 성과처럼 옛한글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문자 판독 기술을 말뭉치 구축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어 주다’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도 ‘-어 주다’의 보조용언 구성으로서 사용된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허웅(1989)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의 보조용언 ‘-어 주다’는 『번역박통사』의 ‘네 나를 활 두당만 빙 7라 주디 엇더 ㅎ노(『번박』 59)’가 유일례라 하였고, 손세모돌(1996)은 보조용언 ‘주다’에 대해 ‘주다/드리다’가 18세기 말부터 쓰였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정언학(2006: 270)에서는 ‘-어 보다’, ‘-어 가다’, ‘-어 주다’, ‘-어 ㅎ다’에 대해 기술하면서 ‘-어 보다’, ‘-어 가다’는 15, 16세기에 거의 문법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였지만 ‘-어 주다’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법화가 늦게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정언학(2006: 253)에서는 ‘의미의 추상화 정도’라는 기준으로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을 구분하였다.
- 3) 김효진(2017) 등에서 ‘주-’가 문장의 논항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보조동사에서 제외하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주-’는 손세모돌(1996: 39)을 따른다면 보조용언의 설정 근거에서 논항과의 무관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현재 용례추출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명 ‘깜짝새’로 불리는 ‘통합형 한글 자료 처리기(SynKDP, 소강춘 교수 개발)’와 ‘Uniconc(박진호 교수 개발)’가 있다. 이 연구에서 Uniconc를 활용한 이유는 검색한 형태 전후에 도형으로 마킹되어 있어서 엑셀에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를 구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을 고려할 때 추출한 결과가 전체 국어사의 모습을 조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확인 가능한 용례들을 파악하여 시기별로 포착되는 문법화 단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2. 말뭉치에서의 ‘-어 주다’ 출현 양상

2.1. ‘-어 주다’ 출현 양상

먼저 ‘-어 주다’⁵⁾의 시기별 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Uniconc를 활용하여 ‘-어 주다’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이후 추출한 용례를 Excel로 전처리하고 연구 목적에 따른 필드를 설정하여 분류 데이터를 보충하였다.⁶⁾ 이후 각 시기별로 ‘-어 주다’가 어떤 선행용언과 결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NodeXL⁷⁾로 ‘-어 주다’와 결합하는 시기별 선행용언의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시각화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여 얻은 15~20세기 초까지의 ‘-어 주다’ 출현형 770개이며 전체 출현 개수는 6,237개였다.⁸⁾ 이 중 단일 세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링크 수는 전체 중 753개로 약 12.1%에 해당한다. 아래 <표 1>⁹⁾은 NodeXL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본 결과이다.

<표 1> 15~20세기 ‘-어 주다’ Overall Matrics

Graph Metric	전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Graph Type	Undirected						
Vertices	770	38	50	76	98	285	236
Unique Edges	753	14	17	27	72	148	116
Edges With Duplicates	5484	84	131	240	115	1433	1096
Total Edges	6237	98	148	267	187	1581	1212
Self-Loops	0	0	0	0	0	0	0
Reciprocated Vertex Pair Ratio	Not Applicable						

5) ‘-어 주다’의 시기별 형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주다/주다’와 결합하는 형태를 자소검색으로 추출하였다.

6) 같은 어휘임에도 표기 방식의 차이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은 예가 많아 이 경우 현대어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시기별 표기 형태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처리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선행용언의 역사적 형태 변천을 고려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7) NodeXL은 엑셀용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로 Pajek이나 Gephi와 비슷한 시각화 도구이다. 다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Python의 Matplotlib 패키지를 통한 시각화에서 옛한글이 입력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하거나, 시각화에는 성공하였으나 각 그래프 범주에 옛한글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NodeXL은 엑셀 내 데이터를 어렵지 않게 시각화할 수 있었고 옛한글 역시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선행용언을 현대어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Gephi나 Python의 Matplotlib 패키지를 활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으나 차후 각 시기별 문헌에서 출현하는 ‘-어 주다’와 결합하는 어미 등 다양한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석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8) 전체 개수에는 ‘연간’, ‘시가’, ‘고전소설’, ‘신소설’, ‘장서각’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9) NodeXL의 Overall Matrics는 각 노드의 개수, 단일 링크 수, 복수 링크 수와 전체 링크수 등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이 분석은 NodeXL 버전 1.0.1.448이다.

Reciprocated Edge Ratio	Not Applicable						
Connected Components	1	1	1	1	1	1	1
Single-Vertex Connected Components	0	0	0	0	0	0	0
Maximum Vertices in a Connected Component	770	38	50	76	98	285	236
Maximum Edges in a Connected Component	6237	98	148	267	187	1581	1212
Maximum Geodesic Distance (Diameter)	4	2	2	2	2	2	2
Average Geodesic Distance	3.100 688	1.896 122	1.920 8	1.947 715	1.959 392	1.985 99	1.983 087
Graph Density	0.004 962	0.052 632	0.04	0.026 316	0.020 408	0.007 018	0.008 475
Modularity	Not Applicable						

<표 1>은 세기별로 나눈 것으로 세기별로 문헌의 절대적인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19, 20세기에 ‘-어 주다’가 출현하는 예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은 19세기에는 285개, 20세기에는 236개 전 시기보다 3배 가량 늘어난 반면, 출현량은 18세기 187개에서 19세기 1581개로 거의 8배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세기에는 『인어대방』에서 60개, 33.3% 비율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는 문헌의 양적인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인어대방』에서 어절 대비 0.67%라는 비율로 ‘-어 주다’가 출현하였다. 19세기에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양상이 있어났는지 문헌별 출현 양상을 보면 『독립신문』에서만 1058건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독립신문』을 제외하면 19세기 문헌에서 ‘-어 주다’가 출현하는 것은 538개로 이 중 『매일신문』이 204건으로 나타났다. 어절수를 확인해 본다면 『독립신문』 약 56만 어절과 『매일신문』 약 15만 어절에서 ‘-어 주다’가 나타나는 양상은 『독립신문』은 0.18%, 『매일신문』은 0.13%였다.¹⁰⁾

그렇다면 19세기와 비슷한 20세기 문헌은 어떠할까. 20세기 문헌에서의 ‘-어 주다’의 출현 양상을 보면 전체 개수는 1212개로 19세기보다 적지만 문헌 전체적으로 ‘-어 주다’가 고르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학월보』 470개, 『경향보감』 260개, 『대한매일신보』 168개, 『신약전서』 127개였으며 각각의 문헌은 어절 대비 출현 비율이 『신학월보』 0.10%, 『경향보감』 0.07%, 『대한매일신보』 0.31%, 『신약전서』 0.16%의 출현 비율을 보였다. ‘-어 주다’의 출현 비율이 높은 대표 문헌으로는 19세기에는 『독립신문』, 20세기에는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언간’, ‘시가’, ‘고전소설’, ‘신소설’, ‘장서각’ 문헌으로, 이들 데이터의 기초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언간’, ‘시가’, ‘고전소설’, ‘신소설’, ‘장서각’ 문헌 Overall Matrics

Graph Metric	언간	시가	고전소설	신소설	장서각
Graph Type	Undirected				
Vertices	9	82	343	85	178
Unique Edges	7	31	154	57	110
Edges With Duplicates	4	261	1568	130	422
Total Edges	11	292	1722	187	532
Self-Loops	0	0	0	0	0

10) 19세기 문헌 중 『독립신문』과 『매일신문』 제외한다면 각 문헌에서 ‘-어 주다’가 쓰인 예는 평균 11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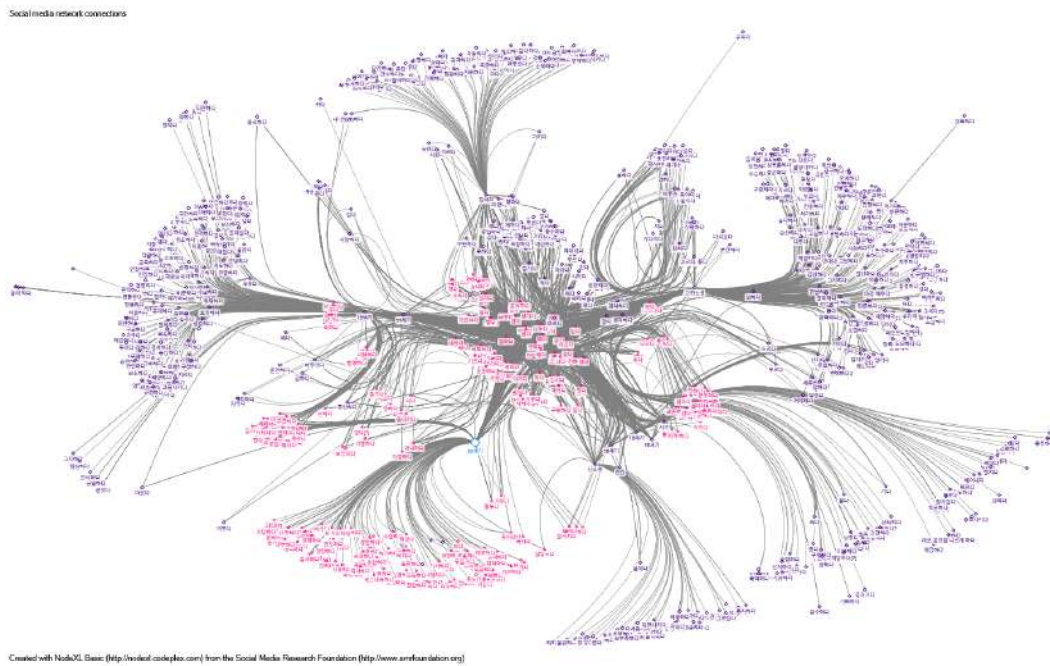
Reciprocated Vertex Pair Ratio	Not Applicable				
Reciprocated Edge Ratio	Not Applicable				
Connected Components	1	1	1	1	1
Single-Vertex Connected Components	0	0	0	0	0
Maximum Vertices in a Connected Component	9	82	343	85	178
Maximum Edges in a Connected Component	11	292	1722	187	532
Maximum Geodesic Distance (Diameter)	2	2	2	2	2
Average Geodesic Distance	1.580247	1.951517	1.988355	1.953218	1.977591
Graph Density	0.22222222	0.02439024	0.00583090	0.02352941	0.01123595
Modularity	0.198347	0.200448	0.061469	0.247419	0.222013

고전소설 문헌의 양적 방대함과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한 편이다. 선행용언만 343개가 나타나고 있다. 시기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표 2>의 대상 문헌은 대부분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것으로 이해되므로 근대국어 시기에는 ‘-어 주다’가 결합하는 구문이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고전소설은 약 400만 어절 규모에서 1722건이 나타나 어절 대비 0.043%의 출현 비율을 보인다. 19세기 문헌, 특히 신문에서 나타나는 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어절 대비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선행용언과 결합한다는 것은 그만큼 선행용언과의 결합 제약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표 1>, <표 2>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말뭉치에서 추출된 ‘-어 주다’와 결합하는 시기별, 문헌별 선행용언을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이 그래프 레이아웃은 Harel-Koren Fast Multiscaling¹¹⁾과 Fruchetman-Reingold Layout¹²⁾을 사용하였다.¹³⁾ 시기별, 문헌별로 나누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그래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룹화되어 있다. 중심에 있는 용언은 각 상위 노드와 중복 연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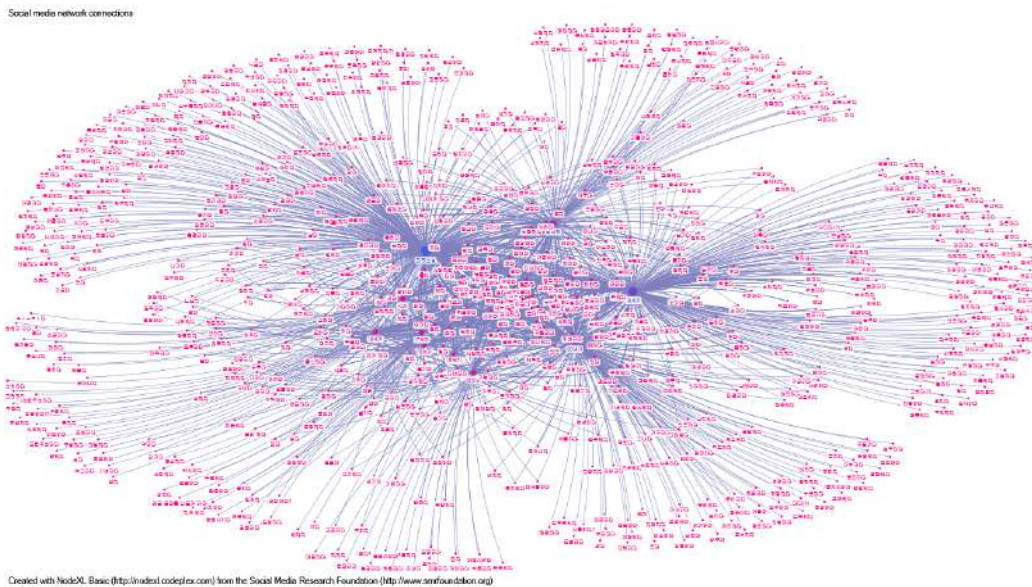
11) Harel-Koren Fast Multiscaling(FKM)은 대규모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는데 FKM알고리즘은 노드를 다양한 크기의 세트에 그룹화하여 각 노드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12) Fruchetman-Reingold layout은 노드 사이에 거리를 계산해서 노드들이 가깝게 위치한 상태에서 밀어내는 힘과 먼 거리의 노드 사이의 끌어당기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배치한다. 이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계산하면 크기는 원형으로 배열되고 가까운 노드는 중심부로 모이게 된다.
 13) 레이아웃 옵션에서 Iteration은 100, Repulsive는 3.3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1> 15~20세기 초의 ‘-어 주다’ 선행용언과 세기별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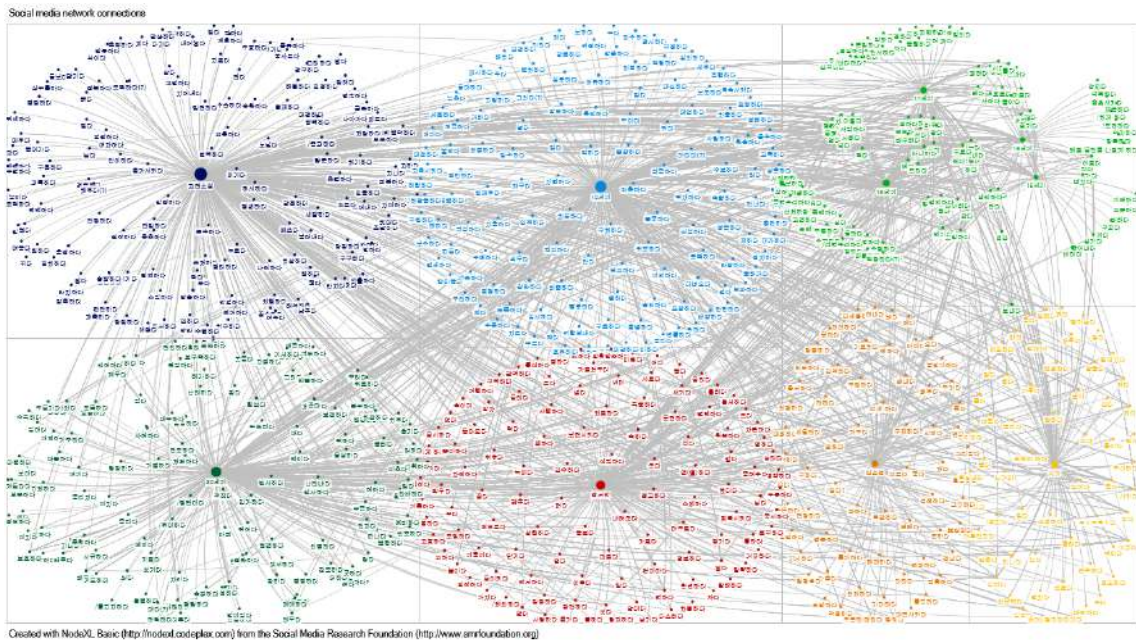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앙에 모여 있는 노드는 각 세기별, 문헌별로 복합적인 링크를 보이는 것으로 이를 Fruchetman-Reingold Layout으로 다시 그리면 <그림 2>와 같은데 중심 노드와 가까운 선행용언들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겠다.

<그림 2>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중심성



<그림 2>에서 보면 노드간에 연결 강도가 센 것은 파란색으로, 낮은 것은 분홍색으로 나타나는데 19세기와 고전소설의 선행용언과의 중심성(Degree) 강도가 높다. 이를 그룹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그룹별 네트워크



<그림 3>을 통해 보면 15~18세기 출현하는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네트워크 규모는 매우 작다. 근대국어 시기, 특히 19세기 이후 양적 팽창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을 관찰하는 데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3.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3.1. ‘-어 주다’의 문법화 단계

지금까지 손세모들(1996, 2017), 김미경(1998), 허철구(1999)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중세.근대국어 시기의 보조용언 목록 선정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문법화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용언의 보조용언으로의 문법화는 본용언의 의미가 다의화되면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연속동사 구문과는 달리 도치가 불가하며 생략 시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¹⁴⁾ 2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 주다’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 주다’의 문법적 결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 주다’의 출현 양상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를 확인하였다. 전 시기에 걸쳐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으로는 ‘하다’, ‘내다’, ‘나누다’, ‘짓다’, ‘만들다’가 있으며 특정 세기나 문헌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돕다’, ‘나누다’, ‘가르치다’, ‘짓다’ 등도 자주 출현하고 있다. 이를 전체 문헌 기준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2개 용어의 출현 양상을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14)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본용언에서 1단계 문법화가 진행되면 보조용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후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조동사, 접어, 접사로 나누는 논의들이 있다.

<표 3> 세기별 문헌에서 출현하는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하다	6	6	21	19	328	93
내다	8	4	26	11	79	86
돕다		2			119	60
나누다	15	20	20	6	3	59
가르치다			1		34	57
쓰다		4	15	14	18	4
짓다	5	3	8	2	12	9
살리다			14		5	15
얼다		3		5	9	6
전하다				3	6	21
열다			7		17	28
만들다	2	4	16	4	18	11

정언학(2016: 254~255)에서는 현대 국어의 ‘-어 주다’ 구성이 지닌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의 ‘수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평가’(허철구, 1991: 87)와 ‘수혜’를 기본의미로 하고, ‘수혜’가 선행 동사의 동작에 대한 ‘유익성’ 판단(손세모들, 1996: 214)이라고 하는 논의를 중세 국어 ‘-어 주다’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 기술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여 ‘의미의 추상화 정도’라는 기준으로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이영경(2009: 503)에서는 15세기의 ‘-어 주다’ 구성에 대해 ‘시혜’의 의미를 지닌 보조용언 구성으로 기술한 정언학(2016)의 논의를 비판하며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논화 주다’, ‘버혀 주다’와 구체 의미에 가깝지만 보조용언 구성으로 구분하였다는 ‘지서 주다’, ‘지어 주다’의 두 예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중세국어 시기 ‘-어 주다’를 보조용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5, 16세기에 나타나는 ‘-어 주다’의 선행용언 중 자주 결합하는 ‘하다’, ‘내다’, ‘돕다’, ‘나누다’, ‘쓰다’, ‘짓다’, ‘얼다’, ‘전하다’, ‘만들다’이다. 이 중 ‘내다’, ‘돕다’는 현대국어에서 ‘내주다’, ‘도와주다’로 합성어가 되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전체 문헌에서 ‘-어 주다’와 결합하는 고빈도 선행용언 중 ‘가르치다’, ‘쓰다’, ‘열다’, ‘살리다’와는 결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이 중 근대국어 시기부터 ‘-어 주다’와 결합하는 ‘가르치다’, ‘열다’, ‘살리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ㄱ. 太醫 형아 네 나를 이 도흔 법을 ㄹ러쳐 주고려 <朴通上13b>
 - ㄴ. 그 시름들이 위턱흔 곳에 잇스니 그다가 ㄹ러쳐 주는 거시 올을 쫓흐외다 <툰로력명 56b>
 - ㄷ. 철원군에도 보내여 기명 진보흐는 학문을 ㄹ러쳐 주면 죠홀 듯흐다고 흐엇더라 <독립신문>
 - ㄹ. 그리스도는 이 도리의 크게 관계됨을 우리게 ㄹ러쳐 주섯느니라 <경향보감2:146>
- (2) ㄱ. 문 여러 주어든 노모의 안부를 드러디라 문안 너관드려 <계축하21b>
 - ㄴ. 인민을 벼슬 아니 고라도 의식을 너넉히 베톤 길을 열어 주는 거시 나라를 중흥케 흐는 기초로 <독립신문>

15) 15세기에는 ‘돕다’, 16세기에는 ‘전하다’와 결합하는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ㄷ. 성서에 여러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 써 사람의 지식을 열어 주시니 <신학월보 6:257>

(3) ㄱ. 내 니르느 말을 드르면 나도 네 오라비를 살와 주마 언약혼 후 <계축상45a>

ㄴ. 므츨내 이 두 동성이나 살와 주시면 대군을 내여 보내리이다 <서궁23b>

ㄷ. 관원이 말하기를 나ㅣ 너를 살녀 주려 호야 아모조록 힘써 그룬 거살 곳치게 호나 <경향보감1:142>

예문 (1)~(3)은 근대국어 시기 이후 ‘-어 주다’에 선행하는 ‘가르치다’, ‘열다’, ‘살리다’의 예이다. 위 예문은 선행용언을 생략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선행용언과의 분리가 불가한 보조용언 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용언의 경우 ‘주다’는 어휘 의미를 상실하여 양태만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때의 ‘-어 주다’의 의미는 ‘봉사’(허용, 1983; 방운규, 1994), ‘기대 부응’(김명희, 1984), ‘이로움’(구종남, 1986), ‘유익성’(손세모들, 1991), ‘수혜’(김효진, 2017)¹⁶⁾등으로 파악되었다.

예문 (1)~(3)은 모두 타동사 구문으로 예문 (1)과 (2)는 선행용언이 수혜자 논항을 필요로 하고 (3)의 ‘살리다’는 목적어만을 필요로 한다. (2ㄱ)에서 ‘열다’는 ‘문’이라는 구체물을 튼다는 기본 의미로 쓰이며 ‘문’을 여는 주체로부터 ‘문을 여는 행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2ㄴ, ㄷ)은 좀더 추상화된 논항과 결합한 것이다. ‘-어 주다’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상황’을 이끌어 오게 된다. ‘의식을 넉넉히 버는 길’, ‘사람의 지식’ 등 확인 가능한 예문은 구체물 외에도 추상화된 상태와도 결합하는데 이때 ‘-어 주다’는 그러한 행위를 받는 의미를 부여한다.¹⁷⁾

이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나타나는 ‘-어 주다’ 구문은 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데 아래 (4)~(6)은 ‘짓다’, ‘나누다’, ‘만들다’가 ‘-어 주다’와 결합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4) ㄱ. 王왕이 太羹子중 爲嬴호야 各各別별히 집 지서 주시니라 <月釋20:62b>

ㄴ. 글 지서 주물 어느 敢히 墜失호리오 <杜詩24:56b>

ㄷ. 그 지극흔 精誠을 感激호야 집 것딕 別室 지서 준대 <續三열10b>

ㄹ. 겨뜨 이시면 그리타 바비나 아니 지어 주라 호랴 <순천163:12>

ㅁ. 밥 지어 먹고 옷 지여 주리 업거든 <계축하24b>

ㅂ. 이바 썰리 나를 밥 지어 주고려 <朴新2:16b>

ㅅ. 동리 사람들이 공논호고 동중에서 집을 지어 주겿다고 호니 므우 곱아온 말이더라 <독립신문>

ㅇ. 여러번 은근히 말하기를 밥을 저물게 지여 주면 우리가 긴히 홀 일이 잇다고 <독립신문>

(5) ㄱ. 海형龍룡王왕드려 니르샤디 네 이 오술 가져다가 龍룡들홀 讎호야 주라 <月釋 25:31a>

ㄴ. 아비 子息의게 田地 奴婢를 讎호야 주러호대 叔威이 다 사오나온 받과 늘 <續三효 22a>

16) 김효진(2017: 84)에서는 ‘수혜(benefaction)’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로부터 사물(object)을 얻어 이득을 받거나 다른 개체의 행위로 인해 혜택을 받는 상황 또는 사건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17) 임동훈(2021: 71~72, 79)에서는 보조동사 ‘주다’가 쓰인다고 해서 항상 ‘에게’ 논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에게’ 논항이 요구되는 것은 주동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끼치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해석될 때로 국한하였다. 또한 [소유변화]와 관련된 ‘주다’가 상대방에 대한 ‘시혜’라는 더 일 반화된 의미를 얻게 되며 이는 지시 화행을 부탁 화행으로 약화시키는 화용론적 효과를 낸다고도 하였다.

- ㄷ. 대군 세간은 두어도 뵈 디 업스니 종들을 난화 주시니 잠말 말고 바다 두었다가 <서궁47a>
- ㄹ. 그러치 아난즉 돈을 덕희는 종이라 호고 다 형제와 친구의게 난화 주다 <種德上2a>
- ㄹ. 각중덕에 고로히 분비호여 찬 소용으로 난화 주려 호미 <매일신문>
- ㅂ. 관찰부 서기관 렬첩이가 일본 국기 오빅여 개를 제조호야 모든 학싱의게 난호와 주 엇스나 <대한매일신보>

- (6) ㄱ. 主人곳 나를 어여썸 너기거시든 날 爲호야 혼 鳴箏을 밍ᄃ라 주고 [note] 鳴은 소리 날씨오 <月釋22:53a>
- ㄴ. 처엄은 평격지를 문드라 주엇더니 점점호여 급격지를 문드라 주다 <서궁69>
 - ㄷ. 世祖大王이 미양 孝婦라 일ᄃ라샤 孝婦圖書를 문드라 주샤 씨 孝도를 나타내시니라 <御內拔文3a>
 - ㄹ. 정부에서 돈으로 문드러 들나 호면 정부에서 문드러 줄 터이요 <독립신문>

예문 (4)~(6)의 ‘주다’는 어휘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문법화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1)~(3)의 예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2. 보조용언 ‘-어 주다’의 양태성 분석

보조용언의 문법적 의미가 상과 양태라고 할 때 ‘-어 주다’는 양태성을 가진다. 보조용언 ‘-어 주다’는 ‘수혜’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선행 동사의 동작이 ‘유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유익성에 따라 상대방에게 베풀어줄을 요청하는 ‘시혜’의 의미로도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확인한 선행용언 중 ‘돕다’, ‘나누다’, ‘가르치다’, ‘살리다’, ‘얻다’는 의미적으로도 ‘시혜’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돕다’, ‘얻다’를 살펴보고 ‘-어 주다’의 양태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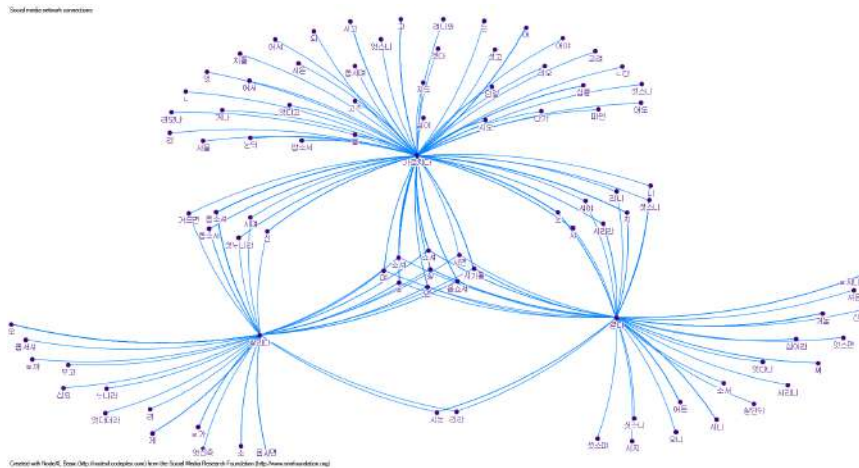
- (7) ㄱ. 다섯 당으로 혼 류를 밍ᄃ라 서르 도아 주게 호며 <正俗13a>
- ㄴ. 들지는 한국 정부에서 그 사름을 도아 주어야 그 사름이 능히 일을 할터이요 <독립신문>
 - ㄷ. 반드시 영혼의 착한 공부하는 힘을 도아 주시느니라 <주교요지 74b>
- (8) ㄱ. 처블 얻고져 호거든 내 저 어엿버 어더 주어 오시나 두드기 니피고져 호다가도 <순천34:7>
- ㄴ. 성인의 사름 스랑함이 즈기를 스랑함에서 더호시니 만일 과연 미일에 선종호는 은혜 엿어 주시기를 구호면 <성경직해 98b>
 - ㄷ. 무죄호 동기로써 중책을 어더 주니 이 무슴 도리뇨 <쌍천기봉 65a>

예문 (7), (8)에서 (7ㄱ)은 ‘다섯 당으로 한 줄을’ 만들어 서로 주라는 의미로써 소유 이전의 의미로 쓰인 것인데 (7ㄴ)에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주다’가 본래 가지고 있는 전달이나 소유 이전의 의미가 구체물로부터 추상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ㄷ)은 (7ㄴ)과는 달리 ‘영혼의 착한 공부하는 힘’은 누군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도록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예문 (8ㄱ)은 ‘첩을 얻는 일’, (8ㄴ)은 ‘은혜를 얻는 일’, (8ㄷ)은 ‘중책을 얻는 일’과 관련이 있는데

‘첩’은 구체적인 대상, ‘은혜’나 ‘중책’은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용언의 의미에서 추상화되면서 ‘은혜’나 ‘중책’은 구체물의 전달, 또는 소유이전에서 수혜라는 양태로 확장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3.1.에서 다뤘던 ‘가르치다’, ‘열다’, ‘살리다’ 구문에서 ‘-어 주다’에 후행하는 어미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본 것이다. <그림 4>를 보면서 ‘-어 이 세 선행용언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어미는 ‘-며’, ‘-(시)면’, ‘-시기를’, ‘-(옵)소서’, ‘-(시)르’이다.

<그림 4> ‘가르치다’, ‘열다’, ‘살리다’ 구문에서 ‘-어 주다’와 결합하는 어미 네트워크



이들 어미의 결합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청에 시혜를 베푼다는 양태를 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청자를 대우하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시혜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역사 자료 말뭉치를 활용하여 ‘-어 주다’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고 ‘-어 주다’가 문법화되는 과정과 양태성을 분석해 보았다. 각 시기별 문헌에서 출현하는 ‘-어 주다’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Uniconc로 용례를 추출하고 NodeXL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각 세기별로 어떤 선행용언과 결합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 세기에 걸쳐 ‘-어 주다’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종류, 시기별, 문헌별 출현 양상과 근대국어 이후의 ‘-어 주다’가 보조용언으로의 발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 자료 말뭉치에서 중세국어 시기 ‘-어 주다’ 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6237건 중 3.94%인 246건이었으며, 근대국어 시기 중 특히 19세기는 25.34%인 1581건을 차지하였는데 이중 1058건이 『독립신문』에서 출현한 용례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작 시기가 미상이나 근대국어 시기 이후 자료일 것으로 이해되는 대부분의 고전소설과 시가, 연가 등을 포함한다면 ‘-어 주다’가 쓰인 구문의 양적 확대가 ‘-어 주다’의 문법화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 말뭉치로도 확인이 되었다.

‘-어 주다’의 문법화는 본용언에서 보조용언으로 1단계 문법화를 먼저 거치는데 본용언 ‘주다’가 대상의 이동이나 전달, 소유 이전의 의미가 있는데 전달의 의미의 ‘혜택’의 의미를 포함시킬 때, 보조용언 구문으로 ‘봉사’, ‘수혜’, ‘혜택이나 유익성’ 등 다양한 용법과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출현 빈도가 높은 용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역사 자료 말뭉치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어 주다’의 모든 용례를 수집하고 결합하는 선행 용언을 분석한 후 시기별, 문헌별 출현 양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전체 네트워크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에 대한 그룹화나 구문별 특징에 대한 것은 크게 다루지 못하여 이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구종남(1986), 「보조동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현정(2003), 「한국어 ‘주다’류 동사의 문법화 양상」, 『언어학』 3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24쪽.
- 김경열(2018), 「보조용언 ‘주다’ 구성의 의미와 통사」, 『우리말글』 78, 우리말글학회, 27-49쪽.
-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혜(2019),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재고」, 『한글』 80-3, 501-529쪽.
- 김선혜.남신혜(2019), 「수여동사 기원 보조동사 ‘주(다)’의 의미와 통사」,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264-294쪽.
- 김아연(2020), 「형태주석 코퍼스 구축을 활용한 대한매일신보 시평가사의 키워드 추출과 분석: 1907년 국문판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78, 호남사학회, 77-111.
- 김진혜(2023), 「개화기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69-109쪽.
- 김효진(2017),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소영.김도훈(2017), 「한국어 ‘주다’ 수혜 구문의 통사론」, 『국어학』 84, 국어학회, 117-153쪽.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139-164쪽.
- 손세모듈(1991), 「보조동사 ‘주다’의 결합 제약과 의미」, 『국어학 논집』 1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60쪽.
- 손세모듈(1992), 「국어 보조동사의 특성」, 『한국언어문화』 10, 한국언어문화학회, 5-41쪽.
- 손세모듈(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금희(2019), 「한국어 용언의 접사화와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64, 한국어의미학회, 155-178쪽.
- 이기동(1979), 「주다의 문법」, 『한글』 116, 한글학회, 159-187쪽.
- 이래호(2023), 「근대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33-68쪽.
- 이민우(2021), 「의미 변화의 양적 추정 - 말뭉치를 이용한 의미 변화 연구 -」, 『한국어 의미학』 73, 한국어의미학회, 59-81쪽.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경(2009), 「중세국어 보조용언과 상 의미에 대하여」, 『형태론』 11(2), 형태론, 497-511쪽.
- 이흥구(2022), 「딤러닝 기반의 언간 자료 문자 판독기 구현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50(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5-133쪽.
- 임동훈(2021), 「부차 개념의 통사적 실현과 보조동사 구문」, 『국어학』 97, 국어학회, 59-88쪽.
- 정주리(2006),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81-207쪽.
- 조경순(2008), 「국어 수여동사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267-289쪽.
- 조경순(2021), 「보조용언의 판별 기준과 통사구조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60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웅(1984), 『국어학: 우리말의 어제, 오늘』, 샘문화사.
- 허인영(2023), 「국어사 말뭉치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111-143쪽.
- 호광수(1999),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인문과학연구』 21,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391-409쪽.

말뭉치를 활용한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이수진(전남대)

김건희(강원대)

이 논문은 말뭉치를 활용하여 '-어 주다'에 대해 분석한 논문입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논문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충실한 논문이 되도록 조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 주다'의 문법화와 양태성 분석

제목에 '문법화', '양태성'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태 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양태'와 '문법화'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양태성'보다는 '양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떨지?

'양태성'은 '양태'와 유사한 자질까지 다 포괄하는 모호한 개념이 되거나 반대로 '양태'의 핵심적인 성질만 다루는 좁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2> 말뭉치를 활용한 명사구 논항 구조 분석 제안

말뭉치를 활용하여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 위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선행 용언 예문에 나타나는 다른 명사구 논항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어 주다'의 경우 보통 3가 결합가 이상의 논항 구조로 나타나는데, '양태'라는 의미·화용론적 특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명사구 참여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계 프로그램 및 자료

<표1>, <표2>에 Overall Matrices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왼쪽 세로항의 개념들은 영어로 제시하지 말고, 번역 용어로 제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Vertices를 출현형으로, Total edges를 출현 개수/출현량으로 설명(번역)하였는데, edge를 빈도 또는 링크(unique edge)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세기 출현형은 <표1>에서 1581개인데, 아래 설명을 보면, 1058+538개... 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선행 연구 조사(문법화, 양태)

문법화, 양태 관련한 선행 연구부터 자세히 다루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하며

'-어 주다'의 기본 의미를 '수혜'로 보았는데, 이러한 기본 의미와 양태(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론에서 각주가 본문보다 설명이 많은데, 각주 내용을 본문으로 보내야 함.

어휘 체계를 활용한 다의어와 동음어 구별

-‘났다, 무르다’를 중심으로-

신은수(전북대)

< 차례 >

1. 머리말
2. 현대한국어의 이동 방향에 따른 행위주 이동 자동사 고찰
3. 중세한국어의 ‘났다, 무르다’
- 4.
5. 맺음말

1. 머리말

<연구 목적>

- ①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앞-뒤 이동을 나타냈던 ‘났다(進), 무르다(退)’가 각각 다의어임을 밝힌다.
*행위주 이동 자동사는 행위주(agent) 주어의 장소 이동을 드러내는 자동사(한송화 2000, 신은수 2019ㄱ 참고).
- ② ‘났다, 무르다’가 행위주 이동 의미의 약화나 소멸로 어휘 분화가 되었음을 밝힌다.
- ③ 다의어와 동음어 구별 방법으로 어휘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론 소개.
*일반적인 방법: 의미 유연성, 어원(성조, 방언)

<연구 방법>

- ① 행위주 이동 자동사 어휘 체계에 있는 다른 어휘와 비교.
- ②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
⇒ 대표적인 이동 방향은 안-밖, 앞-뒤, 위-아래 방향이고, 이 이동 방향을 대표하는 단순동사 (simple verbs)가 이들 동사이기 때문. (중세한국어 시기에도 동일함.)

<어휘 체계를 활용한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한 이유>

- ⇒ ① 한 어휘 체계 안에서 보이는 어휘 특징은 해당 어휘 체계의 일반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높고,
② 해당 어휘 체계 안에서 일정한 어휘 변화가 나타난다면, 나머지 어휘도 그 변화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아래 적용.
- ⇒ 실제로 15세기 ‘났다-무르다’는 안-밖 이동을 나타내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였고, 이 중 단순동사는 행위주 이동 의미의 축소나 소멸을 거쳤다. 그 중 ‘났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무르다’도 현재 행위주 이동 의미가 아주 희박하다.
- ⇒ ‘났다-무르다’는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와 행위주 이동 자동사 어휘 체계에 있었고, 이들 모

- 두는 이 어휘 체계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이 일정하다.
- ⇒ 15세기나 현재,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주 이동 자동사는 행위주 이동 의미, 대상 이동 의미, 그리고 이동에서 파생한 기타 의미를 지닌다.
 - ⇒ 현재 행위주 이동 자동사 어휘 체계에 속하고, 행위주 이동 의미가 공존하는 ‘들다, 오르다, 내리다’ 등은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이고, 의미가 다양하다.
 - ⇒ 또 행위주 이동 의미가 부재하는 ‘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보인다.
 - ⇒ 이 중 행위주 이동 자동사였던 ‘났다, 무르다’는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 범주가 각각 동음어로 등재되어 있다.

<어휘 체계를 활용한 동음어, 다의어 구별의 장점과 문제점>

- 어휘 체계 안에서 보이는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어휘 특징, 더 나아가 어휘 변화의 방향 등을 알 수 있음.
- 한 어휘 체계에 속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지 않고,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추론은 언어 사실을 흐릴 수 있음.

2. 현대한국어의 이동 방향에 따른 행위주 이동 자동사 고찰

(1) ‘났다, 무르다’의 언어 현실

① 낮다

가. 현재 ‘났다’는 단독으로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쓰이지 않는다. 합성동사 ‘나아가다, 나아오다’ 등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나. <표준>에서는 ‘났다1’과 ‘났다2’가 동음어로 등재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한글학회(1992)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1998)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 즉, 사전에서는 공통적으로 ‘났다1’과 ‘났다2’를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 인식한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났다’

동사	품사	의미
났다1	동사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
났다2 【...보다】	형용사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 서민들 살기에는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났다 .

다. 무엇보다 ‘났다1’과 ‘났다2’는 품사가 동사와 형용사로 다르다. 또 의미가 각각 하나만 있는데, 이는 대체로 고유어가 다의를 갖는 것과 대조적이다.

라. 행위주 이동 자동사 ‘났다’를 ‘났다0’으로 하여, ‘났다1.났다2’와 구별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마. ‘났다0’과 ‘났다1, 2’가 다의어인데,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로 행위주 이동 의미에서 파생한

1) 이외에 이른 시기의 사전인 문세영(1938), 한글학회(1957)도 확인하였다. 신기철·신용철 편저(1984), 운평어문연구소 편(1996)도 찾아보았다. 모두 ‘났다1’과 ‘났다2’를 동음어로 등재하였다. ‘났다0’을 실은 사전은 중세한국어 시기의 예를 제시하고, ‘났다1, 낮다2’ 등과 동음어로 보았다(한글학회 1957, 신기철·신용철 편저 1984, 운평어문연구소 편 1996).

의미가 분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② 무르다

가. 현재 ‘무르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를 드러내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서도 약간의 예가 발견된다. 행위주 이동 의미를 지니는 ‘무르다’를 편의상 ‘무르다0’으로 나타 내고, 나머지 ‘무르다’와 구별하기로 한다.

나. ‘무르다’는 <표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무르다1, 2, 3’이 있다. 이 논문의 ‘무르다0’은 ‘무 르다2’에 포함된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무르다2’의 타동사와 자동사의 쓰임으로 제한한다.²⁾

<표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무르다’³⁾

동사	품사	의미
무르다1	자동사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감이 물러 연시처럼 되었다. • 야채를 냉장고에 오래 두었더니 다 물러서 못 먹게 되었다.
무르다2	타 동 사 / 자동사	㉠ 「1」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산 물건은 무 수 없습니다. 「2」 【……을】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수만 물러주게. • 한번 저지른 실수는 처음대로 무 수가 없으니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 【…으로】 있던 자리에서 뒤로 옮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운데 앉지 말고 뒤로 물러 벽 쪽으로 붙어 앉으렴.
무르다3	형용사	「1」 여리고 단단하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른 살. 「2」 물기가 많아서 단단하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죽이 무르다. • 비 온 뒤라 땅이 무르니 발을 디딜 때 주의해라. 「3」 마음이 여리거나 힘이 약하다. <u>능연연하다</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이 그렇게 물러서야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겠느냐? 「4」 일 처리나 솜씨가 야무지지 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이 그렇게 무르게 일을 처리한단 말이오?《송기숙, 녹두장군》

다. ‘무르다0’은 사전에 따라 다의어나 동음어로 달리 등재되었다. 위에서 보듯 <표준>에서는 ‘반환’ 의미의 타동사와 ‘행위주 이동 의미’의 자동사를 ‘무르다2’의 다의로 보았다. 이와 달리 한글학회(1992)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1998)에서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분리하여 동음어로

2) <표준>의 ‘무르다2’가 ‘무르다1’이나 ‘무르다3’과 다의어인지, 동음어인지에 대한 설명은 ‘눅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설명이나 이후 논의로 미룬다. ‘무르다1’과 ‘무르다3’의 품사나 의미는 ‘굳다, 눅다, 야물다’ 또는 ‘뻘다, 크다, 있다, 눅다’ 등에서 보는 것과 유사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들 어휘는 유사한 의미로 자동사와 형용사 용법을 모두 가진다. 다만, 사전에서 이들 어휘에 대해서는 자동사와 형용사 용법을 다의로 보았는데, ‘무르다’는 동음어로 나누어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지면을 줄이기 위해 ‘무르다3’에서 예문 일부를 삭제하였다.

다르게 등재하였다.

(2)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의 문법과 의미 정보 요약

현대한국어에서 이동 방향에 따른 행위주 이동 자동사 중 단순동사만 추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현대한국어의 이동 방향에 따른 행위주 이동 자동사의 단순동사 체계

이동 방향	안↔밖		앞↔뒤		위↔아래	
단순동사	들다	(나다)	(낮다)	무르다	오르다	내리다

‘들다, 오르다, 내리다’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지만, ‘무르다’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나다, 낮다’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지 못함을 괄호로 나타내었다(신은수 2020).⁴⁾

<표 4> 현대한국어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의 문법, 의미 정보

	들다	나다	내리다	오르다
품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구문	-에/로 -에 -에/을 -이 -을 -에 -을	-에 -에/에서 -에/에게 -에서/에게서 -이 -을	-에 -에서/을 -을 -에서 -을 (-을) -에 (-을) -에/에게	-에/을 -에
의미	[이동] [내부이동]	[표출]	[이동] [하강]	[이동] [상승]
	[포함] [생성] [도달] [숙성] [보조]	[생성] [생산] [탄생] [배출] [우수] [탈락] [생활] [분리]	[축소] [판단] [포상] [하명]	[증가] [확장] [전염]

‘표 2’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의미는 현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정리한 것이 아니므로, 대략적인 특징을 훑어보는 데에만 참고할 것이다. 이 표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는 모두 자동사이다. 이때 ‘-이 -에 동사’ 구조로 쓰인다.

- (1) 가. 숲속에 드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 나. 사람들이 산에 오른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나다’를 ‘밖으로 나오거나 나가다’로 풀이하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라는 속담이나 관용구처럼 쓰이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는 ‘나다’가 이동 의미를 현재 드러내고 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예전에 그러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오되 적절히 변경 수정하였다.

다. 우리는 서울역에 내려 전철을 타고 집에 갔다.
라. 엉덩이에 종기가 나다.

이 중 (1가-다)의 ‘들다, 오르다, 내리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를 지녀 행위주 이동 자동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1라)의 ‘나다’는 사물의 표출이나 생성 의미를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서 ‘-에’는 장소를 나타낸다. 특히 (1가-다)는 이동체의 도달점을 나타낸다.
둘째,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쓰일 때 출발점이나 도달점을 나타내는 ‘-에’나 ‘-에서’ 대신 ‘-을’로 쓰일 수 있다. 이는 동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2) 가. 방에/방으로/*방을 들었다.
가. 동호회에/동호회를 들었다.
나. 산에/산을 오르다.
다. 우리는 서울역에/*서울역을 내렸다.
다. 차에서/차를 내리다.
비교) 우리 마을에/마을로/*마을을 길이 나다.

‘들다’는 (2가)에서 보듯 물리적인 행위주의 이동 의미를 드러낼 때는 도달점 명사가 ‘-을’로 실현되지 못하고, (2가)에서처럼 추상적인 모임에 가입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에’와 ‘-를’의 교체가 가능하다. (2나)에서처럼 ‘오르다’는 도달점 장소 명사가 ‘-을’과 쓰인다. ‘내리다’도 도달점은 ‘-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2다), 출발점 명사와는 어울릴 수 있다(2다'). 이동 의미보다 표출이나 생성 의미에 가까운 ‘나다’도 ‘-을’과 교체되지 않는다.

셋째, 이동 의미를 지닐 때 타동사 용법을 보이는 앞의 예와 달리 진정한 타동사로 기능하는 동사가 ‘들다, 내리다’이다. ‘표 4’에서 ‘오르다’가 자동사로만 표시된 것은 이와 같은 타동사로의 쓰임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나다’도 현재는 행위주 이동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타동사로 쓰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3) 가. 겨울을 나다. 따로 세간을 나다.
나. 나는 아버지 편을 들었다/손님들 시중을 든다. 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다.
다. 공기가 탁해서 유리문을 내렸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다. 게시판에서 글을 내렸다. 평가를 내린다.

이들 동사 중 ‘오르다’가 장소 영역이 가장 넓은 행위주 이동 자동사인데,⁶⁾ 이동과 관련이 없는 의미로 타동사 용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달리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지 못하는 ‘나다’는 ‘기간을 보내다, 살림을 따로 차리다’ 등의 확장 의미로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3가). ‘들다’도 ‘나다’와 비슷한 정도의 타동사로서의 의미,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 셋집을 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3나).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되 장소 영역이 제한적인(탈것) ‘내리다’는 가장 많은 타동사로서의 의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3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서는 이들 동사의 자동사 용법과 함께 타동사 용법을 다의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넷째, 구문이 확장되었다. 이동 자동사일 때의 기본 구문에 논항이 하나 더 생성된 예이다. ‘-이 -에 -를 들다’(4가), ‘-이 -에서 -을 내리다’ 또는 ‘-이 -을 -에 내리다’(4나)가 있다. 자동사 구문에 목적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들다, 내리다’가 타동사가 되었다.

6) 행위주 이동이 가능한 장소 명사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산, 나무, 마루’ 등과 같이 지형, 건축물, 땅이나 바닥 위에 있는 사물, 탈것 심지어 하늘이나 허공에까지 장소 명사에 제약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신은수(2019ㄱ/ㄴ) 참고.

- (4) 가. 그들 부부는 교통이 좋은 곳에 전세를 들고 싶어 한다.
나. 트럭에서 짐을 내렸다.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린다.

‘들다’는 이중주어문을 보인다.

- (5) 가. 김치가 맛이 들었다. 누나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감기가 들었다.
나. 김치에 맛이 들었다. *누나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감기에 들었다.

(5가)는 주어가 두 개로 실현되었다. (5나)는 이 이중주어문을 ‘-에’로 바꾸어 보았는데, 교체가 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와 달리 장소 명사 없이 주어만 필요한 더 단순한 구조로 쓰이기도 한다. ‘나다, 오르다’는 이와 같은 구조로 쓰이는 예가 다른 동사보다 더 많이 보인다. 명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 가. 밤이 들다.
나. 겁이 나다. 몸살이 나다. 짬이 나다. 기억이 나다. 시간이 나다.
다. 김이 오르다. 옷이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온이 오르다. 실적이 올랐다.

다섯째, ‘-에’나 ‘-에서’가 기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 (7) 반에서 5등 안에 들다. 옷이 마음에 든다.

이 예에서 ‘들다’는 5등이나 마음을 일정한 공간으로 보아 공간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등이나 마음은 구체적인 장소 명사가 아니기에 이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능격동사의 쓰임을 ‘내리다’가 보인다.

- (8) 가. 막을 내리다-막이 내리다, 열을 내리다-열이 내리다, 체중을 내리다-체중이 내리다.
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다-땅에 뿌리가 내렸다.
다. 왕이 신하들에게 어명을 내리다-신하들에게 어명이 내리다.

(8가)에서는 ‘-이 내리다’와 ‘-이 -을 내리다’, (8나)에서는 ‘-이 -에 내리다’와 ‘-이 -에 -을 내리다’, (8다)에서는 ‘-이 -에게 내리다’와 ‘-이 -에게 -을 내리다’ 등처럼 다양한 능격동사 구문에서 일괄적으로 쓰인다.⁷⁾

일곱째, ‘나다’는 사람 주어에 대해 ‘태어나다, 인물이 배출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사람 됨됨이나 생김새가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는 ‘오르다’가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행위주의 이동을 기본의미로 하지만, 행위주를 주어로 하는 의미가 많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또 이들 단순동사가 움직임보다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7) 15세기에 ‘느리다’는 타동사로서의 용법을 지니지 않았다(황국정 2009). 대신 ‘느리오다’라는 사동사를 가졌다. 통시적으로 ‘느리오다’는 사라지고 대신 ‘느리다’는 타동사 용법을 갖는다.

- (9) 가. 나는 한국에서 났다. [탄생]
 나. 우리 집에 천재가 났다. [배출]
 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난 인물이다. [우수]

‘나다’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고 있지 않지만, (9)에서처럼 사람의 탄생이나 배출, 우수함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수] 의미로 쓰일 때 ‘나다’는 (다)에서처럼 ‘난’이라는 과거 관형사형으로 굳어져 ‘난 인물, 난 사람’ 등으로 쓰인다.

‘들다’는 사물을 주어로 할 때, 이들의 물리적인 이동 의미보다 그것을 전제로 한 상태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10) 가. 오후가 되면 햇빛이 안방으로 든다. 안으로 물이 들지 않도록 해라.
 나. 옷에 파란물이 들었다. 빵 속에 든 단팥. 좋은 습관이 들면. 무가 속이 들다.

(10가)는 기체나 액체가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나마 볼 수 있지만, (10나)는 이에 비해 결과적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여덟째, 이들 동사가 지니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나 기본의미(대개 이동 의미)에서 의미 확장이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들다, 오르다-내리다’는 사람의 이동→사물의 이동, 구상 명사의 이동→추상 명사의 이동, 이동에서 다른 의미로의 확장 등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행위주 이동 의미가 사라진, 대상의 이동 의미조차 희미한 ‘나다’는 다양한 의미가 모두 다의로 결속되어 있다.

- (11) 가. 사람들은 차에서 내렸다. (사람의 구체적인 이동)
 나. 비→어둠→살→막→명령/벌→물가 (사물의 구체적인 이동→추상적인 이동)
 (구상과 추상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의미 확장 순서를 보인 것은 아님.)

이와 같이 현대한국어에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로 기능하거나, 중세한국어 시기에 이 어휘 체계에 속했던 단순동사들이, 현재 보이는 품사, 구문, 의미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다. 어휘 체계에 속하는 어휘를 모아 이들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현재 나타난 것이든 그 이전의 특징이 변화, 유지되어 온 것이든, 이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통시적 연구에서는 어휘 체계 안에서 어휘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히 품사나 구문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품사, 구문 그리고 의미의 변화가 어휘 체계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어휘 체계를 중심으로 한 어휘사를 기술하려는 것이다.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행위주 이동 자동사가 현대한국어에서 드러내는 이와 같은 특징은, 이 어휘 체계에 속했던 어휘의 과거 모습이, 이들의 현재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이 어휘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개별어휘 단위가 아니라 어휘 체계 단위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되더라도 어휘 체계에 내재된 특징이나 변화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하다.

이제 이 내용을 상기하고, 다음 장에서는 15세기의 ‘났다, 모르다’를 살필 것이다.

3. 중세한국어의 ‘났다, 이르다’

이 장에서는 15세기에 쓰인 ‘났다, 이르다’를 찾아서 그 의미를 살피고, 이들의 의미 유연성을 따져 볼 것이다.⁸⁾

3.1. ‘났다’

15세기에는 ‘났다0’과 ‘났다1, 2’가 있고, 타동사 ‘났다’가 더 있다. 차례대로 ‘났다’를 소개하되, 여기에서는 의미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할 것이다.⁹⁾

먼저, ‘났다0’은 이동 자동사로 주로 앞으로-이동을 나타낸다.

(12) 가. 그뻘 多寶佛이 寶塔 中에 半座를 坐호샤 釋迦牟尼佛 받조오시고 이 말 호샤되 釋迦牟尼佛이 이 座에 坐호샤 卽時에 釋迦牟尼佛이 그 塔 中에 坐호샤 半座에 안 조샤 結跏趺坐호시니라(爾時多寶佛이 於寶塔中에 分半座호샤 與釋迦牟尼佛호시고 而作是言호샤되 釋迦牟尼佛이 可就此座호쇼셔 卽時에 釋迦牟尼佛이 入其塔中호샤 坐其半座호샤 結跏趺坐호시니라)<1463법화경언해4:132b>

나. 正道에 수이 나샤 계을음 업고져 호린(欲於正道에 易進而無懈者는)<1463법화경언해4:101a>

(12)에서는 ‘났다’가 사람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12가)에서 ‘났다’는 이동 주체인 주어 석가모니불이 (보탑 안에 있는) 자리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때 행위주 주어 석가모니불은 물리적인 장소 ‘이 座’로 이동한다. (12나)에서 ‘났다’는 배우는 사람이 ‘正道’라는 추상적인 기준

8) 중세한국어에서 성조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였으므로, 아래에 사전의 성조 정보를 간략히 요약해 보였다. 그리고 실제 예를 다룰 때에 ‘났다’의 성조만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어휘 체계를 바탕으로 동음어, 다의어 구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성조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다. 사전에 나타난 ‘났다’의 성조와 품사, 뜻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낮다0(R)(進) 동사, 낮다1(L)(愈) 동사, 낮다2(L)(勝優) 형용사<유창돈(1964)>
나. 타동사 ‘났다’(R/H)(뜻: 나아가게 하다. 바치다.)<한글학회(1992)>
비교) 나사가다(LHH/LHL), 나소(LH)(부사), 나소다(LH)

‘났다’가 현대한국어에서와 같이 동음어로 처리되었고, 품사도 현대한국어와 같다. ‘났다0’은 상성, ‘났다1, 2’는 평성이다. 타동사 ‘났다’가 더 있다. 참고로 이 시기 다른 행위주 이동 자동사의 성조를 표로 제시하였다.

<표>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의 사전 정보

동사	품사	성조	뜻풀이
들다	자동사	H/L	① 들다. 들어간다. 들어오다 ② 귀신이나 병이 들다
나다	자동사	H/L/R	나다. 태어나다. 드러나다
오르다	자동사	LL/LH	오르다
내리다	자동사	LH	내리다

<한글학회(1992)>

9) 여기에서는 타동사 ‘났다’를 ‘났다3’으로 구별할 수도 있지만, 타동사 ‘났다’는 현대한국어까지 이어지지 않으므로 따로 번호를 매기지 않았다. 또 암묵적으로 이들 모두는 다의어라는 가설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나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났다’는 행위주의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동 의미를 모두 드러낸다.

또 ‘났다’는 사물의 이동을 드러내기도 한다.

- (13) 가. 이 三昧를 行ᄃ야사 이 菩薩入 色相의 크며 저굽과 舉動이 나·스·며 머므로를 能히 보리니(行此三昧ᄃ야사 乃能見是菩薩入 色相大小와 威儀進止로소이다)¹⁰⁾<1447석보상절20:40a-b>
- 나. 이제 ᄃ다가 힘써 닷ᄃ면 어려비 닷골 行이 漸漸 어렵디 아니ᄃ야 功行이 제 나·스·리·니(今若強修ᄃ면 難修之行이 漸得不難ᄃ야 功行이 自進ᄃ리니)<1467목우자수심결언해,44b>

(13가)에서 ‘났다’가 포함된 부분만 해석하면, ‘거동의 나아가고 머무름을 잘 볼 것이니’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舉動이’는 주어를 나타내는 속격 형태로 ‘났다’의 주어에 해당한다.¹¹⁾ (13나)에서는 공행(功行)이 주어로 쓰였는데, 공행은 ‘공덕이 되는 수행’(정우영 2009: 167)을 가리킨다. 거동이나 공행은 움직임이나 태도와 관련되므로 넓게 사물 명사로 보려고 한다. 거동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움직임은 앞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13가)는 물리적 이동에 가깝다. 반면, 공행은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스스로 물리적인 공간 앞으로 이동해 가기 어렵다. 그래서 (13나)에서 ‘났다’는 주어의 속성이 일정한 기준에서 앞으로 이동함을 나타내 추상적인 앞서감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앞으로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부사 ‘더’와 함께 쓰여 앞으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거나 기준이나 비교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탁월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 (14) 가. 이는 二乘法을 보터 더 :나·스·니·라(此는 依二乘之法ᄃ야 增進者 | 라)<1463법화경언해3:48b>
- 나. 其四百八 ... ᄃ 분이 주그샤미 三分두고 나·스·씨 아들님이 孝道ᄃ시니(勝)¹²⁾<1459월인석보20:92b>
- 다. 니르논 自在ᄃ 業과 普門으로 나토아 뵈샤미 묘음에서 :나·스·사·건·마·른 實엔 두 聖인이 ᄃ 道理샤 서르 始作과 ᄃ츨패 ᄃ외실 쓰르미라(所謂自在之 業과 普門示現은 則進於妙音ᄃ시니 其實은 二聖이 一道 | 샤 相爲始終耳씨)<1447석보상절 21:20a-b>

(14가)에서는 부사 ‘더’가, (14나, 다)에서는 ‘-두고, -에서’가 눈에 띈다. (14가)에서 ‘났다’는 여전히 주어 ‘이’(앞에서 말한, 수행하여 얻은 구체적인 道果)가 앞으로 나아감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이는 곧 발전을 의미한다. (14나)에서처럼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두고, -에서’와 함께 쓰여 주어가 기준보다 우등함을 드러낸다. (14다)에서 ‘났다’는 관음보살과 묘음보살 두 성인 중, 관음보살이 묘

10) 해당 한문은 <법화경언해 7:15b-16a>에서 가져온 것이다. <석보상절>의 언해문에 대한 저본 정보를 김성주·오지연 주해(2018: 316)에서 얻은 후 <법화경언해>를 확인하였다.

11) <석보상절>에 대응하는 <법화경언해>의 언해문은 “이 三昧를 行ᄃ야사 能히 이 菩薩入 色相 大小와 威儀進止를 보리로소이다[威는 저플씨오 儀는 法이니 威儀進止는 舉動이라]<1463법화경언해7:16a>”이다. 여기에서 ‘威儀進止는 舉動이라’는 ‘위의(威儀)의 나아가고 그침’이 ‘거동(舉動)’이다. 그런데, <석보상절>에서는 ‘위의’만 ‘거동’으로 대체되어 풀이되었다. ‘위의’는 움직임 때의 태도를, ‘거동’은 움직임을 가리켜 둘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문헌에서는 둘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석보상절>에 따라 ‘거동’을 주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12) <월인석보 20>에서 <월인천강지곡> 기406에서 기411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방편불보은경> 권 제1, 효양품 제2’와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127-129쪽)’에서 저경을 확인할 수 있다(김영배 2004: ix). 이 논문에서는 저경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김영배(2004: 115)에서 ‘났다’를 ‘勝’으로 풀이한 것을 인용하였다.

음보살보다 자재한 업과 보문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났다’는 앞이라는 물리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데, ‘앞’으로의 이동 방향은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비교 구문에서도 우등 비교를 드러내고, 부정적 속성의 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그 속성이 끝나 양호해졌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15) 쏘 蚰蜒이 ... ㅎ다가 빈에 들어든 空心에 ㄷ흐 ㄷ락 ㅎ 두 ㄷ되를 ㄷ그면 ㄷ즉제 ㄷ누른 ㄷ브리
ㄷ외야 나리라 아니 다 ㄷ낫거:든 다시 ㄷ머그라(若入腹中 空心食好酪一二升七升 卽化爲黃
水而出 不盡更服神妙<1466구급방언해下:43b>

(15)는 유연(蚰蜒, 그리마)¹³⁾가 배에 들어갔을 때 공복에 우유를 한두 되를 먹으면 즉시 누런 물이 되어 나올 텐데, 한도에 이르러 양호해지지 않았으면 다시 먹으라는 말이다.

‘났다’가 타동사로 쓰인 예도 보인다.

(16) 가. 百足은 일후미 蚘이니 蠍의 類니 발 하되 녀를 :낫:디 ㄷ몬ㅎ고(百足은 名이 蚘이나
蠍之類니 多足而行不進ㅎ고)<1463법화경언해2:109a>
나. ㅎ다가 ㄷ理를 ㅎ마 기피 ㄷ낫:도 ㄷ行을 ㄷ외다 ㅎ야 ㄷ닷디 아니ㅎ면(若理를 既深造코도
非行ㅎ야 不修ㅎ면)<1463법화경언해5:206b>

(16)에서는 ‘-을’이 문장에 드러나 ‘났다’가 타동사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16가)에서는 백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백족은 이름이 현이고 전갈 부류로 발이 많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百足은 녀를 낫디 몬ㅎ-’ 구조를 보인다. 목적어로 장소 명사가 오지 않고 이동 행위(‘넘(行)’)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대체로 이동 자동사는 ‘산에 오르다’에 대해 ‘산에 오르다’처럼 도착점 장소 명사가 배경으로 쓰이면서 ‘-을’과 어울리는데(앞 2장 참고), (16가)에서 ‘넘(行)’은 서술어 ‘났다’와 같은 이동 의미를 드러내고, 장소 명사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내용은 (16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ㅎ다가 理를 ㅎ마 기피 낫-’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 ‘理’는 장소 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6나)에서 ‘났다’의 주어는, 후행절의 동사 ‘닷디(修)’도 같이 고려했을 때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났다’는 사동 의미를 지닌 타동사로 쓰인다.

‘났다’가 타동사로 쓰인 예는 더 있다.

(17) 가. 처썹 舍利 다 ㄷ눈호습고 부텃 ㄷ웃입시우렛 터리 ㅎ나히 ㄷ나마 ㄷ잇거시닐 아모도 가지디
ㄷ몬ㅎ엿더니 ... ㄷ모다 阿闍世王의 ㄷ나:사:닐(餘有佛口一髭無敢取者 ... 故共持與阿闍世
王 阿闍世王得舍利及髭)<1447석보상절23:56b-57a>
나. 비록 根源을 아라도 오직 어루 제 기꼴 ㄷ뿌니언덩 어루 가져다가 그되 ㄷ낫디 ㄷ몬ㅎ리
라(縱然識得根源去ㅎ야도 只可自怡悅이언덩 不堪持贈君이니라)<1482금강경삼가해
1:15b>

앞의 (12)에서 ‘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 의미를 드러낼 때 도착점 ‘-에’가 실현되었다. (17)에서는 사람 명사가 도착점이 되었다. (17가)에서 ‘났다’는 부처님의 사리를 처음에 나누어 가졌던 여러 사람들(제천, 용왕, 여덟 왕 등) 모두가 마지막 남은 부처님의 윗입술의 털 하나를 아사세왕(阿闍世王)께 드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¹⁴⁾ (17가)에서는 ‘-을’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문장에 드러나지

13) ‘절지동물문 그리맛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다리가 여러 쌍이며 머리에 긴 더듬이가 있는 지네와 가까운 종류의 동물.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음.’<표준국어대사전>.

14) <석보상절>의 저경에 해당하는 한문은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에 배포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말뭉치’에서

않았지만, 문맥상 선행절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 -을 -씩 낫다’ 구문을 이룬다. (17나)에서도 ‘낫다’는 ‘그디’에게 근원을 가져다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여서 (17가)의 ‘낫다’와 의미가 같다. 지금까지 15세기에 보이는 ‘낫다’를 구문과 의미를 살피고, 이들을 모두 의미적으로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보다 의미 유연성이었고, 이 유연성은 ‘낫다’ 자체의 의미 확장 관계도 고려되었지만, 현대한국어를 대상으로 살핀, 이동 방향이라는 세부적인 어휘 체계 안의 ‘들다, 나다, 오르다, 내리다’가 보이는 의미.문법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였다. 말하자면, 15세기의 ‘낫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를 기본으로 대상 이동이나 추상 이동을 나타내고, 이동에서 확장한 [우등, 치료, 사동, 수여]의 의미를 지녔다. 자동사 용법을 기본으로 의미가 확장된 자동사, 구문의 변화로 인한 사동 의미, 구문이 확장하면서 생긴 타동사의 의미 등을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개 의미나 문법 등이 유사한 어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도인데, 이 논문이 다른 연구와 다른 점은 작은 어휘 체계 안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15세기 ‘낫다’가 갖는 이와 같은 의미 문법적 특징은 현대한국어에서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가 보였던 특징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따질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언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낫다, 무르다’가 역사적으로 의미 문법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피, 해당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이 변화 역시 이 어휘가 속한 어휘 체계의 변화와 함께 살필 것이다. 이 내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¹⁵⁾

5. 맺음말

‘낫다, 무르다’의 통시적 변화,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의 통시적 변화를 살피고, 일정한 변화 양상을 찾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이다. 가설로 결론을 대신한다.

① 낫다

가. 기원적으로 행위주 이동 의미를 지닌 ‘낫다0’과 <표준>의 ‘낫다1’과 ‘낫다2’는 동의어이다. 적어도 행위주 이동 자동사 ‘낫다0’과 자동사 ‘낫다1’은 동의어이다.

나. 통시적으로 행위주 이동 자동사 ‘낫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을 겪은 것으로 어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만, 역사적으로 행위주 이동 자동사 ‘낫다’가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과 함께 어휘 분화되었다.

라. ‘낫다’가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이나 축소를 겪은 ‘들다, 나다, 내리다’ 등보다 어휘 분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 것은 이미 15세기에 ‘낫다’는 다양한 의미 문법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② ‘무르다’

가. 행위주 이동 의미와 반환 의미는 ‘무르다0’의 동의어이다.

나. 현대한국어 사전이 이들을 동음어로 처리한 것은, 행위주 이동 의미와 반환 의미의 유연성이 희

확인할 수 있다. 언해문에는 사람들이 아사세왕께 주었다는 내용만 있는데, 한문을 보면 뒷부분에 아사세왕이 사리와 윗입술의 털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阿闍世王得舍利及鬣). 이 내용을 통해서도 ‘낫다’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낫다’가 ‘주다’의 의미인지 높임의 의미가 있는 ‘드리다’의 의미인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15) 발표문에서 ‘무르다’와 통시적 변화에 대한 내용은 미완성 관계로 첨부하지 않음.

박해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행위주 이동 자동사가 행위주 이동 의미를 잃거나 약해지고, 다의가 많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는 독립적으로 분화된다.

라. ‘낮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의 소멸이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의미 분화가 확정되고 변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무르다’는 행위주 이동 의미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의미 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낮다’가 ‘무르다’보다 변화가 더 이루어진 상태이다.

<참고문헌>

1. 사전 및 기타

남광우, 『고어사전』, 교학사, 1997.

문세영, 『조선어사전』, 1938; 『국어국문학 총림』, 대제각, 1988에 재수록.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윤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6.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사전 2』, 을유문화사, 1949.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https://www.korean.go.kr/>).

2. 논저

고석주,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준점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2007: 73~97쪽.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성주·오지연 주해, 「언해불전총서 석보상절 권20」, 동국대학교출판부, 2018.

김영배, 『월인석보』제20에 대하여: 영인과 어휘 등 문제점 몇 가지, 『국어학』 46, 국어학회, 2005.

김응모, 『국어 이동자동사 낱말발(평행이동편)』, 서광학술자료사, 1993ㄱ.

김응모, 『국어 이동자동사 낱말발(수직이동편)』, 서광학술자료사, 1993ㄴ.

김혜령, 「하강 이동 동사 ‘내리다’와 ‘추락하다’의 의미 분석」, 『한국어 단어의 의미구조와 의미관계 연구』, 한국문화사, 2013: 33~101쪽.

김혜령, 정유남, 황림화, 「평행 이동 동사의 낱말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2011: 99~121쪽.

남승호, 「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 『어학연구』 39-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2003: 111~145쪽.

서상규,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2019.

송웨이, 『이동동사의 통사의미적 고찰: ‘오르다’와 ‘내리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신은수, 「행위주 하강 동사 ‘내리다’ 연구」, 『한글』 80-2, 한글학회, 2019ㄱ: 407~446쪽.

신은수, 「‘내리다’의 행위주 이동과 장소 영역 고찰」, 『국어학』 92, 국어학회, 2019ㄴ: 241~281쪽.

신은수, 행위주 이동 자동사의 어휘 체계 변화-단순동사의 공시적 위상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90, 국어국문학회, 5-35, 2020.

우형식,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1998.

우형식,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6.

이건환, 『국어 이동동사의 의미 분석: ‘가다/오다/오가다’와 ‘오르다/내리다/오르내리다’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광호, 『유의어 통시론』, 이회문화사, 1995.
- 이기동, 「동사 ‘오다, 가다’ 의미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77: 139~159쪽.
- 이기동, 「동사 ‘가다’의 의미」, 『한글』 247, 한글학회, 2000: 133~158쪽.
- 이연희, 「상승 이동동사의 어휘 분절 양상」, 『한어문교육』 3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6: 33~54쪽.
- 이준희, 『상하 이동 동사의 의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임지룡,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279~298쪽.
- 전수태, 『국어 이동동사 의미 연구』, 박이정, 1987/2009.
- 정우영, 『『월인석보』 권20의 어휘 연구』,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 정우영, 『역주 목우자수심결언해.사범어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채희락,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현대문법학회, 1999: 79~100쪽.
- 천기석,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한송화,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2000.
- 합희진, 『국어 합성동사의 형성과 발달-‘V1-어+V2’형 합성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홍기선, 「이동동사와 장소명사 표지」, 『어학연구』 31-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5: 461~480쪽.
- 홍재성,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1987.
- 황국정, 「15세기 국어 이동동사 구문 연구-기본 문형과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2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3~66쪽.
- 황국정, 「국어 이동동사의 통시적 연구-논항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2005: 363~393쪽.
- 황국정, 『국어 동사 구문구조의 통시적 연구』, 제이앤씨, 2009.

‘어휘 체계를 활용한 다의어와 동음어 구별 - ‘났다, 므르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한데로(가천대)

선생님께서 그동안 발표해 오신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이 발표 역시 오랜 기간 관심 갖고 연구해 오신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글은 ‘어휘 체계’를 활용하여 현대/중세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행위주 이동 동사 ‘났다, 므르다’의 다의적 특성을 어휘의 의미 분화 관점에서 조명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사항을 여쭙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났다’의 의미 유연성

‘났다0 > 낮다1, 낮다2’의 의미 분화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된 역사 자료는 (14나, 14다)와 (15)로 이해됩니다. 먼저, ‘-두고’와 함께 쓰였다고는 해도 (14나)를 ‘났다2’의 의미로 단정하기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현대 한국어 직관으로도 ‘철수보다 나아가다(=났다0)’와 같은 의미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4나)가 ‘났다2’의 의미인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유사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14다)의 경우에 ‘進’에 대응하는 형식이 분명한바 이 역시 ‘났다1’로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외에 여러 자료를 추가하여 가설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났다’의 타동사적 쓰임이 현대의 ‘났다’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 ‘의미 분화’ 측면에서 어떻게 관련성을 지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와 평행하게 ‘문법적 변화’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으셨는지요? 발표자 선생님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쭙어 봅니다.

2. ‘났다’와 ‘므르다’ 비교의 타당성

결론의 ② ‘므르다’의 ‘라’ 항목을 통해 ‘났다’와 ‘므르다’의 차이점을 설명하셨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났다0’이 단일어로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는 ‘므르다0’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어휘의 소실 여부를 ‘변화의 단계(진행, 완료)’ 차이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지 고민이 됩니다. ‘의미 추상화, 분포 축소(전문화)’ 등 별도의 기준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3.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의 역사 자료 (통시적 변화)

‘들다-나다, 오르다-내리다’에 관한 설명이 주로 현대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되었기에 각 의미(sense)의 공시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미 분화, 의미 변화 차원의 평행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과거의 문헌 자료에서 관찰되는 통시적 변화 양상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선행 연구에서 진행하신 내용이 있다면 보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시기별 역사 자료 제시

소개하신 3장의 자료들이 주로 15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15세기와 21세기 언어의 차이를 대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중간 시기의 자료를 추가하시면 변화 양상을 더욱 정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5. ‘어휘 체계’의 의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연구는 ‘어휘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 ‘어휘 체계’가 본 연구의 설명에 활용되는지 감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식화된 표를 통해서, 또는 구체화된 의미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계 또는 대립 양상을 보여주시면 독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품사, 구문 그리고 의미의 변화가 어휘 체계의 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피려고”(2장 참고) 한 연구 목적에서 ‘어휘 체계의 변화’가 ‘났다, 모르다’의 경우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하셨던 발표문 4장에 보충 내용이 있을 듯하여, 토론을 통해 여쭙어 봅니다.)

6. 유형론적 자료 조사

어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이 추가된다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문법화 연구에서 이동 동사 ‘가다, 오다’가 ‘-아/어 가다, -아어 오다’와 같은 보조용언 쓰임을 보이거나, 영어의 ‘go’가 ‘be going to, be gonna’와 같이 미래 시제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들이 제시되곤 합니다. 이동 동사의 의미 분화에 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추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내원정사 소장 『念佛普勸文』의 서지와 내용 연구

이옥희
(부산대)

< 차례 >

1. 서론
 2. 서지 정보와 내용
 3. 이본과의 대조
 4. 권말 합철부-불교 가사
 5. 결론
-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내원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흥륜사본)¹⁶⁾의 서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본들과의 대조를 통해 이 문헌이 가지는 국어학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18세기의 불교 서적으로서 염불의 이유와 염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불경 언해이다. 이 문헌은 불교 문화 및 불교사 연구(김기종 2018)뿐만 아니라 불교 설화가 수록되어 있어 국문학 연구에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김기종 2020) 국어학에서도 여러 판본과 이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국어학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 가운데 김영배 외(1996)의 성과물이 후행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예천 용문사본(1704)과 팔공산 수도사본(1741)에 국한시키고 있어 다른 판본이나 이본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대한 연구는 서지 연구, 계통 연구, 이본과 판본 연구, 표기, 음운, 형태, 통사, 방언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홍윤표(1993, 1986)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각 판본들의 서지 정보와 내용, 구성을 소개하였고, 해인사본(1776)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를 보인 바 있다. 백두현(1992)에서는 해인사본의 이본 4편을 제시하고 이들 본문의 구성, 그리고 구개음화와 같은 음운 현상을 다루었다. 방언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명규(1974)에서는 음운적 특징 가운데, 구개음화를 살펴보았고, 김주원(1984ㄱ)과 김주원(1984ㄴ)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용문사본(1704), 해인사본

16) 황해남도 삼천군 달천리 서북쪽 흥륜골에 있었던 사찰(→ 황해남도 구월산의 남쪽 월명골)

(1776), 동화사본(1764)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을 정리하였다. 김주원(1994)에서는 용문사본에 나타나 있는 구두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고, 김주원(1994), 김주원(1996)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 흥률사본(1765)의 연구를 통해 18세기 황해도 서북 지역과 평안도 방언의 특징을 고찰한 바 있다. 김영배 외(1996)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대한 다양한 판본과 이본들에 대한 계보 정리와 함께, 해제 및 국어학적 연구를 보여주었다. 장영길(1996)에서는 예천 용문사본(1704)에서 나타나는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표기와 음운 및 음운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우영(1997)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용문사본)의 한자음 표기의 음운론적 성격을, 김기종(2018)에서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성격과 이 불경이 갖는 시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주원(1994), 김주원(1996)을 제외한 연구들은 대부분 용문사본(1704)과 해인사본(1787)을 바탕으로 서지학적 정보와 분석, 간행 시기와 이본과의 관계, 국어학적 연구에 집중해 왔다.

요컨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내원정사 소장본의 가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앞선 연구는 전반적으로 용문사본(1704), 수도사본(1741), 동화사본(1764), 해인사본(1776), 선운사본(1787)에 치중되어 왔으며, 흥률사본(1765)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이 18세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지역에서 간행된 여러 판본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면에 있어서 이 문헌이 가지는 독자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인 내원정사 소장본은 흥률사본(1765)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용문사본(1704)이나 경북대 소장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분이 소실된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 49ㄱ~51ㄴ)’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모효양문’은 동화사본(1764)에 실려 있긴 하지만, 그 해석면에서 내원정사 소장본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아울러 내원정사 소장본에는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 50ㄴ:07~51ㄴ)’가 수록되어 있다.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는 <불정심다라니경>이라는 불경 언해에 수록된 일화를 가지고 온 것인데, 용문사본, 동화사본, 경북대 소장본 등에는 실려 있지 않다. 경북대 소장본의 낙장으로 인해 흥률사본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구된다면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다른 판본이나 이본들 가운데 누락면이 있는 문헌들의 보완 작업을 위해 내원정사 소장본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흥률사본을 저본으로 하는 경북대 소장본에는 누락된 면이 다수 발견된다. 이는 내원정사 소장본으로 보충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원정사 소장본의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판본과 다양한 이본들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목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계통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계보를 완성하는 데에 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내원정사 소장본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과 권말에 불교 가사 필사본이 합철되어 있다. 이들 불교 가사의 소개와 함께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와 이들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들의 비교, 대조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텍스트인 내원정사 소장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¹⁷⁾은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앞선 연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해인사본을 비롯한 동화사본, 용문사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흥률사본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그간 연구 대상에서 비중을 차지 못했던 흥률사본을 저본으로 한다는 점,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이본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북대에서 소장본인 흥률사본(1765)의 본문에는 빠져 있는 <부모효양원> 및 누락 면에

17)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열람허가를 얻고 촬영 후 출력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한 연구와 함께, 내원정사 소장본의 권말에 합철되어 있는 불교 가사 4점의 대조 등은 내원정사 소장본의 가치를 재고하기에 충분하며, 지금까지 불경 언해 연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과는 차별화된 주제와 연구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염불 관련 글들을 다루고 있는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18세기의 불교 종합 포교선집이다(정우영, 김종진 2012:23). 18세기 서민들의 불교적 신앙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미타, 정토 사상과 연관된 불경들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서 불교문화사와 국문학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18세기 경상도, 평안도, 전라도 등 지역 방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사, 방언사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서지의 면밀한 분석과 이본과의 대조를 통한 특징 파악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18세기 국어의 공시적 변이와 통시적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에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의 대상 문헌인 내원정사 소장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경상북도 예천에 위치한 용문사의 승려 명연(明衍)이 1704년에 편찬한 것으로, 본 명칭은『대미타참약초요람보권염불문』(大彌陀懺畧抄要覽普勸念佛文)이며, 1책의 목판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은 예천 용문사본(1704)을 비롯하여 대구 팔공산 수도사본(1741), 대구 팔공산 동화사본(1764), 황해도 구월산 흥률사본(1765), 평안도 묘향산 용문사본(1765), 합천 해인사본(1776), 무장 선운사본(1787)에서 간행한 판본 등이다(김기종 2018:153). 이밖에 해인사에서 간행한 몇 가지 이본들이 전하고 있다. 염불보권문은 이본들의 간행 시기와 지역이 다른데 이들 이본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용문사본(1704)이 간행된 이후에 이를 저본으로 하여 첨삭과 신작(新作) 등을 통해 다양한 이본들이 간행되었다. 용문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동화사본이 간행되었고, 흥률사본은 동화사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을 새로이 새겼다. 따라서 내원정사 소장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본들 간의 대조 작업이 필요가 있다. 저본으로 하는 내원정사 소장본을 통해 연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서지 사항과 문헌의 상태 파악, ②내용과 구성 ③이본들과의 대조 ④권말 합철부(불교 가사 4점)의 소개 등이다. 이 과정은 18세기 불경 언해를 통한 국문학적, 국어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헌은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내원정사에 보관되어 있다.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자료 열람 및 사진 촬영을 허가를 요청한 후에 문헌의 모든 면을 촬영한 후 파일들을 컬러로 프린트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초간본인 용문사본과 흥률사본의 저본으로 알려진 동화사본과의 비교 대조 작업을 통해 국어학적 특징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경북대 소장본과의 대조 작업을 통해 누락면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서지 정보와 내용

2.1. 서지 사항과 문헌의 상태 파악

(1) 서지 사항

내원정사에 소장본의 서지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내원정사 소장본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서지 사항

서명(書名)	대미타참략요초요람보권염불문(大彌陀懺略要抄要覽普勸念佛文)
저자	명연(明緣)
장 수	52장
구성	1권 1책
판본	목판본
표제	보권문
크기	반엽 27.5cm×18.3cm, 반곽 20cm×15.7cm
행 수와 글자 수	10행, 한 지면당 글자 수 22자
사변의 형태	사주단변(四周單邊): 네 변이 한 줄로 되어 있음
계선(界線)	본문의 각 줄 사이를 구분하는 이 없는 무계(無界) 형식
어미(魚尾)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板心題)	보권문(普勸文)
간기	乾隆三十年三月日九月山興律寺刊行('1765년 3월 구월산 흥륜사에서 간행했다')

참고로 이 책의 공덕주(念佛功德主)는 관휴(寬休)이고, 시주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동화사본(1764)을 참고로 새로 쓴 흥륜사본(1765)은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표기에서 고쳐진 부분이 많다(김주원 1994:21). 내원정사 소장본 역시 내용의 삭제와 첨가가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헌의 표지와 간기는 아래 <사진3>과 <사진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5>, <사진6>에서 알 수 있듯이 서문이 실린 첫 장이 훼손되어 있다.

(2) 문헌의 보관 상태



<사진3> 『보권문』 표지



<사진4> 간기



<사진5> 서명 훼손 면(1ㄱ)



<사진6> 훼손 면(1ㄴ)

이는 흥륜사본(1765)을 영인한 경북대 소장본을 참조하여 훼손면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경북대 소장본의 표지와 내부 모습이다.

<경북대 소장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표지와 내부>



<사진7> 표지



<사진8> 내지



<사진9> 서명(1ㄱ)



<사진10> 간기(52ㄴ)

<사진7>에 표지 서명은 '염불보권문 흥륜사판'이고 <사진8>처럼 내지에는 다시 염불보권문 흥륜사판이라고 써어 있다. <사진9>에서 서문의 서명은 '대미타참략요초요람보권염불문(大彌陀懺略要抄要覽普勸念佛文)'이고 <사진10>에서 간기가 乾隆三十年三月日九月山興律寺刊行('1765년 3월 구월산 흥륜사에서 간행했다')으로 기록되어 있어 내원정사 소장본과 동일한 저본임을 알 수 있다. 불경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낙장부터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내원정사 소장본과 경북대 소장본의 낙장 대조

	내원정사 소장본	경북대 소장본
훼손 면	1ㄱ, 1ㄴ (한문 부분)	×
낙장	×	49ㄱ, 49ㄴ, 50ㄱ, 50ㄴ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내원정사 소장본의 1ㄱ, 1ㄴ은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반면, 경북대 소장본은 보존되어 있다. 한편 경북대 소장본의 49ㄱ, 49ㄴ, 50ㄱ, 50ㄴ에 해당되는 면들이 낙장되어 있다. 반면에 내원정사 소장본은 이 부분들이 모두 보존되어 있어 내원정사 소장본을 통해 소실 부분의 연구가 가능하다.



내원정사 소장본(1ㄱ)



경북대 소장본(1ㄱ)



내원정사 소장본(1ㄴ)



경북대 소장본(1ㄴ)



경북대 소장본 48ㄴ, 49ㄱ(낙장)



내원정사 소장본 48ㄴ, 49ㄱ



경북대 소장본 49ㄴ(낙장), 50ㄱ(낙장)



내원정사 소장본 49ㄴ, 50ㄱ



경북대 소장본 50ㄴ(낙장), 51ㄱ



내원정사 소장본 50ㄴ, 51ㄱ

2.2. 내용과 체제

내원정사 염불보권문의 구성 및 내용은 경전의 일반적인 양식인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분에 해당하는 서문(1ㄱ~2ㄱ)은 서명(書名)인 “대미타참략초요람 보권염불문(大彌陀懺略抄要覽 普勸念佛文)’의 서(序)”로 시작한다. 예천 용문사(龍門寺)에서 청허(淸虛)의 후예인 명연(明衍)이 글을 썼다는 내용이 소개된다.

본문(정종분)에 해당하는 부분(2ㄱ~51ㄴ)에는 저자가 여러 불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간략히 적은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본들과 대조한 후에 내원정사 소장본의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내원정사 소장본의 정종분(2ㄱ~51ㄴ) 목록>

〈제자종본우사명진씨승감(弟子宗本于四明陳氏承感)〉, 〈여동빈오도송(呂洞賓悟道頌)〉, 〈백락천송(白樂天頌)〉, 〈송상무진거사송(宋相無盡居士頌)〉, 〈호제동자아미타경〉, 〈염제불불여념아미타불〉, 〈제국세계불여서방극락세계〉, 〈극락세계칠보비중유구품연화대〉, 〈권타념불 동생서방〉, 〈유연봉불무연회불〉, 〈유신유익무신무익〉, 〈탐세사인부지염불대략〉, 〈차상제경논문약초요람보권제인차하대미타참문〉, 〈오장국왕견불왕생(烏長國王見佛往生)〉, 〈세자동녀권모왕생(世子童女勸母往生)〉, 〈수문황후 이향왕생〉, 〈경조방자 권타왕생〉, 〈학사장항 지과왕생〉, 〈신사목경 집번왕생〉, 〈온문정처 사친왕생〉, 〈도우선화 심번왕생〉, 〈염불작법(念佛作法)〉,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 〈정구업진언〉, 〈개경계〉, 〈개법장진언〉, 〈도량계〉, 〈참회계〉, 〈찬불계〉, 〈왕생계〉, 〈임종정념결〉, 〈준제진언〉, 〈사성예법〉, 〈초출유마경금남초설(抄出維摩經禁南草說)〉,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

내원정사 소장본에는 경북대 소장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효양문>(49ㄱ~50ㄴ)과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이 수록되어 있다. 이본마다 내용이 다른 이유는 용문사판(1704)이 간행된 이후 많은 이본이나 판본들이 간행 과정에서 첨삭을 가했기 때문이다. <부모효양문>이나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의 수록은 내원정사 소장본의 독자적인 면모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유통분(51ㄴ~52ㄴ)에서는 ▲왕실과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 ▲발원문과 간행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 ▲간기가 제시되어 있다.

3. 이본과의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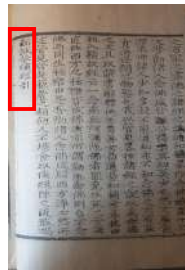
3.1. 형식적인 면

흥률사본(1765)은 대구 동화사본(1764)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쓴 것인데, 이는 다른 판본들이 그 이전 시기에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덮어 쓴 것과 달리 새로 쓴 것으로(김주원 1994:21)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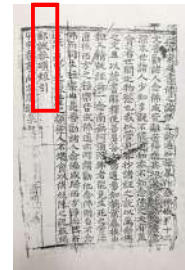
우선, 내원정사 소장본의 서문은 그 내용은 동화사본, 경북대 소장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행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내원정사 소장본의 서문의 행수는 10행이고, 동화사본은 11행, 경북대 소장본은 11행이다. 내제 ‘念佛普勸文’의 위치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동화사본은 3ㄱ의 1행에, 경북대 소장본과 내원정사 소장본의 내제는 3ㄱ의 3행에 위치한다. 내원정사 소장본이 10행임에도 불구하고 내제의 위치가 경북대 소장본과 동일한 이유는 내원정사 소장본의 서문 마지막 행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鄙誠恭頌短引’(비성공송단인: 조그만 정성을 다하여 공손히 짧은 계송 한 수를 쓴다.)라는 부분이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이 행이 누락되면서 11행이 10행으로 조정되었고, 2ㄱ에서는 경북대 소장본과 동일한 행의 배열을 보인다. 내제(內題) 이후의 본문의 내용과 함께 행의 체제를 흥률사본들의 이본들과 맞추기 위해 1ㄴ의 마지막 행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내원정사 소장본 1ㄴ



경북대 소장본 1ㄴ



동화사본 1ㄴ

한편, 아래 (2)에서 보듯이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1)과 달리 2ㄱ 2행의 첫 두 글자 ‘康熙’가 생략되어 있다.

(1) 康熙甲申春慶尙左道禮泉龍門寺淸虛後裔 明衍 集其文短(2ㄱ:2)

諸經論及懺文撮出節目 略述念佛文兼 以諺字解釋普勸諸人(2ㄱ:3) 예천 용문사본(1704)

(갑신년 봄 경상좌도 예천 용문사 청허 후에 명언은 그 글과 여러 경론 및 참문 구절 조목을 모으고 염불문을 약술하고 아울러 언문으로 새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권한다.)

(2) 甲申春慶尙左道禮泉龍門寺淸虛後裔 明衍 集其文短(2ㄱ:2)

念佛普勸文(2ㄱ:3) (내원정사 소장본)

그리고 2ㄱ 3행이 예천 용문사본과 다른 문맥의 흐름상 2행 이후의 내용이 유실되고 그 자리에 ‘念佛普勸文’이 씌어 있다. 이 내용은 경북대 소장본과 동일한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흥률사본은 대구 동화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쓴 것이며, 동화사본은 예천 용문사본의 내용을 다시 쓴 것으로 서문(장차1에 해당)은 예천 용문사본(1704)과 동일하지만, 서문의 마지막 두 줄은 생략되어 있다. 이는 대구 동화사본(1764), 구월산 흥률사본(1765), 합천 해인사본(1776), 전남 장성 선운사본(1787)이 동일하다(김주원 1994:20).¹⁸⁾

18) 김주원(1984, 1994-)에서 제시한 <普勸念佛文> 판본들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내원정사 소장본과 경북대 소장본은 서로 자형이나 글자체가 각각 다르다. 경북대 영인본의 인쇄 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글자가 뭉게져 있거나 흐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인 것에 비해 내원정사 소장본은 인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글자의 구분이 대체로 명확하다.

3.2. 내용적인 면

예천 용문사본(1704)과 경북대 소장본과의 대비를 통해서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수록 내용이 거의 같지만, 삭제된 내용과 첨가된 내용이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록 순서에도 차이가 있다.

<표3> 내원정사 소장본과 이본들의 내용 대조

내원정사 소장본(홍률사본)	예천 용문사본(1704)/대구 동화사본	경북대 소장본(홍률사본)
대미타참략초요람보권염불문 서1ㄱ	대미타참략초요람 보권염불문 서	대미타참략초요람보권염불문 서1ㄱ
제자종본우사명진씨승감 2ㄱ (弟子宗本于四明陳氏承感)	제불불여아미타불 (諸佛不如阿彌陀佛)	제자종본우사명진씨승감2ㄱ (弟子宗本于四明陳氏承感)
여동빈오도송(呂洞賓悟道頌)8ㄴ		여동빈오도송(呂洞賓悟道頌)
백락천송(白樂天頌)9ㄱ		백락천송(白樂天頌)
송상무진거사송(宋相無盡居士頌)10ㄱ		송상무진거사송(宋相無盡居士頌)
호제동자아미타경10ㄴ		호제동자아미타경
염제불불여념아미타불11ㄱ	염제불불여념아미타불	염제불불여념아미타불
제국세계불여서방극락세계13ㄱ	제국세계불여서방극락세계	제국세계불여서방극락세계
극락세계칠보비중유구품연화대14ㄱ	극락세계칠보비중유구품연화대 ¹⁹⁾	극락세계칠보비중유구품연화대14ㄱ
권타념불 동생서방(勸他念佛 同生西方)17ㄴ	권타념불 동생서방	권타념불 동생서방17ㄴ
유연봉불무연혜불18ㄴ	유연봉불무연혜불 (동화사본 언해 부분9ㄱ낙장)	유연봉불무연혜불18ㄴ
유신유익무신무익19ㄴ	유신유익무신무익 (동화사본9ㄴ 낙장)	유신유익무신무익19ㄴ
탐세사인부지염불대략20ㄴ	탐세사인부지염불대략	탐세사인부지염불대략20ㄴ
차상제경논문약초요람보권제인차하대미타참문	동화사본 12ㄱ낙장, 12ㄴ낙장	차상제경논문약초요람보권제인차하대미타참문
오장국왕견불왕생(烏長國王見佛往生)24ㄱ	오장국왕견불왕생(烏長國王見佛往生)	오장국왕견불왕생(烏長國王見佛往生)24ㄱ
세자동녀권모왕생(世子童女勸母往生)25ㄱ	세자동녀권모왕생(世子童女勸母往生)	세자동녀권모왕생(世子童女勸母往生)25ㄱ
수문항후 이항왕생26ㄱ	수문항후 이항왕생	수문항후 이항왕생26ㄱ
경조방자 권타왕생26ㄴ	경조방자 권타왕생	경조방자 권타왕생26ㄴ
학사장항 지과왕생27ㄱ	학사장항 지과왕생	학사장항 지과왕생27ㄱ
신사목경 집변왕생27ㄴ	신사목경 집변왕생	신사목경 집변왕생27ㄴ
온문정처 사친왕생29ㄱ	온문정처 사친왕생	온문정처 사친왕생29ㄱ
도우선화 심변왕생29ㄴ	도우선화 심변왕생	도우선화 심변왕생29ㄴ
	왕낭전 ²⁰⁾	
	공각전(동화사본23ㄱ)	

연도	간행지	특징
1704	ㄱ)경북 예천 용문사	예천방언
1764	ㄴ)대구 동화사	ㄴ)은 ㄱ)과 동일한 내용, 다시 씀
1765	ㄷ)황해도 구월산 홍률사	ㄷ)은 ㄴ)을 다시 새긴 것, 양상이 조금씩 다름, 덮새김이 아니라 저본의 내용을 참조하여 새로 쓴 것이기 때문에 황해도 방언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큼
1776	ㄹ)합천 해인사	ㄹ)은 ㄴ)을 덮새긴 것, 책의 말미에 현씨행적(현씨발원문) 추가 ⇒이 부분에 합천 방언이 반영됨
1787	ㄹ)전남 장성 선운사	ㄹ)은 현씨행적이 포함된 ㄹ)을 덮새긴 것, 전남 장성의 방언 미반영

	동화사본 32ㄱ(낙장) 32ㄴ(낙장)	
염불작법차서(念佛作法次序)33ㄴ	념불작법차례	염불작법차서(念佛作法次序)33ㄴ
정구업진언33ㄴ	정구업진언	정구업진언33ㄴ
개경계33ㄴ	기경계	개경계33ㄴ
개법장진언34ㄱ	기법장진언	개법장진언34ㄱ
천수천안관자재보살34ㄱ	천수천안관자재보살	천수천안관자재보살34ㄱ
도량계운35ㄱ	도량계	도량계35ㄱ
참회계운35ㄴ	참회계	참회계35ㄴ
찬불계35ㄴ	찬불계 ²¹⁾	찬불계 ²²⁾ 35ㄴ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39ㄱ		아미타불본심미묘진언39ㄱ
왕생계39ㄱ	왕생계	왕생계39ㄱ
	여리십대발원문(동화사본)	
	온문정처사친왕생	
현씨행적???	도우선화 심변왕생	
준제진언39ㄱ	시주(施主)	준제진언39ㄱ
사성예법39ㄴ	유전기(遺傳記)	사성예법39ㄴ
	임종정념결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40ㄱ 언해	식당작법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40ㄱ
초출유마경금남초설(抄出維摩經禁南草說)44ㄴ	반야바라밀다심경	초출유마경금남초설(抄出維摩經禁南草說)44ㄴ
임종정념결(제목 누락)45ㄱ:04~46ㄴ 언해46ㄴ~49ㄱ	초의십념	임종정념결(제목 누락)45ㄱ:04~46ㄴ 언해 46ㄴ~48ㄱ
		
	서가부테님십대발원문	49ㄱ, 49ㄴ, 50ㄱ, 50ㄴ 낙장
	나오회상서왕가	
	인과문	
	대불수능엄진	
	관음보살조지여의눈주	
	임종정념결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 49ㄱ:04~49ㄴ:06한문/49ㄴ:07~50ㄴ:06언해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 49ㄱ:04~49ㄴ:06한문/49ㄴ:07~50ㄴ:06언해	부모효양문 (동49ㄴ)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	회심가(동화사본51ㄱ~56ㄴ)
		유마경(維摩經)(동화사본56ㄴ)
	왕랑반혼전(동화사본)1ㄱ~9ㄴ	왕랑반혼전(동화사본)1ㄱ~9ㄴ
간기	간기	간기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동화사본은 ‘유마경’으로 끝나며(56ㄴ) 권말에는 <염불보권문>의 내용과는 독립된 성격의 ‘왕랑반혼전’이 부록으로 합본되어 있다(한문과 언해문). 그 뒤에 발원문과 간기가 나온다. 그런데, 흥륜사본을 저본으로 하는 경북대 소장본은 49ㄱ, 49ㄴ, 50ㄱ, 50ㄴ가 낙장되어 있어서 앞선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원정사 소장본에는 ‘부모효양문’의 한문 부분(49ㄱ, 49ㄴ)과 언해 부분(49ㄴ, 50ㄴ)이 실려 있다.

한편 김주원(1996:103)에서는 “흥륜사본에는 (중략) 제목 미상의 글로 前半부가 낙장된 것(49장, 50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내원정사 소장본 연구에서 이 ‘제목 미상의 글’에 대한

19) 동화사본에는 한문 부분이 낙장4ㄱ, 4ㄴ이고, 언해 부분이 있다.

20) 용문사본에는 언해문만 있다.

21) ‘아미타불찬’ 마지막 부분에서 경북대 소장본은 “남무아미타불 或 十聲 百聲 千聲”으로 나오는데, 용문사본과 동화사본에서는 ‘남무아미타불 或 百念 千念’으로 나타난다.

22) 아미타불찬은 제목이 없다. 내용만 찬불계에 바로 이어진다.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내원정사 소장본의 확인 결과 ‘부모효양문’에 이어지는 글의 ‘미상의 제목’은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이다.



내원정사 소장본 50ㄴ



내원정사 소장본 51ㄴ



내원정사 소장본 51ㄴ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는 <불정심다라니경>이라는 다라니경에 수록된 일화 가운데 하나를 싣고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은 1485년(성종 16년)에 학조(學祖) 대사가 인수대비의 뜻에 따라 간행한 불교 경전으로 3권(권 상·중·하) 1책의 목판본이다(김무봉 1996:363). 이 경전은 밀교 경전의 일종인 다라니경을 온 마음으로 읽고 지니면 재액(災厄)을 막아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문의 상단에는 변상도가, 하단에는 본문이 배열되어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각한 이본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원정사 소장본에는 왜 15세기 말에 초판본이 간행된 다라니경의 일화가 수록되었을까? 그것은 일화의 내용과 다라니경의 효용과 관련이 있다.

<불정심다라니경>을 구성하고 있는 상·중·하 3권은 각각 다른 권명(卷名)을 갖고 있다. 卷上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권중(卷中)은 <불정심요병구산방(佛頂心療病救產方)>, 권하(卷下)는 <불정심구난신험경(佛頂心救難神驗經)>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내원정사 소장본의 말미에 실린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와 관련이 있는 권은 권중과 하권이다. 우선, 권중(卷中)에는 임신부가 해산(解產)할 때 이 다라니를 외우면 무사히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 다라니를 외우면 어떠한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우진웅2014:350). 권하(卷下)에서는 몇 개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라니를 지니면神通력이 있어 영험함을 보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하의 제16장부터 18장에는 다라니의 효험을 경험한 여인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3) 이 여인은 <불정심다라니경>을 항상 지녀 전생의 원수가 해치지 못하나 여인이 낳은 두 번째 아기는 태어난 지 두 해가 가기 전에 죽게 되어 죽은 아기를 물에 가서 버렸다. 여인이 물가에서 울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중이 되어 나타나神通력으로 한 곳을 가리키니 야차(夜叉)가 나타났다. 여인은 <불정심다라니경>을 지녀 선신(善神)이 밤낮으로 옹호하는 까닭에 야차는 여인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물에 잠겨 사라졌다(우진웅2014:351).

이 일화가 바로 내원정사 소장본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의 내용이다. 아기를 해산할 때 안전하게 하기를 바라는 산모들에게 구산(救產)을 위한 처방문(處方文)으로서 ‘다라니경’의 영험함을 한 여인의 일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김무봉 2008:367~369). <불정심다라니경>은 ‘다라니(陀羅尼)’를 적은 밀교(密敎) 경전의 하나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읽고 지니면 재앙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한다(김무봉2008:366). 이처럼 다라니경의 목적과 의도는 <염불보권문>에서 강조하는 염불의 효용성이나 필요성과 일치하고, 그 대상이 선남자, 선녀인 즉 일반 대중들이란 점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염불보권문>의 말미에 <불정심다라니경>의 여인의 일화를 수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염불과 다라니의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염불보권문 말미에 <불정심다라니경>의 일화를 실으면서 염불의 영험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

조한 것이다.

한편, 내원정사 소장본의 또 다른 독창성은 ‘부모효양문’에서 찾을 수 있다.



내원정사 소장본 49ㄱ



내원정사 소장본 49ㄴ



내원정사 소장본 50ㄱ



내원정사 소장본 50ㄴ



동화사본 49ㄴ



동화사본 50ㄱ



동화사본 50ㄴ



동화사본 51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흥률사본은 동화사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쓴 것이다(김주원 1994:21). 그래서 내원정사 소장본에 있는 부모효양문은 동화사본의 언해문과 차이가 있다. 어휘, 내용, 해석 또는 번역, 음운 현상의 변화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①생략의 차이

(4) 아프로 帑편른~ 후로 니십편은(동화사본, 이하 ‘동’)

帑편른~ 이십편은(내원정사 소장본, 이하 ‘내’)

(4)의 밑줄 친 ‘아프로(前)’이나 ‘후(後)’ 등이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문 원문에 前, 後를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 어휘의 해석여부가 문맥상 뜻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여겨진다.

②어휘 선택과 번역의 차이

(5) 세간효되 도미니 그는 털싱뿐이 되고 니십편은 부되 정토 싹금을 권하야신니 출세효되 도미니 이는 부모로 하여금 정토의 나게 하미니 크다 못홀 효되니라(동)

(6) 이십편은 부모의 념불을 권하시니 출세간 효되라 세간 효는 금싱 쓰름이요 출세간효는 무량 세예 능히 부모로 하여금 극낙정토에 나게 하니 이만 큰 회업스니라(내)

(5)의 동화사본의 ‘부되 정토 싹금’을 (6)의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부모의 념불’로, ‘털싱뿐이 되고’를 ‘금싱 쓰름이요’로, ‘정토의 나게’를 ‘극낙정토에 나게’로, ‘크다 못홀 효되니라’를 ‘이만 큰 회업스니라’로 번역함으로써 선택 어휘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내원정사 소장본은 한문 원전의 번역에 충실하다.

(7) 극낙세계 칠보지중 팔공덕 슈이 연화씨를 시모는 재요 털심으로 럼블하문 칠보 연해 나

고 연화상의 부모의 이혼이 쓰히는 새요 넙블 공이 니로문 연화상의 부피 나셔 아미타블 보는 새니라(동)

(8) 년화를 심은 새요 일심으로 넙블호문 년화 물에서 날 새요 넙블공을 일은 년화 뛰어 부터를 보스을 새니라(내)

(9) 효즈순손 아이니는 니른들 무슴 니익 이시리요(효자순손 아닌 이는 말한들 무슴 이익이 있으리요)(동)

(7)의 밑줄 친 부분은 한문 원전에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화사본 간행자가 삽입한 구문이다. 이러한 구문들이 (8)의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9)의 문단 마지막의 수사의문문은 한문 원전에 없는 내용인데, 동화사본에서는 나타난다. 이에 반해 ‘물에서 날 새요(出水時也)’나 ‘부터를 보스을 새니라(見佛時也)’와 같이 내원정사 소장본의 언해 부분은 원전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동화사본에서도 (10)의 한문 원전의 한자 어휘를 (10ㄱ)처럼 그대로 해석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내원정사 소장본에서 오히려 한문 원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10ㄴ)에서와 같이 의역을 하고 있다.

(10) 受諸快樂 豈不嘉哉

ㄱ. 무량 쾌락을 슈허리니 엇지 아름답디 안이리요(동)

ㄴ. 무량 쾌락을 슈케홈이 엇디 지극지대흐 효되 아니리요(내)

흥률사본 간행자는 동화사본을 참고하여 새기는 과정에서 동화사본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되는 방향을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④선택 언어의 차이

(11), (13)에서와 같이 동화사본에서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번역하여 해석하려는 반면에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12), (14)에서처럼 한자어에 구결이나 이두를 달아 해석하여 한자 어휘의 실질형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11) 부모 사라신 제 정업을 권치 아니하고 주근 나래 흔갓 막음을 쓸허으며 흔갓 제스를 두터히 흔들 무슴 니익 이시리요(동)

(12) 부모 현지시예 이일노 권티아니하고 스후에 흔갓 설위 흐며 흔갓 제스을 업히 흔들 무슴 니익 이 이시리요(내)

(13) 쯔 이로디 부피 럼블홀 줄 아는 거슴(동)

(14) 쯔 꺄로디 부모 넙블홀 실 줄노 신(信)흐야 아로문(내)

⑤표기·음운·음운변화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사계 합용병서, 원순모음화, 음절말 종성 ㅅ, ㄴ의 탈락 등이 나타난다.

4. 권말 합철부-불교 가사

염불보권문의 간기 이후 권말에는 당시 유행하던 불교 가사 4편이 한문과 언해로 필사되어 부록으로 합철되어 있다. 불교 가사 4편은〈회심자책가(回心自責歌)〉,〈초암가(草菴歌)〉,〈토굴가(土窟歌)〉,〈불설몽수경(佛說몽수經)〉등이다.²³⁾ 글씨체가 각기 다른 것으로 미루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사진>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마지막 장과 불교 가사가 시작되는



<사진13>左:합철부 첫장, 右:52ㄴ



<사진14>회심자책가



<사진15>초암가



<사진16>토굴가



<사진17>佛說몽수經

첫장들이다.

불교 가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경상도 지역에서 구전되던 것을 쓴 것으로 보이는 데, 염불의 이유와 필요성을 담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노래 형식’의 ‘불교 가사’를 합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또한 내용과, 표기, 음운은 본문과 합철부의 비교 대조를 통해 보권문과 합철부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원정사에 소장되어 있는 <염불보권문>의 서지 사항과 서지 상태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본들과의 상세한 비교, 대조를 통해 본 불경이 갖고 있는 특성과 독자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권말에 부록으로 합철되어 있는 불교 가사 4점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혔다. 아래에 이 내용을 요약한다.

①<염불보권문>은 1704년 경북 예천에서 승려 명허가 각종 불경에서 요약 발췌한 경문들을 엮어 만든 불경 언해이다. 선남선녀들이 염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염불의 효용성과 효험을 설파하는 불경 언해이다.

②내원정사 소장본은 서문의 1장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인쇄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용 구성은 각종 경론에서 요약 발췌한 글들, 염불을 성심껏 한 결과로 서방정토로 극락왕생한 이들의 이야기, 염불작법차례, 그리고 부록으로 실린 임종정념결, 부모효양문,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내원정사 <염불보권문>은 흥륜사본(1765)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이 불경 언해에는 동일한 저본을 갖는 경북대 소장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아생불구이사내부모지구’(兒生不久而死乃父母之仇50ㄴ:07~51ㄴ)가 실려 있고, 경북대 소장본에서는 낙장되어 소실된 ‘부모효양문’의 일부분도

23) <보권문>의 권말에 합철되어 있는 불교 가사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신편보권문> 해인사판(新編普勸文海印寺板)에는 ‘강월존자서왕가’(江月尊者西王歌), ‘청허존자회심가’(淸虛尊者回心歌) 등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내원정사 소장본이 갖는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④합철부에 수록된 불교 가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경상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불교 노래이다. 염불의 필요성과 효험성을 담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노래 형식’의 ‘불교 가사’를 합철한 것은 형식의 유사성과 내용의 유사성이 어우러져 염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상의 요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연구를 통해 내원정사 소장 <염불보권문>의 국어학적 가치를 재고하였다. 이러한 기초 작업은 추후 흥륜사본의 새로운 이본인, 이 불경 연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이어나갈 토대를 마련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 문헌>

- 김기종(2018), 18세기 『염불보권문』의 편간과 불교사적 의미,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 149-181.
- 김기종(2020), <회심가>의 문학적 성격과 시대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49, 한국시가학회, 181-207.
- 김무봉 (2008)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5, 한국사상문화학회, 351-394.
- 김무봉;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8), 『(역주)불설아미타경언해·불정심다라니경언해』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주원(1984ㄱ),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 현상, 인문연구 6호,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 김주원(1984ㄴ), 18세기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는 佛書에 대하여, 목천유창균박사환갑기념논문집, 기념사업회.
- 김주원(1994ㄱ), ‘普勸念佛文’(龍門寺版)의 구두점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22, 영남대학교.
- 김주원(1994ㄴ), 18세기 황해도 방언의 음운현상-普勸念佛文(興律寺版)의 분석을 통하여-, 국어학 24, 국어학회.
- 김주원(1996), 18세기 평안도 방언을 반영하는 보권염불문에 대하여, 음성학과 언어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영배, 정우영, 김무봉(1996), 『염불보권문』의 해제, 『염불보권문』의 국어학적 연구, 동악어문학회학술총서 5권, 동악어문학회.
- 백두현(1992), 嶺南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태학사.
- 백두현(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의 가치,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65-113.
- 안병희(1979),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규장각』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09-147.
- 우진웅(2014), 『불정심다라니경』의 판본과 삽화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서지학연구60, 347-379.
- 이기문(1972/2016),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기문(1990), 『國語音韻史 研究』, 탑출판사.
- 이명규(1974), 구개음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국어연구 31, 서울대학교.
- 이옥희(2022), 『보권문』(普勸文) 합철부에 수록된 불교 가사의 표기와 음운 현상 연구, 우리어문연구 72, 우리어문학회.
- 장영길(1996),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음운사적(音韻史的) 고찰 - 예천(醴泉) 용문사본을(龍門寺本) 중심으로 -, 국어학 28, 국어학회, 81-112.
- 정우영(1997), <염불보권문>(용문사본) 한자음 표기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국문학 120, 국어국문학회, 77-110.
- 정우영·김종진 역(2012), 『염불보권문』, 명연 저, 동국대학교출판부.
- 홍윤표(1986), 『염불보권문 해제』, 한국어학자료총서8, 태학사.
-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 자료 연구(근대편1)』, 태학사.
- 『부산의 문화재』(2006),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main.html>)

“내원정사 소장 『念佛普勸文』의 서지와 내용 연구”에 대한 토론문

허인영(인하대)

이 글은 부산 내원정사에 소장되어 있는 흥륜사판 『염불보권문』의 서지와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염불보권문』은 18세기에 널리 유포된 불교 문헌으로, 이본이 많고 전해지는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세한국어 연구 초기부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 다. 그러나 7종이나 되는 이본 가운데 황해도 구월산의 흥륜사에서 간행한 판본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책이 적어서 그런지 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원정사 소장본을 통해 흥륜사판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킨 이 발표의 가치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몇 문제에 대해 토론자로서 한두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1. 흥륜사판의 판목이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林基榮(2009: 158-160)에서는 海印寺 東寺刊殿에 『大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 25板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목판 가운데 서문/제1장, 제49/50장을 새긴 2판이 결락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원정사 소장본은 2판의 판목이 사라지기 이전에 인출된 것이고, 경북대에서 인출한 것은 그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북대에서 인출한 흥륜사판의 서문(제1장)이 해인사판의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주원(1994L: 19)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주원(1994L)의 지적 가운데 판목이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경상도에서 간행되었다고 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林基榮(2009)의 분석대로 오래 전부터 法寶宗刹로 알려진 海印寺로 흘러들어온 遠近의 판목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2. 1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원정사 소장본과 경북대에서 인출한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내원정사 소장본과 경북대 소장본은 서로 자형이나 글자체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요?

토론자가 발표문에 실린 내원정사 소장본의 일부 사진을 흥륜사판의 경북대 인출본 및 1960년대 후쇄본(동국대 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219.79 명64o)과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글자의 획이 전반적으로 굵은 경향을 보이니, 이는 여러 번 인출된 목판의 후쇄본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므로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흥륜사판이 복각일 가능성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3. 이 글에서 국어학적인 내용은 ‘부모효양문’을 다룬 부분뿐인데 지나치게 소략한 감이 있습니다. 표기와 음운에 관련된 내용은 김주원(1994L)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졌으나, 혹시 선행연구에서 놓쳤거나 새롭게 발견한 특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주원(1994L: 21, 각주 4)에 따르면 흥륜사판의 ‘제국세계불여서방극락세계’(13ㄱ-14ㄴ) 또한 다른 이본과 번역이 다르며 『불설아미타경언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

한 언급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글의 초점이 내원정사 소장본이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흥륜사판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 기타

- 곳곳에 ‘흥륜사본을 저본으로 하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흥륜사본’이라는 말 자체가 흥륜사에서 판각된 판목으로 인쇄했다는 뜻인 만큼, ‘저본(底本)’이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11쪽의 「부모효양문」의 차이는 동화사판이 아니라 수도사판과 흥륜사판을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문에 있는 사진을 살펴봐도 동화사판과 흥륜사판은 내용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동화사판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이 수도사판의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10-11쪽 예문에 한문 원문이 병기되어 있지 않은데, 번역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문 원문을 병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11쪽의 “선택 언어의 차이”, “한자어에 구결이나 이두를 달아 해석하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1,12)는 한문 원문의 ‘現在’를 ‘사라진 제’라는 고유어로 번역하였는지 ‘현지시예’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였는지의 차이이므로 굳이 따지자면 ‘번역에서 사용한 어종의 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쪽

비중을 차지 못했던 →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3쪽

한 지면당 글자 수 22자 → 행당 글자 수 22자

乾隆三十年三月日九月山興律寺刊行 → ‘刊行’은 ‘開刊’ (4쪽도 동일)

5, 7쪽

제자종분우사명진씨승감 → ‘본’과 ‘우’ 사이에 ‘생(生)’이 빠짐

호제동자아미타경 → 호제동자다라니경(護諸童子陀羅尼經)

극락세계칠보비중유구품연화대 → ‘비’는 ‘지(池)’

차상제경논문약초요람보권제인차하대미타참문 → ‘차’는 ‘이(以)’: 이 내용은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탐세사인부지염불대락’에 대한 附言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함

‘신사목경 집번왕생’과 ‘온문정처 사친왕생’ 사이에 ‘불계 파훈증 응준이 과글리 주거 극낙 가다 하시다’가 있음

‘도우선화 십념왕생’과 ‘염불작법차서’ 사이에 ‘덜이나 모을이나 념불 권훈 후 발이라’가 있음

6쪽

동화사본은 3ㄱ의 1행에, 경북대 소장본과 내원정사 소장본의 내제는 3ㄱ의 3행에 위치한다. → ‘3ㄱ’은 ‘2ㄱ’

(2)의 ‘集其文短’ → ‘集’

‘鄙誠恭頌短引’[...]이 내원정사 소장본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 흥륜사판의 2ㄱ 첫째 줄이 ‘鄙誠恭頌短引’이므로 ‘누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7쪽

표 마지막 부분(‘부모효양문’부터 ‘왕랑반흔전’까지)의 내용이 용문사본/동화사본과 경북대 소장

본에 들어갈 것이 뒤바뀐 듯합니다.

참고문헌

林基榮(2009).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삼촌, 사촌 계통의 촌수 명칭 발달에 대하여

김양진(경희대)

< 차례 >

1. 서론
2. 촌수계 명칭의 출현과 발달
3. 중국어(한어) 친족 명칭의 영향
4. 삼촌, 사촌 계 촌수 명칭의 어원
5. 결론

1. 서론

우리말 친척 명칭에 쓰이는 삼촌(三寸), 사촌(四寸) 등의 촌수 명칭은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우리의 전통 한자어이다. 우리말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촌수(寸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백숙질항(伯叔姪行)계나 당표(堂表)¹⁾계를 삼촌, 사촌계 친족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삼촌(三寸)은 오지(おじ/小父, 작은아버지)²⁾, 오지상(おじさん/小父さん), 사촌(四寸)은 이토코(いとこ/従兄弟·従姉妹), 마다이토코(またいとこ/再従兄弟·再従姉妹) 등을 쓰고 있어서 우리말 삼촌, 사촌 계열의 용법과는 다르게 실현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말 삼촌, 사촌계 친족 명칭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기원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먼저 우리말 자료 가운데 삼촌, 사촌계 친족 명칭이 사용되어 온 양상을 친족 명칭의 최초 자료들로부터 알아보고 이들이 이두 자료, 역사 문헌 및 언해문 자료 등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연대순에 따라 정리해 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우리말의 삼촌, 사촌 계열의 친족 명칭들이 중국어(즉 한어)계 친족 명칭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우리말의 삼촌, 사촌 계열 친족 명칭들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에 대한 가설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촌수계 명칭의 출현과 발달

이 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삼촌, 사촌계 촌수 명칭에 대한 기록의 출현과 전개의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고 이들의 연계성의 문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당(堂)은 친가계, 표(表)는 외가계 명칭으로 사용된다.

2) おじ [명사] 1. 삼촌, 백부, 숙부, 외숙부, 고모부, 이모부. 2. [小父]부모와 같은 연배의 남자, 아저씨.

2.1 ‘삼촌, 사촌’계 촌수 명칭의 출현-고려 시대

문헌상에서 ‘삼촌, 사촌’계 단어의 최초 출현 사례는 《高麗史》 75권 29 선거지(選舉志), 의종 원년(毅宗元年, 1146년) 12월 조의 다음 기사에서 보인다.

- (1) 大小功親內只禁四寸以上犯嫁五六寸親黨不曾禁嫁緣此多相昏嫁遂成風俗未易卒禁. 已前犯產人許通仕路今後一皆禁錮.(대공친(大功親)과 소공친(小功親) 안에서는 사촌 이상과 혼인하는 것만 금할 뿐, 오촌, 육촌 친족[親黨] 사이에는 일찍이 혼인을 금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많이 서로 혼인하여 마침내 풍속을 이루었으니 갑자기 창졸간에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에 <금령을> 어기고 혼인하여 출생한 사람은 관직에 오르는 것[仕路]을 허통(許通)하지만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금고(禁錮)한다.³⁾

(1)의 자료에서는 ‘大小功親’과 같은 중국계 친족 명칭과 ‘四寸’, ‘五六寸親’과 같은 한국계 친족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촌(三寸)보다는 사촌(四寸), 오륙촌(五六寸) 명칭이 먼저 사용된 셈이다.

촌수계 명칭이 두 번째로 출현한 것은 이로부터 160년 뒤인 1308년에 와서의 일이다.

- (2) ㄱ. ... 男尙宗女爲宗妃 文武兩班之家不得娶同姓 外家四寸亦聽求婚.(남자는 종실의 딸과 혼인하고 여자는 종실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문무양반(文武兩班) 가문은 동성과 혼인할 수 없으며, 외가(外家) 사촌에게는 구혼하는 것을 허락하노라.)⁴⁾
ㄴ. 憲司請禁外家四寸通婚.(사헌부에서 외가 사촌끼리 통혼하는 것을 금해 달라고 청했다)⁵⁾

(2ㄱ)은 《高麗史》세가 33권 충선왕 복위 원년(1308년 음력 11월 16일)의 기록이고 (2ㄴ)은 《高麗史》 84권 <형법지(刑法志) 충렬왕 34년(1308년 음력 윤 11월)의 기록이다. 충렬왕이 1308년 7월에 사망하면서 충선왕이 재차 고려의 왕위에 올랐으므로⁶⁾ 1308년은 충선왕의 복위 원년이자 충렬왕의 마지막 임기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해의 기록은 경우에 따라 충선왕(복위)원년으로 혹은 충렬왕 34년으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사건의 순서에 따르면 (2ㄱ)이 (2ㄴ)에 앞선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ㄱ)은 원나라에서 고려에 보낸 교서(敎書)에서 고려에 대해 왕족끼리의 결혼을 포함한 동성간 결혼을 금하되 외가 사촌간에는 결혼을 허한다는 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고려의 사헌부에서 외가 사촌끼리의 통혼을 금해 달라고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 속에서 ‘외가 사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므로 이 두 자료는 한 건으로 다룬다.

이후 촌수계 명칭은 또 다시 오랫동안 보이지 않다가 그로부터 60여 년 뒤에야 《목은고(牧隱考)》를 통해 세 번째, 네 번째 출현을 보이고 있다.

- (3) ㄱ. 送異姓四寸弟金有嗽。赴任寧越郡天水峯頭作。(영월군에 부임하는 이종사촌아우 김유 돈을 보내며 친수봉 머리에서 씬)⁷⁾

3) 《高麗史》75卷-志29-選舉3-銓注-限職-007

4) 《高麗史》33卷-世家33-忠宣王1(1308년 음력 11월 16일)

5) 《高麗史》84卷-志38-刑法1-公式-奸非-008, 忠烈王 三十四年(1308년 음력 閏十一月)

6) 충선왕은 1298년 1월에 왕위에 올랐다가 그해 7월에 다시 아버지인 충렬왕에게 왕위를 빼앗긴(물려준?) 바 있다.

ㄴ. 外舅花原君之內外孫。凡於慶弔迎餞。相聚曰四寸會。歲二人掌其事。名曰有司。有司於歲終作會。以授其事於來歲之有司。蓋家法也。必邀父行一二人押座。庚申仲冬二十又四日。閔中立及吾豚犬種學辦其會。僕與閔判事權判書在座。大醉而歸。日午始起。吟一首。(장인(丈人)인 화원군의 내외손들이 무릇 경조사나 영전(迎餞)의 일이 있을 때 서로 모여 <사촌회>라 하고 해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맡게 하였는데 그 이름을 '유사(有司)'라 하였다. 유사는 연말에 모임을 만들어서 그 일을 내년의 다음 유사에게 넘겨주곤 하였으니 대개 가법이다. 반드시 아버지 항렬의 한두 사람을 맞이하여 그 자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경신년 동짓달 24일에 민중립(閔中立)과 내 아들 중학이 그 모임을 마련하였으므로 내가 민판사, 권판서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여 몹시 취하여 돌아왔다가 다음날 한낮에야 비로소 일어나서 시를 한 수 읊는다.)⁸⁾

(3ㄱ, ㄴ)은 고려말의 유신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의 유고를 모은 《목은고(牧隱考)》⁹⁾ 관련 기록 속에 나타난 '四寸'계 단어들의 사례이다. (3ㄱ)은 목은의 이성사촌 아우[異姓四寸弟, 즉 외사촌동생]인 김유돈(金有暵)이 영월 군수로 부임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3ㄴ)은 목은의 장인인 화원군(花原君) 권중달(權仲達)의 집안에서 내외손들이 <사촌회>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여기에 두 명의 '유사(有司)'를 두어 관리하되 연말에는 집안의 아버지뻘 되는 이를 모셔서 모임을 갖는 가풍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한 것이다. 화원군 권중달(權仲達)의 집안에서 언제부터 <사촌회>를 운영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四寸會>가 열린 해에 대해 기록한 '경신년(庚申年)'은 이색이 53세인 1380년이다.

한편 목은의 이종사촌아우 김유돈이 영월군(寧越郡)에 부임한 정확한 시기는 미상이나 《목은고(牧隱考)》속 <목은시고>의 편차가 대개 연대순으로 배열된 점과 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3ㄱ)은 대략 목은이 40대 후반에 들어선 137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¹⁰⁾

앞서 촌수 명칭이 고려 중엽부터 고려말까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간적 간극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표1> 고려 시기 촌수 명칭 전개 양상

출처	①고려사 선거지	②고려사 세가/형법지	③목은시고 18	④목은시고 27
연도	의종원년(1146)	충렬왕 34년/충선왕 원년(1308년)	1375?	1380
어휘	四寸, 五六寸	(外家)四寸	(異姓)四寸(弟)	四寸(會)
내용	금근친혼(친가)	금근친혼(외가)	외가 사촌 동생	처가(외가)<사촌회>

<표1>에서 보였듯이 초기의 촌수계 명칭은 주로 사촌(四寸)을 중심으로 동향(同行)의 관계와 관련한 내용들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출현 시기가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인데,

7) 《목은고(牧隱考)》 권29 <목은시고(牧隱詩稿)> 권지18

8) 《목은고(牧隱考)》 권29 <목은시고(牧隱詩稿)> 권지27.

9) 《목은고(牧隱考)》는 목은 이색이 쓴 당대의 수고본을 바탕으로 태종 4년(1404)에 편찬·간행하였고 권근(權近)과 이첨(李詹)이 서문을 썼다. 그 후 인조 4년(1626)에 목은의 10대손 이덕수(李德洙)가 전라도 순천(順天)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중간(重刊)한 바 있는데, 현재 인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중간본이다

10) 이에 앞서 <白文質子女分給文記>(1371년)(許興植(1988/291), 李丞宰(1992a/238))에서도 '三寸少子'의 예가 보인다. “洪武辛亥四年閏三月廿日 子息亦中 父祖傳來使用爲如乎 奴婢分給爲臥乎 事 長子故別將白宣 矣 衿二男前定州牧使白晉 三男前通禮門判官白需 四男散員白渙 五男內侍直長同正白恒 財主 父中正大夫宗簿令致仕白(수결) 母箕城郡夫人 黃證族長禪師釋聰(수결) 前東村場判官朴彦都筆執三寸少子 前備巡衛都領郎將王(수결)” 하지만 이 자료에서 밑줄 친 '三寸少子'의 '少子'를 '아촌아들'의 훈차어로 본다면 여기서의 '三寸少子'는 '삼촌조카' 즉 '姪'의 사례라 할 수 있겠으나 '少子'와 '아들'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수결의 맥락상

최초의 출현인 ①로부터 ②까지의 기간이 대략 160여년, ②~③/④까지 약 70여년이어서 특히 ①~②, ②~③/④까지 자료상의 공백이 매우 크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일은, ①의 내용을 제외한다면 모두 사촌(四寸)의 용법이 외가 혹은 처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2 조선 시대 촌수 명칭의 전개

이에 비해 자료 ③/④로부터 다섯 번째 이후의 출현까지는 그다지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않다. 《목은고(牧隱考)》 권29 <목은시고(牧隱詩稿)> 속에 <사촌회> 등이 사용된 것으로부터 오래 지 않아서 10여년 뒤인 조선 초기의 이두 자료와 역사기록물, 각종 언해류 문서 등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2.1 이두 자료 속에서의 촌수 명칭 사용 양상

《大明律直解》는 고려말부터 번역을 시작하였지만 조선 건국 이후,太祖 4년인 1395년에 출간된 문헌이다. 이후 조선 초기 법률 행정의 기초 서적으로 사용된 《大明律直解》에는 (5)와 같이 ‘十惡’ 중 여덟 번째의 ‘不睦’에 대한 내용 속 ‘同姓八寸, 同姓四寸, 同姓五六寸’을 포함해서 다양한 촌수 표현이 사용되었다.

(5) 十惡 八曰不睦 ... 媿麻同姓八寸以上親屬乙殺害爲乎爲作謀爲拏 放賣爲拏其矣夫及大功同姓四寸以上族長及小功同姓五六寸族長等乙打傷爲拏訴告爲行臥乎事

흥미로운 것은 (5)에 사용된 ‘同姓八寸, 同姓四寸, 同姓五六寸’ 등의 촌수 명칭들의 앞에 각각 ‘媿麻(同姓八寸), 大功(同姓四寸), 小功(同姓五六寸)’ 등 중국계 촌수 명칭 한자어들이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어(漢語)계 친족 명칭인 ‘媿麻親, 大功親, 小功親’ 등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 밖에 《大明律直解》에 사용된 촌수계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해 보면, 삼촌(三寸)계 단어 15회, 사촌(四寸)계 단어 11회, 오촌(五寸)계 단어 7회, 육촌(六寸)계 단어 3회(오륙촌 1회 포함), 팔촌(八寸)계 단어 4회, 구촌(九寸)계 단어 1회(팔구촌) 사용되어 이전의 촌수계 명칭의 출현이 약 200여년에 걸쳐 매우 간헐적으로 등장한 데 비해 이 시기를 중심으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七寸과 十寸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1394~1592년까지의 각종 이두 문서 37종 중에서 촌수계 명칭을 검색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각종 이두 자료 속 촌수 명칭 실현 양상

문서제목	연도	어휘	내용
長城監務關字	1407	三寸叔父(1회)	監務官爲移按事今月初九日辰到付都時觀察黜陟使關內今月初七日到付議政府舍人司關內去八月二十六日呈文貞公李岳孫子前參贊議政府事崔有慶鐵城君李原安城君李叔蕃等狀內矣徒段全羅道長城地白巖寺乙祖上文貞公教是三寸叔父王師復同願私財以營勸大藏經安邀教是拏矣徒父母一同長年賣大藏寶忌日寶并三百石後矣徒四寸兄前兩衛中皓亦傳住領衆作法祝上爲白如乎節(이하 생략)
		四寸兄(1회)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1)	1480	三寸姪女(6회)	成化拾陸年庚子拾壹月貳拾伍日許與爲臥乎事段女矣耕作爲如乎田畝等乙繼後子收養侍養□分給爲臥乎繼後子生員孝盧衿瓦家及家入田陸拾卜參束烏川員田肆給肆卜壹東先院畚下邊陸拾玖卜于里岩畚貳拾陸卜主祀月古介員畚下

			邊參拾柒卜伍束收養女子明珠衿烏川員代田川邊肆拾柒卜家前路西邊田麻田并參拾卜先院畚上邊陸拾玖卜侍養三寸姪女金氏衿(이하 생략)
金孝之妻黃氏粘連文記(2)	1480	三寸姪女(7회), 三寸姪(5회)	成化拾陸年庚子拾貳月拾伍日許與爲臥乎事段女矣身亦無子息爲沙餘[]賤妾子女無白乎等用良吾矣使用爲如乎家翁邊奴婢乙繼後子收養侍養[]中論功差等分給爲臥乎繼後子生員孝盧衿婢龍粉二所生奴凡伊年貳婢[]今年拾壹三所生婢貴非年玖婢訥吐之二所生奴嚴同年貳婢內隱伊二所生奴[]捌婢龍德四所生婢龍莊年拾捌奴紅萬良妻并產二所生奴加音金年拾陸[]年拾貳婢甘時三所生婢耳德年肆拾參婢四月二所生婢正月年參拾壹五所生[]拾參婢內隱伊四所生奴小山年拾婢耳莊二所生婢義今年拾參主祀婢亏乙莊[]參拾捌婢內隱德二所生逃奴金仇知收養女子明珠衿婢求瑟二所生婢屎[]二所生婢德今年拾婢甘莊一所生婢桂樹年拾參婢四月一所生故婢仍邑德[]參奴莫知良妻并產二所生奴亡乃年拾肆婢龍粉一所生婢權德年玖婢亏乙[]年參拾陸同婢一所生奴嚴山年伍婢元非一所生婢元今年貳拾壹婢耳德一[]婢內隱加年陸奴紅萬良妻并產一所生婢訥吐非年玖拾侍養三寸姪女故別侍衛[]婢屎非一所生婢屎今年拾參婢甘莊五所生奴貴山年壹三寸姪別侍衛鄭仁老[]榔準備爲沙餘良連連進退爲於女矣得病時盡情侍病爲臥乎等用良奴莫知良妻并產[]拾婢內隱伊一所生婢內隱代年貳拾[]所生婢四月年伍拾柒四寸孫子忠贊[]矣(이하 생략)
		四寸孫子(11회), 四寸孫女(7회), 四寸孫壻(1회), 四寸孫(2회)	
金孝之妻黃氏繼後立案	1480	三寸姪(1회), 三寸叔(2회)	成化拾陸年[]月初貳禮曹立案右立案爲[]曹啓目節呈慶尙道禮安[]所志內家翁亦嫡妾俱無子爲白乎等用良生前始叱三寸姪金准次子孝盧矣身[]爲良結說導爲如可未及繼後身故爲白乎在亦節家翁願意導良同孝盧矣身乙繼後令是白良結望良白去乎行下向事所志是白齊故縣監金准妻盧氏所志內家翁同姓三寸叔金孝之亦嫡妾俱[]白乎等用良生前始叱女矣身茂火汝次子孝盧乙繼後爲良結說導爲如可未及繼後早死爲白良在乙[]孝之妻黃氏亦家翁願意繼後令是良結懇說乙仍于女矣次子孝盧矣身繼後令是白去乎依他例行[]事(이하 생략)
		四寸孫(1회)	
李繼世妻鄭氏粘連文記	1517	五寸姪女(3회)	[]世後女矣身置宿疾以長不起[]前親給[]家翁五寸姪女生員金緣妻亦中[]拾貳戊午生奴牛屎三所生奴五十年參拾陸壬寅生奴上佐[]拾貳丙辰生等乙有證成文許給爲臥乎後所生并以子孫傳持鎮長使[]財主故李繼世妻鄭氏(인)證族親衛閔世卿(수결)證保幼學權幹(수결)證保幼學鄭願(수결)筆執幼學李迪(수결)(이하 생략)
定順王后託後書	1518	四寸甥(2회)	(이전 생략) 啓下爲白乎等用良成給爲去乎云云財主魯山君夫人宋氏證四寸甥秉忠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驪興君閔懷昌筆執四寸甥秉忠奮義靖國功臣嘉善大夫驪城君閔懷發
土地賣買文記	1579	三寸姪子(1회), 外三寸姪(1회)	萬曆七年己卯十二月初二日從弟權處均前明文 右成文段他處移買次以外祖母前別得耕爲如乎江陵羽溪伏沓貳石落只孤孔沓二拾斗落只庫良中價切回捧木捌拾疋租參拾五石捧上爲遺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田并付乙仍于許與不得爲去乎後次或有雜談爲去等此文記乙用良辨正向事自筆沓主折衝將軍會知中樞府事李珥証三寸姪子幼學李景震外三寸姪幼學趙麟

<표2>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1394~1592년까지의 이두 문서 중, 법률서에 해당하는 《大明律直解》를 제외한 37종의 문서 가운데에는 ‘삼촌(三寸)’계 어휘가 25회, ‘사촌(四寸)’계 어휘가 25회, ‘오촌(五寸)’계 어휘가 3회 사용되었고 이 외에 ‘六寸/七寸/八寸/九寸/十寸’ 등은 0회 사용되어서 촌수 명칭 가운데 실제 사용법은 삼촌계와 사촌계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간혹 오촌계열이 사용되었을 뿐, 육촌 이상의 용법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大明律直解》의 촌수 명칭 출현 양상을 고려한다면, 이들 문서들이 대부분 재산 분급과 관련한 문서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삼촌 계열에는 三寸叔父(1회), 三寸叔(2회), 三寸姪女(13회), 三寸姪子(1회), 三寸姪(6회), 外三寸姪(1회) 등이 사용되었고 사촌 계열에는 四寸兄(1회), 四寸孫子(11회), 四寸孫女(7회), 四寸孫壻(1회), 四寸孫(3회), 四寸甥(2회) 등 다양한 용법이 사용되었다. 오촌 계열은 五寸姪女(3회)만 확인되었다.

삼촌의 경우, 손윗등급은 ‘숙(叔)/숙부(叔父)’만 등장하고 있고 손아랫등급은 삼촌질녀(13회)가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삼촌질(6회), 삼촌질자(1회), 외삼촌질(1회)의 순서로 사용되고 있다. 사촌의 경우, 동행(同行)의 사촌형(四寸兄)이 1회만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조카의 자식을 가리키는 사촌손자(11회), 사촌손녀(7회), 사촌손(3회), 사촌생(四寸甥, 2회)으로 이루어졌다. 사촌생(四寸甥)은 처조카의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2.2.2 역사 문헌 속 촌수 명칭 사용 양상

한편 《朝鮮王朝實錄》에서도 太祖 3年(1394)년 조에 ‘삼촌숙(三寸叔)’이 등장한 이래 다양한 용법의 단어들 사용되고 있다.

- (6) 王和招曰: “去壬申年九月, 自義昌貶所, 將入巨濟時, 與三寸叔僧釋能, 問卜於興茂, 卜之曰: ‘是命最好。 入島三年, 然後必出來。 至四十七八歲時, 爲將領兵。 且爲一人之命。’”
 (... 왕화(王和)는 공초하기를, “지난 임신년 9월에 의창(義昌)의 폼소(貶所)에서 장차 거제(巨濟)로 들어가려 할 때에, 삼촌숙(三寸叔)인 중 석능(釋能)과 더불어 흥무(興茂)에게 길흉(吉凶)을 물으니, 점쳐서 말하기를, ‘이 명운(命運)은 매우 좋습니다. 섬에 들어간 지 3년 후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고, 47세나 48세가 되는 때에 이르면 장수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게 되고, 또 일인(一人) 이 되는 명운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¹¹⁾
- (7) 凡族中三四寸及各節制使大小軍官, 不在此限, 然有造言生事, 罪同。 若所司刑曹決事員, 則雖於三四寸及所屬節制使處, 除問疾弔喪外, 亦不許私謁, 違者罰同。 (무릇 족친 가운데 삼사촌(三四寸)과 각 절제사(節制使)의 대소 군관(大小軍官)은 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말을 만들고 일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죄가 같을 것이다. 만일 맡은 바 형조의 결사원(決事員)이면, 비록 삼·사촌과 소속(所屬) 절제사의 처소에라도 문병과 조상(弔喪)을 제외하고는 또한 사알(私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는 자는 벌이 같을 것이다.)¹²⁾
- (8) ㄱ. 只有賤妾子息, 計給外奴婢及全無子息者奴婢, 同腹中存沒勿論分給。 無同腹則限使孫四寸分給, 其中生死後恩義現著者加給; 嫡室有子息者, 良妾子息, 給七分之一; 賤妾子息, 給十分之一; 嫡室只有女子, 良妾有男子者, 給三分之一; 良妾子承重者, 爲半分給。
 ((다만 천첩 자손만이 있어 계산해 준 이외의 노비 및 전연 자식이 없는 자의 노비는 동복(同腹) 중에 살고 죽은 것을 물론하고 나누어 주고, 동복이 없으면 사손(使孫) 사촌(四寸)에 한하여 나누어 주되)..¹³⁾
- ㄴ. 時執奴婢中同腹三四寸現存者, 辛丑前後推考有明文者, 許令陳告決折。 (현재 집류(執留)하고 있는 노비 중에 동복(同腹) 삼·사촌(三四寸)이 현재 있는 것과, 신축년 전후에 추고(推考)하여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결절(決折)할 것)...¹⁴⁾
- (9) 罷軍資少監柳瓚職。 瓚由茶房都目得官。 其異姓三寸叔妻死, 瓚乃告其服。 司憲府劾啓曰: “五服圖式, 載在《六典》, 瓚尙不知, 錢穀出納, 豈其所堪! 乞行罷黜。” 從之。 (군자 소감(軍資少監) 유찬(柳瓚)을 파직(罷職)시켰다. 유찬은 다방(茶房)의 도목(都目)을 거쳐서 벼슬을 얻었는데 이성 삼촌숙(異姓三寸叔)의 아내가 죽으니, 유찬이 그 복(服)으로 고(告)하였다. 사헌부(司憲府)가 논핵(論劾)하여 아뢰기를, “오복(五服)의 도식(圖式)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유찬이 그것도 알지 못하니, 전곡(錢穀)의 출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파출(罷黜)을 행하소서.”)¹⁵⁾

11) 《朝鮮王朝實錄》太祖 5卷, 3年(1394년 甲戌 / 명 홍무(洪武) 27年) 2月 26日 丙申 4번째기사

12) 《朝鮮王朝實錄》定宗 2卷, 1年(1399년 己卯 / 명 건문(建文) 1年) 8月 3日 庚子 2번째기사

13) 이하 ‘사손(使孫) 사촌(四寸) 및 ‘사촌(四寸)이 없으면’ 등이 5회 반복.

14) 이상 《朝鮮王朝實錄》太宗 10卷, 5年(1405년 乙酉 / 명 영락(永樂) 3年) 9月 6日 戊戌 2번째기사

15) 《朝鮮王朝實錄》太宗 19卷, 10年(1410년 庚寅 / 명 영락(永樂) 8年) 1月 28日 乙未 2번째기사

- (10) 先是，續之(姝)[妹]夫河迥之女，金化縣監柳復中之妻也。與五寸叔金士文私焉，故有家門不正之教也。(이보다 앞서 이숙의 매부 하형(河迥)의 딸은 금화 현감(金化縣監) 유복중(柳復中)의 아내인데, 5촌숙(五寸叔) 김사문(金士文)과 사통하였기 때문에 가문이 바르지 못하다는 분부가 있는 것이다.)¹⁶⁾
- (11) 亦以濫執呈，而且朴崑乃黃丹儒之六寸弟，李之誠之曾孫，於丹儒爲孫外，故臣等以爲他人奴婢濫執。(또한 박은은 바로 황단유의 육촌제(六寸弟) 이지성(李之誠)의 증손(曾孫)으로 황단유에 대해서는 손외(孫外)가 되는 까닭에 신 등의 생각으로는 타인의 노비를 남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¹⁷⁾
- (12) 上謂左右曰：“前朝之季，朝士相避之法甚煩，異姓七八寸亦避，故獄訟淹延，久而不決。若無相避，則本源澄澈者，自不陷於私，而易於處決，中人以下，則必陷於不公，相避之法，其參酌折衷以啓。”(임금이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전조(前朝)의 말기(末期)에 조사(朝士)의 상피(相避)하는 법이 심히 번거로워서 이성(異姓)의 칠촌(七寸)·팔촌(八寸)도 역시 피하기 때문에, 옥송(獄訟)이 정체(停滯)되고 지연(遲延)되어 오래 되도록 처결(處決)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상피법(相避法)이 없었다면 본디 근원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스스로 사정(私情)에 빠지지 않아서 처결(處決)하기가 쉬울 것이며, 중인(中人) 이하는 반드시 공정하지 못한 데 빠지기가 쉬우니, 상피(相避)하는 법을 잘 참작하고 절충(折衷)하여 아뢰라.”)¹⁸⁾

(6)에서는 ‘삼촌숙’이, (7)에서는 삼·사촌(三四寸)이, (8)에서는 (사촌) 사촌(四寸)과 삼·사촌(三四寸)이, (9)에서는 이성 삼촌숙(異姓三寸叔), (10)에서는 오촌숙(五寸叔), (11)에서는 육촌제(六寸弟), (12)에서는 이성(異姓)의 칠촌(七寸)·팔촌(八寸)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촌수 명칭이 조선 전기에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2.2.3 언해문 속의 촌수 명칭 사용 양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시대의 언해문 속에서도 촌수 명칭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15세기 언해문에서의 친족 명칭 사용 양상

- ㄱ. 田蚡과 竇嬰과 田蚡은 <1475내훈언,02,046a> 景帝^ㅅ 皇后^ㅅ 오라비오 竇嬰은 文帝^ㅅ 皇后^ㅅ 四寸 오라비 아드리라 尊貴^ㅎ야 아니환^ㅎ야 傾覆^ㅎ 災禍 傾은 기울시오 覆은 업더딜시라<1475내훈언,02,046a>
- ㄴ. 太傅는 며스리라 아바님 訓은 護姜校尉오 護姜校尉는 며스리라 어마님은 陰氏니 光烈皇后^ㅅ 四寸 앞이 쓰리라 居 나히 다숫 서레 太傅^ㅅ 夫人이 스랑^ㅎ야 손소<1475내훈언,02,060a>
- ㄷ. 唐^ㅅ 崔玄暉를 警戒^ㅎ야 닐오디 내 四寸兄 屯田郎中 辛玄馱를 보니 屯田郎中은 며슌 일

16) 《朝鮮王朝實錄》太宗 34卷, 17年(1417년 丁酉 / 명 영락(永樂) 15年) 9月 2日 甲寅 2번째기사. 이 밖에 《朝鮮王朝實錄》太宗 36卷, 18年(1418년 戊戌 / 명 영락(永樂) 16年) 8月 3日 庚辰 3번째기사에도 이숙번(李叔蕃)의 5촌숙(五寸叔) 김을화(金乙和)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17) 《朝鮮王朝實錄》太宗 33卷, 17年(1417년 丁酉 / 명 영락(永樂) 15年) 6月 12日 丙申 6번째기사

18) 《朝鮮王朝實錄》世宗 47卷, 12年(1430년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2月 23日 甲午 1번째기사

후미라<1475내훈언,03,026b>

ㄹ. 河開·애셔 오히·려 사·흙·흐·늑·니 네 ·썩 :뵤 城·에 ·잇·도다 四寸 앞·을 :사르·미 :다 ·뵤
거·늘 ·나는 ·모미 못·드록 슬·후미 쥘·티 아·니·호·리로·다<1481두시초24,061b>

ㅁ. 正·정·知당·를 ·아·즐·타 ·호·문 正·정·혼 知·당·見·견·을 ·아·즐·홀·시·라 :세·짖 句·궁·는 善·선·星·성·
이 부·뵤 四·승·寸·촌 앞·이라 扈·가·깃 輪·륜·王·왕 種·종·族·이·니·라 :네·짖 句·궁·는 扈·가·깃 輪·
륜·王·왕·種·종·族·으·로 世·생·尊·존·은 ·이<1482남명천,042b>

(13)에서 제시된 15세기 언해문에서는 대략 사촌오랍(1회), 사촌아스(3회), 사촌형(1회)의 용법이 보이는데 대개 사촌계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16세기 언해문(및 어휘집)에서의 친족 명칭 사용 양상

ㄱ. 네 異姓四寸 兄弟어시니 누구는 어의 오라빅게 난 즈식 누구는 아비 누의게 난 즈식고
<1516 번역노걸대 상,016a>

ㄱ'. 너희 兩姨에서 난 형데라 하니 이 친동싱 兩姨가 이 동성 룩촌 兩姨가<1516 번역노걸대 상,016b>

ㄴ. 프라 드리고 사 내여다가 혼 짓 혼 세간내 사더라 고을희셔 쥬뵤 뵤스를 희여늘 구뵤여
형의게 스양하고 쏘 조상엿 바뵤 스양하여 룩촌아슬 주니 그 아스도 받디 아니하여 그
받디 무그니라 <1518이륜행,초,017a>

ㄴ. 류군량이 네 덕을 혼디 사라 룩촌형데동싱 곧더니 집 안해 혼 말 밭 혼 짓 깃블 아름더
아니하더라 시절리 가난커늘 겨지비 다티 살라 권하며 뽕헛 남긋<1518이륜행,초,026a>

ㄹ. 祖 한아비 조 孫 손즈 손 叔 아자비 숙 姪 아촌아들 舅 외삼촌 구/외삼촌 구 姑 외어
미 고/아즈미 고 婦 며느리 부 겨집 부 壻 사희 셔 奴 남인종<1576신유합,上,020a>

ㅁ. 동히 상하면 당 일빅 전가입게오 병인되에 하면 목줄어 주기고 면 당 일빅기라 삼촌 아
자 아즈미는 내 부모과 혼가지로 혼 사르미게 나니 부모여동하고 삼촌 아촌아들 아촌썩
룬 다 내 혼기 우니 난 거시라 내의 친혼 아들과 썩과로 간겨기 업스니라 스오초노로브
터 칠팔촌 니르히 비록 친하며 소하며 멀며 갖가오미 달오미 이시나 다 이 혼 사르미 즈
소니라<1579경민중,007b>

ㅁ'. 모로매 존흔 얼우늘 스랑하고 공경하며 늦가오며 저르니를 어엿비 너겨 시르 싸화 들토
디 말라 법에 삼촌 아자비 아즈미를 쥬지즈면 당일 빅이오 티면 당일 빅도녀니오 상케
하면 당 일빅 전가 입게오 병인도의게 하면 목줄아 주기고 부러 주기면 능디하야<1579
경민중,008a>

ㅂ. 네 父母 거상에는 이뵤 빙소하고 粥 먹으며 齋衰 기습 혼 최복이니 한어버이과 동싱 삼
촌 의복이라 예는 사오나온 밥과 물만 먹고 누틀와 과실을 먹디 아니하며 부모의 거상에
이뵤 우제와 줄곡제 하야는 사오나온<1586소학언,05,043b>

ㅂ. 입에 들이디 아니하더라 혼 집 안해 스나희와 간나희 일빅이러니 總服 八寸형 데복이라
이 혼디셔 밥 지오디<1586소학언,06,071a>

ㅂ. 가져 나가 물 기러 며느리 도리를 닷가 行하니 므올히며 고을히 일꾼더라 曹爽魏瓘 종실
이라의 사촌아오 文叔의 안해는 譙群씨 일흠이니 文寧의 본향이라 夏侯 文寧夏侯는 성이
오 文寧은 일흠이라의 썩이니 일흠은 슈따라 文叔이 일 죽거늘<1586소학언,06,055b>

(14)에서 제시된 예문들을 보면 16세기의 언해문(및 어휘집)에서는 ‘異姓四寸 兄弟, 동성 룩촌 兩姨, 룩촌아스, 룩촌형데동싱, 외삼촌, 삼촌 아자 아즈미/삼촌 아자비 아즈미, 삼촌 아촌아들 아촌썩, 스오촌, 칠팔촌, 동싱 삼촌, 總服 八寸형, 사촌아오’ 등 다양한 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의 자료가 사촌계 단어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16세기의 단어에는 사촌, 육촌, 팔촌뿐 아

나라 삼촌계 단어가 매우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고 오촌, 칠촌 등의 단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17세기 이후 언해문(및 어휘집)에서의 친족 명칭 사용 양상

- ㄱ. 河間에서 오히려 사흙흐느니 네 췌 빈 城에 잇도다 四寸아올 사름마다 듯거늘 나는 모미 못도록 슬후미 쫄티 아니흐리로다<1613두시중24,061b>
- ㄴ. 금산서 피셔 가니 길히 예건마는 날 보라 드러오시니 반갑고 한셔방 일로 하 슬허하시니 ㄱ이 업고 의취딕 형님 본족으로 권당이시니 한셔방의 삼촌이시니 우리 형테과 니좌랑딕 다 어울미 의취딕의 가 든녀오다 초팔 청 그 스촌님도 단즙으로 가시고 신평 오라바님도 가시다 윤자랑딕의셔 약주하여<1636병자기,076>
- ㄷ. 족하들도 하나도 몬오니 글언 섭섭이 엇다 십구 청 너머 송셔방딕 주찬하여 와 머기시니 고맙고 또 뉴좌슈딕 편주하여 와 든녀가시니 촌수로 팔촌 형테 향이라 서르 절하여셔 써 나옴게 되니 다시 서르 보오며 정이 이러하시니 고맙습다 후정을 몬 닛즈올다 어울미 가 시고 형님도 와 겨셔<1636병자기,168>
- ㄹ. 십이 청 김셔방딕 성복 도스 참봉 와 여긔셔 디내다 저믄 사름들 엇디 가는고 제 사촌들 이나 만나보는가 슬프기 ㄱ이엇다 어디 가 정영드리 아버지 그려하는가 새로이 설워호노 라<1636병자기,298>
- ㅁ. 칠촌 七寸 再從叔侄<국한회어, 1895>

17세기 이후의 언해문들에서는 한어계 친족 명칭들이 더 우세하게 되고 의외로 촌수 명칭이 잘 사용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촌아오, 삼촌, 스촌/사촌, 팔촌 형제 향, 칠촌 등이 사용되었을 뿐 그 용법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촌수 명칭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 주는 글이 다음에 보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글이다.

(16) 촌수(寸數)로 족척(族戚)을 계산하다

우리 나라 풍속에 숙부(叔父)와 고모(姑母)·외삼촌[舅]·이모(姨母)를 삼촌이라 하고, 종형제(從兄弟)·내종(內從)·외종(外從) 형제 및 이종 형제를 사촌이라 일컬으며, 이것을 미루어 팔촌·구촌에 이른다. 일촌·이촌이라는 호칭은 없다. 그러나 이 법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부자간이 일촌이고 형제간은 이촌이 된다. 이런 것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목은집(牧隱集)》에 ‘외구(外舅) 화원군(花原君)¹⁹⁾의 친손(親孫)과 외손(外孫)이 모든 경조사(慶弔事)에 서로 맞이하고 전송하는 모임을 <사촌회>라 했다.’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상고하니, 종조조고(從祖祖姑)를 사촌대모(四寸大母)라 일컬었는데 잘못이다. 다른 성씨(姓氏)가 모(母)가 되는 것이고 같은 성씨는 모가 될 수 없으니 다만 종대고(從大姑)라고 일컬음이 옳다. 고모(姑母)라 일컬음도 잘못인데, 하물며 대모이겠는가? 명현문집(名賢文集)에도 때때로 고(姑) 및 종모(從母)·구모(舅母)를 숙모(叔母)라고 일컬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명물(名物)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통이 많다.

또 당고(堂姑)를 오촌숙모(五寸叔母)라 하고 족고(族姑)를 칠촌숙모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고부(姑夫)·종모부(從母夫)를 호칭(號稱)하면서 삼촌이라 하는데, 의(義)로 자기의 숙부(叔父)뻘이 된다고 하여 이르는 것이나, 이것은 매우 무식해서이다.

대저 우리 나라 사람은 거칠어서 자부(姊夫)와 매서(妹婿)의 구별이 있음을 모르고 두루뭉수리로 매부(妹夫)라 일컬으며, 형수(兄嫂)와 제부(弟婦)의 분간이 있음을 모르고 뒤섞어서 제수(弟嫂)라 일컫는다. 같은 성씨끼리는 족(族)이라 하고 딴 성씨는 척(戚)이라 하는데 뒤섞

19) 화원군(花原君)은 안동 권문의 권중달을 말한다.

어서 족장(族丈)·족질(族姪)이라 일컬으니, 그 명분이 발라야 말이 사리(事理)에 맞게 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려사(高麗史)》 충선왕세가(忠宣王世家)를 보면 원 나라의 조유(詔諭)에 외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이덕무, 『靑莊館全書』 (1795) 제58권 / 양엽기 5(盎葉記五)>

3. 중국어(한어) 친족 명칭의 영향

중국어(한어)의 친족명칭은 혈연관계와 서열관계 및 나이관계 등을 나타내는 호칭어가 체계 정연하다. 우선 아버지편은 ‘父-’계열, 어머니편은 ‘母-’계열로 각기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할아버지세대, 아버지세대, 아들세대가 역시 각각 ‘祖-, -親, -子’로 질서 정연하게 체계를 이룬다. 그 안에서 또 남녀호칭어(父-母, 子-女)가 구별되고 같은 계열의 동기와 아래 서열의 동기가 구별된다.

혈친 관계는 원근에 따라 달리 쓰인다. ‘堂-’은 아버지 계열의 백부, 숙부의 자녀들로서 동종동성의 친족을 가리키고 ‘表-’는 아버지 계열의 고모나 어머니 계열의 이모, 외삼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의 호칭법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형과 동생은 백부(伯父), 숙부(叔父) 등 서로 다른 호칭어로 구별하여 쓰지만 어머니의 오빠와 남동생은 따로 구별하지 않는 등 혈친(血親)과 인친(姻親) 관계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다만 曾祖父, 曾祖母, 祖父, 祖母, 父親, 母親 등의 호칭어는 입말에서는 쓸 비율이 낮고 주로 소개 또는 서술할 때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구어의 용법인 爺爺(祖父), 奶奶(祖母), 爸爸/爹爹(父親), 媽媽/娘(母親)과 구별되기도 한다.

삼촌, 사촌 계열에 대해 백(伯), 숙(叔), 질(姪), 항(行)과 堂(친척), 表(외척) 관련 친척 명칭들이 규범화 혹은 전범화하면서 백부/숙부, 질/질녀, 당백부/당숙부/당숙 등이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삼촌, 사촌 계열의 어휘의 용법이 축소되어 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친족 명칭의 전개에는 상복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의 제례 의식에 따른 호칭들이 한몫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어(한어)에서는 “오복이내불가결혼(五服以內不可結婚)”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五服’이라는 개념이 친족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 왔다.

(17) 오복(五服) : 참쇠(斬衰), 재쇠(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

(17)에 제시된 오복(五服)의 각각은 유교적 질서 아래에서 상복을 입는 것과 관련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점차 교조화하면서 조선 시대의 후기로 가면 이로 인해 학문적 견해를 넘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당파로 확대되어 술한 사화(士禍)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8) ㄱ. 참쇠친(斬衰親) : 죽었을 때 삼년상을 치러야 하는 관계에 있는 친족. 아버지, 남편, 만아들, 시아버지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 관계에서 0촌인 남편을 제외한 일촌 관계의 남성들을 가리킨다.

ㄴ. 재쇠친(齊衰親) : 재쇠복(齊衰服)을 입는 사이의 친족(親族). 어머니, 계모, 수양부모, 시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이른다. 일촌 관계의 여성(어머니)와 3대까지의 직계 친척을 말한다. ‘자쇠친’이라고도 한다.²⁰⁾

20) 재쇠/재쇠복(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을 입는다. 부모상에는 삼 년, 조부모 상에는 일 년, 증조부모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일 년을 입었다.

- ㉔. 대공친(大功親) : 종형제, 출가 전의 종자매, 종자부, 종손, 종손녀, 질부, 남편의 조부모, 남편의 백숙부모, 남편의 질부와 같은 겨레붙이. 사촌 및 오촌에 해당한다.²¹⁾
- ㉕. 소공친(小功親) : 육촌. 유복친(有服親)의 일종(一種)으로, 종조 부모(從祖父母), 재종(再從) 형제(兄弟), 종질(從姪), 종손(從孫)의 총칭(總稱). 다섯 달(만 4개월) 상기(喪期)의 소공복을 입는 사이의 친족을 이른다. 육촌 및 칠촌을 이르며 구체적으로는 장손부(長孫婦)·장증손부(長曾孫婦)·장현손부(長玄孫婦)·형제의 아내·종조부모(從祖父母)·대고모(大姑母)·종손자녀(從孫子女)·당숙부모(堂叔父母)·당고모(堂姑母)·당질(堂姪)·당질녀(堂姪女)·재종형제 자매(再從兄弟姊妹)·외조부모(外祖父母)·외숙(外叔)·이모(姨母)·생질(甥姪)·생질녀(甥姪女)·동모이부형제자매(同母異父兄弟姊妹)·남편의 어머니·남편의 형제와 아내·남편의 자매·남편의 당질과 당질녀·남편의 종손과 종손녀·남편의 장손부·장증손부(長曾孫婦)·장현손부(長玄孫婦) 등이다.
- ㉖. 시마친(總麻親) : 유복친의 하나. 오복(五服) 가운데에서 가장 짧게 만 2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사이의 친족으로 팔촌에 해당한다.

(18ㄱ~ㄴ)에 제시된 참최친으로부터 시마친까지의 상복 중심의 친족 명칭이 제례 명칭 등에서 공식화하면서 삼촌, 사촌, 오촌 등으로 촌수화한 명칭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면서 고려 말기에 배태되어 조선 전기에 적극적으로 확장되던 촌수 명칭이 삼촌/외삼촌/처삼촌, 사촌 등 일부 단어들에만 남겨지고 나머지 단어들은 ‘사돈의 팔촌’과 같은 관용적 표현에만 일부 남겨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²²⁾

4. 삼촌, 사촌 계 촌수 명칭의 어원

그렇다면 삼촌(三寸), 사촌(四寸)계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계림유사』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말의 전통적 흐름을 보여 줄 만한 자료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다가 12세기 중엽 불쑥 등장한 사촌, 오촌, 육촌이라는 단어들은 어디에서 출발하였을까. 이 단어들은 왜 처음 등장한 이후 16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 넘어 갑자기 충선왕-충렬왕의 갈등 국문에 등장했으며 왜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다양한 용법을 얻으면서 조선 시대 전기에 확장되었을까?

이 모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표1>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표1>에서 1146년(의종 원년)에 등장한 ‘四寸, 五六寸’ 단어들은 여러 모를 돌아볼 때, 《高麗史》(1445)가 작성될 무렵인 조선 시대의 언어 지식에 오염된 자료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아마도 이 무렵 친가의 금근친혼을 동성(同姓)의 가까운 친척까지만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친족간에는 근친혼을 금하지 않았던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 15세기의 언어 지식에 의해 사료를 정리하는 이의 어휘적 판단이 개입된 자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촌수 명칭의 최초 출현은 바로 고려사 세가/형법지에 기록된 1308년의 기록으로부터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원초적 출발은 바로 원나라에서 보내온 외가 사촌간의 결혼을 허하라는 명령과 그에 대한 고려측의 반응이었다고 할 때, 이때까지는 아직 촌수 개념이 우리말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몽골어 혹은 몽골식 한어의 번역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21) 대공복(大功親)의 상사(喪事)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服制). 좀 고운 누인 베로 지음.)을 입는다.

22) 물론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대가족 제도의 해체에 따라 다양한 친족 명칭들이 소멸해 가는 것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나 이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의 일이고 본고에서 논의하는 것은 전통 사회 즉 개화기 이전까지의 언어 상황을 전제한 서술이다.

이후 70년의 시간은 당시의 고려어가 몽골어 혹은 원대의 한아언어에 잠식되던 무렵이다. 오늘날 이 무렵의 언어가 어떠한 정도로 몽골어나 몽골식 한어에 잠식되었는지를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목은시고>가 출현한 1380년대의 고려말에는 이미 <사촌회>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이 생길 정도로 ‘사촌’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음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언어 지식의 확대는 이후 명의 율법을 당시 고려 시대의 이두문으로 번역한 《大明律直解》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몽골어에 이러한 촌수 명칭과 관련한 개념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몽골어보다는 전통 시대 몽골어를 더 많이 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蒙古語大辭典 蒙和之部』(1971/소화 47, 陸軍省)에서 ‘마디/寸’에 해당하는 표제어 ‘üye’와 관련한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몽골어 ‘üye[마디/寸]’ 관련 단어들

ㄱ. üye ①세대[世] ②마디[節, 關節]. ③시대(時代) ④시기(時機) ⑤혈통(血統) ⑥성정(性情) ⑦계급(階級) ⑧요소(凹所) ⑨회(回), 도(度).

ㄱ'. üye aha 어머니쪽의 종형제(從兄弟)

ㄱ". üye ulari ①대대(代代) ②자손(子孫)

ㄴ. üyelit 支族

ㄴ'. üyelit aha degüü 아버지쪽의 종형제(從兄弟)

ㄴ". üyelit beri 조카의 아내

ㄴ"". üyelit hübegün 외조카[甥]. 누이의 아들.

(19)의 예를 통해 몽골어의 친족 개념이 ‘마디’를 나타내는 ‘üye’와 ‘支族’의 개념을 나타내는 ‘üyelit’의 두 갈래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친족 명칭의 중심이 ‘üye aha’ 즉 어머니쪽의 종형제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점은 앞의 고려시대 촌수 명칭의 출발이 ‘외사촌’의 개념으로부터 발달한 지점과 닮아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말보다 몽골어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주어(여진어의 전신)에서도 이와 같은 친족 명칭의 발달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20) 만주어(<여진어)의 ‘jalan[마디/寸]’ 관련 단어들

ㄱ. jalan 1. 마디. 관절, 뼈마디, 대나무 등의 마디를 말함. 2. [불교] 世界, 세상 3. 世代, 時代 4. (만주 팔기의 부대단위) 잘란²³⁾, 甲喇, 參領

ㄱ. jalan jalan i. 마디마디(마다) 2. 世世代代, 代代(대대로)

ㄴ. jalahi 사촌, 삼촌 관계

ㄴ'. jalahi ahvn deo 사촌 형제

ㄴ". jalahi jui 조카, 형제의 아들

ㄴ"". jalahi sargan jui 조카딸

ㄴ"". jalahi urun 조카며느리

만주어에서 ‘jalan’은 ‘마디/寸’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종교적, 군사적 용어로 확장

23) 5개 niru로 1개 jalan이 구성되며, 5개 jalan으로 1개 gvsa가 구성된다. 5jalan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fere jalan/圍底甲喇, jebele meiren/右圍肩, jebele dube/右圍端, dashwan meiren/左圍肩, dashwan dube/左圍端이다. fere jalan을 뺀 둘로 묶어서 우측 잘란은 jebele gala/右翼, 좌측 두 잘란은 dashwan gala/左翼이라고 한다.

되어 사용된다. 하지만 ‘jalan’으로부터 파생된 ‘jalahi’는 특히 삼촌, 사촌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사촌형제 - jalahi ahvn deo’, ‘삼촌조카 - jalahi jui/jalahi sargan jui/jalahi urun’ 등의 용법이 있는데 만주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확장이 없다.

따라서 ‘촌수 명칭’과 관련한 개념은 몽골어²⁴⁾의 모계 어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말과 만주어에 유입되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를 삼촌, 사촌을 넘어 팔촌, 십촌 혹은 영촌, 일촌, 이촌 등의 개념에까지 확대한 데 비해 만주어에서는 삼촌, 사촌의 개념만 수용하고 더 이상의 어휘 확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말의 ‘삼촌, 사촌’ 계열의 촌수 명칭은 몽골어의 ‘üye[마디/寸]’와 그의 확장된 개념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몽골어에서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개념은 14세기 중반 이후 우리말이 몽골어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던 무렵 구어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나가다가 14세기 말 일부 집안과 《大明律直解》와 같은 공식적 문서에 사용되면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촌수(寸數)’ 명칭은 일부 어휘들 즉 삼촌, 사촌계 어휘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외사촌, 외삼촌을 지칭하는 데 특화되어 사용되다가 친족 명칭 전반으로 확대해서 체계화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말 ‘삼촌’계 한자어는 몽골어 ‘üye’가 번역되어 ‘寸’으로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인데, 이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마디’의 개념이 동북아시아의 유목민 언어에 보편적 가치로 주어지면서 이루어진 우연적 일치로 볼 것인지는 문제는 본고의 능력 바깥의 일이므로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덕모, 2002, “친척관계의 부름말과 형태분류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21,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회의소조
- 김민수, 1981, 국어의미론, 서울:일조각
- 김민자, 1997, 한국어의 친척어 연구 : 일본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선희, 2004, 연변의 친척관계말 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한곤, 1967, “Korean Konship Terminology: a semantic analysis”, Language Research 3.1 pp.70~81, Languag Research Instiute, 서울대
- 김한곤, 1983, “Korean Konship Terminology: a semantic analysis II” 말 8, 연세대 한국어학당.
- 도이미호/土井美穂, 2004, 한국어와 일본어의 호칭 사용에 관한 대조 연구 : 친척어의 확대 사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배해수, 1992, “‘동기(간) 향렬의 친척’ 명칭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배해수, 1992, “‘아들딸 향렬의 친척’ 명칭에 대한 고찰”, 한글 218, 한글학회
- 배해수, 1992, “‘어버이 향렬 친척’ 명칭에 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 2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배해수, 1994, “‘한어버이 향렬’ 친척 명칭에 대한 고찰”, 한국어내용연구 1, 국학자료원
- 배해수, 1995, 국어내용연구 3: 친척 명칭에 대한 분절 구조, 국학자료원

24) 이른바 칭기즈칸의 몽골어(중세 몽골어)는 오늘날의 몽골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간에도 영향 관계는 있겠지만 그 전모가 온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촌수계 명칭의 뿌리를 찾아가기 어려운 데에는 이러한 점도 한 이유가 된다.

- 왕한석, 2002, “친척 관련 속담의 민족지적 연구”,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 陸軍省, 1971, 『蒙古語大辭典 蒙和之部』
- 이광규, 1971, “韓國의 親戚名稱”, 서울대 사대교육회 연구논총 1
- 이옥련, 1989, “언간의 친척 및 부부호칭고”, 아세아여성연구 28,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 이운표, 1985, 국어친척용어의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
- 이운표, 1986, “국어 친척용어의 연구”,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서울:탑출판사
- 이운표, 1986, “국어친척어 대조분석”, 한국어문교육 1, 고려대 국어교육학회
- 이용백, 1989, “친척의 계보와 호칭”, 국어생활 19, 국어연구소
- 이훈 편저. 2017.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최재석, 1988, 韓國의 親族用語, 민음사
- 홍은진, 1998, “일가 친척중 남성간의 언간 규식 1”, 문헌과 해석 2, 문헌과해석사
- 황정·張湧泉 교수. 2003, 돈황변문교주. (전홍철, 정병윤, 정광훈 옮김. 2015. 소명)

“삼촌, 사촌 계통의 촌수 명칭 발달에 대하여(김양진)”에 대한 토론문

조정아(부산대)

이 발표문은 삼촌, 사촌 계통 촌수 명칭의 발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원을 밝히고자 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발표자 선생님께서 시대별, 표기별, 나라별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고 정리해주셔서 삼촌, 사촌 계통 촌수 명칭의 발달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들 명칭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촌수 명칭이 몽골어의 ‘üye[마디/寸]’와 그의 확장된 개념에서 온 것이며, 14세기 중반 이후 구어를 중심으로 퍼져 14세기 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결론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고려시대 문헌이나 몽골어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과묵한 탓에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생긴 궁금증을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고려 시대 문헌 자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전하는 고려 시대 자료 중 『고려사』와 『목은시고』, 두 문헌에서만 ‘四寸’의 예가 나타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촌수 명칭은 혼인, 상속, 음서 제도 등과 상례나 제례 등을 기술하는 부분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 자료는 아니더라도 조선 초기 자료들은 고려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더 확장할 수 없을까요?
2. 3쪽 <표1>과 같이 “사촌의 용법이 외가 혹은 처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결론 부분에서 “‘사촌’이 ‘외사촌, 외삼촌’을 지칭하는데 특화되어 사용되다가 확대된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1)~(3)에서 제시된 고려 시대 사촌의 용법은 내용상 우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있는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7쪽 2.2.3에서는 ‘언해문 속의 촌수 명칭 사용 양상’을 검토하셨는데, 언해문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언해문이나 어휘집이 한문언문이나 한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울러 7~8쪽의 용례 부분에 한문원문도 함께 제시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9쪽 상단에 “17세기 이후의 언해문들에서는 한어계 친족 명칭들이 더 우세하게 되고 의외로 촌수 명칭이 잘 사용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간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초 출현 예는 16세기 순천김씨묘출토언간이며, 이후 17세기 이후 언간에 ‘스촌, 스촌, 스촌, 사촌’이나 ‘습촌, 삼촌, 삼촌’ 등의 형태로 상당히 많은 용례가 보입니다.(아래 예문 참조. 전체 언간 용례는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에 수록) 이에 비해 ‘숙부, 숙모, 중형데, 이종미’ 등의 한어계 친족 명칭은 19~20세기 언간에서 각기 한두 용례가 보일 뿐입니다.

(1) 가떡 사괴기를 늡 네로 네스로 스초니어니 흘 거시디<순천김씨묘-055, 1550-1592년, 신천강씨(아버지) → 김여몰(아들)>

(2) 슈원 스촌 네제 치 또 염질로 구티 못하다 하니 참혹하다<송준길가-18, 1675년, 배천조씨(어머니) → 미상(아들)>

- (3) 일하를 출합하면 네스 업는 거시로되 네 삼촌이 스옹 데되매 지간하여 인하여 싱티는 주귀 하여시니 삼촌의 인스나 덕어라<숙명-50, 1652-1658년, 인선왕후(어머니) → 숙명공주(딸)>
- (4) 장원은 못손의 스촌 처남이오매 장원이 모든 동년들 거르리고 위요를 가려 호오니<이동표가-28, 1677년, 이동표(아들) → 순천김씨(어머니)>
- (5) 아마도 치위에 편히 디내과다 호노라 시월 념늑일 삼촌 회덕셔<선찰-9-112, 1660-1708년, 송규렴(삼촌) → 미상(조카)>
- (6) 장스는 어느 식로 디내느니 아므려나 년하여 부디흙 브라노라 갑오 삼월 초칠일 삼촌 미망인<자손보전-16, 1774년, 신창맹씨(다섯째 고모) → 맹지대(조카)>
- (7) 글시 보고 묘히 이시니 반갑고 깃버호나 네 식삼촌 상스는 그런 일이 업다<선찰-9-015, 1688-1709년, 송규렴(할아버지) → 은진송씨(손녀)>
- (8) 문제 흥쥬 김덕 유무에 너를 글을 브즈런이 하여 취혹하기를 천만 브라노라 하여시니 오촌 족당 스이에 그러호니 아니 고마오냐<송준길가-23, 1700년, 안정나씨(어머니) → 미상(아들)>

5. 10쪽 중국어에서는 ‘五服’ 개념이 친족의 개념에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18)에서 오복에 해당하는 친족 명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8) 아래 설명은 편의상 옮겨 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말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중국어의 오복 개념과 관련한 친족 명칭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제례 명칭 등으로 공식화되면서 삼촌 등 촌수화한 명칭의 사용이 축소되었다는 의미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18ㄱ~ㄷ)에 제시된 참최친으로부터 시마친까지의 상복 중심의 친족 명칭이 제례 명칭 등에서 공식화하면서 삼촌, 사촌, 오촌 등으로 촌수화한 명칭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면서 고려 말기에 배태되어 조선 전기에 적극적으로 확장되던 촌수 명칭이 삼촌/외삼촌/처삼촌, 사촌 등 일부 단어에만 남겨지고 나머지 단어들은 ‘사돈의 팔촌’과 같은 관용적 표현에만 일부 남겨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6. (19) 몽골어 ‘üye[마디/寸]’ 관련 단어들과 (20) 만주어(여진어)의 ‘jalan[마디/寸]’ 관련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말 촌수 개념과 같이 질서정연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몽골어의 ‘üye[마디/寸]’의 영향을 받아 우리말 삼촌, 사촌 등의 촌수 명칭이 생겼지만 그러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7. 우리말 삼촌 계열의 촌수 명칭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친족의 가깝고 먼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이 다른 언어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어의 ‘親等, しんとう’이 우리말 촌수 개념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一親等, 二親等, 三親等 …’으로 확장되면서 친족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독겁전』의 국어사적 고찰

선한빛(전남대)

< 차례 >

1. 서론
2. 『독겁전』의 서지 사항
3. 『독겁전』에 나타난 언어 양상
4. 기미본(己未本)과 전남대본의 선후 관계
5. 결론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2022년에 발굴된 전남대학교 소장본 『독겁전』¹⁾(이하 전남대본)을 국어사 자료로서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전남대본이 보이는 언어 양상을 분석하여 자료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적 특징과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다.

『독겁전』은 연대, 작자 미상의 한글 고전 소설이다. 『독겁전』은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데 작품의 내용에 따라 쟁좌형(爭座型), 적강형(謫降型), 일월형(日月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 중에서 전남대본은 적강형에 해당한다. 이지영(1992)에서는 적강형 『독겁전』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보았다. 전남대본은 간기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필사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적강형 계열들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³⁾

전남대본이 발굴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남대본에 대한 논의는 김인경(2023), 김인경·조지형·윝김(2023)이다. 먼저, 김인경(2023)은 고전 소설 자료이자 적강형 『독겁전』의 또 다른 이본으로서 전남대본을 소개하였다. 같은 적강형 안에서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 기미본(己未本)과의 비교를 통해 작품 간 연계성과 차이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김인경·조지형·윝김(2023)은 전남대본을 해제하고 현대어로 번역하였으며 원문을 입력한 후 책의 후반부에 전남대본을 영인한 것이다. 즉, 학술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남대본에 나타난 언어적인 부분은 논의되어 있지 않아 국어사적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어사적 관점에서 전남대본을 바라보고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언어 양상을

1) 이 글의 연구 대상이 되는 전남대본 『독겁전』은 전남대학교 고문헌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학계에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지형 교수가 이를 발굴하여 고전 문학 자료로서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전남대학교 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에서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문헌 자료실에 소장된 한국 고전 자료 가운데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유일본, 희귀본, 선본, 이본으로 선별하여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겁전』을 첫 번째 연구 결과물로 선정하여 고려대학교 김인경 박사와 조지형 교수가 함께 역주, 해제를 하고 원문을 영인하여 올해 2월에 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 연구 총서 ①로 펴내었다(김인경·조지형·윝김 2023:5). 전남대본 『독겁전』의 고전 문학적 논의는 김인경(2023)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으므로 내용적 측면은 이 연구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겁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6965)

3) 김인경(2023: 170)에서는 전남대본에 19세기 조선의 판소리 명창이었던 권삼득(權三得, 1771~1841)과 송흥록(宋興祿, 1780년경~?)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전남대본의 필사 시기가 기존 논의에서 언급한 적강형 『독겁전』의 필사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분석할 것이다. 또한 전남대본과 기미본을 비교하여 언어 양상을 분석한 후 전남대본의 필사 추정 시기를 구체화하고자 한다.⁴⁾

2. 『독겁전』의 서지 사항

2.1. 책의 외부

전남대본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에 있는 고문헌자료실에 소장(청구기호 OC 3Q2 추13)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32.6cm×21.7cm이다. 책의 표지는 <그림 1>과 같이 황갈색 종지로 만들어졌으며 별다른 무늬나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다.⁵⁾



<그림 1> 전남대본의 표지

먼저, 전남대본의 표지 앞면에는 제첨(題簽)이 ‘추검전’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본문 도입부에 ‘독겁전 권지일’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명칭은 ‘독겁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습은 후대에 누군가가 ‘추검전’으로 표기해 둔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2023: 169)에서는 ‘독겁전’을 ‘추검전’으로 잘못 판독하여 표제를 ‘추검전’이라고 붙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남대본은 선장법(線裝法)으로 꿰매어 제작되었다. 백두현(2015: 70)에 따르면 선장법은 고려말 이후에 책을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고서는 책의 크기와 관계 없이 오침안정법(五針眼釘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전남대본은 위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육침안정법(六針眼釘法)으로 제작되었다. 일반적인 조선의 책 제작 방법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다. 백두현(2015: 70)에서는 육침안정법을 포함한 사침안정법(四針眼釘法), 팔침안정법(八針眼釘法) 등 짝수로 꿰매는 방법이 중국, 일본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미루어 본다면 전남대본이 육침안정법

4) 현재 전남대학교 도서관 누리집에 『독겁전』(검색어: 추검전)을 검색해 보면 작품의 간기가 “경오(1930)이월순 구일가”로 되어 있다. 도서관 측에 간기를 1930년으로 밝힌 배경을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적강형 『두겁전』의 필사 시기와도 차이가 있고 다른 적강형과 비교했을 때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작품 속 언어 양상을 대상으로 필사 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이 글에 수록되어 있는 『독겁전』 원문 사진(<그림 1>, <그림 4>~<그림 7>)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해 준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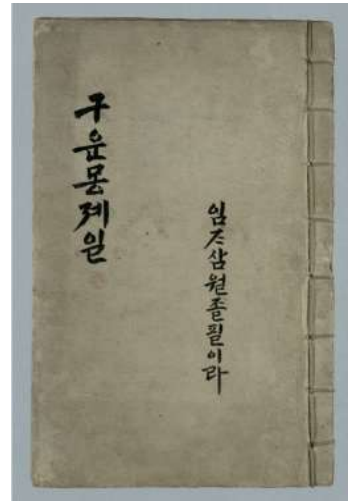
으로 된 것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중국 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청전』(1910)⁶⁾



『춘향전』(1936)⁷⁾



『구운몽』(1912)⁸⁾

<그림 2>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고전 소설 자료

<그림 2>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심청전』, 『구운몽』, 『춘향전』이다. 이들 소설 자료는 한글 고전 소설인데 각각 사침안정법, 육침안정법, 팔침안정법으로 제작되었다. 오침안정법으로 제작된 소설들도 있지만 <그림 2>와 같은 자료들도 존재한다.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들의 필사 연도를 20세기 초기 연도 미상 자료로 소개하였다. 책 표지 또는 뒷면에 간기가 ‘庚戌’, ‘丙子’, ‘임자’로 적혀 있는데, 경술은 1910년, 병자는 1936년, 임자는 1912년이다. 즉, 『심청전』, 『춘향전』, 『구운몽』은 각각 1910년, 1936년, 1912년 자료인 것이다. 특히 『춘향전』은 앞 표지 뒷면이 <그림 3>과 같이 ‘囍煙’이라는 이름의 담배 포장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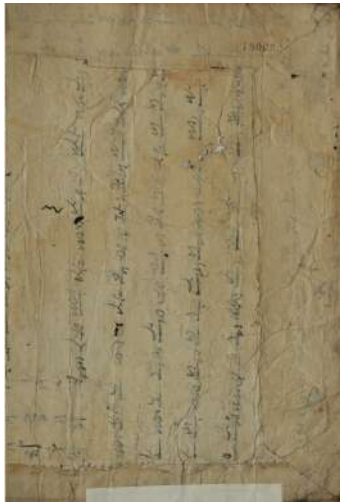


<그림 3>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춘향전』 앞쪽 표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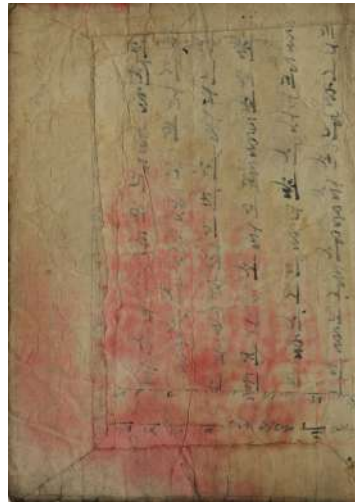
6) 디지털한글박물관, “심청전”(https://archives.hangeul.go.kr/collection/bibliography/3034)
 7) 디지털한글박물관, “춘향전”(https://archives.hangeul.go.kr/collection/bibliography/5401)
 8) 디지털한글박물관, “구운몽”(https://archives.hangeul.go.kr/collection/bibliography/2154)

조선총독부전매국은 1921년 4월 1일에 담배를 독점 판매하기로 공포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포갑지가 <그림 3>이다. 오침안정법으로 제작된 책은 20세기 초 까지도 보이지만 사침안정법, 육침안정법, 팔침안정법은 필사 시기가 20세기 초이거나 20세기 초로 추정되는 자료들에서 다수 확인된다.⁹⁾ 현재 전남대본의 필사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추정되고 있다. 추후 육침안정법이 언제부터 조선에서 책을 제작할 때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힌다면 작품의 언어적 측면, 내용적 측면 외에 서지적 측면, 특히 선장법으로 작품의 간기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지 안쪽은 <그림 4>와 같이 다른 글이 적힌 종이를 접어서 덧대어 활용하였다.



앞면



뒷면

<그림 4> 전남대본의 표지 안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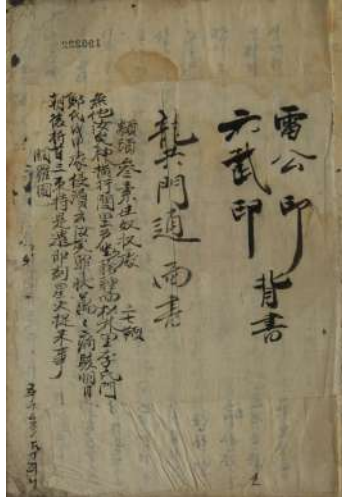
글씨의 크기와 문장의 간격이 본문과 다르고 접힌 부분과 종이의 가운데에 있는 글이 가로, 세로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독겁전』의 필사자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재활용하여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⁰⁾ 책의 표지나 본문 마지막 쪽에 간기를 밝힌 자료들도 있지만 전남대본에는 간기가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필사 연대를 알 수가 없다.

2.2. 책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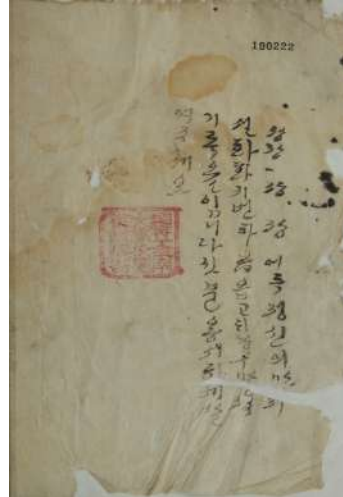
표지를 넘기면 <그림 2>와 같이 내지가 나온다.

9) 글쓴이가 사침안정법, 육침안정법, 팔침안정법으로 제작된 책들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필사 시기가 정확하게 20세기 초인 자료 또는 20세기 초로 추정되는 자료들에서 다수 확인된다.’라고 기술한 것이다. 이는 추후 다시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겠다.

10) 백두현(2015: 52)에 따르면 표지를 두겹게 만들 때 그 안쪽 면에 표지 배접지를 덧대기도 하는데 이때 깨끗한 흰색 닥종이를 배접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미 사용한 종이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내지 앞면



내지 뒷면

<그림 5> 전남대본의 내지

내지도 표지의 뒷면처럼 다른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지 앞면에서 열은 글씨로 보이는 내용과 왼쪽 하단의 ‘(서)름을 푸더니’가 본문 1ㄱ에 실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남대본의 1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작품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버리는 종이를 재활용한 후 다른 종이를 덧댄 것으로 생각된다. 내지 앞면에는 다른 종이를 덧붙여 두었는데 여기에는 한문이 적혀 있다. 한문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전옥의 셋째 소생 노비에게
 님이 아니라, 너의 정신이 길거리를 횡행하여, 너를 본 용종면 송림리 이 씨 문중, 정 씨, 무신을 침범하였다고 한다. 너의 죄상이 매우 놀랄만한 즉, 내일 아침 이후에 ... (해석 미상) ... 즉각 성화와 같이 붙잡아 오라. (내지 앞면 번역문)¹¹⁾

한문의 내용이 『독겁전』의 내용, 필사 배경, 필사자 등과는 관련이 없는 것¹²⁾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내지에 사용한 종지와 본문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내지 뒷면에는 한글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판독문은 아래와 같다.

상장 상장 어득 정신의 □□ 설화 화 지변하움 읍고 뒤강 두 □□ 기록 올입니다 싯분 용 서하셔 살펴 주세요

종이가 찢긴 부분이 있어 일부 판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편지 또한 전남대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내지를 한 장 넘기면 본문이 나온다.

11) 조지형 교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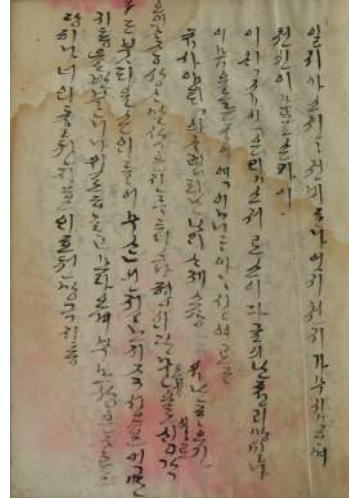
12) 발표자는 조지형 교수님께 내지 앞면에 실린 한문의 번역을 요청드렸다. 이 글이 『독겁전』 혹은 필사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문의를 드렸는데 작품과는 관계가 없는 글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보낸 이가 노비에게 한문으로 글을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옛날에 양반들이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노비를 앞세워서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고문서 형식을 빙자하여 희화화한 글쓰기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책에 편지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이 없기에 정확한 기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문 1가



본문 1나



본문 31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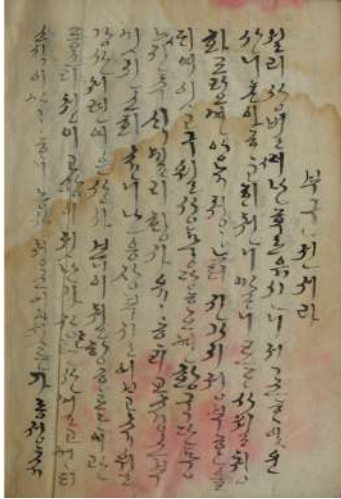
<그림 6> 전남대본의 본문

본문은 한 면에 9~11행, 한 행에 21~25자가 필사되어 있고 분량은 총 31장이다. 본문은 ‘독겁전 권지일’로 시작하는데, 이로 보아 전남대본의 이름이 ‘독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겁전』 이본들과 동일하다. 또한 전남대본도 단권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1권으로 마무리된다. 본문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필사지가 이어진다.

이 책 주인은 **림 소저**로소이다 글시난 흥괴망필{이}나 이 몸으로는 중이 역임니드 아 아
실여로드

‘소저(小姐)’는 ‘아가씨’를 의미하는데 이 책의 주인이 임 씨 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자신은 소중히 여긴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 소저를 필사자로 볼 가능성이 있다.¹³⁾ 다만 필사자가 여성인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13) 김인경(2023: 169)은 직강형 『두겁전』 이본들 중 여성이 필사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어 전남대본의 필사자를 임소저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문 32가



본문 32나



본문 33가

<그림 7> 부군전서

『독겁전』 뒤에는 ‘부군전서라’라는 제목으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가 3면에 걸쳐 실려 있다. 편지는 ‘철리상별 찌난 후로 음신니 적로 햐야 운산니 초인하고 히천니 말니로드’로 시작한다. 이로 보아 ‘부군전서’는 남편이 집을 떠난 지 오래되어 남편이 그리운다는 내용을 담은 필사자의 편지라고 할 수 있다.

3. 『독겁전』에 나타난 언어 양상

3장에서는 전남대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언어 양상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3.1. 연철, 중철, 분철 표기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 시기로 가면서 표기의 방향이 연철에서 분철로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표기의 변화가 자료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전남대본에서는 두루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철 표기가 된 예이다.

- (1) 가. 혀륙<1가>, 서름을<1가>, ...
- 나. 무어스로<1나>, 거슨<2가>, 거시니<2가>, 거시오니<3나>, ...
- 다. 업스니<1가>, 업스말<1가>, 업서<1가>, 드러<1나>, 썩다르니<1나>, 시부이<2가>, 도라와<2가>, 즈바먹고<2가>, 드러오며<2나>, 밭즈미<2나>, 너머가면<3가>, 두어쓰되<3가>, 바다<4가>, ...

(1)은 체언과 용언의 활용형이 연철로 표기된 것이다. (1가)은 체언 어중에서 연철 표기가 된 것이고 (1나)은 사 말음 체언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했을 때 연철 표기가 된 예이다. 체언의 연철 표기는 어중보다는 (1나)과 같은 환경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1다)은 용언의 활용형이 연철 표기된 것이다.

다음은 중철 표기가 된 예이다.

- (2) ㄱ. 설름<1ㄱ>, 독겁비<1ㄴ>, 독겁비<1ㄴ>, 독거비<4ㄱ>, 독겁<5ㄴ>...
- ㄴ. 비스몯시르<1ㄱ>, 몯시<1ㄱ>, 몯식<1ㄴ>, 몯슬<1ㄴ>, 것퓌<1ㄴ>, 만물리<3ㄱ>, 형홍을노<3ㄱ>, 뭉월리니<3ㄱ>, 월선니니<3ㄱ>, 하인니<4ㄱ>, ...
- ㄷ. 잇시되<1ㄱ>, 잇스되<1ㄱ>, 닉달나<1ㄴ>, 갓탄<1ㄴ>, 잇씨니<3ㄱ>, 잇쓸<3ㄱ>, ...
- ㄹ. 안니<7ㄱ>, ...

(2)는 체언과 용언의 활용형이 중철로 표기된 것이다. (2ㄱ)은 체언 어중에서 중철 표기가 된 것이고 (2ㄴ)은 ‘ㅅ’ 말음 체언과 ㄴ 말음 체언, ㄹ 말음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했을 때 중철 표기가 된 예이다. 연철 표기가 ‘ㅅ’ 말음 체언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중철 표기는 여러 환경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ㄷ)은 용언의 활용형에서 중철 표기된 것인데 ‘갓탄’과 같이 어중 유기음에서 중철 표기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ㄹ)은 부사가 중철 표기된 것이다.

다음은 분철 표기가 된 예이다.

- (3) ㄱ. 스람이<1ㄱ>, 괴운을<1ㄴ>, 입을<1ㄴ>, 말이<3ㄱ>, 마을이<3ㄱ>, ...
- ㄴ. 일음<1ㄱ>, ...

분철 표기는 주로 체언이 조사와 결합한 형태에서 나타났다. 특히 (3ㄴ)은 ‘이름’이 ‘일음’으로 표기된 예이다. ‘일음’은 18세기 문헌에서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어형이다. 19세기부터는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사용되었다.

- (4) ㄱ. 할로난<1ㄱ>, ...
- ㄴ. 녀여<1ㄴ>, 식여<2ㄱ>, 녀이스<2ㄱ>, 달여가스이다<2ㄱ>, 단이먼서<2ㄱ>, 단이다가<2ㄱ>, 설월위하더니<2ㄴ>, 안이허리<2ㄴ>, ...

과도 분철 표기된 예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도 분철 표기는 용언의 활용형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 표기

‘·’는 역사적으로 소실 단계를 두 차례 거쳤다. 16세기에 비어두 음절의 ‘·’가 ‘一’로 바뀌고 18세기에 어두 음절의 ‘·’가 ‘ㅏ’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전남대본에는 이러한 ‘·’의 소실로 인한 표기의 변화가 반영된 어형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나타난다.

먼저 어두 음절의 ‘·’ 표기이다.

- (5) ㄱ. 즈식<2ㄱ> ㄴ<2ㄱ>, 뒤소<3ㄱ>, ...
- ㄴ. 귀즈<2ㄱ>, 무즈함을<2ㄱ>, 숙양즈<2ㄴ>, 부즈지의<2ㄴ>, 소즈<3ㄱ>, 중즈난<3ㄱ>, ...

(6) 스람<1>, 흥날<1>, 즈바떡고<2>, 닉<2>, ...

(5)는 어두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하지 않고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히 (5ㄱ)에 제시된 ‘즈식’과 같이 ‘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어휘들은 ‘子’의 음을 ‘즈’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5ㄴ)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6)은 (5)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6)은 본래 어두 음절의 모음이 ‘ㅏ’였는데 ‘ㆍ’로 표기된 예들이다. 현대어 ‘사람’은 15세기부터 ‘사름’으로 표기했으나 16세기에 ‘사름’과 함께 ‘사람’의 표기가 등장한다. (6)과 같이 ‘스람’으로 표기된 것은 18세기에 처음 등장하고(김방계는 성주 스람이라 <『속삼』 중 孝:13>) 19세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난다. 18세기에 어두 음절의 ‘ㆍ’가 ‘ㅏ’로 표기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비어두 음절의 ‘ㆍ’ 표기이다.

(7) 스난<1>, 가세난<1>, 업스말<1>, 할로난<1>, 고기난<1>, 요동흥겨날<1>, 이지난<1>, 통흥겨날<1>, 오날<1>, 하로난<2>, 모라고<2>, 가라친<3>, 흥겨날<3>, 아달<3>, 중즈난<3>, 머나리<3>, 츠여난<3>, 화룡윳탄<3>, 그난<4>, 하겨날<4>, ...

(8) 스람<1>, 넘다록<1>, 노옹다러<2>, ...

(7)은 비어두 음절의 ‘ㆍ’가 ‘ㅡ’가 아닌 ‘ㅏ’로 표기된 예이다. 반면 (8)은 비어두 음절의 모음이 본래 ‘ㆍ’였는데 어두 음절에서의 변화가 비어두 음절에 영향을 주어 ‘ㆍ’가 ‘ㅏ’로 표기된 경우이다.

3.3. 어중 ‘ㄹㄴ’의 표기

어중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되는 것은 17세기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광현(1997: 17-18)에서는 16세기 말부터 ‘X-ㄹ- /X-ㄹ-’ 어간이 활용에서 ‘ㄹㅇ’을 ‘ㄹㄹ’로 표기하는 예가 드물게 나타나 17세기에 유지되거나 확대 표기되면서 ‘ㄹㄴ’ 표기와 혼기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는 ‘ㄹㄴ’ 표기가 빈도상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남대본에서도 어중 ‘ㄹㄴ’ 표기를 쉽게 볼 수 있다.

(9) ㄱ. 놀닐여<1>, 올나<2>, 일너<3>, 불너<3>, 질너<3>, 올나가<4>, ...
ㄴ. 홀노<3>, 불닐<3>, 정 할님<3>, ...
ㄷ. 형홍을노<3>, ...

(9ㄱ)은 ‘X-ㄹ- /X-ㄹ-’ 어간의 활용형이 ‘ㄹㄴ’ 표기를 보이는 경우이다. (9ㄴ)은 본래 ‘홀로’, ‘불러’, ‘할림’으로 표기되어 오던 것이 ‘홀노’, ‘불니’, ‘할님’으로 표기된 것이고, (9ㄷ)은 부사격 조사 ‘으로’가 중철 표기되어 ‘을로’가 된 것이다. 이들은 근대 국어 시기에 어중 모음간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되는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3.4. ‘닉’의 기능

대명사 ‘나’는 15세기부터 ‘나’였는데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 ‘내’,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면 ‘내’의 형태였다.

- (10) ㄱ. 너 몸 형용 말씀하시면 응당 판서 되로하여 종을 불너 너쫓치라 할 거시니<3ㄴ>
- ㄴ. 너 비록 독거비나 근본은 스람이라<2ㄴ>
- ㄷ. 모친은 불문테답하고 너의 즈초시종을 말삼하오면 세악으로 소리를 질너 왈<3ㄴ>

(10)은 ‘나’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여러 기능으로 사용된 예이다. (10ㄱ)은 ‘내’가 ‘나’로 표기되어 관형격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10ㄴ)은 현대국어에서 ‘내’가 주격으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보이는 예이다. (10ㄱ)과 (10ㄴ)은 현대어와 그 쓰임이 동일하다. 반면, (10ㄷ)은 ‘나’가 대명사로서 기능하여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한 것이다.

3.5. 목적격 조사 ‘을/를’의 교체

근대 국어 시기에는 중세 국어 시기부터 쓰인 ‘을’, ‘를’의 형태가 ‘을’, ‘를’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남대본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 ‘를’의 형태가 아닌 ‘을’, ‘를’만 확인할 수 있다.¹⁴⁾

- (11) ㄱ. 녹기을<1ㄱ>, 낙퇴을<1ㄱ>, 고기을<1ㄱ>, 유무을<1ㄴ>, 독점비을<2ㄱ>, 속양
 즈을<2ㄴ>, 너을<2ㄴ>, 부즈지의을<2ㄴ>, 빅 판서을<3ㄱ>, 삼형지을<3ㄱ>, 판서
 을<3ㄴ>, 소릭을<3ㄴ>, 할미을<4ㄱ>...
- ㄴ. 손을<3ㄱ>, 못친을<3ㄴ>, 즈초시종을<4ㄱ>, 서안을<4ㄱ>, ...
- ㄷ. 남의 즈식은 과거 혀여 한 좌석의 안든 스람들리 감히 님의로 압직 단일를 못 혀니
 <29ㄴ>

전남대본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을’로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목적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의 말음에 따라 ‘을’, ‘를’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남대본에서는 (11ㄱ)과 같이 ‘를’이 와야 하는 환경에 ‘을’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김태우(2022: 71)에서는 이를 19세기 이후에 많이 보이는 표기 경향이며 『여사소학』의 ‘을’은 ‘르’ 약화/탈락을 반영한 실제 발음 표기는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11ㄴ)은 자음을 끝나는 체언 여간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경우이다. 그런데 ‘를’보다는 (11ㄱ)과 같이 ‘을’로 표기된 것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11ㄷ)은 전남대본에서 목적격 조사로 ‘를’이 사용된 유일한 예이다.

3.6. [비교]의 부사격 조사 ‘의’

현대 국어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된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의’의 형태가 관형격 조사뿐만 아니라 부사격 조사, 특히 [시간], [장소] 등의 의미를 가질 때 나타났다. 전남대본도 (13)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14) 이준환(2022: 71)에서도 완판본 「구운몽」에 표기된 목적격 조사로 ‘을’, ‘를’이 아닌 ‘을’, ‘를’이 사용되는 점을 들었는데, 경판본에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어 완판본 「구운몽」과 경판본 「구운몽」의 차이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았다.

(13) 흥 판서의<3ㄱ>, 정 할님의<3ㄱ>, ...

(14) ㄱ. 슬흐의<1ㄱ>, 듀야의<1ㄱ>, 동영의<1ㄱ>, 집의<1ㄱ>, 천지의<1ㄴ>, 못가의<1ㄴ>, 우의<2ㄱ>, 전칭의<2ㄱ>, 이칭의<2ㄱ>, 슈속의<2ㄱ>, 치마의<2ㄱ>, 방의<2ㄱ>, 덕의<2ㄴ>, 일시의<2ㄴ>, 양전의<3ㄱ>, 명일의<3ㄱ>, 춘중의<3ㄱ>, 일조의<3ㄴ>, 사랑의<4ㄱ>, ...
ㄴ. 두 형의 싸어나고<3ㄴ>, ...

그런데 전남대본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의’가 쓰이는 용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13ㄱ)은 [시간], [장소], [방향]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의’로 표기되는 것으로 전남대본에 대부분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 ‘의’이다. 그런데 드물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부사격 조사 ‘의’가 사용되기도 한다. (13ㄴ)은 ‘의’가 [비교]의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그 엄마에 그 딸’이라는 표현에서 [비교]의 부사격 조사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3.7. 현대어 ‘두꺼비’의 어원

전남대본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꺼비’의 형태이다.

(15) 누꺼비 名 「두꺼비」의 사투리<『조선어사전』 335>

‘두꺼비’는 20세기에 등장하는 어형으로 『조선어사전』(1940)에서 처음 등장한다. 전남대본에서는 ‘두꺼비’의 쓰임을 확인할 수 없다. 전남대본에서는 ‘독겁, 독겁비, 독겁비, 독거비’가 나타난다.

(16) ㄱ. 독겁다러<3ㄴ>, 양칭과 독겁이 퍽일지를 보니<5ㄴ>, 독겁 서방님<10ㄱ>, ...
ㄴ. 독겁비가<1ㄴ>, 독겁비 것퍽<1ㄴ>, 독거비가<11ㄱ>, ...

(17) ㄱ. 독겁집 蟾家<『한불』 501>
ㄴ. 개골이 우렁이 독겁이 올창이 거마리<『삼설』 5ㄱ>, 너구리 녀손즈 보고 독겁이 외손즈 보고<『남원』 1:6ㄱ>, 독겁이 蟾<『한불』 501>
ㄷ. 蟾蜍 독거비<『몽유』 上:18ㄴ>, 蟾蜍 독거비<『광재』 4:56ㄴ>
ㄹ. 독구비<『한불』 501>
ㅁ. 독게비 蟾蜍<『국한』 坤:86>

(16)은 전남대본에 나타나는 ‘두꺼비’의 어형이다. (16ㄱ)은 ‘독겁’의 형태가 나타난 경우이고, (16ㄴ)은 ‘독겁’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독겁비’, ‘독겁비’, ‘독거비’가 나타난 경우이다. 19세기에 ‘두꺼비’를 나타내는 어형들로는 (17)의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독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ㄱ)뿐이다. (17ㄴ-17ㅁ)은 ‘독겁’에 ‘-이’가 결합된 형태들이다.

이 글에서 (16)에 제시된 용례는 전남대본의 필사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김인경(2023: 169)에서는 전남대본에 필사 과정 중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의 저본이 되는 이본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 조선의 판소리 명창인 권삼득과 송흥록이 작품에

등장하고 이들이 판소리 8명창으로 활약을 했던 때가 19세기 전반기라는 점, 이들의 생몰 연도가 각각 1771년~1841년, 1780년~1863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대본에 반영된 언어는 19세기의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¹⁵⁾

3.8. 방언형

전남대본에는 전라남도 영암 지역의 지명이 다수 등장한다.¹⁶⁾ 김인경(2023: 183)에서는 영암과 가까운 전라남도 해남, 나주가 언급되고 전라도 지역의 언어가 작품에 반영된 것을 들면서 지역 사정에 가까운 사람이 이 작품을 집필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8) 미고(→메고)<1>, 시월(→세월)<1>, 자상이(→자세히)<1>, 두던(→둔덕)<2>
 1>, 이늘보름(→부터)<2>, 즐기드니(→즐기더니)<2>, ...

(18)은 전남대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형이다.

4. 기미본(己未本)과 전남대본의 선후 관계

이 장에서는 전남대본과 기미본의 언어를 비교하여 언어적 측면에서 두 이본의 선후 관계를 밝히 고자 한다.

이 글에 앞서 전남대본을 논의한 김인경(2023)은 기미본과 전남대본을 문학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내용 구성적의 차이를 주로 논의하였다. 김인경(2023: 180)에서는 두 이본이 금강산의 4대 사찰인 유점사(楡岾寺)를 작품 속 인물이 자식을 얻기 위해 시주하거나 방문한 곳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기미본에는 유점사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전소되었다는 부분이 있다. 김인경(2023)은 고종 19년(1882)에 유점사 전소로 조정에서 공명첩 발행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고종실록』에 나온다는 점¹⁷⁾을 들어 기미본의 간기가 1912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중략)¹⁸⁾

15) 물론 20세기에 『부별천자문』에서 ‘蟾 독겁이 섬<32a>’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9세기의 어형이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것이므로 20세기 자료에 ‘독겁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전남대본을 20세기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필사가 20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본의 언어를 필사한 것이므로 19세기의 언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16) 김인경(2023: 182-183)에서는 전남대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명으로 ‘영암’, ‘월출산’ ‘쌍정즈(→쌍정자)’를 제시하였는데 기미본을 비교했을 때 전남대본에만 나타나는 지명으로 ‘쌍정즈’를 들었다.

17) 『고조실록』에는 ‘유점사’와 관련한 기록이 2건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조선왕조실록 누리집(<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ㄱ. 江原監司南廷益膺報以‘高城 楡岾寺三千餘間, 盡入回祿, 空名帖依已例成給, 以爲修葺事, 請令廟堂稟處’矣(강원 감사(江原監司) 남정익(南廷益)의 등보(膺報)에, ‘고성(高城)에 있는 유점사(楡岾寺) 3,000여 간(間)의 몽땅 화재를 당하였으니 공명첩(空名帖)을 전례대로 만들어 주어 수리하는 데 비용에 보태 쓰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소서.’)(『고종실록』 19년 9월 10일)

ㄴ. 伏見今初十日次對條中, 因東伯所報, 高城 楡岾寺空名帖, 限五百張成給之事, 有所陳奏(이달 10일에 있었던 차대(次對)에서 진달한 조항들을 보니 동백(東伯)의 보고와 관련하여 고성(高城) 유점사(楡岾寺)에 공명첩(空名帖)을 500장(張)을 한정해서 만들어 줄 것에 대한 문제를 진달한 것이 있었습니다.)(『고종실록』 19년 9월 29일)

5. 결론

(생략)

<참고문헌>

- 김인경(2023), 「적강형(謫降型) <두껍전>의 새 이본, 전남대 도서관 소장 <독겍전> 연구」, 『溫知論叢』 74, 온지학회, 165-197.
- 김인경·조지형·옴김(2023),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두껍전>』(지역문화교육연구센터 연구총서 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태우(2022), 「『여사소학』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사연구』 35, 국어사학회, 213-253.
- 朴鍾洙 編(1993), 『(羅孫本) 筆寫本古小説資料叢書』 8, 保景文化社.
-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 이준환(2021), 「완판본 한글 고소설 「구운몽(九雲夢)」의 언어적 양상」, 『어문론총』 87, 한국문학언어학회, 57-87.
- 李志映(1992), 「謫降型 <두껍전>의 異本 研究」, 87. 『덕성어문학』 7,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7-245.
- 전광현(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디지털한글박물관(<https://archives.hangeul.go.kr/>)

전남대학교 도서관(<http://lib.jnu.ac.kr/search/detail/CATTOT000000442938>)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18) 아직 기미본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추후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독겁전』의 국어사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전기량(동국대)

이 글은 2022년에 발굴된 전남대학교 소장본 『독겁전』을 대상으로 국어사적 관점에서 자료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고전 소설 <두껍전>의 새로운 이본으로 『독겁전(전남대본)』이 조명된 바 있으나 국어사적 관점에서는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학계에 소개되는 것에 대해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읽으며 들었던 궁금증을 몇 가지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독겁전(전남대본)』에 반영된 언어 양상의 시기와 필사 연대

1.1. 이현희(1994: 58)에서는 19세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그 언어 양상의 특징을 살폈을 때 19세기 전반기는 18세기의 언어 양상과 상당히 유사한 반면, 19세기 후반기는 현대 한국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전반기 활동한 판소리 명창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통해 『독겁전(전남대본)』이 적어도 19세기 중후반기의 언어를 반영했다고 이해할 경우, 그렇다면 20세기의 언어 사실과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발표자가 필사 연대와 반영된 언어 사실의 시기를 달리 추정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2. 이 글에서 『독겁전(전남대본)』에 반영된 언어 양상은 19세기의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겁전(전남대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사의 저본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과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의 이름들이 작품에 언급되었다는 김인경(2023: 169)의 설명을 참고하여 발표자 역시 19세기 언어 사실을 반영한 자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 활동한 인물들의 이름이 작품에 언급되었다는 것이 『독겁전(전남대본)』에 반영된 언어 양상이 적어도 19세기 이전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20세기가 아닌 19세기 중후반기의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글에서는 『독겁전(전남대본)』의 필사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현대어 ‘두꺼비’에 해당하는 형태(독겁<12ㄱ>, 독거비<10ㄱ>, 독겁비<2ㄱ>, 두겁비<7ㄴ>, 독겁비<1ㄴ> 등)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독겁전(전남대본)』에는 20세기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두꺼비’란 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19세기의 언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15)에서는 20세기의 ‘蟾 독겁이 섬<1913 부별천자문, 32a>’의 ‘독겁이’는 19세기 어형이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20세기에 출현하는 ‘독겁’ 등의 형태로 『독겁전(전남대본)』을 20세기의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천자문 류가 아닌 20세기의 신문 자료에서도 ‘독겁, 독겁이, 독거비, 두겁이’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겁전(전남대본)』에 반영된 언어가 19세기의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독겁이의 의몽 <1921.06.12. 동아일보>, 성난 독겁의 배처럼 <1931.09.21. 동아일보>, 숨을 독겁이처럼 험덕이면서 <1940.02.22. 동아일보>; 어미 독거비는 <1925.09.03. 동아일보>, 독거비의 바르르 떠는 꼴이 <1936.03.29. 동아일보>; 예잇 망할 놈의 두겁이 같으니 <1936.03.29.

동아일보>; 역부들은 두꺼비 거름들을 짓는다나 <1922.01.07. 동아일보>, 四월에는 수없는 두꺼비가 큰 나무에 모여서 울었다 <1932.07.16. 동아일보>, 두꺼비가치 아주 추한 형상을 하고 잇스나 <1940.03.07. 조선일보>

2. 『독겁전(전남대본)』에 나타난 언어 양상

2.1. (10)에 대해 ‘나’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여러 기능으로 사용된 예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관형격 조사 결합형으로 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세 한국어에서 대명사 ‘나’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 및 관형격 조사는 모두 ‘-ㅣ’이므로 ‘내’는 주격 조사 결합형 또는 관형격 조사 결합형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내’가 아닌 ‘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ㆍ’와 ‘ㅏ’의 표기 혼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0)의 ‘니’는 주격 조사 결합형과 관형격 조사 결합형 두 가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 주격 조사 ‘-ㅣ’ 또는 관형격 조사 ‘-ㅣ’가 결합한 ‘내’에 다시 주격 조사 ‘-가’나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예가 각각 18세기와 15세기에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한다면¹⁹⁾ (10가, 나)의 ‘니’는 대명사 ‘내’의 이표기이고 각각 주어나 관형어 등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다)의 경우, 『독겁전(전남대본)』에서 ‘나의’의 의미를 가진 어형은 ‘니’로만 나타나거나 ‘나의’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니의’의 형태로 나타난 유일례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3. <독겁전>의 필사자와 <부군전서>의 발신자, 수신자와의 관계

이 글에서는 『독겁전(전남대본)』의 필사자가 책의 주인인 ‘임 소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본문의 뒤에 실린 ‘부군전서라’라는 제목의 글은 집을 떠난 지 오래된 남편에게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필사자의 편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가 필사자와 <부군전서>의 발신자가 동일인이라고 보는 근거 및 <부군전서>의 수신자인 ‘부군’이 필사자의 남편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이유에서 필사자와 편지의 발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동일할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기록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저(小姐)’는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칭하므로 필사자가 그의 ‘남편’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임 소저가 책의 필사자이자 편지의 발신자라면 임 소저가 결혼 후 이전에 자신이 필사해 놓은 책의 뒷면에 남편을 향한 편지를 적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필사의 시기와 편지를 쓴 시기가 달라졌을 것이므로 두 내용에 담긴 언어 양상을 비교한다면 필사 시기를 추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필사 당시에 편지를 쓸 부분을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편지를 쓰는 상황 역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발표자는 ‘부군’을 필사자의 남편으로 이해하였으나 ‘부군’은 일반적으로 남의 남편(夫君)이나, 남의 아버지(父君), 돌아가신 아버지(府君)를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부군전서’의 수신자인 ‘부군’이 필사자의 남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필사자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거나 당대 유행하던 시나, 편지를 함께 필사한 경우도 종종 고소설 필사본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부군전서>도 필사자가 자신이 마음에 들어한 글귀 중의 하나로 함께 필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편지의 끝부분에는 내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중간에 끊긴 것으로 보여 필사자가 정성들여 쓴 편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9) 가. 내가 더를 講흙을 기드리쇼셔(等我去講他) <1721 오윤전비 2:38^나>

나. 엇데 이 내의 疑心^나 불휘를 싸혀샤 우 업슨 道에 가게 ㅎ쇼셔(拔我疑根^나샤 歸無上道게 ㅎ쇼셔) <1462 능엄 2:21^나>

<참고문헌>

- 김인경(2023). 「적강형(謫降型) <두껍전>의 새 이본, 전남대 도서관 소장 <독곶전> 연구」, 『溫知論叢』 74, 온지학회, 165-197.
- 김인경.조지형 율김(2023),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두껍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7-81.

한국어 인용표지의 형성 과정에 대한 試論

이강혁(서울대)

< 차례 >

1. 서론
2. 인용표지 형성 과정
3. 결론

1. 서론

인용은 인간의 발화뿐만 아니라 사유와 인식 등까지 포함하는 언어 표현 수단이자 피인용절, 인용술어, 인용표지 등 다양한 문법적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다.¹⁾ 이 가운데 특히 인용표지에 대해서는 문법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²⁾ 그러나 정작 어떠한 환경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점차 분포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 문법화는 어떠한 공시적인 언어 사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문법 요소로 자리 잡기까지 어떠한 통시적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용표지 ‘하고’의 문법화를 밝히기 위하

- 1) 본고에서 지칭하는 ‘인용’의 개념은 ‘reported speech(Jespersen 1924)’보다는 ‘projection(Halliday 1994)’에 가까우며 발화뿐만 아니라 사유, 인지, 지각경험 등까지 포함한다.
- 2) 본고에서는 “인용절(S)과 인용술어(V) 사이에 위치하여 선행하는 인용절이 후행하는 인용술어의 발화 혹은 사유 내용임을 나타내는 요소”를 지칭할 때 ‘인용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보다 확실한 문법적 해석을 위하여 필자가 위와 같이 별도로 의미를 刪削하였으나 기존에 학계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인용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직관이 닿아 있는 현대한국어에서조차도 ‘-라고’, ‘-고’, ‘하고’를 망라하여 지칭하는 용어를 찾기가 어렵다. 현대한국어 화자들은 상기 3가지 요소에 대하여 모두 인용절과 인용술어 사이에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문법적 직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라고’와 ‘-고’는 조사, ‘하고’는 동사 ‘하-’의 활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제항	뜻풀이와 용례
라고	「조사」((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직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원래 말해진 그대로 인용됨을 나타낸다. 예) 주인이 “많이 드세요.”라고 권한다.
고	「조사」((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어))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아직도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다	「동사」((인용 조사 없이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문장 뒤에 쓰여)) 인용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말. 예) 보초는 “손 들어!” 하고 크게 외쳤다.

사전 체계의 기술 문제 혹은 규범상의 문제 등은 차치하더라도 뜻풀이를 보았을 때, 특히, ‘-라고’와 ‘하고’에 대해서는 모어화자조차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본고는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만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문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자리 잡은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문법적인 기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져 문법화가 완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모종의 변화 과정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한국어에서 구분하고 있는 ‘-라고’, ‘-고’, ‘하고’뿐만 아니라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중세한국어의 ‘하야’, ‘하고’를 통틀어 지칭하기 위하여 ‘인용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 먼저 ‘ᄃ고’가 처음 출현한 환경, 즉 변화의 시발점을 특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시작된 변화가 인용구문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점차 분포를 확대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S_{인용문} ᄃ야 V_{인용술어}] 구성의 ‘ᄃ야’가 인용표지 ‘ᄃ고’의 선대형이었다는 이현희(1986), 임동훈(1995)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문법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더하기 위하여 15세기와 16세기 용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이미 완료된 시기의 자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시기의 자료를 천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용표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17세기 이후의 논의로 집중되어 있는 연구사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본고의 논의는 연구사의 공백을 적지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의 주안점은 인용표지의 선대형인 ‘ᄃ야’의 자리에 ‘ᄃ고’가 등장하는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ᄃ고’가 출현하게 된 모종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조명 받지 못했던 15, 16세기 인용표지 관련 용례들을 살펴보고 인용표지 형성 과정에 대한 문법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문법화의 태동은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유표적이며 다각적인 측면에서부터 발생하며 어휘, 문장, 언해 과정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무표적 모습이 아닌 유표적인 양상 속에서 변화의 시작을 포착할 수 있다.³⁾

왜 ‘ᄃ야’의 자리에 ‘ᄃ고’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일반적으로는 이기갑(1981)을 시작으로 연결어미 ‘-아’와 ‘-고’ 사이의 의미론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며 이후 권재일(1998)과 같이 근대한국어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법적 해석을 시도하여 왔다. 필자 역시 선학들의 논의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미 17세기에 인용표지로 판단되는 문법 요소가 등장하는바, 이와 동일한 시기의 용례들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변화의 시작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용표지가 등장하기 이전으로 시기를 앞당겨 15세기와 16세기의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단순히 어미 ‘-아 > -’고의 의미 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언급하였던 느슨한 의미론적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용표지가 사용되는 ‘인용구문’이라는 틀 안에서 변화의 시작점을 특정하고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인용표지 형성 과정

2.1. 고대한국어 시기 ‘인용표지’의 존재

한국어에서 이른바 ‘인용표지’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언제부터 포착되는가? 일찍이 고대한국어 시기부터 인용표지와 같은 문법 요소가 확인되는데, ‘- / :’를 비롯하여⁴⁾ ‘ㄷ ㅅ’의 기능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인용표지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3) 본고에서 언급한 소위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설명의 편의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의 층위로 명확히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능력 밖일뿐더러 변화 과정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상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의 문법적인 해석은 어디까지나 오로지 해당 용례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체계화 논의는 추후 보완하고자 한다.

4) 인용 및 명명구문에 나타나는 ‘- / :’와 관련하여서는 인용 조사 혹은 명명 조사(박진호 1997, 1998; 장경준 2009) 또는 서술격 조사(남풍현 2018) 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특히나 최근 전기량(2018, 2020, 2023)에서는 종합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서술 보조사’로 규정하였으며 문장을 종결할 때에는 종결어미 ‘- ㅅ’와 유사하고 내포문을 종결하기도 하여 인용 조사로 이해된다고도 하였다. 결국 ‘- / :’에 대하여 ‘종결’의 기능을 꼽을 수 있지만 다양한 환경에 출현하므로 위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일관된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법적인 지위와 관련된 이견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본고에서는 ‘- / :’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 가. <합부금광명경 권3, 05:08>⁶⁾

Q: 佛₁ {言}乃ニ尸 善男子₃ 何₁ッ₁乙{者} 波羅蜜義₁₁ハ₁ッ₁ロノ今ロッ₁ナヲ尸入₁

A: 佛[33(·)]言善男子[22(·)]何[34(/)]者波羅蜜義[32~42(·),15(·),=23~33(·)]

B: 佛[1]言善男子[3]何[1]乙者波羅蜜義[ハ,ノ今ロ,ッ₁ナヲ尸入₁]

C: 佛₁ 言(니니尸) 善男子₃ 何₁ッ₁乙 波羅蜜 義(11)ハ₁ノ今로ッ₁ナヲ尸入₁

D: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야, 무엇을 波羅蜜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나. <합부금광명경 권3, 06:22-06:23>

Q: 善男子₃ 云何₁ (初地)乙 而₁ 名₁下 歡喜₁₁ハ₁ッ₁로今로ッ₁ナヲ尸入₁

A: 善男子[22(·)]云(何)(初地)而名[54(·)]歡喜[32~42(·),15(·),23~33(·)]

B: 善男子[3]云何(初地)而名[下]歡喜[ハ,ノ今로,ッ₁ナヲ尸入₁]

C: 善男子₃ 云何 (初地) 而 名₁下 歡喜(11)ハ₁ノ今로ッ₁ナヲ尸入₁

D: 선남자야, 어찌하여 初地를 일컬어 歡喜라고 하는가 하면

(2) <유가사지론 권3, 19:07-19:09>

A: 又諸世間[22~32(·)]依此[34(·),22(·)]假立種種名想[34(·)]謂之[34(·),22(·)]有情[53(·)]人[53(·)]與[42(·)]命者[53(·)]生者[53(·)]意生[53(·)]及儒童[53(·)]等[32~42(/),21(·),구결자(11)ハ]故[41(·)]名[54(·)]為意[53(·)?,+55(·)]

B: 又諸世間[11]依此[乙,3]假立種種名想[乙]謂之[乙,3]有情[乙]人[乙]與[乙]命者[乙]生者[乙]意生[乙]及儒童[乙]等[1]ハ₁ハ₁故[乙]名[下]為意[乙,x₃]

C: 又 諸 世間₁₁ 此_乙 依₃ 種種 名想_乙 假立 之_乙 謂₃ 有情_乙 人_乙 與_乙 命者_乙 生者_乙 意生_乙 及 儒童_乙 等₁ハ₁ハ₁故_乙 名₁下 {為}意_乙x₃

D: 또 모든 世間이 이것에 의하여 갖가지 名想을 假立하여 그것을 일러 有情이니 人이니 命者이니 生者이니 意生이니 儒童이니 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컬어 意라 하며,

자토석독구결에서 ‘11ハ’은 오직 《합부금광명경》권3에서만 발견되지만 《유가사지론》권5와 권8에는 ‘11ハ’에 대응되는 단점이 찍혀있고 (2)에서는 32~42(/)가 현토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11ハ’이 각 필구결자로 기입되어 있다(장경준 2009: 258-261 참조).

비교적 최근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유가사지론》권6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11ハ’과 관련된 용례들이 확인된다.

5) 본 절에서 제시하는 모든 용례는 기존 공동 연구 잠정 해독안 및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의 논의에 맞게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6) 점토석독구결의 예문 제시는 장경준(2003/2005)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A는 점토의 판독안, B는 점토의 해독안, C는 B를 바탕으로 한 석독구결문, D는 C를 바탕으로 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다. 추가적으로 《합부금광명경》 권3의 용례에서 Q는 자토석독구결을 나타낸다.

(3) 가. <유가사지론 권66, 12:10-12:11>

A: 何以故[33~34(·)]於內[44(·)]可得[42(\\),33(/)]外處所攝[+15~25(-),34(·)]亦名[54(·)]內[32~42(·),43(·)]故[53(·)]

B: 何以故[ㄱ 1]於內[+]可得[ㄴ ㄷ ㄹ, ㅁ 1]外處所攝[ㄴ ㄹ, ㅂ]亦名[ㄷ]內[ㄷ, ㅁ]故[ㄷ]

C: 何以故(ㄷ ㅁ) ㄱ 1 {於}內+ 得ㄴ ㄷ {可}ㄷ ㅁ 1 外處 攝ㄴ ㄹ 所 ㅂ 亦 名ㄷ 內 (ㄷ) ㅁ ㅁ 故 ㄷ

D: 어째서인가 하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밖의 포섭하는 바를 또한 일컬어 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나. <유가사지론 권66, 04:06-04:07>

A: 何[43(·)]故[21(·)]世尊[33(·)]但說[22(·)]有情[33(·)]由食[34(·),=22(·)]而[43(·)]住[32~42(·),41~51(·),15(·)]

B: 何[ㅁ]故[ㄴ]世尊[ㄱ]但說[ㄷ]有情[ㄱ]由食[ㄷ, ㄹ]而[ㅁ]住[ㄷ, ㅁ 1, ㄴ ㅁ ㄱ]

C: 何ㅁ 故ㄴ 世尊ㄱ 但 說ㄷ 有情ㄱ 食 ㅂ 由 ㄹ 而ㅁ 住(ㄷ) ㅁ ㅁ 1 ㄴ ㅁ ㄱ

D: 무엇때문에 世尊은 다만 설하여 有情은 食을 말미암아 住라고 한다 하는가?

다. <유가사지론 권66, 13:21-22>

A: 何[43(·)]故[21(·)]說言[22(·)]諸所造色[33(·)]大種[23(·)]所造[32~42(·),=51(·),15(·)]

B: 何[ㅁ]故[ㄴ]說言[ㄷ]諸所造色[ㄱ]大種[ㄷ]所造[ㄷ, 1, ㄴ ㅁ ㄱ]

C: 何ㅁ 故ㄴ 說(ㄹ) 言ㄷ 諸 造 所 色ㄱ 大種ㄷ 所造(ㄷ) ㅁ(ㅁ) 1 ㄴ ㅁ ㄱ

D: 무엇 때문에 모든 짓는 바의 물질은 大種의 짓는 바라고 한다 말하는가?

명사와 인용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ㅁ ㅁ’를 통하여 고대한국어 시기부터 인용표지와 같은 문법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ㅁ ㅁ’은 중세한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 어형이며 ‘ㅎ야’ 정도가 인용표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므로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용표지의 기능과 유사한 문법 요소가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2.2. 중세한국어 인용표지 ‘ㅎ고’의 태동

보다 확실한 언어 내적 천작을 위해서는 단연 중세한국어 시기의 공식적인 인용 구문 양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앞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세한국어 시기 인용 구문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였으나 결국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⁷⁾

(2) 가. [V_{인용술어} S_{인용절} (ㅎ-)]

나. [S_{인용절} (ㅎ야) V_{인용술어}]

중세한국어에서 인용구문은 (2)와 같이 크게 인용절(S)이 인용술어(V)에 후행하는 유형과 인용절이 인용술어에 선행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2나)에서 인용절과 인용술어 사이에 존재하는 ‘ㅎ야’를 인용표지의 선대형으로 볼 수 있다.⁸⁾ 필자 역시 (2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ㅎ야’의 기능이 이후에 나타날 인용표지 ‘ㅎ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변화의 시작점

7) 이지영(2017, 2021, 2022)를 참고할 수 있다.

8) 이와 관련해서는 2.4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이 (2)와 같은 무표적인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구조의 유표적인 인용구문에서부터 확인된다는 사실을 첨언하고자 한다.⁹⁾

먼저 (2가)와 (2나)와 같은 무표적인 인용구문의 유형 차이는 주로 문체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왔으나 아래의 용례들을 확인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도 생각된다.¹⁰⁾

(3) 가. 世尊의 請_{ᄃᆞᆫ}스_{ᄃᆞᆫ}보_{ᄃᆞᆫ}되_{ᄃᆞᆫ} 如來 長常 이어긔 겨쇼셔 如來옷 아니 겨시면 내 모딘 므스물
내야 菩提를 몬 일우리로소이다 ᄃᆞᆫ야 세 번 請_{ᄃᆞᆫ}스_{ᄃᆞᆫ}바_{ᄃᆞᆫ}닐(爾時龍王 長跪合掌勸請世
尊 唯願如來常住此間 佛若不在我發惡心無由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唯願如來留神垂
念常在於此 慇懃三請如是_{ᄃᆞᆫ}不止<월석 7:48ㄴ-49ㄱ>11)

나. 또 ᄃᆞᆫ 臣下를 기결_{ᄃᆞᆫ}야 甲 넙고 갈 싸_{ᄃᆞᆫ} 들오 善容이그에 가 ᄃᆞᆫ오_{ᄃᆞᆫ}되_{ᄃᆞᆫ} 子_{ᄃᆞᆫ} 命이 닐
웻 부니로소니 아미레나 므스 ㄹ장 노라사 ᄃᆞᆫ리이다 주근 後에사 ㄴ오_{ᄃᆞᆫ}흔들 미츠리
여 ᄃᆞᆫ야 ᄃᆞᆫ르_{ᄃᆞᆫ}고<석보24: 28ㄱ>12)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용구문의 유형은 (2가)도, (2나)도 아니며 두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유표적인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구조이다. 다시 말해, 인용술어 ‘請_{ᄃᆞᆫ}-’와 ‘니르-’가 인용절 앞과 뒤에 모두 존재한다. 또한 후행하는 ‘請_{ᄃᆞᆫ}-’와 ‘니르-’의 발화 내용이 선행하는 인용절과 일치하므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ᄃᆞᆫ’는 (2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ᄃᆞᆫ’와 같은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3가)에서 ‘ᄃᆞᆫ’와 ‘請_{ᄃᆞᆫ}-’ 사이에 존재하는 ‘세 번’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는 (3)에 대응하는 원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¹³⁾ 우선 ‘세 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문 원문의 ‘①唯願如來常住此間 ②佛若不在我發惡心無由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③唯願如來留神垂念常在於此’을 통하여 세존에게 총 3가지의 내용을 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연해 과정에서 마지막 ③에 해당하는 ‘唯願如來留神垂念常在於此’이 누락되고 바로 뒤이어 나타나는 ‘慇懃三請如是_{ᄃᆞᆫ}不止’을 ‘ᄃᆞᆫ’ 세 번 請_{ᄃᆞᆫ}스_{ᄃᆞᆫ}바_{ᄃᆞᆫ}닐’이라고 연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③이 누락된 이유는 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2가)와 같이 인용술어가 인용절에 선행하는 유형은 주로 번역에 영향을 받은 연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체로 파악해온 것과는 달리, 위의 (3가)는 이와 같은 번역 문체임에도 불구하고 한문 원문에서 인용술어가 인용절의 뒤에 또 다시 나타나므로 두 유형이 혼재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3나)의 경우는 대응되는 원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용례들은 (3)과 동일한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유형, 즉 유표적 인용구문이지만 ‘ᄃᆞᆫ’의 자리에 ‘ᄃᆞᆫ’가 나타나는 용례들이다.¹⁴⁾

9) 대부분의 중세한국어 인용구문은 (2)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2가)와 (2나)는 무표적인 인용구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유형은 무표적 인용구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며 앞으로 본고에서 소개하는 용례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소수의 특수한 유형이므로 유표적 인용구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2)의 유형들을 지칭할 때에는 ‘무표적 인용구문’, 그리고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유형을 지칭할 때에는 ‘유표적 인용구문’이라 하고자 한다.

10) 이지영(2017: 65 각주 10)을 참고할 수 있다.

11) 이현희(1994: 375)에서는 (3가)에서 ‘ᄃᆞᆫ’가 출현하는 원인에 대하여 피인용절에 권유의 문장과 평서문이 함께 나타나고 후행하는 ‘請_{ᄃᆞᆫ}스_{ᄃᆞᆫ}바_{ᄃᆞᆫ}닐’ 앞에 ‘세 번’이 출현하는 등과 같이 복합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12) 이현희(1986: 208)의 (19)를 참고하였고 대응하는 원문은 없다.

13) 《월인석보》는 다른 연해서와 다르게 한문 원문이 병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17년 4월 국립국어원에서 배포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말뭉치에서는 연해문에 상응하는 한문 원문을 찾아 병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한문 원문과 월인석보 본문 사이의 대략적인 번역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원전에는 실제로 한문 원문이 전하지 않으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책에 불과할 것이다.

14) 혹자는 본고의 ‘유표적 인용구문’에 대하여 [V_{인용술어} S_{인용절} ᄃᆞᆫ-] 구조의 무표적 인용구문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절(S) 뒤에 등장하는 ‘ᄃᆞᆫ-’는 선행하는 인용술어(V)의 대동사이지만 인용술어로 불

(4) 阿難이 슬보되 乞食_호라 가 길혜 六師의 무를 相逢_호니 薩遮尼乾이 辱바티더이다 호고 슬보대
(阿難言 向者乞食 道逢六師徒黨 薩遮尼乾 見毀罵辱) <월석 20:13ㄴ-14ㄱ>

(4)의 경우도 인용술어 ‘슬-’이 인용문의 앞과 뒤에 모두 나타나므로 (3)과 동일한 유표적 인용구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가)에서는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한문 원문에도 존재하였지만 반면 (4)에서는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슬보대’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3가)와 (4)는 언해문에 대해서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가 있다. 그러나 혹자는 (1)의 ‘호고’에 대하여 인용표지가 아니라 2.2에서 확인한 (7)_{용술어}와 같이 동일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으나 한문 원문의 구조는 상이한 것이다.

(5) 이 呪 듣즈온 전츠로 第八地에 건내뻬여 곧 盟誓_호야 닐오되 ㅎ다가 내 當來에 能히 一切 衆生을 利益게 ㅎ얌직거든 내 모매 千手 千眼을 나게 ㅎ쇼셔 호고 이 願을 發_호니. 즉재 모매 千手 千眼이 다 ㄴ자 十方 大地 | 六種 震動_호며(聞此呪故超第八地即發 盟誓言 若我當來堪能利益一切衆生 令我身生千手天眼 發是願已 應時身上千手千眼悉皆 具足十方大地六種震動) <영험약초 1ㄴ>

(5)도 마찬가지로 인용절의 앞에는 ‘닐오디’, 뒤에는 ‘이 願을 發호니’가 나타나므로 (3-4)와 동일하게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와 같은 구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는 (4)와 다르게 인용절에 후행하는 ‘이 願을 發호니’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 ‘發是願已’이 존재하므로 (3가)와 한문 원문의 구조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용구문 용례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아래 (6)과 같다.

(6)

예문 \ 유형	언해문	한문 원문
(3가)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u>호야</u> V _{인용술어}]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V _{인용술어}]
(3나)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u>호야</u> V _{인용술어}]	해당 사항 없음
(4)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u>호고</u> V _{인용술어}]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5)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u>호고</u> V _{인용술어}]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V _{인용술어}]

종래에는 (2)와 같이 무표적 인용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용술어의 위치 차이를 번역투와 같은 문체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두 유형이 혼재된 유형인 유표적 인용구문을 확인한 결과, 위의 (6)과 같이 언해문은 모두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구조이지만 한문 원문에서는 언해문과 동일하게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 구조인 경우도 있는 반면,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존재하지 않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 구조도 있으며 심지어 (3나)와 같이 언해문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언해문과 한문 원문의 구조를 비교하였을 때, 무표적 인용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표적 인용구문에서는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에 ‘호-’가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인용절과 인용술어 사이에 ‘호야’ 혹은 ‘호고’가 반드시 개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인용절에 후행하는 동사가 ‘호-’로 나타난다면 음성적 동형성을 회피하고자 ‘호야’가 나타나지 않는다(이현희 1986: 18-19).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유표적 인용구문에 대하여 무표적 인용구문의 두 유형 [V_{인용술어} S_{인용절} (호-)]와 [S_{인용절} (호야) V_{인용술어}]가 혼재된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용술어의 위치 차이가 반드시 문체적 특징에만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2나)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용절과 인용술어 사이에 나타나는 ‘하야’가 위의 (4)와 (5)에서는 ‘하고’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그렇다면 (4)와 (5)의 ‘하고’는 (2나)의 ‘하야’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고’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술븐대’와 ‘이 願을 發하니’의 발화 내용이 각각 ‘하고’에 선행하는 인용절 ‘乞食하라 가 길헤 六師이 무를 相逢하니 薩遮尼乾이 辱바티더이다’와 ‘하다가 내 當來에 能히 一切 衆生을 利益게 하얌직거든 내 모매 千手千眼을 나게 하쇼셔’에 해당되므로 (4)와 (5)의 ‘하고’를 (2나)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야’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용표지 ‘하고’의 모습은 15세기부터 확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인용절과 인용술어 사이에 존재하는 ‘하야’가 ‘하고’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필자의 관건으로는, 15세기에서 유표적 인용구문인 (4)와 (5)의 용례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하야’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직 15세기에서 본격적으로 인용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4)와 (5)의 ‘하고’는 (2나)의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야’와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2가)에서 인용절에 후행하는 ‘하-’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7) 곧고대 문로딘 疑心을 決斷티 몬하느다 하고 시름하야 잇거늘 <월석 11:3나>

바로 (4)와 (5)의 ‘하고’에 대해서 위의 (7)과 같은 ‘하고’로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4)와 (5)의 ‘하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①인용절(S)과 인용술어(V) 사이에 위치하여 선행하는 인용절이 후행하는 인용술어의 발화 혹은 사유 내용임을 나타내는 요소, 즉 인용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고’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②인용술어의 대동사로서 인용절에 후행하는 ‘하-’의 활용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8) 15세기 유표적 인용구문에 나타나는 ‘하고’에 대한 해석 가능성

① 인용표지	[V인용술어]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
② 용언활용	[V인용술어]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

용언의 활용형인 (7)의 ‘하고’는 뒤에 ‘시름하-’와 같은 일반적인 동사가 나타난 반면, (4)와 (5) 같은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확인되는 ‘하고’는 ‘숯-’와 같은 화법동사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의 ‘하야’ 자리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인용표지 ‘하고’로 변화하는 과정의 시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용표지 ‘하고’로의 변화 과정은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후의 변화가 포착되어야 변화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변화의 과정에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연속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16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하고’가 확인되며 동시에 변화의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¹⁵⁾

본 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무표적 인용구문에 대하여 (2)와 같이 크게 두 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두 유형의 차이가 반드시 번역투와 같은 문체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둘째, 변화는 유표적이고 제한적인 분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3-5)와 같이 무표적 인용구문의 두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유표적 인용구문에서부터

15) 2.3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인용표지 ‘ᄃ고’의 문법화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 2.3에서는 16세기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확인되는 ‘ᄃ고’의 용례를 살펴보고 변화의 분포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 대하여 문법적 해석을 더하고자 한다.

2.3. 16세기 인용표지 ‘ᄃ고’에 대한 문법적 해석

앞서 15세기에서는 무표적 인용구문의 두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인용표지 ‘ᄃ고’의 문법화가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에 이어서 16세기는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ᄃ고’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포착되는 시기이므로 변화의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화의 초창기에 가까울수록 분포가 제약되고 더 제한된 분포는 변화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므로(김태우 2022: 96) 변화의 방향성은 유표적인 양상에서 무표적인 양상으로 점차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절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ᄃ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방향성 및 분포의 확대를 포착할 수 있는데, ‘통사적 확대’와 ‘어휘적 확대’를 거쳐 문법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통사적 확대’ 측면에서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 ᄃ고 V_{인용술어}]의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S_{인용절} ᄃ고 V_{인용술어}] 구조를 무표적 인용구문으로까지 분포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어휘적 확대’ 측면에서는 인용술어가 준화법동사인 경우에서부터 화법동사인 경우로까지 확대되었다. 용례를 통하여 문법화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2.3.1. 통사적 확대

16세기에는 다양한 문헌에서 유표적 인용구문에 나타나는 ‘ᄃ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가장 이른 시기에 포착되는 용례는 16세기 초엽 혹은 중엽의 문헌으로 추정되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하 『장수경언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⁶⁾

- (1) 일체 룡왕이며 일체 야찰신왕이며 ... 일체 신왕ᄃ리 각각 저히 권속ᄃ들 ᄃ리고 와 부ᄃ
 텃의 네비ᄃ고 ᄃ ᄃ스모로 손 싸당을 마초고 술오ᄃᄃ 세존하 ... 이 경을 룡히 조ᄃ
 ᄃᄃ 가져 이시면 우리 제왕ᄃ리 모든 귀신ᄃ들 금지ᄃ고 그 사르물 해ᄃ야 횡스ᄃ를 만
 나디 아니케 호령이다 ᄃ고 각가기 발원ᄃᄃ니라(一切龍王 一切夜叉王 ... 一切諸王 各
 并眷屬 禮拜於佛 同心合掌 作如是言 世尊 ... 若能清淨 書持是經 我等諸王 禁攝諸鬼
 不令加害 被橫死苦) <장수경 56>

(1)에서 ‘일체 룡왕이며 ... 신왕ᄃ리’는 인용술어 ‘술오ᄃ’와 ‘발원ᄃ니라’의 주체이다. 이에 (1)은 2.2에서 살펴본 15세기 용례들과 동일하게 [V_{인용술어} S_{인용절} ᄃ고 V_{인용술어}]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혹자는 (1)의 ‘ᄃ고’에 대하여 인용표지가 아니라 2.2에서 확인한 (7)의 ‘ᄃ고’와 같이 인용절에 선행하는 인용술어 ‘술오ᄃ’의 대동사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ᄃ고’에 후행하는 ‘각가기 발원ᄃ니라’에 대하여 ‘ᄃ고’에 선행하는 피인용절의 내용과는 무관하며 이후에 이어지는 별도의 사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5세기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서도 본격적으로 ‘ᄃ고’가 인용표지로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확언할 수 없으므로 일견 타당함 직하

16) 『장수경언해』의 서지적, 언어적 측면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행 시기를 16세기 초엽으로 추정하기도 하며 밀교 계통의 경전인 만큼 정전(正典) 계통의 경전에 비하여 당대의 구어를 더 잘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김태우 2022: 97-104 참조).

다.

그러나 같은 문헌에서 동일한 한문 원문 구조를 가진 아래 (2)의 용례를 참고한다면 (1)의 ‘하고자’는 인용표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2) 가. 그뵘 디신드리 안자다가 니러나 닐오디 세존하 헝혀 부터 데지 이 당슈멸죄호제동
 즈경을 맞다 가전는 디면 우리 디신들히 상해 삿 마술 내여 그 사르물 즈윤게 헝
 며 그 모매 목수물 더으게 헝며 ... 헝혀 즈시글 나하도 난 닐웨브터 우리 디신들
 히 반드시 상해 쁘려 이셔 명을 긋디 몬^ㅎ게 호령이다 헝 발워니라(爾時 牢固地天
 從座而起 作如是言 世尊 若佛弟子 受持此 長壽滅罪 護諸童子經者 我等地天 常出地
 味 滋潤彼人 令其身中 增益壽命 ... 若諸童子 生七日 我等地神常當護之 無令斷命)
 <장수경 57ㄱ-57ㄴ>

나. 그 즈식드리 익미히 주거셔 각각 땡세코 발원호디 우리 나온 다마다 제 즈시기 되
 여 즈라 납신커든 저를 두고 우리 주거셔 술트리 설워^ㅎ게 헝자 헝 원으로 그러터
 니(此子被殺 各發誓言 願我生生世世 常作其子 便即分離 令其苦切 生大悲痛) <장
 수경 40ㄴ>

(2)은 (1)과 마찬가지로 『장수경언해』의 용례이며 한문 원문의 구조 또한 [V_{인용술어} S_{인용절}]로 동일하다. 그러나 언해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2)의 언해문은 모두 [V_{인용술어} [S_{인용절} 헝 NP]]와 같은 구조로 언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NP’는 인용술어의 어근에 해당하는 ‘발원(2가)’ 혹은 ‘원(2나)’이며 [S_{인용절} 헝 NP]와 같은 구조이므로 ‘NP’에 해당하는 내용은 단연 선행하는 인용절로 파악할 수 있다.

(3)

한문 원문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언 (1)	술오디	세존하 ... 호령이다	하고자	각가기 발원 ^ㅎ 니라
해 (2가)	닐오디	세존하 ... 호령이다	헝	발워니라
문 (2나)	발원호디	우리 ... 헝	헝	원으로 그러터니

이들의 언해 양상을 정리하면 위의 (3)과 같은데,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공통적으로 한문 원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언해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언해한 부분에서 (1)과 (2가, 나)의 언해 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하고자’와 ‘헝’은 등가 요소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1)의 ‘하고자’에 대하여 다분히 인용표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표적 인용구문 중에 한문 원문의 구조가 (1)과는 달리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인 경우도 존재한다.

(4) 他日에 王의 見^ㅎ야 콜으샤디 王의 都를 헝는 者를 臣이 五人을 아노니 그 罪를 아는
 者는 오직 孔距心이러이다 하고자 王을 爲^ㅎ야 誦^ㅎ신대(他日에 見於王曰 王之爲都者를
 臣知五人焉이로니 知其罪者는 惟孔距心이러이다 하고자 爲王誦之^ㅎ신대) <맹자언해
 1590 4:14ㄴ-15ㄱ>

한문 원문에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 술어가 존재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언해 양상을 보인 (1)과는 달리 (4)에서는 구결문의 ‘하고자 爲王誦之^ㅎ신대’에 대하여 ‘하고자 王을 爲^ㅎ야 誦^ㅎ신대’

로 언해가 되어 있다. 이때 인용절에 선행하는 인용술어 ‘글으샤디’와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誦하신대’의 주체는 모두 ‘臣[孟子]’으로 같으며 둘 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확인할 수 있다. 언해문 인용절 앞뒤에 위치한 인용술어의 내용이 모두 인용절에 해당하며 한문 원문에서도 ‘爲王誦之’의 ‘之’는 피인용절 ‘之爲都者臣知五人焉知其罪者惟孔距心’을 지칭하므로 (4)의 ‘하고’ 역시 (1)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용구문 용례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예문 \ 유형	언해문	한문 원문
(1)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하고 V _{인용술어}]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4)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하고 V _{인용술어}]	[V _{인용술어} S _{인용절} V _{인용술어}]

2.2에서 살펴보았던 15세기 용례들과 동일하게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하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문 원문에서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의 유무와 관계없이 언해문에서는 모두 [V_{인용술어} S_{인용절} 하고 V_{인용술어}]의 구조로 번역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인용표지가 출현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한문 원문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지금까지 간본 위주로 ‘하고’의 용례를 살펴보았다. 간본은 대부분 언해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문 원문의 영향이 크지만 ‘하고’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문 원문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는 한글 편지에서도 당연히 ‘하고’의 존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6)을 살펴보자.

- (6) 가. 네 아바니미 ... 그도 열단 말 보내고 네게과 네 오라비와는 못 주로다 코 시워리 거늘 <순천 035>
 나. 뉴에 슈기 어미 올 듯하건마는 ... 저웃 오고져 하면 드려오고져 하니 제 아바니미 집도 뷔오 시온시온하니 코 구지즈니 겨규 아닌노라 <순천 079>

(6가)는 친정어머니인 ‘신천 강씨’가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민서방 집’에는 열다섯 말이나 물건을 보냈는데 ‘순천 김씨’와 ‘순천 김씨의 오라비’에게는 물건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¹⁸⁾ (6나)도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인 ‘신천 강씨’가 딸인 ‘순천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이 골자이다. 친정어머니 ‘신천 강씨’가 자식들을 내보내고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지인 ‘슈기 어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고자 하는데, ‘슈기 어미’의 아버님이 “(슈기 어미 네가) 집도 비우고 쉽게 쉽게 하는 것이냐?” 하고 꾸짖으니 ‘슈기 어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⁹⁾ (6가)와 (6나) 모두 ‘코’에 후행하는 인용술어의 내용이 ‘코’에 선행하는 인용절에 해당하므로 이때 ‘코’ 역시

17) 이를 토대로, 고대한국어 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인용표지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인용표지라는 문법 요소는 15-16세기 언중들의 인식 속에 이미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2.4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8) (6가)의 ‘시워리’는 ‘수으워리’와 관련시켜 ‘수선거리다’,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증얼거리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조항범 1998: 201, 504). 아울러 ‘수스워리’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는 이현희(1997: 722)와 장윤희(2017)를 참고할 수 있다.

19) (6나)의 ‘시온시온하’에 대해서는 ‘쉽게 쉽게 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였다(조항범 1998: 369, 403 참조). 여기에서 어미 ‘-니’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므로 화제는 허라체이다. 16, 17세기 언간에서 반말의 어미 ‘-니’, ‘-리’는 평서형은 없고 의문형으로만 나타나므로 본문의 ‘-니’ 역시 의문형 어미로 볼 수 있다(황문환 2002: 156 참조).

(1)과 (4)에서 확인한 ‘ㅎ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6)은 (5)와 같은 유표적 인용구문이 아니라 [S_{인용절} ㅎ고 V_{인용술어}]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가진 무표적 인용구문이다. 다시 말해, 간본인 (1)과 (4)는 모두 유표적 인용구문인 반면 한글 편지의 용례인 (6)은 모두 무표적 인용구문인 것이다. 간본보다는 한글 편지에 구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언어의 변화는 구어에서부터 일어났을 확률일 높은 만큼, 비슷한 시기라도 한글 편지 용례인 (6)이 보다 언어의 변화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ㅎ고’가 사용되는 인용구문의 통사적 구조는 16세기를 전후로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무표적 인용구문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3.2. 어휘적 확대

지금까지 16세기에 등장하는 ‘ㅎ고’와 ‘코’의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통사적 분포는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무표적 인용구문으로 확대되었지만 인용술어의 어휘적인 분포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이에 본 항에서는 ‘ㅎ고’와 ‘코’에 후행하는 인용술어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래의 (7)은 2.3.1에서 살펴본 16세기 ‘ㅎ고/코’에 후행하는 인용술어를 정리한 것이다.

(7) 16세기 ‘ㅎ고/코’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1)	발원 ㅎ-
(4)	誦 ㅎ-
(6가)	시위리-
(6나)	구짚-

이현희(1994: 329-413)에서는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화법동사 ‘니르-’가 사용된 화법구문에 대하여 ‘포괄적 화법구문’이라 하였고, 이와는 달리 ‘니르-’의 하의어로서 의미영역이 제한적이고 유표적인 화법동사 ‘문-’, ‘出令 ㅎ-’, ‘命 ㅎ-’, ‘讚歎 ㅎ-’ 등에 대해서는 준화법동사라 칭하며 이들이 사용된 화법구문은 ‘유표적 화법구문’으로 분류하였다.

(8) 네 이제 무리 날오디 和合을 브튼 전츠로 世間엿 모든 變化스 相을 내느니라 ㅎ느니
(汝 | 今에 問言호디 由和合故로 出生世間엿 諸變化相이라 ㅎ느니)<능엄 3:69ㄴ>

위의 (8)과 같이 ‘문-’이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의 의미영역을 제한하는 양상을 토대로 ‘문-’에 대하여 ‘니르-’의 하의어이자 유표적 화법동사, 즉 준화법동사로 판단한 것이다. 아래 (9)의 용례들을 살펴본다면 (7)의 인용술어에 대해서도 모두 준화법동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9) 가. 長者 | 아드려 發願하야 닐오디 내 이제 未來際 못드록 못 니르 행 劫에 이 罪苦六道 衆生 爲하야 너비 方便을 펴 다 解脫케 하고사 내 모미 佛道를 일워지이다 하니(時長者子 因發願言 我今盡未來際 不可計劫我今盡未來際 不可計劫 爲是罪苦六道 衆生 廣設方便 盡令解脫 而我自身 方成佛道) <월석 21:18ㄴ-19ㄱ>
- 나. 그제 더 童子 | 發願하야 닐오디 惠施善根 功德으로 一天下 一繖蓋王을 得하야 이 고대 나 諸佛을 供養하습게 하쇼셔(時彼童子而發願言 以惠施善根功德 令得一天下 一繖蓋王 卽於此處生得供養諸佛) <월석 25:63ㄴ>
- 다. 師 | 구지저 니르샤디 네 오직 能히 큰 몸 나토고 能히 저근 몸 나토디 못하느다 (師 | 叱之曰하샤디 你 | 只能現大身하고 不能現小身하느다) <육조 21ㄱ>
- 라. 四衆人 中에 怒흔 모습 낸 사르미 모딘 이브로 구지저 닐오디 이 智慧 업슨 比丘 | 어드러셔 오뇨(四衆之中 有生瞋恚 心不淨者 惡口罵詈言 是無智比丘從何所來) <석보 19:30ㄱ-30ㄴ>
- 마. 潭州人 ㅈ을 안히 甚히 淳朴하며 네로외니 員의 ㅈ 안한 숫두워려 블로미 업도다 (潭府邑中甚淳古 太守庭內不喧呼) <두초 9:31ㄱ>
- 마. 王이 婆羅門 블러 닐오디 내 아들들홀 보라 나 업슨 後에 ㅈ 王 드외료(王欲試諸子 呼婆羅門言 觀我諸子於我滅後誰當作王) <월석25:68ㄱ>
- 마. 소리 수스워려 닐오미 잇는 듯 하니 우루미 저기 아히와 다뭇 곤도다(聲音啞啞如有謂 號啼略與嬰兒同) <두초 17:6ㄱ-6ㄴ>

(9가)와 (9나)는 ‘發願하-’가 ‘니르-’를 수식하고 있으며 한문 원문의 경우도 ‘發願’이 ‘言’을 수식하고 있다. (9다)와 (9라)에서는 ‘구지저-’이 ‘니르-’를 수식하고 있다. 한문 원문에서는 ‘之’를 통하여 ‘叱’가 ‘曰’을 수식하고 있으며 ‘罵詈’가 ‘言’을 수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마)는 ‘수스워려-’의 ‘*숨-(喧)’을 어근의 일부로 삼고 있는 ‘숫두워려-’의 용례인데(장윤희 2017: 53-56 참조), ‘브르-(呼)’를 수식하고 있다. (9마)에서 ‘브르-’가 ‘니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브르-’는 준화법동사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준화법동사 ‘브르-’의 의미영역을 제한하는 (9마)의 ‘숫두워려-’ 역시 준화법동사에 버금간다고 파악할 수 있다. (9마)에서는 비록 다른 준화법동사와 같이 ‘니르-’를 수식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수스워려-’와 ‘니르-’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된다.²⁰⁾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7)의 인용술어들은 모두 준화법동사로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6세기 인용표지 ‘하고/코’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주로 유효적인 화법동사, 즉 준화법동사라는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던 통사적 확대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문법화의 단계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용표지 ‘하고’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준화법동사, 즉 유효적 화법동사에서부터 무표적 화법동사, 즉 ‘니르-’가 사용되는 무표적인 인용구문으로 점차 분포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언어 양상은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양상과 제한적이고 유효적인 양상이 공존하는데(이지영 2021: 18 참조) 언어의 변화도 선조적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시기인 16세기 용례에서 아래와 같이 유효성과 무표성의 공존을 관찰할 수 있다.

20) 한문 원문에서도 ‘聲音啞啞如有謂’와 같이 ‘如’를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聲音啞啞’과 ‘謂’가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10) 가. 簡子 | 竊_오딘 내 ㅎ여곰 너를 더브러 乘_ㅎ음을 掌_ㅎ케 호리라 ㅎ고 王良_ㄷ려 닐_은대
 良이 可_티 아니타_ㅎ야 竊_오딘 내 爲_ㅎ야 내 馳_驅를 範_{으로} 호니(簡子 | 曰我 | 使
 掌與女乘호리라 ㅎ고 謂王良_ㅎ대 良이 不可_曰吾 | 爲_之範我馳驅호니) <맹자언해
 6:3ㄴ-3ㄱ>

나. 아비아 ㅈ시_가 겨_집들 ㅎ_여서 나를 ㅎ_갓 병_든니라 코 종_들 ㄴ_르니 아모 말_도 ㄱ_이
 고 ㅎ_니 내 산 ㄱ_엇ㄱ_티 인_노라 <순천 172>

(10가)는 ‘簡子’와 ‘王良’의 대화인데 ‘簡子’가 먼저 말하는 문장에서 ‘ㅎ고’ 뒤에 ‘王良_ㄷ려 닐_은대’를 통하여 ‘王良’에게 인용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5)에서 확인한 [V_{인용술어} S_{인용절} ㅎ고 V_{인용술어}]와 동일한 구조인데 ‘ㅎ고’에 후행하는 인용술어가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용례와 차이를 보인다. (10나)는 어머니인 신천 강씨가 딸 순천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 ‘아비아 ㅈ시_가 겨_집들’이 자신을 한갓 병든 사람이라고 종들에게 말하자 종들이 어떤 말도 자신에게 하지 않고 숨기니 산 귀신과 같이 지내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딸에게 전하고 있다. (10나)는 [S_{인용절} ㅎ고 V_{인용술어}]의 구조로서 무표적 인용구문이며 동시에 인용표지 ‘코’ 다음에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사 및 어휘적 확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용례이기도 하다.

이후 17세기에서는 (10나)와 같이 문법화 과정에서 통사 및 어휘적 확대를 모두 거친 용례들이 확인된다.²¹⁾

(11) 가. 다몬 도_노르 아_즈바_님 유_무예 저의_를 박_히 ㄷ_접ㅎ_다 ㅎ고 ㅎ_이 ㄴ_르다 ㅎ_시 ㄴ_의
 마_를 슬_허ㅎ_{더니} <곽씨-26_{17세기} 전기>

나. 이 ㅎ_년의 ㅈ_슈나 ㄱ_리 ㄱ_드라 ㅎ_니 이_만 ㅈ_디디 아_니코_셔는 ㅎ_고 ㅎ_을 ㅍ_로
 말_라 ㅎ고 닐_넛건_만 ㅎ_어이 ㅎ_는디 ㅎ_나 ㅎ_노라 <선세언독-20₁₆₆₈₋₁₇₃₆>

다. ㄷ_길이_드려 저_를 ㅎ_맞지_니 아_니 ㅎ_여시_면 일_나리 ㅎ_다 ㅎ고 ㄴ_르쇼_셔 <이동표가-24₁₆₇₆>

라. ㄷ_애 모_썩도 아_희들_{ㅎ고} 하 ㅎ_블샹_이 ㅎ_터라 ㅎ고 ㄴ_이 ㅎ_방집_이 ㄴ_르거_늘 <선찰-9-089₁₆₉₉>

지금까지 16세기에서 확인되는 ‘ㅎ고’의 용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인용표지 ‘ㅎ고’의 문법화가 통사 및 어휘적 확대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5세기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ㅎ고’는 16세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글 편지에서는 무표적 인용구문에서 ‘ㅎ고’가 확인되었는데, 구어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무표적 인용구문으로 통사적 확대를 거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인용술어는 주로 유표적 화법동사, 즉 준화법동사이었는데, 이후 점차 인용술어가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어휘적 확대를 거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인용표지 ‘ㅎ고’의 문법화 설명을 위해 사용한 기제들을 정리하고 앞서 살펴본 용례들이 어떤 변화의 단계에 위치했는지 검토하여 인용표지 ‘ㅎ고’의 문법화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2.4. 인용표지 ‘ㅎ고’의 확립

21) (11)에 제시한 인용표지 ‘ㅎ고’의 17세기 용례는 모두 이지영(2021: 26)의 (16)을 참고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용표지 ‘하고자’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표적 인용구문과 유표적 화법동사라는 환경 속에서 시작된 변화는 무표적 인용구문으로의 통사적 확대, 인용술어의 무표적 화법동사로의 어휘적 확대를 거쳐 온전히 일반적인 인용구문에서만 사용되는 문법 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절에서는 인용표지 ‘하고자’의 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문법화의 기전과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중세한국어 인용구문의 유형

가. 무표적 인용구문

- ① [V_{인용술어} S_{인용절} (하고자)]
- ② [S_{인용절} (하고자) V_{인용술어}]

나. 유표적 인용구문

[V_{인용술어} S_{인용절} (하고자/하고자) V_{인용술어}]

(2) 중세한국어 인용술어의 유형

가. 무표적 화법동사

나. 유표적 화법동사

중세한국어의 인용구문은 일반적으로 (1가)의 무표적 인용구문과 (1나)의 유표적 인용구문으로 분류된다. 유표적 인용구문은 구조를 통해 할 수 있듯이, 무표적 인용구문의 두 유형이 합쳐진 구조로서 앞부분은 (1가①), 뒷부분은 (1가②)이다. 유표적 인용구문의 앞부분인 (1가①)은 주로 번역투로, 뒷부분인 (1가②)는 번역투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두 유형이 합쳐진 유표적 인용구문의 한문 구조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V_{인용술어} S_{인용절}]뿐만 아니라 [V_{인용술어} S_{인용절} V_{인용술어}]도 확인되므로 유형의 차이가 반드시 번역투와 같은 문체적 특징에 기인한 것은 아닐 것이라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V_{인용술어} S_{인용절}하고자 V_{인용술어}]와 같은 유표적 인용구문의 한문 원문이 [V_{인용술어} S_{인용절}]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인용표지 ‘하고자’가 출현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한문 원문의 영향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인용술어의 유형은 이현희(1994)의 화법동사 분류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서 ‘니르-’와 같은 일반적인 화법동사를 무표적 화법동사로, ‘니르-’의 하위어로서 수식을 통해 ‘니르-’의 의미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준화법동사를 유표적 화법동사로 분류하였다.²²⁾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하고자’ 관련 용례를 정리하면 아래(3)과 같다.

22)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현희(1994)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숯-’에 대한 분류를 달리하고 있다. 이현희(1994: 330 각주1)에서는 ‘니르-’와 ‘숯-’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룬다고 하였으며 무표적 화법동사가 사용되는 포괄적 화법구문에서 ‘니르-’와 ‘숯-’의 용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숯-’을 ‘니르-’의 하위어로 파악하여 준화법동사, 즉 유표적 화법동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23에 상술하였다.

(3) ‘호고’ 관련 용례 정리

시기	예문 번호	인용구문 유형	인용술어 유형	
15세기	2.2	(4)	유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숯-)23)
		(5)	유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發 호-)
16세기	2.3	(1)	유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발원 호-)
		(4)	유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訟 호-)
		(6가)	무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시위리-)
		(6나)	무표적 인용구문	유표적 화법동사(구짓-)
		(10가)	유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10나)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17세기	2.3	(11가)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11나)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11다)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11라)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화법동사

(3)은 지금까지 살펴본 ‘호고’ 관련 용례의 인용구문 유형과 인용술어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호고’의 문법화는 유표적 인용구문과, 인용술어가 유표적 화법동사로 나타나는 환경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표적 인용구문에서 무표적 인용구문으로의 통사적 확대와 유표적 화법동사에서 무표적 화법동사로의 어휘적 확대라는 과정을 거쳐 인용표지 ‘호고’의 문법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용표지 ‘호고’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일찍이 이현희(1986)에서부터 ‘호야’와 현대국어의 인용표지 ‘-고’를 관련지어 설명하였으며 임동훈(1995)에서는 이기갑(1981)의 ‘-아 > -고’ 변화로 인하여 ‘-호야 > -호고 > -고’의 과정을 상정하였다. 또한 2.1에서 살펴보았듯이 ‘-ㄱ ㅏ-’라는 문법 요소가 한글 창제 이전 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15세기 당대 언중들에게 ‘호야’는 인용표지와 상응하는 요소로 기능했을 것이라는 견해에 힘을 실어 준다. 그러나 15세기의 ‘호야’가 온전히 문법화를 거쳐 하나의 인용표지로서 기능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근대한국어의 ‘-아 > -고’의 변화가 있더라도 ‘호야’가 하나의 굳어진 문법형태소이었다면 ‘호야 > 호고’의 형태 변화를 거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15세기의 ‘호야’는 이현희(1986), 임동훈(199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한국어의 인용표지 ‘-고’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점, 한글 창제 이전에 인용표지 ‘-ㄱ ㅏ-’ 등과 같은 문법 요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3) 중세한국어에서 ‘숯-’은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의 겸양동사이며 화자, 주어, 객어가 상정될 때 사용된다(이현희 1994: 330-334 참조). 따라서 ‘숯-’은 무표적 화법동사 ‘니르-’의 하위어로 볼 수 있으며 아래의 (가)와 (나)처럼 ‘니르-’의 의미영역을 제한하므로 적어 준화법동사, 즉 유표적 화법동사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에서와 같이 ‘請호-’가 화법동사와 같이 사용될 때에는 ‘숯-’이 ‘請호-’를 제한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참고된다.(이현희 1994: 439 참조).

- ㉮ 가. 그디는 風俗을 호야버리는 사르미라 어루 길어 두미 묻호리라 호고 因호야 帝씩 술와 닐오디
 鄕(鄕은 敗俗之人이 不可長也)라 호고 因言於帝호야 曰호디) <내훈 66 7>
- 나. 낫낫 善知識 술와 닐오디(於一一善知識所에 白言호디) <금삼 2:4 ㄴ>
- 다. 宗이 그제 弟子禮 호고 술와 請호디 傳호야 온 衣鉢을 내야 大衆 覓쇼셔(宗이 於是에 執 弟子禮 호고 告請傳來衣鉢을 出示大衆 호쇼셔) <육조 上 42 ㄴ>

인용표지 ‘하고자’의 선대형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형태 변화를 거쳤다는 점에서 온전히 문법형태소로 굳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야 >하고자’의 변화에 어미 ‘-아 > -고’의 영향은 매우 지대했을 것이나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래의 용례를 변화의 시작점이자 교량 맥락으로 판단하였다.²⁴⁾

(4) 가. [SV_{화법동사}] [[S_{인용절}] 호-+-고] [V_{일반동사}]

예) 곧고대 문로되 疑心을 決斷티 몬호나다 하고자 시름하야 잇거늘 <월석 11:3>

나. [SV_{화법동사}] [[S_{인용절}] 호-+-고] [MSV_{유표적 화법동사}]

예) 阿難이 슬보되 乞食하라 가 길헤 六師의 무를 相逢호니 薩遮尼乾이 辱바티더이다 하고자 슬보대 <월석 20: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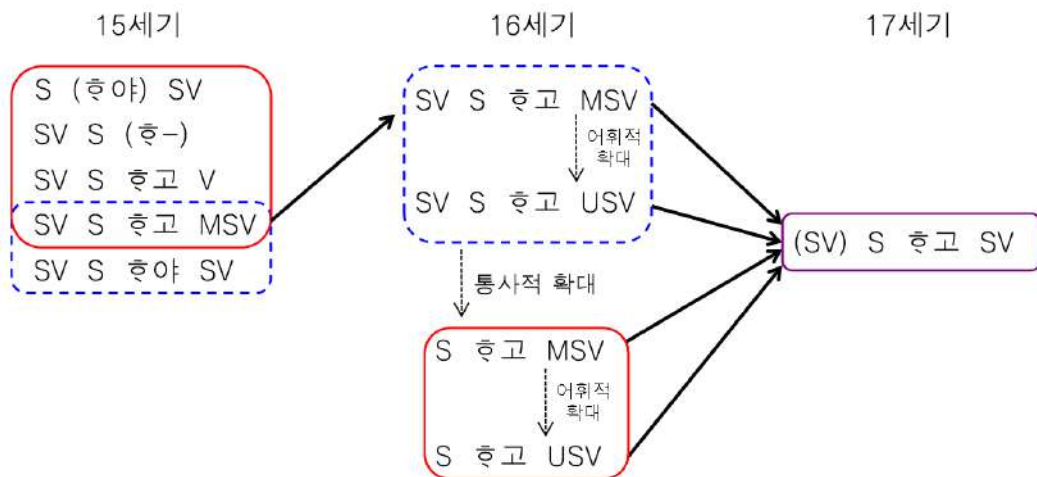
다. [SV_{화법동사} S_{인용절} 하야 SV_{화법동사}]

예) 善容이그에 가 닐오되 子人 命이 닐웁 부니로소니 아므레나 므슌 ㅁ장 노라사 하리이다 주근 後에사 누으즌들 미즈리여 하야 니르고<석보24: 28>

‘호-+-고’ 구성에 일반동사(V)가 후행하는 경우(4가)와 유표적 화법동사(MSV)가 후행하는 경우(4나)는 통사적 구조가 동일하다. 한편으로 (4나)의 구성은 유표적 인용구문(4다)과도 동일하므로 인용표지 ‘하고자’의 문법화가 시작되는 환경이라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무표적 인용구문에 일반동사가 결합한 구조(4가)와 유표적 화법동사가 결합한 구조(4나)에서 ‘하고자’의 모습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데, (4나)의 구조는 유표적 인용구문(4다)의 구성과도 동일하므로 (4나)의 ‘하고자’는 인용구문의 ‘하야’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3)과 같이 통사적 확대와 어휘적 확대를 거쳐 인용표지 ‘하고자’의 문법화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인용표지 ‘하고자’ 문법화 과정



S: 인용절, V: 일반동사, SV: 화법동사, MSV: 유표적 화법동사, USV: 무표적 화법동사
 점선: 유표적 인용구문, 실선: 무표적 인용구문

무표적 인용구문과 유표적 인용구문의 교량 맥락으로 볼 수 있는 [SV S 호고 MSV]를 인용표지 ‘호

24) 설명의 편의상 앞의 용례를 다시 가져왔다.

고'의 문법화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²⁵⁾ 무표적 인용구문에서 인용술어 'ㅎ-'의 활용형인 'ㅎ고' 다음에 유표적 화법동사(MSV)가 인용술어로 오게 된 기전에는 이미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ㅎ야'가 인용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언중들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²⁶⁾ 이후 16세기에서는 'ㅎ고'의 문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유표적 인용구문에서만 확인되었던 'ㅎ고'가 무표적 인용구문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역시 유표적 화법동사에 국한되었던 분포가 점차 무표적 화법동사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ㅎ고'는 문법화 과정에서 통사 및 어휘적 확대를 거쳐 온전히 일반적인 인용구문에서 사용되는 인용표지로 자리를 잡았다.

3. 결론

(생략)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瑜伽師地論 卷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권인한·김성주·문현수·안대현·이용·장경준·황선엽(2018), 『瑜伽師地論』 卷66 點吐釋讀口訣 잠정 판독 및 해독안』, 공동연구 자료, 미간행.

이승재 외(2005)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第五·卷第八』, 태학사.

장경준 외(2015), 『『瑜伽師地論』 권 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장경준 외(2023), 「역주 원고 초안」(한국연구재단 지원 “중층적 구결 자료 <합부금광명경> 卷3의 종합적 연구” 중간 결과물 2023. 1. 27. 최종 작성본), 미간행.

장경준 편(2019)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19_01)』, 口訣學會/국어사학회 배포, 미간행.

점토구결연구모임(2006-2007),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 잠정 판독 및 해독안』(미간행).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25) 인용절에 후행하는 인용술어 'ㅎ-'의 활용형으로부터 발달되었다는 견해는 최초로 권재일(1998: 75)에서 제시되었는데, 아래 (가)의 용례와 같이 인용동사의 겹침으로 인해서 'ㅎ고'가 서술 기능을 잃어버리고, 문법화하여 인용표지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용술어의 활용형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제시한 바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나 함께 예시로 소개한 용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는 이미 인용표지의 문법화가 상당 진행된 시기이므로 변화의 시작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말ㅁ초매'는 '[[말]#[ㅁ--ㅁ매]]'의 구조로서 'ㅁ--'를 화법동사로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한국어 인간의 인용구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주현(2021: 87)에서는 아래 (나), (다)와 같이 인간에서 발화동사가 이어지는 구성에 출현한 'ㅎ고'가 점차 인용표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용술어 간의 결합을 통한 다중 인용구문에 대하여 인용표지의 태동적인 모습이라고도 하였는데(이주현 2021: 160 참조), 16, 17세기 인간의 다중 인용구문에서 변화의 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 가. 송씨 날오디 우리집 ... 괴약이 업스로다 **ㅎ고** 말ㅁ초매<권념요록 3>

나. 막닙은 브디 누룩을 ㅎ여 오라 **ㅎ더라 ㅎ고** 가져가니<선세언독¹⁶⁶¹⁻¹⁶⁹⁷ 16>

다. 득길이드려 저를 맞지니 아니 ㅎ여시면 일 나리 ㅎ다 **ㅎ고 니르쇼셔**<이동표가¹⁶⁷⁶ 24>

26) 만약 'ㅎ야'를 인용표지 'ㅎ고'의 선대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ㅎ고'가 인용표지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획득하게 된 것일 텐데, 문법적 기능이 이처럼 매우 짧은 기간에 형성된다는 설명은 부담이 크다.

2. 논저류

- 권재일(1998), 「한국어 인용 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언어학회, 59-79.
- 김태우(2022), {-습-}의 기능 변화 연구, 태학사.
- 남풍현(2018), 釋讀口訣의 敘述格 助詞 ‘-여’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55-62.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 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117-145.
-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121-205.
- 안주호(2003),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인지 10, 담화·인지언어학회, 145-165.
- 이금희(2005),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27-236.
- 이주현(2021), 근대 국어 인간의 인용구문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2022), 인용표지 ‘고’의 태동 요인에 관한 재고- 한글편지와 노걸대류 자료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3-9, 한말연구학회.
- 이지영(2017), ‘-기를’ 인용구문의 발달과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연구 50, 우리말학회, 59-83.
- 이지영(2021), 중세·근대 국어 인용 구문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33, 7-38
- 이지영(2022), [V-오디] 인용 구문과 [V-기를] 인용 구문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71-101.
-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7.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사에 관한 일고찰, 『韓國語文學論考』, 태학사, 707-724.
-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어학연구 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7-138.
- 장경준(2003), 點吐釋讀口訣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瑜伽師地論』 卷5, 8을 대상으로-, <제28회 口訣學會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111~121.
- 장경준(2005), 點吐口訣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瑜伽師地論』 卷5, 卷8을 대상으로-,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Ⅰ』, 태학사, 127~141.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249-279.
- 장윤희(2017), 중세 한국어 과생동사 ‘수 스 위리다’의 형태론, 『국어학』 81, 국어학회, 39-62.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기량(2020), 자토석독구결에서 종결을 나타내는 ‘: /- (여)’와 ‘! (다)’의 용법과 그 변화, 『口訣研究』 44, 口訣學會, 141 - 179.
- 전기량(2023), 구결자 ‘: /- (여)’에 대한 고찰 - ‘: /-’를 다시 생각함 -, 『口訣研究』 50, 口訣學會, 123 - 167.
- 조항범(1998),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채숙희(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 황문환(2002), 『16, 17세기 인간의 상대경어법』, 태학사.
- Halliday(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edition), London: Melbourne: Acukland: Edward Arnold.
- Jespersen, O.(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New York: Allen: Holt.

“한국어 인용표지의 형성 과정에 대한 試論”에 관한 토론문

이주현(한남대)

이강혁 선생님의 발표문은 중세 및 근대 한국어의 용례를 살펴보고, 인용표지 형성 과정에 대한 문법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 연구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기갑(1981)에서 논의가 된 ‘-아 > -고’의 변화에 따른 인용표지 ‘하야 > 하고’의 느슨한 설명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인용표지가 변화되는 시 작점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의 인용표지 연구에서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인용구문의 유형(‘유표형 인용구문’과 ‘무표형 인용구문’)에 따른 문법화 방향을 기술하고자 한 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근대 한국어 시기의 인용표지에 관심이 있어, 이번 토론문 준비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주제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문점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용구문의 세 분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a) 발표문 2.2절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보시는 중세 한국어의 인용구문은 (1)과 같이 ‘무표적 인용구문’과 ‘유표적 인용구문’으로 나누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표’와 ‘유표’에 대한 기준이 각주 9번의 기술에 따르면, (1나)는 극소수의 예이기 때문에 ‘유표적 인용구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1) 가. 무표적 인용구문: [V인용술어 S인용절 (하-)], [S인용절 (하야) V인용술어]
나. 유표적 인용구문: [V인용술어 S인용절 V인용술어]

(1가)와 (1나)의 구분점이 ‘빈도’라면, 해당 기준은 용례가 속한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예컨대, 근대국어 연간 자료 1,465건에서 추출한 인용구문을 검토한 이주현(2021:12)에 따르면, 인용술어의 따른 인용구문 유형별 빈도를 조사한 결과 [NP이 V인용술어 S인용절 V인용술어]가 [NP이 V인용술어 S인용절] 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b) 또한, (1가)의 “[V인용술어 S인용절 (하-)]”와 (1나)의 “[V인용술어 S인용절 V인용술어]”의 구문상 차이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인용술어인 ‘하-’가 생략되지 않는다면, 두 구문은 구조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인용구문 구조에 따른 문법화 진행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2.3절의 내용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통사적 확대’와 ‘어휘적 확대’를 거쳐 문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통사적 확대’는 [V인용술어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의 통사적 구조를 가지는 유 표적 인용구문에서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 구조의 무표적 인용구문으로까지 분포가 확대된 것으로 보 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유표적 인용구문’인 [V인용술어 S인용절 하고 V인용술 어]에서 ‘무표적 인용구문’인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으로의 방향성보다는, [S인용절 (하고) V인용술어]에서

‘ㅎ고’가 인용표지가 아닌 ‘ㅎ-’의 활용형에서 인용표지로 변한 방향성으로 볼 가능성은 없는지요?

관련 앞선 논의 중 언해 과정에서 한문 구조의 간접 때문에 [NP이 V S V]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만, 국어의 문장 구조로 바꾼다면 [NP이 S V]가 당시의 대표적인 인용구문 구조일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임동훈(1995:111), 정연주(2015:50-54) 등).

3. 화법동사의 분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논의의 2.4절에 따르면, 인용술어의 유형을 이현희(1994:329-413)에 기대어, ‘니르-’와 같은 일반적인 “화법동사”를 무표적 화법동사로, ‘니르-’의 하위어로서 수식을 통해 ‘니르-’의 의미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준화법동사를 “유표적 화법동사”로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현희(1994)에서 화법동사가 아닌 사유구문(‘너지-’ 등)이나 청원구문(‘브라-’) 등으로 분류한 동사가 인용술어로 사용될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 ‘흐마 건남 得 호라’ 너기거늘(법화 3:196)

(이현희 1986:10)

4. 인용표지 ‘ㅎ고’에서 ‘고’로의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문 2.4절에 따르면, 16세기에 ‘ㅎ고’의 문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17세기에 [(SV) S ㅎ고 SV]로 문법화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ㅎ고’가 현대 한국어까지 이어지는 ‘고’로의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3) 가. 실로 ㅎ면 타자기나 공이나 녀는 즈시근 일샤도 못 먹거든 훌어미라고 좃○(ㄹ?) 발
와드며 게 거시 모도와 이시면《順天金氏諺簡164:2》

나. 뉘 실상을 고희기 아쳐ㅎ야 스십여 인이 죽다고 ㅎ니 인심이 더욱 행복디 아니ㅎ니
《山城日記34》

다. 깔이 그릇 주인을 상히오니 위는 상을 브라 겁퓌ㅎ는 도적이라고 ㅎ야 옥아전이 뇌
물을 밧고 고티ㅎ야 옥스를 일오니《種德新編諺解 상:31a-b》

(이금희 2006:235-236)

<참고 자료>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233-258.
이기갑(1981), 씨끝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27-236.
이주현(2021), 근대 국어 언간의 인용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주현(2022), 인용표지 ‘고’의 태동 요인에 관한 재고-한글편지와 노결대류 자료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63(9), 한말연구학회, 1-19.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191-227.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임동훈(1995), 통사론과 통사단위, 어학연구 3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87-138.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우리말학회

국어의 접미사 절단어에 관한 연구

-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을 중심으로

홍정현(한국교원대)

< 차례 >

1. 서론
2. 접미사 절단어의 유형
3. 접미사 절단의 원인
4. 결론

1. 서론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형태소와 형태소를 결합하는 합성이나 파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존 단어의 일부를 잘라내는 ‘절단(clipping)’이라는 기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절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단어로는, ‘내비게이션 → 내비’, ‘룸메이트 → 룸메’, ‘아이템 → 템’, ‘어플리케이션 → 어플’ 등과 같이 단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이 절단된 형태, 즉 단어의 일부가 전체의 의미로 쓰이면서 굳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절단 현상은 일찍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외래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정수·우인혜(1995)에서는 외래어 어휘 중에 일본에서 생략이나 탈락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되어 쓰이는 것으로 ‘microphone → 마이구 → 마이크’, ‘apartment → 아파-도 → 아파트’, ‘condominium → 콘도 → 콘도’, ‘air conditioner → 에아콘 → 에어컨’ 등을 들고 있는데¹⁾, 일본식 변조를 거쳐 축약된 것들로서, 우리나라에서 이 축약어를 들여다 쓰면서 그 발음을 일본어가 아닌 원어에 가깝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만들어진 절단어를 도입하되, 그 원어 발음을 복원한 것이다.

두음절어(頭音節語)와 혼성어(混成語) 역시 절단의 과정을 거친다. 두음절어는 ‘강력 추천 → 강추’, ‘노동조합 → 노조’, ‘뮤직비디오 → 뮤비’, ‘팩트 폭행 → 팩폭’과 같이,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나 구 구성에서 각 단어의 첫음절만 남기고 나머지를 절단하여 만든 단어이고, 혼성어는 ‘라볶이(라면+떡볶이)’, ‘칼제비(칼국수+수제비)’, ‘숲세권(숲+역세권)’과 같이 절단의 과정을 거친 말들끼리 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즉, 두음절어는 조합 후 절단, 혼성어는 절단 후 조합이라는 과정으로 형성된다.

이처럼 단어의 일부를 잘라내는 절단은 조어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어플’, ‘에어컨’, ‘강추’ 등은 음절수만 줄어들었을 뿐 절단 이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짧게 줄여 말함으로써 노력을 덜 들이려는 경제성의 원리를 따른 것이고, ‘라볶이’와 같은 혼성어는 그 의미가 ‘라면’과 ‘떡볶이’의 단순 합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물건 등을 나타내는

1) 서정수·우인혜(1995)에서 ‘microphone-마이구(일)-마이크’와 같이, ‘외래어 원어- 축약된 외래어의 일본어 발음 한글 표기-외래어의 한국어 수용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편의상 수정하였다.

새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막둥이(막-둥이) → 막둥’, ‘불박이(불박-이) → 불박’과 같이 접미사의 일부 또는 접미사 전체를 절단하여 쓰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절단 현상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절단 이전과 이후 형태의 음절수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절단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미사 절단은 주로 어말 음절 ‘이’의 절단으로 나타나는데, 단어의 절단 현상이나 형식 삭감을 다룬 다양한 논의(이은섭, 2007; 최형용, 2009; 이호승, 2011; 양명희·박미은, 2015; 이선영, 2016ㄱ, 2016ㄴ, 2016ㄷ; 엄상혁, 2018; 노명희, 2019; 이선영·정희창, 2019; 이찬영, 2022; 최형용, 2022)에서도 이와 같은 접미사 절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막둥이 → 막둥’, ‘불박이 → 불박’과 같이 접미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절단된 체 자립적으로 쓰이거나, 또 다른 단어나 구 구성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쓰이는 형태를 ‘접미사 절단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논하되, 접미사 어말 음절 ‘이’의 절단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어말 음절 ‘이’를 포함하는 접미사 절단어의 실제적 쓰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접미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판의 ‘자세히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어말 음절이 ‘이’로 끝나는 접미사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복되는 형태를 통합하면 ‘-이’와 함께 ‘-둥이, -들이, -맞이, -박이, -뱅이, -불이, -살이, -잡이, -장이, -쟁이, -투성이, -통이’의 총 13개의 접미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들 중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태 분석을 하여 접미사 ‘-이’를 갖는 단어로 보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후술한다.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중에서 각 접미사를 포함하는 파생어를 모두 검색하고, 이에 더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별도의 접미사로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단어 구성상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단어를 포함, 검색 엔진을 통하여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되어 나타나는 용례를 일일이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²⁾. 예를 들어, 접미사 ‘-둥이’를 포함하는 파생어는 총 46개인데³⁾, 이들 46개 단어들이 인터넷에서 어떠한 절단 형태로 쓰이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미사 절단어의 유형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2. 접미사 절단어의 유형

앞서 언급한바, 접미사 절단어의 대부분은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된 형태를 보이는데, 접미사 ‘-이’를 제외한 ‘-둥이, -들이, -맞이, -박이, -뱅이, -불이, -살이, -잡이, -장이, -쟁이, -투성이, -통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접사 형성의 요소로서 ‘-이’가 개입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⁴⁾에서, 접미사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은 넓게 보아서 접미사 ‘-이’의 절단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접사로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원적으로 내부 구성이 나뉘어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공시적으로 그 경계를 인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비해 형태소

2) 검색 엔진은 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구글(www.google.com)을 활용하였으며, 제시된 예들의 띄어쓰기는 표기된 그대로를 따랐다. 이하 예문의 모든 밑줄은 필자.

3) ‘네쌍둥이 세쌍둥이, 삼쌍둥이, 삼쌍둥이’, ‘늦바람둥이’와 같이 단어 내부에 ‘쌍둥이’, ‘바람둥이’와 같은 파생어가 이미 포함된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단, ‘막둥이, 막내둥이’와 같이 의미가 같더라도 각각 하나의 파생어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였다.

4) 권순구(2010)에서는 ‘어기+-이’ 접미사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V+-이] 유형으로 ‘-살이, -잡이, -박이, -불이’, [한자N+-이] 유형으로 ‘-장이(匠+이)/-쟁이’, ‘-둥이(童+이)/둥이’, ‘-방이(房+이)/-방이’, ‘-지기(直+이)’를 들고 있다.

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준하였다⁵⁾.

반면, 현재로서는 접미사 ‘-이’를 분석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둥이’, ‘-쟁이’와 같이 이미 원형으로부터의 형태 변화가 두드러져 어원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투성이’와 같이 그 연원 자체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접미사 ‘-이’를 분석하지 않고 그 자체를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맞이’, ‘-잡이’는 ‘맞-이’, ‘잡-이’로 분석하여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둥이’, ‘-통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접미사로 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어말 음절로 ‘이’를 갖는 파생어의 절단 양상을 ‘접미사 일부 절단형’과 ‘접미사 완전 절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접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점박이’를 예로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점-박이’로 분석하고 접미사 목록에 ‘-박이’를 실고 있는 데 반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點+박-이’로 분석하고, ‘-박이’를 별도의 접미사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박이’라는 단어의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되어 ‘점박’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점박’은 접미사를 ‘-박이’로 보면 ‘접미사 일부 절단형’에 해당되고, 접미사를 ‘-이’로 보면 ‘접미사 완전 절단형’에 해당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접미사 목록을 추출하되, ‘접미사 절단어’의 유형 분류를 위한 형태 분석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따르고자 한다.

2.1. 접미사 일부 절단형

‘접미사 일부 절단형’은 2음절 이상으로 구성된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에서 접미사의 일부가 절단된 것인데, 특히 본고에서는 어말 음절 ‘이’를 포함하는 ‘-둥이, -통이, -뺑이, -장이, -쟁이, -투성이’의 ‘이’가 절단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단 현상이 ‘-둥이~-통이’의 6개 접미사에서 모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접미사일지라도 단어에 따라서 ‘이’ 절단의 적용이 잦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물론, 접미사 절단이 일어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둥이’가 결합한 단어에서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은 ‘귀염둥이, 늦둥이, 막내둥이, 막둥이, 순둥이, 쌍둥이, 엽둥이, 재간둥이, 재롱둥이’ 등에서 일어나는데,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1) ㄱ.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 귀염둥 사진, 세상 서러운 귀염둥, 귀염둥과 산책, 귀염둥아, 바빠서 귀염둥들 보러 못 갔어.

ㄴ. 늦둥이: 늦둥공주, 늦둥딸, 늦둥막내, 늦둥 6세, 늦둥아들, 늦둥맘, 늦둥 예능 입문, 늦둥아

늦둥으로 태어나서... / 늦둥으로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5) 사전의 ‘일러두기’를 참고하면, 표준국어대사전은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의 결과로 표시되는 ‘-’를 한 표제어에 하나만 허용하여,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분석 결과만을 보여주는 데 반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공식적으로 분석 가능한 형태에 대한 형태 범주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정밀한 형태 분석을 보여준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어근이든 접사이든 후행 요소를 ‘-’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합성어인 ‘돈벌이’는 ‘돈-벌이’, 파생어인 ‘막둥이’는 ‘막-둥이’와 같이 나타내므로 후행 요소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알기 위해서는 ‘벌이’와 ‘-둥이’를 별도로 검색하여야 한다. 반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경우 자립어는 ‘+’, 불완전 어근은 ‘±’, 접두사는 ‘=’, 접미사는 ‘-’, 어미는 ‘_’로 표시하였으므로, 어근과 접미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이에 본고는 고려대한국어사전의 ‘-’를 기준으로 접미사를 판단하였다.

6) 본고에 제시한 예들은 naver, daum, google의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된 글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1920년~1999년의 지면 신문 기사에서 추출한 것으로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늦등을 볼 만큼 건강한 몸 / 늦등을 낳았네요.

늦등도 괜찮다. / 우리 늦등도 다행히 잘 먹었어요.

늦등은 너무나 심심하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ㄷ. 막등이: 막등, 막등 결혼식, 막등남동생, 막등생일, 막등과 데이트, 막등아, 막등미 (一一美), 막등력(一一力), 막등군

ㄹ. 순등이: 순등, 순등남, 순등녀, 순등미, 순등력, 순등양, 순등아

얼굴은 순등한데..., 순등해보이는, 순등하고 큰 눈, 순등하고 귀여운 말티즈
“순등 뺨머리vs섹시 깡머리”...팬들 사이서 취향 확 나뉘는 손석구 헤어스타일, 극 중 손석구는 순등해보이는 표정과 귀여운 미소가 강조되면서 모성애를 자극했다. <인사이트, 2022.06.25.>

순등스러운 성향, 순등스러운 매력, 순등스러운 인물의 성격, 순등스러운 엄마의 성격을 똑 닮은 남매들

(1ㄱ~ㄹ)은 ‘귀염둥이, 늦둥이, 막등이, 순등이’의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된 형태들이다. 쓰임의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귀염둥, 귀염둥아, 늦등으로, 늦등을, 늦등도, 막등, 막등과’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양한 조사나 접사가 결합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접미사 절단어가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파생어나 합성어를 만드는 어근처럼 쓰인 것이다.

먼저, ‘늦등공주, 늦등맘, 막등남동생’은 합성 명사처럼 쓰임을 알 수 있는데, 절단 후 합성이 되는 과정은 혼성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혼성어의 경우 대체로 선·후행 요소가 모두 절단의 과정을 겪는 데 반해, 접사 절단어가 개입하여 만드는 합성어의 경우, 후행 요소의 축약은 일어나더라도 절단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특정 개념에 대한 지칭이기보다는 명사 나열의 수식 구조가 갖는 의미를 그대로 함유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음으로, ‘막등미, 막등력, 막등쓰, 막등군, 순등남, 순등녀’등은 파생 명사로 볼 수 있으며, ‘순등하다, 순등스럽다’는 파생 형용사로 볼 수 있다. 접미사 ‘-미’, ‘-력’, ‘-양’, ‘-남’, ‘-녀’의 경우, ‘-둥이’뿐만 아니라 그 절단형인 ‘-등’으로 끝나는 말들과 결합하여 ‘겹등미, 막등력, 순등남’과 같이 쓰인다. 이 접미사들은 ‘겹쟁이’나 ‘개구쟁이’와도 어울려 ‘겹쟁이남, 겹쟁이미, 개구쟁이력’과 같이 조어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쟁이’가 포함된 단어가 이 접미사들과 결합할 때는, ‘-둥이’가 포함된 단어에 비해서는 절단이 활발하지 않아 ‘겹쟁력, 개구쟁미’같은 형태가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막내둥이, 업둥이, 재간둥이, 재롱둥이’ 역시 절단어 ‘막내등, 업등, 재간등, 재롱등’이 쓰이지만, 절단 이전의 단어 자체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절단어 역시 ‘귀염둥, 늦등, 막등, 순등’에 비해서는 그 쓰임이 적다. 반면, ‘-둥이’가 결합한 파생어 중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바람둥이’는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한 ‘바람둥아’ 정도의 예를 제외하면,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된 형태가 그리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⁷⁾.

한편, ‘-둥이’를 포함한 단어 중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쌍둥이’의 경우에는 이른 시기부터 절단된 형태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ㄱ~ㄹ)의 예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일상적인 글을 자유롭게 적는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라면, ‘쌍둥이’의 접미사 절단어 ‘쌍등’은 비교적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신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ㄱ. 누구에게 간 쥐야 하나... 캐나다 쌍둥이빠 눈물의 선택 <국제신문, 2015.01.24.>

ㄴ. ‘슈퍼맨이 돌아왔다’ 체력 쑥쑥 쌍둥·용감 씩씩 삼둥 <국제신문, 2015.11.02.>

7) 이를 테면, ‘바람둥이 낚친, 바람둥이들, 바람둥이력(一一一一力)’과 같이 쓰이며, ‘바람둥남친, 바람둥들, 바람둥력’은 흔히 관찰되지 않는다.

- ㉞. 집 난장판 만든 쌍둥이 해탈... “밖에도 못나가는데 어질러라” <spotvnews, 2020.09.10.>
- ㉟. 건설 분야에 적용하면 가상 공간에 현실의 쌍둥이 건축물을 만들어 공정·품질·안전 관리부터 설계, 분양, 유지보수 등에 활용 가능하다. <아시아타임즈, 2023.05.11.>



<그림 89> ‘쌍둥이’의 접미사 절단어 예시(동아일보, 1932.03.30.; 동아일보, 1932.09.07.; 동아일보, 1955.10.09.; 경향신문, 1990.09.24.)

(2ㄱ~ㄴ)은 비교적 최근(2015~2023년)의 인터넷 신문 기사, <그림 1>은 훨씬 이른 시기(1930~1990년대)의 기사에서 보이는 ‘쌍둥이’의 예이다.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 1957: 1621-1622)에는 ‘쌍둥이’, ‘쌍둥이’와 함께 ‘쌍둥딸, 쌍둥밤, 쌍둥아들, 쌍둥이 화산, 쌍둥중매’가 등재되어 있어, 쌍생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미 ‘쌍둥이’와 ‘쌍둥이’로 굳어진 상태에서 합성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쌍둥(雙童)’을 인정하고, ‘쌍둥’은 규범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동일한 신문 기사(동아일보, 1932.03.30.)에서 ‘쌍둥아이, 쌍둥이는, 쌍둥인지 아닌지, 쌍둥인제는’과 같이 ‘쌍둥’으로 분석되는 예, ‘쌍둥이’로 분석되는 예, 혹은 그 분석이 다소 모호한 예가 공존하고 있으며, 다른 기사에서도 ‘쌍둥’의 형태가 합성어나 구 구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활발하게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쌍둥’과 더불어 ‘쌍둥’ 역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⁸⁾.

현재는 표준국어대사전 등재를 기준으로 ‘쌍둥’이 합성어의 어근으로써 인정되는 경우는 ‘쌍둥꽃대’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쌍둥이바람꽃’, ‘쌍둥이강’, ‘쌍둥이별’과 같이 ‘쌍둥이’가 사용되고, ‘쌍둥이’는 비표준어이지만 ‘쌍둥’은 ‘쌍둥딸, 쌍둥아들, 쌍둥바람꽃, 쌍둥밤, 쌍둥선’과 같은 단어에 두루 포함되는데, (2ㄱ~ㄴ)과 같이 언중들은 여전히 ‘쌍둥이’의 절단 형태인 ‘쌍둥’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둥이’뿐만 아니라 접미사 일부 절단형은 ‘-통이, -뱅이, -쟁이, -투성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8) 경향신문(1993.05.10)에는 ‘쌍둥아들’ 옳은 표기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이 실렸는데, 5월 8일자 기사에서 「자책 쌍둥 아들 뒷바라지 23년」에서 ‘쌍둥아들’을 ‘쌍둥아들’로 해야 한다는 독자의 지적이 옳다고 바로잡은 사항을 싣기도 했는데, 그만큼 합성어 형성 시 ‘쌍둥’이 거부감 없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가. -통이: 미련통, 미련통들, 미련통아
 모통, 길모통, 산모통, 모통에서, 길모통에 있는, 길모통으로, 산모통에서, 산
 모통을 돌아, 모통아리
- 나. -뱅이: 가난뱅, 가난뱅대학생, 가난뱅보다 못한 생활, 가난뱅들의 삶, 가난뱅의 생각,
 가난뱅 신세
 게름뱅 모드, 게름뱅 ○○이의, 게으름뱅의 삶, 게으름뱅아
 이 게름뱅을 이해해 주세요.
 주정뱅, 주정뱅모임, 주정뱅엄마, 주정뱅씨
 다 가고 주정뱅들만 남았다.
 장터에 출몰한 유명짜 팔난봉 주정뱅 시늬로 순식간에 판을 깨려 든다.
- 다. -쟁이: 갓난쟁, 갓난쟁때, 갓난쟁부터, 갓난쟁에 첫째까지, 울 동네 갓난쟁애기
 개구쟁, 개구쟁누나, 개구쟁본능, 개구쟁 표정, 개구쟁아, 개구쟁들이, 개구쟁
 들의, 개구쟁들을, 개구쟁스러운
 개구쟁처럼 놀았던 어린시절 / 개구쟁시절이 생각나는 맛이네요. / 개구쟁
 소년이었습니다.
 게으름쟁, 게으름쟁 ○○아, 게름쟁 엄마, 게으름쟁들, 게으름쟁아
 겁쟁아, 겁쟁들, 고자질쟁에 수다쟁이, 수다쟁들아, 피쟁, 피병쟁아, 싸움쟁,
 싸움쟁아, 무식쟁아, 무식쟁
 우리집 고집쟁을 소개합니다. / 우리 사이에 고집쟁으로 통한다. / 고집쟁들
 은 진짜 알미워.
 상경 선언을 하자 부모님은 “서울 깍쟁들한테 당한다”고 극구 말리셨다. / 왕
 년에 서울살때 서울 깍쟁들따라 아무리해도 식겁하겠드라. / 상상속에서나
 그러본 서울깍쟁들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갱기도 깍쟁들 뭐냐? /
 서울 깍쟁들은 작년부터 입었드라?
 월급쟁에 부자로 은퇴하라. / 평범한 월급쟁에게 주어진... / 그래도 월급쟁
 인생 이렇게 스트레스 풀죠. / 월급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 월급쟁 부자
 의 머니 파이프라인 / 월급쟁 재테크 연구.
 논평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알짜무식쟁’, ‘쓰레기통에 처박힌 더러운 반
 통일오물짜’ 정말 어디서 이런 표현을 찾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희한한 표현
 들이 들어있습니다. <sbs 뉴스, 2008.04.29.>
- 르. -투성이: 곱자왓은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돌투성들이 두껍게 쌓여 있어
 많은 비가 와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는 지하수 함양지대여서 제
 주섬의 ‘허파’로 불린다. <한겨레, 2015.01.19.>
 ‘신기한 것 투성’...미래형 편의점 ‘GS25 DX LAB’ <우먼타임즈,
 2022.07.08.>
 사업자 중심 해상풍력 인허가제도 ‘허접 투성’ 에너지전환 발목 <인천투
 데이, 2023.05.02.>
 ‘비욘드 조닝’ ‘그레이트 섀넌’...외국어 투성 서울시 정책, 실태 조사 <데
 일리안, 2022.10.07.>
 코어운용 사모펀드 만기연장 논란...“불합리한 운용 투성” <이데일리,
 2022.03.21.>

‘-통이’가 결합한 말 중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는 ‘미련통이, 심술통이, 귀통이, 모통

이'를 들 수 있다⁹⁾. 이 중 접미사 절단 형태는 '미련통이'와 '모통이'에서 나타난다. 특히 '모통'의 경우 '모통에서', '길모통에', '길모통으로', '산모통에서'와 같이 접사 절단 형태가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여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의 역할을 함을 볼 수 있다. '미련통이'는 '-동이'를 가지는 파생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미를 가지므로, '미련통아'와 같이 쓰인다. '심술통이'의 경우 '심술통'보다는 '심술통'이 널리 쓰이는데, 이는 '고집통'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고집과 심술이 둘 다 부정적인 성미나 습관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고집통'과 '고집통이'가 표준어로 인정되어 '고집통-이'로 분석되는 반면, '심술'은 '심술통'을 인정하지 않고 '심술통이'만을 표준어로 삼아 '심술-통이'와 같이 분석되는데, 둘의 실제적 쓰임을 보면 언중의 인식은 '고집통'이나 '심술통'을 한통속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뱅이'가 포함된 단어로는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너털뱅이, 떠돌뱅이, 비렁뱅이, 앓은뱅이, 주정뱅이, 장돌뱅이, 허튼뱅이, 헌털뱅이' 등이 있는데, 사용 빈도가 높은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주정뱅이'의 절단 현상이 활발하다. '게으름뱅이'의 경우, '게으름, 게으름'과 더불어 준말인 '게름, 개름'이 모두 표준어이므로 '게으름뱅이, 개으름뱅이, 게름뱅이, 개름뱅이'가 모두 표준어인데, 접미사 절단어 역시 본말과 준말에서 '이'를 탈락시킨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쟁이'의 경우, '수다쟁이, 갓난쟁이, 개구쟁이, 게으름쟁이'의 절단 형태인 '갓난쟁, 개구쟁, 게으름쟁'이 널리 사용되는데, '갓난쟁'은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갓난쟁때', '갓난쟁부터'와 같이 '이'를 절단한 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한 형태를 흔히 볼 수 있다. '개구쟁'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개구쟁 누나, 개구쟁본능'과 같이 합성어와 흡사한 구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개구쟁이'가 짓궂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구쟁'에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스럽다'를 결합하여 '개구쟁스러운'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검둥스럽다', '순둥하다, 순둥스럽다' 역시 특정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절단한 후, '-하다'나 '-스럽다'를 붙여 형용사화한 것이다¹⁰⁾. '짓궂다, 개구지다¹¹⁾, 귀엽다, 순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조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는 '고집쟁, 미련통, 심술쟁'에 '-스럽다'를 붙여 '고집쟁스럽다, 미련통스럽다, 심술쟁스럽다'와 같이 쓰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는데, 이미 '-스럽다'가 결합한 '고집스럽다, 미련스럽다, 심술스럽다'라는 형용사가 존재하여 널리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외에도 '-쟁이'가 붙은 단어들 중에는 '겁쟁이, 피쟁이, 수다쟁이, 싸움쟁이, 씹쟁이, 무식쟁이, 고자질쟁이' 등과 같이 대체로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 '관상쟁이, 그림쟁이, 글쟁이, 월급쟁이'와 같이 특정 직업을 낮잡아 이르는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도 접미사 일부 절단 형태가 확인된다. '-쟁이' 역시 '-동이'나 '-뱅이', '-통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미를 가지므로 절단 형태에 호격 조사 '아'를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직업을 나타내는 '관상쟁이~월급쟁이'보다는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겁쟁이~고자질쟁이'에 호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호격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빈도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편,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것과 관련된 수공업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장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간판장이, 소목장이, 옹기장이, 유기장이'도 '간판장, 소목장, 옹기장, 유기장'과 같이 쓰이지만, 이는 접미사 절단어가 아니라 한자 '匠'이 결합한 '간판장(看板匠), 소목장(小木匠), 옹기장(甕器匠), 유기장(鑪器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투성이'는 '-투성'으로 절단된 형태가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는 접미사이다. 특히 기사문에서

9) '귀통이'와 '모통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형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접사 '-통이'가 결합된 파생어로 보아 '귀-통이', '모-통이'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있다.

10) 물론 '개구쟁이스럽다', '귀염둥이스럽다'도 쓰인다.

11) '개구지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구쟁이'의 뜻풀이를 '심하고 짓궂게 장난을 하는 아이'로 제시하였으므로 '개구쟁이'의 특성을 드러내는 형용사는 '짓궂다'가 될 것이다.

‘-투성이’의 절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투성이’의 형태·통사적인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홍정현·이동석(2022)에 따르면, ‘-투성이’의 마지막 음절 ‘이’가 탈락하여 ‘-투성’으로 실현되는 예는 1920~30년대의 기록에서부터 발견되며, 1950년대부터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더불어 ‘투성이’는 접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을 지닌 명사처럼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노명희(2013)은 ‘투성이’를 접미사가 탈문법화된 대표적인 예로 보았으며, 여기서 나아가 홍정현·이동석(2022)에서는 ‘투성이’를 접사가 아닌 명사로 인식하는 양상, 또는 실제 사전에서 명사로 처리한 예가 ‘투성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꾸준히 관찰되며, ‘-투성이’에서 ‘이’가 절단된 ‘-투성’ 역시 ‘-투성이’와 쓰임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명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3ㄷ)에 제시된 ‘-투성’의 예들에서도 ‘-투성’이 명사로 인식되고 있음을 띄어쓰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투성이’가 접미사이므로 그 절단형인 ‘-투성’ 역시 접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돌투성들’을 제외하면 모두 선행 요소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투성이’가 사용된 용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신력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기사문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양상은 ‘투성이’와 ‘투성’이 국어 사용자에게 접사와 더불어 명사로 인식되어 온 기간이 꽤 오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서 형태소 분석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어원적으로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라고 봄이 합당한 단어들이 있다. ‘가랑이, 나부랭이, 말랭이, 꼬맹이, 꼬챙이’가 그것인데, 이들 역시 절단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4) ㄱ. 가랑이: 자기 버리고 홀연 떠나려는 주인 바짓가랑 붙잡고 떠나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애원하는 강아지(애니멀플래닛, 2022.10.01.)

바람이 바짓가랑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바짓가랑 밑을 지나갔다.

온세상 바닥 내 바짓가랑으로 다 끌고 다닐듯한 핏

ㄴ. 나부랭이: 인턴 나부랭, 소소한 일상 나부랭, 취준나부랭, 정치인나부랭들, 지도층 나부랭들

음료를 저런 허접 나부랭 컵에 대충 저렇게 주고 엄청 비쌌다.

신입 나부랭은 휴가가 한 개뿐, 신입나부랭 연차 붙여 쓸 수 있을까

ㄷ. 말랭이: 무말랭, 감말랭, 고구마말랭

감말랭·반건시, 청도 새명물로 <매일신문, 2009.12.17.>

태국 스타벅스에서 국산 고구마말랭 선보여 <농축유통신문, 2019.06.14.>

상주시 정보화마을 설밀 꽃감.감말랭들 10% 할인 판매 <헤럴드경제, 2020.01.19.>

무말랭 맛있는 족발집, 무말랭 만들기, 감말랭 완성, 제가 감말랭을 만든다고 감을 썰어 넣었는데...

ㄹ. 꼬맹이: 꼬맹, 꼬맹 친구들, 꼬맹의 생일, 꼬맹 자매, 꼬맹아

꼬맹들에게 생일 선물 받았어요.

꼬맹을 본 지 너무 오래 되어서...

『꼬맹 씨-진짜 사실에서 태어난 이야기』 <이술, 2017>

ㅁ. 꼬챙이: 꼬챙에 끼워서 굽는 닭

떡과 소세지를 번갈아 꼬챙에 꽂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전 씨는 이 때 지나던 나모(25)씨를 발견 쇠꼬챙이를 휘둘렀고, 나 씨는 휘두른 쇠꼬챙에 맞았다. <데일리안, 2015.01.23.>

쇠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사무실 창문을 쇠꼬챙, 펜치 등으로

열고 들어가... <뉴스1, 2015.04.02.>

이씨의 출석 때 쇠꼬챙 사진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지했다. <환경방송, 2019.09.17.>

화성시, 관상수 쇠꼬챙박아 ‘교통방해’ <화성인터넷신문, 2017.09.10.>

생감의 껍질을 벗기고 대꼬챙에 꿰어 햇볕에 잘 말려 만든 곳감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대꼬챙처럼 말라 비틀어진 산송장이었다.

‘가랑이, 나부랭이, 말랭이, 꼬맹이, 꼬챙이’는 어원적으로 접미사 ‘-앙이’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을 접미사 일부 절단형으로 분류하였다.

‘가랑이’는 ‘갈래’의 의미를 갖는 명사 ‘가르’에 ‘작음’을 나타내는 접미사 ‘-앙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우리말샘 역사 정보),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는 ‘바지’와 ‘가랑이’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룬 ‘바짓가랑이’가 절단되어 쓰이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가랑이’는 ‘가랭이’로도 흔히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바짓가랑이’의 절단어 역시 ‘바짓가랑’뿐만 아니라 ‘바짓가랭’도 관찰할 수 있다.

‘나부랭이’는 그 구성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불대다’, ‘나불거리다’의 어근 ‘나불’에 ‘-앙이’가 결합된 후 ‘ㅣ’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나부랭이’와 함께 ‘나부랭’으로 절단된 형태가 널리 쓰인다. 특히 ‘허접 나부랭, 신입나부랭’과 같이 다른 말과 어울려 쓰일 때 절단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부랭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나부랭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 선행 요소로 필요하기 때문이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는 접미사 ‘-투성이’와도 논리 구조가 유사한데, ‘나부랭이’는 명사로, ‘-투성이’는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5) 우리 정히 빅 골프고 목 몰라 이신 저기 주신이 이리 차반 주워 머기니 <1510년대 번노 상:43ㄴ-44ㄱ>

목이 몰라 썰썰하여 아프고 <1608 언두 상:59ㄴ>

저희가 주리고 목이 몰나셔 령혼이 저희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1898 시편 40-41>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말랭이는 무나 가지 같은 것을 가늘게 썰어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건조를 의미하는 ‘마르다’나 ‘말리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랭이’가 조어진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고형이 ‘므르다(15~19세기), 므르다(17~19세기)’이고, ㄹ불규칙 활용 용언으로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믈르-, 믈르-’, 현재는 ‘말르-’로 활용되므로 ‘-앙이’가 결합하고 ‘ㅣ’모음 역행 동화의 영향을 받아, ‘말랭이’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말랭이’ 역시 ‘말랭’으로 절단되어 쓰이는데 일반 언중뿐만 아니라 일부 기사문에서도 확인된다.

‘꼬맹이’는 하치근(1989:145)에서 ‘꼬마-앵이’로 분석하였으나, ‘-앙이’가 결합한 다른 단어들의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꼬마’에 ‘-앙이’가 결합한 후 ‘ㅣ’모음 역행 동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꼬맹이’의 절단어 ‘꼬맹’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책 제목에서도 ‘꼬맹이’가 아닌 ‘꼬맹’이 쓰인 예를 볼 수 있다¹³⁾.

‘꼬챙이’는 18세기 문헌에 ‘곳창이’로 나타나는데, ‘꼬치’를 의미하는 ‘곳’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곳치’에 접미사 ‘-앙이’가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우리말샘 역사 정보), ‘꼬챙이’의 ‘이’를

12) 사전의 뜻풀이에 제시된 용례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새끼 나부랭이, 형겅 나부랭이, 양반 나부랭이, 관료 나부랭이, 잡지 나부랭이, 책 나부랭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소설 나부랭이, 과자 나부랭이, 유행가 나부랭이, 형겅 나부랭이’를 제시하여 ‘나부랭이’의 이와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3)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외국 서적을 번역한 책인데 ‘꼬맹이’가 아닌 ‘꼬맹’을 사용하였다.

절단하여 ‘꼬챙’으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2.2. 접미사 완전 절단형

‘접미사 일부 절단형’이 2음절 이상의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에서 접미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형태로 쓰이는 경우라면, ‘접미사 완전 절단형’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에서 접미사가 모두 절단되어 쓰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에서 다시 ‘-이’를 절단하여 쓰는 경우를 중심으로 다룬다. ‘접미사 완전 절단형’은 사실상 어근만을 남기는 것인데, 절단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몇몇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곤두박이, 불박이, 판박이’의 접미사 절단어 ‘곤두박, 불박, 판박’의 예는 아래와 같다.

(6) ㄱ. 곤두박이: 호주 총리, 산불 ‘늑장 대응’ 비난에 지지율 ‘곤두박’ <뉴스핌, 2020.02.13.>

경기 기업 체감경기 불확실성 증대... 내수부진 겹쳐 곤두박 <중부일보, 2019.07.30.>

발리발 KAL기 "위기일발"...난기류 만나 100m 곤두박 <세계일보, 2005.07.14.>

기체는 10여분간 좌우요동과 급선회 곤두박을 반복하는 곡예비행에 돌입합니다. <MBC, 2007.02.07.>

더욱이 구제역 발생 보름째인 17일 진천지역은 영하 12도에 근접하고 18일에는 기온이 더 곤두박 치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일보, 2014.12.18.>

이번 환경부의 질타로 인해 ‘300만 도시’ 인천은 그 위상이 땅바닥으로 곤두박 치는 꼴이 됐다. <헤럴드경제, 2019.06.27.>

ㄴ. 불박이: 불박소파, 불박수납장, 불박의자, 불박장, 불박탐, 불박패치

시선 불박, 뇌에 불박, 기억에 불박, 랭킹 1위 불박, 너무 귀여워서 불박, 카페 5층에 자리잡고 불박.

그레이톤의 불박을 설치했습니다.

소파 불박으로 한국 드라마 정주행. / 영상이 아름다워 그 자리에 불박으로 서 있었다.

소파에 불박하여 TV를 보다가... / 코로나로 하루 종일 집에 불박하다 보나...

ㄷ. 판박이: 외할머니랑 손녀가 판박 수준으로 닮을 수도 있어요?

판박스티커 알코올 손소독제로 지워두 되나요?

바로 파일 시스템이 기존의 MS-DOS에서 사용하던 FAT32에서 벗어나 NTF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성은 윈도우 2000의 것과 판박 수준으로 엄청났다. <베타뉴스, 2016.08.11.>

머리 기른 차두리, 父 차범근과 판박 얼굴 ‘눈길’ <경기일보, 2012.11.24.>

‘캔틸레버 꺾임’ 사고...야탑10교와 판박 <대한경제신문, 202304.07.>

코로나19의 증시 영향, ‘911테러’ 판박?...수습시기 따라 달라질 수도 <화이 트페이퍼, 2020.03.04.>

‘곤두박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곤두박-이’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곤두±박-이’로

분석하여¹⁴⁾, 두 사전 모두 접사 ‘-이’가 결합된 단어로 처리하였다. 사실상 ‘곤두박-’이 어근인 것이다.

- (7) 곤두 「명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곤두박질
 곤두박다 「동사」 높은 데서 거꾸로 내리박다.
 곤두박이다 「동사」 높은 데서 거꾸로 내리박히다. ‘곤두박다’의 피동사.
 곤두박이 「명사」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일. 또는 그런 상태.
 곤두박이치다 「동사」 높은 곳에서 머리를 아래로 하여 거꾸로 떨어지다.≒곤두치다
 곤두박질 「명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곤두, 곤두질
 곤두박질치다 「동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세계 거꾸로 내리박히다.
 곤두박질하다 「동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다.≒곤두질하다
 곤두질 「명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는 일.=곤두박질
 곤두질하다 「동사」 몸이 뒤집혀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히다.=곤두박질하다
 곤두치다 「동사」 높은 곳에서 머리를 아래로 하여 거꾸로 떨어지다.=곤두박이치다 <표준국어대사전>

(7)은 ‘곤두박이’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모은 것이다¹⁵⁾. 뜻풀이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사전에 제시된 유의어 관계를 토대로 정리해 보면, ‘곤두=곤두질=곤두박질’, ‘곤두박이치다≒곤두치다’, ‘곤두질하다=곤두박질하다’와 같다. ‘곤두박이치다’와 ‘곤두치다’가 유의어 관계이므로, 결국 ‘곤두, 곤두질, 곤두박질, 곤두박이’는 모두 유의어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자립 명사로서 인정된다¹⁶⁾. 반면 ‘곤두박’은 자립성을 가진 하나의 단어로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6-1)의 예를 보면, 언중은 ‘곤두박’ 역시 하나의 자립적인 단어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곤두박이’와 ‘곤두박질’이 존재하므로, ‘곤두박’은 ‘곤두박이[+곤두±박-이]’에서 접미사 ‘-이’를 절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곤두박질[+곤두±박-질]’에서 접미사 ‘-질’을 절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접미사 절단 형태인 것은 동일하다.

‘불박이’는 ‘불박-이’, ‘[+불+박-이]’로 분석되어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박이’의 절단어인 ‘불박’ 역시 접미사 완전 절단형에 해당한다. ‘불박’의 쓰임은 ‘불박이’와 대체로 같다. ‘불박의자, 불박수납장, 불박텀’과 같이 새로운 합성어를 만드는 구성 요소로서 쓰이기도 하고, ‘불박을, 불박으로’와 같이 조사와 결합하여 명사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자리잡고 불박’, ‘뇌에 불박’과 같이 그 자체로서 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박이’의 절단으로도 볼 수 있고, 동사 ‘불박다’에서 어미가 절단된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불박’에 ‘-하다’가 결합하여 ‘불박하다’라는 새로운 동사로 파생되어 쓰이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본토박이[+本土+박-이], 소박이[+소+박-이], 외눈박이[=외+눈+박-이], 외톨박이[=외+톨+박-이], 차돌박이[=차(찰)+돌+박-이], 토박이[±土+박-이], 판박이[+版+박-이]’ 역시 접미사 ‘-이’가 결합한 단어인데¹⁷⁾, 절단어로는 ‘판박이’ 널리 쓰인다. 이는 각종 기사의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단어들 중에서는 아주 드물게 ‘차돌박, 본토박’ 정도가 확인될 뿐, 나머지 단어들은 절단어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떡살잡이[+떡+살+잡-이], 바람잡이[+바람+잡-이], 앞잡이[+앞+잡-이], 오른손

14) ‘곤두’를 어근, ‘박-’을 불완전 어근, ‘-이’를 접미사로 분석한 것이다.

15) 이 외에도 ‘곤두서다, 곤두세우다, 곤두자, 곤두짓, 널빤곤두, 뒛곤두, 번개곤두, 앞곤두, 외팔곤두, 재곤두치다’가 거꾸로 서거나 떨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16)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곤두박이’의 용례로, ‘오늘 주가가 곤두박이를 치는 현상이 나타났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흔히 ‘곤두박질’로 표현하는 상황과 같다.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들 단어를 접미사 ‘-박이’가 결합된 것으로 처리한다.

잡이[+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왼+손+잡-이], 총잡이[+銃+잡-이], 칼잡이[+칼+잡-이]의 ‘-이’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앞잡이’의 경우, 앞잡 뒤잡과 같은 말이 인터넷상에서 종종 쓰이는데, 특정 인터넷 게임에서 ‘앞잡’은 앞에서 공격하는 행위, ‘뒤잡’은 뒤에서 공격하는 행위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앞잡이’와는 의미상 차이가 있어서 ‘앞잡이’의 절단어라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뒤잡다’라는 단어가 있으나 ‘마구 짝 잡다’의 의미여서 이 역시 게임 이용자들이 쓰는 ‘뒤잡’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 (8) 마구잡이: 도로가 없음에도 구역 경계를 마구잡이로 표시한 후 민간재개발사업을 한다며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내외뉴스통신, 2022.11.21>
마구잡이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블로터, 2015.02.03>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마구잡 단속보다 어업인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018.09.16.>
 한편 지난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필리핀 당국이 교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해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수 건 올라왔다. <머니투데이, 2018.09.26.>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과 달리 ‘마구잡이[+마구+잡-이]’의 ‘-이’는 절단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마구잡 단속’ 정도를 제외하면 ‘마구잡이’의 쓰임이 압도적이다. ‘마구잡이’로 써야 할 자리에 ‘마구잡이’를 쓴 것으로, 기사문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영망으로’와 같이 일이 되어가는 사태나 방향성을 표현하기 위해 ‘마구잡’에 부사격 조사 ‘으로’를 결합한 것이다.

- (9) 말라깽이: 말라깽, 말라깽남, 말라깽들, 말라깽 사람들, 말라깽 몸, 말라깽의 고군분투
 말라깽깽, 말라깽깽이, 말라깽깽 ○○이, 말라깽깽 편식쟁이, 말라깽깽이 시절

접미사가 절단된 형태가 자주 쓰이는 단어로 ‘말라깽이’도 들 수 있다. ‘말라깽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라-깽이’로 분석하되 ‘깽이’를 별도의 접미사나 자립성을 가진 단어로 등재하지 않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말라깽이[+말르(마르)_아±깽-이]’로 처리하므로, 접미사 ‘-이’가 결합한 단어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말라깽’은 접미사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말라깽’의 형태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이 ‘말라깽’에 ‘깽’을 더한 ‘말라깽깽’, ‘말라깽’에 ‘-깽이’를 더한 ‘말라깽깽이’도 많이 사용되는데¹⁸⁾, ‘깽’을 반복함으로써 ‘마름’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 외에도 ‘빙충이[±빙충-이]’, ‘절뚝발이[±절뚝+발-이]’의 접미사 절단어인 ‘빙충’, ‘절뚝발’이 쓰이는 모습도 관찰된다.

- (10) ㄱ. 빙충이: 빙충, 빙충미, 빙충들, 빙충아
 ㄴ. 절뚝발이: 런닝머신 절뚝발은 타기 힘든가요?, 민머리에 절뚝발, 초라한 모습으로...
 절뚝발로 집에서 생활했어요. / 절뚝발로 걷다 뛰다를 반복했어요. / 절뚝발을 들쳐메고 뛰어갔다.

‘빙충이’는 ‘뽕뽕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 말로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지므로, ‘개구쟁아, 개구쟁들’과 마찬가지로 ‘빙충아, 빙충들’과 같은

18) ‘말라깽깽이’는 ‘말라깽’에 ‘-깽이’가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말라깽깽’이 형성된 후 ‘-이’가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말라깽이’의 중간에 ‘깽’이 삽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말라깽이’의 ‘말라깽’과 ‘이’를 분절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형태가 쓰인다.

‘절뚝발이’는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뒤통뒤통 저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역시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그런데 ‘절뚝발이’의 절단어 ‘절뚝발’은 ‘절뚝발을 들쳐메고...’에서는 ‘절뚝발이’의 온전한 의미를 갖는 반면, ‘절뚝발로 걷다 뛰다...’에서는 다리를 저는 사람 전체보다는 절뚝이는 발(또는 다리)만을 가리켜 의미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절뚝발이’에서 ‘-이’를 절단함으로써, 접미사가 갖는 [+사람]의 의미보다는 어근 ‘발’의 의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곤두박이, 불박이, 판박이, 마구잡이, 말라깽이, 빙충이, 절뚝발이’는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된 단어인데, 사용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래의 형태와 접미사가 절단된 형태가 모두 쓰이는 단어들로, 접미사 완전 절단형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석들이[+萬石+들-이], 속속들이[+속+속+들-이], 집들이[+집+들-이], 봄맞이[+봄+맞-이], 달맞이[+달+맞-이], 해맞이[+해+맞-이], 금불이[+金+불-이], 뺨불이[+뺨+불-이], 쇠불이[+쇠+불-이], 피불이[+피+불-이], 감옥살이[+監獄+살-이], 인생살이[+人生+살-이], 하루살이[+하루+살-이]’ 등에서는 절단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형태소 분석에 있어서 다소 모호하지만 절단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버르장이’, ‘영감탱이’, ‘잔챙이’가 있다.

(11) ㄴ. 버르장이: 버르장 문제, 버르장 없이, 버르장 없는 아기, 버르장대가리

요즘놈들 버르장없긴 해. / 누가 나보고 버르장없다함.

버르장을 초장에 잡았어야 했는데... / 애 버르장을 그렇게 키울 겁니까?

지각하는 버르장은 돈으로 고쳐야 돼. / 버르장은 챙기시구요. / 버르장은 여전히 없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며 입술이를 물리치며 “버릇없는 가시네년 누구에게 네가 감히 이따위 버르장을 하니.” 하고 꾸짖었다. <나도향, 꿈(1925)>

국정원 못된 버르장 5년 동안 더 진화한다. 5년 뒤엔 또 어떤 짓을 할지? <한겨레, 2013.02.05.>

‘버릇’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인 ‘버르장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버르장-이’로 형태 분석을 하였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형태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버릇’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되는 ‘버르장머리’는 두 사전 모두 ‘버르장-머리’로 형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버르장이’의 ‘-이’를 접미사로 보았을 때는 ‘버르장’은 접미사 절단어에 속하고, 접미사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절단어이긴 하나 접미사가 절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버르장’은 ‘버르장이’의 절단어로도 볼 수 있지만, ‘버르장머리’의 절단어로도 볼 수 있다. ‘버르장머리’를 절단하여 ‘버르장’으로 사용한다면 역시 ‘-머리’라는 접사를 완전히 절단하여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 언중은 ‘버르장’이 중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어근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근만으로도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의 접미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불완전 어근으로 처리하지만, 접미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탱이’, ‘-챙이’가 있다.

(12) ㄱ. -탱이: 영감탱 vs 영감탱이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말인가요?, 영감탱의 반댓말은 뭔가요? <네이버 지식 iN>

영감탱과 마누라, 영감탱 가만 안 뒤, 영감탱 재수탱

‘-탱이’를 포함하는 단어 중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은 ‘영감탱이’뿐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영감-탱이’로 형태소 분석을 제시하면서도 ‘-탱이’를 접미사 표제어로 신지 않았다.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영감탱이[+ㅅ監ㅅ탱이]’로 분석하여 ‘탱이’를 불완전 어근으로 보았다. 연원을 분명히 밝힐 수 없고 사전에 등재되지도 않았지만, ‘곰탱이, 맛탱이, 잠탱이, 채수탱이’ 등에서 ‘-탱이’는 접미사처럼 쓰인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영감탱이’의 경우, 검색 포털의 첫 화면에 (47)과 같이 ‘영감탱’과 ‘영감탱이’ 중 무엇인 맞는 표현인지를 묻는 질문이 검색될 정도로 절단 형태가 널리 쓰인다. ‘영감탱’과 마찬가지로 ‘곰탱, 맛탱, 잠탱, 채수탱’, ‘미런 곰탱아, 곰탱들, 곰탱들아’와 같이 ‘-탱이’에서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된 형태가 자주 사용되어, ‘-탱이’와 더불어 절단어인 ‘-탱’도 접미사처럼 쓰임을 보여준다.

(13) □. 잔챙이: 가까운 바다에는 잔챙만 가득하죠. / 해가 뜨면서 잔챙들 성화에 찌가 춤을 춥니다.

드물지만 ‘잔챙이’도 ‘잔챙’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하치근(1989:143-146)에서는 ‘잔챙이’를 ‘잘다’의 관형사형 ‘잔-’에 인칭 접미사 ‘-챙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잔챙이[=잔ㅅ챙이]’로 분석하여 ‘챙이’를 불완전 어근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챙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올챙이에서 ‘올’이 절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챙이’가 ‘올챙이’에서 온 것이라면, ‘올창(15세기)>올창이(16세기)>올창이(16세기~19세기)>올챙이(20세기~현재)’에 이르는 어형 변화를 감안하였을 때, 결국 ‘올창’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라면, ‘잔챙이’ 역시 접미사 절단어로 볼 수 있다. ‘잔챙이’는 주로 낚시에서 낚는 작은 물고기들을 지칭하는 데에 많이 쓰이므로, ‘잔챙’ 역시 물고기와 관련된 문장에서 쓰인다.

지금까지 파생어 접미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절단되어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다. 주로 어말 음절 ‘이’의 절단을 다루었지만, 앞서 언급한 ‘곤두박’의 형태가 ‘곤두박이’뿐만 아니라 ‘곤두박질’의 절단어일 가능성이 있으며, ‘버르장’ 역시 ‘버르장이’와 ‘버르장머리’의 절단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생어 접미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단하여 어근만을 사용하는 경향성은 단순히 어말 음절 ‘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 접미사 절단의 경향이 어말 음절 ‘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접사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단어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접미사 절단의 원인

3장에서는 접미사 절단어 발생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신어가 형성되는 기제를 다룬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접미사 절단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를 찾기 힘들어, 기존 연구의 관점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¹⁹⁾. 접미사 절단어를 별도의 단어 형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이나, ‘내비게이션’의 절단어인 ‘내비’를 의미는 같지만 음성 형태가 다른 신어로 인정한다면, ‘막둥이’의 절단어인 ‘막둥’ 역시 엄연히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접미사 절단어가 생겨난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

19) 접미사 절단어는 아니지만 ‘부럽, 더럽, 언짢, 귀엽’ 등 현대국어 신어에 나타나는 어간의 유리성에 대해 연구한 이선영(2016c)에서는, 어간이 유리되는 원인을 ‘어간의 명료성’과 ‘언어유희’로 보았다. 특히, 어간이 유리되는 단어들은 2음절 어간이면서 어간 말음절 종성이 ‘ㄷ’이거나 ‘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들은 1음절 어간이나 말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비해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어미 생략이 쉽고, 어간이 유리되어도 오독될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어간의 명료성’으로 명명하고 있다(이선영, 2016c).

이다.

기본적으로 접미사 절단어의 경우에도 다른 절단어와 마찬가지로 경제성과 언어유희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용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접미사 절단어 형성의 문법적 원인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호격 실현에 의한 유추로 볼 수 있다. 앞서 [+사람]의 의미 자질을 갖는 접미사 ‘-동이, -뱅이, -통이, -쟁이’가 붙은 파생어 ‘귀염동이, 막동이, 계름뱅이, 겁쟁이, 개구쟁이, 미련통이’ 등에 호격 조사가 결합하여 ‘귀염동아, 막동아, 계름뱅아, 겁쟁아, 개구쟁아, 미련통아’ 등과 같이 쓰임을 언급하였다. 규범에 따르면 ‘귀염동이야, 막동이야, 계름뱅이야, 겁쟁이야, 개구쟁이야, 미련통이야’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비규범적인 ‘귀염동아~미련통아’의 형태가 더 자주 사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섭(1995), 김양진·정연주(2008)에서는 파생어가 동물성을 갖는 경우에는 호격 조사 ‘아’와 결합 시 접미사 ‘-이’가 탈락하는 형태론적 양상을 보임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김창섭(1995)에서는 ‘개구리, 넙치눈이, 명칭이’가 호격 조사 ‘아’ 앞에서 ‘개굴, 넙치눈, 명칭’이라는 변이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2장에서 살펴본 예시들은 이러한 경향성이 일반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경향성, 즉 김창섭(1995)에서 언급한 호격에 의한 변이형이 생겨난 원인은, 이름 뒤에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²⁰⁾가 결합한 ‘길동이’와 ‘막동이’의 구조를 동일하게 파악하여,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 뒤에 호격 조사 ‘아’를 붙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호격을 생성해 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원형	길동	막동이	영수
지칭	길동이: 길동+-이(접미사)	막동이	영수
호칭	길동아: 길동+아(호격 조사)	막동이야: 막동+아(호격 조사) 막동아: 막동+아(호격 조사)	영수야: 영수+아(호격 조사)

<표 101> ‘길동’, ‘막동이’, ‘영수’의 지칭과 호칭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길동’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길동이’, 호칭할 때는 ‘길동아’가 된다. ‘길동이’에서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의 이름 ‘길동’ 뒤에 붙는 접미사로, ‘영수’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사람의 이름에는 결합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음운론적 조건을 만족해야 결합한다는 점에서, 접미사 ‘-동이’의 일부일 뿐인 ‘막동이’의 ‘이’와는 성질이 다르다. 물론 기원적으로는 ‘-동이’ 역시 ‘童-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 ‘-이’와의 관계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공시적으로 ‘-동이’의 원형을 ‘-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길동:길동이’와 달리 ‘막동:막동이’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 관계를 설정하여 ‘길동-이’처럼 ‘막-동이’를 ‘막동-이’로 분석함에 따라, ‘길동-아’와 마찬가지로 ‘막동-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막동이’는 본래 형태가 ‘막동이’이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하여 ‘막동이야’가 되어야 하지만, 본래 형태를 ‘막둥’으로 인식함에 따라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하여 ‘막동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동이, -뱅이, -통이, -쟁이’ 등이 붙는 단어들이 [+사람]의 자질을 가지므로 호격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길동아’의 유추에 의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로 정의하고 ‘갑순이’와 ‘갑돌이’를 예로 들었고,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자신과 동년배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뜻을 더하는 말’로 정의하고, ‘영순이’와 ‘성철이’를 예로 들었다.

해 ‘막둥아’가 생성되고 이 호격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막둥이’의 본래 형태를 ‘막둥’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은 짙어졌을 것이다. 일단 ‘막둥’을 본래 형태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집 막둥, 막둥생일, 막둥과 데이트’와 같이 ‘막둥’이 단독형이나 합성어를 이루는 요소로서 소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막둥’과 같은 접미사 절단어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의 절단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황선엽(1997)에서는 ‘이’ 말음을 가지는 명사 중 일부가 호격이나 속격 조사와 통합할 때 말음 ‘이’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²¹⁾.

- (14) ㄱ. 李舟는 일홈난 아비와 아들왜니(李舟名父子) <두초 8:197 ㄱ>
 ㄴ.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악학궤범 處容歌>
 ㄷ. 아드리 아비 나해서 곱기곰 사라 <월석 1:47 ㄴ>
 ㄹ. 다 아리게 가 아리게 날오되(皆詣父所訶야 而白父言호되) <법화 2:138>

(14ㄴ)은 ‘아비’에 호격조사 ‘아’가 결합할 때, (14ㄷ)은 속격조사 ‘이’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한 어형으로 보고, 중세국어의 ‘이’ 탈락 명사들은 기원적으로는 어간 말음 ‘이’가 없는 ‘압’과 같은 형태였는데,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부착됨으로써 ‘아비’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났으나 속격과 호격조사에서는 그 기원형이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주격이나 대격에서는 ‘아비’, 속격 등에서는 ‘압’이라는 형태가 사용되는 현상이 중세국어 ‘이’ 탈락 명사의 전반적인 특성이며, 이와 달리 현대국어에서는 ‘선웅이, 선웅이에게, 선웅이는 선웅이의, 선웅아’와 같이 호격 조사를 제외하면 ‘이’가 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황선엽, 1997).

이광호(1986) 역시 주격 조사 ‘이’, 대격 조사 ‘을’, 보조사 ‘는’이 선행 체언 ‘옥순’과 결합할 때 ‘이’가 개재되지 않은 ‘옥순이, 옥순은, 옥순을, 옥순에게’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하다면서, 호격 조사를 제외한 모든 격조사와 보조사에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 ‘-이’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이’ 말음을 갖는 명사에 호격 조사가 결합하여 탈락하는 현상은 이미 중세국어에서도 확인되며, 현대국어에서도 ‘아가(아기야), 며늘아가(며늘아기야), 며늘아(며느리야)’ 등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귀염둥아~미련통아’와 같은 절단 현상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호격 조사와의 빈번한 결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호격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사전 등재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폰팔이, 차팔이, 감성팔이²²⁾’ 등은 호격 조사가 결합해도 “*폰팔아, *차팔아, *감성팔아” 등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인지 ‘폰팔, 차팔, 감성팔’과 같은 절단 형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은 호격이 절단형을 생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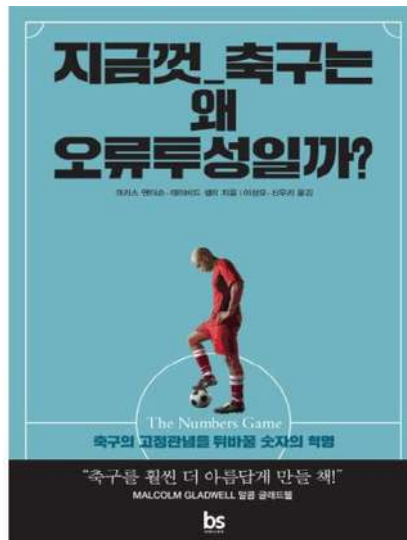
둘째, 서술격 조사의 오분석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투성이’와 ‘판박이’의 절단형인 ‘-투성’과 ‘판박’은 주로 기사문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의 오분석으로 인해 절단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정현·이동석(2022)에서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하여 ‘투성이’와 조사의 결합 양상을 연대별로 보이면서, 1920년대에는 ‘투성이’와 주격 조사의 결합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서술격 조사인 ‘이다’와의 결합이 늘어, 1950년대 이후로는 주격형보다 서술격형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서술격 조사 결합 어형에서 ‘이’를 ‘투성이’의 ‘-이’가 아닌 서술격 조사로 오분석하면서 ‘이’ 절단을 초래한다고

21) 예로 든 단어가 ‘올히(>오리), 아비’임을 감안하면, ‘이’ 탈락으로 볼 수 있겠으나 황선엽(1997)에서 ‘이’ 탈락 명사들로 칭하였으므로 원문을 따랐다.

22) 감성팔이는 ‘감성을 자극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우리말샘)’을 뜻한다.

하였다²³⁾.

- (15) ㄱ. 『이 聲明은 越南에서 外國軍隊를 철수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했지만 그저 條件투성』이라고 「타스」통신은 주장했다. <동아일보, 1966. 10. 26. 2면>
- ㄴ. 삶이 온통 질문투성이라며 ‘투성’이란 별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아무개(45)씨는 노숙 생활 6년차다. <한겨레, 2020.07.24.>
- ㄷ.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2021. 01. 18.>
- ㄹ. 모든 事業은 赤字투성이니 <조선일보, 1957, 02, 07. 1면>
- ㅁ. 이와 같이 打撲傷투성이고 보니 <경향신문, 1959. 03. 09. 1면>
- ㅂ. 크게 改善하여야 될 專制의缺陷투성인데다가 <동아일보, 1928. 01. 28. 4면>
- ㅅ. 지난 겨울에는 너도 나도 예도 제도 빈대떡 富者떡집 투성이더니 <경향신문, 1949. 08. 26. 2면>
- ㅇ. 더러는 汚物투성인 채 <동아일보, 1968. 12. 17. 5면>



<그림 90> ‘-투성이+이다’의 예

(15ㄱ~ㅇ)은 홍정현·이동석(2022)에서 ‘투성이’와 ‘이다’의 결합에서 오분석이 되었거나 오분석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을 제시한 것으로, ‘투성이’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에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그 형태를 ‘투성이’가 아닌 ‘투성’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거나, 글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가 잘 생략되지 않는 표현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예를 통하여 서술격 조사 오분석으로 인한 ‘이’ 절단 현상을 입증하였다.

<그림 2>의 책 제목에 쓰인 ‘오류투성일까’ 역시 본래의 형태인 ‘오류투성이일까’에서 서술격 조사 ‘-이’의 탈락과 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류투성’에 ‘-르까’가 결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오류투성이’ 또는 절단어인 ‘오류투성’으로 단어의 경계를 인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판박이’에서도 볼 수 있다.

- (16) ㄱ.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배수로가 없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와 판박이”이라고 원인을 지목했다. <민중의 소리, 2019.10.04.>

23) 홍정현·이동석(2022)에 따르면, 초기에는 ‘투성이’가 서술어로 사용될 때 접미사 ‘-하다(ㅎ다)’와 결합하여 ‘○○투성이하다(ㅎ다)’ 또는 ‘○○투성이를 하다(ㅎ다)’와 같이 쓰이다가 점차 ‘이다’와의 결합이 빈번해진다.

- ㄴ.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와 판박”이라며... <헤드라인 제주, 2019.11.07.>
- ㄷ. “...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비겁함의 판박”이라며... <글로벌경제신문, 2023.04.03.>
- ㄹ. ‘완전 판박이네’...北, ‘네이버 피싱 사이트’ 만들어 해킹 시도 <매일경제, 2023.06.14.>
- ㅁ. 정부의 외교정책이 일본과 판박이니, 미국이 굳이 한국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경향신문, 2023.03.14.>
- ㅂ. 부리 끝이 노란 겨울철새 부랑부리저어새와 몸이 거의 판박인 저어새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적색목록(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여름철새다. <중앙SUNDAY, 2016.04.10.>
- ㅅ. 영화 ‘기생충’과 판박인 한국산업구조 <브릿지경제, 2020.03.11.>

16(ㄱ~ㄷ)은 15(ㄱ~ㄷ)과 마찬가지로, 문장 부호를 삽입하여 의도적으로 ‘판박’과 ‘이’를 분리함으로써 ‘판박이+(이)다’가 아닌 ‘판박+이다’ 구조로 오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판박이’의 원형을 ‘판박’으로 인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6ㄹ~ㅇ)과 같은 예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6ㄹ, ㅁ)의 ‘판박이네, 판박이니’는 본래 ‘판박이+이다’의 구조로, ‘판박이이네, 판박이이니’에서 서술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오분석하면 ‘판박+이다’의 활용형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문법적 모호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16ㄴ, ㅅ)은 ‘판박이인’이 와야 할 자리에 ‘판박인’이 온 것으로, ‘판박이+(이)-ㄴ’과 같이 서술격 조사 생략 후 축약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판박+이-ㄴ’으로 절단 형태인 ‘판박’에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결합한 것으로 오분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체로 이와 같은 상황의 문어에서는, “*성냥팔인(성냥팔이인)”, “*매잡인(매잡이인)”과 같은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몇몇 단어에서 이러한 형태가 보여 특징적이다.

- (17) ㄱ. 당초 복지부는 부모가 맞벌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조손 가구인 경우, 부모가 구직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토마토, 2016.06.30.>
맞벌인 부부는 아기 눈에 명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 CCTV를 설치했다. <뉴스엔미디어, 2010.03.22.>
- ㄴ. 외벌인 직장인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이자 수준이다. <MoneyS, 2023.01.10.>
- ㄷ. 왼손잡인 테다가 왼손잡인 테다가 키보다 팔이 긴 신체도 장점까지 더해진다. <MBC뉴스, 2017.12.27.>
 12일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성인 남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가 왼손잡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일보, 2014.08.13.>
 상대가 왼손잡인 경우 뇌의 역할이 반대일 수도 있고... <세계일보, 2016.02.16.>

(17ㄱ~ㄷ)은 ‘맞벌이인’이 ‘맞벌인’, ‘외벌이인’이 ‘외벌인’, ‘왼손잡이인’이 ‘왼손잡인’으로 표현된 기사문들로, 마찬가지로 ‘맞벌이+(이)-ㄴ’, ‘외벌이+(이)-ㄴ’, ‘왼손잡이+(이)-ㄴ’과 같이 서술격 조사 생략 후 축약으로 분석 가능하며, 동시에 ‘맞벌+이-ㄴ’, ‘외벌+이-ㄴ’, ‘왼손잡+이-ㄴ’과 같이 오분석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벌이’나 ‘-잡이’가 결합된 단어들의 경우 절단형이 활발하게 쓰이진 않지만, 서술격 조사의 오분석이 가능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머지않아 ‘외벌’, ‘맞벌’, ‘왼손잡’과 같은 절단형이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분리형, 또는 다른 접사나 어근과 결합한 다른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 접미사 절단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곤두박’, ‘버르장’, ‘불박’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7)에서 살펴본바 ‘곤두박이’와 관련되는 여러 단어 중, 명사인 ‘곤두박이, 곤두박질’, 동사인 ‘곤두박이치다, 곤두박질치다, 곤두박질하다’에서 공통된 요소인 ‘곤두박’만을 남김으로써, 접미사 ‘-이’와 ‘-질’이 절단된 ‘곤두박’을 사용하게 된 듯하다. (6-7)에 제시된 ‘지지울 곤두박, 곤두박을 반복하는, 곤두박 치는’ 등은 언중들이 ‘곤두박’을 ‘곤두’, ‘곤두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립적인 어근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흡사한 구조를 가진 ‘달음박질’에서도 나타난다.

(18) ㄱ. 말 한마디 전하러 달음박에 오신다.

나. 고슴도치 타조는 달음박 치거나 성큼성큼 걸어야 하는데...

ㄷ. 냅다 달음박 친다. / 단숨에 달음박쳐 계단을 올랐다.

ㄹ. 얼굴을 잔뜩 가린 채 달음박 하듯 뛰쳐나와 뒷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달음박질’ 역시 접미사인 ‘-질’ 앞에서 경계를 인식하여 절단함에 따라 ‘달음박’이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오분석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 ‘달음박치다(달음박 치다)’가 사용되기도 한다.

‘버르장’ 역시 어근과 결합한 다른 단어가 존재하여 절단어가 생겨난 경우로 볼 수 있다. ‘버르장이’와 ‘버르장머리’에서 공통적인 요소인 ‘버르장’을 어근으로 인식하면서 접사와의 경계에서 절단한 것으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접사 ‘-이’뿐만 아니라, ‘-머리’도 절단함으로써 접미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사용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불박이’의 경우에는 사전 등재어를 기준으로 ‘-이’가 분리되어 다른 요소가 결합한 단어는 ‘불박다, 불박이다’가 있으며, 표준어는 아니지만 ‘불박히다’와 같은 말들이 쓰이기도 하므로 어미와 접사를 제외한 ‘불박’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단어에서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요소가 거듭하여 나타나면, 그것을 하나의 자립성을 가진 단어로 파악하여 명사처럼 사용하거나,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 내는 과정에서 접미사 단절 형태가 굳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ㅣ’를 ‘ㅡ’로 오분석하면서 ‘이’의 절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마구잡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써야 할 자리에 ‘으’를 사용한 것으로, 이처럼 모음 ‘ㅣ’와 ‘ㅡ’를 혼동하여 교체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느즈막’을 ‘느지막’으로, ‘들르다’를 ‘들리다’로, ‘가르마’를 ‘가리마’로 잘못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경우이다.

‘마구잡이’의 경우, ‘마구잡이로’를 써야 할 자리에 ‘마구잡으로’를 사용한 것인데, 앞서 기사문에서 ‘마구잡’의 쓰임을 언급하면서, ‘마구잡 단속’ 정도를 제외하면 ‘마구잡으로’로 쓰인 경우가 압도적임을 설명하였다. ‘마구잡으로’는 ‘마구잡’과 ‘으로’의 결합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형태소 분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접미사 절단어인 ‘마구잡’을 하나의 단어 또는 자립성이 있는 어근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접미사 절단어 형성의 문법적 원인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복합적인 원인의 작용으로 하나의 접미사 절단어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어말 음절 ‘이’의 절단 현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미사 절단어의 사용 양상 및 형성

원인을 살펴보았다.

‘귀염둥, 늦둥, 막둥, 순둥, 쌍둥, 미련통, 모통, 가난뱅, 기름뱅, 주정뱅, 갓난쟁, 개구쟁, 겁쟁, 고집쟁, 각쟁, 월급쟁, 무식쟁, -투성, 바짓가랑, 나부랭, 말랭, 꼬맹, 꼬챙, 곤두박, 불박, 판박, 마구잡, 말라깽, 빙충, 절뚝발, 버르장, 영감탱, 잔챙’ 등의 접미사 절단어들은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접사에서 비롯된 것들로, ‘접미사 일부 절단형’과 ‘접미사 완전 절단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접미사 절단어 형성의 문법적 원인으로는 ‘① 호격 조사 결합 과정에서의 잘못된 유추, ② 서술격 조사 결합으로 인한 오분석, ③ ‘-이’ 분리형, 또는 다른 접사나 어근과 결합한 또 다른 단어의 존재 여부, ④ 모음 ‘ㅣ’와 ‘ㅡ’의 혼동에 의한 오분석’을 제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언어유희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둥이, -통이, -쟁이, -뱅이, -탱이’ 등이 결합된 단어들의 어말 음절 ‘이’가 절단되어 ‘-둥, -통, -쟁, -뱅, -탱’ 등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그 형성 원인과 사용 목적이 언어유희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는 접미사 절단어를 주로 다루었지만, ‘아비’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한 형태로 15세기 문헌에서부터 관찰되는 ‘아바’로부터 비롯된 ‘아빠’, 그리고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형성된 ‘엄마’와 ‘아가’, 현대국어에서 꽤 오랜 시간 절단의 형태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는 ‘-투성’과 ‘쌍둥’, 접미사 ‘-이’뿐만 아니라 ‘-질’, ‘-머리’ 등의 절단을 함께 보여주는 ‘곤두박’, ‘버르장’ 등의 다채로운 접미사 절단 양상을 보면, 접미사 절단의 역사가 짧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절단 현상이 확산되어 앞으로 또 다른 형태들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언어 현상으로서 접미사 절단의 원인과 사용 양상에 대해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순구(2010), ‘(한자/명사)어기+-이’ 구성 접미사의 의미, 《어문연구》 65, 어문연구학회, 5-26.
- 김양진·정연주(2008), 접미사 ‘-이’의 동음이의 구별 방안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2, 한국사전학회, 185-207.
-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65-201.
- 노명희(2013), 접미사 부류의 탈문법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35, 반교어문학회, 129-164.
- 노명희(2019),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91, 국어학회, 27-56.
- 서정수·우인혜(1995),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외래 어휘, 《새국어생활》 5, 국립국어연구원, 61-86.
- 양명희·박미은(2015), 형식 삭감과 단어형성법, 《우리말 글》 64, 우리말글학회, 1-25.
- 엄상혁(2018), 한국어의 재분석에 의한 단어 형성-어휘적 재구조화와 역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1, 한국어학회, 197-244.
- 이광호(1986), 미지의 ‘이’를 찾아서, 《국문학논총》 5, 국민대어학연구소, 67-83.
- 이선영(2016ㄱ),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9-291.
- 이선영(2016ㄴ), 신어에서의 일음절 절단어에 대하여,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49-71.
- 이선영(2016ㄷ), 신어에 나타나는 어간의 유리성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4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55-174.
- 이선영·정희창(2019), 절단 현상과 의미 응축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5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69-289.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 형태론, 93-113.
- 이찬영(2022), 혼성어 연구의 쟁점과 방향, 『형태론』 24-1, 《형태론》, 51-81.
- 이호승(2011), 절단어와 혼성어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개신어문학회, 79-103.
- 최형용(2009),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한국학중앙연구원, 2-36.
- 최형용(2022), ‘키라니’형 신어 혼성어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4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68.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홍정현·이동석(2022), ‘투성이’의 의미 및 형태·통사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95, 한국어학회, 335-367.
- 황선엽(1997),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들에 대하여, 《울산어문논집》 12,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3-213.

토론문

정대식(부산대)

이 글은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로 파생과 합성이라는 보편적인 방법 외에 ‘절단’이라는 기제가 사용된다고 간주하여, 특히 접미사 ‘-이’가 절단되는 유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 글은 특히 단어 형성에 ‘절단’이라는 기제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은 이 글이 지니는 독창성을 더욱 부각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러한 독창성과 더불어 보여주는 다양한 대상 어휘의 제시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작업인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높은 독창성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기는 궁금증을 질문함으로써 토론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절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절단’은 1차 단어 형성 후의 과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주신, 소위 ‘-동이’류에서 ‘막동이 → 막동’, ‘-쟁이’류에서 ‘갓난쟁이 → 갓난쟁’ 등뿐만 아니라 두음절어인 ‘강력 추천 → 강추’, ‘노동 조합 → 노조’ 등은 모두 파생이나 합성 등으로 단어 형성이 이루어진 후 ‘절단’이라는 과정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어법상에서 파생과 합성, 그리고 절단은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는 ‘절단어’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준말’, ‘약어’ 등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미사 절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절단형 단어를 ‘접미사 일부 절단형’과 ‘접미사 완전 절단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접미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어 형성 과정에서 접미사는 의미적인 영향도 주겠지만, 그보다도 범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표지에서 들어주신 예로 (7)을 보면 ‘곤두박-’은 동사 어근인데 접미사 ‘-이’로 인하여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명사 파생의 기능을 지닌 접미사 ‘-이’를 절단한다면 명사 ‘곤두박이’를 다시 동사 어근 ‘곤두박-’으로 범주를 되돌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6)의 예에서 ‘곤두박’은 여전히 명사의 범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2번의 질문에 이어서 ‘일부 절단형’에서도 예를 들어 ‘-동이’의 ‘-이’가 절단되어 그대로 쓰인다면 접미사 ‘-동이’와 접미사 ‘-동’의 문법적 관계는 어떠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의 예에서 ‘늦둥’과 ‘늦둥이’가 모두 명사여서 서로 대체 가능한 어휘로 보이는가 하면, ‘순둥’은 ‘순둥이’와는 달리 용언 어근이어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늦둥이’에서 ‘이’의 역할과 ‘순둥이’에서 ‘이’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닌가 또는 ‘순둥이’과 ‘순둥(하다)’은 같은 형태소인가 다른 형태소인가, 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저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을 후학들을 위해 발표자께서 이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미사 절단의 원인 중 하나로 호격 실현에 의한 유추를 들어주셨습니다. 발표지의 <표1>과 관

련된 설명을 보면 ‘막둥이’가 ‘막둥아’로 실현되는 모습을 사람 이름인 ‘길동+이’가 ‘길동+아’로 실현되는 모습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여기서 +는 형태소 경계임).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발표지에도 말씀하셨듯이 ‘막+둥이’가 ‘막둥+이’로 바뀌어, 단어의 내부 구조가 재구조화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어 형성 후 호격의 음성적 실현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단어 내부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설명은 ‘어휘고도제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상철이야 : 상철아 ≠ 막둥이야 : 막둥아

그리고 <표1>에서도 보였듯이 위의 예에서 ‘상철이’의 ‘이’와 ‘막둥이’의 ‘이’가 서로 분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적어도 두 ‘이’가 같은 부류의 형태소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상철아’의 형성 과정과 ‘막둥아’의 형성 과정도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 사람 이름을 외자로 부를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철이야 : 철아 = 막둥이야 : 막둥아

언어 형식 ‘이’의 분포와 관련된 위의 모습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표지만 읽고 토론문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특정 부분을 오해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한자어 구성의 구조 및 의미 특성 연구

김근애·김양진(경희대)

< 차례 >

1. 서론
2.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 2.1 관계 관형절 구성
 - 2.2 내용 관형절 구성
3. 관계 관형절 구성 논항 실현 양상
4. 내용 관형절 구성 논항 실현 양상
5. 결론

1. 서론

한국 한자어의 4자 구성을 지니는 단어 중에는 ‘之’를 매개로 하여 구성된 어휘(‘破竹之勢, 自中之亂, 浩然之氣, 糟糠之妻’등)가 1,600여 개에 달한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4음절 한자어 중에서 구 단위의 자유결합 구성을 제외하고 고정적 단어성을 지니는 2,650여 개 4자성어(四字成語)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2자어+之+1자어’ 구성의 한자어 중에는 ‘夫婦之間, 兄弟之間’등과 같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한자어 외에도 ‘同僚之間, 師弟之間, 親舊之間’등과 같은 신조어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父母子息之間, 兄弟姊妹之間’등 4자 이상의 구성으로까지 확대되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之’구성 한자어가 현대 한국어에서도 매우 생산성이 높은 조어력을 지닌 조어 기제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구조적인 특징과 의미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선행하는 ‘2자어’가 가지는 서술성 및 비서술성에 따라 관형구성 명사구의 특징이 나타난다. 즉 ‘동량지신(棟梁之臣, 마룻대+들보), 수어지친(水魚之親, 물+물고기)’ 등은 한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구성’이라면 ‘우국지사(憂國之士, 걱정하다+나라), 미봉지책(彌縫之策, 꿰매다+꿰매다)’ 등은 선행 2자어가 ‘서술성’인 ‘관형형 구성’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의 구조 및 의미 특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서술성’이란 ‘우국지사(憂國之士)’에서 후행어 ‘사(士)’가 ‘서술성’의 특징을 지닌 선행어 ‘우국(憂國)’의 ‘행위자(Agent)’의 의미역을 갖는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미봉(彌縫)’이 후행어 ‘책(策)’과 동격 관계를 이루어 ‘이다’ 구성의 서술적 실현을 표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이 어떠한 논항관계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之’와 관련한 연구는 ‘之’의 일반적인 용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기술하거나¹⁾ ‘주어+之+술어’구조에 나타나는 ‘之’의 기능을 주제로 한 연구²⁾가 활발히 진행된 반면 ‘之’를 포함한 4자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한국어 관형절은 관형절 내부에 핵어 명사와 공지시되는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계 관형절(관계절)과 명사구 보문(보문 관형절)³⁾으로 나뉜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도 한국어 관형절과 마찬가지로 주로 관계 관형절(관계절)과 내용 관형절(내용절)의 구조를 보인다.

(1) 관계 관형절

- ㄱ. [아름다운] 꽃 [ei 아름다운] 꽃i
- ㄱ'. 충량지신(忠良之臣) [ei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i
- ㄴ. [공부를 하는] 학생들 [ei 공부를 하는] 학생들i
- ㄴ'. 전래지풍(傳來之風) [ei (예전부터)전하여 내려오는] 풍속i
- ㄷ. [칠수가 보는] 영화 [칠수가 ei 보는] 영화i
- ㄷ'. 천가지년(天假之年) [하늘이 ei 빌려주는] 세월i (목숨을 연장함을 이르는 말)

(2) 내용 관형절

- ㄱ.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 ㄱ'. 영허지리(盈虛之理): [달이 차고 비어가는] 이치

(1ㄱ, ㄴ, ㄷ)를 보면 핵어명사 ‘꽃, 학생들’과 ‘영화’가 각각 관형절의 주어와 목적어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핵어명사가 관형절의 주어와 목적어 논항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술성 2자어+之+1자어’구성 한자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1ㄱ', ㄴ')에서 핵어명사 ‘臣 [신하], 풍속 [風]’은 관형절의 주어로 해석되고 (1ㄷ')의 ‘세월 [年]’은 관형절 ‘天假 [하늘이 빌려주다]’의 목적어로 해석되면서 관계 관형절의 구조를 보인다.

한국어의 내용 관형절은 핵어명사와 통합되는 관형절이 핵어명사와 의미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거나 핵어명사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조이다. (2ㄱ)의 핵어명사 ‘소문’이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2ㄱ')의 관형절 ‘盈虛 [(달이)차고 비어가다]’가 핵어명사 ‘이치 [理]’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관형절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이 ‘서술성 2자어+之+1자어’구성 한자어의 2자어와 1자어 사이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형절에서 나타나는 논항관계를 ‘서술성 2자어+之+1자어’구성 한자어에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논항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련 연구로는 이병관(1995), 정요일(2001), 이종한(2003), 이우태(2005), 안기섭(2008) 등이 있다.
 2) 홍인표(1976), 이병관(1995), 안기섭(2008), 박향란(2020, 2021) 등이 있다.
 3) 명사구 보문은 관형절이 핵어 명사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거나 관형절이 핵어 명사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이 드러나는 동격(관형)절 또는 내용절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선웅(2007:163)에서는 ‘동격(관형)절’이라는 명칭에 대해 의미를 고려한 명명일 뿐, 선행하는 보문과 후행하는 핵 명사가 통사적으로 같은 자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의미적으로 ‘내용절’이 더 적절하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선행 서술성 2자어가 후행 1자어의 ‘내용’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선웅(2007)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용 관형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의 구조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은 핵어명사인 후행 1자어가 선행 2자어 관형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계 관형절 구성과 내용 관형절 구성으로 나뉜다.⁴⁾ 이는 후행어가 선행어의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먼저 선행어가 어떠한 논항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어의 구조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1. 서술성 2자어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서술성 2자어는 ‘형용사 나열 구성’, ‘동사 나열 구성’, ‘술목(타동사) 구성’, ‘주술 구성’, ‘술부 구성’, ‘본용언-보조용언’ 등의 구조로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진행되는 논항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서술성 2자 선행어가 동사로 구성된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 형용사 나열 구성: 용둔지재(庸鈍之材), 충량지신(忠良之臣), 황당지설(荒唐之說)

(3)의 서술성 선행 2자어는 형용사가 나열된 구성이다. (3)의 선행어를 살펴보면 ‘용둔(庸鈍, 어리석다+미련하다), 충량(忠良, 충성스럽다+선량하다), 황당(荒唐, 허황하다+황당하다)’와 ‘강장(強壯, (몸이)건장하다+(기력이)왕성하다), 고위(孤危, 외롭다+위태롭다)’가 대체로 유사한 의미 범주의 형용사가 나열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 동사 나열 구성

ㄱ. (비대격)자동사⁵⁾: 강개지사(慷慨之士), 연포지목(連抱之木)

ㄴ. 타동사: 보필지신(輔弼之臣), 탐도지배(貪饕之輩)

(4ㄱ)는 선행어가 동사가 나열된 구성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4ㄱ)의 선행어 ‘강개(慷慨, 분노하다+분개하다)’, ‘연포(連抱, 잇달다+둘러싸이다)’는 자동사, (4ㄴ)의 선행어 ‘보필(輔弼, 돕다+돕다(보필하다))’, ‘탐도(貪饕, 탐내다+탐내다)’는 타동사로 나뉜다.

(5) 술목(타동사) 구성: 개세지재(蓋世之才), 경국지색(傾國之色), 적선지가(積善之家), 지기 지우(知己之友)

(5)의 선행어 ‘개세(蓋世, 세상을 뒤덮다), 경국(傾國, 나라를 기울게 하다), 적선(積善, 선행을 쌓다), 지기 지우(知己, 자기를 알다)’는 술목 구조의 타동사 구성이다.⁶⁾

4) 한국어의 관형절 중에 핵어명사와 공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만 관계관형절로 보기 어렵거나 통사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절로 볼 수 있는 등 전형적인 관계 관형절(관계절)과 동격 관형절(본고에서는 내용 관형절)로 볼 수 없는 예들을 통해 관형절에 존재하는 통사적 공백이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문숙영(2012), 박형진(2016) 등의 논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가 본 논의의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관형절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5) ‘비대격’은 자동사이면서 ‘바람이 불다’, ‘차가 움직이다’ 등과 같이 원래는 타동사 구문인데, 주어가 비가시적이어서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실현되는 비대격동사의 피동주가 갖는 격을 말한다.

6) 총 790개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중에서 ‘술목(타동사)’ 구성은 36.7%(290개)에 달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6) 주술 구성

① 주어+형용사: 경승지지(景勝之地), 금왕지절(金旺之節), 시급지사(時急之事)

② 주어+동사

ㄱ. 자동사: 국록지신(國祿之臣)

ㄴ. 타동사: 군사지물(君賜之物), 천가지년(天假之年)

주술 구성의 서술성 선행 2자어는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와 동사인 경우로 나뉜다. (6①)은 선행어 ‘경승(景勝, 경치가 아름답다), 금왕(金旺, 금기(金氣)가 왕성하다), 시급(時急, 시기가 급하다)’가 ‘주어+형용사 술어’ 구성이며 (6②)는 선행어가 ‘주어+동사 술어’ 인 구성에서 동사 술어를 또 ‘국록(國祿, 나라가 녹을 주다)’의 자동사 구성과 ‘군사(君賜, 임금의 하사하다), 천가(天假, 하늘이 빌려주다)’와 같은 타동사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7) 술부 구성

① 부사+형용사: 만전지책(萬全之策), 본연지성(本然之性)

② 부사+동사

ㄱ. (비대격)자동사: 고래지풍(古來之風), 이왕지사(已往之事), 횡래지액(橫來之厄)

ㄴ. 타동사: 실용지학(實用之學), 친생지자(親生之子)

서술성을 지닌 술부 구성의 선행 2자어도 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와 동사인 경우로 나뉜다. (7①)의 선행어 ‘만전(萬全, 매우 온전하다), 본연(本然, 본래 그러하다)’은 부사와 형용사 술어가 결합된 구조이다. (7②)의 선행어는 동사 술어가 결합한 구조이며 동사 술어는 (7②ㄱ)의 ‘고래(古來,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다), 이왕(已往, 이미 지나가다), 횡래(橫來, 뜻밖에도 (닥쳐)오다)’ 등과 같은 자동사 구성과 (7②ㄴ)의 ‘실용(實用, 실제로(실생활에) 이용하다), 친생(親生, 직접 낳다)’ 등과 같은 타동사 구성으로 나뉜다.

(8) 본용언-보조용언 구성

① 부정

ㄱ. 형용사: 불길지사(不吉之事), 불안지심(不安之心), 비난지사(非難之事)

ㄴ. 자동사: 무복지친(無服之親), 불효지죄(不孝之罪), 불후지공(不朽之功)

ㄷ. 타동사: 불계지주(不繫之舟), 불천지위(不遷之位)

② 양태(가능, 불능)

ㄱ. 자동사: 무염지욕(無厭之慾), 불모지지(不毛之地), 불귀지객(不歸之客),

ㄴ. 타동사: 가통지사(可痛之事), 난득지물(難得之物), 망사지죄(罔赦之罪), 무망지인(毋望之人), 미문지사(未聞之事), 불역지론(不易之論), 불우지환(不虞之患)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는 선행어에 ‘不-, 無-, 非-, 未-, 難-, 毋-, 可-, 罔-’ 등이 결합하여 보조용언과 본용언의 결합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조용언의 기능에 따라 크게 ‘부정’과 ‘양태’로 나눌 수 있다. ‘부정’은 사태에 대한 단순 부정을 의미하여 대체로 ‘-지 않다’ 또는 ‘-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양태’의 경우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 대한 ‘가능’이나 ‘불능’의 판단으로 나타나며 ‘-(으)ㄴ 만하다’, ‘-(으)ㄴ 수 없다’ 등으로 해석된다.

먼저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의 기능을 하는 ‘不-, 無-, 非-’는 형용사, 동사와 결합하는데 동사는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8㉠ㄱ)는 보조 용언 ‘不-’과 ‘非-’가 형용사와 결합하여 ‘불길(不吉, 길하지 않다), 불안(不安, 편하지 않다), 비난(非難, 어렵지 않다)’ 등으로 사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8㉠ㄴ)는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不-, 無-’가 자동사와 결합한 구성으로 ‘무복(無服, 옷(상복)을 입지 않다), 불효(不孝, 효도하지 않다), 불후(不朽, 소멸하지 않다)’와 ‘불궤(不軌, (도리에)따르지 않다), 불복(不服, 복종하지 않다), 불혹(不惑, 현혹되지 않다)’ 등이 있다. 한편 (8㉠ㄷ)의 ‘무망(毋望, 기대하지 않다)’와 ‘불천(不遷, 옮기지 않다)’은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毋’와 ‘不-’이 타동사와 결합한 구성이다.

다음으로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선행어에서 ‘不-, 無-, 未-, 難-, 毋-, 罔-’이 동사와 결합하여 ‘-(으)ㄹ 수 없다’로 해석되는 ‘불능’이나 ‘可-’가 ‘-(으)ㄹ 만하다’로 해석되는 ‘가능’과 같은 양태의 의미 범주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결합하는 동사는 (8㉡ㄱ)에서 제시한 ‘불귀(不歸, 돌아올 수 없다), 무염(無厭, 만족할 줄 모르다), 불모(不毛, (식물이)자랄 수 없다)’ 등의 자동사와 (8㉡ㄴ)에서 제시한 ‘가통(可痛, 통탄할 만하다), 난득(難得, 구하기 힘들다), 망사(罔赦, 용서할 수 없다), 무망(毋望, 생각하지 못하다), 미문(未聞, 듣지 못하다), 불역(不易, 고칠 수 없다), 불우(不虞, 생각하지 못하다)’ 등의 타동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2. 관계 관형절 구성

김지홍(1995)에 따르면 관계 관형절은 핵어명사와 동지표되는 공범주 논항이 관형절 속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ㄱ. [ei 예쁜] 꽃i
 ㄱ’. 꽃이 예쁘다.
 ㄴ. [철수가 어제 ei 본] 영화i
 ㄴ’. 철수가 어제 영화를 봤다.

(9ㄱ, ㄴ)는 한국어의 전형적인 관계 관형절의 구조를 보여준다. (9ㄱ’, ㄴ’)는 (9ㄱ, ㄴ)의 관계 관형절에 대응하는 서술형 문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관형절+명사’ 구성에서 핵어명사 ‘꽃’과 ‘영화’가 관형절 내부에 통사적으로 실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요소들과 공지시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이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도 나타나는데 후행 1자어가 핵어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서술성 2자어와 之가 결합한 선행절의 성분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계 관형절의 구조를 보이는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XX(형용사 나열)+之+Y ⁷⁾		사소지사(些少之事), 충량지신(忠良之臣), 현성지군(賢聖之君), 황당지설(荒唐之說)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⁸⁾	강개지사(慷慨之士), 유식지민(遊食之民), 침윤지언(浸潤之言), 과거지사(過去之事), 전래지풍(傳來之風)
	타동사 ⁹⁾	모산지배(謀算之輩), 보필지신(輔弼之臣), 수성지업(垂成之)

			業) ¹⁰ , 시위지신(侍衛之臣), 탐도지배(貪饕之輩)
XX(술목(타동사))+之+Y ¹¹			개세지재(蓋世之才), 경국지색(傾國之色), 고육지계(苦肉之計), 적선지가(積善之家), 지기지우(知己之友)
XX(주술)+之+Y	형용사		의중지인(義重之人), 토왕지절(土旺之節), 형승지국(形勝之國), 형승지지(形勝之地), 화왕지절(火旺之節)
	자동사		국록지신(國祿之臣)
	타동사		군사지물(君賜之物), 부수지소(膚受之愆), 천가지년(天假之年), 천작지합(天作之合), 천종지성(天縱之聖)
XX(술부)+之+Y	형용사 ¹²		만전지책(萬全之策), 본연지성(本然之性), 지난지사(至難之事), 지천지물(至賤之物), 천험지지(天險之地)
	자동사 ¹³		가전지물(家傳之物), 고래지풍(古來之風), 기왕지사(既往之事), 이왕지사(已往之事), 횡래지역(橫來之厄)
	타동사 ¹⁴		공득지물(空得之物), 선견지인(先見之人), 실용지학(實用之學), 자취지화(自取之禍), 친생지자(親生之子)
XX(본용언-보조용언)+之+Y	부정	형용사 ¹⁵	미안지심(未安之心), 불공지설(不恭之說), 불길지사(不吉之事), 불안지심(不安之心), 비난지사(非難之事)
		자동사 ¹⁶	무명지인(無名之人), 무복지친(無服之親), 불관지사(不關之事), 불후지공(不朽之功)
		타동사	불계지주(不繫之舟), 불속지객(不速之客), 불식지공(不息之工), 불천지위(不遷之位)
	양태	자동사	무가지보(無價之寶), 불귀지객(不歸之客)
		타동사 ¹⁷	가통지사(可痛之事), 난득지물(難得之物), 망사지죄(罔赦之罪), 미문지사(未聞之事), 무망지인(毋望之人), 불역지론(不易之論)

7) 이 유형에 포함되는 예로는 ‘간세지배(奸細之輩), 건권지정(纏綿之情), 고유지지(膏腴之地), 공허지지(空虛之地), 광망지인(狂妄之人), 돈목지익(敦睦之誼), 미말지직(微末之職), 비리지사(鄙俚之詞), 서습지기(暑濕之氣), 성예지기(腥穢之氣), 세미지사(細微之事), 세쇄지담(細碎之談), 수백지구(粹白之裘), 압핍지지(狎逼之地), 애고지정(哀苦之情), 영걸지주(英傑之主), 오예지물(汚穢之物), 와음지성(蛙淫之聲), 완구지계(完久之計), 완급지사(緩急之事), 웅비지사(雄飛之士), 충량지심(忠良之心), 충후지풍(忠厚之風), 충화지기(沖和之氣), 탁이지사(跡弛之士), 탕탕지훈(蕩蕩之勳), 풍상지임(風霜之任), 하천지배(下賤之輩), 허망지설(虛妄之說), 허황지설(虛荒之說), 환화지성(喧譁之聲)’ 등이 있다.(이하 목록만 제시함)

8) 금범지물(禁犯之物), 연포지목(連抱之木), 전래지물(傳來之物)

9) 보필지재(輔弼之才), 조리지제(調理之劑), 창업지주(創業之主)

10) ‘수성지업(垂成之業)’은 후행어 ‘일 [業]’이 ‘(후손에게 일을) 물려주어 이루게 한다’는 일 자체를 가리킨다고 본다면 ‘동격 관형절(즉 내용 관형절)’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11) 각골지통(刻骨之痛), 간성지장(干城之將), 간성지재(干城之材), 간세지재(間世之材), 강령지문(降靈之文), 개세지풍(蓋世之風), 건공지신(建功之臣), 격장지린(隔牆之鄰), 견지지재(見機之才), 결교지인(結交之人), 겸인지력(兼人之力), 겸인지용(兼人之勇), 경국지사(經國之士), 경국지재(經國之才), 경륜지사(經綸之士), 계체지군(繼體之君), 고육지책(苦肉之策), 과분지망(過分之望), 과분지사(過分之事), 과인지력(過人之力), 구안지사(具眼之士), 단금지계(斷金之契), 당양지지(當陽之地), 대안지화(對岸之火), 대천지수(戴天之鬚), 망국지성(亡國之聲), 명세지재(命世之才), 목민지관(牧民之官), 무근지설(無根之說), 무용지물(無用之物), 무정지책(無情之責), 벌성지부(伐性之斧), 보세지주(保世之主), 불가지마(泛駕之馬), 부장지약(腐腸之藥), 붕성지통(崩城之痛), 붕천지통(崩天之痛), 살부지수(殺父之鬚), 상분지도(嘗糞之徒), 소담지재(消痰之材), 소담지제(消痰之劑), 쇠세지음(衰世之音), 수성지주(守成之主), 수업지사(授業之師), 식록지신(食祿之臣), 어풍지객(馭風之客), 역어지인(譯語之人), 열구지물(悅口之物), 염지지물(染指之物), 요원지화(療原之火), 우국지사(憂國之士), 우세지사(憂世之士), 유대지신(有待之身), 유명지인(有名之人), 유복지인(有福之人), 유복지친(有服之親), 유주지물(有主之物), 유지지사(有志之士), 음식지인(飲食之人), 응문지동(應門之童), 인화지물(引火之物), 자초지신(刺草之臣), 적악지가(積惡之家), 전도지사(傳道之師), 전악지관(典樂之官), 제세지재(濟世之才), 종천지통(終天之痛), 종천지한(終天之恨), 주문지인(主文之人), 지명지사(知名之士), 진충지신(盡忠之臣), 집편지사(執鞭之士), 철지지원(徹地之冤), 철천지수(徹天之鬚), 철천지원(徹天之冤), 철천지한(徹天之恨), 초세지재(超世之才), 충목지장(衝目之杖), 치세지음(治世之音), 탄복지재(坦腹之材), 탄주지어(吞舟之魚), 통천지수(通天之數), 포병지인(抱病之人), 행로지인(行路之人), 향양지지(向陽之地), 호색지도(好色之徒), 회심지우(會心之

<표 1>은 관계 관형절의 구조를 보이는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를 선행 2자어의 구성별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서술성 선행 2자어를 ‘형용사 나열, 동사 나열, 술목, 주술, 술부,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으로 나누었을 때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핵어명사가 관형절 내부에 공지시되는 요소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관계 관형절 구성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후행 1자어가 논항으로 실현된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서 관계 관형절 구성으로 제시한 예들 중 일부를 후행 1자어가 내부 요소로 실현된 문장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문장 전환 사례

XX(형용사 나열)+之+Y:	용둔지재(庸鈍之材)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충량지신(忠良之臣)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	신하가 충성스럽고 선량하다	
	황당지설(荒唐之說)	[허황하고 황당한] 말	말이 허황하고 황당하다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강개지사(慷慨之士)	[[울지 못한 일에] 분노하고 분개하는] 사람	사람이 [울지 못한 일에] 분노하고 분개하다
		사망지환(死亡之患)	[죽는] 병	(그) 병으로 죽다
		전래지풍(傳來之風)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	(예로부터) 풍습의 전해 내려오다
	타동사	보필지신(輔弼之臣)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다
		수성지업(垂成之業)	[[후손에게] 물려주어 이루게 하는] 일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 일을 이루게 하다
		탐도지배(貪饕之輩)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는] 무리	무리가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다
XX(술목(타동사))+之+Y	경국지색(傾國之色)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인	미인이 나라를 기울게 하다	

友)

- 12) 강근지족(強近之族), 강근지친(強近之親), 강포지욕(強暴之辱), 만전지계(萬全之計), 말류지폐(末流之弊), 서기지망(庶幾之望), 수선지지(首善之地), 지근지지(至近之地), 지근지처(至近之處)
- 13) 가전지보(家傳之寶), 감사지졸(敢死之卒), 당래지사(當來之事), 당래지직(當來之職), 당연지사(當然之事), 동고지인(同苦之人), 말류지폐(末流之弊), 서기지망(庶幾之望), 선입지견(先入之見), 세록지가(世祿之家), 세록지신(世祿之臣), 세전지물(世傳之物), 세전지보(世傳之寶), 우연지사(偶然之事), 이과지사(已過之事), 이발지시(已發之矢), 이연지사(已然之事), 일편지견(一偏之見), 일편지론(一偏之論), 일편지언(一偏之言), 재생지인(再生之人), 전대지재(專對之才), 친생지자(親生之子), 태고지민(太古之民), 특립지사(特立之士), 호생지물(好生之物)
- 14) 기변지교(機變之巧), 기장지무(既張之舞), 자득지묘(自得之妙), 자유지정(自有之情), 자작지열(自作之孽), 조지지사(蚤知之士), 중흥지주(中興之主), 친생지녀(親生之女)
- 15) 부당지사(不當之事), 부당지설(不當之說), 불경지설01(不敬之說), 불경지설02(不經之說), 불긴지사(不緊之事), 불길지언(不吉之言), 불상지언(不祥之言), 불의지사(不義之事), 불의지인(不義之人), 불의지재02(不義之財)
- 16) 무명지사(無名之士), 불세지공(不世之功), 불세지재(不世之才)
- 17) 가감지인(可堪之人), 가거지지(可居之地), 가사지인(可使之人), 가식지물(可食之物), 가신지인(可信之人), 난망지은(難忘之恩), 난망지택(難忘之澤), 난명지안(難明之案), 난화지맹(難化之氓), 난화지물(難化之物), 난화지민(難化之民), 무망지복(毋望之福), 무망지세(毋望之世), 무망지주(毋望之主), 무망지화(毋望之禍), 부도지설(不道之說), 불간지서(不刊之書), 불망지은(不忘之恩), 불역지법(不易之法), 불역지전(不易之典), 불역지지(不易之地), 불우지변(不虞之變), 불우지환(不虞之患), 불의지변(不意之變), 불의지재01(不意之災), 불의지화(不意之禍), 불인지사(不忍之事), 불인지정(不忍之政), 불측지변(不測之變), 불측지연(不測之淵)

		적선지가(積善之家)	[선행을 쌓은] 집안	집안이 선행을 쌓다	
		지기지우(知己之友)	[나를 아는] 친구	친구가 나를 알다	
		금장지(禁葬之地)	[매장(埋葬)하는 것을 금지하는] 땅	(그 땅에(서)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XX(주술)+之+Y	형용사 ¹⁸⁾	형승지국(形勝之國)	[(땅의) 형세가 좋은] 나라	나라가 (땅의) 형세가 좋다	
		화왕지절(火旺之節)	[화기(火氣)가 왕성한] 절기	(그) 절기가 화기(火氣)가 왕성하다	
	자동사	국록지신(國祿之臣)	[나라가 녹을 주는] 신하	나라가 신하에게 녹을 주다	
	타동사	군사지물(君賜之物)	[임금(百官에게) 내리는] 물건	임금이 (백성에게) 물건을 내리다	
		천작지합(天作之合)	[하늘이 만든] 결합	하늘이 (그) 결합을 만들다	
		천가지년(天假之年)	[하늘이 빌려준] 세월	하늘이 세월을 빌려주다	
XX(술부)+之+Y	형용사	만전지책(萬全之策)	[매우 온전한] 계책	계책이 매우 온전하다	
		본연지성(本然之性)	[본래 그러한] 성품	성품이 본래 그러하다	
		지난지사(至難之事)	[매우 어려운] 일	일이 매우 어렵다	
	자동사	고래지풍(古來之風)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	풍습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다	
		이왕지사(已往之事)	[이미 지나간] 일	일이 이미 지나가다	
		횡래지액(橫來之厄)	[뜻밖에 닥쳐오는] 재앙	재앙이 뜻밖에 닥쳐오다	
		감언지지(敢言之地)	[거리낌없이 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거리낌없이 말하다	
	타동사	선견지인(先見之人)	[미리 (앞을) 보는] 사람	사람이 미리 (앞을) 보다	
		자취지화(自取之禍)	[스스로 취하는] 재앙	재앙을 스스로 취하다	
친생지자(親生之子)		[직접 낳은] 아들	아들을 직접 낳다		
XX(본용언-보조용언)+之+Y	부정	형용사	미안지심(未安之心)	[편안하지 않은] 마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불길지사(不吉之事)	[길하지 않은] 일	일이 길하지 않다
			비난지사(非難之事)	[어렵지 않은] 일	일이 어렵지 않다
		자동사	무복지친(無服之親)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	친척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
			불후지공(不朽之功)	[소멸하지 않는] 공로	공로가 소멸하지 않는다
		타동	불계지주(不繫之舟)	[매어 놓지 않는] 배	배를 매어 놓지 않다

양태	사	불속지객(不速之客)	[부르지 않은] 손님	손님을 부르지 않다
	자동사	불귀지객(不歸之客)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
		불모지(不毛之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그)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다
	타동사	가통지사(可痛之事)	[통탄할 만한] 일	(그) 일이 통탄할 만하다
		난득지물(難得之物)	[어렵게 구한] 물건	(그) 물건을 어렵게 구하다
		망사지죄(罔赦之罪)	[용서할 수 없는] 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불우지환(不虞之患)	[생각하지 못한] 근심	근심을 생각하지 못하다
		무망지인(毋望之人)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다.

<표 2>를 보면 선행어가 형용사나 자동사로 이루어진 경우 문장으로 전환했을 때 주로 ‘주어(‘-이/가’로 해석)’로 실현이 되고 선행어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을/를’로 해석)’로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부사어(‘-에게, -에(서), -(으)로’로 해석)’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관계 관형절에서 후행어의 논항 실현 양상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관계 관형절 구조에는 이중 주어문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 (10) ㄱ. 바다가 파도가 높다.
 ㄱ'. [ei 파도가 높은] 바다
 ㄴ.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ㄴ'. [ei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

임동훈(1997:60~62)에서는 (10ㄱ)와 (10ㄴ) 등의 예를 들어 이중주어문¹⁹⁾의 구조를 서술절 내포문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형진(2016:86~87)에서는 임동훈(1997)의 논의를 수용하여 (10ㄱ, ㄴ)의 구조를 (10ㄱ', ㄴ')로 분석하였는데 핵어명사 ‘바다’, ‘일’이 서술절의 주어로 해석이 되는 과정에서 서술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로 해석되므로 (10ㄱ', ㄴ')와 같은 유형의 관형절을 이중주어문의 관계 관형절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에서 이러한 이중주어문의 관계 관형절로 판단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표 3> 이중주어문의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XX(주술)+之+Y:	형용사	경승지지(景勝之地)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 주어 [(그) 장소가] 서술절 [경치가 아름답다]
		금왕지기(金旺之氣)	[금기가 왕성한] 절기

18) ‘XX(주술)+之+Y’ 구조에서 술어가 형용사인 관계 관형절의 경우 ‘이중주어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9) 본 연구에서는 ‘NP1이/가 NP2이/가 VP’ 구조를 보이는 문장들을 ‘이중주어문’으로 통칭한다.

		금왕지절(金旺之節) ²⁰⁾	주어 [(그) 절기가] 서술절 [금기(金氣)가 왕성하다]
		시급지사(時急之事)	[시기가 급한] 일 주어 [일이] 서술절 [시기가 급하다]
		의중지인 ⁰² (義重之人)	[의리가 두터운] 사람 주어 [사람이] 서술절 [의리가 두텁다]
	자동사	사색지지(四塞之地)	[사방이 막힌] 땅 주어 [땅이] 서술절 [사방이 막히다]

한국어 이중주어문의 범위 및 구조에 대해 대부분의 논의에서 이중주어문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되었는데²¹⁾,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에서도 이중주어문의 서술어는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형용사로 나타나며, ‘사색지지(四塞之地)’의 ‘막히다 [塞]’와 같이 자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기도 한다.

<표 3>에서 핵어명사 ‘-地 [장소]’, ‘-氣/節 [절기]’, ‘-事 [일]’, ‘-人 [사람]’이 선행어 ‘경승(景勝, 경치가 아름답다), 금왕(金旺, 금기(金氣)가 왕성하다), 시급(時急, 시기가 급하다), 의중(義重, 의리가 두텁다), 사색(四塞, 사방이 막히다)’과 결합하여 각각 ‘(그) 장소가 경치가 아름답다’, ‘(이) 절기가 금기(金氣)가 왕성하다’, ‘일이 시기가 급하다’, ‘사람이 의리가 두텁다’, ‘땅이 사방이 막히다’로 전환되면서 서술절의 주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地’, ‘-氣/節’, ‘-事’, ‘-人’이 서술절이 표상하는 사태의 의미론적 참여자의 기능을 하므로 <표 2>의 관형절을 이중주어문의 관형 관계절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3. 내용 관형절 구성

내용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의 핵어명사가 관형절 내부의 한 성분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공지시적 관계의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 관형절이 핵어명사의 내용절이 된다.

- (11)²²⁾ ㄱ. [내가 ei 읽은] 책은 참 재미있더라.
 ㄴ. [내가 책을 읽은] 사실이 놀랍다.

(11ㄱ)는 ‘책’이 관형절 ‘[내가 읽은]’의 한 성분이 되지만 (11ㄴ)의 ‘사실’은 관형절 ‘[내가 책을 읽은]’ 내부의 한 성분이 되지 못하므로 내용 관형절이 되는 것이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중에서 내용 관형절 구조를 보이는 예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내용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XX(형용사 나열)+之+Y:		강장지년(強壯之年), 고위지화(孤危之禍)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²³⁾	가취지례(嫁娶之禮), 구로지은(劬勞之恩), 쇠로지년(衰老之年), 영허지리(盈虛之理)
	타동사 ²⁴⁾	경외지심(敬畏之心), 시기지심(猜忌之心), 포락지형(炮烙之刑)

20) ‘목왕지절(木旺之節), 수왕지절(水旺之節), 토왕지절(土旺之節)’등도 같은 구조이다.

21) 임동훈(1997:35~36)에서 ‘철수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 ‘철수는 아들이 바둑을 잘 둔다’ 등의 예를 들어 이중주어문의 서술어가 타동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타동사로 구성된 서술절이 행동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22) 이익섭·임흥빈(1983:270)의 예를 가져온 것이다.

XX(술목(타동사))+之+Y ²⁵⁾		격세지감(隔世之感), 멸문지화(滅門之禍), 석별지정(惜別之情), 우국지정(憂國之情), 파죽지세(破竹之勢)	
XX(주술)+之+Y	자동사	성붕지통(城崩之痛), 용흥지상(龍興之相), 일촉지로(日昃之勞), 천붕지통(天崩之痛)	
XX(술부)+之+Y	형용사	방장지년(方壯之年)	
	자동사 ²⁶⁾	고식지계(姑息之計), 동거지정(同居之情), 자격지심(自激之心)	
	타동사 ²⁷⁾	겸양지덕(謙讓之德), 반포지효(反哺之孝), 선견지명(先見之明), 자괴지심(自愧之心)	
XX(본용언-보조용언)+之+Y	부정	형용사	불길지조(不吉之兆), 불상지조(不祥之兆)
		자동사 ²⁸⁾	무복지상(無服之殤), 불복지심(不服之心), 불효지죄(不孝之罪)
		타동사	불신지심(不信之心), 욕속지심(欲速之心)
	양태	자동사	무염지욕(無厭之慾)

- 23) 변화지례(變化之禮), 상장지절(喪葬之節), 생생지리(生生之理), 순환지도(循環之道), 순환지리(循環之理), 장진지망(長進之望), 장취지망(將就之望), 첨유지풍(諛諛之風), 현송지성(絃誦之聲), 흰화지성(喧譁之聲)
- 24) 경외지심(敬畏之心), 공경지례(恭敬之禮), 구처지도(區處之道), 구처지방(區處之方), 권고지은(眷顧之恩), 기송지학(記誦之學), 담부지역(擔負之役), 무육지도(撫育之道), 무육지은(撫育之恩), 미봉지책(彌縫之策), 보복지리(報復之理), 보필지임(輔弼之任), 비승지술(飛昇之術), 사속지망(嗣續之望), 사양지심(辭讓之心), 살생지병(殺生之柄), 살육지변(殺戮之變), 살육지폐(殺戮之弊), 살활지권(殺活之權), 상시지계(嘗試之計), 생살지권(生殺之權), 생지지자(生知之資), 소각지혐(銷刻之嫌), 수성지업(垂成之業), 속살지기(肅殺之氣), 시기지심(猜忌之心), 시오지심(猜惡之心), 양양지심(怏怏之心), 애자지원(睚眦之怨), 연모지정(戀慕之情), 자비지심(慈悲之心), 자비지택(慈悲之澤), 자애지정(慈愛之情), 제어지도(制御之道), 지우지은(知遇之恩), 진취지계(進取之計), 찬시지변(篡弒之變), 측은지심(惻隱之心), 포락지형(炮烙之刑), 할박지정(割剝之政), 향양지심(向仰之心), 혐의지지(嫌疑之地), 회개지심(悔改之心), 흠승지례(欽崇之禮)
- 25) 감구지회(感舊之懷), 거가지락(居家之樂), 건령지세(建瓴之勢), 결승지정(結繩之政), 결하지세(決河之勢), 경세지책(經世之策), 계고지력(稽古之力), 계일지령(計日之令), 곡광지락(曲肱之樂), 교린지의(交鄰之誼), 교우지도(交友之道), 각각지세(犄角之勢), 기호지세(騎虎之勢), 농와지경(弄瓦之慶), 농와지희(弄瓦之喜), 농장지경(弄璋之慶), 농장지희(弄璋之喜), 누란지세(累卵之勢), 누란지위(累卵之危), 단기지계(斷機之戒), 대객지도(對客之道), 대성지행(戴星之行), 도룡지기(屠龍之技), 득의지색(得意之色), 망국지본(亡國之本), 망년지우(忘年之友), 망운지정(望雲之情), 망운지회(望雲之懷), 멸문지환(滅門之患), 멸족지화(滅族之禍), 발복지지(發福之地), 방곡지금(防穀之禁), 방적지책(防敵之策), 병필지임(秉筆之任), 보신지책(保身之策), 봉격지희(奉檄之喜), 부설지로(負緘之勞), 부신지자(負薪之資), 비기지욕(肥己之慾), 사군지도(事君之道), 사군지사(事君之事), 사상지도(事上之道), 사생지심(捨生之心), 사죄지은(赦罪之恩), 사친지도(事親之道), 사패지지(賜牌之地), 상명지통(喪明之痛), 생재지방(生財之方), 설가지법(挈家之法), 수구지가(數口之家), 수렴지정(垂簾之政), 수오지심(羞惡之心), 식우지기(食牛之氣), 식재지도(殖財之道), 실신지폐(失信之弊), 안민지도(安民之道), 애국지성(愛國之誠), 애자지정(愛子之情), 역리지척(逆理之憾), 역명지전(易名之典), 연독지정(吮犢之情), 연미지액(燃眉之厄), 연저지인(吮疽之仁), 영설지재(詠雪之才), 온고지정(溫故之情), 우국지심(憂國之心), 월봉지전(越俎之典), 위선지도(爲先之道), 위친지도(爲親之道), 유경지전(惟輕之典), 유신지초(維新之初), 유아지탄(由我之歎), 유종지미(有終之美), 의금지영(衣錦之榮), 의려지망(倚閭之望), 의려지정(倚閭之情), 의문지망(倚門之望), 자객지변(刺客之變), 장병지임(將兵之任), 재도지기(載道之器), 전방지총(專房之寵), 전안지례(奠雁之禮), 절골지통(折骨之痛), 절부지의(竊鈇之疑), 접령지기(接靈之氣), 정시지도(正始之道), 종편지위(從便之爲), 주승지기(走繩之伎), 주판지세(走坂之勢), 지구지계(持久之計), 지독지애(舐犢之愛), 지독지정(舐犢之情), 지명지년(知命之年), 지인지감(知人之鑑), 진하지례(進賀之禮), 척호지정(陟岵之情), 초미지급(焦眉之急), 취식지계(取食之計), 취화지본(取禍之本), 치상지구(治喪之具), 치추지지(置錐之地), 탄우지기(吞牛之氣), 통가지의(通家之誼), 통호지법(統戶之法), 파과지년(破瓜之年), 파적지계(破敵之計), 폐학지경(廢學之境), 하산지세(破竹之勢), 할반지통(割半之痛), 합근지례(合卺之禮), 해물지심(害物之心), 향국지성(向國之誠), 향학지성(向學之誠), 헌근지성(獻芹之誠), 헌근지의(獻芹之意), 현고지례(見姑之禮), 혈구지도(絜矩之道), 호당지풍(護黨之風), 호생지덕(好生之德), 호승지벽(好勝之癖), 호승지심(好勝之心), 환장지경(換腸之境), 활인지방(活人之方), 회생지망(回生之望), 회생지업(回生之業), 횡초지공(橫草之功)
- 26) 상생지리(相生之理), 자멸지계(自滅之計), 자승지벽(自勝之癖), 자시지벽(自是之癖), 자연지리(自然之理)
- 27) 구식지계(口食之計), 다생지연(多生之緣), 동학지의(同學之誼), 불효지죄(不孝之罪), 상련지정(相憐之情), 상사지회(相思之懷), 상애지도(相愛之道), 신성지례(晨省之禮), 자곡지심(自曲之心), 자굴지심(自屈之心), 재생지덕(再生之德), 재생지은(再生之恩), 재조지은(再造之恩), 절중지원(切憎之怨), 태평지업(太平之業), 횡리지액(橫罹之厄)
- 28) 미연지전(未然之前), 불궤지심(不軌之心), 불비지혜(不費之惠), 불시지수(不時之需), 불신지심(不臣之心), 불언지교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에서 내용 관형절 구조는 선행어가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선행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경우, ‘주어+형용사 술어’ 구조에 해당하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외 ‘형용사 나열’ 구성, ‘부사어+형용사 술어’ 구성,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의 ‘부정’을 나타내는 유형에서는 단 몇 가지 예들이 발견될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가 관계 관형절 구조인 경우 후행 1자어가 내부 요소로 실현된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내용 관형절 구조는 완전한 문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관형절의 내용이 곧 후행어임을 나타낸다.

‘형용사 나열’ 구성의 ‘강장지년(強壯之年)’과 ‘고위지화(孤危之禍)’의 경우, 각각 ‘나이[年]가 건강하고 왕성하다’, ‘불행[禍]이 외롭고 위태롭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고 왕성하다는 나이[年]’, ‘[(상황이) 외롭고 위태롭다는 불행[禍]’의 의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사 나열’ 구성을 보이는 한자어의 예들을 보면, ‘가취지례(嫁娶之禮, 시집하고 장가드는 예식)’의 경우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嫁娶]’이 예식의 하나임을 나타낸다. ‘구로지은(劬勞之恩,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애쓰는 은혜)’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애쓰는 것’이 곧 ‘은혜 [恩]’이며 ‘쇠로지년(衰老之年, 쇠하고 늙은 나이)’의 ‘쇠하고 늙은 것 [衰老]’이 가리키는 것 또한 ‘(이) 나이’임을 의미한다. ‘영허지리(盈虛之理, (달이)차고 비어 가는 이치)’의 달이 차고 비어 가는 일종의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달이 차고 비어 가는 것 [盈虛]’이 곧 ‘(삶의)이치 [理]’인 것이다. 또한 ‘경외지심(敬畏之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지심(猜忌之心,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선행어 ‘敬畏, 猜忌’와 ‘포락지형(炮烙之刑, (불에)통째로 굽거나 (불로)지지는 형벌)’의 선행어 ‘포락(炮烙)’은 각각 후행어 ‘마음 [心]’과 ‘형벌 [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술목(타동사), 주어+자동사 술어’ 구조에서도 선행어 ‘멸문(滅門, 가문을 멸하다)’이 곧 ‘재앙 [禍]’을 의미하며, ‘우국(憂國, 나라를 걱정하다)’과 ‘파죽(破竹, 대나무를 쪼개다)’ 또한 그러한 ‘마음 [情]’과 ‘기세 [勢]’를 가리키며, ‘천붕(天崩, 하늘이 무너지다)’이 곧 후행어 ‘고통 [痛]’을 의미한다. 이하 선행어가 ‘XX(술부), XX(본용언-보조용언)’인 구성에서도 다른 선행어 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으로 전환이 어렵고 선행어가 후행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 한편 선행어의 성분 및 구조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어 관형절에는 관계 관형절로도 보기 어렵고 내용 관형절로도 보기 어려운 구성이 있다. 이러한 구성 중에서 이홍식(1990, 1999)에서는 ‘대신, 가운데, 뒤, 전’ 등에 선행하는 관형절의 성분을 보문화 또는 관계화로 해석할 수 없고 명사적인 성격을 지닌 ‘명사적 관형절’로 보았다.²⁹⁾

(11) 명사적 관형절(이홍식, 1990;1999)³⁰⁾

- ㄱ. 그 사람이 가는 대신 네가 가라.
- 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중예) 그런 문제가 나왔다.
- ㄷ. 그가 돌아간 뒤(/다음)에 일이 터졌다.

(不言之教), 불혹지년(不惑之年), 불혹지세(不惑之歲)

29) 임홍빈(1982)에서는 ‘동명사 구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으)ㄴ, -(으)ㄹ’에 대한 인식은 이홍식(1990, 1999)과 비슷하다. 김지은(2002)에서는 전형적인 관계절이나 명사구 보문에 포함되기 어려운 관형절에 대해 ‘결과, 대가, 가운데, 사이, 냄새, 소리’ 등의 예를 들어 이런 부류의 핵어명사가 두 사태를 연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연계절’로 설정한 바 있다.

30) 이홍식(1990)의 예와 이홍식(1999)에서 임홍빈(1982)를 인용하여 제시한 관련 예문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대신, 가운데/중, 뒤/다음’은 ‘그 사람 대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뒤에’에서 선행하는 체언이 관형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11ㄱ,ㄴ,ㄷ)의 ‘그 사람이 가는 대신,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하는 가운데, 그가 돌아간 뒤’에서 선행하는 절이 관형적인 성격을 지닌 체언의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어미 ‘-(으)ㄴ’을 명사형 어미로 보는 것이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도 ‘명사적 관형절’의 구조를 보이는 예들이 있다.

<표 5> 명사적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

XX(형용사 나열)+之+Y		명명지중(冥冥之中), 생랭지물(生冷之物), 총망지간(惴忙之間)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기아지경(飢餓之境), 몽매지간(夢寐之間), 아사지경(餓死之境), 호흡지간(呼吸之間)	
	타동사	지호지간(指呼之間)	
XX(술목(타동사))+之+Y		교우지간(交友之間), 득의지추(得意之秋), 망아지경(忘我之境), 무시지시(無始之時), 무아지경(無我之境), 무인지경(無人之境), 유사지추(有事之秋), 탄지지간(彈指之間)	
XX(주술)+之+Y	형용사	도요지년(桃夭之年)	
	자동사	반사지경(半死之境), 신전지회(神戰之會), 용흥지지(龍興之地), 명졸지추(命卒之秋)	
XX(술부)+之+Y	형용사	지근지처(至近之處)	
	자동사	구교지간(舊交之間), 기사지경(幾死之境), 세거지지(世居之地), 세장지지(世葬之地), 은연지중(隱然之中), 중병지여(重病之餘)	
	타동사	상망지지(相望之地)	
XX(본용언-보조용언)+之+Y	양태	자동사	난언지경(難言之境), 난언지지(難言之地)
		타동사	난보지경(難保之境)

<표 5>의 예를 살펴보면 후행 1자어 자리에 대체로 ‘곳’을 의미하는 ‘-地, -會, -處’, ‘지경’을 의미하는 ‘-境’, ‘것’을 의미하는 ‘-物’, ‘때’를 의미하는 ‘-時, -秋’, ‘사이’를 의미하는 ‘-間’, ‘가운데’를 의미하는 ‘-中’ 등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사태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地/-會/-處’, ‘-境’, ‘-物’, ‘-時/-秋’, ‘-間’ 과 같은 핵어 명사는 다른 명사들과 달리 의미적 형식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어가 후행 1자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명명지중(冥冥之中, 어두운 가운데), 세거지지(世居之地,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곳), 아사지경(餓死之境, 굶어 죽을 지경), 중병지여(重病之餘, 심하게 병을 앓은 뒤), 지근지처(至近之處, 매우 가까운 곳)’ 등에서 선행어가 ‘어둡다 [冥冥], (조상) 대대로 살다 [世居], 굶어 죽다 [餓死], 심하게 앓다 [重病], 매우 가깝다 [至近]’ 등과 같이 서술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구성을 ‘-(으)ㄴ’이 결합한 명사적 관형절 구성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이 유형의 한자어들을 ‘비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의 일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외에도 서술성 2자어가 명사적 용법을 보이는 유형이 몇 가지 더 있다. ‘급난지풍(急難之風, (남의)급하고 어려운 일’에 대한 태도), 구로지감(劬勞之感, (부모가 자식을 위해)애쓴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 만분지일(萬分之一, ‘만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 맥수지탄(麥秀之歎, ‘보리가 무성한 것’에 대한 한탄), 부신지우(負薪之憂, ‘떨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걱정), 부족지탄(不足之歎,

‘넉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 불우지비(不虞之備, ‘생각지 못한 일’에 대한 준비), 오합지졸(烏合之卒, ‘까마귀가 모인 것’과 같은 병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술성 2자어가 전체적으로 ‘~(으)ㄴ 것’ 또는 ‘~(으)ㄴ 일’ 등으로 해석되어 명사성을 지닌 명사 상당어구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서술성 2자어가 전체 고사(故事) 내용의 일부이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개념화한 ‘문경지교(文鏡之交), 문경지우(文鏡之友), 사목지신(徙木之信), 삽혈지맹(歃血之盟), 월조지혐(越俎之嫌), 의마지재(倚馬之才), 지복지맹(指腹之盟), 지복지약(指腹之約)’ 등도 명사 상당어구로 분류하고 ‘비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일종으로 처리한다.

3. 관계 관형절 구성 논항 실현 양상

2장에서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을 수행어인 핵어명사가 관형절을 이루는 2음절 서술성 한자어 내부의 통사적 공백과 동지시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관계 관형절과 내용 관형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계 관형절의 경우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핵어명사가 관형절 내부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해석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수행하는 핵어명사가 선행하는 관형절의 한 성분이 되는 논항 관계 구성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 관형절 구성을 보이는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후행 1자어가 핵어명사로서 관형절 내부에서 어떠한 논항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3.1 주어 논항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보려면 주어 논항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97)의 ‘[ei 예쁜] 꽃’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 관형절의 주어 자리에 공범주 논항이 핵어명사 ‘꽃’과 동지표되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 2>의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문장 전환 사례에서 ‘-이/가’로 해석되는 것으로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2>의 사례에서 관계 관형절에서 주어 논항이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자.

<표 6> 주어 논항이 실현되는 관계 관형절 구성

XX(형용사 나열)+之+Y:	용둔지재(庸鈍 之材)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	
	충량지신(忠良 之臣)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 하	신하가 충성스럽고 선량하다	
	황당지설(荒唐 之說)	[허황하고 황당한] 말	말이 허황하고 황당하다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강개지사(慷慨 之士)	사람이 (울지 못한 일에) 강 개하고 분노하다	
		전래지풍(傳來 之風)	사람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 는] 풍습	(예로부터) 풍습이 전해 내 려오다
	타동사	보필지신(輔弼 之臣)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는] 신 하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다
		수성지업(垂成)	사람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이루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 일을

		之業)	계 하는] 일	이루게 하다	
		담도지배(貪饕 之輩)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 는] 무리	무리간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다	
XX(술목(타동사))+之+Y		경국지색(傾國 之色)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 인	미인의 나라를 기울게 하다	
		적선지가(積善 之家)	[선행을 쌓은] 집안	집안의 선행을 쌓다	
		지가지우(知己 之友)	[나를 아는] 친구	친구간 나를 알다	
		금장지지(禁葬 之地)	[매장(埋葬)하는 것을 금지 하는] 땅	(그) 땅에(서)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XX(주술)+之+ Y	형용사 ³¹⁾	형승지국(形勝 之國)	[(땅의) 형세가 좋은] 나 라	나라간 (땅의) 형세가 좋다	
		화왕지절(火旺 之節)	[화기(火氣)가 왕성한] 절기	(그) 절기가 화기(火氣)가 왕 성하다	
	자동사	국록지신(國祿 之臣)	[나라가 녹을 주는] 신하	나라가 신하에게 녹을 주다	
	타동사	군사지물(君賜 之物)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 는] 물건	임금이 (백성에게) 물건을 내리다	
		천작지합(天作 之合)	[하늘이 만든] 결합	하늘이 (그) 결합을 만들다	
		천가지년(天假 之年)	[하늘이 빌려준] 세월	하늘이 세월을 빌려주다	
XX(술부)+之+ Y	형용사	만전지책(萬全 之策)	[매우 온전한] 계획	계획의 매우 온전하다	
		본연지성(本然 之性)	[본래 그러한] 성품	성품의 본래 그러하다	
		지난지사(至難 之事)	[매우 어려운] 일	일의 매우 어렵다	
	자동사	고래지풍(古來 之風)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 는] 풍습	풍습의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오다	
		이왕지사(已往 之事)	[이미 지나간] 일	일이 이미 지나가다	
		횡래지역(橫來 之厄)	[뜻밖에 닥쳐오는] 재앙	재앙의 뜻밖에 닥쳐오다	
		감언지지(敢言 之地)	[거리낌없이 말하는] 자 리	(그) 자리에서 거리낌없이 말하다	
	타동사	선견지인(先見 之人)	[미리 (앞을) 보는] 사람	사람의 미리 (앞을) 보다	
		자취지화(自取 之禍)	[스스로 취하는] 재앙	재앙을 스스로 취하다	
		친생지자(親生 之子)	[직접 낳은] 아들	아들을 직접 낳다	
XX(본용언-보조 용언)+之+Y	부 정	형용 사	미안지심(未安 之心)	[편안하지 않은] 마음	마음의 편안하지 않다
			불길지사(不吉 之事)	[길하지 않은] 일	일이 길하지 않다
			비난지사(非難 之事)	[어렵지 않은] 일	일이 어렵지 않다
	자동	무복지친(無服)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	친척의 상복을 입지 않는다	

양태	사	之親)		
		불후지공(不朽之功)	[소멸하지 않는] 공로	공로가 소멸하지 않는다
	타동사	불계지주(不繫之舟)	[매어 놓지 않는] 배	배를 매어 놓지 않다
		불속지객(不速之客)	[부르지 않은] 손님	손님을 부르지 않다
	자동사	불귀지객(不歸之客)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
		불모지지(不毛之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그)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다
	타동사	가통지사(可痛之事)	[통탄할 만한] 일	(그) 일이 통탄할 만하다
		난득지물(難得之物)	[어렵게 구한] 물건	(그) 물건을 어렵게 구하다
		망사지죄(罔赦之罪)	[용서할 수 없는] 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불우지환(不虞之患)	[생각하지 못한] 근심	근심을 생각하지 못하다

한국어 관형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대체로 그 관형절은 핵어명사가 형용사의 주어로 해석되어 관계 관형절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서술성 2자어가 형용사나열 구조인 경우 핵어명사인 후행 1자어가 주로 관형절의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용사 나열 구조 외에도 선행어의 서술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주어+형용사 술어’ 구성, ‘형용사 술어+부사(어)’ 구성, ‘보조용언+형용사 본용언’일 때 주어 논항으로 실현된다. 또한 선행어에 이미 목적어 논항이 존재하는 ‘타동사 술어+목적어’ 구성과 선행어의 술어가 자동사인 경우에 모두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었다. 한편 술어가 타동사로 이루어진 동사 나열 구성과 ‘타동사 술어+부사(어)’ 구성에서는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는 예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나 선행어에 주어 논항도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필지신(輔弼之臣,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다)’, ‘선견지인(先見之人, [미리 (앞을) 보는] 사람/사람이 미리 (앞을) 보다)’과 같이 일부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3.2 목적어 논항

목적어 논항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9ㄴ)의 ‘[철수가 어제 ei 본] 영화i’에서와 같이 관계 관형절의 목적어 자리에 핵어명사 ‘영화’와 동지표된 공범주 논항이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2>의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문장 전환 사례에서 ‘-을/를’로 해석되는 것으로 목적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의 사례에서 관계 관형절에서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는 선행어 구성과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는 관계 관형절 구성

31) ‘XX(주술)+之+Y’ 구조에서 술어가 형용사인 관계 관형절의 경우 ‘이중주어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이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XX(동사 나열)+之+Y	타동사	보필지신(輔弼 之臣)	[(임금을) 보필하는] 신 하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다	
		수성지업(垂成 之業)	[(후손에게) 물려주어 이루 게 하는] 일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 일을 이루게 하다	
		탐도지배(貪饕 之輩)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 는] 무리	무리가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다	
XX(술목(타동사))+之+Y	타동사	경국지색(傾國 之色)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 인	미인이 나라를 기울게 하다	
		적선지가(積善 之家)	[선행을 쌓은] 집안	집안의 선행을 쌓다	
		지기지우(知己 之友)	[나를 아는] 친구	친구가 나를 알다	
XX(주술)+之+ Y	타동사	군사지물(君賜 之物)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 는] 물건	임금이 (백성에게) 물건을 내리다	
		천작지합(天作 之合)	[하늘이 만든] 결합	하늘이 (그) 결합을 만들다	
		천가지년(天假 之年)	[하늘이 빌려준] 세월	하늘이 세월을 빌려주다	
XX(술부)+之+ Y	타동사	선견지인(先見 之人)	[미리 (앞을) 보는] 사람	사람의 미리 (앞을) 보다	
		자취지화(自取 之禍)	[스스로 취하는] 재앙	재앙을 스스로 취하다	
		친생지자(親生 之子)	[직접 낳은] 아들	아들을 직접 낳다	
XX(본용언-보조 용언)+之+Y	부 정	타동 사	불계지주(不繫 之舟)	[매어 놓지 않는] 배	배를 매어 놓지 않다
			불속지객(不速 之客)	[부르지 않은] 손님	손님을 부르지 않다
	양 태	타동 사	가통지사(可痛 之事)	[통탄할 만한] 일	(그) 일이 통탄할 만하다
			난득지물(難得 之物)	[어렵게 구한] 물건	(그) 물건을 어렵게 구하다
			불우지환(不虞 之患)	[생각하지 못한] 근심	근심을 생각하지 못하다
			망사지죄(罔赦 之罪)	[용서할 수 없는] 죄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무망지인(毋望 之人)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 다.

선행어가 타동사로 이루어진 구성인 경우, 대체로 목적어 논항으로 실현된다. <표 7>을 보면 선행어에 이미 목적어 논항이 실현된 ‘타동사 술어+목적어’ 구조에서 주어 논항만 실현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타동사 결합 구성에서는 모두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었으며 주어 논항과 부사어 논항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3.3 부사어 논항

<표 2>의 관계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문장 전환 사례에서 ‘-에(서)’, ‘-(으)로’, ‘-에게’ 등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부사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부사어 논항이 실현되는 관계 관형절 구성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사망지환(死亡之患)	[죽는] 병	(그) 병으로 죽다
XX(술목(타동사))+之+Y			금장지(禁葬之地)	[매장(埋葬)하는 것을 금지하는] 땅	(그) 땅에(서)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XX(주술)+之+Y	자동사		국록지신(國祿之臣)	[나라가 녹을 주는] 신하	나라가 신하에게 녹을 주다
XX(술부)+之+Y	자동사		감언지(敢言之地)	[거리낌없이 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거리낌없이 말하다
XX(본용언-보조 용언)+之+Y	부정	자동사	무복지상(無服之殤)	[상복을 입지 않는] 어린아이의 죽음	어린아이의 죽음에 상복을 입지 않는다
	양태	자동사	불모지(不毛之地)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그)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다
		타동사	입추지(立錐之地)	[송곳을 (하나) 세울 수 있는] 땅	(그) 땅에 송곳을 (하나) 세울 수 있다

<표 8>에서 관형절 구조의 ‘사망지환(死亡之患)’과 ‘국록지신(國祿之臣)’을 문장으로 전환하면 각각 ‘(그) 병으로 죽다’, ‘나라가 신하에게 녹을 주다’와 같이 후행 1자어가 ‘-(으)로’, ‘-에게’로 해석되어 선행어의 부사어 논항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가 많지는 않다. 위의 ‘감언지(敢言之地)’와 ‘금장지(禁葬之地)’, ‘불모지(不毛之地)’, ‘입추지(立錐之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후행 1자어가 ‘-地’인 경우에 ‘자리’ 또는 ‘땅’의 의미로 쓰이면서 ‘-에’ 또는 ‘-에서’로 해석되어 선행어의 부사어 논항으로 실현된다. ‘무복지상(無服之殤)’의 후행 1자어 ‘殤’은 본래 ‘성년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말하는데, 선행어 ‘상복을 입지 않는다 [無服]’의 수식을 받으면서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애도하는 상례 자리를 가리키므로 부사어 논항으로 실현되어 ‘어린아이의 죽음에’로 해석된다.

4. 내용 관형절 구성 논항 실현 양상

관형절이 핵어명사의 내용절이 된다는 것은 그 관형절이 핵어명사의 논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후행 1자어의 논항이 서술성 2자어가 나타내는 내용절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선웅(2005:148~149)에서도 ‘그가 결혼한다는 소문’,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과 같이 ‘소문’과 ‘사실’이 그 내용을 밝히는 보문을 취할 때 그 보문을 논항으로 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표 4>에서 제시한 내용 관형절 구성의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표 9> 내용 관형절 구성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내용 구조

XX(형용사 나열)+之+Y:	강장지년(強壯之年)		[(몸이)튼튼하고 (힘이)왕성한] 나이
	고위지화(孤危之禍)		[외롭고 위태로운] 불행
XX(동사 나열)+之+Y	자동사	가취지례(嫁娶之禮)	[시집가고 장가드는] 예식

		구로지은(劬勞之恩)	[(부모가 자식을 위해)애쓰는] 은혜	
		쇠로지년(衰老之年)	[쇠하고 늙은] 나이	
		영허지리(盈虛之理)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	
		타동사	경외지심(敬畏之心)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지심(猜忌之心)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포락지형(炮烙之刑)	[(불에)통째로 굽거나 (불로)지지는] 형벌
XX(술목(타동사))+之+Y		격세지감(隔世之感)	[세상을 차단한/단절시킨] 느낌	
		멸문지화(滅門之禍)	[가문을 멸하는] 재앙	
		석별지정(惜別之情)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	
		우국지정(憂國之情)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	
XX(주술)+之+Y	자동사	성붕지통(城崩之痛)	[성이 무너지는] 고통	
		용흥지상(龍興之相)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	
		일촉지로(日昃之勞)	[해가 기울게 하는] 노력	
		천붕지통(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XX(술부)+之+Y	형용사	방장지년(方壯之年)	[한창 왕성한] 나이	
	자동사	고식지계(姑息之計)	[잠시 쉬는] 계책	
		동거지정(同居之情)	[(한집에)같이 사는] 정	
		자격지심(自激之心)	[스스로 부딪치는] 마음	
	타동사	겸양지덕(謙讓之德)	[겸손하게 사양하는] 덕	
		반포지효(反哺之孝)	[(새끼가 어미에게)반대로 먹이는] 효성	
		선견지명(先見之明)	[미리 보는] 밝음	
		자괴지심(自愧之心)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XX(본용언-보조용언)+之+Y	부정	형용사	불길지조(不吉之兆)	[운이 좋지 않은] 징조

		불상지조(不祥之兆)	[운이 좋지 않은] 징조
	자동사	불복지심(不服之心)	[복종하지 않는] 마음
		불효지죄(不孝之罪)	[(부모에게)효도하지 않는] 죄
	타동사	불신지심(不信之心)	[믿지 않는] 마음
		욕속지심(欲速之心)	[빨리 하기를 바라는] 마음
양태	자동사	무염지욕(無厭之慾)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내용절이 필수적인 보충어 논항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이선웅(2005)에서 제시한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나타나는 보충어 X의 특성을 '서술성 2자어+之+1자어'의 내용 관형절 구성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선웅(2005:149~150)에 따르면 'X+비술어 명사' 구성에서 비술어 명사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개념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설정하여 X가 보충어로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ㄱ. 장면: 어떤 내용의 장면인가?

ㄱ'.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박형진, 2016:35)

ㄴ. 소문: 어떤 내용의 소문인가?

ㄴ'. [그가 결혼한다는] 소문 (이선웅, 2005:149)

(12)에서 관형절이 각각 핵어명사 '장면'과 '소문'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 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12ㄱ')의 관형절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하는'은 핵어명사 '장면'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고, (12ㄴ')의 '그가 결혼한다는' 역시 핵어명사 '소문'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므로 (12ㄱ',ㄴ')의 내용 관형절은 모두 핵어명사의 의미론적 논항인 보충어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의 내용 관형절 구성에서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를 핵어명사인 후행 1자어별로 정리하고 각 핵어명사가 필요로 하는 의미 요소를 <표 10>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0> 후행 1자어별 개념적 의미 요소

한자어	후행 1자어	개념적 의미 요소
경외지심(敬畏之心), 시기지심(猜忌之心), 자격지심(自激之心), 자괴지심(自愧之心), 불복지심(不服之心), 불신지심(不信之心), 욕속지심(欲速之心)	마음 [心]	어떠한 내용의 마음인가?
석별지정(惜別之情), 우국지정(憂國之情), 동거지정(同居之情)	마음 [情]	
강장지년(強壯之年), 쇠로지년(衰老之年), 방장지년(方壯之年)	나이 [年]	어떠한 특징을 지닌 나이인가?
고위지화(孤危之禍), 멸문지화(滅門之禍)	재앙 [禍]	어떠한 내용의 재앙인가?

성붕지통(城崩之痛), 천붕지통(天崩之痛)	고통 [痛]	어떠한 내용의 고통인가?
불길지조(不吉之兆), 불상지조(不祥之兆)	징조 [兆]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징조인가?
가취지례(嫁娶之禮)	예식 [禮]	어떠한 일에 치러지는 예식인가?
구로지은(劬勞之恩)	은혜 [恩]	어떠한 내용의 은혜인가?
영허지리(盈虛之理)	이치 [理]	어떠한 내용의 이치인가?
포락지형(炮烙之刑)	형벌 [刑]	어떠한 내용의 형벌인가?
격세지감(隔世之感)	느낌 [感]	어떠한 내용의 느낌인가?
파죽지세(破竹之勢)	기세 [勢]	어떠한 내용의 기세인가?
용흥지상(龍興之相)	형상 [相]	어떠한 모양의 형상인가?
일촉지모(日昃之勞)	노력 [勞]	어떠한 내용을 위한 노력인가?
고식지계(姑息之計)	계책 [計]	무엇을 위한 계책인가?
겸양지덕(謙讓之德)	덕 [德]	어떠한 내용의 덕인가?
반포지효(反哺之孝)	효성 [孝]	어떠한 내용의 효성인가?
선견지명(先見之明)	밝음 [明] (현명함)	어떠한 내용의 밝음(현명함)인가?
불효지죄(不孝之罪)	죄 [罪]	어떠한 내용의 죄인가?
무염지욕(無厭之慾)	욕심 [慾]	어떤 내용에 대한 욕심인가?

<표 10>에서 선행어는 후행 1자어가 의미적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모두 ‘어떠한 내용인지’를 포함하고 있다.

(13) ㄱ. 마음 [心/情] : 어떠한 내용의 마음인가?

ㄱ'. 경외지심(敬畏之心):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의) 마음

시가지심(猜忌之心): [시기하고 질투함](이라는/의) 마음

자격지심(自激之心): [스스로 부딪침](이라는/의) 마음

불복지심(不服之心): [복종하지 않음](이라는/의) 마음

욕속지심(欲速之心): [빨리 하기를 바램](이라는/의) 마음

석별지정(惜別之情): [이별을 아쉬워함](이라는/의) 마음

ㄴ. 재앙 [禍] : 어떠한 내용의 불행/재앙인가?

ㄴ'. 고위지화(孤危之禍): [외롭고 위태로움](이라는/의) 불행

멸문지화(滅門之禍): [가문을 멸함](이라는/의) 재앙

(13ㄱ')의 후행 1자어 ‘心/情[마음]’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는 ‘어떤 내용의 마음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요소이다. (13ㄱ')의 선행어 ‘공경하고 두려워함[敬畏], 시기하고 질투함[猜忌], 스스로 부딪침[自激], 이별을 아쉬워함[惜別]’ 등을 (13ㄱ)의 의미 요소와 대조해 보면 이 선행어들이 후행 1자어 ‘心/情[마음]’이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논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선행 2자어는 후행 1자어에 대해 ‘...이라는’ 혹은 ‘...의’의 의미 구조를 가지고 실현된다. (13ㄴ')의 후행 1자어 ‘불행/재앙[禍]’ 또한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가 ‘어떠한 내용의 불행/재앙인가’에 대한 개념적 요소이며 선행어 ‘외롭고 위태로움[孤危]’과 ‘가문을 멸함[滅門]’은 모두 (13ㄴ)에서 기술한 ‘불행/재앙[禍]’의 의미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필수적인 보충어 논항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이라는’ 혹은 ‘...의’의 의미 구조로 실현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관형절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이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의

2자어와 1자어 사이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한국어 관형절에서 나타나는 논항관계를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에 적용하여 어떠한 논항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먼저 논항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선행어가 어떠한 논항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어가 동사인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여 전체 서술성 2자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술성 2자어는 ‘형용사 나열 구성’, ‘동사 나열 구성’, ‘술목(타동사) 구성’, ‘주술 구성’, ‘술부 구성’, ‘본용언-보조용언’ 등의 구조를 보였다. 보조용언의 기능을 하는 ‘不-, 無-, 非-, 未-, 難-, 毋-, 可-, 罔-’ 등과의 결합 형태를 보이는 ‘본용언-보조용언’ 구조에서는 사태에 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과 ‘가능, 불능’과 같은 양태의 범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 한자어를 관형절을 이루는 2음절 서술성 한자어 내부에 핵어명사인 후행 1자어와 동지시적인 통사적 공백을 상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관계 관형절과 내용 관형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관계 관형절의 경우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핵어명사가 선행하는 관형절 내부의 주어나 목적어 또는 부사어로 실현되는 논항 관계 구성을 이루었다. 이때 후행 1자어가 관형절 내부에 공지시되는 요소로 해석이 되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논항으로 실현된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따져봄으로써 관계 관형절 구성인지를 판단하였다. ‘주어 논항’의 경우, 선행어의 서술어가 ‘형용사 나열’ 구조이거나 형용사로 이루어진 ‘주어+형용사 술어’, ‘형용사 술어+부사(어)’, ‘보조용언+형용사 본용언’ 구조일 때 모두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선행어에 이미 목적어 논항이 존재하는 ‘타동사 술어+목적어’ 구성과 선행어의 술어가 자동사인 경우에도 모두 주어 논항으로 실현되었다. ‘목적어’ 논항의 경우, 선행어에 이미 목적어 논항이 실현된 ‘타동사 술어+목적어’ 구조와 술어가 자동사인 구조를 제외하고 다른 타동사 결합 구성에서는 모두 목적어 논항이 실현되었으며 일부 주어 논항과 부사어 논항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내용 관형절의 경우, 내용 관형절 구성을 보이는 ‘서술성 2자어+之+1자어’에서 후행 1자어가 의미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미 요소를 설정하고 선행어인 서술성 2자어의 내용과 대조하였다. 그 결과, 선행 2자어가 후행 1자어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개념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선행 2자어가 후행 1자어의 필수 논항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선행 2자어가 후행 1자어에 대해 ‘...이라는’ 혹은 ‘...의’의 의미 구조로 실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참고 문헌>

- 김근애·김양진(2021), 「고정틀을 지나는 사자구성(四字構成) 한자어의 접사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72, pp.441~472.
- 김용한(1994), 「한자어 조어법 연구」, 『대동한문학』 6, 대동한문학회, pp.243~267.
- 김용한(2008), 「1976년에 간행된 『漢文文法』의 品詞 理論 研究」,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pp.339~368.
- 김인균(2002), 「국어 명사의 의미 특성과 분류」, 『시학과 언어학』 4, 시학과 언어학회, pp.268~293.
- 김인균(2003), 「관형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관계」, 『국어학』 41, 국어학회, pp.197~223.
- 김지은(2002), 「관형절의 한 유형에 대한 연구」, 『애산학보』 27, pp.157~185.
- 김지홍(1995), 「명사구 확장고 그 논항구조에 대하여」, 『배달말』 20, 배달말학회, pp.81~176.
- 목정수(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pp.437~470.
- 목정수·박용배(2017), 「敍述名詞의 論項의 格 실현 양상 - 自動性 機能動詞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4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61~88.

- 문숙영(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pp.31~68.
- 박종후(2009), 「의' 명사구에서 논항 관계의 양상」, 『언어사실과 관점』 2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187~219.
- 박철우·김종명(2005), 「한국어 용언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어학연구』 41-3, pp.543~567.
- 박향란(2020), 「보문소 之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접근」, 『중국어문학』 85, 영남중국어문학회, pp.121~145.
- 박향란(2021), 「선진시기 主之謂구조에서 之의 화용 기능에 대한 재고찰」, 『언어과학연구』 97, 언어과학회, pp.289~306.
- 박형진(2016), 「한국어 관형사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정민(2008), 「관형격 구성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pp.523~546.
- 신기상(2005), 「漢字語의 國語化에 대한 연구」, 『語文研究』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35~57.
- 안기섭(2008), 「古代漢語 助詞 '之'의 機能에 관한 新論」, 『中國人文科學』 40, 중국인문학회, pp.1~33.
- 오충연(2001), 「敍述關係로 본 二重主語文의 재해석-論項構造와 對比하여-」, 『語文研究』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3~70.
- 이병관(1995), 「現行 中·高 漢文教科書 問題點 研究 - 轉注의 정의, 之자의 용법, 補語의 문제를 중심으로 -」, 『중국어문논집』 7, 중국어문학회, pp.515~534.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월인.
- 이선웅(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語文學』 98, 한국어문학회, pp.159~185.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우태(2005), 「金石文을 통하여 본 漢字의 導入과 使用-新羅 金石文의 之의 用例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8, 한국고대사학회, pp.113~134.
- 이익섭·임홍빈(1983/1988),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종한(2003), 「韓中 兩國의 《論語》 '之'字 解釋에 關한 比較 研究」, 『중국어문학』 41, 영남중국어문학회, pp.463~490.
- 이홍식(1999), 「명사구 보문」, 『국어학』 33, 국어학회, pp.367~398.
- 이홍식(2019), 「의미역의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와 문화』 26, pp.95~120.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pp.31~66.
- 정요일(2001), 「어조사 "지"자를 목적어로서의 대명사로 볼 수 없는 이유」, 『한문교육논집』 17, 한국한문교육학회, pp.233~263.
- 홍인표(1976/2013), 『漢文文法』, 신아사.

“‘서술성 2자어+之+1자어’ 한자어 구성의 구조 및 의미 특성 연구”에 대한 토론

최소영(부산대)

이 발표문은 한국 한자어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의 구조적인 특징과 의미 체계를 논항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입니다.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서 한국어 관형절과 동일한 구조적 특징이 2자어와 1자어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한국어 관형절의 논항관계를 ‘서술성 2자어+之+1자어’ 구성에 적용하여 한자어 사례를 분류하고 논항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 한자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단어 형성법 또는 주술 구성과 술목 구성 등 2자어 내에서의 논항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4자 구성에서 나타나는 ‘之’ 관형절의 특성에 주목한 점이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연구를 먼저 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 관형절과 내용 관형절에 대한 보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해 주신 터라,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며 발표문을 읽었기에 발표문의 논지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발표문을 보다 확산적으로 논의해 보고 싶은 마음과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사적 관형절”(발표문 여덟 번째 쪽)의 설정 배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동명사 어미) 뒤에 바로 대격 조사, 속격 조사 등 격조사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 명사적 용법을 가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관형절을 명사절에 가깝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15세기를 지나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명시할 법한 예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명사적 관형절을 설정함에 따라 현대국어의 공시적 논의에서 ‘-ㄴ’을 명사형 어미로 규정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 ‘명사+명사’ 구성에서 선행명사가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점 및 후행 명사가 의존명사일 때 동격 관형절 구성을 이루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어미 체계상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명사적 관형절에서 ‘之’ 앞의 ‘2자어’는 “비서술성 2자어”(발표문 아홉 번째 쪽)로 처리됩니다. 이 발표문의 서론에서 ‘서술성’의 의미를 ‘之’ 앞의 ‘2자어’가 핵어명사와 공지시되는 통사적 공백을 가질 때이거나 핵어명사와 동격 관계를 이룰 때인 것으로 한정된 것과 일관된 조치가기는 하나, ‘서술성 명사’와 같은 말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서술성’의 의미보다는 폭이 좁은 편입니다. “아사지경(餓死之境, 굶어 죽을 지경), 지근지처(至近之處, 매우 가까운 곳)” 등의 예에 대하여 발표문에서 “서술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라고 인지하고 있듯이(발표문 아홉 번째 쪽), 명사적 관형절로 분류된 것들에서의 ‘비서술성 2자어’ 역시 ‘서술성 2자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특성 및 동사 나열, 형용사 나열, 술목, 주술, 술부 등의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토론자의 관건으로서는 ‘-ㄴ’을 명사형 어미로 규정하고 ‘비서술성’을 나누는 체계보다는, 일반적인 어미의 지배적 기능을 준용하되 관형절의 종류를 하나 더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보다 작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문 여덟 번째 쪽에 김지은(2002)의 ‘연계절’이 언급되어 있

는 것은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러한 방편에 대하여 이미 고민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도 연계절(구본관 외 2015) 혹은 연계 관형절(유현경 외 2018)로 관형절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보다 이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일 터이므로, 그러한 논리적 판단 과정 및 장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개념적 의미 요소”(발표문 열세 번째 쪽)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선행어는 후행 1자어가 의미적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의미적인 요소를 나타내며 모두 ‘어떠한 내용인지’를 포함”한다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 및 <표 10>의 예시에 따르면 한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어 중에서 핵어명사의 개념적 의미 요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반문하게 됩니다. 즉 “내용 관형절 구성에서 의미론적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이러한 검증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가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념적 의미 요소의 세부적인 기술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이를 테면 다음과 같은 예입니다. <표 10>에서 대부분은 ‘어떠한 내용의 □□(후행 1자어)인가?’의 개념적 의미 요소로 포착되나, ‘가취지례(嫁娶之禮)’의 ‘예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에 치러지는 예식인가”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로 보건대 ‘예식’의 ‘내용’이 ‘가취’라고 보아 ‘어떠한 내용의 예식인가?’ 또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무염지욕(無厭之慾)’의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욕심인가”로 제시되었는데, ‘싫증이 없는(끝없는) 욕심’이므로 다르게 표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장지년(強壯之年), 쇠로지년(衰老之年), 방장지년(方壯之年)’에 대해 “어떠한 특징을 지닌 나이인가”로 제시된 바를 참고하여 “어떠한 특징을 지닌 욕심인가?”가 적절할 듯합니다. 이처럼 ‘특징’으로 파악되는 부류가 좀 더 많아진다면, 앞서 ‘개념적 의미 요소’에 대한 풀이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포함한다고 한 것을 수정하여 특징이나 속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셋째, ‘服’과 같이 타동성을 가진 자동사의 경우는 논항 실현 양상을 별도로 다룰 필요성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표 2>의 ‘무복지친(無服之親)’의 구성은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으로 제시되었고 문장 전환 사례로는 “친척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가 제시되었습니다(발표문 여섯 번째 쪽). 중국어식 구성과 달리 현재 한국어에서 ‘服’이 자동사인 경우는 잘 발견되지 않으므로, 서술성 2자어의 통사적 구조 및 논항 실현 양상에 대한 기술 시에 특별하게 고려될 지점이 있지는 않은지, ‘服’ 외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어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사례를 충실하게 검토하신 발표자 선생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발표문의 논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질의가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구본관 외(2015), 《한국어문법총론 I》, 집문당.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주체 높임 {-습시-}의 변천에 대한 小考

성우철(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차례 >

1. 서론
2. ‘-ㅅㅅ-’과 ‘-ㅅㅅ/ㅅㅅ-’의 중복적 쓰임
3. ‘-ㅅㅅ-’의 형성과 그 기능
4. {-습시-}의 활성화와 용법의 확산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석독구결 자료, 이두 자료, 한글 자료를 아울러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체 높임 {-습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동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주로 한글 자료를 대상으로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을 검토하거나, 이두 자료의 ‘-ㅅㅅ-’를 다루는 과정에서 15세기 한글 자료에 나타나는 ‘-습시-’¹⁾의 쓰임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곤 하였다. 이러한 자료적 편향은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에 관한 제반의 사실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함으로써 주체 높임 {-습시-}의 형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조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에서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거나 미진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에 주체 높임의 ‘-ㅅㅅ-’이 쓰인 예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 사실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가 형성된 언어 내적 동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둘째, 13세기 후반의 이두 자료에 이미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하는 절에 ‘-ㅅㅅ-’가 쓰인 예가 보인다.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는 모두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하는 절에서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경우에 쓰인 것이 주목된다. 이 사실은 주체 높임 {-습시-}가 이두 자료(와 그 주된 사용자인 중인 계층)에서 먼저 발달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셋째, 15세기 한글 자료에 주어가 아닌 계사 보어의 지시대상만을 높이는 {-으시-}의 예가 보이는데, 같은 시기의 {-습-} 역시 비슷한 용법으로 쓰인 예가 있다. 이 사실은 객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라는, 서로 양극단에 위치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기능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중첩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ㅅㅅ-’과 ‘-ㅅㅅ/ㅅㅅ-’의 용례를 검토하는 데에 자토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의 최신판(sktot_2022_09)과 2008년에 작성된 점토석독구결 자료 공동 연구 성과물(장경준 2008 참고)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두 자료의 경우 홍고(2002)의 부록에 실린 이두 자료 169점의 전산입력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朴盛鐘(2006)과 南豐鉉 외(2020)를 통해

1) 이 문법 요소의 형식을 ‘-습시-’로 표기한 것은 논의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9다)에서 살펴보겠지만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도 이미 같은 기능으로 ‘-수오시-’의 형식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김태우(2018: 195-198)를 참고할 수 있다.

(3) 가. <주본화엄22, 10:13-15>

A: 同[24(ㄹ)]興念言[41(·),21(ㄹ)]如來[44(·)]出世[14(ㄹ),15(·)]難[43(·)]可值遇
[34(-),24(\\),25(·),41(·)]{11(·)}⁴⁾我[33(·)]今[33(·)]{12(ㄴ)}⁵⁾得[43(ㄹ)]見具一切智[41(·),24(\\),34(ㄹ)]於
法[53(·)]無礙[44(·),25(/)]正等覺者[41(·),53(i),23(·),12(·),24(ㄹ),55(\\),23(ㄹ)]

B: 同[ㄹ]興念言[ノ尸入乙,ナ尸丁]如來[尸]出世[而尸尸,入1]難[可值遇[白,ㄱ,ㄷ,而1乙]我[1]今
[1]得[ホ]見具一切智[乙,ㄱ,ㄷ]於法[+]無礙[尸,而1ㄷㄷ]正等覺者[乙,白ㄱ,ㄷ,ノ1,ㄹ,ㄷㄷ],
ㄴㄷ]

C: 同ㄹ 念言ノ尸入乙 興(ㄴ)ナ尸丁 如來尸 出世(ㄴ)而尸尸入1 [難 值遇(ㄴ)白(ㄱ)可ㄷ(ㄴ)而
1乙 我1 今1 得ホ 一切 智乙 具ㄱㄷ {於}法+ 礙尸 無而1ㄷㄷ 正等覺者乙 見白ㄱㄷㄷノ
1ㄹㄷㄷㄷ]

D: 함께 생각하는 것을 일으키기를 ‘여러가 出世하시거든 [(누군가가) 어렵게야 (분처)를 만나
뵈]십시오’하듯, 나는 지금 능히 일체 지혜를 갖추어 法에 걸림이 없는 正等覺者를 뵈는 것이
다.’ 하여

나. <주본화엄22, 08:06-08>

A: 百萬億少光天[33(·)]宣揚讚歎佛世[24(ㄹ)]難值[34(-),31(·),41(-),52(·)]百萬億無量光天遙[34(ㄹ)]向
佛[41(·),23(ㄹ)]禮[52(·)]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24(ㄹ)]甚[24(ㄹ)]難[43(·)]得[43(ㄹ)]見
[34(-),31(·),41(-),52(·)]

B: 百萬億少光天[1]宣揚讚歎佛世[ㄹ]難值[白,ㄱ,ㄷ,而1入乙,ㄴㄷ]百萬億無量光天遙[ㄷ]向佛
[乙,ㄴㄷ]禮[ㄴㄷ]百萬億光音天讚歎如來[ㄹ]甚[ㄹ]難[得[ホ]見[白,ㄱ,ㄷ,而1入乙,ㄴㄷ]]

C: 百萬億 少光天1 佛世ㄹ [難 值白(ㄱ)而1入乙 宣揚 讚歎ㄴㄷ] 百萬億 無量光天 遙ㄷ
佛乙 向ㄴㄷ 禮ㄴㄷ 百萬億 光音天 如來ㄹ 甚ㄹ [難 得ホ 見白(ㄱ)而1入乙 讚歎ㄴㄷ]

D: 百萬億 少光天은 佛世가 [(누군가가) 어렵게야 (분처)를 만나 뵈] 수 있으신 것을 宣揚 讚
歎하며, 百萬億 無量光天은 멀리 부처를 향하여 禮하며, 百萬億 光音天은 여러가 [(누군가가)
심히 어렵게야 능히 (분처)를 뵈] 분이신 것을 讚歎하며

(3)에 보이는 ‘-白-’과 ‘-而-’의 중복적 쓰임은 (2가)에 보이는 ‘-白-’과 ‘-ㄴ-’의 중복적 쓰임과 평
행한 양상을 보인다. (3)의 ‘-白-’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생략된 객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而-’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인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3가)에서는 ‘可
ㄷ-’가, (3나)에서는 ‘-ㄷ-’가 각기 가능성의 인식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으로 쓰였는데,⁶⁾ 이
때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화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가)나 (3)과 비슷한 {-습-}과 {-으시-}의 중복적 쓰임이 15세기 한글
문헌, 특히 『법화경언해』에서도 적게나마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법화경언해』 권3에 4

4) 文玄洙(2017: 285)에서는 11(·)을 판독에 반영하여 ‘值遇(ㄴ)白(ㄱ)可ㄷ(ㄴ)而1乙ㄴ’로 해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결점을 판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3가)의 ‘如來出世難可值遇’는 명사구 접속 구문, 명명
구문, 뜻풀이 구문, 호출 구문, 감탄 구문, 도치 구문 등 조사 ‘-ㄴ-’이 쓰일 만한 전형적인 환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전기량 2018 참고). <금광03, 13:04>에 ‘ト1乙ㄴ’의 예가 보이기는 하나 해당 예는 도치 구
문에 ‘-ㄴ-’가 쓰인 예이므로 (3가)와는 구분된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3가)의 ‘如來出世難可值遇’를 ‘여러께서 출세하심을 만나기 어렵거늘’로 번역하였
다.

5) 文玄洙(2017: 144)에서는 12(ㄴ)을 판독에 반영하여 ‘今1(ㄴ)而1’로 해독하고 이때의 ‘ㄴ-’를 ‘出世’에 조
응하는 대동사로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결점을 판독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처가 세상에 나오
는 일은 이미 앞의 절에서 기술된 사태이므로, (3가)의 ‘我今得見具一切智於法無礙正等覺者’에서 그것을 구
태여 다시 대동사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
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3가)의 ‘我今得見具一切智於法無礙正等覺者’를 ‘온갖 지혜를
갖추시고 법에 걸림이 없는 정등각하신 이를 우리가 지금 만났도다’로 번역하였다.

6) 이때의 ‘-ㄷ-’는 명사형 어미 ‘-尸’과 계사 ‘-ㄹ-’의 결합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건, 권7에 3건이 확인되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世尊이 甚히 希有^h샤 [(누군가가 부처ⁱ를) 어루 시러 맞나스오미] 어려우시니 無量功德이 마즈샤 能히 一切를 救護^h시느니(世尊이 甚希有^h샤 難可得值遇 | 시니 具無量功德^h샤 能救護一切^h시느니) <법화경언해(1463) 3:09b>

나. 世尊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ⁱ를) 보스오미] 어려우샤 諸煩惱를 허르시니시니(世尊이 甚難見^h샤 破諸煩惱者 | 시니) <법화경언해(1463) 3:120a>

다. 諸佛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ⁱ를) 맞나스오미] 어려우시니 우리 부터 좃즈와 비호스^h와지이다(諸佛이 甚難值^h시니 我等이 隨佛學^h스^h와지이다) <법화경언해(1463) 7:136a>

라. 부테이 [(누군가가 부처ⁱ를) 시러 맞나스오미] 어려우샤 優曇鉢羅華 | 곧^h시며 또 흐 눈 거부비 뜬 나뭇 구무 맞남 곧^h시니(佛難得值 | 如優曇鉢羅華^h시며 又如一眼之龜 | 值浮木孔^h시니) <법화경언해(1463) 7:137b>

(2가), (3), (4)와 같이 내포절의 목적어가 인상되어 모절의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구문을 흔히 ‘tough’ 구문이라고 부른다(박진호 1994: 65-69). 이영경(2003: 138-140)에서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어렵다’가 (2가), (3), (4)처럼 ‘NP이 VP호미 어렵다’의 문형을 취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4)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5세기 한국어 ‘어렵다’가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평가 형용사에 속한다는 점이다.⁷⁾ (4)에서 ‘어렵다’가 서술어로 쓰인 절의 주어인 부처는 모두 대상역(theme)을 수행하며, 경험주(experiencer)는 모두 화자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어렵다’가 쓰인 절의 인상된 주어가 대상역을 수행하는 경우 ‘어렵다’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하기 어렵다.

(5) 가. 나는 [시아버님을 모시기가] 어렵다.

나. 시아버님이 모시기가 어렵다.

나’. ??시아버님이 모시기가 어려우시다.

다. 시아버님이 스마트폰 쓰기가 어려우시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도 비슷한 예가 확인된다.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등장인물이 부처를 만나는 일이 어려움을 밝히는 장면은 『법화경언해』 이외에 『석보상절』, 『월인석보』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월인석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이 『법화경언해』와 마찬가지로 ‘tough’ 구문으로 실현되었음에도 모절의 서술어 ‘어렵다’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하지 않았음이 눈에 띈다.

(6) 가. 世尊이 甚히 [(누군가가 부처ⁱ를) 맞나스보미] 어려브며 妙法이 또 듣즈보미 어렵거늘 <월인석보(1459) 10:32b-33a>

나. 이럴찌 父母 | 우리를 出家케 ^h쇼셔 엇데어뇨 ^h란디 諸佛이 [(누군가가 부처ⁱ를) 맞나스보미] 어려브며 時節도 맞나미 어려브니이다 <월인석보(1459) 19:80b>

내포절의 생략된 목적어가 모절의 주어로 인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6)의 통사 구조는 (4)와 동일해 보인다. 그렇다면 (6)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였고, (4)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지 않은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번역의 과정에서 구결문의 영향으로 일어난

7) 형용사의 분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경(2003)을 따라 15세기 한국어 ‘어렵다’를 평가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유현경(2000)에서는 현대 한국어 ‘어렵다’를 ‘대상 심리 형용사’로 분류한 바 있다.

일종의 부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은 특히 (4)와 같은 특이한 용례가 『법화경언해』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상옥(2006)에서는 이른바 관형사절의 주어적 속격으로 논의되어 온 예의 대부분이 구결문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받은 일반적 속격에 지나지 않음을 논증한 바 있으며, 이상옥(2007)에서는 이른바 속격 조사 중첩형으로 알려진 ‘내이/내의, 네의’ 가운데 특히 간경도감본 불경 언해 자료에 나타나는 예의 다수가 구결문을 거쳐 한문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지나친 직역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7) 가. 이 사르미 [스랑^ㅎ야 헤아려 닐온] 마리 다 佛法이라 眞實 아니^ㅎ니 업스며(是人의 [有所思惟籌量言]說이 皆是佛法이라 無不眞實^ㅎ며) <법화경언해(1463) 6:65a>

가'. 이 사르미 스랑^ㅎ야 헤아리며 말 닐오미 다 佛法이라 眞實티 아니^ㅎ 디 업스며 <월인석보(1459) 17:74a>

나. 우흔 다 諸佛스 [머리셔 讚歎^ㅎ시논] 마리시니라(上은 皆諸佛스 [遙讚之]言이시니라) <법화경언해(1463) 6:179a>

나'. 우흔 다 諸佛이 머리셔 讚歎^ㅎ시논 마리라 <월인석보(1459) 18:57b>

(8) 가. 阿逸多야 ^ㅎ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내의 壽命 長遠 닐오물 듣고 기픈 ㅁㅅㅁ로 信解^ㅎ면(阿逸多야 若善男子善女人이 聞我的 說壽命長遠^ㅎ고 深信信解^ㅎ면) <법화경언해(1463) 5:19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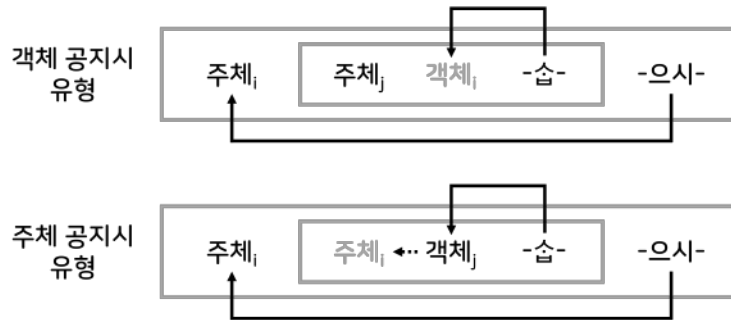
가'. 阿逸多야 ^ㅎ다가 善男子 善女人이 내 壽命 長遠 닐오물 듣고 기픈 ㅁㅅㅁ로 信解^ㅎ면 <월인석보(1459) 17:34b-35a>

나. 또 能히 法다이 내의 虛妄^ㅎ 허물 니르리 업스리라(亦無有能如法히 說我的 虛妄過者^ㅎ리라) <법화경언해(1463) 5:159b>

나'. 또 能히 法다비 내 虛妄^ㅎ 허물 니르리 업스리라 <월인석보(1459) 17:22a-22b>

이러한 예가 대개 『능엄경언해』와 『법화경언해』를 비롯한 간경도감본 불경 언해 자료에만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4)에서 ‘어렵다’에 {-으시-}가 통합한 원인과 관련한 흥미로운 함의를 제공한다. 즉 (4)에서 ‘어렵다’에 통합한 {-으시-} 역시 (7)의 ‘-이/스’나 (8)의 ‘내의’와 마찬가지로 구결문의 통사 구조에 영향을 받은 일종의 번역체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ㅁ/.’의 중복적 쓰임과 15세기 한글 자료에 보이는 주체 높임의 ‘-습시-’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의 중복적 쓰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2가)와 같이 모절의 주체와 내포절의 객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2나)와 같이 모절의 주체와 내포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객체 공지시 유형, 후자를 주체 공지시 유형으로 부르려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ㅅ-’과 ‘-ㅅ/니-’의 중복적 쓰임

위의 <그림 1>에서 ‘-ㅅ-’은 내포절에서 그 절의 객체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ㅅ/니-’는 모절에서 그 절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객체 공지사 유형의 경우 내포절의 객체가, 주체 공지사 유형의 경우 내포절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며, 생략된 내포절의 객체나 내포절의 주체는 모절의 주체와 같은 지시 대상을 가진다. 그러나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가 보이는 양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9) 가. 주는 [(先王이) 내 흐습시논] ㅅ디시니라 <훈민정음_언해본(1459) 2b>

나. 進上흐스보니 (先王이) [(先王이) 보물] 주스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물 月印千江이라 흐시니(乃進上흐스보니 {隔}賜覽흐시고 輒製讚頌흐샤 名曰月印千江이라 흐시니) <월인석보(1459) 서:12b-13a>

다. [(부처가) [조흔 瑠璃入 가운데 안해 眞金像이 現흐신] 듯흐습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瑠璃中에 內現眞金像흐신 世尊이 在大衆흐샤 敷演深法義흐시며) <개간법화경언해(1500) 1:34a-34b>

다. 조흔 瑠璃入 가운데 안해 眞金像이 現흐신 듯흐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瑠璃中에 內現眞金相흐신 世尊이 在大衆흐샤 敷演深法義흐시며) <법화경언해(1463) 1:118b>

(9)의 ‘-습시-’는 모두 절의 생략된 주체를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9가)의 생략된 주체는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1인칭을 지시하는 선왕의 발화이다. (9나)의 생략된 주체 역시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선왕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이다. (9다)의 생략된 주체는 ‘世尊’, 즉 부처이며 객체는 ‘眞金像’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이다. 이 지점에서 지적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9)의 모든 객체가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만하다는 점이다. 선왕의 발화는, 특히 그것이 1인칭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선왕과 더불어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선왕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 역시 선왕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선왕과 더불어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眞金像’은 부처의 現身이 보이는 형상으로 흔히 三十二相에 포함되곤 하는 것인데, 불교기록문 화유산아카이브 통합대장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국역경원 번역문에서는 이것을 ‘참다운 모습’으로 번역한 바 있다.⁸⁾ 즉 ‘眞金像’ 역시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실제로 ‘眞金像’이 주체로 실현된 내포절의 서술어에도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습시-’의 용법은 성우철(2022)에서 논의한 ‘-ㅅ-’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8) 이와 관련하여 貞元本 『화엄경』 권27에서 부처의 유모였던 ‘妙德林神’이 노래한 다음 계송의 내용도 참고가 된다. 般若譯, 『大方廣佛華嚴經』 第27卷(ABC, K1262 v36, p.150c11-c12). “見彼離垢清淨身, 相好莊嚴甚微妙, 猶如妙寶眞金像, 歡喜自慶發淨心.” 여기에서 ‘妙寶眞金像’은 갓 태어난 부처의 티끌 하나 없이 청정한 모습을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10) 가. <구인上, 02:07-09>

他方七 大衆、及ハ 以ホ 化衆、{此}リ 三界七 中ヲセ 衆、ノ尸 十二大衆¹ 皆セ 來ッヲホ 集會ッヲ 九劫 蓮花座²ヲ十 坐ッ白ウ¹ム 其 會セ 方廣¹ 九百五十里²リ¹乙 大衆²リ 僉然³而 … 坐ッモハニ¹

他方の 대중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의 가운데에 있는 대중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다 와서 집회 하여 九劫 蓮花座에 앉으시되 그 會의 사방 넓이가 九百五十里거늘 대중이 그렇게 앉아 계신다.

나. <구인上, 03: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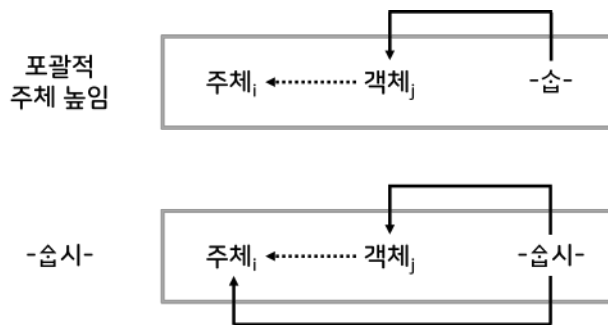
佛¹ 卽¹リ 時²リ 去¹リ 入¹乙 知²ニカ 衆生³ヲ 根²乙 得¹ニッ¹ 卽¹リ 定²乙 從¹セ 起¹ッニ下 方²七 蓮花 師子座上³ヲ十 坐ッ白ウ¹ム 金剛山王 {如}¹ノ¹ッ¹ハニ¹

부처는 곧 때인 줄 아시며 중생의 根을 얻으시고 곧 禪定으로부터 일어나시어 비로소 蓮花師子座 위에 앉으시되 金剛山王과 같으시니

다. <금광03, 03:22-04:01>

佛¹ {言}ヲ²ニ尸 善男子³ 又 五法 有¹セ¹ 菩薩摩訶薩² 般若波羅蜜²乙 成就¹ノ¹云何²ッ¹ 爲¹五 … 二者 諸佛如來²尸 說¹白¹ノ¹ 甚深 法²乙 心²ヲ十 常² 樂² 聞¹白¹ノ¹ 獸足²ノ¹ 無{有}セ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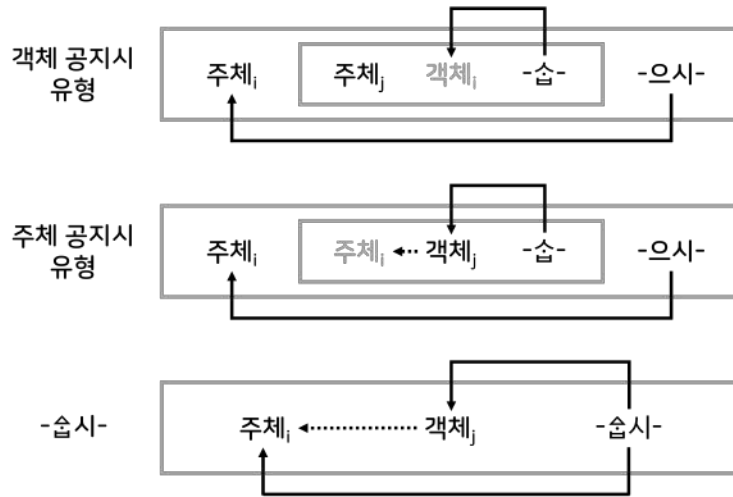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善男子여. 또 五法이 있다, 菩薩摩訶薩이 般若波羅蜜을 성취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 둘째, 諸佛如來가 말씀하신 아주 깊은 법을 마음에 항상 즐겨 듣되 獸足함이 없으며 … ”



<그림 2> ‘-白-’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과 ‘-습시-’의 비교

(10가)의 객체인 ‘九劫 蓮花座’는 주체인 ‘十二大衆’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고, (10나)의 객체인 ‘蓮花師子座’는 주체인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며, (10다)의 객체인 ‘甚深法’도 주체인 부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는 모두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白-’의 기능은 주체 높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우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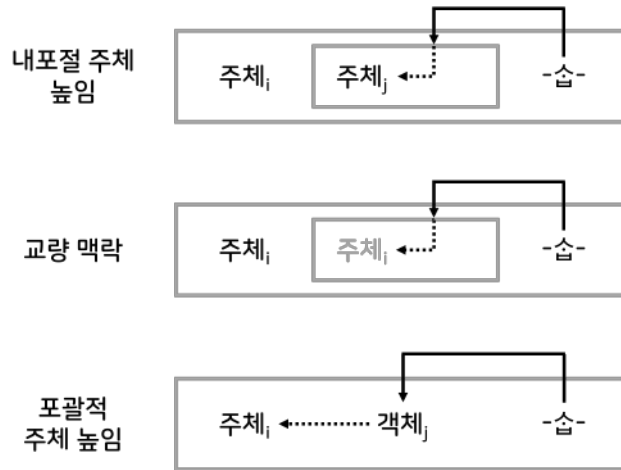
성우철(2022)에서는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白-’의 용법에서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교량 맥락을 거쳐 모절의 주체를 높이는 ‘-白-’의 용법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설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앞서 살펴본 ‘-白-’과 ‘-ᄃᆞ/-’의 중복적 쓰임 가운데 (2나)의 주체 공지시 유형이다. 이 유형의 쓰임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와 상당한 친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白-’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발달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3> ‘-ㅁ-’과 ‘-ㅁ/=-’의 중복적 쓰임과 ‘-습시-’의 비교

위의 <그림 3>을 살펴보면 객체 공지사 유형과 주체 공지사 유형과 ‘-습시-’가 일정한 연속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객체 공지사 유형에 속하는 (2가), (3), (4) 가운데 (2가)를 제외한 나머지 예에서는 내포절의 주체와 객체 모두 실현되어 있지 않으며, 주체 공지사 유형에 속하는 (2나)에서도 내포절의 주체와 객체 모두 실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석독구결 자료에 보이는 ‘-ㅁ-’과 ‘-ㅁ/=-’의 중복적 쓰임과 한글 자료에 보이는 {-습-}과 {-으시-}의 중복적 쓰임이 모두 ‘tough’ 구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ㅁ-’과 ‘-ㅁ/=-’이 중복적 쓰임을 보이는 예에서 내포절의 ‘-ㅁ-’이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객체나 주체는, 정보성이 낮다는 점에서 흔히 생략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쓰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통사 구조에 대한 재분석과 더불어 ‘-ㅁ-’에 통합하는 구성, 예컨대 ‘-ㅁ/ㅁ-’(2가), ‘-ㅁ/ㅁ-’(2나), ‘-ㅁㅁㅁ-’(3가), ‘-ㅁㅁㅁ-’(3나) 등이 탈락하면서 ‘-ㅁ-’과 ‘-ㅁ/=-’가 직접 통합하게 될 수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9) 이와 관련하여 (2가)의 ‘-ㅁㅁㅁㅁ-’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의 경우 모두 각 자료에서 하나의 구결점으로 표기되는 구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합부금광명경』 권3 점토석독구결에서 ‘ㅁ/ㅁ’와 ‘ㅁ/ㅁ’는 각기 22~32(/)와 22~32(·)에 대응되며,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 ‘ㅁㅁ’는 31(·)에 대응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ㅁㅁㅁㅁ-’가 한문 원문의 요소를 개재하는 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가)가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가 된다는 점 역시 이해할 만하다. 이처럼 내포절의 명사형 어미와 모절의 계사가 통합한 구성을 하나의 구결점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로 널리 확인되는지, 나아가 이것이 당시 현토자의 문법 의식과 어떠한 관련을 맺었는지는 앞으로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4>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의 발달 과정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포절 주체 높임 용법에서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할 경우 정보성이 낮은 내포절의 주체는 생략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포절은 여전히 '-ㅁ-'에 의한 높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위는 내포절이 지시하는 사태의 행위주인 모절의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부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이처럼 내포절의 주체와 모절의 주체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맥락을 교량으로 삼아 발달했을 것으로 가정한다. 즉 '-ㅁ-'이 모절의 주체를 행위주로 삼는 사태를 지시하는 내포절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서 나아가, 모절의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사태, 개념, 사물 등을 지시하는 명사구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데까지 확장됨으로써 '-ㅁ-'의 포괄적 주체 높임 용법이 발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재분석과 스키마의 확장에 따른 일반화는 언어 변화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인데, 김태우(2016)에서는 타동사와만 통합하던 '-어 브리-'가 자동사와도 통합하게 된 사례를 예시로 든 바 있다.

3. '-ㅁ-'의 형성과 그 기능

이두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은 크게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청자 높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홍고 2002). 이두 자료에서 '-ㅁ-'이 주체 높임의 '-ㅁ-' 또는 '-ㅁ-'와 함께 쓰일 경우 석독구결 자료와 마찬가지로 대개 '-ㅁ-'은 절의 객체를, '-ㅁ-' 또는 '-ㅁ-'는 절의 주체를 각기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 (11) 가. 玄風縣 北面 觀音房主人 眞甫長老 陪白賜乎 舍利 一七口乙 京山府土 處藏寺主 彦承長老亦 今月 一日 陪到爲賜乎 事亦在等以 <淨兜寺 오층석탑 조성 形止記(1031)>
 玄風縣 北面 觀音房의 주인인 眞甫_장로가 모시던 舍利 17구를 京山府 땅 處藏寺의 주인인 彦承 장로가 이달 1일에 모시고 오신 일이 있었으므로
 나. 是 雖 我聖德神功 應天順人所致白教是乃 命世之臣 盡忠奮義 佐命開國爲白乎所 王旨內兒 如 其功甚大 帶礪難忘是去有良尔 <李和 개국공신 녹권(1392)>

10) 하나의 문법 요소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두 가지 용법을 모두 보이는 예는 고대 일본어 동사 'たまう'에서도 확인된다. 고대 일본어 동사 'たまう'는 4단활용을 할 때는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절의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하2단활용을 할 때는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절의 객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다(한미경 2013: 33-34, 40). 두 가지 용법의 의미와 활용 부류 모두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대 일본어 동사 'たまう' 역시 재분석을 통해 두 가지 용법을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록 우리 聖德과 神功이 하늘에 부응하고 사람에게 순응함에 따른 바이시나 세상에 이름난 신하들이 충을 다하고 義를 떨쳐 개국한바 王旨의 내용대로 그 공로가 심히 커 황하가 떠만큼 좁아지고 태산이 솟돌만큼 작아져도 잊기 어려운 것이어서

다. 是雖我殿下 育德潛邸 天與人歸所致 戡定禍亂 受命繼統是白教是乃 名世之臣 佐命定社爲白乎所 王旨內克如 功勞重大 永世難忘是白置有良尔 <張哲 정사공신 녹권(1398)>

이는 비록 우리 전하께서 潛邸 때에 덕을 기르셔서 하늘과 사람이 아울러 돌아옴에 따라 禍亂을 평정하고 천명을 받아 왕통을 이으신 것이지만 세상에 이름난 신하들이 천명을 도와 사직을 안정시킨바 王旨의 내용대로 공로가 중대하여 영원히 잊기 어렵다고 하신 것도 있어서

(11가)는 15세기 한글 자료에 흔히 보이는 {-습-}의 용법으로 쉽게 이해가 가능하나, (11나, 다)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11나, 다)에서 ‘-白-’는 각기 계사 보어인 ‘應天順人所致’와 ‘受命繼統’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으로,¹¹⁾ ‘-教-’는 각기 주체인 ‘我聖德神功’와 ‘我殿下’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11나)의 ‘應天順人所致’는 ‘天’을 객체로 삼는 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11나)의 ‘受命繼統’는 ‘命’과 ‘統’을 객체로 삼고 있어 각기 높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한글 문헌에도 이처럼 계사 보어 내에 높임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사에 {-습-}이 통합하는 예가 드물게 관찰된다.

(12) 가. 두 아드리 널오되 大王하 더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이제 七寶菩提樹 下 法座 上에 안자 겨샤 一切 世間 天人 衆 中에 法華經을 너비 니르시느니 이 우리 스승이시며 우리 그 弟子 | 스보이다 <월인석보(1459) 19:78b-79a>

나. 내 부텃 몬아드리스오니 고티야 니르샤를 드리우쇼셔 이 會 無量衆이 能히 이 法을 恭敬호스와 信호스오리이다(我爲佛長子 | 스오니 惟垂分別說호쇼셔 是會無量衆이 能敬信此法호스오리이다) <법화경언해(1463) 1:169b>

다. 羅睺羅는 이 부텃 아드리스오니 하다가 부테 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를 심기시면 내 願이 호마 츄며 모든 보람도 또 足호리이다(羅睺羅는 是佛之子 | 스오니 若佛이 見授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者 | 시면 我願이 旣滿호며 衆望도 亦足호리이다) <법화경언해(1463) 4:48b>

김태우(2018: 52-53)에서는 이처럼 계사 보어에 높임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계사에 통합하는 {-습-}의 용법을 객체 지향적 용법의 하위 유형으로 파악한 바 있다. 즉 {-습-}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유추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절에서 주어를 제외한 모든 성분을 {-습-}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15세기 한글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논항을 요구하는 자동사와 형용사에 {-습-}이 통합하는 예가 보인다(김태우 2018: 49-50).

(13) 가. 이제 또 내 아드를 드려가려 호시느니 (부처의) 眷屬 드외스바셔 설본 일도 이러홀 썩 <석보상절(1447) 6:5b>

나. 또 各各 여둡 姝女 | 의 지츠로 밍ᄃᆞᆫ 蠶을 자바 (부처의 사리를 모실) 塚 四面에 셔스 보며 <석보상절(1447) 23:49b>

다. 世尊하 우리 이어기 또 당다이 분이 잇느니 오직 如來 우리 가스불 디시며 <월인석보(1459) 15:27b>

(14) 가. 阿難 羅云이 부텃 갓갑스바 호마 모다 아논 사르미니 하다가 記를 得디 묻호면

11) (11나)를 ‘-是-’가 생략된 계사 구문으로 파악한 것은 朴盛鐘(1993)에 따른 것이다.

모든 브라오매 츠디 몬호리라 <월인석보(1459) 15:28a>

나. 法 닷고매 겨를 업서 (세중의) 咐囑애 맞습디 몬호물 도라보되 쏘 히미 저거 드로미 어
렵더니 <능엄경언해(1461) 跋:2b>

다. 如來와 혼 뒤 자스오몬 모습 두미 부터와 곧조오물 니르시고(與如來共宿은 謂栖心이 同
佛也 | 시고) <법화경언해(1463) 4:88b-89a>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계사 보어에 높임의 대상이 포함되
어 있을 경우 (12)와 같이 계사에 {-습-}이 통합하기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으시-}가 통합하
기도 하였다는 점이다(李賢熙 1994: 123-127).

(15) 가. 世尊하 내 이제 娑婆世界에 가미 다 如來스 히미시며 如來스 神通遊戲시며 如來스
功德智慧莊嚴이시니이다 <석보상절(1447) <석보상절(1447) 20:37b>

나. 이 우리 허브리라 世尊스 다시 아니르사시이다 <월인석보(1459) 12:3b>

나'. 이는 우리 허브리라 世尊스 다시 아니시다스이다(是는 我等答 | 라 非世尊也 | 시다스이
다) <법화경언해(1463) 2:5b>

다. 能仁은 梵語에 釋迦 | 시고 예서 닐오맨 能人이라(能仁者 梵語 釋迦 此云能人也) <원각
경언해(1465) 下3-2:101a>

라. 南北東西에 혼 釋迦 | 샷다(南北東西에 一釋迦 | 샷다) <금강경삼가해언해(1482) 2:60a>

(15가)의 주체는 화자가 사바세계에 가는 사태이고 계사 보어는 ‘如來스 힘, 如來스 神通遊戲,
如來스 功德智慧莊嚴’이며, (15나)의 주체는 화자가 부처의 제도행에 의혹을 품은 사태이고 계사
보어는 ‘世尊스 닷’이며, (15다)의 주체는 ‘能仁’이라는 말 자체이고 계사 보어는 ‘釋迦’이다. (15
라)는 일종의 존재 구문으로 계사 보어인 ‘釋迦’를 높이기 위해 계사에 {-으시-}가 통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이처럼 계사 구문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가 적지 않은데
(李賢熙 1994: 110-119), 앞선 시기의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계사와 형식이 동일한 ‘-’가 존재
사로 쓰인 예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호(2017)에서는 (15라)와 같이 처소역이 실현되지 않
는, 하나의 논항만이 요구되는 존재 구문을 실재문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

(15)에서 계사에 통합한 {-으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계사 보어
에 높임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12)의 {-
습-}과 (15)의 {-으시-}가 기능상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12)의 {-습-}은 그 본질상
타동성이 낮은 계사에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형성을 보이며, (15)의 {-으시-}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님에도 계사에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형성을 보인다. 요컨대 {-습-}과 {-으시-}의 기
능이 유추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두 요소의 기능이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다시 이두 자료로 돌아와서, (11나, 다)의 경우 주체인 ‘我聖德神功’와 ‘我殿下’, 계사 보어인 ‘應
天順人所致’와 ‘受命繼統’이 모두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이때 계사에 통합한 ‘-白教-’는 주체
와 계사 보어가 모두 높임의 될 수 있는 맥락에서 양쪽 모두를 적절히 높이기 위해 사용된 것으
로 이해된다. 즉 이때의 ‘-白-’은 계사 보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서는 비전형적인 기능을 수
행하며, ‘-教-’는 전형적인 주체 높임의 기능을 수행한다.

(15라)와 같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며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하는 절에 ‘-白教-’가 쓰인 예는 13
세기 후반부터 확인된다.

(16) 가. 三司使 金應文 將軍 車得圭 等以段 身故爲乎事去有良尔 并以 田民加給教所 不喻去
有在而亦 一般 上恩是白教乙 不許不喻去有在等以 <鄭仁卿 공신 녹권(1289)>

三司使 金應文 將軍 車得圭 등의 경우 사망하였기 때문에 함께 田民을 加給하신 것은 아니었

하는 것은 名字 없고 體相 없고 하며, 三界의 名字 없고 善惡果報인 六道의 名字 없고 하다.

이외에 흥미로운 사례로 14세기 후반의 개국 원종공신 녹권에 다수의 예가 보이는 다음 구문을 살펴볼 수 있다.

(18) 가. 爲等如 王旨內兒如 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 更良 功臣職名單字 申聞爲白叱乎亦中 科科以 分例敎矣 <金懷鍊 개국 원종공신 녹권(1395)>

아울러 王旨의 내용대로 공로가 승상하여 높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시 공신의 職名單字를 보고드린 때에 날날이 구분하여 주시되

나. 爲等如 王旨內兒如 功勞可賞是白敎等用良 更良 職名單字 申聞爲白叱乎亦中 科科以 落點分例敎矣 <張寬 개국 원종공신 녹권(1395)>

아울러 王旨의 내용대로 공로가 승상하여 높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시 職名單字를 보고드린 때에 날날이 낙점하고 구분하시되

다. 王旨內兒如 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 更良 功臣職名單字 申聞爲白叱乎亦中 科科以 落點分例敎矣 <沈之伯 개국 원종공신 녹권(1397)>

王旨의 내용대로 공로가 승상하여 높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시 공신의 職名單字를 보고드린 때에 날날이 낙점하고 구분하여 주시되

(18)의 주체는 모두 녹권의 발급 대상인 개국 원종공신이며, ‘王旨’는 부사어, ‘功勞可賞’는 계사 보어로 각기 분석된다. (18)에서 ‘-白敎-’는 모두 계사에 통합해 있는데, 여기에서 ‘-白敎-’의 기능은 주체 높임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주체인 개국 원종공신은 각 녹권에서 높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홍고(2002: 333)에서는 이때의 ‘-白敎-’를 ‘王旨’에 있는 ‘功勞可賞’이라는 임금의 말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용 구문의 ‘爲-’가 생략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이두 자료 『대명률직해』에서는 인용 구문의 하위절 서술어에 대개 ‘-是如’ 또는 ‘-亦’가 통합하였으며(朴哲柱 2004), 통사적 측면에서 (18)을 종결어미 ‘-如’와 형식 동사 ‘爲-’가 모두 생략된 구문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8)을 개체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계사 구문의 일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李賢熙(1994: 121-123)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계사 구문 가운데 ‘NP1이 NP2에/의게/씩 NP3이라’ 또는 ‘NP1이 NP2의/스 NP3이라’의 형식으로 NP1이 NP2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기술하는 구문이 존재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

(19) 가. 분테 이에 와 滅度^{호실뿐던} 우리^{히도} 스승^{니미}실^씩 <석보상절(1447) 23:52b>

나. 불^히 소^년게 닐^그미라 能^히 한 순가^라글 브리고 나는 브리^웁 배 업스니 <월인석보(1459) 18:43a>

나. 불^히 소^내 닐^그미라 能^히 한 가^라글 브리고 나는 브리^이는 디 업스니(臂^之於^手에 爲^辟이라 能^役衆^指호고 而我^는 無^所役^호니) <법화경언해(1463) 6:158b>

다. 一^대事^者는 一^乘 妙^法이니 곧 諸^佛知^見이시며 當^호 人^의 妙^心이며 萬^法엔 實^相이니 (一^대事^者는 一^乘 妙^法也 | 니 卽^諸佛^知見^이시며 當^人 妙^心이며 萬^法 實^相이니) <법화경언해(1463) 1:177b>

라. 輪^王은 곧 太^通스 아^바니^미시^니 智^積에 한^아바^니미^시니라(輪^王은 卽^太通^之父 | 시니 於^智積^에 爲^祖 | 시니라) <법화경언해(1463) 3:98a>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구문에서 NP2에 높임의 대상이 올 경우 (19다)와 같이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사에 {-으시-}가 통합하였다는 점이다. 이때의 {-으시-}는 (12)의 {-습-}이

나 (15)의 {-으시-}와 달리 계사 보어가 아닌 다른 논항의 지시 대상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19다)의 {-으시-}는 주체 높임으로서는 가장 비전형적인, 오히려 객체 높임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8)은 개국 원종공신이 ‘王旨’에서 (그리고 그 화자인 왕에게서) ‘功勞可賞’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기술하는 절이라는 점에서 (19다)와 유사성을 보인다. 즉 개국 원종공신(NP1)이 ‘王旨’, 나아가 그것을 내린 왕(NP2)에게는 ‘功勞可賞’(NP3)이었음을 기술하는 데에 계사 구문이 활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白敎-’은 부사어인 ‘王旨’을 통해 발신자인 왕에 대한 높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계사 보어인 ‘功勞可賞’은 ‘王旨’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王旨’ 자체보다는 지위가 낮은 대상으로 여겨진다. (18)은 둘 이상의 논항이 존재하는 절에서 ‘-白敎-’가 주어나 계사 보어가 아닌 다른 논항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예라는 점에서 (9)의 ‘-습시-’나 (16)의 ‘-白敎-’와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18)에서의 ‘-白敎-’의 기능은 객체 높임으로밖에 분석하기 어렵다. 어쩌면 13세기 이후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에서 ‘-하-’의 두 가지 기능으로부터 둘 이상의 구문이 파생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6)이나 (18)과 같이 ‘-白敎-’가 단일한 지시 대상을 높이는 예에서 궁극적인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개체가 예외 없이 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두 자료의 장르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보자면 왕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복적인 높임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에 재활성화되기 시작한 주체 높임의 {-습시-}가 주로 왕이나 왕족을 높이는 데서부터 쓰이기 시작한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4. {-습시-}의 활성화와 용법의 확산

석독구결 자료나 이두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글 자료에서도 {-습-}과 {-으시-}가 함께 쓰일 경우 대개 {-습-}은 절의 객체를, {-으시-}가 절의 주체를 각기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20) 가. 釋迦太子 | 직죄 奇特^{ᄃᆞᆫ}실적 우리 父母 | 太子의 드리스^{ᄃᆞᆫ}븨시니 夫人이 며느리 어드 샤문 溫和히 사라 千萬 뒤예 子孫이 니셔가물 위^{ᄃᆞᆫ}히시니 <석보상절(1447) 6:7a>

나. 阿難이 다시 슬보되 大愛道 | 善^{ᄃᆞᆫ}흔 쁘디 하시며 부테i 처섬 나가시닐 (부치^{ᄃᆞᆫ}를) 손소 기 르스^{ᄃᆞᆫ}븨시니이다 <월인석보(1469) 10:19a>

다. 后 | 舅姑를 미쳐 섬기습디 ㅁ호ㅁ로 슬호샤 [帝의 그리스^{ᄃᆞᆫ}와 슬허^{ᄃᆞᆫ}샤물] 보스^{ᄃᆞᆫ}오시고 ㅁ ㅁ 爲^{ᄃᆞᆫ}야 늣물 흘리시며(后 | 以不逮事舅姑로 爲恨^{ᄃᆞᆫ}샤 見帝의 追慕悲傷^{ᄃᆞᆫ}히시고 亦爲之流涕^{ᄃᆞᆫ}히시며) <내훈(1573) 2下:54b>

라. (원앙 부인이 사라수 대왕에게) 왕싱계를 ㅁ르치습시고 <안락국태자전변상도(1576) 1a>

라. 夫人이 슬^{ᄃᆞᆫ}샤되 쉰뵈^{ᄃᆞᆫ} 아니면 어느 길헤 다시 보스^{ᄃᆞᆫ}븨리 사름이 善을 닷^{ᄃᆞᆫ}면 利益을 受^{ᄃᆞᆫ}히느니 往生^{ᄃᆞᆫ}탈 ㅁ르치습노니 <월인석보(1459) 8:82a-82b>

마. 나는 曾子의 들^{ᄃᆞᆫ}좁고 曾子^{ᄃᆞᆫ}를 夫子의 들^{ᄃᆞᆫ}조오시니(吾^{ᄃᆞᆫ}는 聞^{ᄃᆞᆫ}諸曾子^{ᄃᆞᆫ}고 曾子^{ᄃᆞᆫ}는 聞^{ᄃᆞᆫ}諸夫子^{ᄃᆞᆫ}히시니) <소학언해(1588) 4:18a>

(20다)는 {-습-}이 내포절 주체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로, 이때 {-습-}이 궁극적으로 높이는 대상은 내포절의 주체인 洪武帝이고 {-으시-}가 높이는 대상은 高皇后 馬氏이다. (20라)는 김태우(2018: 197)에서 소개한 예로, 객체 높임 {-습-}과 주체 높임 {-으시-}의 결합이 ‘-습시-’로 실현된 예이다. (20라)에서 {-습-}은 객체인 사라수 대왕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으며, {-으시-}는 주

체인 원앙 부인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20마)는 객체 높임의 {-습-}과 주체 높임의 {-으시-}가 함께 쓰인 예이기는 하나 {-습-}의 문법적 지위에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소학언해』는 객체 지향적 {-습-}의 쇠퇴를 보여주는 문헌으로, ‘듣습-, 묻습-, 받습-, 뵈습-, 연습-’ 등의 연쇄를 제외하면 대개의 단어에 {-습-}이 통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김태우 2017: 187). 한편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이처럼 {-습-}과 {-으시-}가 서로 다른 성분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예 이외에도 {-습-}과 {-으시-}가 같은 성분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예가 일부 관찰된다. (9)에서 제시한 예를 반복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1) 가. 予는 [(先王이) 내 흐습시논] 쁘디시니라 <훈민정음_언해본(1459) 2b>
 나. 進上흐스보니 (先王이) [(先王이) 보물] 주스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믈 月印千江이라 흐시니(乃進흐스보니 {隔}賜覽흐시고 輒製讚頌흐샤 名曰月印千江이라 흐시니) <월인석보(1459) 서:12b-13a>
 다. [(부처가) [조흔 琉璃入 가운데 안해 眞金像이 現흐신] 듯흐습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琉璃中에 內現眞金像흐신 世尊이 在大衆흐샤 敷演深法義흐시며) <개간법화경언해(1500) 1:34a-34b>
 다. 조흔 琉璃入 가운데 안해 眞金像이 現흐신 듯흐신 世尊이 大衆에 겨샤 기픈 法義를 퍼시며(如淨琉璃中에 內現眞金相흐신 世尊이 在大衆흐샤 敷演深法義흐시며) <법화경언해(1463) 1:118b>

(21)의 ‘-습시-’는 둘 이상의 논항이 존재하는 절에서 주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른 시기부터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 예가 소수이기는 하나 이때의 ‘-습시-’는 왕(21가, 나)이나 부처(21다)와 같이 보편적인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가 주체로 실현될 때 주로 사용된다. (2), (3)에서 살펴본 ‘-하-’와 ‘-하-/’의 중복적 쓰임이나 (16), (18)에서 살펴본, 단일한 지시 대상을 높이는 ‘-白敎-’ 역시 왕이나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예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16세기로 접어들면 (21)과 같은 ‘-습시-’의 쓰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습-}과 {-으시-}가 통합하여 단일한 성분의 지시 대상만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 높임 {-습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부터이다.

- (22) 가. 우호로 겨오샤 어제 복상을 흐되 신 복상이 업스니 정승이 혼자 와 흐시니 아녀겨신가 부마 흐여 아라보라 흐오신다 <숙명신한첩(17세기)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나. 웃던으로 겨오셔 하 툃툃 빠디는 드시 설워흐오시니 그 보옵기 더욱 마이업더라 <숙명신한첩(17세기) 인선왕후(어머니)→숙명공주(딸)>
 다. 그리 밤나줄 시워^흐옵고 잇습다가 이리 오^르오시니 온 집이 다 빈 듯^흐고 하 섭섭^흐오니 웃던으로 겨오셔야 더 죽히 싱각^흐오시라 하정이 아^마라타 업서 흐노라 흐 업시 섭섭^흐야 흐옵는 정성과 쁘들 아오^시기 흐야라 <숙명신한첩(17세기) 효종(아버지)→숙명공주(딸)>
 라. 너는 쥬인질 극진이 흐옵신 덕을 니버 역신을 무스히 흐니 세상의 이^런이^런 깃븐 경식 어디 이^시리 <해주오씨 오태주가 명안공주 언간(17세기) 명성왕후(어머니)→명안공주(딸)>

- (23) 가. 젃되도 안바^닐 겨옵신 제브터 되흐여 잡습던 양으로 꽃과 나룩^밭과 보리^밭과 섯거^흐여 잡습게 흐소 <진주하씨묘 출토언간(17세기) 83 광주(남편)→진주하씨(아내)>
 나. 달모 흐옵시며 어린 즈식^들 엇더^흐신고 괴별 몰라 분별^흐너 <진주하씨묘 출토언간(17세기) 144 광주(남편)→진주하씨(아내)>

나. 언상이 오나날 장모 하시며 대되 편히 겨시다 하니 깃거호뇌 <진주하씨묘 출토언간(17세기) 142 광주(남편)→진주하씨(아내)>

(24) 가. 그 후의 영정대왕 업스오시니 삼 년을 죽만 머그니라(榮靖大王賓天 啜粥三年)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신속孝3:82b>

나. 하늘이 欽明 【欽은 공경하시미오 明은 밝그시미라】 하신 德을 받즈오시고(天授欽明之德 하시고) <여훈언해(1658) 上:9a>

다. 동궁이 드러가시니 우리 정스도 이러커든 우호로셔 쓰디 엇더호오신고 엇던 시절이 변호여 이러커뇨 애ढ고 설운 이리 업다 <병자일기(17세기) 69b-70a>

라. (선조가) 히포 미류호오신 병세예 침식을 못호오시논 실 곳즈오신 귀운의 이 상소를 보오셔 침식을 전폐호오시고 인홍 등 덩비하라 겨요 던교하시고 흥호오셔늘 <서궁일기(17세기) 2a>

마. 하라 대군 죽습시다 말습 듯고 시위인들이 설우미 ㅁ이 업스나 날마다 저허니 두리워 엇디 우름을 내리오 가슴을 두드리고 설위홀 싹롬이러라 <서궁일기(17세기) 53a>

(22)는 17세기 왕실 언간에 나타난 주체 높임 {-습시-}의 예이다. (22가, 나)의 주어인 ‘우호’와 ‘웃던’은 효종을 지시하며, (22다)의 주어인 ‘웃던’은 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를 지시한다. (22가, 나, 다)의 ‘-으로 겨오오시/겨오시-’는 모두 높임의 주어 표지이다.¹²⁾ (22라)의 주어인 ‘쥬인집’은 지시 대상이 불분명하다. 천연두에 걸린 명안공주가 격리되어 머물던 避接地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22라)는 17세기 왕실 언간에서 왕이나 왕족이 아닌 대상에게 주체 높임 {-습시-}가 쓰인 유일한 예가 된다.

(23)은 17세기 사대부 언간에 나타난 주체 높임 {-습시-}의 예이다. (23가)의 주어인 ‘아바님’은 광주의 아버지인 郭三吉을 지시하며, (23나)의 주어인 ‘당모’는 진주하씨의 어머니인 합산택 벽진씨를 지시한다. (23나)의 ‘호습시며’와 (23나)의 ‘하시며’는 접속의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 현대 한국어 접속 조사 ‘하고’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다. (23)의 {-습시-}는 모두 부모 또는 그에 준하는 친족 어른을 높이는 데에 쓰인 것임이 주목된다.

(24)는 17세기의 간본 및 필사본 자료에 나타난 주체 높임 {-습시-}의 예이다. (24가)에서는 ‘영정대왕’, 즉 인종이 {-습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4다)에서는 ‘우호’, 즉 인조가 {-습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4마)의 주어인 ‘대군’은 선조와 인목왕후의 자식인 영창대군을 지시한다. (24나)에서는 하늘이 {-습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객체인 ‘欽明하신 德’ 역시 주체인 하늘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하다. (24나)의 하늘은 보편적인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라는 점에서 (21다)의 부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지점에서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습-}과 {-오시-}가 함께 쓰인 용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1), (11), (20)와 같이 {-습-}과 {-오시-}가 하나의 절에서 서로 다른 지시 대상을 높이는 예. 둘째, (2), (3), (4)와 같이 {-습-}과 {-오시-}가 서로 다른 절에서 단일한 지시 대상을 높이는 예. 셋째, (18), (21), (22가, 다, 라), (24나, 다, 라)와 같이 {-습시-}가 둘 이상의 논항이 존재하는 절에서 하나의 논항만을 높이는 예. 넷째, (16), (22나), (23), (24가, 마)와 같이 {-습시-}가 하나의 논항만이 존재하는 절에서 그 논항만을 높이는 예. 이들 네 유형을 각 용례가 출현한 자료의 부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이때의 {-로}는 탈격이 아닌 자격의 기능으로 쓰인 것이며, (24다)의 {-로셔}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金賢柱(2013), 김민국(2019)을 참고할 수 있다.

<표 1>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

단계	용법	자료				
		석독구결	이두	한글		
				15세기	16세기	17세기
0단계	{-습-}과 {-으시-}가 하나의 절에서 서로 다른 지시 대상을 높임	○	○	○	○	○
1단계	{-습-}과 {-으시-}가 서로 다른 절에서 단일한 지시 대상을 높임	○	○	○		
2단계	{-습시-}가 둘 이상의 논항이 존재하는 절에서 하나의 논항만을 높임		○	○		○
3단계	{-습시-}가 하나의 논항만이 존재하는 절에서 그 논항만을 높임		○			○

이들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문법화가 진전된 것은 3단계로 판단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습시-}는 어떤 경우에도 둘 이상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으며,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문법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표 1>에서 주목되는 것은 3단계에 속하는 {-습시-}의 예가 한글 자료보다 이두 자료에서 먼저 출현한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주체 높임의 {-습시-}는 이두 자료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다른 자료로 확산된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이다. 둘째, 주체 높임의 {-습시-}는 13세기 후반에 이미 발달하였으나, 16세기까지의 한글 문헌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거의 쓰이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김태우(2018: 196, 200)에서는 일반적인 주체 높임으로 대우해야 할 대상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대상에 대한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손의 기능을 가지는 {-습-}이 표현론적으로 전용되면서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와 이두 자료의 '-白敎-'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전용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화용적 추론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며, 청자는 그것을 가장 강한 표현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어느 정도 깎아내어 이해하게 된다. 고전적 화용론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함축을 Q 함축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Levinson 2000).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우언적 구성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나 자주 쓰이는 문법 요소의 의미가 일반화되는 일 역시 비슷한 추론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두 자료의 '-白敎-'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보다 문법화의 단계상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두 자료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공문서의 일종이며,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는 개체는 단연 왕이다. 이때 공문서를 작성한 화자가 왕에 대해 충분한 만큼의 공손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자는 왕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공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공문서 내에서 왕을 언급할 때 자신이 아는 한 가장 강한 공손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白-'을 '-敎-'에 덧붙인 '-白敎-'와 같은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청자 지향적 {-으시-}가 주로 적극적 판매 전략을 요구하는 상거래 맥락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는 발화에서 나타난다는 사실(김태우 2018: 160)과도 관련된다. 이처럼 맥락상의 공손 요구에 따른 {-습시-}의 발달 동인을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 동인이라는 용어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두 자료는 왕에 대한 공손 요구가 극대화되는 장르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처럼 {-습시-}의 발달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白-'과 '-ᄃᆞᆫ/-'의 중복적 쓰임이 모두 부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이외에 {-습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는 구조적 동인과 기능적 동인을 들 수 있다. 구조적 동인은 (2), (3)과 같은 ‘-ㅅ-’과 ‘-ㅅ/-’의 중복적 쓰임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들 예에서 내포절의 ‘-ㅅ-’이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객체나 주체는 모절의 주체와 같은 대상을 지시한다. 이처럼 정보성이 낮은 논항은 한국어에서 흔히 생략되곤 하는데, 실제로 (2), (3)에서 ‘-ㅅ-’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객체나 주체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특히 내포절의 주체를 높이는 ‘-ㅅ-’은 모절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재분석되기 쉬우며, 이후 후행 구성의 탈락과 함께 ‘-ㅅ-’과 ‘-ㅅ/-’가 직접 통합하게 되면서 주체 높임의 {-습시-}가 발달할 수 있다.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난 ‘-습시-’의 모든 예에서 주체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높임의 대상이 될 만한 개체나 사태가 객체로 실현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구조적 동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9)에서 확인한 ‘-습시-’의 의미 구조는 ‘-ㅅ-’과 ‘-ㅅ/-’의 중복적 쓰임에서 비롯된 일종의 화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능적 동인은 (12), (15)에서 살펴본 {-습-}과 {-으시-}의 비전형적 용법과 관련된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17)과 같이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하는 절에서 주체만을 높이는 ‘-ㅅ-’의 용법이 확인되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계사 보어를 높이는 {-습-}의 용법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전자는 {-으시-}의 전형적인 용법인 주체 높임과 중첩되며, 후자는 계사 보어를 높이는 {-으시-}의 용법과 중첩된다. 이러한 기능상의 중첩은 단일한 목적, 즉 주체가 왕, 부처, 부모와 같은 보편적인 높임의 대상일 경우 주체에 대한 더 높은 존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습-}과 {-으시-}가 동시에 동원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습-}이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습-}이 참여자 높임 표지에 가까운 것으로 일반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으시-}가 범용 공손 표지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 역시 주목할 만하다. 김태우(2018: 159)에서 제시한 객체 지향적 {-으시-}의 예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25) 가. 한 시간 전에 보신 분 아니신가? <SNS 인스타그램>

나. ... 요런 만남은 설렘이 가득하죠. ... 오늘 만나신 분 중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
<네이버 카페>

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부탁드리신 분이 못 가게 되어서 ...
<이글루스 블로그>

라. 용감한 형제: (양현석 씨는) 저한테 다가가기가 힘드신 분이죠. <믹스나인 1회>

마. 다른 한편 성한 형님이 제가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연단했노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현비 저, 이든 22>

바. JFK 공항도착후 Pick up 해주시는 분을 만나시고 차타고 약 한시간 남짓해서 온 Sheraton Hotel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사. (제 노력이) 선생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15세기와 16세기의 공백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고광모(2016)에서는 주체 높임의 {-습시-}가 비교적 폐쇄적인 언어 사회에서 고귀한 신분의 인물에 대해서만 쓰였기 때문에 전파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때의 폐쇄적인 언어 사회가 주로 중인 사회를 포함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전하는 문헌 가운데 이두 자료의 ‘-白敎-’가 문법화의 단계상 가장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인 계층은 왕에 대한 공손의 요구가 가장 극대화될 만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탈격에서 비롯된 단체 주어 표지 {-로}가 10세기 전반의 이두 자료에서 처음 등장하며 한글 자료에서는 16세기 이후에야 드물게나마 발견되는 것(허인영 2023)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두 자료는 장르의 특성상 관아나 행정 단위를 지시하는 명사가 주어로 실현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단체 주어를 표시하는 {-로}의 용법이 이두 자료에서 가장 활발한 쓰임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체 높임의 {-습시-}는 이러한 사용역을 기반으로 15세기와 16세기에 어느 정도의 쓰임을 유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가 바로 높임의 주어 표지 {-겨옵셔}이다. 높임의 주어 표지 {-겨옵셔}는 17세기의 왕실 언간과 사대부 언간에서부터 이미 비교적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데,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는 {-겨옵셔}의 문법화를 설명해 줄 만한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¹³⁾ 구성 요소인 {-습시-}가 이보다 앞선 시기에 주체 높임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겨옵셔}가 형성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즉 주체 높임의 {-습시-}가 왕실 및 사대부 계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겨옵셔}의 쓰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7세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⁴⁾

18세기로 접어들면 주체 높임의 {-습시-}가 이전 시기보다 더 빈번한 쓰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김태우(2018: 194)에서는 이 현상을 청자 지향적 {-습-}의 분포 확장에 따른 상호 급여(feeding)의 결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청자 높임의 {-습-}이 높은 빈도를 보이게 되면서 {-습시-}가 지닌 의미상의 모순이 해소되어 그 쓰임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8세기 이후의 한글 문헌을 살펴보면 주체만을 높이는 {-습시-}보다는 청자 높임 {-습-}과 주체 높임 {-오시-}의 통합형이 훨씬 더 높은 사용 빈도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한글 문헌 가운데 주체 높임 {-습시-}의 예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왕이 직접 기술한 문헌이나 각 문헌 내에서 왕이 직접 기술한 부분이다.

(26) 가. 인후 두 즈는 곳 우리 널도의 전호오시며 주오신 법이니 오직 너 원량은 뼈 이에 준홀띠어다(仁厚二字 卽我列朝傳授之法 惟爾元良式遵于此) <어제자성편언해(1746) 외 편:14b-15a>

나. 황형 지극호오신 효도와 지극호오신 우의의 덕에 누를 기티은 거슨 즈데된 재 그 맛당히 당목호고 분변홀 거시니(皇兄至孝至友之德者 爲子弟者其當張目而辨) <친의소감언해(1756) 어제유찬수제신:1a-1b>

다. 내 비록 덕이 업스나 너희 다 넛날 (선왕이) 스랑호옵시던 빅성이라 무슨 뜻으로 네 덜 호던 거시 이제는 더호며 네 조심호던 거시 이제는 방즈호뇨 <어제경민음(1762) 02a-02b>

라. 즈성이 이 덕답을 듯즈오시고 쏘호 춘연호샤 다시 니르디 아니호옵시니 넛 적의 알외은 배 이러호디라(慈聖聞此 對亦愀然不復 諭昔之所奏如此) <어제경세문답언해(1762) 5b-6a>

마. 내 쏘호 저희 무리의 부언을 두려 뼈 호되 제 만일 나지 아니호즉 우호로부터 쏘호 반드 시 고이히 아옵실 거시니 모롬즉이 즉시 힝공호라 말을 호니 그 후의야 비로소 출스호지라 (余亦畏渠輩之浮言 至以今若不出 則自上亦必疑之 須卽行公爲言 然後始乃出仕) <명의록언해(1777) 元:8a>

바. 이 관복 호 도를 도라보니 왕적의 비릇조오신 배오 선침의 맞드온 배니(眷茲關北一道 王跡所基 仙寢所奉) <어제유함경도남관북관대소사민윤음(1783) 1a>

사. 슬프다 나의 대쇼 민인들은 이 열 줄 막음을 베퍼 니르느 말을 몸 맞고 구중에 (왕이) 눈썹을 슬피옵시느 뜻을 싱각호야(咨我大小民人 體十行敷心之諭 念九重察眉之意) <유경기민

13)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예는 金賢柱(2013)에서 소개한 다음 용례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祐律師’, 즉 『석가보』의 편자인 僧祐이며,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어 ‘天尊’은 부처를 지시한다.

天尊으로 겨샤 侍病호샤 소놀 가스매 다허 겨샤디 목수물 머물우들 몬호시니 <월인석보(1459) 10:15a-15b>

14) 고광모(2016)에서는 주체 높임의 {-습시-}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쓰이던 방언에서 높임의 주어 표지 {-겨옵셔}가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지역 방언이 아닌 사회 방언, 특히 중인 계층의 언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윤음(1783) 5b>

야. 네 우리 영고겨오셔 일즙 나 쇼즈의게 호고호오신 일이 겨오시니 이러트시 곶으샤되 진실노 빅성의게 니호량이면 슬힌들 엇지 앓기리오 호오시니(記昔我英考 嘗有教於予小子若曰 苟利於民 肌膚何惜) <유호남민인등윤음(1783) 7a>

자. 녁디의 법과 레를 상고호고 우리나라회 덧덧흔 법을 상고하여 성조의 광어호오시던 도라온 히로써 한나라 님군의 미리 세오는 큰 모칙을 심각하여(考之歷代典禮 稽于我朝彝章 以聖祖光御之回甲 軫漢帝豫建之丕策) <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1784) 3a>

차. 일즉 선도 귀축의 이 폐단을 심각호옵서 쏘흔 도칙을 명하야 구관게 호옵시니(曾在先朝 己丑 爲念是弊 亦命道伯句管) <어제유제주민인윤음(1784) 3b>

카. 나의 과미호브로써 오히려 선대왕 인도호시고 교적호옵신 은혜를 힘넙즈와 심각건대(以予寡昧 尙賴先大王導迪之恩)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률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1797) 3b>

타. 크시다 우리 철성조겨오샤 성명호오신 득스리심과 희흡호오신 교화로 이 빅성을 도주호오시민 빅성이 빛들고 악호오미 업서 추향이 덩직호고 풍속이 순박하야 삼고의 붓그러오미 업기로 텃하에 들니고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등척사윤음(1881) 1a>

18세기 이후의 한글 문헌에서는 화자가 왕이 아니더라도 절의 주체가 왕이나 선왕이나 왕족일 경우 주체 높임의 {-습시-}가 흔히 사용되는데, 특히 윤음을 비롯하여 왕이 직접 기술한 내용에 주석을 달 때 주체 높임의 {-습시-}를 쓴 예가 많다.

(27) 가. 도선 국왕은 삼가 승정원 좌부승지 뉴엄을 보내야 송 악 무목왕의게 감히 붉게 고흐노라 ... 이제 내 연거흠애 **【(왕이) 상해 겨오십이라】** 위연이 고스를 보더니 정통일늑이 마춤 셔안에 잇도다 <무목왕정충록(1760) 12:34a>

나. 텃어가 순순호샤 (영조가) 곳처 하교호오시되 명도의 손즈로서 문임의 색히여셔 나라일노 가게 되니 귀호고 귀특호다 <일동장유가(1764) 5b>

다. 슬프다 우리 영종대왕이 지극히 즈익호시는 정과 쏘 일월긋치 붉즈오심으로써 간적이 계교를 발되지 못호옵고 흥되 스스로 패호온지라(嗚呼 我英宗大王 以止慈之情 重以日月之明 奸賊莫售 凶徒自敗) <명의록언해(1777) 利:2b>

라. 오직 우리 선상이 여섯 도 진홀호옵는 재를 당호오셔 혼 빅성이나 곶을 일홀 넘너를 심각호오셔 고홀호옵시는 은혜 임의 온 나라해 두루 호오시고 <자홀전칙(1783) 3b>

마. 그러나 술을 헝호오시믄 스던 **【계스라】** 를 둥히 너지오시미오 민명을 둥히 너지오시미니 금호심도 쏘흔 성덕이시며 헝호심도 쏘흔 성덕이시니 결단호야 감히 다시 의논이 니르지 못홀 거시오(然行酒 重祀典也 重人命也 禁亦聖德 行亦聖德 決不敢更或議到) <가체신금사목(1788) 1b-2a>

바. 그의 호는 말씀이 내가 년전에 레문관 한림으로 무주 적성산성 샤고 포쇄관을 갖다가 셴쵸쵸끼옵서 어정호시와 두옵신 국문을 봉심호온즉 평성에는 아모 표도 업고 상성에는 엽혜 점 호나를 치고 거성에는 엽혜 점 둘를 쳐서 표 호앗더라 호기로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 1호 13>

왕이나 왕족 이외에 {-습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개체로는 부처나 하늘을 비롯한 신적 존재와 부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은 이미 (22다), (23), (24나) 등에서도 확인한 바 있으므로, 19세기에 이르면 관성교의 관성제군이냐 기독교의 하느님도 {-습시-}에 의한 높임의 대상이 되곤 한다.

(28) 가. 性 天之授予 **【하늘이 나를 주오시고】** 予之授天 **【내 하늘의 받조오미라】** <어제훈 서언해(1756) 성도교도해:1a>

나. 턴디의 큰 덕이 곁은 만물을 내웁시미라 성인이 법 받조와 써 어진 정스를 헝헝웁시느니
<자훈전칙(1783) 3a>

다. 샹데 계오셔 인이호오신 므음의 엇지 참아 큰 겁운으로 이 빅성의게 독흔 벌을 누리시리오마는 그러흔 받 조는 인심이 임의 문어져 왕법의 용서하기 어려오며(恭惟帝心仁愛何忍 以大劫荼毒斯民 所以然者 人心既壞 王法難容) <과하존신(1880) 10a>

라. 도문해 다시 군스를 거느려 칠 시 군식 상췌 싸에 지나다가 군중에 또 보니 데군이 현령
헝웁시미 가흥과 古트신지라(文華再統師討之 師過常州 軍中復見帝顯靈如嘉興) <과하존신 (1880) 17b>

마. 들흔 므음에 압하 조그 죄를 누웃고 이들나 흠이니 내 죄로 인하여 스랑호오신 턴췌의
므음을 상해오고 내 령흔을 해롭게 하여 더욱 영고 받게 됨을 인흠이오 <진교절요(1883) 9a>

(29) 가. 레기에 쏘흔 나르지 아녜느냐 부모의 공경호오시던 바를 쏘흔 공경하며 스랑호오시
던 바를 쏘흔 스랑한다 하니 범사름도 오히려 그러호거든 헝믈며 인군이 된 자가(禮記亦不云乎 父母之所敬亦敬之 所愛亦愛之 凡人猶然 況爲人君者乎) <어제자성편언해(1746) 내 편:12a>

나. 웃는 양은 니췌덕도 도고 함의는 양은 눈씨도 곱다 안꺼라 셔거라 건너라 닷거라 어허
너 스랑 숨고라지고 네 父母 너 숨겨 너오실 제 날만 괴라 너도다 <가곡원류(1876) 100>

한편 18세기 이후의 시조집에 소수의 예가 보이는, ‘님’을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습시-}의 예도 주목할 만하다. 이때의 ‘님’이 청자이자 주체인 경우 청자 높임 {-습-}과 주체 높임 {-오시-}의 통합형이 쓰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청자가 아닌 경우 주체 높임의 {-습시-}가 쓰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가. 落葉에 두 字만 적어 西北風에 눕혀 띄여 月明庭畔에 님 겨신디 보너고 저 널겨셔
보오신 後면 님도 반겨줄시리라 <악학습령(1713) 60a>

나. 널이 헝오시매 나는 전혀 미뎛더니 날 사름호든 情을 누손디 옮기시고 처음에 뵈시든 거
시면 이디도록 설울가 <악학습령(1713) 28a>

나. 널이 헝오시매 나는 전혀 미뎛더니 날 스랑호던 情을 누손디 옮기시고 처음에 뵈시던 거
시면 이대도록 설오라 <청구영언(1728) 37a>

다. 靑春에 곱던 樣子 님으로야 다 늙거다 이제 널이 보면 날인 줄 아오실가 眞實로 알기
곳 아오시면 곳이 죽다 설우라 <가곡원류(1879) 15>

다. 靑春에 곱던 양즈 님으뢰야 다 늙거다 이제 님이 보면 날인 줄 아르실가 아모나 내 形容
그러다가 님의손디 드리고져 <청구영언(1728) 23a>

라. 於臥 너 일이어 나도 너 일을 모를노다 우리 널 그오실 제 그지 못호게 못헝년가 보너고
길고 긴 歲月에 슬픈 思量 어이료 <가곡원류(1876) 50>

(30가, 다, 라)의 ‘님’은 화자가 있는 의사소통의 장면에 존재하지 않음이 비교적 분명하다. (30가)의 ‘님’은 낙엽으로 서북풍에 편지를 띄워야 할 정도로 먼 곳에 있으며, (30라)의 ‘님’은 종장의 내용으로 보아 이미 화자를 떠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0다)의 ‘님’은 중장이 비사실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님’이 화자를 볼 수 없는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0다)

에서는 같은 주체를 높이는 데에 {-으시-}만이 쓰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30나)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기는 하나 청자 높임 표지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자가 ‘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맥락상 더 자연스럽다.

5. 결론

(생략)

참고 문헌

- 고광모(2016),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비시-’의 발달: {-습시-}의 형성과 ‘-(으)비시-’에 이른 변화, 《언어학》 76, 한국어언어학회, 57-85.
- 김민국(2019), 한국어 비주격 주어 표지의 문법화: 존재 구문 및 탈격을 기원으로 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배달말》 65, 배달말학회, 1-48.
- 김태우(2016), 역문법화에 대하여: 문법화와의 비교와 그 기제를 중심으로, 《國語學》 80, 국어학회, 293-323.
- 김태우(2018),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金賢柱(2013), 主語 標識 {-께서}의 形成에 대하여, 《語文研究》 41(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3-159쪽
- 南豐鉉·李建植·吳昌命·李勇·朴容植(2020), 《吏讀辭典》, 단국대학교출판부.
- 文玄洙(2017),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朴盛鐘(1993), 李和 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 《古文書研究》 4, 한국고문서학회, 1-32.
- 朴盛鐘(2006),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2017),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언어와 정보 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1-340.
- 朴哲柱(2004), 大明律直解의 構文 研究,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성우철(202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습)-’의 기능에 관한 연구, 《東洋學》 8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35.
- 성우철(2023), 周本『화엄경』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ㅁ-’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구결학회 제64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의 유형에 대한 연구, 《國語學》 36, 국어학회, 221-258.
- 이상욱(2006), 主語의 屬格에 대한 再論, 《형태론》 8(1), 형태론 편집위원회, 1-27.
- 이상욱(2007),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내이’, ‘네의’형에 대한 관건: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3-225.
- 이영경(2003),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구결학회, 67-98.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미경(2013), 《일본어 경어사》, 태학사.
- 許雄(1954), 尊待法史: 國語 文法史의 한토막, 《成均學報》 1, 성균관대학교, 139-207.
- 허인영(2023), 탈격에서 유래한 단체주어 표지 ‘-이[로]’에 대하여, 《口訣研究》 50, 구결학회, 169-203.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토론문

조재형(전남대)

이 발표문에서는 석독구결 자료, 이두 자료, 한글 자료 등에서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체 높임 {-습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동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토론자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p.1 “이 사실은 객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라는, 서로 양극단에 위치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기능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중첩을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에서 “객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라는”은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이라는”의 오타가 아닌지.....

2. p.3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처럼 ‘어렵다’가 쓰인 절의 인상된 주어가 대상역을 수행하는 경우 ‘어렵다’에 주체 높임의 {-으시-}가 통합하기 어렵다.”라고 기술하면서 예문 (5)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가령 “시아버지는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이시다/분이시다.” 또는 “시아버지는 워낙 완고하셔서 대화하기가 어려우시다.” 등의 표현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국어로 오면서 ‘-습-’이 일부 형태소나 어휘에 화석화되면서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습-’의 포괄적 주체 높임의 용법이 간접 높임의 ‘-시-’에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할아버지께서는 키가 크시다.’)

3. p.4 “(6)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였고, (4)의 ‘어렵다’에는 왜 {-으시-}가 통합하지 않은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번역의 과정에서 구결문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종의 부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한편 <표 1>에서 ‘주체 높임 {-습시-}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면서 p.11에서 “주체 높임의 {-습시-}는 이두 자료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다른 자료로 확산된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이다.”의 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로 p.12에서 “이두 자료의 ‘-白教-’가 15세기 한글 자료의 ‘-습시-’보다 문법화의 단계상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두 자료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공문서의 일종이며,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는 개체는 단연 왕이다. 이때 공문서를 작성한 화자가 왕에 대해 충분한 만큼의 공손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자는 왕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공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 발달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두와 15세기 자료에서 ‘{-습시-}가 둘 이상의 논항이 존재하는 절에서 하나의 논항만을 높임’은 용례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구결 자료에서 해당 용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시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석독구결자료에서 해당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구결자가 국어 형태소와 1:1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구결자료가 불경 자료이며 불경 자료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개체는 세존이며, 세존 또는 석가모니와의 대화에서 화자가 세존 등에게 공손 표현을 당연히 한다는 점,

또한 다음의 <법화경언해> 용례를 감안하면 석독구결 자료에서 보이는 일부 예문 (17)의 ‘-ㅁ-’¹⁾ [p.5 예문 (10)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위는 모두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때의 ‘-ㅁ-’의 기능은 주체 높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성우철 2022).”이 이두의 ‘-白敎-’와 동일하게 ‘-ㅁ-’의 표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혹시 음독구결자료에서 이와 관련한 용례는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가. 또 이 念을 ㅎ샤디 이 文殊師利法王子는 ㅎ마 디니건 無量諸佛을 親近供養 ㅎ
스오실씨 받드기 이 希有 ㅎ 相을 보스오시니 <法華1:66b>

나. 이는 放光과 ㅎ 비흠과 ㅈ 뒤음과 衆 ㅎ 깃굼과 네 祥瑞를 묻즈오시니 <法華1:68b>

다. 普賢은 德이 ㅎ독디 묻힌 디 업스샤미 니르산 普ㅣ시고 우흘 ㅎ스오시고 아
랄 利ㅎ샤미 니르산 賢이시니 곧 妙德이 다 ㅎ즈샤 우흐로 佛化 ㅎ스오시고 아래로
群物을 利ㅎ시논 號ㅣ시니라 <法華7:156a>

4. p.5

(9) 가. 주는 [(先王이) 내 ㅎ습시논] ㅎ디시니라 <훈민정음_언해본(1459) 2b>

나. 進上 ㅎ스보니 [(先王이) [(先王이) 보믈] 주스오시고 <월인석보(1459) 서:12b-13a>

위 용례에 대해 “(9가)의 생략된 주체는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1인칭을 지시하는 선왕의 발화이다. (9나)의 생략된 주체 역시 선왕, 즉 세종이며 객체는 선왕을 행위주로 삼는 사태이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위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9) 가. 주는 [(先王이) {내(‘내가’를) ㅎ습(말하)}시논] ㅎ디시니라

나. 進上 ㅎ스보니 [(先王이) {(先王이) 보믈} 주스오시고]

즉, (9가)의 생략된 관형절의 주체는 선왕, 즉 세종이며 해당 관형절의 객체는 1인칭을 지시하는 선왕의 발화이며, (9나)에서는 타동사의 행위주이면서 ‘주스오시고’의 주체 선왕이 생략되었고 이와 동시에 명사절의 의미상 주어 즉 내포절의 주어인 선왕도 생략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5. 후기중세국어 시기의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서는 늘 ‘-습-’이 ‘-시-’보다 앞섭니다. 즉 ‘-습-’과 ‘-시-’가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쓰일 때의 이러한 배열 순서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는 주체 높임의 기능을 담당하고 ‘-습-’은 문장 내의 객체(내포절 내의 객체)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p.12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17)과 같이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하는 절에서 주체만을 높이는 ‘-ㅁ-’의 용법이 확인되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계사 보어를 높이는 {-습-}의 용법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전자는 {-오시-}의 전형적인 용법인 주체 높임과 중첩되며, 후자는 계사 보어를 높이는 {-오시-}의 용법과 중첩된다.”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¹⁾ 반영된 문화교육적 요소

박 은 미(부산외대)

< 차 례 >

1. 서론
2. 근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적 요소
3. 근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상호문화 감수성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근대 시기²⁾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 교육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았는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근대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개항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서양인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서양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학습서 편찬이나 사전, 신문, 학술지 등 다양한 매체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초기 한국어 교재에는 한국어 학습자였던 저자 스스로가 한국어를 하면서 느꼈던 실제 경험과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서양인 학습자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와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언어와 문화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언어는 문화의 하위 유형의 하나인 동시에, 문화의 표현 및 전달도구로서 문화를 생성하는 데 참여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문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재 분석을 통하여 문화 교육적인 요소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타 문화 이주로 인한 문화 충격을 어떻게 수용하여 적응, 통합해 가는지를 상호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인들이 편찬한 한국어 교재를 연

- 1) 일반적으로 교재를 넓게 정의하면 ‘일정한 지식과 기능 습득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입력 매체’라 할 수 있다.
- 2) “근대”라는 용어 속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학적, 사회학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최대한 “근대”라는 용어에서 올 수 있는 철학적 개연성은 가급적 배제하기로 한다. 본고의 “근대”는 다만 시기적으로 일정한 때, 즉 19세기 말 개항(1876)으로부터 20세기 초 국권침탈 직전(1910)까지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만 사용하기로 한다.

구대상으로 삼았다. 즉,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삼아 교재로 편찬한 저서를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어권, 영어권, 독일어권의 한국어 교재를 모두 포함한다. <표1>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교재 목록과 각 교재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과거에 이루어진 한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분석 교재

	교재		특징
	Grammaire Coreenne_한어문전	Ridel	1881 일본 요코하마에서 선교사 리델이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1881년에 저술한 문법서로 『한어문전』은 「서문(Avant-propos)」, 「한국어 문법편(GRAMMAIRE CORÉENNE)」, 「점진적 연습편(EXERCICES GRADUÉS)」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한국어 문법편」은 제1부 품사론과 제2부 통사론으로 되어 있다.
1	『Corean Primer』_한국어 입문서	Ross, j.	1877 1877년 영국 선교사 존 로스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 ‘영어와 한글로 쓰인 언어학습교재’이다. 자음과 모음, 음소별 발음표기, 기본 회화, 각 33개 레슨별 주제를 정해 상황에 맞는 단문을 들어 구성한 영·한 한글 입문서이다.
2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_한국어 입문서	Ross, j.	1882 『Corean Primer』의 개정판으로 1882년에 상해에서 출판되었다.
3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_언문말척	Scott, J.	1887 1887 영국인 외교관 스코트(J. Scott)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저술하게 된다. 그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한국어 문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이 책의 근본적인 저술 목적은 한국어 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후반부의 회화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을 이룬다.
4	『Manuel de la langue Coréenne parlée』_프랑스인을 위한 조선어 구어 교본	Imbault-Huart, M, C	1889 1889년 위아르가 출판한 한국어 학습서로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품사와 통사를 다루는 문법 소개, 쉬운 구문과 회화, 대화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다루고 있다.
5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_한영문법	Underwood, H, G	1890 언더우드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1890년에 저술한 학습서로 한국어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부(Part I)는 문법 설명(grammatical notes)으로서 되어 있고, 2부(Part II)는 영한대조문(English into Korean)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6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선영문법	Underwood, H. H.	1915	1915년 그의 아들 원한경(元漢慶, H. H. Underwood)이 이 책을 수정·보완하여 『선영문법(鮮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을 출판하였다.
7	『Korean Grammatical Form』 _사과지남	Gale, J. S.	1994	캐나다 선교사 게일(James S. Gale)이 『사과지남』을 저술하였다. 『사과지남』은 1894년에 서울에서 초판이 출간되었고, 1916년 개정판이 역시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사과지남』은 전반부의 문법부와 후반부의 회화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화부는 한국의 생활과 풍습을 익히는데 필요한 문장들을 모아놓았다.
8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_조선어교제문전 (부주해)	Eckardt, P. A.	1903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1884~1974, 독일인 한국학자)가 지은 독일어권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 뒷부분에 독일어-한국어 대역자료인 「조선어교제문전 부주해」 있음. 한국어 예문과 단어 모두를 로마자로 표기한 점이 특징. 각 단원은 문법부, 단어모음, 읽기자료, 과제, 회화로 구성. <읽기자료>에는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되어 있다.
9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_한국어를 배우는 50가지 도움	Baird, A. L.	1903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1864~1916)가 지은 한국어 입문 교재로 한국어 관용구를 빠른 시간에 익히도록 구성한 교재. 한국어 42개 구문의 의미와 문법 설명, 활용 예문을 수록함. 더불어 종교적 표현에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함. 발간 후 50여 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표준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19세기에 서양인들이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초기 양상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서양인들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한국어 교재 또는 교재사적 관점의 연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남옥(2009), 고경민(2017, 2020), 고예진(2008, 2012, 2014), 이민경(2020)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학습서들의 구성과 내용을 연대기로 살펴보거나, 각 학습서들을 비교, 분석한 내용들로 초기 한국어 학습서들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서를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미향(2011), 이성희(2020)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서양인 연구자들의 한국어에 인식에 대한 논의를 한 고경민(2021)연구가 있다. 고경민(2021)은 근현대 한국어 학습서를 편찬한 서양인 연구자가 한국어를 연구하고, 한국어를 인식하고 이를 한국어 학습서로 편찬하기까지의 과정을 ‘인식-이해-구체화’라는 단계로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는 한국어 교재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게 된 저자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성희(2020) 독일 선교사 에카르트의 『조선어교제문전』 <읽기> 문화 항목을 분석했다. 에카르트가 답사와 관찰을 통해 얻은 한국의 신앙, 의례, 일상생활 등의 문화 항목을 오늘날 민속학의 세부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부합되는 것을 밝혔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문화항목을 관찰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논지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과 상호문화적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것이 한계로 남았다.

한편 고예진(2012)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애니 베어드의 한국어 학습서와 저서를 분석하여 애니 베어드의 작품에서 남녀차별, 여성 인권 문제 등의 당시 한국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학습서에서는 선교사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관점을 제시 하였으나 애니 베어드의 학습서는 분량이 매우 적어 애니 베어드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민경(2023)은 1890년대에 발간한 한국어 학습서의 내용과 언어자료를 분석하여 19세기 말 조선에서 활동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와 조선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과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조선인의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조선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선교사들의 초기 학습서만을 분석했기에 이후 선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없음이 아쉬운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서양인들이 쓴 근대 한국어 교재를 살펴 서양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문화교육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 문화에 대한 서양인 학습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2. 근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적 요소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 교육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화 항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문화 항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문화를 어떠한 영역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조항록(2002:453-455)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의 정의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문화의 영역을 일상생활 문화와 성취 문화로 구분하였고 이것을 다시 순수 전통 문화, 전통에 기반한 현대 일상 문화, 순수 현대 문화로 분류하였으며 박영순(2003:70-71)에서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과학기술문화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근대 한국어 교재의 목차를³⁾ 살펴본 후 고예진(2013)⁴⁾에서 분류

3) 분석 대상 교재에서 목차가 있는 교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Ridel(1881)

1. 일상용어 2. 일상 관용 표현 3. 상세한 가정사 4. 격에 대한 연습 5. 관용 표현 6. 몇 문장 7. 임금의 덕의 예 8. 상급자, 하급자 대화1 9. 상급자, 하급자 대화2 10. 평등한 사람들 담화 11. 처음 만난 사람들 담화 12. 난방용 담배 13. 솜씨 좋고 재미있는 사수 14. 실수한 구두쇠 15. 소도둑 16. 똑똑한 한 젊은이 17. 코 이야기 18. 성은 19. 다른 성은 20. 한량들의 내기 21. 신선을 만난 제주목사 이야기 22. 양반노릇하는 백정 23. 추노 설화 24. 닭 주인 찾기 25. 무명필 임자 찾기 26. 벼락부자 이야기 27. 개아들 28. 나귀 알 또는 나귀 새끼가된 토끼 29. 거울의 효과 30. 세 가지 소원 31. 잘못 고른 결혼(중매) 32. 운 좋은 환자 33. 산 사람 이야기

Ross(1882)

1. 서재 2. 서당 3. 부엌 4. 식당 5. 손님 6. 침실 7. 집짓기 8. 집 들 9. 가축 10. 들짐승 11. 여행 12. 말 13. 도보 14. 상점(점) 15. 방향과 위치 16. 환전 17. 상품 18. 수 19. 단위 20. 곡식 21. 야채, 과일 22. 시간 23. 시간 24. 날씨 25. 신체 26. 감각 27. 질병 28. 친족 29. 범죄 30. 군졸 31. 색채 32. 도덕 33. 영혼

Eckardt(1923)

1.앵무새와 오리 이야기 2. 무제 3. 나는 노루 5. 병 고친 이야기 6. 세 병신 이야기 7. 무제 8.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 1 9.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2 10. 웃음 거리 1 11. 웃음거리 2 12. 도선에 혼인하는 법 13. 도선에 혼인하는 법 14. 거짓 이인 15. 정신없는 아이 16. 서울 구경 17. 서울 구경 2 18. 서울 구경 3 19. 서울 구경 4 20. 제주 친 계책 21. 한라산 신선1 22. 한라산 신선2 23. 한라산 신선3 24. 왕몽 1 25. 왕몽 2 26. 왕몽 3 27. 임금이 피난함1 28. 임금이 피난함2 29. 귀신을 위하는 이야기 1 30.귀신을 위하는 이야기 2 31.물품 운전하는 이야기 1 32. 물품 운전하는 이야기 2 33. 귀신을 위하는 이야기 3 34. 귀신을 위하는 이야기 4 35. 귀신을 위하는 이야기 5 37. 견우직녀성 이야기 38. 지혜로운 의원 39. 농민이 벼슬한 이야기 1 40. 농민이 벼슬한 이야기

하여 제시한 문화 항목을 언어문화, 일상문화, 문화적 행위, 관념문화로 분류하여 각 교재에 제시된 문화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1. 한국어의 언어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언어문화’를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박영순(2002,2003)에서는 문화를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학문문화’, ‘산업기술문화’, ‘문화재’ 등으로 나누면서 ‘언어문화’를 따로 분류하고 있고, 민현식(2004)을 비롯한 문화 교육을 다루는 많은 논의들에서는 ‘언어문화’를 문화의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미향(2011)에서는 언어문화를 특정 사회에서 그들만의 삶을 보여주는 언어의 모습, 즉 문화가 투영된 언어로서,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지식으로서의 언어’이자 ‘그 지식을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행 도구’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근대 한국어 교재에서 서양인들이 기술한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어표현

외국어와 대조할 때 한국어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경어법이다. 경어법은(honorific)은 화자와 청자 및 발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제 3자 사이의 인간관계, 즉 인물 상호간에 나타나는 신분의 상하, 존비(尊卑), 처지의 상대적 우열(優劣), 친소(親疏)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 형식을 의미한다(우형식 2022:382). 서양인들에게 한국어의 경어 표현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었으며⁵⁾, 한국어 교재와 그들이 저술했던 다른 기록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Ridel(1881)에서는 한국어 경어표현에 대하여 ‘존칭 동사’로 칭하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어 형태가 다양하게 분화된 것이라고 하며, 동사의 각 시제는 말하는 사람(화자), 말 받는 사람(청자), 그리고 언급되는 사람(주체, 객체)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법의 규칙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예의범절 때문이라고 하였다.

Ridel(1881) 한국어의 경어법을 상대 대우와 주체 대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으며, 우선 상대 대

2 41. 농민이 벼슬한 이야기 3 42. 남의 성미 맞추기가 어려움 1 43. 남의 성미 맞추기가 어려움 2 44. 도둑이 개과할1 45. 도둑이 개과할2

4) 고예진(2014)에서는 Gale의<Korean Grammatical Form>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여기서 한국 정보 제공은 분석대상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외하였다.

한국 문화 교육 내용 유형	세부 문화 교육 내용
한국어 언어문화	문화적 함의가 있는 단어, 구 이해, 어휘, 속담, 교사성어, 의성어, 의태어, 중복형태, 호칭어, 지칭어, 언어예절, 방언
한국인의 일상생활	의식주, 여가, 경제, 기후, 여행, 서민의 생활양식, 양반의 생활양식, 일상생활의 상황 설명
한인의 문화적 행위	관습, 습관, 풍습, 예의바른 한국생활, 농경 생활의 세시풍속
한국인의 관념	믿음, 신념, 미신, 민속신앙,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판단(예절, 효, 정, 체면, 정조 등) 생활감정
한국 정보 제공	지리, 자연환경, 정치 제도 등

5) Eckardt의 경우 “똑같은 동사에 여러 경어법이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동년배에게 말할 때, 축양형, 연장자에게 말할 때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진 형태들을 공부하면서 공책에 기록했다. 말하는 상대에 따라 모든 어미가 변했고, 이것이 한국어 문법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생각해 보라. 간단한 동사 ‘하다’에도 최소한 3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가 있다. 동사의 불규칙 변화가 한국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사소한 예문에서 벌써 한국어의 어려움이 짐작된다.”(에카르트 2010:71-72)

우의 경우에는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 존경의 전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존경의 정도는 주인은 노예나 하인에 대해 윗사람이 되며, 결혼을 했는지, 젊은이인지 아이인지, 귀족인지, 부모와 자식 사이인지, 남자와 여자인지, 평민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과 나이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하다’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경어법에 따른 ‘하다’의 형태

‘하여라’	명령(아랫사람에 대한 지시나 명령)	‘하옵시오’	더욱 더 존경스럽게
‘하라’	‘하여라’의 축약형	‘하소서’	애원하는 듯함
‘하계’	아랫사람에게 덜 명령적으로, 동등한 사람에게	‘하옵소서’	매우 존경스럽게, 애원하는
‘하소’	동등한 사람끼리 예의 있게, 나이든 사람에게 친밀감 있게	‘하시닷가’	‘하옵소서’와 같은 정도이나 문어로 쓰임
‘하오’	정중하지만 존경스럽지 않게	‘하자’	동등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하시오’	존경스럽게	‘합시다’	윗사람에게
‘합시오’	더 존경스럽게	‘홀지어다’	문어표현

Huart(1889)에서도 한국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의 형태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동사는 말하는 상대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명사의 높임도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1) ㄱ. 먹다:잡수이다, 주다: 드리다, 보다:하감하다
 ㄴ. 집:딕, 아버지: 어루신네, 어머니:즈당

Gale(1894)에서 동사 높임의 층위를 6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따라 종결 어미의 형태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 (2) ㄱ. 이스흠니다, 잘먹고 감니다. (The highest honorifics)
 ㄴ. 지금 무엇하느냐, 밥 먹어요.(Respectful form—in very common use)
 ㄷ. 산에 올네 가오, 연장문드오 (Forms used among friends, equals&c
 ㄹ. 진지 잡습지(Half talk form)
 ㄴ. 즈네 말 잘 하네(low form)
 ㄷ. 돈 만히 든다, 술 석 잔 먹더니 취하엿다(Forms used to children, servants&c

동사 높임뿐만 아니라 순우리말 어휘와 한자어 어휘를 대응시키고 한자어는 존대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ㄱ. 아버:어루신네 / 부친 / 춘부장, 어미:즈당, 병:환후
 ㄴ. 편지하:상셔하다, 성내다:진로하시다, 날으다: 상달하다

Underwood(1890:205)에서 “내국인들은 순수 한국어 명사(pure Korean nouns)보다 한자어 (Sinico-Korean words)를 사용하는 것을 더 공손한 표현으로 여긴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반드시 공경의 의미를 지닌 접사 ‘님’을 붙여서 호칭할 것을 당부하였다. Baird(1911)에서는 언어

사용의 유의 사항에서는 'Low Form(talk)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의 적절한 사용과 하인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Friend talk' 사용에 익숙해져야 하고 조선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half talk'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주변의 나이 든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하면 혹시 그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어법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언어를 잘 사용하여 문화의 차이로 인한 문화간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을 당시 서양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인식하였으며 이를 한국어 언어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한국어 교재에 포함시켜 기술하고 있다.

2) 호칭어, 지칭어⁶⁾

경어법과 관련되기도 하며, 한국어의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호칭어와 지칭어이다. 한국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 대명사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한국적 사고방식이나 관습을 나타내는 언어문화로 인식하여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활용해야 한다. 한국어의 호칭어와 지칭어는 화자의 청자의 관계, 상황, 친밀도 등의 요인으로 세밀하게 구분되는데, 근대에 편찬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대부분이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인칭대명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Underwood(1890)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성 뒤에 '가'를 붙이면 그 집안 또는 가문을 뜻하는 표현이 되듯이, 한국인의 성 뒤에 '가'를 붙여 '민가'와 같이 부르면 그 가문을 의미하지만, 이런 호칭을 그 가문의 일원 앞에서 직접 사용하면 실례가 되는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성 뒤에 '가'를 붙여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 되므로 하인들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는 서방(Mr), 석스(Esq.), 칭원(Revered Sir)가 있으며, 여기에 존대를 뜻하는 '님'을 붙이나 성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름은 빼야 한다고 한다. 노인이나 옥단추를 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영감' 또는 '대감'으로 부를 수 있으며, Underwood(1880)에서 밝힌 한국에서 와서 놀랐던 것으로 한국에서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름 대신 "김가네 딸" 등으로 불리다가 결혼한 후에는 여자들은 남편의 이름이나 성을 '덕'이나 '집'을 붙여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4) ㄱ. 김서방 닻, 리참판 닻, 한서방 닻

ㄴ. 고양 마님, 고양 마루라님

ㄷ. 공주 아씨, 공주 아기씨

여자들이 결혼했을 때는 출신지의 이름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 "마님" 또는 "마루라님"을 붙이는데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4-ㄱ)처럼 부르며,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4-ㄴ)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Baird(1903)에서는 여성의 이름과 호칭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으며,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아닌 '김서방 닻'이나 '달석이 어머니' 등의 호칭으로 불린다고 하였다.^{7)『』} 이는 당시 사회의

6)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로 풀이되는 반면,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 이르는 말'

7) 헐버트는 『대한제국명명사』에서는 한국의 여인들이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커다란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인은 어렸을 적에는 "간난이"나 "언년이"처럼 아무렇게나 속된 아명으로 부르다가 남동생이 태어나면 "아무개 누이"로 불리고, 시집을 가면 고향을 따서 "파주댁"이나 "광주댁"으로 불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무개 엄마로 불리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여성의 존엄성이나 정체성은 존재할 수 없었다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cott(1893)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대신에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제, 즈니, 당신, 덕, 로형, 쇼인, 시싱, 싱, 대감, 령감, 공, 대인

‘즈니’는 친구나 친숙한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며, ‘당신’은 윗사람에게 존경의 의미를 부르며, ‘덕’은 ‘당신’보다 덜 공식적이며, ‘자네’보다 덜 친밀한 표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로형’ 또는 ‘너’를 대체하기 위한 사용하며 ‘쇼인’은 일반인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말할 때 사용하며, ‘시싱’도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켜 말하거나 자신을 말하거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싱’ 역시 윗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형태이며, ‘대감’은 화자가 매우 공손하게 표현할 때 쓰이며, ‘공’은 영어의 ‘Mr’에 해당되는 것이며 ‘대인’은 외국 관리들을 말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공’과 ‘대인’은 대외무역과 개방에 따라 나타난 표현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당시의 호칭어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한국어 교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6)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 인스홀쎄에 흐느말)

뉘 덕이시오 - 김셔방이오 혹 니셔방이오 혹 박셔방이오
게는 뉘 덕이시오 -나는 최셔방이오 (Ridel 1881:32)

(6)의 예문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호칭하는 경우 ‘덕’이라고 부르며, 자신은 ‘셔방’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Huart(1889)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칭을 8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7) ㄱ. 게, 게네, 이녁, 즈네, 님자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 ㄴ. 형, 석스, 집스 (조금 높은 사람)
- ㄷ. 셔방, 셔방님 (지위가 있는 젊은 사람)
- ㄹ. 첨지, 싱원, 싱원님 (지위가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
- ㅁ. 덕, 김셔방의 덕 (지위가 있는 여자)
- ㅂ. 마누라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류층 여자)
- ㅅ. 김셔방 집 (지위가 낮은 여자)
- ㅇ. 과덕, 과부 (남편이 없는 여자)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칭어와 호칭어를 살펴보면 당시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 체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에 따라 호칭어, 지칭어의 변화는 있지만 근대에서도 확인되어 현대까지 남아있는 친족 호칭어, 직함 호칭어 등은 한국 문화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적 요소이다.

고 말하고 있다. : 신복룡 역주 『이방인 본 조선의 풍경』, p.150.

2.2. 일상생활 문화

일상생활 문화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를 접할 때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교육 요소이며 한국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이다. 타 문화로 이동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당시의 의식주 생활 문화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경제 행위,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의식주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에 의해 고유한 의식주 문화를 가지게 된다. 기존의 고유한 문화뿐만 아니라 개항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근대에 서양인들이 한국어 교재에서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문화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8) ㄱ 중국 사람은 머리를 짝고 조선 사람은 **상투를 튼다** (Ross 1882:55)

ㄴ. 조선 **의복은 흰빛치만코** 거문 옷시적다 (Scott 1893:214)

ㄷ. 옷깃손 좁고 소미는 넓고 고름이 짜르고 흙질흔거시 우글주글하야 쓰겠느냐 (Gale 1894: 194)

ㄹ. 상즈쭈이 곳칼쓰고 장삼넙고 범고 치더라(Gale 1894: 195)

ㅁ. 옷, 핫옷, 적삼, 속것, 단속것, 의관, 바지, 핫버지, 저구리, 주머니, 쇼창옷, 큰창옷, 두루마기.. (Huart 1889:78)

(8-ㄱ)은 중국과 비교하여 조선인들이 상투를 트는 것을 특징적인 문화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투와 더불어 (8-ㄷ)에서처럼 여러 한국어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갓’이었다.⁸⁾ ‘갓’을 쓰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나 ‘갓’에서 나는 ‘옷’냄새에 관한 대화문도 있으며 당시 다른 서양인들이 저술한 다양한 문헌에서도 ‘갓’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양인들의 눈에 ‘갓’을 쓰는 문화는 상당히 독특한 모습으로 인식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ㄴ)의 예문에서 조선의 의복 중에 흰색이 많은 것을 서술한 것을 볼 때 당시 외국인들의 눈에는 흰옷을 많이 입는 의복 문화를 낯설게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8-ㄷ)의 예문에서는 조선 의복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8-ㄹ)은 직업과 신분에 따른 옷차림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옷의 종류에 대하여 (8-ㅁ) Huart(1988)와 Ridel(1881) 에서 나열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의 옷을 서양인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다른 여러 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⁹⁾

8)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H.G. Underwood: 1859-1916)의 아내였던 릴리어스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는 자신이 경험한 한국 생활에 대하여 쓴 책의 제목이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이며 이를 한국어로 ‘상투를 튼 사람들과 더불어 15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후에 ‘상투의 나라(1999)’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9) “나는 다양한 유형의 옷을 여유 있게 천천히 관찰했다. 저고리와 두루마기는 평균적으로 남녀가 상당히 비슷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인의 옷 어디에서도 단추를 보지 못했고, 중국에서 흔히 보는 끈으로 여미는 단추도

(9)ㄱ. 바지 낚다, 저구리 낚다, 허리씩 썩다, 버선 신다, 단님 매다, 망건 쓰다 (Ridel 1881:3)

ㄴ. 망건 쓰고 휘항 쓰고, 갓 쓰고, 소창옷과 큰 창옷과 도포 입고 썩매고 싹지와 슈건을 소뭍에 너코

안경쓰고 사선쥐고 (Ridel 1881:8)

ㄷ. 자리적삼 자리속것 입고 버선 버셔 목미여 노코 (Ridel 1881:6)

예문(9)을 통해서 각각 상황에 따른 다른 옷차림을 확인할 있다. (9-ㄱ)에서는 집안에서의 차림, (9-ㄴ)에서는 외출 차림, (9-ㄷ)에서는 취침 차림을 볼 수 있다.

아래의 (9)의 예문은 식문화와 관련된 예문이다.

(10) ㄱ. 면투(뽕), 식념, 소곰(소금), 쫄(익히지 않은), 밥(익힌), (Huart 1889:60)

ㄴ. 숟가락으로 먹다(69) 저가락으로 집다(Huart 1889: 87)

ㄷ. 갓진 비빔에 상치쌈이 제격일세 (Gale 1894: 177)

ㄹ. 김치 낙힌 후에 먹음즉 흥갯소(베어드 1903)

(10-ㄱ)에서는 당시의 음식의 종류 및 재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스인 저자였던 위아르는 ‘빵’을 ‘면투’로 설명하고 있으며, 쌀과 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0-ㄴ)에서는 식사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10-ㄷ,ㄹ)에서는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10-ㄹ)에서는 한국 음식 조리 및 저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같이 음식의 종류, 재료, 식사의 도구, 음식을 먹는 방법, 조리 및 보관 방법 등이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11) ㄱ. 들보에 제비집 지엿소(Gale 1894 :171)

ㄴ. 셔까래와 다른 직목을 다곳은 거스로 흥여라(Scott 1887:183)

ㄷ. 안방, 사랑방, 글방, 각방, 부엌 (Huart 1889: 82)

ㄹ. 대청마루가 밋우 시원호오(Gale 1894: 171)

ㅁ. 사랑에 손님이 드럿시니 불 좀 때여라(Scott 1887:228)

ㅂ. 미장이 불너 담에 면회 흥여라 (Scott 1887:183)

(11)의 예문은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이다. (11-ㄱ,ㄴ)에서는 당시 집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이며, (11-ㄷ)에서는 방의 용도에 대해서 어휘로 나타내고 있다. (11-ㄹ)에서는 주거 공간의 기능과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11-ㅁ)에서 ‘온돌’을 기술한 내용에서는 주거 공간의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ㅂ)에서는 주거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교재의 대화문에서는 ‘목수’라는 직업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집의 종류, 집의 구조 및 재료, 각 공간의 용도, 사용 방법 및 관련 직업 등을 문화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없었다. 옷은 모든 부분을 넓은 띠로 여미었고 세심하게 옷고름으로 묶었다. 옷자락은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조선인의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고름이 우리 서양인들의 넥타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조선,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안드레 에카르트: 이기숙 옮김. pp.58-59

2) 경제생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2017)에서는 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의 영역을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으로 크게 나눈 후 이에 해당하는 내용 기준으로 ‘일상생활’, ‘가치관’ 등으로 나누고 ‘일상생활’의 대범주 안에 ‘경제생활’을 포함시켜 각각 교수 내용을 선정한 바가 있다. 경제생활의 문화 지식의 영역에서는 쇼핑 장소와 방법(흥정과 덤, 결제 방법 등)과 한국의 화폐의 종류 및 경제 정책, 경제 문제를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와 관련된 활동은 현재 한국의 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로 한국어 교육 초기의 교재에서부터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ㄱ. 열넉이 한돈이오 열돈이 한냥이오 열엿냥이 한근이오 (Ross 1882: 45)

ㄴ. 은전이나 지전이나 쓰기는 피촉 곳소 (Underwood 1990: 46)

ㄷ. 그 갑식은 팔지안소 좀 더 주시오 (Scott 1887: 169)

빛싸지 안소 내가 밋져 파는 거시오

팔기 슬커든 그만두어라 싹 거시 아니다

(12-ㄱ)를 통하여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가치를 알 수 있으며 (12-ㄴ)에서는 ‘은전’과 ‘지전’으로 화폐의 종류에¹⁰⁾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12-ㄷ)의 대화문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흥정’이 초기 한국어 교재에서부터 최근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¹¹⁾에까지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교육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13) 조선 돈이 니호오 양은전이 니호오 (Scott 1887 :210)

지금은 양은전이 헐헐여 니가 업다

양은전 혼 원 가서 밋고와 오너라

(13)은 근대 당시의 경제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개항 이후 서양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환전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14)는 당시의 경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14) ㄱ. 돈 혼푼이 없어서 쭈러 왓단말이나 (Scott 1887 : 121)

ㄴ. 식골 사름 가난호여 보리와 귀리만 먹어

서울 사름은 넉넉호여 낱쌀과 팻만 먹어 (Scott 1887 :217)

(14-ㄱ)의 예문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어 교제에 돈을 꾸며 갚는 예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런 일이 흔히 있었던 사회적 문제¹¹⁾임을 추측할 수 있다. (14-ㄴ)의 예문은 시골과 서울의

10)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문화사』에 따르면 조선은 1876년 2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1882년 이후 청나라 및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헝가리 등 서구 열강과도 조약을 맺었다. 이 국가들과 교역 관계를 열자 조선 사회에는 외국 상품은 물론 은화·지폐와 같은 근대적 화폐도 유통되었다고 한다. 은화와 태환되는 지폐, 즉 일본은행 태환권(‘일본 지폐’라고 함)도 현대·운반·계산의 편리성으로 인해 유통량이 늘어났다. 따라서 일본은행 태환권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유통된 은행권 지폐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화폐가 유통하면서 조선 화폐인 엽전과 교환될 때 오늘날과 같이 환율이 성립되었다고 한한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main.do>)

11) 우리 역사넷에 의하면 일본인의 이주와 연계된 상업 활동 가운데 조선인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업종의 하나는 고리대금업이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도 등장하였고, 잡화상이나 약종상 등을 경영하면서 대금업을 겸하는 자도 많았다고 한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main.do>)

빈부의 격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문으로 당시에 이런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2.3 생활양식

개항 이후 당시 조선 사회는 큰 변화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은 일상을 통해 근대를 체험하고,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초기 한국어 교재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5) ㄱ. 강화에 **던보국(telegraph office)** 업다 (Underwood 1990 : 217)
- ㄴ. 동물원과 각 처에 **활동사진**과 **박물관**과 왜광디 놀니는 것이 잇단 말을 듯고
 마음이 간절하야 (Eckardt 1923: 188)
- ㄷ. **화눈선**이 잇슴마 -그별이 잇는데 환눈선 속키 온담메 (Ross 1877 :33)
- ㄴ. 손님 차 디접 헝갓다 - 차에 **쇼젯**과 **빅당**쳐라 (Ross 1882: 6)
- ㄹ. **양치** 노코 담비 푸여라 ((Ross 1882: 6)
- ㅁ. 피물전에 가 쥬은 **양목경** 한나 사 오나라 (Ross 1882: 60)
- ㅂ. 수제와 일여들 **쌍갈**이 잇고 찻 보기와(Ross 1882: 160)

1876년 강화도조약이 맺어지자 신문물이 조선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1880년대 문호가 미국·독일·영국 등에게도 열리자, 신문물의 수입 속도는 급물살을 탔고, 더 다양해졌다. 조선에 전신이 처음 도입된 것은 1885년이며 (13-ㄱ)을 통해 당시의 신문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13-ㄴ)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사진은 당시에 보기 힘든 것이었다. 1884년에 ‘지운영’이 서울마동에 촬영국을 개설하고 그 해 3월16일 미국인 Lowell Percival과 함께 고종을 촬영한 사진이 Lowell이 펴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 버선이 양말(洋襪)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갖가지 갖과 망건이 중절모로 바뀌었고, 손에는 개화장이라고 불린 지팡이가 들렸으며, 신발은 양화(洋靴)를 신기 시작한 시기였다. (15)의 예문을 통해서 ‘화눈선, 쇼젯, 백당, 양치(틀니), 양목경, 쌍갈(포크)’ 신문물의 도입과 함께 생겨난 어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ㄱ. 우리 터에 **도선** 집과 **일본** 집과 **청국** 집이 만소 (Eckardt 1923: 37)
- ㄴ. 더 사름은 **일본**사름이오 어머니는 **한국**사름이오 (Eckardt 1923: 38)
- ㄷ. 공의 동너에 **미국** 사름 사느이가 잇습느니잇가(Underwood 1990 : 78)

개항 이후에 조선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6)의 예문을 통해 일본인을 비롯한 서양인들도 국내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세력이 증가하자 일본인 거류민의 숫자도 늘어났다. 1896년 서울의 일본인 거류민은 479가구에 인구 1,749명이었다. 1893년 234가구에 인구 779명에 비교하면 불과 몇 해만에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16-ㄴ)의 예문은 실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일본인은 서로 이성으로서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은 ‘통혼(通婚)’이나 ‘잡혼(雜婚)’으로 표현되었고, 나중에 ‘내지인(內地人,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이라는 의미로 ‘내선 결혼(內鮮結婚)’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제결혼’이

라는 용어는 일본인, 식민지민 이외의 다른 국가 사람과 결혼할 때를 지칭하였다.¹²⁾

(15), (16)의 예문을 통해 초기 한국의 교재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재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2.3. 한국인의 문화적 행위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적인 생활양식을 학습에 따라 후천적으로 습득하여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세련되고 교양 있다고 받아들이는 행동을 문화적 행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관혼상제를 포함하는 의례와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례

개인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이 진전함에 따라 한 종류의 집단에서 다른 종류의 집단으로 옮겨감으로써 지위가 바뀌거나, 삶의 중요한 사건이 세월이 흐르면서 되풀이 될 때에 흔히 집단으로 일정한 의례를 치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례로서는 혼례·상례·제례 및 회갑연 등이 있다

(17) ㄱ. 초상집에 가서 관 싸 주고 성복제식지보고 오마ᄃᆞᆫᄃᆞᆫ소(Gale 1894 :188)

ㄴ. 묘상 가서 쇼주 먹고 불ᄃᆞᆫ소(Gale 1894 : 18)

(17-ㄱ),(17-ㄴ)은 상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상례와 관련된 어휘인 ‘관’, ‘성복제’ ‘초상’ 등이 한국의 상례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례의 절차와 조문객의 예의가 상례 문화의 교육 내용이 된다. 이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한국의 장례 방법과 절차(장례식, 문상, 부의금 등)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18) ㄱ. ᄃᆞᆫ 량반이 친구의 환갑잔치에 갈ᄃᆞᆫ에 ᄃᆞᆫ 상스ᄃᆞᆫ을 ᄃᆞᆫ 마부ᄃᆞᆫ을 다리고 친구의 집에 가서 (Eckardt 1923 :186)

ㄴ. ᄃᆞᆫ 사람이 ᄃᆞᆫ번도 출입을 못ᄃᆞᆫᄃᆞᆫ더니 ᄃᆞᆫ번 제일가 사ᄃᆞᆫ의 환갑 잔치에 가서 (Ridel 1881: 39)

ㄷ. ᄃᆞᆫ 환갑을 당ᄃᆞᆫ야 간ᄃᆞᆫᄃᆞᆫ ᄃᆞᆫ ᄃᆞᆫ에 ᄃᆞᆫ ᄃᆞᆫᄃᆞᆫ나 ᄃᆞᆫᄃᆞᆫ에 ᄃᆞᆫ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을 ᄃᆞᆫᄃᆞᆫ 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그 만ᄃᆞᆫ ᄃᆞᆫᄃᆞᆫ을 다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 ᄃᆞᆫᄃᆞᆫᄃᆞᆫ (Ridel 1881:45-46)

(18)에서는 회갑연에 잔치를 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회갑’과 한국의 ‘잔치’ 문화를 알 수 있다.

Eckardt 1923에서는 3과에 걸쳐서 한국의 혼인 문화를 아주 자세하게 절차에 따라 제시하고 있어 당시의 혼인 문화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12) 우리 역사넷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19) ㄱ. 중매가 와서 혼처 말흔즉 피츠 의혼 인하면 도켓다
 ㄴ. 즉시 스쥬 보내여 뇌약흔 후 납치흔고 던안날을 골히여
 ㄷ. 퇴혼흔고 시분 모습 불긋흔나 초례를 지축흔야
 ㄹ. 신랑 새악시 부모가 덩흔흔 후 툃일 흔고 그날을 당흔야 새악씨 집으로 장가
 들너 가는 법이라
 장가 들너 가는 제구는 신랑은 고은 의복과 관인들이 넘근 압헤서 넘는 관디 넘
 고 사모 쓰고 슈혜즈 신고
 물이 나 혹 가마를 트고, 레물은 새악씨 넘을 청홍식 치마 량단과 혼서지를 함
 속에 너허 , 하인이 지고 가는디
 그 하인을 함진아버라 부르며 또 한 가지는 안부라 흔는 하인이 가니 그 안부는
 혹 산 기력이나 혹 나모로
 문든 기력이를 홍보에 싸서 안고 새악씨 집에 가서

(19)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중매, 의혼, 사주, 납채, 퇴혼, 초례’ 등과 같은 문화 어휘를 제시되고 있다. (19-ㄹ)에서는 정혼,택일부터 시작하여 남자가 여자의 집에 혼인을 치르기 위해 가는 과정과 결혼식 과정까지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신랑의 의복인 사모관대, 신부의 결혼식 차림새를 연지근지, 족두리, 셔북잠, 활옷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족자상 차리기의 과정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함진아버, 안부(雁夫), 예물, 혼서지’와 같은 전통 결혼식 관련 내용도 있다.

2) 세시풍속

세시란 해와 때의 합성어로 여기서의 해는 일 년 혹은 사시(四時)를 말하는 것으로 일 년 중의 때때를 의미한다. 매달, 매 계절의 특별한 때를 설정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그에 걸맞은 의례적 행위를 한다. 월별 풍속이 중심이었다. (한국문화사 36: 9)

- (20) ㄱ. 이월 한식에는 산소에 가느니라 (Gale 1894: 106)
 ㄴ. 스월팔일에는 관동구경이 데일일세(Gale 1894: 106)
 ㄷ. 오월 단오에는 그너도 뛰고 시름도 헉나니(Gale 1894:106)
 ㄹ. 시월에 선묘에 시제헉느니라 (Gale 1894:107)
 ㅁ. 동지에는 팻죽쭈어 차례 지내니 (Gale 1894:107)
 ㅂ. 뉘춘에는 복비는 글귀를 써서 기동마다 붓치느니 (Gale 1894: 118)

계일(1894)에서는 3장에 걸쳐 월별로 나타나는 세시 풍속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 풍속에서 행하는 의례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는데, 세시 풍속의 의미, 유래와 더불어 의례적 행위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한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2.4. 한국인의 관념

인류는 각기 다양한 문화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양식의 삶을 향유하고 사유하여 왔다. 그러한

삶과 사유 속에는 알게 모르게 자기 민족의 고유한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서양인 선교사였던 헐버트는 한국인이 사회생활에서는 유교를, 철학에서는 불교를, 어려움 속에서는 무속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1) 유교 사상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찍이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고, 정치 이념과 교육의 수단이 유교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이후 사회 전반에 보급된 유교 문화는 우리 민족의 의식과 가치관의 중심을 유교에 두게 되었고, 유교적 사회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다. 유교문화는 의식주를 포함하는 전 생활 및 관습이나 법, 사회조직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유교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며 삼강오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처와 첩, 적자와 서열, 사회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각 관계에는 질서가 있으며 그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라고 하였다(이재룡(1995:37)).

- (21) ㄱ. 인륜이 즉 턴륜이오 턴륜이 즉 인륜이니라 (Gale 1894 : 203)
- ㄴ. 인륜을 모르는 사람은 금슈나 일바닝라 헝여심너라 (Gale 1894 : 203)
- ㄷ. 공자는 동양의 대성인인고로 숭봉 아니 헝사람이 업느니라 (Gale 1894 : 201)
- ㄹ. 동양 성인이 누군가 못거늘 공자맹자라 하였노라 (Gale 1894 : 203)

(21-ㄱ,ㄴ)에서는 유교에서 강조한 인(仁)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서 유교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없으나 유교의 중심 사상인 인(仁)에 대하여 교재를 저술한 서양인들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1-ㄷ,ㄹ)에서는 유학의 성립, 발전시킨 인물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17-ㄱ)에서는 집에서 모시는 제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가정 제사의 경우 유교 의례의 표상이다. 이처럼 초기 한국어 교재에는 유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나타나지 않으나, 주요 사상과 인물, 의례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관념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2) 효 문화

한국의 ‘효’ 문화는 상고시대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도 자리 잡은 한국의 전통 문화 사상으로 불교나 유교의 종교철학을 만나 불교적 또는 유교적 생활 규범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효’는 인간이 태어남과 죽음의 속성을 이해하는 삶의 근본 도리로써 긴 세월 동안 이어온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실제성’ 있는 교수 학습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지안, 2020)

- (22) ㄱ. 부모의게 효도하라신 말씀은 하느님의 계명이오 동양성인들의 훈계니라(Gale 1894 : 203)
- ㄴ. 부모께 효도하면 안도켓소(Baird 1903: 244)
- ㄷ.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맞당이 헝할일이 부모를 효봉하며 남 사랑하기를 제몫 갖치며 (Ross 1882: 72)

(22)의 예문을 보면 서양인들도 ‘효’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Ridel(1881)에서 부모님을 대우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23) ㄱ. 부모의게 평안히 줌으시며, 못 줌으심을 못줍다 (Ridel 1881:1)
 ㄴ. 날이 저물매 집에 도라와 부모께 뵈옵고 온 날에 혼바를 다 부모께 엇줍고
 부모와 혼가지로 저녁밥 먹다(Ridel 1881:5)
 ㄷ. 밤이 되면 부모의 방에 니불과 노를 편히게 잘 깔고 방이 차며 더움을 슬퍼
 보아
 안령이 줌으심을 고달한다. (Ridel 1881:5)

(23)의 예문에서는 아침 문안 인사에서부터 외출 후 인사, 저녁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 ‘효’라는 관념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민간신앙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중, 고급 단계에서 가르쳐야 할 문화 교육내용으로 한국의 민간 신앙(미신과 금기행동, 사주, 굿, 풍수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민간 신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4) ㄱ. 남으로 머리두고 자면 장수하고 북으로 머리두고자면 단명하다 흠닙다 (Gale 1894:120)
 ㄴ. 로인성이 남극에 잇는디보면 당수하다흠닙다. (Gale 1894:107)

(24)는 당시 한국인들이 믿고 있는 가치관으로써 주로 금기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금기 사항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문화이기도 하다.

- (25) ㄱ. 귀신만 위하야 집이 편안하겟소(Baird 1903: 145)
 ㄴ. 판슈드려 경넌어야 집안이 편안하겟소(Gale 1894:139)
 ㄷ. 무당 밧서 왔스니까 곱하느 소리 곱 시작하겟소(Baird 1903 :249)

(25-ㄱ), (25-ㄴ,ㄷ)은 무속 신앙에 대한 것으로 ‘판슈’, ‘무당’, ‘굿’ 등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 (26) ㄱ. 셔사 도스 드려 못되 당신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신으로 밧고 공경한다 하니 무엇 무엇인지 내게 밝이 닐음을
 바르느이다
 ㄴ. 첫직는 죽은 부모의 혼을 공경함으로 일년에 혼번식 별세일을 당하면 형세 유무로 음식을 츠려놋코 부모의게
 제함과 혹 명절 썰을 당하면 여러 조상의 위하야 제를 지내지오
 ㄷ. 도스 「예, 여러 신을 공경하느 것이 만치오 성주와 터주와 조왕과 옥황과 관우를 공경하니 성주는 집주인으로
 공경하고 터주는 터주인으로 공경하고 조왕은 부엌 주인 공경하고 옥황은 상테로 공경하고 관우는 대장으로 공경

헝지오. 이것은 죽은 후에 신이 되어 령험이 있다 흠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경합니다 (Eckardt 1923: 143-144)

예문(26)을 통해서 제, 성주(집 주인), 터주(터 주인), 조왕(부엌 주인), 옥황(상제), 관우(대장) 신 양이라는 문화 어휘와 더불어 민간 신앙을 확인할 수 있으며 Eckardt(1923)에서는 ‘성황나무(노자)신앙’, ‘천제’, 제물을 바치는 절차, 종묘사직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근대 초기의 한국어 교재를 쓴 서양인들은 대부분이 천주교나 개신교 선교사로서 이런 무속 신앙을 낯설어 하면서도 분석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부정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시선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서양인들이 저술한 근대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문화요소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을 수 있다.

첫째 근대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당시 근대 서양인 쓴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한국인의 시각과 입장이 아닌 학습자의 요구와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문화 내용이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근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상호문화 감수성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최근에는 상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지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상호문화 감수성’¹³⁾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호문화 감수성’은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종의 감성적인 욕구로 상호문화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접할 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상대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용택, 2017:110)

이 장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서양인 학습자들의 상호문화 감수성을 근대 한국어 교재의 분석만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술한 기타 서적을 분석함으로써 서양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선이라는 타 문화 이주로 인한 문화 충격¹⁴⁾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응하고 통합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장에서 분석한 근대 한국어 교재의 저자이기도 하며 한국 생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는 저서를 낸 두 명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의 관점으로 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조선에서의 마지막 10년을 기록한 『1909, 전한기의 한국』을 통해 제임스,S,게일이 당시의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제임스,S,게일은 미국 출신의 캐나다 파송 선교사로 25살에 조선에 입국하였다. 게일은 대원군을 비롯한 왕실

13) 상호문화적 감수성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는데, ‘상호문화적(intercultural)’과 ‘감수성(sensitivity)’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무관하지 않다. ‘상호문화적’은 영어의 ‘intercultural’을 (또는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동일한 어간을 가진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다문화로 옮겨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용택, 2017:110)

14) 타문화권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가 격렬할 때 그것을 ‘문화충격’이라 한다. 문화충격(culture shock)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이질적인 문화 속에 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지칭한다(Alexander Tomas & Katja Hagemann, 1996: 177; 유수연, 2008: 95). 불안, 혼란, 적절치 않은 사회적인 행동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현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두려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여행하면서 화전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과 교류하였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출판하였고 한국의 여러 고전을 번역하여 서양에 전하기도 하였다. 게일은 언어학자이며, 한학자로 한국 사회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선의 여러 곳을 방문하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더 풍부한 교류를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안드레아스 에카르트(Andreas Eckardt 옥낙안(玉樂安): 1884~1974)로 그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한국학의 기틀을 세운 학자이다. 1909년 독일 상트 오티리엔 연합회(Kongregation von Sankt Ottilien) 수도사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에카르트는 20여 년간 한국인을 위한 교육자로서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한국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는데 몰두하였다.²⁾ 그는 한국어와 문법, 한글과 한자, 문화와 문학, 교육, 종교와 철학, 음악과 미술 등 한국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였고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다.¹⁵⁾ 에카르트는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라는 책을 통하여 조선 체험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인 그리고 그들의 사고 행동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책에 나타난 두 서양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호문화 감수성을 분석하고, 근대 서양인들의 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1. 상호문화 감수성

Bennett(2013)은 이문화 집단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체계인 상호문화 감수성 개발 모델(DMIS)을 제시하였다. Bennett은 각 개인이나 집단이 문화적 차이를 통해 개별적이고 복잡한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이나 감정을 6단계의 발달단계 안에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1~3단계는 자민족 중심주의 단계 4~6단계는 문화상대주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부정	▶	방어	▶	최소화	▶	수용	▶	적응	▶	통합
denial		defence		minimization		acceptance		adaptation		integration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상대주의				

[그림 1] Bennett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

이것을 구체적인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Bennett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의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부정 - 무관심, 회피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했더라도 매우 단순한 경험만 해본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상호 문화 감수성이 자신의 삶이나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타문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고유문화에 대한 질문을

15) 홍미숙 (Hong Misuk). "안드레아스 에카르트의 한국학 연구와 성과." 한국학연구 -.63 (2021): 35-77.

	받으면 당황하기도 한다.
2단계: 방어 - 비하, 우월감, 반전	‘방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적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1단계와의 차이점이다. ‘우리’와 ‘그들’로 문화를 양극화하여 구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 문화 사이의 위계질서를 만들어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타문화를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전형성이 나타난다. 자신의 문화를 경시하고 다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수용하는 문화사대주의적 경향도 이 단계의 특징에 해당한다. 즉,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자문화 우월주의와 문화사대주의가 이 단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 최소화 - 물리적 보편주의, - 초월적 보편주의	문화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마다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즉, 인류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단계이다. 인류의 공통성을 강조하고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는 ‘최소화’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경시’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경시’라기 보다는 차이를 ‘최소’로 보는 ‘최소화’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소화 단계의 사람들은 타문화에 대한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문화 패를 위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적응을 한다. 타문화와의 공통점이라고 추측된 사항들을 자민족 중심의 용어를 가지고 정의한다.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 차이는 최소화하고 너희는 나와 같다고 주장하며 개인이 가진 자신의 문화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수용 - 행동 차이에 대한 존중, - 가치 차이에 대한 존중	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문화 간 행동과 가치 차이에 대해 존중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각각의 행동과 가치의 패턴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문화를 통해 인간 조직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수용은 타문화로 가치를 대체하는 것도 타문화에 대해 동의하거나 선호를 표시하는 것도 아닌, 각 문화의 세계관을 분명히 이해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즉, 이문화 간 가치와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단계 :적응 - 공감, 다원주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며 적용하는 적응의 단계이다. 타문화의 사람과 실제로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타문화의 관점으로 바꾸어 경험을 재구성하여 행동할 수 있는 상호문화 공감(interculturalempathy) 능력을 갖게 된다. 타문화와의 접촉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관에 공감하며 행동의 변화까지 보인다.
6단계 : 통합 - 맥락적 평가, 문화적 매개자	통합 단계에서 개인의 경험은 어떤 한 문화의 관점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즉, 둘 이상의 문화 집단의 정체성을 한 개인이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통합의 경험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상호문화 관계를 내면화하여 특정 문화 하나로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아정체성이 하나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화 안에서 곁도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6단계까지 상호문화 감수성이 함양되기는 매우 힘들고, 이 단계에 속하는 개인이 나오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Bennett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모델은 상호문화교육에서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차이에 접근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정체성처럼 한번 형성되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이문화 간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2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양상

제임스,S.게일의 『1909, 전한기의 한국』와 에카르트 『조선,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두 교재는 조선 문화를 접하면서 겪은 문화 차이에 대한 방어, 수용, 적응, 통합의 양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베넷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의 수용, 적응, 통합 양상을 고찰하기 적합하다고 본다. 한국 문화에 대한 두 서양인 한국어 학습자가 같은 인식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단계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서양인 학습자들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인식의 양상을 보이는지 자세한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정’인데 이는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했더라도 매우 단순한 경험만 해본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미 조선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두 명의 서양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단계이므로 두 번째 단계인 ‘방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부정’ 단계와 달리 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 차이를 구분하지만, ‘우리’ 문화와 ‘그들’ 문화로 극단적인 이분법을 취한다. 두 문화 사이의 경계는 매우 견고하며 이러한 문화 간 위계질서의 사고방식은 자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문화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함께 무시되는 전형성을 보인다.

우선 게일은 ‘음식’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타 문화와 접촉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의 단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과일, 곡물, 베이컨, 계란, 커피 한 잔 대신에 아침 식사로 밥과 소금물에 절인 양배추와 순무, 갈가리 찢긴 건어물, 고춧가루 수프, 그 밖의 강한 냄새의 음식들이었다. 향락주의자처럼, 당신은 양고기구이, 팬케이크, 뜨거운 비스킷, 아이스크림 및 기타 좋아하는 음식을 갈망하지만, 바쁜 하루 중 먹을 수 있는 것에는 이런 맛이 존재하지 않았다. (게일,1909:155)

자신이 좋아하는 ‘양고기, 팬케이크, 비스킷, 아이스크림’과 ‘소금물에 절인 양배추, 순무, 갈가리 찢긴 건어물, 고춧가루 수프, 강한 냄새의 음식들’을 구분하여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음식보다 자문화의 음식이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은 용의 머리로 장식된 상여를 가지고 있는데, 거친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두 개고로가 십자 뼈를 연상시켰다. 장례식은 두려운 행렬이었고, 시끄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울며 술에 취해있었다. 땅에 묻히지 않은 끔찍한 시신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섬뜩한 장면이었다. 지금 이곳의 모든 것은 기독교적이며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내려놓고 **조용한 잠으로** 바꾸었다.(게일,1909:155)

게일은 장례문화를 지켜보면서 조선의 문화를 이해하기 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섬뜩한 장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속한 기독교의 우수한 문화가 전해지고 나서의 변화를 기술하면서 자신의 문화가 우수함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카르트의 조선 음식에 대한 태도와는 다르게 식사 문화와 관련하여 ‘부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과 다르며, 그것이 유럽에서는 좋은 태도로 보여지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식사 후에 잘 먹었다는 표시로 중국인들처럼 트림을 한다.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눈총을 받는 이 풍습에 내가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_에카르트(1950:97-98)

또 에카르트는 조선의 민속 음악에 대해서도 ‘부정’의 태도를 보였다. 조선의 민속 음악을 원시 민족의 음악이며, 시끄럽고 요란하고 탁하다고 평하였다. 유럽 음악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이 놀랍다는 것을 보아, 에카르트가 유럽의 음악을 우수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음악과 나누어 자기가 속한 문화권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의 민속 음악은 시끄러운 피리 소리로 인해 요란하고 탁한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음악을 서울 체류 초기에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광고 행렬에서 들었다. 거의 모든 원시 민족의 음악이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선율의 아름다움보다는 리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 음악을 받아들여 소화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프리츠 크라이슬러 등이 이곳에서 연주회를 열었을 때 나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연주회장은 만원이었고 사람들은 끝나지 않는 박수갈채로 연주에 보답했다._에카르트(1950:68)

2) 수용

이 단계에서 개인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이 단계에서 문화상 대주의적 개념에 근거하여 타문화를 해석하는 능력을 갖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인은 비로소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경험을 문화적 맥락에서 다루고자 노력한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근대 서양인들이 쓴 한국어 교재에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27) ㄱ. 침주는 의원이 와서 복학을 당장 쳐주마 흐거늘 그 부모가 깃버 허락하고 잘 디 접흔 후

안방으로 드러오라 흐고 으희의 비를 단단히 붓잡고 침을 준디 그 으희당장에 죽는지라(에카르트 :192)

침주는 의원이 와서 침을 주었으나 아이가 죽었다는 예문을 들고 있다.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이자 한국어 교재의 저자였던 게일은 자신이 쓴 책 「전환기의 한국(1909)」에서 이런 의료 행위가 비합리적이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해당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의료 행위는 매우 비합리적이다. 이곳 사람들은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긴 바늘을 꽂는다. 당신의 속이 메스꺼우면 의사는 당신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흙에서 나온 나무를 삶고 갈아 마녀의 가마솥에서 나올 법한 혼합물을 만든 약제를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인이 하는 것인 만큼 적합성을 따지며 간섭하지 않는다.” -게일(1909:105)

매우 비합리적이지만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수용’의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담배’ 문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근대 한국어 교재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비롯하여 손님 대접의 방법의 일환으로 담배를 대접하는 것과 담배 냄새가 좋지 않다는 내용까지 예문으

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담배는 당시의 일상생활 문화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ㄱ. 여보라 담배 붓쳐 오고 차 다려라 (Scott :148)

ㄴ. 담배 냄새가 괴악하다 (언더우드: 305)

이런 담배 문화를 접하면서 게일(1909)에서는 담배의 나쁜 점을 알지만 그것도 한국의 생활과 습관이지만 크게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사람에게 담배는 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아무도 담배의 나쁜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까지 담배를 피우는 이곳 사람들 보며 담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담배 문화를 편안하고 무의식적인 흡연으로 담배 연기의 폐해에는 무관심하다. ...(중략) 첫땀 울음소리가 시작되는 때부터 잠들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담배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언급에 비해 한국의 생활과 습관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위치는 비례하지 않는다.”- 게일(1909:14)

서양인 학습자로서 한국 문화를 접하였던 게일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양인 선교사이기도

했곤 에카르트는 조선의 종교적 숭배와 관련한 문화에 대해서 그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유를 알고 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이의 수용의 단계가 된 것이다.

내가 몇 년 동안 방문했던 수많은 집들 어디에서도 종교적 숭배를 나타내는 불상이나 그 비슷한 표식을 보지 못했다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그러나 집에는 국외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고인이 된 부모, 조부모 나아가 3대조까지를 모시는 조상의 위패가 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샤먼과 유사점이 많은 도사가 병자에게 붙은 귀신을 몰아내려고 미친 듯이 북을 두드리고 바라를 울렸다. (중략) 이 관습이 서양인에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자식들의 헌신과 효심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에카르트 1950 :107)

3) 적응

적응 단계의 특징은 타문화의 차이에 적응하여 해당 문화권 사람들과 적절하게 소통하는 능력과 ‘상호문화적 감정이입 능력(intercultural empathy) 획득’이다. 적응의 단계에서 개인은 비로소 문화간 교류를 가능케 하는 의사소통기술을 발달시키게 되며, 문화적인 경계를 벗어나 타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효과적인 감정이입과 관계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대안적인 세계관으로 자신의 사고 틀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직관적인 감각에 근거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히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 코드를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23) ㄱ. 킨년 휴슈가 잘 되거든 네 돈 갑흐마 (게일1894: 104)

ㄴ. 돈 꾸여 주엇다가 난봉 닛소(스캇P.120)

ㄷ. 빗 갑흐려면서 웨 돈 그러케 쓰느냐(스캇P121)

근대 한국어 교재에 여러 책에서 ‘빛’에 대한 예문이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계일은 한국의 이런 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이 변화하여 ‘적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저주 중 하나는 부채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갚아야 할 빚이 하나도 없거나 모두 갚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빚은 큰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였다. 1906년에 쓰인 서울 신문의 기사가 여기에 있다. “한국인은 절약하지 않고 낭비벽이 있는 사람들이다.”

“돈은 그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흘러나가 세상에서 쉽게 사라진다. 한국인들은 생필품을 살 돈은 없어도 사교비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이 경멸하는 돈을 놓고 싸울 것이고, 이웃 중국 사람은 돈에 관해 역겨울 정도로 구두쇠이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신사로서의 여유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인생의 남은 날들을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면 한국인에게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나를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 계일 (1909:105-106)

문화적인 경계를 벗어나 타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모습을 에카르트의 서술에도 나타난다. 처음에는 ‘부정’하였던 문화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의 단계로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밤에 몇 시간 동안이나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다. 마루에서 끊임없이 팻갯감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12시를 넘어 새벽1시까지 귀에 울렸다. 그러니까 주부는 맑은 일을 끝내기 위해 자정까지 일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울동적으로 두드리는 그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그것을 자장가 삼아 잠들기도 했다.”-에카르타(1950: 90)

에카르트는 본인의 신념에는 위배되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을 수정하는 적응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조선의 평민과 양반을 구별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념에 위배되지만, 이 나라 풍습은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이것이 민족의 의식에 강하게 침투하여 말과 글에 서도 그 구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나도 여기에서 그렇게 구분하려고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언어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가령 아이에게 할 때, 직원에게, 친구에게, 동년배나 연장자에게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한다.”-에카르타(1950: 90)

4) 통합

통합 단계는 적응의 정도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다. 고국과 상대국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각국의 문화적인 차이점, 장점, 단점을 자유로이 판단하며 즐기는 단계이다. 자문화와 타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여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다문화적 관계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됨으로 특정한 문화에 근거한 자아정체성이 아닌 다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통합은 자문화와 타문화를 모두 긍정하며 이를 즐기는 단계이다.

계일(1909:25)에서는 한국의 이런 문화에 대하여 한국의 문화에 상당히 적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부정’의 단계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음을 한국의 정도가 극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세계와 비교하면 한국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한 침묵의 땅이다. 그들은 삶을 끌어내는 과대 포장도 없고, 수레나 마차를 거칠도 몰지도 않으며 조용한 대화를 중지시키는 혐오스러운 고탐도 없다. 내적이며 영원한 안식이 있다. 다림질 방망이 소리마저도 온 세상을 잠들게 하는 자장가와 같다. 이 외에도 사람의 목소리와 간혹 들리는 메아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한 당인가! 서울 한복판에서 당신의 정오 휴식을 돕는 최고의 세상을 얻을 수 있다.”

- 계일 (1909:25)

에카르트는 한국인들의 관념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적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인도, 유럽인처럼 정이 많다는 기술을 통하여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조선의 꾸밈없는 모습과 울곧음에 반하여 조선과 조선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때론 몇 년씩 함께 어울렸던 조선인 친구들, 나를 그들과 똑같이 대해주면서 모든 걱정과 기쁨을 나누었던 친구들은 마침내 다가온 이별을 나만큼이나 힘들어했다. 나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조선인들도 유럽인처럼 정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에카르트:56>

베넷(Bennett, M. J. 1993: 21-71; Bennett, M. J., 2011)에 따르면 통합은 자아에 대한 경험이 다른 문화적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상태이며, 통합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괄적이지만 근대 당시 서양인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고,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였던 계일과 에카르트의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상호 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타문화를 접할 때 상호문화 감수성의 단계에 따르는 않을 것이며 다양한 문화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문화 감수성의 어느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적 요소를 살펴보고, 조선의 문화를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인식에 대하여 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서양인들의 쓴 한국어 교재에서는 근대 조선의 문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언어문화, 의식주 문화, 문화행위, 관념문화로 나누어 한국어 교재의 예문을 들어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의 저자이자 학습자였던 서양인 계일과 에카르트가 한국 생활에 대해 저술한 책을 베넷의 상호 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따라 분석하며, 한국 문화에 속하지 않은 타자인 서양인들은 한국 문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근대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문화 항목은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었다. 한국 문화 교육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한국 문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문화 인식의 관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호문화 감수성’의 관점을 가지고 서양인들이 쓴 2권의 분석한 결과 ‘부정’의 단계에서부터 ‘통합’의 단계까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는 모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일괄적으로 한 방향으로 단

계를 밝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상호문화 감수성의 발달 단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한국 문화를 분석하려고 했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문화 항목의 내용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한국 문화 항목을 구체화하여 살펴보지 못한 점이 며, 더 다양한 교재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에 따라 서양인들이 쓴 저서만을 확인하여 다양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한정된 자료만 사용했다는 것도 한계이다. 앞으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살펴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남옥(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과정, 한국학 32(2), 193-222.
- 고경민(2017). "한국어교재의 변천과 시대구분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19.1: 19-38.
- 고경민(2020). "언더우드의 '한국에 관한 서양 문헌' 연구 -서지학의 경계에서, 한국어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8 : 9-39.
- 고경민 (2021). "근현대 서양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 - 한국어 인식의 차원에서 구체화에 이르기까지 -." 영주어문 49.: 289-322.
- 고예진(2008). 개화기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언더우드(Underwood)의 한영문법을 중심으로, 고예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예진(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예진.(2012). 애니 베어드(Annie Luaurie Baird)의 저서에 나타난 한국문화 이해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 논총, 33, 9-33.
- 고예진(2014)).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전략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5 :231-259.
- 김지안. (2020). 한국어교육에서 효 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효학연구, 32, 77-102.
- 민현식. (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교육, 15(1), 52-92.
- 박영순 (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67-89.
- 박세암(2018).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형식(2021). 근대 시기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 연구.역락.
- 오대환, 김한샘, 최정도, 박종후(2020). 해방 전 선교사의 한국어 교육 텍스트 연구, 한국문화사.
- 이성희(2023).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의 서울 사람 되기 :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04) 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 255-280.
- 이미향(2012).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찰 - 참여자 인식과 대인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어 문화학회 학술대회 2012.09 (2012): 109-124.
- 이민경(2020). 1890년대 영어권 한국어 학습서의 구성 형식과 내용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재룡. 1995.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 예문서원. 秦熙權. 1998
- 왕한석(1998). 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비습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을 중심으로. 비교 문화연구, 4.
- 유수연(2008). 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 한국문화사.
- 한용택. "Bennett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시안." 시민인문학 32.- (2017): 107-136.
- Baird, A.(1896).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The Trilingual Press.
- Bennett, M. J (rev. 2011).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Retrieved from IDRInstitute website <http://www.idrinstitute.org>.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422-443.
- Gale, J.(1894). Korean grammatical forms 슌과지남, First ed., The Trilingual Press.(近世 東亞細亞 西洋語 資料叢書 125, 景仁文化社, 2006).
- Gale, J.(1898). Korean sketches, Fleming H.Revell Company
- Janet Milton Bennett (1993). Towards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raning for Inter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s, ed. R. Michael Paig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Inc, pp. 21-71
- Hulbert, H.(1906). The Passing Korea, London:William Heinemann Co.
- Ridel, F.(1881). Grammaire Coréenne: avec Uncours d'exercices gradués, précédée d'uneintroduction suivie, Par 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Yokohama: Imprimerie de L. Lévy et S. Salabelle.
- Underwood, L.(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 Underwood. H.(189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한영문법, Yokohama. Kelly & Walsh, L'd.

토론문

이정민(부산대)

박은미 선생님의 연구는 근대 시기 서양인이 쓴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적 요소를 살펴보고 문화 교육적 발달 단계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양인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생소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어떻게 익히고 적응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의 '경어 표현'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에서 'Ridel(1881)은 한국어의 경어법을 상대 대우와 주체 대우로 구분을 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것은 상대 대우 중심인 것 같습니다. 주체 대우도 어떤 것이 있는지, 현대와 다른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역시 Ridel(1881)의 경어 표현에 대해서인데요, <표 2>에 보면 '흡시다'체가윗사람에게 하는 경어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합시다'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빨리 일을 합시다'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빨리 과제를 합시다' 등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하는 경어 표현으로서 '흡시다'가 약간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예문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Bennett(2013) 상호 문화 감수성-6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6단계를 보았을 때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보다 서서히 단계별 비중을 달리하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두 도서에서 어떤 단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어 질문을 드리자면 자기 나라에 없는 문화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문화에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서 분류하신 '의식주', '경제생활', '생활 양식' 등에서도 단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자가 혹시 연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질문 드린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hatGPT는 인간의 추론을 얼마나 이해할까?

정우현·문서영(서울대)

< 차례 >

1. 서론
 2. 전제 유발 표현과 관련된 추론
 - 2.1. 존재 전제
 - 2.2. 상대 변화 동사
 - 2.3. 반복 표현
 3. 화자·주어의 확인도 추론
 4. ‘도, 은/는, 만’의 대안집합 관련 추론
 5. 결론
-

1. 서론

ChatGPT는 OpenAI에서 서비스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2022년 11월 처음 우리의 일상에 등장한 ChatGPT는 그 전의 대화형 서비스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이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을 ‘AI 일상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¹⁾ 보다 발전된 모델인 GPT-4의 등장과 함께 ChatGPT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ChatGPT는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ChatGPT의 작문은 따로 표절 검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인간이 작성한 글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과연, ChatGPT는 인간 언어의 복잡한 추론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복잡한 추론이 관여되는 여러 문장을 ChatGPT에 입력하여 그 응답을 수집하고, 응답에 반영된 추론이 인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ChatGPT는 단어들 사이의 의존 관계를 고려하는 Transformer 모델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그 예측 결과는 확률적이다. 이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ChatGPT는 확률적으로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할 수 있기에, ChatGPT가 인간의 추론을 이해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별로 여러 차례의 입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인간의 추론과 엄밀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추론을 조사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직 관련 연구가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전제 유발 표현, 화자·주어의 확인도, 초점사의 대안집합과 관련된 추론을 중심으로 간단한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써 답변을 일부 수집하고, 흥미로웠던 현상들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ChatGPT와 관련된 연구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정인선, “과기정통부 ‘2023년은 AI 일상화 원년’”, 한겨레, 2022.12.28.,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73492.html>.

2. 전제 유발 표현과 관련된 추론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을 일컫는다.²⁾ 전제 유발 표현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에는 사실성 동사, 상태 변화 동사, 한정 기술, 반복 표현, 시간 부사절 등이 있다. 유형별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 사실성 동사
가.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
나. 수현이는 미국으로 떠났다.
- (2) 한정 기술
가. 그가 읽던 책은 매우 두꺼웠다.
나. '그가 읽던 책'이 존재한다.
- (3) 상태 변화 동사
가.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
나. 그는 담배를 피웠다.
- (4) 반복 표현
가. 내가 또 지각하면 너한테 만 원 낼게.
나. '나'는 이전에 지각한 적이 있다.
- (5) 시간 부사절
가. 희성이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여행을 다녀왔다.
나. 희성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위의 (1)~(5)에서, 각 가-문장들은 나-문장들을 전제한다.

그러나 언어 표현에 의한 전제가 항상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Gazdar(1979), Lambrecht(1994)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표현들로 맥락 및 실제 상황과 합치될 때만 실제 전제를 유발한다.

- (5') 시간 부사절
가. 희성이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퇴했다.
나. *희성이는 대학을 졸업했다.

(5'가)는 (5가)와 동일한 전제 유발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나 (5'나)를 전제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전제가 유발되는 것을 유보한 것으로, 전제의 처리에는 의미론적인 정보에 더해 화용론적인 정보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전제가 올바르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의미론적 정보와 화용론적 정보가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2장에서는 특히 (2) 한정 기술, (3) 상태 변화 동사, (4) 반복 표현을 중심으로 전제 유발 표현이 들어간 질문들을 ChatGPT에 입력하여 그 응답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1.에서는 (2) 한정

2) 전제는 여러 언어적 수단에 의해 유발되며, 이때의 언어적 수단에는 구체적 언어 표현뿐 아니라 강세 등의 운율적 요소, 혹은 맥락 정보와 대화 원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황현동(2020)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들을 포괄하는 'presupposition trigger'의 번역어로는 '전제 유발자', '전제 유발체' 등이 선호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운율적 요소나 맥락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ChatGPT 질답의 한계상, 여기에서는 구체적 언어 표현을 위주로 다루기로 하고, 용어 역시 황현동(2020)의 '전제 유발 표현'을 택한다.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존재 전제의 처리를 확인해 볼 것이며, 2.2.와 2.3.에서는 각각 (3) 상태 변화 동사, (4) 반복 표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제의 처리를 확인해 볼 것이다. (1) 사실성 동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론은 3장에서 화자·주어의 확인도와 관련하여 다룰 것이다.

2.1. 존재 전제

존재 전제는 지시 표현과 관련되는 전제로, 고유 명사와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 등의 지시 표현이 그 지시 대상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존재 전제는 가장 빠르게 논의되기 시작한 유형의 전제인데, 아래 예에 대한 Russell(1905), Strawson(1950)의 논의가 잘 알려져 있다.

(6) 가.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

나.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6가)의 ‘프랑스의 왕’은 한정 기술로 지시 대상인 ‘프랑스의 왕’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프랑스의 왕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존재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Russell(1905)은 문장 전체가 거짓이 됨을 주장하였으며, Strawson(1950)은 문장의 진리치가 참도 거짓도 아닌 공백의 상태가 됨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전제는 부정 등의 함의 취소 운용소³⁾가 결합해도 투사된다는 특징을 가져, 부정으로 인해 (6가)의 함의가 취소된 (6나)에도 ‘프랑스의 왕’이라는 한정 기술의 존재 전제는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한 ChatGPT는 ‘프랑스의 왕’의 존재가 요구되는 문장들에 어떠한 응답을 보일까? ChatGPT에게 ‘프랑스의 왕’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역 및 그에 대한 답변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⁴⁾

<표 1> ‘프랑스의 왕’의 존재 전제 관련 질답

	질문	답
1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은 참이야?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2021년까지)에 따르면, 프랑스는 공화국이므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른 소스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참이야?	프랑스는 1870년 이후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문장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왕이라는 주제 자체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함의 취소 운용소(entailment cancelling operator)는 함의는 취소시키고 전제는 투사시키는 요소들을 일컫는다. Chierchia and McConnell-Ginet(1990)에서 ‘Family of Sentences’로 제시된 부정, 조건문의 선행절, 의문, 양태 조동사가 대표적이다.

4) 이하 모든 질답은 GPT-4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든 질답은 새로운 세션을 열어 진행하였다.

3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다”라는 문장은 참이야?	<p>“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다”라는 문장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까지의 제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왕은 없습니다. 프랑스 최후의 왕 루이-필립 1세는 1848년에 퇴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는 왕을 두지 않고, 대통령을 두는 공화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제가 업데이트 받지 못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장이 과거의 프랑스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해당 왕의 역사적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p>
4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참이야?	<p>“프랑스의 왕이 대머리가 아니다”라는 문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2023년 현재까지 공화국이며, 실제로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왕의 머리 상태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p>
5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가 아니다. 대머리는 영국의 왕이다”는 참이야?	<p>제가 당신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현재 왕의 머리 상태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 프랑스에는 1848년 이후로 왕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공화국입니다. 또한 영국의 왕은 특정 시점의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p> <p>그래서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가 아니다. 대머리는 영국의 왕이다”라는 문장은 프랑스에 왕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부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 대머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p>

<표 1>의 질문 1은 (6가)의 진리치를 질문함으로써 존재 전제의 문제를 ChatGPT가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ChatGPT는 현재 프랑스의 왕이 없기에 진리치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답하며 존재 전제의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문 2는 (1나)의 진리치를 질문함으로써 함의 취소 운용소의 작용역 하에 놓인 존재 전제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이 역시 적절히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 3~5는 제시문에서 ‘프랑스 왕’에 결합하는 조사를 ‘은’에서 ‘이’로 바꾼 것이다. 질문 1과 달리, 질문 3의 제시문 “프랑스의 왕이 대머리다”는 “누가 대머리야?”라는 문장에 대한 답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프랑스 왕’의 존재가 문장의 전제부가 아닌 단언부에 속하게 되어 더 이상 존재 전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진리치를 논할 수 있는 대상일 것이며, 비록 ChatGPT가 2021년 이후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나 답변에서와 같이 확인 혹은 부정이 불가능한 질문은 아닐 것이다. 질문 4는 질문 3에 부정을 적용한 것이다. 질문 4의 제시문 역시 질문 3의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왕들은 다 대머리인 것 같은데, 대머리가 아닌 왕이 있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왕’의 존재는 단언 내용에 속하게 되고, 존재 전제가 발생하지 않아 진리치를 논할 수 있게 된다. 질문 5는 질문 4의 제시문에 “대머리는 영국의 왕이다”를 후행시킴으로써 이 문장이 여러 왕 중 대머리인 왕을 찾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질문 3, 4가 각각 질문 1, 2와 동일한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달리, 질문 5에서는 ‘프랑스의 왕’을 단언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맥락을 한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ChatGPT는 프랑스에 왕이 부재하여 적절한 답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대되는 답변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위의 질문 1~5는 ‘프랑스의 왕’의 존재 여부를 ChatGPT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존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래의 <표 2>는 가상의 요리인 ‘정우헌찌개’와 ‘우헌찌개’의 레시피를 ChatGPT에게 물어 정리한 것이다.

<표 2> ‘정우헌찌개/우헌찌개’의 존재 전제 관련 질답

	질문	답
1	정우헌찌개 레시피 알려줘	<p>정확한 '정우헌찌개'라는 특정 요리에 대한 정보는 제 데이터 베이스에 없습니다. 이는 상당히 특정한 이름으로, 특별한 음식이거나 특정 지역이나 가게의 특별한 요리일 수 있습니다.</p> <p>하지만 일반적인 김치찌개 또는 돼지고기 찌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하나의 기본적인 레시피입니다.</p> <p>돼지고기 김치찌개 레시피:</p> <p>재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 목살 300g · 숙성된 배추김치 500g <p>... (후략)</p>
2	우헌찌개 레시피 알려줘	<p>물론이죠, 한국 전통 요리인 "우헌찌개"의 레시피를 아래에 안내드릴게요. 이 레시피는 대략 4인분을 위한 것입니다.</p> <p>재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헌 (소고기 갈비살, 부채살, 살치살 등): 500그램 2. 대파: 1대 3. 깻잎: 10장 4. 두부: 1모 <p>... (후략)</p>

질문 1의 ‘정우헌찌개’나 질문 2의 ‘우헌찌개’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요리이다. 그러나 ChatGPT는 이들에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 1에서는 ‘정우헌찌개’라는 요리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른 일반적인 요리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문 2에서는 ‘우헌’이라는 재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며 ‘우헌찌개’의 레시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2의 레시피를 읽어보면 ‘우헌’을 ‘우육’ 정도로 이해한 답변임을 알 수 있는데, 비록 ChatGPT의 요리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우헌’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를 우육과 비슷한 개념의 재료로 이해하고 그 존재 전제를 수용(accommodation)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정우헌찌개’의 ‘정우헌’은 ChatGPT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현’과 달리 명명 알고리즘상 식재료보다는 사람의 이름일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답변이 제시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ChatGPT는 이처럼 존재 전제의 처리에 관하여, 대상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상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혹은 대상의 부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응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상의 존재 여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의 이름이 명명된 방식을 통하여 유사한 이름을 통해 그 전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2. 상태 변화 동사

상태 변화 동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류를 일컫는다. 이는 Sellars(1954), Levinson(1983) 등의 여러 연구에서 전제와 관련되는 표현으로 다뤄진 바 있으며, 한국어에서도 ‘멈추다, 시작하다, 멈추다, 계속하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황현동(2020:121)에 제시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7) 가. 해가 지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전제: 화자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
 나. 너 혼자 술 먹는 거 그만해야 돼.
 전제: 청자가 혼자 술을 먹곤 했다.

(7가)에는 ‘시작하다’가, (7나)에는 ‘그만하다’가 쓰여 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상태가 시작됨과 끝남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각각 그 이전에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음과 그러한 상태였음을 전제한다.

상태 변화 동사와 관련하여 ChatGPT에게 질문한 것과 그 응답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상태 변화 동사 관련 질답

	질문	답
1	"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가 참이라면,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항상 참일까?	<p>"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그 사람이 특정 시점에서 식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참이라면, 그 사람이 그 말이 나온 직후에는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p> <p>그러나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시점이 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하기 전인 경우에만 이 말이 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표현이 그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한 직후의 시점을 가리킨다면 이 말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p> <p>따라서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가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표현이 가리키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p>

2	<p>"그는 밥을 먹기를 멈췄다"가 참이라면,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었다"는 항상 참일까?</p>	<p>"그는 밥을 먹기를 멈췄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밥을 먹다가 그 행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입니다.</p> <p>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밥을 먹기를 멈췄다"라는 문장이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습관이나 행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그 시점에 실제로 밥을 먹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문장이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3	<p>"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가 참이라면, "그는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태였다"는 항상 참일까?</p>	<p>"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이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태였다"는 문장은 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상태에서 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면 이 문장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락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p>
4	<p>"그는 담배를 피우기를 멈췄다"가 참이라면, "그는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다"는 항상 참일까?</p>	<p>"그는 담배를 피우기를 멈췄다"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이전에 담배를 피우던 행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이 참이라면, 그는 과거에 담배를 피웠어야 합니다.</p> <p>하지만, "그는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다"라는 문장이 항상 참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를 멈췄다는 것은 그가 그 시점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p> <p>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를 멈춘 시점이 '지금'이라고 할 때, 그는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를 멈춘 시점이 '어제'라면, 그는 어제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그는 그 시점에 담배를 피우는 상태였다"는 문장이 항상 참이 되려면, '그 시점'이 담배를 피우기를 멈추기 직전의 시점을 지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장은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p>
5	<p>"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시작했다"가 참이라면,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항상 참일까?</p>	<p>"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시작했다"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 담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는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웠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만뒀다가 결혼한 후에 다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p>

5'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처음 시작했다"가 참이라면,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항상 참일까?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문장도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것이 그가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6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가 참이라면,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항상 참일까?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라는 문장은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결혼하자마자 담배를 시작했다가 빠르게 끊은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가 참이라도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들 사이에는 논리적 연결성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가 참이라면,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웠다"는 일반적으로 참일까?	네, 그렇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라는 문장이 참이라면, 이는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그는 결혼 전에 담배를 피웠다"라는 명제도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과 2는 각각 “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와 “그는 밥을 먹기를 멈췄다”를, 질문 3과 4는 각각 “그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와 “그는 담배를 피우기를 멈췄다”를 이용하여 질문해 본 것이다.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hatGPT는 제시문의 ‘그 시점’이 ‘시작하다’와 ‘멈추다’를 가리키고, 각 문장을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습관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로 올바른 전제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단 질문 3에 대한 답변에는 “그가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상태에서 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면 이 문장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질문 5~6은 동사를 바꾸고 추가적인 맥락을 부여해 본 것이다. 먼저 질문 5는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시작했다”라는 제시문을 사용한 것인데, ChatGPT는 이때 ‘시작하다’가 ‘다시 시작하다’의 의미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것이 ‘항상’ 참은 아니라는 응답을 하였다.⁵⁾ 이에 질문 5'에서 맥락을 강화하여 제시문을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처음 시작했다”로 변경하자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이 항상 참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질문 6은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라는 제시문을 사용한 것이다. ChatGPT는 이 경우에도 이것이 항상 참은 아니라는 응답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 담배를 시작하였다가 끊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이기는 하나, 연결어미 ‘-고’의 함축이 취소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

5) 그러나 이때의 ‘시작하다’가 정말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와 같이 특정 부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시작하다’가 ‘처음 시작하다’의 의미로만 해석될 수도 있는 듯하다.

이라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연결어미 ‘-고’는 선·후절의 관계에 대한 함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질문 6의 제시문을 접하면 결혼과 담배를 끊은 사건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함축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ChatGPT의 응답은 논리적으로는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질문에 포함된 ‘항상’에 이끌려 가능한 예외를 모두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영된 응답이라 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항상 참일까?’에서 ‘일반적으로 참일까?’로 바꿔 본 질문 6’에서는 일반적으로 참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⁶⁾

ChatGPT는 이처럼 상태 변화 동사가 쓰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전제를 추론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답변들에서 확인되듯 질문 방식의 문제로 ChatGPT가 과도하게 ‘항상’에 매몰된 응답을 내놓은 경향이 있었는데,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성의 문항을 통해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반복 표현

반복 표현은 한국어의 ‘또, 다시’ 등과 같이 어떠한 사건이 반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현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아래는 문금현(2004:233)에 제시된 반복 표현이 전제를 유발한 예시이다.

- (8) 가. 영화는 다시 가지 않았다.
전제: 영화는 간 적이 있다.
- 나. 제비가 또 날아왔다.
전제: 제비가 날아온 적이 있다.

문금현(2004:233)에 따르면, 성분부사가 들어간 문장은 성분부사를 제외한 문장의 의미를 전제하게 된다. 즉 (8가)는 문장에서 ‘다시’를 제외한 의미를, (8나)는 문장에서 ‘또’를 제외한 의미를 전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복 표현에 의한 전제 역시 맥락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황현동(2020:74)에 제시된 예를 확인해 보자.

- (9) 만약 후현이랑 밥 먹은 적 있으면, 후현이랑 {또/다시} 같이 밥 먹게 될 걸.

(9)에서는 ‘후현이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전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전제 자체가 조건절에서 가정적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 표현과 관련하여 ChatGPT에게 질문한 것과 그 응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반복 표현 관련 질답

	질문	답

6) 2장에서는 전제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3장에서 사용된 확인도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화자가 전제를 확인하는 정도를 묻는 것도 ChatGPT의 추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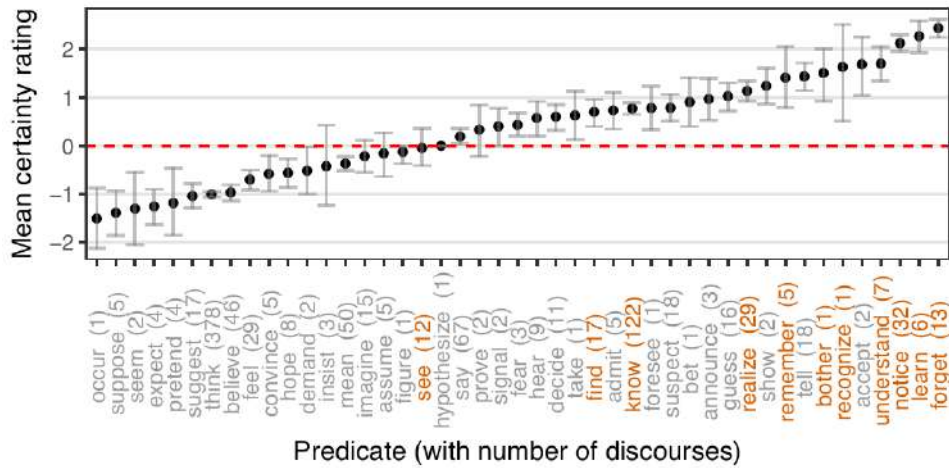
1	"영희는 다시 가지 않았다"가 참이라면, "영희는 간 적이 있다"는 항상 참일까?	"영희는 다시 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영희가 이전에 한 번 이상 어딘가에 갔음을 암시하므로, 이 문장이 참이라면 "영희는 간 적이 있다"라는 문장도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가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미 한번 이상 가보았지만 또다시 가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진이는 또 결석을 했다"가 참이라면, "세진이는 결석을 한 적이 있다"는 항상 참일까?	네, 그렇습니다. "세진이는 또 결석을 했다"라는 문장은 세진이가 이미 최소 한 번 이상 결석을 했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진이는 결석을 한 적이 있다"라는 문장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진이는 또 결석을 했다"가 참이라면 "세진이는 결석을 한 적이 있다" 역시 항상 참이 됩니다.
3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너 다시 시험 봐야 해"가 참이라면, "과거에 청자가 시험을 본 적이 있다"는 항상 참일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너 다시 시험 봐야 해"라는 문장은,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는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청자가 시험을 본 적이 있다"는 주장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험을 보다"라는 표현은 과거에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음을 내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종종 처음 보는 시험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 즉 재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 자체로는 청자가 과거에 시험을 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청자가 과거에 시험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청자가 시험을 본 적이 있다"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4	"만약 후현이랑 밥 먹은 적 있으면, 후현이랑 다시 같이 밥 먹게 될 걸"이라고 발화한다면, "청자가 후현이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는 항상 참일까?	"만약 후현이랑 밥 먹은 적 있으면, 후현이랑 다시 같이 밥 먹게 될 걸"이라는 문장은 청자가 후현이와 밥을 먹은 적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같이 밥을 먹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조건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으로 "청자가 후현이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장은 상황적 가정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이 실제로 참인지, 아니면 단지 가정에 불과한지는 문장 자체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문맥과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과 2는 ‘다시’와 ‘또’를 포함한 기본적인 문장들을 제시해 본 것이다. 답변을 통해 두 경우 모두 ChatGPT는 ‘다시’와 ‘또’에 의해 유발된 전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질문 3과 4는 전제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제시해 본 것이다. 질문 3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너 다시 시험 봐야 해”라는 문장을 제시한 것인데, 이는 이미 시험을 본 상황에서의 재시험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놀러만 다녀 시험 준비가 부족해 미래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재시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ChatGPT는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의미를 포착해 내고 있다. 질문 4는 위의 (9) “만약 후현이랑 밥 먹은 적

있으면, 후현이랑 다시 같이 밥 먹게 될 걸”을 제시한 것인데, 가정과 관련하여 “청자가 후현이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가 항상 참이 될 수는 없음을 정확히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3. 화자·주어의 확인도 추론

de Marneffe et al.(2019)는 함의 취소 운용소가 있는 환경에서 내포문 내용에 대한 화자의 확인도(commitment)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다. 내용의 투사를 전제성(presuppositionality)의 귀결로 보고 이러한 투사가 술어가 사실성 여부에 따라 강력하게 예측될 것이라고 여겼던 통념과는 달리, 술어의 사실성이 절대적 예측성을 갖지 않으며 인칭, 시제 등의 여러 조건이 화자의 확인도에 관여함을 밝힌 것이다. 아래는 de Marneffe et al.(2019:114)에서 제시한 술어별 평균 확인도이다.



<그림 95> de Marneffe et al.(2019:114)의 술어별 평균 확인도

<그림 1>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술어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성 술어로 여겨졌던 것들이다. 사실성 술어의 개념을 제시한 Kiparsky & Kiparsky(1971)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에서는 내포문의 참에 대한 화자의 확인도가 모문에서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술어별로 정도성을 보이며 술어 외의 여러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⁷⁾

한국어를 대상으로 사실성 술어를 논의한 것은 우형식(1987) 등이 대표적이며, Lee(2018, 2019)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술어의 종류보다도 보문자의 종류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Lee(2018:6-7)의 아래와 같은 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10) 가. 미아는 히아가 떠난 것을 알고 있다.
- 나. 미아는 히아가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미아는 히아가 떠났다고 알고 있다.

‘것을’이 사용된 (10가)에서는 ‘히아가 떠났다’가 사실로 해석되겠으나, (10나, 다)는 ‘히아가 떠났다’는 것이 반드시 사실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인도에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관여된다. 이 글에서는 ChatGPT가 이러한 내포문의

7) 국립국어원에서는 de marneffe et al.(2019)을 참고하여 ‘2021년 말뭉치 함의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내용에 대한 화자 및 주어의 확인도를 얼마나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질답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주어의 인칭으로는 1인칭과 3인칭을 사용하였고, 동사로는 ‘알다’, ‘기억하다’, ‘확신하다’를 사용하였으며, 보문자로는 ‘것을’과 ‘것으로’만을 사용하였다. 질문은 유사한 선행연구인 Tonhauser(2016), Tonhauser et al.(2018) 등에서 사용된 “‘certain that’ diagnostic”을 활용하여 확인도를 ‘-3(사실이 아니라고 믿음) ~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의 스케일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먼저 아래의 <표 5>는 주어가 1인칭인 경우로, 화자의 확인도를 질문한 것이다.

<표 5> 확인도 관련 질답: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질문	답
1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안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안다"라는 문장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자가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그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3(사실이 아니라고 믿음) ~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의 스케일로 표현하면, +3으로 답하겠습니다.
2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이 문장을 분석하면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이 사건을 "기억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그의 확신 수준은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해석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 해석이 모든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확신한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이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확신한다"라는 문장에서 화자의 확인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자가 "확신한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3(사실이 아니라고 믿음) ~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의 스케일에서 화자의 확인도는 +2.5 ~ +3 사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추정일 뿐이며, 문맥이나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라는 문장을 분석하면,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의 확인도를 -3(사실이 아니라고 믿음) ~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의 스케일로 표현하자면, 이는 +2.5 ~ +3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확실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화자가 그 사실을 어떤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5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이 문장에서 화자는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하므로, 이는 화자가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억한다"는 표현은 완전한 확신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화자가 완벽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3(사실이 아니라고 믿음) ~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의 스케일에서, 이 문장은 화자의 확신을 대략 +1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신한다"에서,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문장을 보면, 화자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를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5>의 질문 1~3은 각각 동사 '알다, 기억하다, 확신하다'를 '것을'과 함께 제시한 것이며, 질문 4~6은 '것을'을 '것으로'로 바꾸어 제시한 것이다. ChatGPT는 "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가 제시된 질문 5를 제외하면 일관적으로 화자의 확언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대체로 우리의 직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질문 4의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 이정민(1978)에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알다'는 사실성 교체 현상(factivity alternation)을 보이는 동사로,⁸⁾ '것을'이 결합할 때에는 사실성 동사로 쓰이는 것과 달리 '것으로'가 결합할 때에는 비사실성 동사로 쓰인다. 그러나 정우현(2020)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것으로 알다'는 주절의 주어가 1인칭이며 시제가 비과거인 경우 사실적인 해석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추론 역시 적절히 파악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6>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로, 화자의 확언도에 더해 주어의 확언도 역시 질문한 것이다.

<표 6> 확언도 관련 질답: 주어가 3인칭인 경우

	질문	답
--	----	---

8) 사실성 교체 현상(factivity alternation)은 동일한 동사가 보문의 구조격 대립을 통해 사실성 및 비사실성 해석이 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정민(1978)에서는 한국어의 '알다'를 대상으로 사실성 교체 현상을 기술하였으며, Lee(2019) 등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알타이 제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1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안다"에서, '현수'와 '화자'는 각각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p>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안다"라는 문장은, 현수가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수의 확신도는 아마도 높은 편일 것입니다. 따라서 스케일에서 현수는 +3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p> <p>이 문장이 화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화자도 현수가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 역시 이 사실에 대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화자의 확신도 역시 +3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p> <p>하지만 이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화자가 '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항상 이런 종류의 해석적인 여지가 있습니다.</p>
2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에서, '현수'와 '화자'는 각각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p>	<p>이 문장에서 직접적인 화자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확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p>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는 문장은 현수가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수는 이 사실에 대해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수의 확신 정도는 약 +3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이 문장만으로 화자의 확신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확신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자의 확신 수준을 0(확신이나 의심 없음)으로 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확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문맥이 필요합니다.</p>
3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확신한다"에서, '현수'와 '화자'는 각각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p>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확신한다"는 문장에서,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강하게 확신하고 있으므로, 현수의 확신도는 +3으로 보여집니다.</p> <p>그러나 화자의 확신도는 문장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화자가 '현수'의 믿음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화자의 확신도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가 '현수'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거나 '현수'가 확신하고 있음을 확실히 아는 경우, 화자의 확신도는 +1 또는 +2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자 자신이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확신도는 +3이 될 수 있습니다.</p> <p>이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4</p> <p>"현수는 수현이 가 미국으로 떠 난 것으로 안다 "에서, '현수'와 '화자'는 각각 " 수현이가 미국 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 까?</p>	<p>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텍스트 내에서 제공된 정보에만 기반해야 합니다. 텍스트에서 확실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석을 시도해보겠습니다:</p>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라는 문장에서,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안다'는 표현은 확신의 정도를 보여주므로, 현수의 확신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의 확신도는 +2.5 ~ +3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화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화자가 이 정보를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현수의 상황을 이렇게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화자 역시 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확신도는 현수와 비슷하게 +2.5 ~ +3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문장의 맥락과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실한 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오직 문장 속 정보를 근거로 한 해석일 뿐입니다.</p>
<p>5</p> <p>"현수는 수현이 가 미국으로 떠 난 것으로 기억 한다"에서, '현 수'와 '화자'는 각각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 다"를 얼마나 확신할까?</p>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문장에서, 현수의 확신도는 +2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기억은 때때로 왜곡되거나 잘못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확신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p> <p>문장을 말한 화자의 경우, 화자가 현수의 기억을 왜 언급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자가 현수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화자의 확신도는 +1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자는 현수의 기억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현수의 기억을 인용함으로써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 확신도는 +2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자는 현수의 기억이 사실임을 가정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p>단, 이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p>

6	<p>"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신한다"에서, '현수'와 '화자'는 각각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를 얼마나 확신할까?</p>	<p>이 문장에서는 '현수'의 확신도에 대해서만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신한다"는 문장에서, 현수의 확신도는 +3(사실임을 강하게 확신함)로 볼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화자'의 확신도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제공된 정보가 없습니다. 화자가 문장을 말하거나 쓴 사람이라면, 그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자의 확신도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작성자나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정보를 어느 정도로 믿는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p>
---	---------------------------------------------------------------------------------	------------------------------------------------------------------------------------------------------------------------------------------------------------------------------------------------------------------------------------------------------------------------------------------------------------------------------------------------------

<표 6>의 질문 1~3은 각각 동사 '알다, 기억하다, 확신하다'를 '것을'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알다'가 쓰인 질문 1에 대한 응답으로 ChatGPT는 화자와 주어가 모두 +3의 확언도를 가질 것이라 답하였다. 이는 '알다'가 '것을'과 함께 쓰였을 때 강한 사실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및 우리의 직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억하다'와 '확신하다'가 쓰인 질문 2와 3은 양상이 달랐는데, 두 경우 모두 주어의 확언도는 +3으로 높게 예측하였으나 화자의 확언도는 높지 않게 평가하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비교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질문 2의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기억한다"의 경우 화자의 확언도 역시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질문 4~6은 '알다, 기억하다, 확신하다'를 '것으로'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세 경우 모두 주어의 확언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예측하였으나, 화자의 확언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것으로 알다'가 쓰인 질문 4에서는 화자의 확언도를 주어의 확언도와 비슷한 +2.5 ~ +3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수는 수현이가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는 화자가 문장의 주어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발화될 법한 문장인데, '것을 알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것으로 알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상 내용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함축이 발생할 수 있는 맥락이다. '것으로 기억하다'가 쓰인 질문 5에서는 화자의 확언도를 +1 ~ +2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것을 기억하다'가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것으로 기억하다'가 쓰였다는 점에서 화자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될 것이다. '것으로 확신하다'가 쓰인 질문 6에 대해서는 ChatGPT가 화자의 확언도를 추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도, 은/는, 만'의 대안집합 관련 추론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은 대조 초점사에 의해 맥락에 도입되는 대립항의 집합을 말한다. 아래 (10)은 Vallduví & Vilkuna(1998:83)에 제시된 대조(kontrast)의 개념이며, (11)은 대안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vs)을 제안한 Rooth(1985:11)의 예문을 Vallduví & Vilkuna(1998:84)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10) 표현 **a**가 대조일 때, 집합 $M = \{\dots, \mathbf{a}, \dots\}$ 이 생성되며 이는 일종의 양화 영역으로서 의미 계산의 대상이 된다.

If an expression **a** is kontrastive, a **membership set** $M = \{\dots, \mathbf{a}, \dots\}$ is generated and becomes available to semantic computation as some sort of quantificational domain.

(11) 가. John introduced **BILL** to Sue.

나. M = {Bill, Carl, Mark}

다. introduce(john, bill, sue), introduce(john, carl, sue), introduce(john, mark, sue)

(11가)는 'Bill'에 음운론적 초점이 부여된 맥락이다. 'Bill'에 부여된 초점으로 인해 대안집합인 {Bill, Carl, Mark}가 생성되어 맥락에 도입되며, 이는 (11다)와 같은 대안명제들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한국어 보조사의 대조초점을 연구한 대표적 논의로는 임동훈(2012, 2015)를 들 수 있다. 격조사가 문장 내의 핵어와 의존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여 가로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보조사는 실현된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 사이의 세로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임동훈(2015:348)에서 의미 관계에 따른 보조사의 하위 분류를 제시한 것이다.

(12) 가. 첨가의 보조사: '도', '까지', '조차', '마저'

나. 배제의 보조사

a) 배제함[소극적 배제]의 보조사: '은/는', '(이)야/야'

b) 배제함[적극적 배제]의 보조사: '만', '뿐', '밖에'

c) 배제됨[배제의 결과]의 보조사: '(이)나', '(이)나마', '(이)라도'

다. 비교의 보조사

a) 차등 비교: '보다'

b) 동등 비교: '만큼', '처럼', '같이', '대로'

라. 범위의 보조사: '부터', '까지'

아래의 <표 7>은 (12)의 보조사들 중 첨가의 보조사 '도',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 '은/는', 적극적 배제의 보조사 '만'을 사용한 문장을 ChatGPT에 제시하고 그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도, 은/는, 만' 관련 질답

	질문	답
1	A: 지금 학생들 많이 도착했어? B: 청아도 왔어. 이 대화에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은 도착했을까?	이 대화에서는 청아가 도착했다는 것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A의 질문은 학생들이 많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B의 답변은 청아라는 특정 학생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므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대화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A: 지금 학생들 많이 도착했어? B: 청아는 왔어. 이 대화에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은 도착했을까?	이 대화만으로 판단하면,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B의 대답은 오직 청아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도착 여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	<p>A: 지금 학생들 많이 도착했어? B: 청아만 왔어.</p> <p>이 대화에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은 도착했을까?</p>	<p>이 대화에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B'는 "청아만 왔어"라고 말했으므로, 이것은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일 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p>
---	------------------------------------------------------------------------------	------------------------------------------------------------------------------------------------------------------------------------------------------------

질문 1~3 모두 ChatGPT는 보조사가 직접 결합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의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질문 1은 ‘도’를 사용한 문장이다. ‘도’는 첨가의 보조사로, ‘도’에 의해 생성된 대안집합에 적절한 대안명제를 생성할 수 있는 대립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도’가 결합한 ‘청아’ 외에도 도착한 학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ChatGPT는 이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 3은 ‘만’을 사용한 문장이다. ‘만’은 적극적 배제의 보조사로, 대안집합의 어떤 대립항도 적절한 대안명제를 생성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청아’ 외에는 도착한 학생이 없다는 것인데, ChatGPT는 아직 다른 학생들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추정일 뿐 확실한 정보는 아니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질문 2는 ‘는’을 사용한 문장이다. ‘는’은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로, 초점화된 대상 외의 대립항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질문 2에 대한 응답과 합치하지는 않지만, 질문 1과 질문 3의 응답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는’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의한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위의 <표 7>에 따르면 ChatGPT는 ‘도, 은/는, 만’의 대안집합 관련 현상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 8>에서는 보다 단순한 질문을 만들어 제시해 보았다.

<표 8> ‘도, 은/는, 만’ 관련 추가 질답

	질문	답
1	<p>A: 누가 와 있어? B: 현수도 와 있어.</p> <p>이 대화에서, 이 시점에 현수 외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p>	<p>이 대화에서는 누가 현장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현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A'는 누가 와있는지 물었고, 'B'는 현수가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는 현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현수만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p>
2	<p>A: 누가 와 있어? B: 현수는 와 있어.</p> <p>이 대화에서, 이 시점에 현수 외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p>	<p>이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현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A가 '누가 와 있어?'라고 묻고, 사람 B는 '현수는 와 있어.'라고 대답했지만, 이는 현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p>

3	A: 누가 와 있어? B: 현수만 와 있어. 이 대화에서, 이 시점에 현수 외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화 내용에 따르면, 현수만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현수 외에 다른 사람이 와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대화만으로는 완전히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인 대화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을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대화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표 7>의 질문보다 단순한 질문들을 제공하였으나, ChatGPT는 여전히 대안집합의 의미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도’를 사용한 질문 1에는 다른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을, ‘만’을 사용한 질문 3에는 다른 사람이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추론하여야겠으나, 제시된 대화 내용만을 바탕으로는 추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ChatGPT에게 추론이 필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추론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전제 유발 표현, 화자 및 주어의 확인도, 대안집합과 관련된 문장들을 변형하며 제시해 보았는데, ChatGPT는 비록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인 문장에서는 전제를 상당히 적절히 추론해 냈으나, 특히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의 화자의 확인도 및 초점사에 의한 대안집합 관련 현상의 추론에는 미비한 모습을 보였다.

ChatGPT는 피드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ChatGPT가 인간의 추론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Chat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신경망 학습 보안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복잡다단한 언어적 추론에 접근하며 자연언어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문금현(2004), 전제(前提)의 유형, 《한국어 의미학》 14, 223-254.
 우형식(1987), 명사화소 ‘-(으)ㅁ, -기’의 분포와 의미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2(1), 119-160.
 이정민(1978), ‘알다’라는 말의 분석, 《마음》 1, 60-65.
 임동훈(2012), ‘은/는’과 중황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217-269.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335-373.
 정우현(2020), ‘것으로 알다’의 사실적 해석 연구,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20.8, 65-79.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hierchia, G., & McConnell-Ginet, S. (199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MIT Press.
 De Marneffe, M. C., Simons, M., & Tonhauser, J. (2019), The Commitmentbank: Investigating Projection in Naturally Occurring Discourse, In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23(2),

107-124.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Kiparsky, K. & Kiparsky, C. (1971), Fact, in D. Steinberg & L. Jakobovits (eds.), *Semantics: An Interdisciplinary Reader in Philosophy, Linguistics and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5-369.
- Lambrecht, K. (1996),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Vol. 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ungmin (2018), Non-factive Alternants of the Attitude verb 'Know' in Korean, Turkish, and Hungarian, *Journa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58(1), 37-85.
- Lee, Chungmin (2019), Factivity Alternation of Attitude Verb 'Know' in Korean, Mongolian, Uyghur, Manchu, Azeri, etc. and Content Clausal Nominals,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0(4), 449-503.
- Levinson, S. C., Levinson, S. C.,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56), 479-493. Strawson, P. F. (1950), On referring, *Mind* 59(235), 320-344.
- Sellars, W. (1954), Presupposing, *The Philosophical Review* 63(2), 197-215.
- Rooth, M. E. (1985), *Association with Focu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Tonhauser, J. (2016), *Prosodic Cues to Speaker Commitment*, *Semantics and Linguistics Theory* XXVI, CLC Publications, 934-960.
- Tonhauser, J. et al. (2018), How Projective is Projective Content? Gradients in Projectivity and At-issueness, *Journal of Semantics* 35(3), 495-542.
- Vallduvi, E., & Vilkkuna, M. (1998), On Rheme and Kontrast. In *The Limits of Syntax*, Brill, 79-108.

토론문

김태호(부산대)

본 연구는 인공지능 chatGPT가 인간의 언어 추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밌는 주제의 연구입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인간과 chatGPT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경험, 학습 등에 의해 축적)를 기반으로 언어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chatGPT의 자연어처리(언어추론)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인간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chatGPT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의 의도)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질문(의 의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chatGPT의 언어처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나 chatGPT나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확률 계산을 하는지는 인간과 chatGPT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chatGPT의 작동 원리, 인간 언어 처리 방식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한 커멘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chatGPT는 “단어들 사이의 의존 관계를 고려하는 Transformer 모델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그 예측 결과는 확률적이다.” -->> 예측 결과가 확률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 예전의 자연어처리(NLP)의에서는 주로 해당 표현이 특정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확률을 예측하였다면, 지금의 chatGPT는 확률 계산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확률에 의존한 결과예측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hatGPT에게 판단이 아닌 작문을 스스로 해보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hatGPT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결과를 예측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델로 하여 작동합니다.

예문 (5) 시간 부사절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여행을 다녀왔다.” -->> 말하는 시점(졸업식 이전, 졸업식 이후)에 따라 졸업을 했다는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문 (5') 시간 부사절 “희성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퇴했다.” 에 대한 판단에도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 즉 화용론적인 정보의 개입이 아닌 세 가지 표현 '졸업하다, 자퇴하다, 전(before)'의 의미결합만으로 졸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제의 처리에는 의미론적인 정보에 더해 화용론적인 정보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라는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2.1의 존재 전제: 먼저 chatGPT에게 명령을 할 때 매번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명령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예문 (6) ‘프랑스의 왕’ 예문을 보면, (1) 결과가 (2), (3), (4), (5)의 결과와 다른데, chatGPT가 (1)질문을 통해 질문에 내용을 이미 학습하고, 이후 답변에서는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hatGPT를 사용하기 위해 prompt command를 어떤 것으로 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prompt command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chatGPT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결과 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5)에 대한 답변이 질문 (1),(2),(3),(4) 답변과 다르다고 하였는데, 큰 틀에서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tGPT는 프랑스에 왕이 부재하여 적절한 답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대되는 답변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 --> 인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기대되는 답변을 하는지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정우현찌개와 우현찌개 --> “우현”이라는 소고기 부위가 있기 때문에 chatGPT에게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우현”은 사람이름이기 때문에 chatGPT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대체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현’ 대신에 찌개로 아주 유명한 쉐프 이름을 넣어 질문을 했다면, 원하는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아마도 ‘정우현’이 누구야?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나 chatGPT나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합니다.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여 추론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아마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정보를 얻어 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것인데, chatGPT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대하는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chatGPT에게 prompt command(질문)를 제시할 때 답변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위한) 정보를 얻어도 된다고 알려줌으로써 답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그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가 참이라면,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항상 참일까? -->> “그간 음식을 하다가 드디어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시점’이 대체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지 되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chatGPT는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해버렸네요. "그는 그 시점에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이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밥을 먹기를 멈췄다"라는 문장이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습관이나 행동을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그 시점에 실제로 밥을 먹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문장이 사용된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 1번 질문에 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chatGPT는 1번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학습효과때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는 결혼하고 담배를 끊었다" -->> 두 사건의 선후와 상관없이 “결혼도 하고, 담배도 끊었다. ‘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장 해석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5의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러나 언어의 해석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 해석이 모

든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인간도 각자의 경험이 달라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chatGPT도 가지고 있는 학습 정보에 따라 늘 다른 예측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표 6에 대한 답변(3장 마지막 단락):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것을 기억하다’가 쓰일 수 있는 경우에 ‘것으로 기억하다’가 쓰였다는 점에서 화자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될 것이다. ‘것으로 확신하다’가 쓰인 질문 6에 대해서는 ChatGPT가 화자의 확언도를 추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인간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표 7 질문 1에 대한 답변: “이 대화에서는 청아가 도착했다는 것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A의 질문은 학생들이 많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B의 답변은 청아라는 특정 학생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므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대화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chatGPT가 맥락을 사용하지 않아 그런 것일까요? 인간이라면 어떨까요? 분명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표 8 질문 1은 표7 질문 1과 동일하지만, chatGPT의 판단과 답변이 다릅니다. chatGPT가 맥락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가? 인간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누가 현장에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현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A'는 누가 와있는지 물었고, 'B'는 현수가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는 현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현수만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표 8의 질문 3에 대한 답변: “이 대화에서,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도착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니다. 'B'는 "청아만 왔어"라고 말했으므로, 이것은 청아 외의 다른 학생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일 뿐,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분명 인간은 청아만 왔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chatGPT가 이것이 추정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는 ‘는’을 사용한 문장이다. ‘는’은 소극적 배제의 보조사로, 초점화된 대상 외의 대립항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질문 2에 대한 응답과 합치하기는 하지만, 질문 1과 질문 3의 응답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는’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의한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 그럼 어떤 답이 올바른 해석인가요?

ChatGPT는 비록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인 문장에서는 전제를 상당히 적절히 추론해 냈으나, 특히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의 화자의 확언도 및 초점사에 의한 대안집합 관련 현상의 추론에는 미비한 모습을 보였다. -->>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의 메타언어에 대하여 :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중심으로

오민석(상명대)

< 차례 >

1. 문제 제기
2. 선행 논의 및 연구 대상
3. 표제어 X와 A의 대체 양상
4. 표제어 X와 A의 의미 관계
5. 결론

1. 문제 제기

본고의 목적은 『표준국어대사전』¹⁾ 뜻풀이에서 확인되는 ‘일상적으로’를 통해 뜻풀이 기술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전의 뜻풀이는 표제어가 소속한 상위 부류를 가리키는 유개념과, 그것을 같은 부류 속의 다른 것과 구별하는 종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사전의 뜻풀이는 동일한 유개념을 갖는 단어들 사이의 대립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과일’이라는 유개념에 속하는 ‘사과’, ‘배’, ‘오렌지’ 등은 크기, 육질의 단단함, 껍질의 색 등 여러 특질에서의 대립성을 기초로 개별 과일로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제어가 종차와 유개념으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

- (1) ㄱ. 별똥별 ㉠ ‘유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ㄱ’. 유성 ㉠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
ㄴ. 백분(百分) ㉠ ‘십분’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ㄴ’. 십분 ㉠ 아주 충분히.
ㄷ. 수목(樹木) ㉠ 목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ㄷ’. 목본 식물 ㉠ 줄기나 뿌리가 비대하여져서 질이 단단한 식물.
ㄹ. 따귀 ㉠ ‘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ㄹ’. 뺨 ㉠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1)에서 보듯이 표제항 X의 뜻풀이로 ‘A를 Y 이르는 말’의 형식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1)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이래 중간(重刊) 없이 2008년 이후에는 웹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참조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 버전으로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1999』로 약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참고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은 2023년 5월 31일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이하 본문에서는 『표준』으로 약술하도록 한다.

기술은 (1ㄱ, ㄴ, ㄷ, ㄹ)의 ‘종차-유개념’ 형식이 아닌 A의 성격을 규정한 기술로 볼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2000ㄴ: 45-46)에서도 표제어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의 뜻을 나타낸다”, “… 임을 나타낸다”, “… 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을 가리킨다”, “‘…’을 이른다.” 그리고 “‘…’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같은 상위 언어적(meta-linguistic) 뜻풀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²⁾ (1)에서 확인한 뜻풀이 기술이 상위 언어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서태길 외 공역(2008:4)에서는 대상 언어를 풀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위 언어의 의미를, 홍종선 외(2009:414)에서는 단일 언어사전에서 어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특화된 상위 언어를 ‘메타언어’라 지칭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를 따라 ‘메타언어’로 지칭하도록 한다.

(1)의 ‘메타언어’ ‘A를 Y 이르는 말’에서 표제어 X는 A가 Y를 통해 그 용법이 구체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Y는 형태적으로는 ‘Y계, Y아/어/여, Y이, Y적으로, Y조(調)로’ 등으로 상세화할 수 있으며, ‘겸손하게, 비속하게, 익살스럽게, 낯잡아, 비유하여, 통틀어, 경계하여, 구어적으로, 전문적으로, 통속적으로, 정중히, 특별히’ 등 기술된 Y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Y는 복합적인 사용 양상을 보이는데 본고에서 ‘A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기술된 표제어를 다루는 이유다. 사전의 용례를 중심으로 ‘모두의 말뭉치’ 및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한 관련 용례에서 대상 표제어들의 사용 양상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메타언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사전의 뜻풀이 기술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에도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선행 논의 및 연구 대상

서태길 외 공역(2008:4)에서는 메타언어는 정보를 다루고 표시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³⁾ 『표준1999』 편찬 과정에서도 메타언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2000ㄴ)에서는 뜻풀이 형식을 다루면서 ‘가운데, 따위, 일부, 주로, 흔히, 예전에, 통틀어/아울러’ 등의 표현을 통해 표제어의 언어 내외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사전학적으로 메타언어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과 달리 메타언어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조선말대사전》(1992)의 동식물 풀이에서 확인되는 메타언어를 살펴본 김완서(2020), 사전에서 메타언어를 선정 시 유의할 점을 ‘꿀, 따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김진희, 한승규(2011), 그리고 사전 뜻풀이에 사용되는 차별·비하적 표현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와 차별·비하 표현과의 관계를 살펴본 유현경, 김상민, 이종혁(2022) 등이 사전 뜻풀이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를 중심으로 다룬 논의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전 뜻풀이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고는 하나의 메타언어만을 다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메타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은 『표준』에서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 기술된, 아래의 243개의

2) 이외 표제어의 특성·구조·용도·예시 따위나, 문법 정보에 넣기 어려운 문법 정보 등을 정의항의 뒤에 제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3) 서태길 외 공역(2008:4)에서는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 ① 사전 편찬학은 한 언어의 어휘, 혹은 한 언어의 변이형의 어휘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 ② 사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형식과 의미가 밀접하게 결합된 어휘소이다.
- ③ 사전들은 특정 언어의 모든 어휘를 기술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어휘 혹은 그 이상의 양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 ④ 사전 제작에서는 정보를 다루고 표시하는 메타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 ⑤ 모든 사전은 궁극적으로 그 언어 사용자들의 어휘적 요구에 자극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표제어다. 이 중 동사류 표현 ‘강기침하다’, ‘건기침하다’, ‘사재기하다’는 ‘하다’에 선행하는 ‘강기침’, ‘건기침’과 품사만 다를 뿐이어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가스기름(gas-), 감홍(甘汞), 갑각류(甲殼類), 갑작죽음, 강기침/강기침하다, 강치, 개구리헤엄, 개꼬리02, 개미피, 객관식(客觀式), 거북이, 건기침(乾-)/건기침하다, 경관06(警官), 경찰04(警察), 경찰관(警察官), 계명03(啓明), 계명성01(啟明星), 고깃집, 고도리03, 고뿔, 고토02(苦土), 고하04(高河), 곤충류(昆蟲類), 골락새, 곰장어(-長魚), 곰팡이류(-類), 곳간차(庫間車), 공알, 구구단(九九段), 구마 고속 도로(邱馬高速道路), 국가수반(國家首班), 국가시험(國家試驗), 글거지, 금강01(金剛), 급창이(及唱-), 기계독(機械毒), 기계충(機械-), 깔깔이, 꽃꼭지, 꽃사슴, 나라미01, 낙진01(落塵),. 남경01(男莖), 남근(男根), 너집, 단창02(短槍), 달개비, 대갈못, 대나무, 대두정(大頭釘), 대사01(大士), 대사리01, 대엽류(大葉類), 도토리나무, 독수리(禿-), 동물식물(動物植物), 들쥐, 디스크, 땅버들, 파리굴, 마니01(摩尼), 마니주(摩尼珠), 마마(媽媽), 마이신, 마이크, 말개미, 말거미, 말벌, 맛바람, 맞은바람, 명성02(明星), 모니터, 모르모트, 무수기, 물혹, 밍크, 밝기, 방사능진(放射能塵), 방사진(放射塵), 발삼문(-三門), 백곰(白-), 백양02(白楊), 버마재비, 번개탄(-炭), 범나비, 베프콩, 별똥, 별똥돌, 별똥별, 별똥재, 병집(病-), 불02, 불알, 불알주머니, 붉은코, 봉산소다(硼酸-), 비단개구리(緋緞-), 비추01(屎脛▽), 빨간불, 빨간약(-藥), 삐삐01, 사재기/사재기하다, 사팔눈, 산안장(山鞍裝), 산중왕(山中王), 살림비용(-費用), 색사진(色寫眞), 셋별, 생계비(生計費), 생활비(生活費), 서성06(曙星), 석혹(石-), 성기02(性器), 성하01(星河), 성한02(星漢), 소다01, 소방관(消防官), 속병01(-病), 속증(-症), 손02, 손님, 손님마마, 숨구름, 송장헤엄, 쇠01, 수도세(水道稅), 스타이로폼, 스테인리스, 스티로폼, 스피로헤타, 시위장이, 신성04(晨星), 아기집, 아카시아, 아폴로눈병(apollo눈病), 악대말, 안삼문(-三門), 안수장(-修粧), 알라신(-神), 야채(野菜), 양간수(洋-水), 역새풀, 에밀레종(-鐘), 에이비시01, 여근(女根), 여린뼈, 열병01(熱病), 열사흘부스럼, 오랑캐꽃, 오줌보, 오줌싸개, 옥수수나무, 웅기굴(甕器窟), 웃, 왕때미(王-), 왕새우(王-), 왕과리(王-), 외문다위, 우멍거지, 우체부(郵遞夫), 우편배달(郵便配達), 우편배달부(郵便配達夫), 우편배달원(郵便配達員), 우한01(牛漢), 운한01(雲漢), 은하수(銀河水), 은한(銀漢), 음막(陰膜), 음문03(陰門), 음호01(陰戶), 이곽02(耳郭), 이내골(-骨), 이똥, 이뿌리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일모05(日母), 입격정, 입체01(立替), 작은마마(-媽媽), 잠약(-藥), 저금통장(貯金通帳), 전기세(電氣稅), 짓대, 조기품종(早期品種), 조달02(曹達), 좀생이, 주04(朱), 주관식(主觀式), 줄01, 쥐통, 짓병(-病), 증권01(證券), 짐자동차(-自動車), 짐차(-車), 짐표(-표), 차선03(車線), 차선폭(車線幅), 참대나무, 천하02(天河), 천한03(天漢), 천황03(天潢), 청산가리(靑酸加里), 청산소다(靑酸-), 축사나무(축사-), 카폰(자동차 전화), 칼크, 콧줄, 큰사마귀, 큰새우, 태06(胎), 털복숭아, 통기타(통-), 파란불, 파래, 판권(板權), 팔뚝, 폐병01(肺病), 폐질01(肺疾), 폐환01(肺患), 풍류(風流), 풍신대접(風神待接), 하문02(下門), 하이포, 하한03(河漢), 한 대-림(寒帶林), 해01, 해부도01(解剖刀), 해부칼, 햄스터, 허팻병(-病), 혈반(血斑), 호리병박나무, 호반03(皓礬), 홍릉02(弘陵), 횃가루(灰-), 횃물(灰-), 효성02(曉星)

이후 논의에서는 이들 표제어 X와 A 사이의 대체 양상 및 의미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3. 표제어 X와 A의 대체 양상

논의 대상 표제어 240개는 어종별로 분류하면 고유어 83개, 한자어 94개, 외래어 19개, 그리고 혼종어 44개이다. 그리고 표제어 X가 대신하는 A는 고유어 30개, 한자어 149개⁴⁾, 외래어 11개, 그리고 혼종어 32개다. 나머지 18개는 아래와 같이 구 구성을 표제어 X가 대신하고 있다. 『표준』에 따르면 일상(日常), 일상적(日常的)이란, ‘매일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⁵⁾ 즉 ‘A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은, A가 매일의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며 A를 대신한 표제어 X가 매일의 생활에서 쓰는 표현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고깃집: 고기를 주로 파는 음식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구마 고속 도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의 내서 분기점에서 현풍 분기점까지의 일부 구간과 중부 내륙 고속 도로 지선을 합쳐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글거지: 한강 하류 지방에서, 몸의 길이가 13c. 이하인 송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나라미01: 물고기의 가슴지느러미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맞바람: 양편에서 마주 불어오는 듯한 바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맞은바람: 양편에서 마주 불어오는 듯한 바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입걱정: 먹을 걱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태06: 태반이나 탯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통기타: 공명통이 달린 보통 기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허팍병: 허파에 관한 질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물혹: 양성 종양이나 결절 따위를 통틀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독수리: 수릿과의 독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따위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파래: 식용할 수 있는 참홀파래 따위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햄스터: 황금햄스터 따위의 애완용 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갑각류: 갑각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곤충류: 곤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대엽류: 큰 잎을 가진 고사랏과의 식물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4) 풍류: 대풍류, 줄풍류 따위의 관악 합주나 소편성의 관현악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구 구성은 거칠게나마 관형어를 통해 구체화한 단어를 대신하거나((2)) 집합 개념으로서의 대상을 대신하는((3))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2)는 표제어 X로 단어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3)은 집합을 대표하거나 통칭하는 표현으로 표제어 X를 생각할 수 있다.

표제어 X와 A를 어종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단어 자체가 변화하기도 했고, 단어의 일부 구성 요소가 대체되기도 했는데, 그 수치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구법>구구단, 국가원수>국가수반, 채소>야채’(이상 한자어를 한자어로), ‘호박별>말별, 크낙새>골락새, 상수리나무>도토리나무’(이상 고유어를 고유어로), ‘알파벳>에이비시’(외래어를 외래어로)처럼 X가 A를 대신함에 있어 어종의 변화의 없기도 하지만, 다른 어종으로 대신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도 있다.

(5) 상호 이종의 X와 A⁶⁾

ㄱ. 한자어를 고유어로: 사상균류>곰팡이류, 착화탄>번개탄, 유성>별뿔, 별뿔별, 적신호>빨간불, 매점>사재기, 수면제>잠약, 돌연사>갑작죽음, ...

4)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척추 원반 탈출증’(디스크),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베트콩)과 같은 명사 연쇄 구성은, 구 구성이 아닌 단어로 분류한 A로 분류하였다.

5) 일상 ㉠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일상적 ㉡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 날마다 볼 수 있는.

6) A와 X 사이의 ‘>’은 A가 X로 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A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 X라임을 나타낸다.

- ㄴ. 고유어를 한자어로: 용기가마>용기굴, 마른기침>강기침, 호박벌>왕벌, 무당개구리>비단개구리, 외삼문>발삼문, 내삼문>안삼문, 컷바퀴>이곽, ...
- ㄷ. 한자어를 외래어로: 자동차전화>카폰, 매독균>스피로헤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베트콩, ...

어종 간의 교체와 관련하여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꾼 예들을 보면 어려운 말을 쉽게 다듬은, 순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기조는 (5ㄴ)의 ‘용기가마’의 ‘가마’를 한자어 ‘굴’로, ‘호박벌’의 ‘호박’을 ‘왕’으로 바꾼 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종을 가리지 않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꾼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뜻풀이에서 기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ㄱ)의 ‘갑작죽음’, ‘잠약’ 등은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돌연사’와 ‘수면제’에 비해 일상적인가는 의문스럽다. (5ㄴ)의 ‘이곽’ 역시 컷바퀴에 비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한편 상호 이종의 교체와 관련하여 ‘말X-ㅍX-큰X’ 형의 대체 양상이 흥미롭다.

(6) ‘말X-ㅍX-큰X’ 형의 대체 양상

- ㄱ. 왕개미>말개미, 왕거미>말거미
- ㄴ. 말매미>왕매미
- ㄷ. 왕사마귀>큰사마귀
- ㄹ. 호박벌>말벌, 호박벌>왕벌, 대하>왕새우/큰새우

표본은 극히 작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고유어 ‘말’, ‘큰’, 한자어 ‘ㅍ’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체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들 사이의 일상성에 대한 우선권이 고정되지는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표제어 X와 A 사이의 대체 관계는 형태적으로는 특정 구성 요소의 유무 여부에 따른 확장형과 절단형을 확인할 수 있다.

- (7) ㄱ. 확장형: 거북>거북이, 급창>급창이, 옥수수>옥수수나무, 참대>참대나무, 축사>축사나무, 호리병박>호리병박나무, 대>대나무
- ㄴ. 절단형: 클로르칼크>칼크, 홍릉터>홍릉, 최저생계비>생계비, 방사성낙진>낙진, 미국밍크>밍크, 스테인리스강>스테인리스, 아한대림>한대림, 마이크로폰>마이크, 방사성낙진>방사진

(7ㄱ)은 A가 형태적으로는 확장형 X를 갖는 경우로 ‘-이’가 붙는 경우와 ‘나무’가 붙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올챙이, 파리’ 등의 ‘-이’와 마찬가지로 명사파생 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광호(1993: 252)에서는 ‘올챙, 거북, 풀’이 의태어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적 속성을 갖는 데에 부족한 부분을 ‘-이’를 통해 보충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거북’보다 ‘거북이’가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⁷⁾ 다만, 이와 비슷하게 생각해볼 만한 ‘곰팡’, ‘곰팡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사전 기술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편 ‘나무’가 붙는 경우는 생물학적으로는 ‘나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언어적 표현으로 그 모양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⁸⁾ 그 모습을 부각하는 X나무 형식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될 수 있음도 이해 가능하다. (7ㄴ)은 A

7) ‘올챙이>올챙이’, ‘풀이>파리’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 기술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짐작 가능하다.

8) 옥수수나무 圖 ‘옥수수’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옥수수의 줄기가 긴 것을 나무로 보아 이르는 말이다.

가 형태적으로는 절단형 X를 갖는 경우로 형태적으로는 합성형의 A가 구성 요소 중 한 요소를 절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생계비, 낙진, 밍크’ 등이 A형인 최저생계비, 방사성낙진, 미국밍크 등에서 ‘최저, 방사성, 미국’이라는 기준선, 속성, 지리적 특성의 의미에 전염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⁹⁾

4. ‘표제어 X와 A’의 의미적 관계

앞서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이 표제어 X의 일상성, 매일의 생활에서 쓰이고 있음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 (8) ㄱ.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 ㄴ. 별뿔별을 보며 소원을 빌다.
- ㄷ. 삐삐가 울렸다.
- ㄹ. 생필품 사재기로 물건이동이 동이 나다.

(8)의 밑줄 그은 단어들은 『표준』에서 각각 ‘마이크로폰, 유성05(流星), 무선호출기, 매점01(買占)’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되어 있는 것들이다. ‘마이크로폰, 유성05(流星), 무선호출기, 매점01(買占)’에 비해, 언중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2)에서 살펴본 표제어 X가 뜻풀이 기술된 개념을 대신한 것으로,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추구하는 언중에게는 가장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 아닐까 한다.

- (2) 고깃집: 고기를 주로 파는 음식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구마 고속 도로: 중부 내륙 고속 도로의 내서 분기점에서 현풍 분기점까지의 일부 구간과 중부 내륙 고속 도로 지선을 합쳐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글거지: 한강 하류 지방에서, 몸의 길이가 13c. 이하인 승어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나라미01: 물고기의 가슴지느러미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맞바람: 양편에서 마주 불어오는 듯한 바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맞은바람: 양편에서 마주 불어오는 듯한 바람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입걱정: 먹을 걱정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태06: 태반이나 탯줄과 같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통기타: 공명통이 달린 보통 기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허팍병: 허파에 관한 질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A가 X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성이 떨어지는 단어라면, 구 구성과 ‘채소, 착화탄, 전기로’ 등 일부 표제어를 제외한 218개의¹⁰⁾ A 모두 전문어임도 주목할 만하다.¹¹⁾ 어종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과 순화 과정 사이의 관련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전문어라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과 대립되는 사용역과 관련해서도 표제어 X가 A를 대신하는 과정이 순화

9) 클로르칼크는 클로리데인, 클로르칼륨, 클로르프로마진 등 독성을 나타내는 선행요소인 chlor-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칼크’는 형태적으로 분석 가능한 단어이다. 다만 이 경우 칼크 외에도 가능한 ‘데인, 칼륨, 프로마진’ 등에 대해서는 언어학적 분석 외에도 해당 전문영역인 ‘화학’에서의 쓰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10) ‘베트콩’이 대신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은 표제어로 올라가 있지 않다.

11) 지명, 인명, 책명 등을 전문 용어로 보지 않는다면 흥릉터 등은 제할 수 있다.

과정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역과 관련해서 전문어로서의 외래어 표현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고유어 내지 한자어로 대신하는 과정 또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표제어 X와 A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과연 X가 일상성 외 다른 특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관계들이 보인다.

(3) 물혹: 양성 종양이나 결절 따위를 통틀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독수리: 수릿과의 독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따위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갑각류: 갑각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은 앞서 집합의 대표하는 표제어 X로 제시한 예들인데, 이중 물혹의 뜻풀이 기술에서 보이는 ‘통틀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 눈에 띈다. 본고에서는 다루는 대상들은 ‘A를 Y 이르는 말’로 기술된 표제어 중 Y가 일상적으로인 것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물혹’은 ‘일상적으로’라는 Y1에 더해, ‘통틀어’라는 Y2가 복합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ㄱ. 우리가 여행을 갈 바다는 고래류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ㄱ'. 고래류 ㉠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ㄴ. 개구리는 물과 물을 오가며 사는, 대표적인 물물동물이다.

ㄴ'. 물물동물 ㉡ 양서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ㄷ. 우리 동네 호수공원에는 저녁 무렵 새무리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찍기 위해 많은 사진 작가들이 몰려온다.

ㄷ'. 새무리 ㉢ 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이런 복합적인 기술은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¹²⁾ 아래 주어진 예들 외에도 생물의 종 분류를 나타내는 표제어들에서 ‘통틀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를 확인할 수 있다.¹³⁾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어진 뜻풀이까지 감안하면, 실제 본고에서 다루는 표제어는 270개다.

(10) 해삼(해삼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경골어류(경골어강의 물고기를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연골어류(연골어강의 물고기를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파충, 파충류(파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편모충, 편모충류(편모충강의 원생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포차무리, 포자충, 포자충류(포자충강의 원생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각물, 각족(연체동물 가운데 조가비를 가진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경류02, 고래류(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고해백합류(바다나리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도마뱀류(도마뱀과, 장지뱀과, 도마뱀붙잇과를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두족류(두족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12) ‘일상적으로’와 함께 이런 복합적인 구성의 뜻풀이를 보이는 단어로 ‘자’도 들 수 있다.

자(者) ㉠ ‘놈’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거나 일상적으로 이를 때 쓴다.

13) 물론 모든 생물 종 분류 표제어가 복합적인 뜻풀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분명히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표현의 사용 여부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준이 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근족충 ㉡ 원생동물문 가운데 엽상근족충강, 사상근족충강, 과립근족충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손01(해삼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새무리(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양서류(양서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영장류(영장목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조개류(연체동물 가운데 조가비를 가진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조류01(조강의 척추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조충02, 조충류(조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토육(해삼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
 독수리(수릿과의 독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따위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패류(조가비를 가진 연체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편모류(편모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포유동물, 포유류(포유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해삼류, 해서04(해삼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흡충류(흡충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히드라충류(히드라충강의 자포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양치류(‘양치식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이는 곧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는 매일의 생활에서 쓰이는, 일상성이 두드러짐을 뜻하는 것 외에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2000L:53)에서는 상위 개념, 즉 집합 명칭이거나, 총칭일 경우 쓴다고 했다.

- (11) ㄱ. 운동이 지나치면 모든 근육에 노폐물이 쌓여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든다.
 ㄱ'. 근육 ㉠ 힘줄과 살을 통틀어 이르는 말.
 ㄴ. 인공적인 새우 양식으로 인근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면서 원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ㄴ'. 맹그로브 ㉠ 아열대나 열대의 해변이나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는 관목이나 교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ㄷ. 학생들은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며 준비된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ㄷ'. 악기 ㉠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11)의 ‘근육, 맹그로브, 악기’는 집합 명칭으로 그에 속하는 다수의 개체들을 통틀어 이르는데, 생물의 종 분류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의 차이가 나는 것은 주석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과 ‘통틀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을 가르는, 분명하지만은 않은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연하게도 ‘일상성’과 관련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표성은 유사한 뜻풀이에서도 확인된다. 즉 ‘통틀어 이르는 말’로도, ‘대표하여 이르는 말’로도 뜻풀이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뜻풀이된 표제어가 있다는 것이다.

- (12) ㄱ.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ㄱ'. 동지선달 ㉠ 한겨울을 대표하여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2000L:53)에서는 ‘통틀어’와 함께 ‘아울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아울러’는 아래에서 보듯 각각의 독립된 대상을 지시할 때, 즉 병렬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했다. ‘아울러’가 ‘통틀어’와의 다른 점이라면 ‘아울러’는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확인되는 개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13) ㄱ. 그는 가무를 즐기느라 해가 지는지도 몰랐다.
 ㄱ'. 가무 ㉠ 노래와 춤을 아울러 이르는 말.
 ㄴ. 세관에서는 물품의 내용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물린다.
 ㄴ'. 수량 ㉠ 수량과 분량을 아울러 이르는 말.
 ㄷ. 생명을 고집함에 있어 인간이 초목금수와 무엇이 다르겠나.
 ㄷ'. 초목금수 ㉠ 풀과 나무와 날짐승과 길짐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외 표제어 X가 A의 소리나 모습에 빗댄 표현인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송장혜엄’과 ‘개구리혜엄’은 각각 ‘배영’, ‘평영’의 모습을 송장과 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삐삐’는 ‘무선호출기’의 호출 소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이때의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은 ‘비유하여,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과 같이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다.

- (14) ㄱ. 몸을 벌떡 누이고 송장혜엄을 치기 시작했다.
 ㄱ'. 송장혜엄 ㉠ ‘배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ㄴ. 아이들이 계곡에서 개구리혜엄을 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ㄴ'. 개구리혜엄 ㉠ ‘평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ㄷ.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삐삐를 치던 게 10년 전이다.
 ㄷ'. 삐삐 ㉠ 무선 호출기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15) ㄱ. 북두칠성은 바다 위에 걸려 있고, 은하수는 동서로 빗겨 흐르고 있다.고하(高河)를
 앓았는지 얼굴이 엷었다.
 ㄱ'. 은하수 ㉠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이는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들은 ‘은하수, 고하(高河), 성하(星河), 천하(天河)’ 등에서도 이런 빗댄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문을 확인하기 힘든 ‘고하, 성하, 천하’ 등을 과연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기술이 ‘일상성’ 외에도 ‘대표성’, ‘비유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사전 뜻풀이 기술에서 이들 X와 A 사이의 의미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표제어 X가 A를 대신한다는 언급이 끊이지 않았다. 대신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경우는 아닐지라도 특정 조건하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즉 동의관계로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의 관계의 양상을 여럿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다루는 ‘A를 Y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는 실제 사용 양상과 관련된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일상성’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순화 과정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는데, 실제 사용 양상에서는 순화 과정 외에도 회피 표현, 즉 금기어로서의 대체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¹⁴⁾

- (16) ㄱ. 마마를 앓았는지 얼굴이 엷었다.
 ㄱ'. 마마 ㉠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ㄴ. 내 얼굴이 이리 거친 건 손께서 패약질 부린 흔적이지.
 ㄴ'. 손 ㉠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ㄷ. 둘째도 지 형처럼 손님께서 그저 무심히 지나치시어, 곰보 자국 하나 안 남아야 할텐데

14) ‘고환’을 대신하는 ‘불, 불알’, ‘음경(陰莖)’을 대신하는 ‘남경, 남근’, ‘음부(陰部)’를 대신하는 ‘비추, 여근, 음문, 음호, 하문’ 등도 회피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아야 한다.

요.

ㄷ'. 손님 ㉠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ㄹ. 어느 병도 아니고 손님마마라, 서로 왕래하는 것도 꺼려질 수밖에 없다.

ㄹ'. 손님마마 ㉠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이처럼 다수의 대체 표현이 있는 A는 병명 외 '음경', '음부' 등 생식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천문과 관련한 몇몇 A에서도 다수의 표현이 대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ㄱ. 은하(銀河): 고하, 성하, 은하수, 천하, 성한, 우한, 운한, 은한, 은황, 천한, 천황, 하
한

ㄴ. 유성(流星): 별뚱, 별뚱별

ㄷ. 금성(金星): 계명, 계명성, 명성, 셋별, 서성, 신성, 효성

이 외에도 광두정(건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행정), 마른기침(의학) 등 다양한 사용역에서 복수의 표제어 X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A에 대해 일상성을 갖는 복수의 표제어 X가 개별 조건에 따라 쓰일 수 있었으리라 짐작하게 한다.¹⁵⁾

5. 결론

15) 다만 복수 표제어의 개별 조건은 영역별 전문 지식 및 한자어와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뒤에야, 보다 충실한 논의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0ㄱ),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0ㄴ),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8),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23), 표준국어대사전(Web), 국립국어원.
- 고석주(2007), 어휘의미망과 사전의 뜻풀이,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
- 김완서(2020), 《조선말대사전(1992)》 동식물 풀이의 제3 메타언어 출현 양상과 의미 특성, 《건지인문학》 27,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65-189.
- 김지혜(2022),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보완 내용 분석, 《반교어문연구》 61, 반교어문학회, 71-104.
- 김진희, 한승규(2011), 사전 메타 용어 선정을 위한 연구 - “꼴”, “따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45-70.
- 김현권(1989), 언어사전 정의의 구성과 유형에 대하여, 《언어학》 11, 한국언어학회, 73-93.
- 김현권(2013), 전문용어사전의 정의와 지식표상, 《한국사전학》 22, 한국사전학회, 32-71.
- 박재연(2011),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167-197.
- 박진호(2015),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의 뜻풀이에 대하여, 《동양학》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89-210.
- 박혜림(2019), 메타언어적 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 분석, 《새국어교육》 120, 한국국어교육학회, 97-122.
- 서태길, 김양진, 도원영, 이상혁, 권오희 공역(2008),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Hartmann ed.(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Academic Press.)
- 서태길, 김혜령(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문법 및 뜻풀이 정보,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19-166.
- 안의정(2016),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뜻풀이문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 28, 한국사전학회, 112-131.
- 유현경, 김상민, 이종혁(2022), 차별·비하 표현의 국어사전 뜻풀이 메타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170-208.
- 이광호(1993), 미지의 ‘-이’를 찾아서, 《형태》, 태학사, 227-256.
- 이기황(2007), 사전 뜻풀이문의 패턴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123-142.
- 장채린(2021), 한국어 문법 항목의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문법서의 종결어미 뜻풀이를 중심으로, 한국 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91-105.
- 정희창(2014), 국어사전의 문법적 해석,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5-28.
- 조은경, 한영균(2009), 사전 뜻풀이에서의 “이것”, “그것”, “저것”의 쓰임 분석, 《한국어 의미학》 29, 한국어의미학회, 229-250.
- 홍종선, 최호철, 한정환, 최경봉, 김양진, 도원영, 이상혁(2009),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 홍종선(2015),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뜻풀이 - 뜻풀이의 원칙과 실태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0,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29.

토론문

손평효(부산대)

선생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타언어 연구의 대상 혹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에서 확인되는 ‘일상적으로’를 통해 뜻풀이 기술에 사용되는 메타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목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전 용례의 대상 표제어들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고,
- 2)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메타언어의 특징을 살펴, 그리고
- 3) 사전의 뜻풀이 기술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살핀다.

그런데 이 논문을 읽은 뒤 “메타언어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관련되는 논문 몇 편을 통해 본 메타언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1) 메타언어란 ‘어떤 언어를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데 쓰는 말’을 의미한다.
- 2) 메타언어는 의미 기능이나 의미 범주가 아니라 의미 기술에 적절한 언어 표현이다. 따라서 무엇이 해당 형태의 의미 기능인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 의미 파악에 용이한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박재연 2011).

이런 정의에 바탕을 두자면, 메타언어에 대한 논의는 논의 대상의 기능이나 의미보다는 기술이나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기준을 둘 경우, 이 글의 논의 또한 사전에 기술된 메타언어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이나 바람직한 기술 방향 등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실제로 서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글의 목적 또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사항인 ‘대체 양상’이나 ‘의미관계’의 내용을 보자면, 표현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의미 기능이나 범주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종별 분류’나 ‘확장형/절단형’ 등에 대한 논의는 굳이 ‘일상적으로’에 해당되는 메타언어가 아니더라도 일반 논의로 접근 가능한 의미나 그 특징에 관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메타언어 논의는 여러 사전들에서 해당 표제어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느냐를 대조하는 방식에 바탕을 두고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뜻풀이에 알맞은 메타언어는 무엇인가’
- 2) ‘뜻풀이에 알맞은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3) (만약 사전 간에 통일되지 않은 기술 방식이 있다면) 보다 정교한 방식의 메타언어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기술 틀을 마련하는 방식은 없는가.

가령, 임흥빈(1995/1998: 445)에서 사전에서의 뜻풀이 검증의 도구로 ‘역방향 점검법’을 제안하였던 식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의 내용과 기존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타언어의 범위나 대상에는 일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사항과 저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최은정



2023.07.06.

들어가기 전에

범주

“ **속담**은 관용표현인가요?
 학생자 익남 | 등록일 2023.3.27. | 조회수 372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배우면서 문2에는 관용 표현과 속담을 구분했는데
 이년에 필수 라는 수업에서는 경교차 경용차 고차
 혹은 부활기에서 용은 모든 것 이 속담이 나왔는데
 이를 관용표현이라 나타내더라고요.”

↳ [답변]표현

답변자 익남익남 | 답변일 2023.3.28

안녕하십니까!
 “관용 표현”의 개념을 이해한 것인데, 그 역시 범주가 폭넓게 잡히는 것입니다. 다만, “속담”은 관용 표현의 범주에 포함되는 데에 “관용 표현”의 개념을 참고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관용*표현 “기부” 등 다양한 언어적 표현에서도 관용적 의미를 지니도록 활용되는 경우, 그 언어 사용에 지칭되는 것.

“ **속담**, **격언**은 ‘관용 표현’에 해당되나요?
 학생자 익남익남 | 등록일 2022.3.24. | 조회수 189

“속담”, “격언”은 “관용 표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관용 표현

답변자 익남익남 | 답변일 2022.3.26

안녕하십니까!
 “관용 표현”의 기준과 범주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속담, 격언 등도 넓은 의미에서 관용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관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관용 표현”은 “동”이상의 언어적 표현적으로 볼 때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 그 언어 사용에 지칭되는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관용표현하고 관용적표현의 차이점

작성자 조영하 | 등록일 2022.10.05 | 조회수 647

관용표현과 관용적 표현의 뜻을 알고 싶고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용어



N 관용 표현 구분

최근 VDU | 지리지 | 지리비 | 안동유형사 | 경상성 | 심포 | 뉴스 | 어학사전 | 지도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은,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www.nll.or.kr

(논문)관용표현의 형식론과 의미론

최종수 | 2012년 | by KCI/한글

지식백과

관용적 표현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는,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1. [답변]의미

답변에 관한 지사 | 답변일 2022.10.11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문어인 기사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글에서 사용하신 용어 혹은 표기 사항 등 모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대가리라는 표현이 관용 표현이라고 해도 되나요?

작성자 조영하 | 등록일 2021.12.05 | 조회수 199

사람을 대상으로, 부러 대가리 걸고놓는 라고 관용적 관용표현으로 인정 될 수있나요?



범위



"두 머리 보기를 줘다"라는 관용표현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조영하 | 등록일 2022.11.08 | 조회수 109

해당에서 문의 하신 관용표현을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머리 보기를 줘다"라는 표현은 관용표현으로 인정됩니다.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은,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두개골을 두 개의 머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용표현이 존재한다는 "두 머리 보기를 줘다"라는 관용표현이 통용되지 않아서 관용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러하여 관용표현이라는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1.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은,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2.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은,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1. [답변]표현

답변에 관한 지사 | 답변일 2021.12.09

안녕하세요!

"대가리"는 "목덜미"를 가리키거나 "사람의 대머리를 속죄의 자비로 빚"기때문에 사람을 대가리라고 하면 관용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관용표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관용, '관용 표현'은 '통'의 의미로 '일어'가 관용적으로 통용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경우, 그 언어 구성을 이루는 말'에 통용되는 경우를 대해 해칭한다고 보기도 가능합니다.

1. [답변]표현

답변에 관한 지사 | 답변일 2022.11.09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관용표현을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머리 보기를 줘다"라는 표현은 관용표현으로 인정됩니다.

관용표현이란, 통용되지 않은, 관습적인 표현을 지니는 언어 표현을 말하는데 이 관습이란 깊은 언어 사용에 세 가지 측면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언어, 문어, 관용표현의 관용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두개골을 두 개의 머리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용표현이 존재한다는 "두 머리 보기를 줘다"라는 관용표현이 통용되지 않아서 관용표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관용 표현?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우리 속담? 외국 속담?
격언/명언?
참신한 표현?
고사성어?
비속어? 은어?



Q 격언 / 명언 / 관용표현 구분중요 흠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 이 문장은 격언인가요? 관용표현인가요?

geok*** 2주전 Q11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꼭 진주목걸이 같은 내용이 주로 쓰고 있어오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 속담은 당연히 포함이므로 격언은 주로 사자성어, 사자성어 중에 자주 쓰고 널리 전해 내려온 말은 관용적 표...

Q 중국어 관용표현 속담,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 이 4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2.06.23

Q 관용표현, 속담, 격언 중엔 참신한 표현 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음주에 ...

2021.06.23

관용 * 격언 * 명언

Q 속담 관용표현 시험공부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속담과 관용표현 의 차이가 뭔가요?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공부다 재운...

김시우 2주전 Q11
속담과 관용표현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공에게 통용되는 표현"이라는 말은, 공 통용어라 구분의 범주는 맞으나, 공이 둘의 차이를 알지못, 지혜나 교훈이 담겼는지 여부"가 그 차이...

2022.04.24

Q 속담과 관용 표현 차이 이번 시험범위인데 속담과 관용표현의 차이를 모르겠어 요. 개념의 도호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 관용표현만큼 알았는데 속담이라...

민아수 2주전 3번째 Q11

속담 (俗話)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중언. 관용 표현 (慣用語) 을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경우. 그 단어 구성을 이르는 뜻. <https://blog.naver.com/...>

2022.12.01



논의의 시작

질문 1.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는?

질문 2. 관용 표현 교육, 문선과 잘못이 발생하는 원인은?

질문 3.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적 층위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노력은?

논의의 초점



✓ [Zoom Out] 관용 표현 교육의 근간 자료와 실태를 확인한다.

✓ [Focusing]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교사 인식을 점검한다.

✓ [Zoom In] 관용 표현 교육 내용화의 과제와 체계화 방향을 탐색한다.



“ 이론 충위  실천 충위 ”

한영주 · 김은성 · 최은영(2022) **주4연구**

교사 인식과 교육 현황 점검을 통한 **실천모색**

연구 방법



Zoom Out



Zoom In



Zoom-out 관용 표현 교육의 근간 자료 확인

[배대] 국어과 교육과정 내 관용 표현 교육의 위상
[재현] 교과서에 구현된 관용 표현 교육 내용 확인

Focusing 관용 표현의 개념, 범주 인식 점검

[현황] 관용 표현 교육의 실태 확인
[인식] 관용 표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 점검

Zoom-in 관용 표현 교육 내용화의 과제 & 원리 모색

[과제] 본질, 가치, 효율성 다잡기
[원리] 지식과 사용의 균형 잡기

01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

- 교육 내용으로의 가공 측면, 교수 측면, 학습 측면

관용 표현 교육의 본질·가치·목표 재확인

개념의 교육적 정련 미흡 - 범주 판별 기준 모호

↳ [교수자] 체계적 교수 어려움 + [학습자] 체계적 학습 어려움

교육 내용 점검 + 내용 선정·가공의 논리 확인

“교육적 소용의 혼선과 짚을 최소화”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

1.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

2. 관용 표현의 교육적 정련

3. 관용 표현의 범주 판별 기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면
다단어 구성.....이
관용성.....을 획득하는 현상

언어 보편적 현상



'관습적 사용'과 '관용성의 획득'



관습적 언어 사용 현상



관습적 표현의 형식 단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즉, 범위 설정의 문제

논의의 중심

- 의미의 非合成(non-compositionality)
- 형태·통사적 矯正性(fixedness)



'의미론적 특성', '어휘론법적 결어성'

낱말 차원

- 복합어, 은어, 비속어 등

문장, 담화 차원

- 속담, 고사성어, 격언, 인사말, 금기담 등



관습적 언어 사용 현상



관습적 표현의 형식 단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가?

즉, 범위 설정의 문제

다양한 용어의 공존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표현, 관용어구, 관용어법,
성구, 성어, 속어, 속어 표현, 익은말, 익힘말, 관용 표현...



관습적 표현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중립적 용어로 사용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은 '이질적 성격을 갖는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용어로, idiom을 포함하되, 이보다는 포괄적이고 다소 느슨한 정의(김진혜, 2010: 39)로 개념화

• 개념 정의의 포괄성, 추상성



관용 표현

충분한 조작성(operativeness)을 갖추지 못한(배인규, 2003: 309) 용어라는 한계를 내포

관습적 표현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사용



학문적 쟁점의 대상

관용 표현을 판별하는 기준이 다양하여 범주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렵고,
구성 요소의 일부가 생략되거나 변이형으로 표현되는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관용 표현의 개념과 기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 관련 연구 성과

관용 표현,
본디 복잡한 대상인가?

“개념과 범주는?”



전영주·김은성·최은영(2023)

관점
접근법

✓ 국어학 분야

✓ 언어교육학 분야

✓ 국어사전학· 국어정보학 분야



01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검토



선행주·김은성·최은영(2023)

시기	영역	교육 내용 및 성취기준
4차	문법	[고등학교] 속어의 유형과 품사의 전성을 안다.
5차	말하기	4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을 이해하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을 이야기한다. 6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 그 밖의 다른 사람의 말을 적절히 인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말하기	5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말하기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말한다. 6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효과적으로 말한다. 8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6차	쓰기	6학년 [국어]: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8학년 [국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에 맞게 속담이나 격언, 또는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언어	9학년 [국어]: 일상적 말 중에서 종의적이거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등의 예를 들어 보고, 그 말들을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읽기	11-12학년 [독서]: 독서의 원리 - 속담, 격언, 관용구 등 속어의 표현의 의미를 파악한다.
7차	듣기	6학년 [국어]: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듣는다. [수준별 교육 내용의 예] 말하는 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관인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듣는다.
	읽기	6학년 [국어]: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고 읽는다. [수준별 교육 내용의 예] 글쓴이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관인 등의 의미를 파악하여 읽는다.
	쓰기	7학년 [국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수준별 교육 내용의 예] 주어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관인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글을 쓴다.
	국어 지식	8학년 [국어]: 관용어의 개념을 안다. [기본] 관용어의 예를 찾아 그 뜻을 알린다. [심화] 관용어와 관용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11학년 [국어생활]: 속담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11학년 [국어생활]: 우리 고유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관용어, 관동적 말놀이, 규거어, 수수께끼, 고유 지명 등에 담긴 국어 문화를 발견하고 이를 국어 생활에 발전적으로 적용한다. 11-12학년 [문법]: 국어 어휘의 존재 양상을 이해한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사용



안병수 김은성 최은영(2023)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말하기	3학년 [국어]: 이야기나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하는 말을 한다.
2007 개정	문법 7학년 [국어]: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내용 요소] 속담, 잠언, 관용어의 개념 이해하기. 관용 표현 사용의 효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11-12학년 [문법]: 국어와 말-진동적 수사, 속담, 관용어 등에서 알 수 있는 선인들의 국어 생활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읽기 [7-9학년] 글의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속담이나 잠언 같은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009 개정	[5-6학년]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11-12학년] 올바른 문장 표현 효과와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담화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지시, 대칭, 접속 표현 등의 효과를 알아보고 속담과 같은 관용 표현이 주는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문법] 6학년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2015 개정	쓰기 9학년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표현의 종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교신인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
	[문법] 10학년 언어 공통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하고 비평적인 의사소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언어 공통체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할 때에는 고언어나 속담, 격을 예시로 반영된 담화 자료...)

“ 각 영역의 내적 논리 안에서 개념이나 용어, 범위의 설정 등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한 양상 ”

- 검토 결과 1. 영역역치, 변화교과-학년 내용 요소: 국어과 이해 표현 영역, 문법 영역을 아우르는 내용 요소로 자리함
- 검토 결과 2. 영역별 강조점의 차이
 - [기능] 이해-표현의 차원이자 대상임을 강조, '속담'에 주목, 표현 효과 구성에 기여하는 내용 요소로 관용어, 격언, 명언 등을 포함
 - [문법] 지식과 사용의 패러다임 병존: 어휘적 지식 요소 중 하나이자(읽기), 이해-표현 국면에서 활용해야 할 언어 자원(무려 쓰기)임을 강조

관용 표현의 개념과 사용



안병수 김은성 최은영(2023)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2015 개정 초·중·고 국어과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단원의 교육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식 이해	관용 표현, 관용어의 개념 관용 표현의 종류 개별 속담 및 관용어의 의미 속담 사용의 이유 속담 및 관용 표현의 사용 방법과 효과	관용 표현의 개념과 종류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의 개념 관용 표현의 사용 효과 -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의 표현 효과 개별 관용 표현의 의미	언어 공통체 및 담화 관습의 개념 관용 표현 속담의 개념, 특징 말과 관련한 속담
과정 기능	개별 속담 및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상황과 속담을 연결하기 주제 및 의도에 맞는 속담 찾기 속담을 활용한 말하기 관용 표현을 활용한 말하기, 의도 파악하기	개별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 관용 표현을 활용한 의도 파악 상황에 맞는 속담 찾기 주제, 의도에 맞는 관용 표현 찾기 관용 표현을 활용한 글쓰기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 재구성, 재창조	속담에 담긴 사회문화적 특징, 담화 관습 파악 속담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 비판적 평가 속담의 재해석 및 재구성
가치 태도	문화적 자원으로써 속담 탐구	속담의 가치 탐구	속담에 담긴 말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검토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2015 개정 초·중·고 국어과 교과서 내 관용 표현의 정의와 범주 제시 양상

비일관성

학교	관용 표현의 정의	범주
초등학교	틀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F2)	관용 표현 속담 관용어
중학교	틀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특별한) 뜻으로 굳어져서(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 (M2, M3, M4, M7, M8)	M1, M2, M3, M4, M5, M7, M8 다양한 표현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통정 사자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틀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 (M5)	M9 다양한 표현
	속담이나 관용 표현, 격언, 명언은 사람들이 오래 쓰이면서 원래의 의미와 다른 특정한 의미를 나타냄 (M1)	속담 관용구 좌우명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굳어진 표현(M6)	M6 관용 표현 속담 관용어 격언
고등학교	틀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H7)	H7 관용 표현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 관성어
	언어 공동체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말로, 틀 이상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 원래의 뜻과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진 것(H9)	H9 관용 표현 ⇒ 속담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2015 개정 초·중·고 국어과 교과서 내 관용 표현 관련 단원의 유형별 사례 수

비중
위계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검토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	기타
E1	38				
E2	8	20			
M1	12	12	2	2	
M2	3	3	3		
M3	3	3		2	
M4	4	2	3	1	
M5	18	13	2	7	사자성어(4)
M6	3	8	1	1	명어 속담(1), 사자성어(3)
M7	5	3		4	
M8	7	6		4	
M9	21	7	좌우명(3)		부록(속담 20개, 관용구 20개)
H1-12	2-7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2015 개정 초·중고 국어과 교과서 내 관용 표현 학습 활동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검토

교육과정 교과서

2015 개정 초·중고 국어
전범주·심운상·최은영(2023)



교육부(2019L: 88)

1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의 종류와 의미를 조사해 보자.

활용하려는 표현	표현의 종류	표제
- 술이 서서 거기	비유	깊은 일을 격조로 이루려면 참을 여유적으로 이르는 말
- 술이 막에 닿다		
- 금이 가는 것이 두 세 번더		
- 이삿짐 싣는데 반장 은 정성이 흐른다		

노미숙 외(2019: 93)

2 관용 표현을 쓰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관용 표현의 효과를 조사해 보자.



이삼형 외(2019: 28)

3 다음 관용 표현의 의미를 조사해 보자.

새를 키우는 법이다	물고기 사육하는 법이다
사자(獅子)의 법(法)이다	호랑이(虎)의 법(法)이다



김진수 외(2019: 178)

위계
 변별

관용 표현 교육 내용 검토

교육과정 교과서

2015 개정 초·중고 국어
전범주·심운상·최은영(2023)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2015 개정 초·중고 국어과 교과서 내 관용 표현 학습 활동의 담화 유형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해	표현	이해	표현	이해	표현
진교·정서	일상대화	E1, E2	E1	M4, M5, M6, M7, M8	M7	H5
	편지, 쪽지	E1		M9	M5	
	SNS				M8	
	수필, 일상 경험	E1	E2	M3, M5, M4, M5, M7, M8	M1, M3, M4, M5, M6, M8, M9	
	감성문			M4	M4, M8	
	드라마					H10
	소설 이야기	E1				H6
시조					H5	
실용	광고	E2	E2	M1, M2, M3, M4, M5, M8	M1, M2, M3, M7, M8	
	민설, 장면	E2	E2			
	소개 글			M2, M4	M4	
	표의 표현	E2	E2			
	기타 교육					H8
정보 전달	신문기사			M1, M4	M4	
	발표		E2			

위계
 균형

관용 표현과 국어교육의 관계

국민응답에 따른 관용 표현의 내용 기준



- ✓ 개념과 범주 제시의 非一貫性, 담화 구성 과정에서 관용 표현의 사회문화적 기능 고려 부족 양상 확인
- ↓
- ✓ 교육 내용의 불균형 초래, 교육 내용 간 연계나 위계적 접근 제한
- ↓
- ✓ 교육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 내포



핵심 키워드

관용 표현 교육의 **본질-가치**를 고려한,
이론적·실천적 **합일점**을 찾기 위한,
지리 희망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실태 점검		소통의 혼선·잡음 해소
	교사 인식 확인		체계적인 교육내용화

02

관용 표현 그리고 교육, 교육 실태와 교사 인식 점검



현황 점검



인식 확인

교사 인식, 교육 실태 점검 0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과 방법

- ✓ 관용 표현 교육의 실태 점검 문항 구성
- ✓ 관용 표현에 대한 교사 인식 확인 문항 구성
- ✓ 체계적인 관용 표현 교육 내용화의 원리 제안

실제적 증거 수집을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향 수립 및
교육 내용의 경편



연구의
내용과 방법

중거수집을 위한 설계의 기본 방향

조사 도구
설계



문항 설계의 기본 전제

- ✔ 교육적 가치 인식

 - 관용 표현의 국어교육적 위상
 - 관용 표현 교육의 필요성, 유용성
- ✔ 교육 내용 내적 논리의 타당성

 - 교육과정 내용 체계, 성취기준
 - 교과서 및 지도서
- ✔ 교육적 실천과 개선 방향

 - 교수-학습상의 난점
 - 내용 제시 단계, 방법, 평가
- ✔ 조사 대상

 - 표집 인원: 현직 교사 90인 이상(초/중/고 각 30명)
 - 대상 제한: 관용 표현 교육 유경험자
- ✔ 조사 내용

 - 현황 점검: 관용 표현 교수학습의 실천 현황 파악
 - 인식 확인: 관용 표현 개념, 범주, 체계화 방안

조사 문항의 범주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교육 현황** 학교 현장에서 관용 표현 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 2 **개념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어떠한가
- 3 **범주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범주 설정 기준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이해, 태도는 어떠한가
- 4 **내용화 방안** 교사의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목표 인식과 내용 선정 및 배열의 논리는 무엇인가
- 5 **실현 방안** 관용 표현 교육의 가치 실현 및 실제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제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교육 현황

학교 현장에서 관용 표현 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교수 장면

- 교과 교육 장면
- 비교과 교육 또는 개별 지도/보정 교육 차원



교수 대상 및 비중

- 지도 학년, 지도 시기
- 지도 시간 및 비중



수업 운영 방식

- 개념과 범주에 대한 명시적 지도 여부
- 교수학습 시 중점 사항
- 수업 시 주요 학습 활동, 수업 후 과제 부여 내용
- 평가 대상 포함 여부, 평가 방식(지필/수행)
- 영역간 연계 지도 경험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개념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어떠한가



교육 필요성

- 관용 표현 개념 지도의 국어교육적 목표
- 관용 표현 개념 지도의 교육적 의의와 효용성



개념 제시 타당성

- 학교급별 관용 표현 개념 제시의 논리
- '관습', '관용'의 의미 해석
- 학교급별 교과서 내 관용 표현 개념 제시의 문제점
- 체계적 이해를 위한 개념 및 문법 용어의 제안



수업 설계와 운영

- 개념의 명시적 지도에 대한 태도
- 개념에 대한 명시적 지도의 장단점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범주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범주 설정 기준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이해, 태도는 어떠한가



교육 필요성

- 관용 표현 범주 지도의 국가교육적 목표
- 관용 표현 범주 지도의 교육적 의의와 효용성



범주 제시 타당성

- 학교급별 관용 표현 범주 및 하위 요소 제시의 논리
- 구성 요소 일부 생략 또는 변이형 표현의 포함 문제
- 학교급별 교과서 내 관용 표현 범주 제시의 문제
- 체계적 이해를 위한 범주 설정 기준 및 하위 요소의 제안



수업 설계와 운영

- 범주 설정 기준의 명시적 지도에 대한 태도
- 범주 설정 기준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명시적 지도의 장단점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내용화 방안 교사의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목표 인식과 내용 선정 및 배열의 논리는 무엇인가

5 실현 방안 관용 표현 교육의 가치 실현 및 실제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제안은 무엇인가



내용화 접근법

- 관용 표현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적 (예) 사용, 지식, 문화
- 관용 표현 교육 내용 선정 및 배열의 논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 학교급별 관용 표현 관련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 학교급별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의 일관성, 연계성, 위계성
- 학교급별 교과서 내 관용 표현 제시 수준, 영역, 비중



교수학습 실천

- 전이력 제고를 위한 핵심 활동, 평가 방식
- 관용 표현 교육의 체계적 실천을 위한 지원 요구

- 1 **교육 현황** 학교 현장에서 관용 표현 교육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 2 **개념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어떠한가
- 3 **범주 인식** 교사의 관용 표현 범주 설정 기준 및 하위 요소에 대한 이해, 태도는 어떠한가
- 4 **내용과 방안** 교사의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목표 인식과 내용 선정 및 배열의 논리는 무엇인가
- 5 **실천 방안** 관용 표현 교육의 가치 실현 및 실제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제안은 무엇인가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분석 결과는
후추 제시하겠습니다.



03 남은 과제, 기대 효과



남은 과제



기대 효과



남은 과제

이후 진행 방향



본 연구 결과 제시를 위한 남은 과제

조사 결과의 의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검증과 의견 수렴

과제

- 조사 도구의 타당성 검증 요청
- 검토 결과 반영 및 최종 문항 확정
- 조사 시행 및 수집 자료 분석
- 결과 종합 및 성과 보고



본 연구 결과의 현장 기여도, 활용 방안

 이론과 실천의 합일점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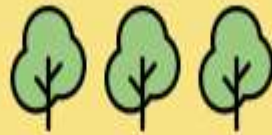
이론

- 교육내용화 방향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한 실제적 증거 확보
- 학교급별 교사 인식 차이 비교·분석 자료의 활용
 - 관용 표현 교육 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토대 제공
 - 교육 내용의 연계 및 위계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 자료로 활용

실천

- 교수학습 실천 목표 설정 및 구현을 위한 도움 자료 제공
 - 교수학습 상 어려움·오류 확인 및 교육적 처치 방안 모색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이해 및 실천력 제고
 - <국어>, <공통국어1,2>, <화법과 언어> 속 관용 표현 지도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에 대한 토론문

김중수(부산대)

(6월 28일) 선생님들 속담과 관용어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특징으로는 해당안되는 것들도 많아서요 ㅠㅠ 딱! 이 기준으로 속담 관용어가 갈린다 하는게 있을까요
(6월 30일) 1분이 한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관용구로 볼 수 없죠?

최근에 국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질문입니다. 관용 표현, 관용어, 관용구, 속담 등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관용 표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화 방향 설정과 구체화를 위한 실제적 증거를 수집한 본 연구가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수학습 실천 목표 설정 및 구현을 위한 도움 자료가 되고 교수학습 상의 어려움이나 오류 확인 및 교육적 처치 방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 관용 표현에 대한 국어학계, 국어교육학계의 이론 정립이 먼저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국어교육 현장에서 관용 표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어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 부재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관용 표현의 개념, 범위, 하위 분류 기준, 용어와 명칭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워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 인식을 연구하여 이론 부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론이 먼저 확정되어 있고 그 이론을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반영한 다음, 교사들에게 널리 홍보한다면, 현재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도 교육과정평가원도 국립국어원도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변별자질1	변별자질2	변별자질3
관용 표현	속어	+	+	+
	속담	+	+	-
	고사성어	+	-	-
	격언	+	-	+
	명언	-	-	-
	사은유	-	-	+
	유행어	-	+	+
	의례 표현	-	+	-

첫째, “연구자들이 합의된 이론은 이렇다, 그런데 현장 교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합의된 이론이 없으니 현장이 혼란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둘째, 본 연구의 초점이 위의 표를 만들 수 있는 변별자질1, 2, 3을 설정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지만, 위의 표처럼 변별자질에 의한 하위 분류는 1) 가능한 것인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지, 2) 지양해야 하는 것인지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위의 표와 같은 개념 구분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만났을 때 이것을 ‘관용 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도 매우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젓다’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젓다 ㄹ5 (비유적으로) 하늘이 어떤 빛깔을 띤 상태가 되다.

예) 노을빛에 젓은 하늘.

교사들은 비가 와서 축축한 ‘젓은 하늘’은 촉각적 심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노을에 젓은 하늘’은 논쟁이 생깁니다. ‘공감각적 심상’으로 설명하는 쪽이 우세하지만 사전에서 ‘젓다’를 ‘하늘의 상태’로 풀이해 두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시각적 심상’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번 째 질문은 이러한 개념 → 예시의 교육 방식을 예시 → 개념의 수업으로 바꾸려 할 때에 교사들이 흔히 부딪히는 괴로움입니다.

위의 표에서도 무리해서 ‘사은유’, ‘유행어’, ‘의례 표현’을 넣어 보았지만, 1) 이것들이 정말 ‘관용 표현’인 것인지를 학계에서 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구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 위의 6월 30일 질문처럼 ‘1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관용 표현일까요? 3) 지금까지 학교에서 ‘관용 표현’이라는 말을 조자룡이 헨 창 쓰듯 사용해 왔지만 그 실체가 모호했습니다. 이때 ‘조자룡이 헨 창 쓰듯’은 관용 표현일까요?

마지막은 단순 질문입니다. 형태·통사적 劃正性(fixedness)는 새로운 용어인지, 固定性的 오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스터 발표

테마형 답사 프로그램을 통한 훈민정음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연구

박지민(고려대)

< 차례 >

1. 들어가며
2. 콘텐츠의 개발 과정: 세미나와 테마형 답사
3.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소개
4. 나가며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훈민정음 관련 지식을 폭넓게 알려주는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현재 중등 교육과정에서 훈민정음 교육은 문자 훈민정음과 책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학부생 17명이 모여 2020~2021년 2년간 해당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내용뿐 아니라 『훈민정음』해례본의 서지 구성, 근대 이후 훈민정음 발전 과정 등 관련 지식을 폭넓게 담고, 끝에는 훈민정음 관련 지역을 표시한 멀티미디어 지도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콘텐츠의 개발 과정과 개발된 콘텐츠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1) 콘텐츠의 개발 과정: 세미나와 테마형 답사 콘텐츠 개발에 앞서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관련 저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국립 한글박물관, 광화문 세종이야기 등 훈민정음 관련 장소를 답사하고, 멀티미디어 지도에 포함될 사진을 찍었다.

2) 개발된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소개 이 콘텐츠의 내용은 ‘훈민정음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하에 크게 1부 ‘문자 훈민정음이 창제되다’, 2부 ‘책 『훈민정음』이 편찬되다’, 3부 ‘훈민정음이 널리 퍼지다’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1)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 생활, (2)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3) 훈민정음의 창제자, (4)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논의를 다루었다. 2부에서는 (5) 해례본의 뜻, (6) 해례본 정음편의 내용, (7) 해례본 정음해례 편의 내용을 다루었다. 3부에서는 (8) 훈민정음이 사용된 문헌들, (9) 해례본의 전달 과정, (10) 근대 이후 훈민정음의 발전을 다루었다. 콘텐츠의 말미에는 학습자가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한 멀티미디어 지도를 제시하였다. 이 콘텐츠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을 가다’라는 제목의 컨셉을 살려 지도, 길, 발자국 등의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였다. 둘째, MP4 형식 같은 일반적인 영상 형식이 아닌 상호작용형 HTML5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셋째, 성우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화면에 맞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 콘텐츠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학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장에서는 이 이러닝 콘텐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 콘텐츠를 통해 중·고등학생 학습자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훈민정음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훈민정음의 일부 내용만을 문법적 지식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으나, 학습자는 이 콘텐츠를 통해 그 이상의 지식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이 콘텐츠는 ‘훈민정음’이란 주제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모두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콘텐츠의 1부-2부-3부 내용을 통시적인 흐름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

자는 훈민정음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학습을 마친 뒤 학습자는 제시된 멀티미디어 지도를 통해 직접 관련 장소로 답사를 떠날 수 있다. 이로써 앞서 전근대에서 근현대까지 훈민정음의 통시적인 발전사를 따라 함께 걸어온 학습자는, 이번에는 '현재'에 자신이 직접 훈민정음 관련 장소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남으로써 최종적으로 훈민정음의 길을 완성하게 된다. 이 콘텐츠는 훈민정음의 역사적 변천을 현대 학생의 삶과 연결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사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모피 동물 명칭의 어원과 어휘사

- ‘너구리’, ‘삼’, ‘족제비’를 중심으로 -

양재영(서울대)

< 차례 >

1. 머리말
2. ‘너구리’의 어원과 어휘사
3. ‘삼’의 어원과 어휘사
4. ‘족제비’의 어원과 어휘사
5. 맺음말

동물명 어휘는 변이가 크고 지시 대상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역사적 기원과 변천을 밝히는 데 난점이 많다. 본고는 ‘너구리’, ‘삼’, ‘족제비’ 및 관련 동물명의 어원 및 어휘사를, 이들이 주로 가치 있는 모피를 생산하는 동물이라는 점에 주로 착안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라소니’와 같이 모피동물 명칭이 접촉이나 교역을 통해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너구리’가 발달한 과정을 조망하였다. 현대 한국어 ‘너구리’는 훈민정음(1446)의 ‘러울’로 처음 문증되는데, 어두에 /ㄹ/이 오는 점에서 고유어가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구체적인 외적 기원에 대한 논의는 상당수가 현대어 ‘너구리’의 의미를 기준으로 삼는 오류가 있었다. ‘너구리’계 어형은 16세기 후반까지 수달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소학언해(1588)에서부터 수달이 아닌 모피동물을 가리키는 용례가 대부분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자 獺의 의미 영역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동의보감(1613)에는 수달의 의미로 분화된 듯한 ‘멍울’이 문증되며 이는 오늘날 지명에도 남아 있고, ‘바닷반달피[海獺皮]’의 ‘반달’은 ‘빈달[獾]’의 오각일 수도 있지만 동시기 시경언해에서 물범을 가리키는 ‘반달피’ 용례를 참조하면 斑獺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너구리’의 차용 출처를 검토하면, 우선 인접 언어들에서 너구리나 늑대를 가리키는 명칭은 배제된다. 아이누어 rakko(해달)이나 만주어 lekerhi(海驢/海獺皮/江獺)는 어중음 /ㄱ/이 기원적일 것으로 전제하는 등 음운론적 문제가 있다. 또한 lekerhi계 어형은 원래 물개류나 海獺(해달의 분포로 보아 이 역시 물개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진어나 다른 통구스 제어 자료에 관련 어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늦은 시기의 차용어일 수 있다. 본고는 니브흐어 lanr(물범)을 ‘러울’(및 leker-hi)의 궁극적인 출처로 지목한다. 아무르강 유역과 사할린에 분포하는 니브흐인의 언어와 문화에서 물개류가 갖는 중요성과, 원이 사할린을 정벌하는 과정에 니브흐인이 깊게 관여했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모피를 바친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면, ‘러울’이 원대 후기에 동북 지방에서 차용되었고 이후 조선 왕실의 언어를 매개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함경 방언의 ‘녕에’계 어형을 ‘러울’의 반영으로 파악하면 이러한 추정에 더욱 힘이 실린다.

3장에서는 한반도의 오랜 토착종으로서 너구리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삼’의 어휘사에서 찾고자 하였다. 현대 한국어 ‘삼’은 구급방(1466)에서 ‘슌[狸]’으로 처음 문증되는데, 원각경언해(1465)의 ‘밧괴[狸]’ 및 함북 방언의 ‘멧고양이’계 어형 등을 고려하면 ‘슌’은 원래 너구리를 가리켰거나 적어도 포함했을 것이다. 한편 ‘삼’의 어원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동의보감(1613)에서 ‘족제비’로 처음 문증되는 ‘족제비’ 역시 통구스계 언어의 *cokci에

서 차용되었고, ‘비’는 ‘녹비’ 등과 같이 皮에서 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족제비는 한반도에도 널리 서식하나 북방 모피의 상품가치가 더 높았고, 여진인과의 모피 교역을 매개로 한 차용이 시기상 개연적임을 밝혔다. 이전 시기에 족제비는 쥐의 일종 또는 담비·살 따위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모피동물 명칭의 어휘사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